대회 보고 II

1973년—1975년

빈민선교 예수 그리스도 敎會

대회 보고 II

1973년 4월—1975년 10월

목　차

1973년 4월 대회 말씀

1973년 10월 대회 말씀

1974년 4월 대회 말씀

1974년 10월 대회 말씀

1975년 4월 대회 말씀

1975년 10월 대회 말씀

1973년 4월 대회 말씀

—제143 연차 대회 보고—

주의 힘으로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모두가 중요한 사람임

몇 주 전 어느 날 이 고장에는 눈보라가 매우 심하게 내리고 있었읍니다. 지난 겨울에는 이같이 혹독한 날씨가 많았읍니다. 바로 이날 미남의 젊은 군인과 그의 아름다운 약혼녀는 그들의 결혼식을 위해 솔트레이크 신전에 도착하는 데 심한 어려움을 겪었읍니다. 그녀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위치한 어느 지방에 있었으며, 그 군인은 인근 읍에서 와야 했읍니다. 심한 눈보라와 바람으로 야간과 이른 아침에는 도로가 차단되어 있었읍니다. 몇 시간 동안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던 끝에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은 그들을 도와 신전에 도착하도록 하여 계획대로 그들의 결혼식을 끝마치게 할 수 있었읍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 주고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대해 그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감사히 생각하는 마음은 표현할 길이 없었읍니다. 그 군인의 이름을 빌이라 부르겠읍니다. 빌은 다음과 같이 그의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였읍니다. "저희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장로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장로님께서 이처럼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까지 저를 도와 주신 이유를 저는 모릅니다. 실은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하지요."

나는 빌이 진정으로 그의 감사한 마음을 그러한 말로 표현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나 나는 단호한 태도로 친절히 이렇게 말했읍니다. "빌, 내 생애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도와 준 적은 한 번도 없다네.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어요."

이와 같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향은 근심에 잠긴 부인과 접견을 갖던 어느 날을 다시 상기하게 했읍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위기에 놓여 있었읍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에 가로 놓인 대화의 벽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애를 쓰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그녀는 감독님이 시간을 내어 조언을 하여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녀의 스테이크 부장님도 인내로써 이해심을 갖고 기꺼이 그녀를 돕고 있읍니다.

그녀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있읍니다. 그러나 그녀는 발전하고 있읍니다. 그녀는 합당한 경로를 통해 신권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 접촉을 많이 갖고는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도 다소 놀라고 있읍니다. 일전에 그녀는 그 동안 관찰한 바를 결론지어 말했읍니다. "저는 시간을 내시어 저한테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아무래도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신을 가리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때 이는 공정한 대우일까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정한가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정하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극이나, 불행, 어려운 목표, 실망 또는 기타 세상 일을 겪는다 해서 자신을 그렇게 인식한다면 이는 자신에게 매우 불공정한 짓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우리는 자신을 가리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만일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를 향하여 바라보고, 팔을 벌리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세우시고 강하게 만드셔서 개개인의 능력을 확대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그 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잠재 능력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읍니다.

암몬은 그의 형제 아론은 물론 오늘날의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읍니다. 앨마서 26장 10—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암몬이 말을 마치자 그의 형제 아론이 경계하여 이르기를, 암몬이여, 너희 기쁨이 교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노라 하니,

"암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힘이나 지혜를 자랑함이 아니라 보라 나의 기쁨이 차고 넘치나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려 함이라.

"내가…아노라. 나는 힘이 약하여 나를 자랑할 수 없으나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할 수 있으매, 나의 주를 자랑

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에 큰 기적들을 행하였으니, 이로써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슬픈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낯선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가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는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려 하고 남의 말을 기꺼이 경청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셉 스미스와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14세의 “보잘것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일에 회복된 영원한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그들이 19세의 장로들이나, 21세의 자매 선교사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웃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이유의 하나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구유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서 이상한 교리, 즉 “지상에는 평화요,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베푸노라”는 메시지를 외치는 자로 보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읍니다.

나는 여러분과 온 세상에, 요셉 스미스의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시어 요셉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우 강렬한 느낌을 받으며 알았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가끔 세상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자들을 택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그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읍니다. 요셉 스미스의 생각과 자기 분석에 관한 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러한 일은 나로 하여금 깊은 반성을 갖게 하였읍니다. 만 십 사 세를 갓넘긴 나 같은 이름도 없는 소년이, 그리고 매일매일의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 한 소년이 당시 교파의 저명한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또 그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조롱을 받을 만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이러한 것을 나는 그후에도 여러 번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든 아니든 사실은 그러하였으며 이러한 핍박은 종종 나를 매우 슬프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내가 시현을 보았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었읍니다…”
(요셉 스미스 2서 : 23—24절)

나는 여러분에게 요셉 스미스가 자신을 “이름도 없는 소년”이라고 불렀으나 결코 “보잘것없는 소년”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이 만사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한 생애의 나날에도 생명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의 하나가 바로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이 원하고 필요로 하며 호감을 갖는 “중요한 사람”으로 발전시키는 것임을 깨닫도록 도와 주십니다. 이와 같은 청지기의 직분에 관한 우리의 첫째되는 책임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인생관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만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 조언을 주려는 나를 쳐다보며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저는 보잘것없는 애인걸요.”라고 대구할 때 내 마음은 매우 슬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의에 빠진 대학생이 “저는 학교에서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수천 명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지요. 정말 보잘것없는 학생입니다”라고 말할 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최근 접견을 가진 바 있는 어느 선교사에게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읍니다. 이 선교사는 “얼마나 자주 부모로부터 편지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가끔, 정말 가끔 한 번씩 받는답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형제님은 어떻게 하고 있죠?” 나는 물어 보았읍니다.

“그래도 매주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있읍니다.

이 젊은이야말로 그의 부모가 편지를 보내지 않을 때 자신을 “보잘것없는 아들”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젊은이입니다만 그는 그러한 태도를 조금도 갖지 않고 있읍니다. 나는 그와 함께 좀더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가 참으로 훌륭한 젊은이라는 것을 확신했읍니다. 그의 부모가 편지를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젊은이의 책임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열성을 다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나는 그 선교사의 부모님을 만난 적이 없으며, 어쩌면 앞으로도 만나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들의 아들인 이 선교사가 있으므로 “훌륭한 분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와 같은 생각에 따라 처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몇 개월 동안 여러 번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의 부름을 받아 그의 사무실에 가서 그의 초대를 받아 온 사람의 말을 그와 함께 듣고는 제언하거나, 관심을 보이며, 같이 당황하거나 고민을 한 적이 있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리 대관장님이 이러한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리 대관장님과 헤어지면서 다음과 같이 한 말을 잊지 않고 있읍니다. “나는 대관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읍니다.”

부모되시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되시는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또한 여러분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여러분이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청소년이거나 남녀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함께 경전에 있는 가장 훌륭한 비유 하나를 음미해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 : 11—32)

형제 자매 여러분, 원하신다면 이점에 대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자립하여 살기 위해 떠나가 버리겠읍니다." 얼마 후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낭비했읍니다. 그는 매우 비천하게 되었고, 몹시 굶주렸으며, 심지어는 돼지와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읍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탄식했읍니다. "비천한 신세가 되었구나. 나는 정말 하찮은 사람이 되어 버렸어. 나는 완전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한번 더 아버지의 반응의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며,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였으며,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였읍니다. 자기가 스스로 "보잘것없는 아들"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읍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었읍니다.

기뻐하던 아버지는 또한 그의 당황하는 맏아들에게 그도 역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었읍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라고 아버지는 말했읍니다. 원하신다면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영원한 몫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그 몫은 모든 것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모두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이요 딸이며, 그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신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고 자존심을 갖고 처신하십시오. 스스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인식함에 따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태도는 완전히 없어질 것임을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도 중요하신 분이시며, 실제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가 그와 함께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나의 간증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파수꾼이여 악인을 깨우치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오늘날의 악을 깨우칠 우리의 책임

예언자 에스겔은 이같이 경고하였읍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 : 17—19)

영감을 받아 쓴 몰몬경의 예언자들은 오늘날을 보았고 원수의 전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읍니다.

"보라 그날에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권세와 성신의 은사를 부인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니파이이서 28 : 20—21, 26)

주님은 현대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주셨읍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은 땅끝까지 미치리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

"이는 저들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 (교리와 성약 1 : 11, 14—16, 38)

이 경고의 말씀은 140년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자기 만족과 악인의 기교에 눈이 멀지 않은 한 우리는 살아 있는 증언자입니다.

시온성의 파수꾼인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히 다지고 있는 기초를 흔들려는 악마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욕이며 권리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이러한 파수군의 일원으로 나는 이 의무와 목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두려움없이 나의 의무를 기쁘게 이행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시기에, 우리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단속되고 정부가 점점 우리의 일상 생활에까지 침범하는 경우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저해하는 비난을 두려워하여서는 안됩니다.

현재 처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는 완전히 경고에 뒤덮여 있읍니다. 이는 비난을 초래합니다. 우리 중에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활, 복지, 자유를 위협하는 것들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묵과하고 지나친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락한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기를 꺼리고 있읍니다.

교회는 영원한 진리의 터를 잡고 있읍니다. 우리는 원칙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시대 경향이나 압력이야 어떻든지 우리는 표준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충심은 동요될 수 없읍니다. 부도덕하고 부정한 행동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은 태고로부터 지고 온 하나님의 제자와 예언자의 짐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군으로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과업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희생시키고 적당히 타협하는 세상에 살고 있읍니다. 절충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읍니다.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대 교회의 파수군 한 사람은 이같이 경고하였읍니다.

"미지근한 충성심은 파괴하나, 정열적인 헌신은 모든 원인과 그것을 지지하는 자에게 생명과 생기를 줍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자, 항상 마지못하여 따르는 자, 가슴을 졸이면서 진리를 붙드는 자, 이러한 자들의 눈에는 그들 앞에 세상의 고난이 넓게 펼쳐진 듯이 보일 것입니다.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상의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중립이 있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타협을 경멸하는 굳건한 신앙은 교회와 그 회원을 승리로 이끌며 높은 목적을 달성하게 합니다.

"세상의 최종적인 승리자는 두렴없고 위축됨이 없이 진리를 붙들고, 예라는 말뿐 아니라 아니오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으며 '실수에는 타협이 없다'라고 새겨져 있는 깃발을 높이 휘날리는 자들이며 이들의 수는 적든지 많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생활을 관용으로 일치시킬 수 없읍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신조를 버려서는 안되며, 오히려 우리의 신조를 그들이 따를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복음은 영원한 진리 위에 있읍니다. 진리는 결코 없어질 수 없읍니다."(존 에이 윗소, 대회 보고, 1941년 4월, 116, 117페이지)

"국가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부패이다. 이는 토양의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도덕성의 부패를 의미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미합중국은 자유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미합중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자유의 원칙 위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자유롭습니다. 이 국가는 영적인 기초가 튼튼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 국가란 예언자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읍니다.

1831년 불란서의 유명한 역사학자 알렉시스 드 토커빌은 불란서 국가의 의뢰를 받아 미국에 와서 미국의 법원에 대하여 연구하였읍니다. 그는 미국의 정치와 사회 구조에 대하여도 연구하였읍니다. 10년이 못가서 드 토커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네 권의 저서를 내놓음으로써 일약 유명한 역사가가 되었읍니다. 다음은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그의 설명입니다.

"나는 미국의 위대성과 특징을 편리한 시설을 갖춘 항구와 광대한 하천에서 찾으려 하였으나 그것은 그곳에 없었으며, 미국의 비옥한 토지와 광대한 초원에서 찾으려 하였으나 그곳에도 없었으며, 미국의 풍부한 광산과 세계적인 교역에서 찾으려 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미국의 교회에 들어가서 의에 불탄 연단에서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미국의 탁월성과 그 위세의 비결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은 선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미국이 선하기를 그칠 때 미국의 위대성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예언자, 원칙, 그리고 국가의 유풍, 제럴드 엘 뉴퀴스 편찬 〔유타 : 솔트레이크시티, 퍼블리셔즈 프레스, 1964〕, 60페이지)

자유의 상태…선한 상태로 남아 있고자 하는 우리의 의리도 얼마나 강합니까? 가장 호감을 갖게 하는 형태로 가식된 거짓 사조와 거짓 관념은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으로 우리의 도덕 관념을 해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이들은 안전이라는 밝은 약속과 여러 종류의 확실한 듯한 보장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이름으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공통된 점, 즉 인간의 성품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를 말살시키려

는 공통점을 갖고 있읍니다.

거짓 안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러한 프로그램이 성원을 받읍니다. 가장 위험한 프로그램에 한층 더 매력을 느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시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유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 잃는 때도 있으나 소홀히 하기 때문에 잃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미국민과 세계의 자유민들은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경제와 정신적인 원리와 전통에 대항하는…즉 자유에 대항하는 범죄의 부속물로 골치를 앓아 왔읍니다.

이제는 선과 자유의 길을 진전시키도록 노력합시다. 주님의 도움과 축복이 있으면 자유 세계의 모든 국민은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이 오직 확신만을 가지고 내일을 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수년 전에 이렇게 문제점을 짚었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발전이 아니라 정신적인 발전이며, 지식의 힘이 아니라 도덕의 힘이고, 지식이 아니라 성품이며, 정부가 아니라 문화이고, 법이 아니라 종교이며, 볼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볼 수 없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강조해야 할 생의 일면이며 이 일면을 강화한다면 다른 한 면은 자연히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 기초가 굳건하면 상부 구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자, 원칙, 그리고 국가의 유풍, 35페이지)

자유로운 국민인 우리는 여러 가지 국면에서 위대한 로마 제국을 쇠망으로 이끈 양상을 따라가고 있읍니다. 유명한 역사가들은 로마의 쇠망을 초래한 제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읍니다.

"…로마는 우리 자신의 개척자의 기질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개척자로 시작하여 2세기 동안의 전성을 지나 그 절정을 이루고 점점 쇠퇴하여 3세기가 가기도 전에 멸망되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이끈 범죄는 둘째 세기말에 극심하였다.

"그 당시에는 게으른 부자와 게으른 가난뱅이가 극심하게 늘어갔다. 후자(가난뱅이들)는 오늘날의 우리가 실시하는 복지 계획과 같은 영구적인 배급을 받았다. 이 제도가 영구화됨에 따라 배급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다. 이들은 상당한 위세를 가지고 정치적인 집단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는 계속되었다. 소위 군주라 하는 자는 이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했다. 당시의 로마의 주축을 이루던 강대한 중산 계급에게는 점점 커지고 강력해지는 관료 제도를 지지하기 위하여 더욱 과세가 심해졌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수입에 부과세를 부과하였다. 정부는 적자 상태의 운영을 계속하였다. 오늘날의 50센트에 해당되는 은전 한 데나리온은 그의 은빛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정부가 은의 함량을 줄이자 구리색으로 변했다.

"그때에도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되었다. 순 은전은 곧 사라졌다. 숨겨진 것이었다.

"군복무는 로마인이 크게 명예롭게 생각하는 의무였다. 사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로마군에 자원하여 입대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풍요하여지자 로마의 젊은이들은 군복무를 기피하고 안락한 도시 생활을 즐기려 하였다. 이들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여자의 여러 모양, 의상을 따르는 등 거의 성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역사가들은 말한다.

"교사와 학자들 사이에는 견유학파라고 불리는 학파가 형성되었다. 머리와 수염을 길게 기르고 의복을 되는 대로 입고 다니던 이 학파의 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중산 계급의 가치관을 경멸하면서 세상적인 부에 무관을 표명하였다.

"도덕이 문란하여졌다. 교외나 도시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곳곳에서 폭동이 일고 때로는 전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 버리기도 하였다.

"게다가, 세금 징수와 통화 팽창이라는 쌍자 질환이 죽음을 몰아오려는 기세로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이 모든 요인들은 중산 계급의 기개와 야망을 압도하였다.

"로마는 무너졌다.

"현재 우리는 두번째 세기말에 다가서고 있다." (1969년 뉴욕주 아이젠하워 대학에서 행한 로날드 리건의 연설)

1787년 에드워드 기본은 그의 작품 로마 제국의 쇠망하기를 완성하였다. 그는 쇠망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인간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의 위엄성과 신성함을 부정.

2. 자꾸만 높아가는 과세와 민중의 향락에의 급식과 공급을 남용함.

3. 환락을 위하여 해마다 격렬해지고 난폭해지는 운동.

4. 실질상의 적이 국민의 부패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막강한 군비만을 무장함.

5. 종교의 부패…즉 신앙이 형식화되고,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잃었으며, 사람을 경고하고 인도하는 데 무기력해짐.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점이 있읍니까? 로마를 멸망시킨 그 요인들이 자유 세계의 국가를 멸망시킬 수 있겠읍니까?

역사 공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역사 공부를 현재라는 중요한 달성의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눈부시게 번창하는 이 시간에도 국가는 자체의 파괴의 씨를 뿌릴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내부가 약해지고 부패되는 한 결코 위대한 문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읍니다.

지나간 역사의 연구는 미래의 진로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는 지침이 됩니다.

자유 세계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분기하여야 합니다.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원리…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원리…가 과거에 성공을 이룬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제와 도덕은 진실이라는 형체의 분리될 수 없는 양면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와 우리의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자유 세계의 기초적인 전통으로 여겨졌던 정신적이며 도덕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굳건히 서 있읍니다. 우리는 태초로부터 문화의 기초를 이루어 왔던 영원한 진리를 저해하려는 모든 악마의 유혹에 대항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 지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크고도 중요한 첫번째 계명에 순종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또한 높은 정신적, 도덕적 원리를 고수하는 성품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고귀한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순결이 시대의 사조가 될 수 없읍니다.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지켜야 할 표준을 한 가지 주었는데 그것이 도덕적인 순결의 표준입니다. 우리는 낙태를 반대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가정과 가족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성스럽지 못하고 순결치 못한 모든 행동을 반대합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계속될진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와 재물 획득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번영, 안정, 자유가 깃들인 정신적인 지주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시며 죄악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국가의 품안에 있을 때 안전이 있읍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주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주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읍니까?

국가가 드리는 기도의 세력은 원자폭탄의 위력보다 더 강하고 더 무섭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원을 열 수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손으로 제조한 어떠한 능력보다도 강하고 위대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였읍니다. 우리는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고도 강력한 기도는 자신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옛날식의 가족 기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증명된 진리인 옛날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인으로서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는 축복의 원천, 자유와 도덕적, 정신적 표준에 대한 위협, 겸손해야 한다는 필요성, 고귀하고 시간이 증명한 축복을 고수하려는 용기있는 행동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교회의 진정한 힘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헌신적인 회원에게 주어지는 보상

이 위대한 사업에 함께 종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태버나클에 들어올 때면 언제나 이 건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우리의 개척자 선조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건물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리를 가르칠 전당으로 헌납했읍니다. 우리가 이 단 위에 서서 신앙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참으로 위대하고 성스러운 신뢰감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저는 바로 그런 뜻에서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세상의 여러 곳에 있는 훌륭한 형제 자매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읍니다. 그들 중의 몇몇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감명을 받았읍니다.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 아시아에서 온 한 해군 장교였읍니다. 그는 활달한 청년으로 군사 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에 왔읍니다. 미국 해군에 있는 미군인 동료 중 몇몇 사람의 행동에 그의 마음이 끌렸읍니다. 또 그들은 그 장교와 신앙에 대해 이야기도 주고받았읍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읍니다. 동료들은 그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온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읍니다. 또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과 현대의 예언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으며 주님의 복음도 가르쳤읍니다. 성령이 그의 가슴에 감화를 주어 그는 침례를 받았읍니다.

내가 그를 소개받기는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읍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읍니다.

"형제님 나라의 국민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또 형제님의 나라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왔읍니다. 이제 형제님이 기독교인으로, 특히 몰몬인으로 귀국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겠읍니까?

이에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렇게 말했읍니다. "저의 집안에서는 실망을 하겠지요. 아마 저를 쫓아낼 것입니다. 저를 죽은 자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나의 장래와 사회 생활에서 모든 여건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나는 "복음으로 인해 그같은 큰 희생을 치를 수가 있겠읍니까?"라고 물었읍니다.

눈물에 젖은 그의 검은 눈동자가 총기어린 그의 얼굴에서 반짝였으며, 이윽고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읍니다. "복음은 진리가 아닙니까?"

나는 그러한 질문을 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렇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이 말에 그는 "그런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읍니까?"라고 덧붙이는 것이었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도 "복음은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읍니까?"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교회의 성장율 통계를 보았읍니다. 참으로 놀랍고 반가운 결과였읍니다. 그것을 보고 최근의 인기 텔레비전 프로 담당자인 조 개래지올라가 전국 기독교 연합회의 회장인 딘 엠 켈리 목사와 대담했던 내용이 생각났읍니다. 그 목사는 널리 알려진 큰 교회의 회원 수가 줄어드는 예를 지적하고 반면에 급성장을 하고 있는 다른 교회단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회원이 줄어드는 교회는 "교회가 회원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고, 어떤 사람이거나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 또 회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하며, 어떤 신앙적인 요구나 봉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반면에 그는 시간과 노력과 재산의 희생을 요구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읍니다.

그는 이어서 "미국에서 백만 이상의 회원을 가진 교회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솔트레이크시티에 본부를 두고 있는 말일성도들의 몰몬 교회인데 그 성장율은 연 5퍼센트이며 이는 급속도의 성장율이다."라고 말했읍니다.

이것은 놀라운 분석입니다. 이것은 모든 지각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알려 줍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가지 교훈은 헌신과 희생과 규율을 요구하는 종교는 그 회원이 충성을 다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그러했읍니다. 구세주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읍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 : 5)

여기에는 예외가 없읍니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읍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다른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로도 그 뜻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았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인간의 영원한 결과를 다루는 조직체라면 어떤 지침이 있어야 하며 또 그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어떤 규제를 위한 조치나,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길을 기대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없읍니다. 기쁨을 얻는 값은 클 수도 있고 희생이 따를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현실을 통해 인품과 힘과 고귀함을 얻을 수 있읍니다.

무엇이고 허용할 때는 결코 위대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읍니다. 성심과 충성과 힘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어려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수양으로 일어나는 내적 투쟁을 통해 얻어지는 미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면이 하나 있으니 이것 없이는 자기 수양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는 억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러한 규제는 없읍니다. 공포 때문에 강요된 규제는 그 결과로 얻을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개인의 확신에서 오는 긍정적인 규제는 참으로 경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종교적인 문제에서 한 사람이 진리에 대한 커다란 확신을 얻게 된다면 그는 교회에서 바라는 요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자기는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위대한 대업을 위해 봉사할 때 기쁨과 만족이 온다는 것을 알아 스스로 수양을 쌓게 될 것입니다.

켈리 목사가 지적한 이 교회의 놀라운 발전은 교회가 회원들에게 지운 책임에서보다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요 행복과 평화와 만족이 의로운 봉사에 있다는 것을 안 회원들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웅장한 건물로 둘러싸인 역사적인 태버나클의 템플 스퀘어에 모였읍니다. 그러나 교회의 힘은 이 건물이나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요, 교회가 운영하는 대학교나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시설이거나 목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참다운 힘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제 리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교회의 힘은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사업이 참된 것임을 아는 간증과 확신에서 나옵니다. 간증을 갖게 되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성취해야 할 목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 : 30)고 말씀하셨읍니다.

교회에서의 책임의 멍에 곧 교회 지도자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헌신적인 회원에게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며칠 전에 미국 동부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교회에 개종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한 엔지니어의 경험담을 들었읍니다. 선교사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내가 그들을 집안으로 안내했읍니다. 아내는 선교사의 복음 이야기에 열심히 참여했으나 남편은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읍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그에게 침례를 받고 싶다는 뜻을 비쳤읍니다. 그는 울컥 화가 났읍니다.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내가 알고 저러는 것일까하고 생각했읍니다. 시간을 빼앗겨야 하고 십일조 때문에 돈을 잃어야 하고 친구도 잃고 담배도 더 이상 피울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급히 옷을 주워 입고는 문을 소리내어 닫고 거리로 뛰쳐나갔읍니다. 그는 아내와 선교사에게 그리고 선교사들이 자기 집에 오도록 허락한 자신에게 욕지거리를 하였읍니다. 한참 후 몸이 지치자 화도 좀 누그러졌고 기도의 영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읍니다. 그는 걸으며 기도했읍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의 질문에 답을 주실 것을 간구했읍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한 느낌으로 "그것은 진리이다."라는 속삭임이 그의 마음에 들려왔읍니다.

"그것은 진리이다." "그것은 진리이다."라고 그는 계속 혼자 되뇌었읍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이 그를 그렇게도 화나게 하던 규제와 요구가 어떤 좋은 기회로 생각되기도 했읍니다. 그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아내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모인 회중들에게 자기 가정에 찾아온 기쁨을 이야기했읍니다. 십일조는 문제가 아니었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그의 전 재산을 드린다 해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읍니다. 봉사를 위해 바치는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았읍니다. 한 주일의 노동 시간을 조금 더 계획하면 되는 것이었읍니다. 교회에서의 책임도 문제가 되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생활을 통해 발전했고 생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읍니다. 지식과 기술 교육을 받아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세계의 사정에 익숙해 있는 이 기술자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의 생애에 일어난 기적을 간증하는 것이었읍니다.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은 일어납니다. 훌륭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나, 사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고집세고 현실만을 중시하는 사람이거나 간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며, 복음이 다시 지상에 회복되어 그 기회를 잃지 않는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간증의 불길이 조용히 타고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 : 20)

예수님은 신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 : 16

—17)

모든 사람이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이 이 사업이 갖는 경이로운 점입니다. 교사나 설교자나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간증을 전할 때 이외에는 그들에게 항상 의존하지 만은 않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욥 32 : 8)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사실인 것과 같이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것이 참인 것을 안다면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과 이웃에 대한 큰 책입과 가족에 대한 큰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참목적을 아는 사람이 되고자 스스로를 훈련시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교성 19 : 23)고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모든 총명을 넘어서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됩니다.

독일 베르흐테스가덴의 미국 군인 대회에서 한 총명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 자매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때 나는 그곳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읍니다. 그녀는 군의관으로 계급은 소령이었는데 그녀의 전문 분야에서 크게 인정받던 자매였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었읍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1963년 9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저는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났읍니다. 흰 샤쓰에 단정히 타이를 맨 두 젊은이가 문 앞에 서 있었읍니다. 머리는 단정히 빗고 있었읍니다. 젊은이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고는 이렇게 물었읍니다. '무엇을 판매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겠읍니다.' 이 말을 듣고 한 젊은이가 '우리는 판매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들입니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읍니다. 저는 그 선교사들을 집안으로 안내하여 그들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이 제가 간증을 갖게 된 동기가 되었읍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특권과 영광에 대해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 복음이 저의 마음에 가져다 준 기쁨과 평화는 바로 지상의 천국 그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저의 간증은 제 생애에 받은 가장 값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저는 영원히 감사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이 같은 방법으로 알려집니다. 이 부름은 아시아에서 온 나의 친구 해군 장교에게도 그와 같이 전해졌읍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기술자에게도 마찬가지였읍니다. 제가 방금 전해 드린 여의사에게도 마찬가지였읍니다. 이 자리는 이와 똑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천이 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성령의 증거를 간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그러한 증거를 가질 수 있다는 나의 간증을 드립니다. 복음의 진리가 옛날에 베드로에게 전해졌듯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읍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배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 : 13—18)

이 계시의 반석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원천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간증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하심입니다. 지옥문이 영원한 진리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욱 훌륭하게 갈고 닦으며 그것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모든 것에 관해 성스러운 마음으로 간증을 드리며, 이러한 진리를 아는 지식의 축복이 진리를 절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진리를 지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는 나의 복음이요"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니파이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신 구세주

대회가 끝날 이때가 되면 연사는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구세주의 가르침에 관한 주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는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을 요약하고 싶습니다만 한 때 주님이 가르치신 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구세주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며칠 동안에 일어난 사건, 다시 말해서 그의 죽음과 무덤에서 살아난 그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기록은 오래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그의 성역이 끝나지는 않았읍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번째 증인인 몰몬경도 우리에게 주님의 가르침에 관한 지식을 알려 줍니다. 이 기록은 구세주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해주며,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대속의 희생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니파이인 예언자들은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실 때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표적에 대해 예언

하였으며, 그들의 예언대로 이 땅을 파괴하는 큰 폭풍우가 갑자기 일어났읍니다. 일찌기 없었던 큰 천둥과 번개가 일었으며, 지진이 일어나 땅이 진동하였읍니다. 제이라헤믈라 성은 불에 탔고, 모로나이 성은 물에 잠겼으며, 그 주민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고, 모로나이하 성은 산으로 덮였읍니다. 대로는 무너지고, 다른 성들도 파괴되었으며,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거나 휩쓸려가 버렸읍니다. 폭풍우와 파괴가 세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며, 온 땅이 변하였읍니다.

태풍이 멎자 짙은 암흑이 뒤덮여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중에 사흘이 지났읍니다. 암흑 속에서 백성들의 애통하고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읍니다.

"온 땅의 만백성들 위에 한 음성이 임하여 부르짖어 이르기를,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이 백성이여,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온 땅의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나의 백성들의 선한 아들과 딸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매 악마가 웃으며 그의 천사들이 기뻐하노니, 이는 저들이 간악함과 가증함에 빠졌음이라."(니파이삼서 9 : 1—2)

음성은 온 땅에 일어난 파괴를 낱낱이 들어 말했읍니다. 태풍과 지진에 견디어 살아 남게 된 자들은 조금 의로운 백성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들에게는 회개와 구세주의 복음에로의 개종을 통한 소망이 주어졌읍니다.

그때 음성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읍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었느니라. 내가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며 나로 인하여 아버지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백성에게로 왔으되 저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올 것에 관하여 기록된 경전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니파이삼서 9 : 15—16)

주님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세의 율법은 성취되었으며, 자신은 더 이상 번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나는 세상을 죄에서 구하고자, 세상에 구속을 가져다 주러 온 것이니

"누구든지 회개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 이를진대, 내가 저를 받아들일지니, 이같은 자라야 하나님 왕국에 거할 수 있음이라. 보라 이러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버렸고 다시 취하였노라. 그러므로 땅 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나아와 구원을 받을지어다."(니파이삼서 9 : 21—22)

여러 시간 동안 땅은 고요하고 암흑에 싸여 있었읍니다. 그 후 다시 주님의 음성이 임하매 주님은 그의 백성의 처지 때문에 슬퍼하셨으며, 그들이 회개하고 그를 따른다면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듯"(니삼 10 : 6) 그들을 모을 것을 약속하셨읍니다. 암흑이 계속되다가 사흘이 지난 날 아침 땅이 요동하기를 그치고 모든 것은 고요해지고 평화스럽게 되었읍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서반구에 있는 미대륙의 많은 의로운 죽은 자들이 유대의 많은 성도들처럼 무덤에서 부활했읍니다.

많은 무리가 바운티풀 땅의 신전에 모였읍니다. 만일 우리가 성구를 읽으면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 위대한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그들은 지진과 바닷물의 유입으로 인해 땅에 일어난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 것에 대해 이야기했읍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음성을 들었읍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하시는지라." (니삼 11 : 7) 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매 흰 옷을 입은 인자가 하강하셨읍니다.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니파이삼서 11 : 9—11, 14)

주님은 열 두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 권능을 주셨읍니다. 그는 무리에게 다툼과 분쟁을 그치도록 권하셨으며, 구대륙의 그의 추종자들에게 전파했던 진리 곧 산상수훈과 주기도문과 모세의 율법의 성취에 대해 가르치셨고, 이외에 다른 것도 가르치셨읍니다. 그는 병자를 고쳐 주시고,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으며, 성찬을 집행하셨을 뿐 아니라 성찬에 관해 가르치시기도 하셨읍니다.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인들을 가르치실 때 그의 복음을 명확히 설명하셨읍니다. 그는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계획과 인간이 영생과 승영을 얻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을 설명해 주셨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여 내가 사람들 손에 달렸던 것같이 저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달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선악간에 저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누구든지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는 흡족한 것이요, 저가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아버지 앞에서 저가 죄없다 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베어 불속에 던져지리니, 아버지의 공의하심으로 인하여 저들이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로다.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의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나의) 복음이요…"(니파이삼서 27 : 13—14, 16—17, 20—21)

복음은 흔히 좋은 소식 또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계획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니파이인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따름으로써 지상에서의 그의 사명을 수행하였으며 그리하여 온 인류의 구속주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셨읍니다.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좁은 길의 관문을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교회의 신앙개조에 나와 있는 기본 신조의 근

원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3조, 제4조)

이 네 가지는 복음의 모든 원리와 의식 중에서 첫째되는 것입니다. 니파이인들에게 전한 구세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원리와 의식을 따른 후에는 반드시 생애 동안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구세주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저가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아버지 앞에서 저가 죄없다 할 것이나"(니삼 27 : 16)

첫째되는 원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읍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에 따른 후에 인간은 선악간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행위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는 인간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고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읍니다. 주님은 이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읍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달린 것이매 아버지의 권세로 내가 사람들을 인도하여 저들이 각각 행한대로 심판받게 하리라." (니삼 27 : 15)

복음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분석할 수 있읍니다.

첫째, 이것은 아론 신권의 권능으로 준비되고 전파됩니다. 교리와 성약 84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소신권은 계속 남아 있었으니 이 신권은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이 복음은 회개와 침례, 죄 사함의 복음이요…"(교성 84 : 26—27)

둘째, 충만한 복음은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에 의해 전파됩니다. 이 계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읍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로써 의식을 집행할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 의식과 신권의 권위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 없이는 하나님 곧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보고서 살 수 있는 자도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84 : 19—22)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 짧은 기간 동안 니파이인들을 가르치실 때 복음의 계획이 알려졌읍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준비시켜 주는 복음의 길은 명확히 표시되어 있읍니다. 성령으로 축복받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고 부활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도울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의 길이 밝히 나타내져 있읍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전하신 가르침, 즉 우리를 위하여 보존해 둔 미대륙의 백성들에 관한 기록을 감사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구세주의 성스러운 사명을 입증해 주는 또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나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압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만일 온 세상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원리에 따른다면 휴전 이상의 진정한 평화가 온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요 14 : 27)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평안이 구세주의 계명대로 실천하고, 지상에 살아 있는 그의 예언자의 권고에 따름으로써 우리에게 임하기를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가정의 영향력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훌륭한 가정 생활은 사회의 기본되는 기초요 힘임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가족과 가정 교육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젊은 세대에게 미치게 될 선한 영향력에 대하여 이 대회에서 이미 많이 언급된 바 있읍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가정을 강화함"이라는 훌륭한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현재 각국어로 많은 나라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읍니다.

세상에서는 가짜와 저속한 사람이 인정을 받으며, 잘못이 묵인되고 있는 반면 가족과 가정 생활의 중요성을 글로 써서 발표하고 말하는 현명한 자들의 수가 불어나고 있는 것 같읍니다.

이러한 지도자 중 한 분은 이렇게 썼읍니다. "…강한 유대를 가진 가정 생활은 문화는 물론 백성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폴 포프누, 가정 생활, 1972년 9월)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인류의 역사상 많은 나라들은 제마다 가정 생활을 타락시키고 그 대신 다른 생활 방법을 대치시키는 전철을 밟다가 뒤를 이어 사라져 버렸읍니다."

가정은 이기심없는 활동에의 참여와 책임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줍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의 복지와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문화의 변천에 대해 맨 먼저 던져야 할 질문 하나는 바로 '가정을 강화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태초에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 자녀를 갖게 하고, 부양하며, 사랑하고 지시하는 아버지와, 임신하고, 자녀를 낳으며, 양육하고 가르치는 어머니가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시키셨읍니다. 주님은 이와는 달리 다른 방법으로 그 계획을 세우실 수 있었으나 자녀들이 서로 가르치고 수련을 쌓으며 사랑하고, 존경하며, 감사하는 곳으로서 책임과 목적있는 유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단위 조직을 두기로 선택하셨읍니다.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어 마련하신 위대한 생의 계획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깊은 관계에 빠지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가정 생활을 이룩하지도 않고 자녀를 두는 것은 비극이며, 기본되는 가정 생활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사회는 기초가 없으며, 결국 붕괴되어 사라져 버리고 잊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831년 그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을 때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읍니다. 그분은 가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지 않으셨으며, 그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읍니다. 그분은 이렇게 명하셨읍니다. "또 시온…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성 68 : 25, 28)

우리는 각 가정 생활을 대조하여 보고 가정 생활의 축복을 압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메시지에서 리 대관장님은 다음 통계 숫자를 밝혀 주셨읍니다.

"미국 인구 조사국이 기록한 180,000건의 이혼 중에서…57퍼센트는 가정에 자녀가 없었고, 21.2퍼센트는 가정에 자녀가 한 명 뿐이었으며,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이혼은 1퍼센트 미만이었읍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다른 이념의 영향을 주는 외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읍니다. 그때 나는 부모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물어 보았읍니다.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것이었읍니다.

"마치 오리의 등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아무런 감명도 주지 않는 그들의 교사의 파괴적이며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철학과 이단설이 자녀들의 마음에 스며들지 않게 하며 자녀들이 진실한 신앙을 계속 갖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의와 진리로 가르칩니다."

참으로 훌륭한 대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을 위하여 마련하여 주신 방법이 바로 가정 생활, 가정의 밤, 헌신적이고 이기심없는 부모입니다.

10여년 전 미공군 소령이 자신의 시험 비행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는 자기에게 의로움을 가르쳐 준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읍니다. 그는 25개의 각종 군용 비행기를 타고 4,000시간을 비행한 경력을 갖고 있었읍니다. 그는 한국 전쟁시에 142회의 전투 임무를 띠고 비행을 한 적이 있었으며, 여러 개의 전시 공로 훈장을 받았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륙하기 전에 모든 비행사는 몇 분간 시간을 내어 안전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비행기의 엔진, 비행 조종 장치, 수압과 기압 장치, 기타 부속 설비를 최후로 점검합니다… 비상 상태에 대한 그의 반응은 본능적이며, 인간의 사고력과 반사 작용이 허락하는 한 전혀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점검표에서 빠진 사항이 있읍니다. 내게 있어서 그것은 안전 착륙을 위해 바퀴를 내릴 때에는 물론 성공적인 비행을 하는 데 필수 요건이 되어 왔읍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가장 훌륭한 판단력과 기술로써 내가 행동하도록, 특히 비상시에 대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알기로는…여러 번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극적으로 뜻밖에 주어졌읍니다…"

좋은 가정의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유아기와 어린 시절과 소년기에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위험한 일을 할 때에도 안전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읍니다.

이 소령은 두려워하지 않았읍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 : 30)는 주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알고 있었읍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꿋꿋한 정신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나 성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두려움은 그 자체의 항생체를 낳습니다"라고 말했읍니다.

던커크에서 필사적인 후퇴를 할 때, 다시 말해서 아무리 아마추어일지라도 항해할 수 있던 모든 성인 남자나 소년이 영국군을 구조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용감한 영웅임을 알았던 때에 영국 호텔 벽에는 이 세 글귀가 적혀 있었읍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옵니다.

신앙이 응답을 합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읍니다."

전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많은 남자들은 런던 격납고 옆에 있는 간판을 보고 그 간판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말에 따랐읍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떨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시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는 계시의 말씀을 인용하여 드립니다.

이와 같은 준비는 신앙이 싹트고 성격이 형성되는 유아기와 소년기의 훈련을 통해서 갖추어집니다. 배가 침몰되고 있거나 비행기가 추락 중에 있거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때에 신앙을 품으려 하는 것은 늦은 것입니다.

한 비행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나는 열 다섯번째의 비행 끝에 기도를 드렸읍니다." 다른 비행사는 "용기란 기도를 드리게 하는 두려움이라 할 수 있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자녀들이 수신기의 다이얼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현세와 영원한 내세에서 이행할 책임을 일찌기 배운다면 위기에 직면할 때에라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훌륭하게 대처하여 나갈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에게 기대되고 있는 모든 일을 성실하게 충실히 실행한다면 큰 죄를 범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니파이인 예언자는, "…너희 골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라"(앨 34 : 26)고 권고했읍니다.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약속한 것은 우리의 자녀에게는 참으로 큰 유산이 아닐 수 없읍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사 54 : 13)

훌륭한 부모라면 누구나 그들의 자녀들이 이같은 평강, 곧 평안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안은 자신의 가정과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참된 말일성도의 평범한 생활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니파이삼서 18 : 21)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까?

나는 아이다호폴스에 있었읍니다. 거기서 나는 전형적인 몰몬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어느 가정에 손님으로 가본 적이 있었읍니다. 그 가정에는 부모와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모두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읍니다. 장남이 위험한 남태평양 기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읍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이리저리로 이동하는 그를 따라다녔읍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의 의로운 생활과 교육, 자녀의 순종과 사랑, 가정의 임무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그들은 내게 아들이 전선에서 보낸 최근의 편지를 건네 주었읍니다. 그 편지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몹시 겁에 질려 떨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읍니다. 그러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와 같은 공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렸읍니다.

"아버님, 나는 나의 종교를 매우 좋아하며,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또한 나는 아버님이 나를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영성이란 가정에서 싹트고, 가정의 밤과 하루에 두 번이나 그보다 더 자주 드리는 기도와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교회의 주례 모임을 통하여 발전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애의 기초가 되는 그와 같은 영성은 그 사람이 위급한 경우에 처할 때 그를 구조해 줍니다.

안전감이란 억대의 재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굴하지 않는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신앙은 가정에서 유년기에 싹트고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을 얻는 수단입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중에 있었던 유타주 출신의 젊은 군인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는 미국의 표준시 지대를 몇 군데 지난 아주 먼 곳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는 팔목에 그가 있는 곳의 시간을 가리켜 주는 시계를 차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또 다른 시간을 알려 주는 더 무겁고 오래된 큰 시계를 호주머니에 갖고 다녔읍니다. 그의 전우들은 그가 자주 팔목 시계를 보고 나서 또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구식 시계를 꺼내어 보는 것을 유심히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기심을 갖고 그에게 시계를 하나 더 갖고 다니는 이유를 물어 보았읍니다.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즉시 이렇게 말했읍니다.

"팔목 시계는 내게 현재 우리가 있는 이곳의 시간을 알려 준다네. 그러나 아버님이 내게 주신 이 큰 시계로는 이곳의 시간에 대한 유타주의 시간을 알 수 있지.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며, 매우 친밀한 유대를 가진 가족이라네. 큰 시계가 오전 5시를 가리키면 나는 아버님이 젖소의 젖을 짜기 위해 기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며, 시계가 밤 7시 30분을 가리킬 때는 나는 온 가족이 잘 차려진 식탁 주위에 무릎을 꿇고, 일용할 음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몸을 청결하고 명예롭게 간직하도록 보호하여 주시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안다네. 고전을 겪고 있는 때일지라도 나로 하여금 싸울 의욕을 갖게 해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일세…나는 지금 이곳의 시간이 몇 시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네. 그러나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현재 유타주의 시간이 몇 시인가 하는 것이라네."(본 알킴볼, "고향의 시간"에서 인용하여 수정함. 리더스 다이제스트, 1944년 5월, 43페이지)

나는 이 가족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 그 젊은 군인과 그의 부친도 알고 있었읍니다. 그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젖소들로 자기의 대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읍니다. 그러나 그의 최대 관심사는 우유와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필요로 하는 성장기의 자녀들에 대한 것이었읍니다. 나는 이 훌륭한 가족과 함께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드린 적이 있었읍니다. 가정 교육은 이 대가족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주었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이 교회에 속한 백만 가족이 이같이 매일 아침과 밤에 무릎을 꿇는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약 1억 가족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수억 가족이 매일 두 번이나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린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또한 전세계의 10억 가족이 가정의 밤을 갖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의 자녀와 가족과 지도자와 정부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린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이와 같은 가정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에녹이 경험한 승천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읍니다. 복천년이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에녹은 자신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에 대해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의 부친이 하나님의 길을 모두 가르쳐 주셨느니라."(모세서 6 : 41)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읍니다. 그는 사라졌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에녹과 그의 백성들은 거룩한 성 곧 시온에서 살았읍니다. 그러다가 시온은 하늘로 올리워져 갔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의 의로운 생활과 교육, 자녀의 순종과 사랑, 가정의 임무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가정에서의 이러한 성품은 자녀들에게 생활에서 안전감을 갖게 해주고 인격을 도야시켜 줍니다.

1세기 전에 씌어진 애더라이드 프록터의 다음 시에는 어머니의 말로써 표현된 가족의 단합과 부모의 참된 사랑이 강조되어 있읍니다.

"자녀가 없는 부자가 일곱 자녀 중에 한 아이를 얻는 대가로 안락한 생활과 안전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제의합니다. 부자에게 줄 수 있는 아이가 어느 아이일까요?

어느 아이일까요? 정말 어느 아이일까요? 나는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은 나를 바라보았읍니다.

난 내가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나의 음성이 이상하게 낮고 약해지는 것 같았읍니다.

'로버트가 한 말을 다시 나에게 말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머리를 숙이고 귀 기울여 들었읍니다.

그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읍니다.

나는 닳아 해진 남편의 낡은 옷을 바라보며

그가 가난과 직장의 일과 근심 걱정을 견디며 지내 온 모든 일을 생각했읍니다.

모두 다 내가 기꺼이 줄 수 없는 아이었읍니다.

나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일곱 자녀와

아직도 어린 일곱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이것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여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나는 말했읍니다.

'아이들이 곤히 잠자고 있는 동안 그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로 해요.'
그래서 나는 남편과 함께 손을 맞잡고 걸으며 아이들을 관찰했읍니다.

맨 첫째 요람으로 가만히 다가갔읍니다. 요람에는 아기인 릴리언이 잠자고 있었읍니다.

아빠는 살며시 허리를 굽혀 그의 거친 손으로 귀여워 못견디겠다는 듯이 아기를 만졌읍니다.
꿈 때문인지 아니면 소곤거리는 말소리 때문인지 그녀가 몸을 움직였을 때 남편은 목이 쉰 소리로 '잭는 줄 수 없어'라고 말했읍니다.

"우리는 바퀴 달린 침대 옆에서 몸을 구부렸읍니다.
황혼의 빛이
앳된 소년의 얼굴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읍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잠자고 있었읍니다. 나는 제임즈의 지친 불그스름한 빰도 보았읍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읍니다.
'그도 아직 어린 아이인걸요'하고 나는 말했읍니다.
우리가 서둘러 지나칠 때 나는 그에게 입을 맞추었읍니다.
창백한 얼굴을 하고, 앓고 있는 로비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읍니다.
끔짝도 않고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엿보였읍니다.
'천 개의 왕관을 준다 하여도 그와 바꿀 수는 없어!'
우리의 눈이 침침한 동안 그는 작은 소리로 말했읍니다.
'가여운 딕! 제멋대로 하는 못된 자식. 난폭하고 침착하지 못한 게으른 녀석. 이 녀석은 주어 버릴 수가 있을까? 아니, 그럴 수는 없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동안 그를 도와 주라고 명하시지 않았던가.
어머니만이 인내심을 갖고 이러한 자식을 대할 수 있읍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그 녀석을 위하여 침대 곁에서 기도드리는 당신에게서 그 녀석을 떼어놓지 않겠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살그머니 위쪽으로 가서 사랑하는 매리 곁에 무릎을 꿇었읍니다.
'매리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 말했읍니다.
남편은 잠자코 그녀의 빰에 가로질러 놓여 있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일부러 들어 올리면서
그의 머리를 흔들며 '여보, 안 되오. 저 애는 줄 수 없소.'
줄곧 나의 심장의 고동 소리는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울리고 있었읍니다.

"이제 남은 아이라곤 장남뿐입니다.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며, 착하고 명랑한 아들입니다.
아빠를 닮아서 그렇답니다. '여보, 안돼요. 정말 안돼요. 난 그 녀석을 가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지도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중하게 편지를 썼읍니다.
우리는 한 아이도 줄 수 없다고. 그러고 나니 마음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읍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일을 생각해 보니 늘 보이던 장소에서 그들의 얼굴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고는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일곱 자녀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감사히 생각했읍니다."

교회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방법을 알고 분명히 그대로 따르기를 나는 기원합니다.
나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성스럽게 부름받은 예언자임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시온의 스테이크를 강화함

143차 연차 대회에서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께서 행하신 연설

1973년 4월 6일은 경륜의 시기에 회복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같은 날에 받은 계시를 첫머리로 하여 다음과 같이 썼읍니다.
"이 말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은 이러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지 일천 팔백 삼십 년이 되는 해 네째달 곧 4월의 제육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명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에 좇아 정식으로 조직 창립되었느니라."(교리와 성약 20 : 1)
그 이후로부터 매년 4월 6일을 전후로 하여 교회의 대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또 다른 중요한 계시를 받았으며, 이는 오늘날 급증하는 교회 회원들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읍니다. 지금 인용해 드릴 경전의 말씀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는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고 그 경계가 넓혀져야 하며 그 스테이크는 강하게 되어야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은 마땅히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 : 14)
여기에서 말한 시온이란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았던 그 당시에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심한 고초를 겪고 난 후 겨우 조그마한 조직체로 시작하려는 소수의 회원들만이 있었으며 그들은 주님께서 "시온 땅"이라고 지정하신 미주우리주 잭슨군으로 모이라는 지시를 받았읍니다.
이들 개척 시대의 회원들에게 그들의 지상에서의 운명을 말하여 주듯이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계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기뻐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곧 시온이니라. 그러므로 시온은 기뻐하라. 한편으로는 악인들이 애통하리라."(교리와 성약 97 : 21)
시온이라는 성스러운 지명에 합당하게 되려면, 시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신랑으로 맞으려고 치장한 신부와 같이 의로운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계

시자 요한이 기록한 대로, 교회는 신랑을 맞으려고 치장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신랑을 맞으려고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한 아내로써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법은 좀 전에 인용해 드린 성구에 잘 나타나 있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며, 내적으로 사랑스러움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 거룩함과 선천적인 고결함을 풍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할 시온의 경계가 이제부터 넓혀져야 하며, 시온의 스테이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세계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부지런히 수행함으로써 시온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아직 어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 회원이 모두 하나로 집합되어야 할 때는 초기 성도들의 집합 장소가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불리우리라." 그리고 명하시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여러 국민의 기가 되게 하라."(교성 115 : 4—5)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회복된 것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사 2 : 2—3)는 고대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의 조직 단위를 스테이크라 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렇게 조직된 단위는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눈에 보이는 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방어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에 있어 하나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 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 : 12)

이 조직은 계시로써 설명된 바와 같이 "폭풍우가 내리치고 분노가 뒤섞임이 없이 그대로 온 땅위에 쏟아져 내려올 때에 방어진이 되며 분노를 피하는 대피소"(교성 115 : 6)가 되는 것입니다.

경륜의 시기의 처음부터 주신 모든 계명의 첫머리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 될 숙명적인 경고를 내리셨읍니다. 1831년 주님께서는 이같이 경고하셨읍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그날이 속히 임하는 줄 알게 하려는 자인 연고라.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때가 임박하였도다."(교성 1 : 35)

그로부터 142년이 지난 오늘날 주님의 날에 주님이 "이 세계의 왕자"이며 "모든 의로움의 원수"라고 말씀하신 사탄은 그의 위력을 가지고 자기의 영토를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무서운 경고가 오늘날 성취되어 가고 있지마는,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릴 만한 권세를 또한 주님은 계시로 약속하셨읍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 "시온의 백성"인 의로운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맺으셨읍니다.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아이두미아 곧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교리와 성약 1 : 36)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살되 세상의 죄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시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와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창세 이래 주님께서는 악마의 권세가 주님의 사업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결코 없었으며, 항상 그의 권세를 의로운 자들 가운데 펴사 의로운 사업을 멸망에서 구하셨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약속을 증거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교성 88 : 67)

주님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약속도 주셨읍니다. "보라 내가 너희 양떼를 돌보아 주겠고, 장로들을 일으켜 저들에게 보내리라. 보라, 나는 그 시간 안에 나의 일을 서둘리라."(교성 88 : 72—73)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그의 손을 우리 성도들 안에 펴고 계심을 볼 수 있읍니다. 경륜의 시기에서나 과거 그 어느 때에서도 오늘날과 같이 교회 회원들 사이에 긴박감이 있어 본 적은 없었읍니다. 교회의 경계는 넓혀지고 있으며 스테이크는 강화되고 있읍니다. 교회 초창기에 이미 특정한 지역이 성도들의 집합 장소로 지정되었으며 주님께서는 이 집합 장소는 변경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제한을 두셨읍니다. "그러나 드디어 성도들을 용납할 여지가 없게 되는 날이 이르면, 그때에 나는 저들에게 지정하여 줄 다른 장소를 가지고 있나니, 저들은 시온의 휘장 곧 시온의 힘을 위하여 스테이크라 불리우리라."(교성 101 : 21)

1972년 8월 멕시코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님은 이에 관한 훌륭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의 연설에서 몇 가지를 인용하겠읍니다.

"회복과 집합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에 대해서 니파이의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희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성약을 맺으셨으니 모든 유대인들이 참된 교회로 회복되며' '저들이 상속의 땅에 모여 저들의 모든 약속의 땅을 세워일으킬 때가 오리라.' (니이 9 : 1—2 참조)

"이스라엘의 집합은 위의 성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들이 참된 교회에 입교하고, 참 하나님과 그의 숨겨진 진리를 알며, 열방과 열국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속의 땅으로 모이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세워 일으킬 이스라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열방과 열국에서 주님과 성약을 맺은 백성들이 모일 것이라는 등의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맥콩키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연설을 맺으시면서, 각국은 자기 나라의 교회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자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읍니다.

"멕시코 성도들의 집합 장소는 과테말라에, 브라질 성도들의 집합 장소는 브라질에 있으며, 그렇게 하여 온 지상에 확장됩니다. 일본은 일본인의 집합 장소이며, 한국은 한국인의, 호주는 호주인의, 각국은 각 민족의 집합 장소입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쇠퇴 일로에 있는데 유독 이 교회는 눈에 뜨이리 만큼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종종 받았읍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근본적인 요인이 있으나,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교회는 "유타 교회" 또는 "미국 교회"가 아닙니다. 전세계의 78개국에 펼쳐 있는 우리 회원은 17개 국어로 복음을 배우고 있읍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교회 회원의 확장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한편, 교회의 지도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커다란 목표를 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항상 두 가지의 원칙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도하였읍니다.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은 이 지구가 놓여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구원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것이며,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를 통하여 밝혀졌고,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고 또한 오늘날 우리도 경고하듯이 이것은 변경되지 않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라디아서 1:8, 11—12)

교회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이 되는 대답은 우리는 교회의 근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앙개조를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9조)

말일의 경륜의 시기에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많은 교회가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이는 저들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교성 1:15—16)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회복이 필요했읍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여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

"또한 다른 자들에게도 계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였나니, 이 모두는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전파되며 왕과 통치자 앞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였더라.

"…저희의 말로 준 것이니, 이는 저들로 이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교리와 성약 1:17—18, 20, 23—24)

모든 교회를 하나의 우주적인 조직으로 통합한다는 기독교 통합 운동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본질에 있어서 이 운동은 그들의 기본적인 교리를 버리고 태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였던 원칙에 기초를 두지 않아도 좋은 애매모호한 조직으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가 명백하게 알려질 때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통합된 우주적인 교회가 설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법칙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짐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가 가르쳐지고 실행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사명감은 이렇습니다.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그러므로 주의 음성은 땅 끝까지 미치리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1:4, 11)

이러한 지시에 따라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견하였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젊은이들로서 어려서부터 선교사의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해 온 사람들입니다.

교회 초창기 손가락으로 셀 정도의 선교사들은 현재는 그 수가 17,000에 달하며, 자비로 2년 이상을 봉사하는 이들은 세계 어느 곳으로 가게 되든지 그들의 부름을 성스럽게 여기고 그 부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읍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는 또 다른 이유를 들 수 있읍니다.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적은 예전에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칙이 변경되지 않는 반면에, 오늘날의 세계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방법은 시대의 요구에 응수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주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응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지침을 주셨읍니다. 구원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인 인간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읍니다. 새로이 개종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는 기초적인, 세속적인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가정을 강화하고,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정직, 유덕, 고결함, 검약, 근면을 가르치도록 지침을 마련해 줌으로써 주님께서는 가정과 결혼 생활의 성역에 미칠지 모르는 무서운 영향을 막아 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각 회원들을 어린 시절에서부터 장년이 되기까지 지켜보며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의 회원 중에 도중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 중에 어떤 것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90배의 결실을 맺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의 비율로, 혹자는 미약한 대로 활동적이고, 혹자는 그보다는 좀더 활동적이고, 혹자는 완전히 교회에 활동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하는 자를 찾으며 그들을 다시 완전히 활동적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의 성장의 주요 원인은 교회의 모든 회원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스럽게 여기며 그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회원이 많아서가 아니고 신앙있는 회원들이 바치는 십일조의 양이 많아서도 아니며, 건물이 크거나 신전이 훌륭해서도 아니며, 오직 신앙있는 회원들의 마음이 이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요,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임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나의 훌륭한 사업 동료가 말했듯이, "교회의 복지 사업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선교 사업이 번창하지 못하고 회원들은 교회의 여러 기관에 조달할 자금을 기꺼이 기여할 만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주립 대학의 학생 회장은 우리 교회가 강해지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그가 내게 보낸 편지에서 몇 구절을 소개하겠읍니다.

"요즈음 이 사회에 만연된 급진적인 사상으로, 많은 지성인 단체가 경멸하는 가족 유대의 붕괴가 일고 있읍니다. 마치 국가는 성교육, 낙태, 자녀 수를 조절하는 일, 호색 문학, 여생 해방 운동, 남녀 혼성 집단 생활, 결혼 전의 성교, 결혼 후의 간음 등등을 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회장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로 끝을 맺었는데, 그것은 그의 깊은 영혼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읍니다. 그는 이렇게 썼읍니다.

"리 대관장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말일성도 학생들이 전념을 다하여 대관장님을 뒤에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려는 자들을 굳건히 막아 주시는 지도자를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서 자라는 우리 젊은이들이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명석한 대학생의 편지를 받아 보았을 때,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전념을 다하여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읍니다,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진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름은 교회의 모든 회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서 세계의 안전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교회 지도자들이 걷고 있는 의로운 길을 따르게 될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행동을 인도하는 주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은 모든 회원은 침례를 받을 때 신권의 능력으로 교회의 회원에게 약속된 성스러운 엔다우먼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신의 은사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앞으로 올 일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요 14 : 26 참조)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와 교사의 책임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유혹하고 교회 지도자를 따르지 못하게 유혹하는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명이 참으로 성스러운 것임을 알고 있으며, 항상 우리의 과업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교회 안팎에는 교회의 영향력을 위축하려 하고 결점을 찾으려 드는 적이 있을지 모르나, 이 교회는 끝까지 견디어 승리할 것이며, 주님을 대적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무기는 무력하여질 것임을 알고 있읍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비단 교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과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 각 사람과도 매일 교통하심을 알고 있읍니다. 이 모든 간증과 축복을 전세계에 퍼져 있는 신앙심 깊은 성도들께 남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지도자를 따르라

해롤드 비 리 대관장

신권 소유자가 받는 새로운 봉사와 책임의 부름

고대 상형문자가 발굴되어 인류가 가지고 있던 구구한 의문을 해결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상형문자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한 듯한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읍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1931년 10월 4일 앤소니 더블류 아이빈스 부대관장님께서 바로 이 연단에서 하셨던 말씀이 회상되었읍니다. 내가 그때의 말씀을 회상한 이유는 —그것이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그가 그 대회에서 주제로 삼았던 내용이 "돌에 새겨진 성경"이라는 최근에 발간된 발행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서적이 기자 또는 희랍의 피라밋에서 볼 수 있는 예언자적인 특징, 건축 양식, 상징, 또는 희랍의 건축 양식 등을 주로 다루고 있었음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피라밋의 크기, 상징, 기록을 연구한 학자들이 피라밋에서 기록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1928년은 앞으로 위대한 시련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증언할 것이며 이 시기는 1936년에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 시기는 주께서 강림하시고 인류 가운데 평화와 행복과 안녕이 이루어지는 시대와 일치될 것이라고 했읍니다.

아이빈스 부대관장님은 이 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현명한 충고를 들려주셨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읍니다. 이 책은 물론 모든 선교 지역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우리의 장로들도 이 책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께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에도 굴하지 말라고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결론이 그릇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교회의 소리처럼 우리에게 오지도 않으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매우 큰 의미를 준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셨읍니다. 어제 제이 골든 킴볼 형제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는 "꿈이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읍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읍니다. 나는 꿈이 현실화되었다고 믿고 있읍니다.

아이빈스 부대관장님은 말씀을 계속하셨읍니다. "세계 대전이 종식된 직후 이들 피라밋 연구 학자들은 이 책을 발행하면서, 그들의 측정과 통계에 따라서 세계는 1928년을 기점으로 하여 인류에게 시련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시기를 맞을 것이며, 따라서 인간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하며, 이러한 시기는 1936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읍니다… 이 꿈이 적어도 일부분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1930년대 당시의 국가적인 재정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후, 아이빈스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심오한 지혜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읍니까? 조용히 주님께 향하여야 합니다. …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때가 오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집을 정리하고 빚을 청산하라고 권면하였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을 때, 그 말은 다른 어떤 사람의 저서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말씀은 전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며 진실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대회 보고, 1931년 10월, 87—94페이지)

나는 위대한 신권의 소유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드리고 싶읍니다. 왜냐하면 머리말이나 광고에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교회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교회의 모범 회원인 양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각없는 저서를 출간하는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에는 사람을 선동할 수 있는 논리와 의견이 있읍니다. 그들은 교회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였으며, 이 인용구가 교회 회원들에게 팔고자 하는 이 책을 보증하는 전서인 것처럼 꾸며 교회 회원들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유인하고 있읍니다.

또한 대회에서 성도들을 모을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하여 훌륭한 회원임을 자처하고, 그렇게 하여 그들 자신의 사리를 위한 모임을 계획하여 대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참석토록 권유함으로써 그들이 아주 중요한 대회의 분반에 참석치 못하도록 하려는 자들도 있읍니다.

더우기 계획적인 사람은 교회 집회, 노변의 모임, 장로 정원회, 성찬식에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간청하기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이어 그들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기회를 찾는 이와 같은 술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권 소유자는 분명한 판단력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만한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려 내어야 합니다.

신권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오늘 저녁에 여러 번 언급되었읍니다. 1830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에드워드 패트리지에게 주어진 짧은 계시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이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도다. 보라, 나의 종 에드워드여,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복이 있도다. 네 죄는 사함받았고 나팔 소리같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의 손을 빌어 네 머리에 얹으리니, 너는 나의 영, 성신 곧 보혜사를 받을 것이요, 성신께서 네게 왕국의 평화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한 이 부르심과 계명을 네게 주리니,

"이 부르심과 계명을 받들어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과 요셉 스미스 이세 앞으로 오는 자는 모두 성직에 안수 성임되어 여러 나라 가운데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아,

"나의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 계명이 주어졌나니, 곧 성실한 마음으로 이 계명을 받드는 자는 모두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성직에 임명되어 파송되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런고로 네 허리띠를 졸라매라. 내가 나의 신전에 속히 오리라…" (교리와 성약 36 : 1—2, 4—5, 7—8)

나는 특히 이 중에서 한 구절을 들어 신권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의 손을 빌어 나의 손을 네[에드워드 패트리지] 머리에 얹으리니, 너는 나의 영, 성신 곧 보혜사를 받을 것이요, 성신께서 네게 왕국의 평화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며칠 전 나는 집사로 성임될 수 있는 연령의 유년단 그룹에 참석하였읍니다. 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집사가 되면 어떤 책임이 있읍니까?"라고 질문하였읍니다.

그들은 모두 "집사의 의무는 성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하여 좀더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집사의 의무를 설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성찬을 전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사가 성찬을 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된 빵과 물의 상징물을 전달할 때, 그것이 바로 빵과 물이 상징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리라는 성약을 새로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집사는 상징물을 전달하며 주님을 대표할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그는 회원에게 이 상징물을 전달하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교사에게 그 의의를 질문한다면 대부분 "뭐, 가정 복음이지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읍니다. "교사의 의무는 주님을 대표하여 각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고, 각 회원이 자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의무를 생각해 봅시다. "제사의 의무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석하며 훈계하며 침례를 베풀며 성찬을 집행하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며"(교성 20 : 46—47) 제사가 이러한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며 주님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하는 것임을 항상 생각하여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집행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름으로 그를 대신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신권이란 인간이, 집사가, 교사가, 제사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젊은 형제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읍니다. 만일 그들이 신권을 존중한다면 그들은 태너 부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더스톤 감독과 같이 되고자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신권을 가장 성실하게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 모양을 단정하게 손질할 것이며 신권의 의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부끄러움없는 옷차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내가 정원이나 다른 어느 곳에 있을 때 병자 축복과 같은 의식을 집행해야 할 때는 옷을 단정히 갈아 입고 가장 훌륭한 몸차림을 할 때까지 의식을 집행하지 않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감을 느끼게 되고, 또한 그의 앞에서는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장로의 신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장로로서, 혹은 칠십인으로서, 혹은 고등 평의원으로서 의식을 집행할 때 그들이 축복하려는 사람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빌어 주님이 손을 얹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권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신권 소유자인 우리가 하나님이 그의 성신권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절실히 느껴서 젊은 사람들에게 신권의 참다운 의의와 신권을 성실히 이행함에 있어서의 참뜻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읍니다. 우리 교회는 회복된 신권을 가진 가장 훌륭한 조직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 대회의 모임에서 여러분은 성교육, 호색 문학 등과 같은 세계를 휘덮는 위험한 시대 조류로 눈을 돌려보았읍니다.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신권을 성실히 수행하면 이러한 상태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신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강력한 방어선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봉사와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며, 나태하여 이러한 책임을 지나쳐 버려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위험에 처하고 있읍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고 오늘 대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용했던 "가장으로서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아내를 소홀히 하셔서는 안됩니다. 자녀를 소홀히 하셔서는 안됩니다. 자녀를 여러분의 주위로 끌어오십시오.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정의 힘과 결속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를 지킬진대 이 교회는 전세계적으로 그 힘으로나 영향력으로나 눈부시게 발전할 것입니다. 지나가는 소문을 생각할 필요는 없읍니다. 우리는 유덕하고 의롭고 순결하며 고귀하고 참된 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굳건히 서야 합니다.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협조자로 삼아 여러분의 가장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고 있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읍니다.

개회시에 나는 한 학생 회장으로부터 온 편지에 대하여 이야기했읍니다. 그 학생 회장은 교정과 그가 움직이는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의 편지 내용을 또 한번 인용하겠읍니다. "저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말일성도 학생들은 모두 대관장님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전세계를 통하여 이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말일성도는 교회의 지도자를 따릅니다. 말을 바꾸어 본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기꺼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장을 하라는 부름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무장을 합니까? 오늘날과 같은 불안의 시기, 어느 누군가가 말하였듯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듯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혼란의 세계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무장을 말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처하고 있는 새로운 사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청소년들의 조직을 통해서 신권의 책임을 강화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고 이들에게 신권이 보호하는 영향력을 뻗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리 앞에 놓여진 세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세대를 키우려 하는 우리의 노력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말씀드린 모든 것이 주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드렸다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말씀을 숙고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고하여, 비판을 금하고, 비난으로 언성을 높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힘이며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의 척추가 되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께 이 저녁에 나의 간증을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간구하는 바입니다. 아멘.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어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

회개와, 궁핍한 자를 위한 지원과, 신앙과, 사랑을 위한 청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불러 주신 총관리 역원과 지금까지 봉사하여 온 모든 그 밖의 사람들, 십이사도 지역 대표, 칠십인 선교 제일 정원회 그리고 여러 조직에서 봉사하는 여러분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어떤 특별한 직책에서 봉사할 사람이 필요할 때 바로 그 직책에 적임자가 나타나 그 직책에 필요한 열쇠를 부여받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보며 우리는 경탄을 금하지 못했읍니다.

나는 형제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언자 앨마가 많은 사람들의 진리를 깨닫고 강둑에 앉아 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이 맺을 성약의 성질을 설명하신 말씀이 생각났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너희가 마음으로 이같이 원할진대, 주가 너희에게 그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주를 받들어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에 꺼릴 바가 있겠느냐?" (모사이야서 18 : 8—10)

저는 이 말씀 중에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란 말씀에 특별히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읍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 무거운 죄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롬니 부대관장님과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읍니다. 그는 어두운 표정을 하고서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형제님 저는 내일 신전에 갑니다. 저는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독님과 스테이크 부장님께 가서 그 잘못을 말씀드렸읍니다. 어느 정도의 회개의 기간이 지나고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자 감독님과 스테이크 부장님은 제가 신전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저는 알고 싶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읍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읍니까?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한 다음 모사이야서에 있는 베냐민 왕의 말씀을 기억해 냈읍니다. 그곳에는 침례받기를 기다리는 한 무리가 있었읍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육욕의 상태에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읍니다.

"…모두 한 소리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오 궁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우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히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매 주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신지라, 저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며 죄사함을 받으며 양심에 평안을 얻으니…"(모사이야서 4 : 2—3)

여기에서 답이 나왔읍니다.

만약 자신이 누구이든,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든 죄를 회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보상했으며, 그 잘못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갖는 위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권능을 가진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고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 주셨는지에 관한 확실한 대답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는 동안에 양심의 화평을 찾았다면 바로 그 증거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회개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이와 다른 생각을 갖게 하며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은 크나큰 거짓의 하나입니다. 용서의 기적은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 있읍니다. 이는 주님께서는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길을 걸으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이전에 지은 죄까지도 겹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교성 82 : 7)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와 양심의 고통으로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는 자와 어디에 가서 답을 얻을 지를 모르는 자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회개와 보상을 하여 양심의 평안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그들을 도와 주십시오.

형제들의 말씀 가운데는 세상적인 것으로 궁핍한 사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까지도 도우라는 큰 뜻이 들어 있읍니다. 오늘날 내가 보는 가장 큰 기적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 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에 병이 나 있고 낙심하여 어디에 마음을 두어서 안정을 얻어야 할지 몰라 신경이 파괴될 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고치는 데 있읍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귀하며, 또 그들 스스로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년 전에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궤양이 점점 악화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었읍니다. 나와 아내 조안은 선교 여행 중 아직도 여러 다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더 머물러 있어야 함에도 다음날 아침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읍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비행기 앞좌석에 앉았읍니다. 몇몇 회원들은 뒷칸에 타고 있었읍니다. 비행기가 어떤 지점을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의 머리에 손을 얹었읍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아무도 없었읍니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었읍니다. 그가 누구인지 또는 어떻게 하여 그같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 단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축복이 아주 필요했다는 것을 몇 시간 후에 알 수 있었을 뿐이었읍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걱정에 싸여 의사에게 전화를 했읍니다. 그때는 밤 11시가 가까왔읍니다. 의사는 제가 전화를 받기를 원했읍니다. 의사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물었읍니다. 나는 "지금 매우 피로하지만 곧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큰 출혈이 있었읍니다. 만약 그 출혈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있었으면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도움이 미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미친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이 큰 책임을 깨달았을 때 만약 앉아서 그 책임을 생각만 해야 했다면 저는 의기를 잃고 그 일을 전혀 해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인도를 받아 오늘 우리가 가르침과 간증을 듣게 된 훌륭한 두 분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님과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을 지명하였을 때 이 책임들을 저 혼자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읍니다. 그 후 우리는 매주 신전에서 만나며, 만날 때면 방 저쪽을 봅니다. 거기에는 불굴의 의지를 지닌 열 두 명이 있으니 그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고 거룩한 사도의 권세를 받은 분들로 나는 이 세상에서 이분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훌륭하신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스테이크 부장단, 선교부장단, 감독단, 신권 정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실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신전의 제단에서 간곡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말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읍니다.

이제 대회를 마칠 시간이 가까와 오고 있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을 들려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로스앤젤리스 신전 헌납 직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모든 준비를 마쳤읍니다. 새벽 서너시쯤 되었읍니다. 나는 꿈이 아닌 시현을 분명히 보았읍니다. 이는 나의 생애를 통하여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일이었읍니다. 나는 한 큰 영적인 모임을 보고 있었는데 형제 자매들이 서 있었으며 한 번에 두세 명의 사람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는 흔히 느낄 수 없는 것이었읍니다. 나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았읍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배우라. 이 길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는 길이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듣고 보았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에 추호의 의심도 없읍니다. 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와 주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걱정해 주시며 구세주의 재림을 맞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표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님의 재림은 멀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경전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영감역 24장을 읽어야 합니다. 값진 진주 요셉 스미스서에도 나와 있읍니다. 이 성구에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거룩한 곳에서 물러나지 말며 주님이 곧 오실 것이되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가정의 밤에 가족들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이의 능력이 하늘의 이슬처럼 그들에게 내려올 것이요 성신이 저희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영은 우리를 인도하여 그의 거룩한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돕고 계신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충실히 이행하여 심판의 날에 의로운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길을 알면서 다 행하지 못해 부족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유대의 넓은 들에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이웃에 간증을 전해야 할 우리의 책임

베드로가 말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벧전 4 : 11)라 하였는데 이는 성신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니,

무엇보다도 성신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여야 할 것인가를 주님과 의논하였으며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에 대해 주님께 여쭈어 허락을 받았읍니다. 만약 이제 나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바른 것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다면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저 멀리 유대의 넓은 들에"란 제목으로 글을 썼읍니다.

유대의 넓은 들에 서서
해의 영광의 노래를 들었네.

티끌 한 점 없는 음성을 들었네.
다윗의 자손이 태어났다네.

목자가 밤에 양지킬 때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네.
하늘 저 위에서 성스러운 합창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흙돌로 집을 짓네
달콤한 노래가 이어 퍼지네.
"주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가 있으리라.
이는 예수께서 나신 날이라"
증인이 와서 나에게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극히 높고 깨끗한 분이라.
죄와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내 영혼을 구하러 왔노라"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읍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그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사망에서 인간을 구속하러 세상에 오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주셨으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얻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침수로써의 침례로 계명을 지킬 것과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성약으로 맺으며 그런 후에 성신의 은사를 받고 함께 할 것을 약속받으며, 이후로 의와 헌신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생에서 평화를 얻고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확신과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행하며 대표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을 주셨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다시 왔으며 열쇠와 권세, 권능과 신권이 다시 인간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다시 한 번 율법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으며 인간을 구원하여 승영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세를 지니게 되었읍니다. 우리의 왕국인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 즉 온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열쇠가 주어졌읍니다.

주님은 옛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 그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명하신 것과 꼭같은 책임을 우리에게도 주셨읍니다. 그러한 책임을 받은 우리는 그처럼 중요한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진리를 외칠 것이며 회복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겠읍니까?

여기에는 영원히 변치않는 몇 가지 원리가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일은 옛날의 모든 예언자와 의로운 사람이 행한 일과 그 원리가 같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간결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장로와 제사와 교사들은 성경과 몰몬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 그 책에는 충만한 복음이 실려 있느니라."(교성 42 : 12)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나아가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경고하게 하노니…"(교성 88 : 81)라 하셨읍니다.

이 두 사명 즉 한편으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외치는 사실들이 진리임을 안다는 간증을 전하는 사명은 모사이야의 여러 아들의 행적에서도 완전하게 설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인지라 "…그뿐 아니라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느니라."(앨 17 : 2—3)

이제 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전제를 찾아볼 수 있읍니다. 한 가지는 교회의 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가능한 한 지혜를 다하여 변론해야 하며 우리가 부여받은 온갖 능력과 힘을 기울여 구원의 소식을 외치고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후에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와 친밀한 교회의 회원들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계시에 의해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를 알리며, 하나님 사업이 참되고 성스러운 것임을 안다는 간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읍니다.

고대의 기록에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알아보겠읍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구원의 소식을 세상의 끝까지 전할 사명을 갖고 있었읍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와 다른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관해 받은 계시를 읽고 가르쳤으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사 1 : 18)고 하신 말씀에 따랐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인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사 41 : 21)는 말씀에 따랐읍니다.

베드로는 경전의 그 말씀보다 오히려 더 큰 일을 하였읍니다. 그는 교리를 가르치고 변론을 한 후에 그가 이웃에게 전하는 것들은 진리이며 성스러운 사실이요 또한 주님은 그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이 그의 위에 임하게 하셔서 그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간증하였읍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와 다른 몇몇 사도와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주 예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놀라자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 24 : 38—39)고 이르니 그제서야 그들은 손을 뻗쳐 주의 몸에 난 상처를 만져 보았으며 또 예수께서는 고기를 청하사 그것을 잡수셨다는 이야기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믿지 아니하니 8일 후에 주님께서 제자가 모두 모인 자리에 나타나사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에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했읍니다. (요 20 : 24—28 참조)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무덤에서부터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육신으로 나오셨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셨읍니다. 만약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자들이 외치던 구원의 복음은 참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심어 주는 것이었읍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사야의 말씀도 인용하고 계시로부터 얻은 것으로 변론도 하였을 것이며 그들 스스로의 간증도 전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들 중 베드로가 이방인 무리 앞에서 한 간증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사도행전 10 : 36—42)

다음에 이같은 포괄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행 10 : 43)

베드로의 또 다른 간증을 읽어 보겠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베드로후서 1 : 16—18)

저는 우리가 온 힘과 능력을 다하여 복음을 연구하고 계시를 연구하고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추론, 분석하여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것인가 하는 등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조금도 깎아 낮추지 아니합니다. 그저 수수방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우리는 현대의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사 43 : 12)는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가 진실함을 확신해야 하며 성신의 능력으로 그 사실을 지식과 간증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길게 변론한 후에 사람들은 그에게 논박하기를 "당신은 성경을 모르고 있소. 당신의 말은 하나도 옳은 것이 없소."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변론을 한 후에 평상시와 다름없이 "나는 다락방에 있었읍니다. 주님은 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며 나는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았읍니다. 그분은 제가 함께 모시고 3년 반 동안 고락을 같이 하신 분입니다. 가버나움에 사신 분입니다. 나는 그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 보았으며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도 잡아 보았읍니다. 그분이 음식을 드시고 물을 마실 때에도 나는 그곳에 있었읍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성령이 나의 영혼에 임하여 이 사실을 증거케 하였읍니다"라고 말했다면 거기에는 어떤 논박의 여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누가 끄집어 헐뜯겠읍니까? 누구나 베드로가 바울에게 말했듯이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행 26 : 24)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간증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하게 됩니다. 그 간증은 진실이거나 아니면 거짓일 것입니다. 이 두 경우 외에는 있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으며 우리 시대에 천사가 방문했고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겠읍니까?

여러분은 계시의 내용을 잘 생각해서 거기에서 그러한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연구하고 분석한 뒤에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는 증인으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사이야의 여러 아들이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쳤던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권능을 지니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시를 받았으며 권능을 소유한 자로서 말을 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저는 이제 제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말일의 수많은 이스라엘인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업이 거룩한 사업이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리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유대의 넓은 들"에서 말씀을 시작하였으니 "다락방"에서 끝을 맺겠읍니다.

식탁에 앉았으나 마음은 고뇌뿐
이는 사악한 무리가
주를 죽였음이라.
죽음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를 보았네.
육신은 요셉의 무덤에 고이
누워 있었네.

주가 우리 곁에 다시 섰네.
그는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예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시니
경외로움으로
우리는 그의 발 아래 꿇었네.
도마에게 던지는 조용한 말씀
"내 손을 잡아 보라
전과 다름이 없느니라.
내가 나무에 매달려
나와 너를 위한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던 바로 그 손이라."

주는 경건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네.
"내 몸 살과 뼈를 잡아 보라"
내 영혼은 소리쳐
"당신 앞에 머리 숙입니다.
구세주 주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모든 말씀을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날개에 점이 있는 노란 카나리아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가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23년 전 나는 젊은 청년으로서 솔트레이크시에 있는 상당히 큰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읍니다. 그 부름의 막중함과 책임은 나를 위압했읍니다. 합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나를 위축시켰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제게 영감이나 지시를 주지 않고 암흑과 침묵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읍니다. 주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는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교훈을 보여 주셨읍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전화가 울렸읍니다. 전화에서 들리는 음성은 이러했읍니다. "감독님이십니까? 여기는 병원입니다. 감독님의 와드 회원인 캐드린 맥키씨가 방금 돌아가셨읍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록에는 그녀의 친척이라곤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시 연락처 명단에 감독님의 이름이 들어 있군요. 지금 즉시 병원으로 오시면 고맙겠읍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병원에서는 내게 그녀가 살고 있던 가장 초라한 아파트의 열쇠가 들어 있는 봉한 봉투를 주었읍니다. 자손이 없는 73세의 이 할머니는 인생의 화려함을 거의 맛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갖추어 본 적도 없었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 들었을 때 이 할머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용하고 너무도 말이 적은 사람으로 그녀의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읍니다.

그날 밤 나는 그녀가 살던 조그만 지하실 아파트를 찾아갔읍니다. 불을 켜고 잠시 둘러보니 캐드린 맥키 자필로 꼼꼼하게 쓴 편지를 한 통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편지는 조그만 책상 위에 놓여 있었읍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읍니다.

"사랑하는 감독님."

"병원에서 다시 돌아가게 될 것같지 않군요. 옷장 설합을 보면 약간의 보험 증권이 있는데 장례 비용으로 써 주십시오. 가구는 이웃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부엌에 저의 소중한 카나리아가 세 마리 있읍니다. 황금색 두 마리는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새장 위에 적어 놓은 친구에게 그 새를 주십시오. 세째 새는 '빌리'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던 새입니다. 빌리는 약간 초라해 보이고 날개에 있는 회색 점 때문에 노란빛이 흐려 보이지요. 감독님이 빌리를 데려다가 키워 주시겠읍니까? 아주 아름답지는 않지만 노래소리는 가장 좋답니다."

그 다음날 나는 캐드린 맥키에 관하여 좀더 알게 되었읍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친구가 되곤 했읍니다. 그녀는 길 아래 살고 있는 앉은뱅이를 거의 매일 찾아가서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 주었읍니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의 생활을 밝게 하였읍니다. 캐드린 맥키는 그녀가 소중히 여기던 날개에 회색 점이 있는 노란 카나리아 '빌리'와 같았읍니다. 그녀는 아름답지도 않았고 부유하지도 않았으며 자손들의 공경도 받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래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짐을 보다 기꺼이 지고 또한 수월하게 지도록 해주었읍니다. 그녀는 다음의 노래가 말하는 메시지를 따라 생활했읍니다.

"외롭고 지친 자를 찾아 기쁨 주고
울면서 탄식하는 자 찾아 위안하여
언제나 네 선한 일 전하면서
오늘 세상을 더 밝게 만드리라!"

…데저렛 주일학교 노래책 1901, 197장

이 세상은 날개에 회색 점이 있는 노란 카나리아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줄 수 없는 카나리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수 없읍니다. 아마도 명확한 음정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거나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였던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 청년 중에는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혹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읍니다. 그들은 뭔가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분격하고 있으나 누구에게 분격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부하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 등이 굽었거나, 걱정으로 짐이 무거웁거나, 회의로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의 능력 이하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는 평범한 우리의 생활을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읍니다. 우리는 불운, 미관의 손상, 또는 소위 말하는 불리한 조건 등으로 구실을 삼으려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합리화에 희생이 되어 "나는 너무 약하다" 또는 "내가 뭐 별 수 있나"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우리의 미약한 성과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질시와 낙담은 자체의 희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문제가 다른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 종전의 기록을 깨뜨리고, 오늘의 우리가 어제의 우리를 앞지르고, 할 수 있으리라고 꿈꾸었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난관을 견디고, 예전 어느 때보다 강한 힘으로 훌륭하게 강업을 처리하는 것…이것이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참다운 방법입니다.

훌륭한 삶을 영위하려면 우리는 용기있게 난관을 직면하고 낙담을 즐거움으로 화하게 하며 겸손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시오."라고 대답하겠읍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이것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새로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성품이 개인의 외적인 미모에 밀려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국내와 국제 미인 대회의 소식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스 아메리카,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에게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훌륭한 운동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동계 스포츠, 세계 올림픽, 국제 토나멘트 경기는 군중을 매혹시켜 열렬한 갈채를 초래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래 전 선지자 사무엘에게 충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쟁쟁히 들리는 듯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삼상 16 : 7)

사기꾼과 위선자는 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이신 여호와와 함께 있을 수 없읍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허영과 무게없는 생활, 가증스러움, 거짓된 의로움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 23 : 27)

그들은 아름다운 황금빛 카나리아처럼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진실된 노래가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대륙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자는 이렇게 외쳤읍니다.

"보라 이는 너희가 금전을 사랑하며 재물을 사랑하며 화려한 의복을 사랑하며 교회의 장식을 사랑하기를, 가난하여 궁핍하며 병들고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때문이라.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부끄러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 너희를 꾸미면서도, 굶주리며 궁핍하며 헐벗고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가 너희 옆을 지나쳐 가거늘 저들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느냐?"(몰 8 : 37—39)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짓밟히고 억눌리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낙망한 자에게 희망을, 약한 자에게 힘을, 속박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훌륭한 생을 가르치셨읍니다. 이 사실은 "나를 따르라"는 거룩한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인도하였읍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를 인도하였읍니다. 바울을 개심시켰읍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로 무장하고 세상의 구세주를 따를 것을 결심할 수 있읍니까? 주님의 도움이 있으면 반항하는 소년이 순종하는 소년으로 될 수 있으며 고집이 센 소녀는 옛날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소녀로 시작할 수 있읍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고전 1 : 27)

구세주께서 신앙이 돈독한 자를 찾으실 때 유대인 회당에서 자신을 의롭다 일컫는 무리들 중에서 택하시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의 어부들 가운데서 부르셨읍니다.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던 중 그는 호수가에 매어 있는 두 척의 배를 보았읍니다. 그는 한 배에 올라 그 주인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어 군중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했읍니다. 좀더 무리에게 가르치신 후 주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시몬은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 : 4—6, 8)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읍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 : 19) 고기를 낚던 어부 시몬은 부름을 받았읍니다. 의심이 많고 믿지 않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하고 성격이 급한 시몬은 쉽게 주님의 길을 발견한 것이 아니며 자유롭게 얻은 것도 아니었읍니다. 그는 "신앙이 적은 자여"라는 말을 듣기도 했으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 16 : 23)라는 경고를 듣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 : 15, 16)라고 대답하였읍니다.

의심이 많던 시몬은 신앙심 깊은 수제자 베드로가 되었읍니다. 날개에 회색 점이 있는 노란 카나리아는 주님의 온전한 신임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열성있고 박력있는 선교사를 그의 옹호자 중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의 박해자에게서 찾으셨읍니다. 다소 사람 사울은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려 하던 사람이었읍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이 일이 일어났읍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이르셨읍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행 9 : 15—16)

핍박자 사울은 전도자 바울로 되었읍니다. 날개에 회색 점이 있는 노란 카나리아처럼 바울도 역시 결점을 지니고 있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고후 12 : 7—0)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들의 힘을 다하여 그들의 생활을 진리로 견고히 했읍니다. 구세주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을 택하여 완전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게 하셨읍니다. 그는 과거에도 그러했으며 현재에도 날개에 회색 점이 있는 노란 카나리아가 그렇듯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우리가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과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약속은 완전한 것입니다. 양심의 갈등은 없읍니다.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좌절될 때 우리는 이 말을 외치기 바랍니다.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만유의 주이시여, 또 다시 싸우도록 어둠에서 이끄소서."(양커 고등학교 "응원가"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이 별로 중요치 않고, 필요없으며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읍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읍니다.

…'아버지여 나 오늘 어디서
일하리이까?'

뜨거운 내 사랑이 흘러 넘치도다.
손을 들어 작은 곳을 가리키시며
'저것을 돌보라' 말씀하시도다.

급히 대답하며 '아니오 그것은 싫소!
내 아무리 훌륭하게 일하여도
아무도 보지 아니할 것을
그렇게 작은 곳은 나는 싫소.'

엄하지 않은 소리로
내게 부드럽게 대답하니
'오, 어린 아이야 네 마음을 구하라
사람을 위하여 일하느냐, 나를
위하여 일하느냐?'
'나사렛은 작은 곳이고
갈릴리도 그러하였거늘.'

—미드 백파이어—

오늘 내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는 실로 갈릴리의 구주를 따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활을 정리하여 우리의 사랑을 남에게 비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명을 버리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우리 모두가 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

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노래를 듣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읍니까? 나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명하신 니파이삼서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리가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 그들 주위에 앉게 하였읍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 다 모일 때까지 무리가 길을 비켜 주도록 명하셨읍니다. 또한 무리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주님도 어린 아이들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읍니다.

그 기도는 이러했읍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심을 우리가 보매 이 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눈이나 귀로는 보고 들은 일이 없으며,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왔던지라…"(니삼 17 : 16—17)

기도를 마치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또다시 우시더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니삼 17 : 21—23)

나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쉽게 따른다는 점을 부끄러움없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집에는 아직 네 살이 못된 꼬마가 있읍니다. 그 아이가 내 마음의 불을 켜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빠"라고 불러 주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도 그로부터 도움을 얻고 있읍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시 127 : 3) 이란 말씀이 있읍니다. 나는 오늘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합창단원으로 이 자리에 있으며, 또 다른 많은 어린이들도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내가 성인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해도 개의치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린이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어린 시절에 배워 두면 좋을 이야기로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살았읍니다.

그것은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많은 것들이 설명되며, 이것을 모르면 그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날 때 창조되지는 않았읍니다. 단지 육신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곳서에부터 이곳에 왔읍니다. 지구에서 살아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살게 된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읍니다. 그 하나는 죽어야 할 육신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갖 일을 미리 마련하셔서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스러운 사랑을 통해 여러분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셨읍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육신에 언제 들어와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마음의 도구이며 인격의 바탕이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일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을 통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린 형제 여러분 이제 나의 손을 여러분의 영이라고 가정해 보겠읍니다. 이 손은 살아 있읍니다. 이 손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읍니다. 이 장갑을 여러분의 몸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장갑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읍니다. 영이 몸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몸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명을 가질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은 각자 영과 육을 가지고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인간입니다.

장차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혹은 질병이나 사고로 영과 육신이 분리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것입니다. 나는, 손은 여러분의 영, 그리고 장갑은 여러분의 몸이라 가정했읍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 몸안에 있는 영은 몸이 일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제가 손을 그 장갑에서 빼내면 몸을 나타내는 장갑은 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 스스로 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장갑은 그대로 떨어지게 되며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은 불사불멸이며 육신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대관장단, 임프르브먼트 이라, 1972년 3월, 463페이지)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를 뜻합니다.

눈을 통해 밖의 세상을 보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웃고 행동하고 지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영원한 여러분의 영입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나 혹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때를 기억합니까? 그때 부모님께서 관에 누우신 분은 단지 할머니의 몸이며 할머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가셨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실을 잊지 않겠지요?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이며 이는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만약에 계획이 죽음에서만 그친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와서 얻은 몸을 곧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살도록 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이곳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살 수 있는 길도 예비하셨읍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지구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형이 멀리 선교사로 떠나 집에 없거나 누나가 학교에 다니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할 때 부모님이 갖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집에 있는 여러분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더욱 사랑하는 듯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집에 없는 형이나 누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안부를 전하기도 하여 그들을 격려합니다.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사랑은 더욱 커질 수 있읍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도울 사람을 보내 주셨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영의 자녀이며 또한 이 지상에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기도 합니다. 나는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육과 영의 재결합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주일학교나 초등협회 그리고 가정의 밤에서 배우고 있읍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육신의 죽음을 이기셨읍니다. 그분의 대속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하나로 결합될 수 있읍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영과 육이 결합하여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하셨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주님에게서 받을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러 학교에 다니는 것과도 같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을 하도록 꼬이는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또 다시 분리되는 상태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비록 어리지만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분리된 상태가 있는데 이것은 영과 육의 분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분리된 상태로 머물러 그의 면전에 다시 설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리는 둘째 죽음 곧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글읽기를 배웁니다. 이제 경전을 읽을 수가 있읍니다. 특히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읽을 수 있읍니다. 어린이들도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 그의 말씀을 모든 사람, 곧 남자와 여자에게 전해 주시며 이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어 지혜 있는 자와 학식이 있는 자를 당황하게 하시느니라."(앨마서 32 : 23)

우리는 경전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청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매…"(니일 15 : 34)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깨끗이 보존하고 영적으로도 깨끗하여 이 세상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죽음을 이길 수 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되어 쫓겨나는 영적인 죽음을 이기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구 위에 사실 때 그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의 교회를 세우셨읍니다. 우리가 복음 생활을 계속한다면 영적으로 깨끗할 수 있읍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는 물에 장사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이는 다시 탄생하는 것이어서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는 죄를 벗어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의 교회,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할 성신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하늘의 집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예언자와 사도를 불러 그의 교회를 이끌도록 하셨읍니다. 그분은 언제나 예언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어 보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나이일 때 배운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겠읍니다. 그 때 내 나이가 아마 여섯 살이나 일곱 살쯤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동생과 나는(우리는 나이가 비슷했다) 함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읍니다. 나는 지금도 유타주 브리감시에 있는 그 건물로 걸어 들어가 발코니 바로 아래로 가서 "바로

여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읍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곳 연단에서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장로께서 말씀하고 있었읍니다. 그는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이었읍니다. 나는 그때 그분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했는지 혹은 회개나 침례에 대해 말씀했는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나의 어린 마음에 주님의 한 종이 그곳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심어 주었읍니다. 저는 그 때의 느낌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읍니다. 나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읍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 비록 내가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그때의 느낌을 잃은 적이 없읍니다. 우리는 평의회에서 만날 때 주위를 둘러보며 이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특별한 증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많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사탄을 대리하는 자가 있어 사악한 것을 가르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매우 마음을 끌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을 갖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받고 실망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는 슬픔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셨읍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구 위에는 예수님의 종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의 종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회에는 그에 관해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수 없이 많으며 저도 그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어릴 때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오기 전에 전세에서 살고 있었읍니다. 육신을 받고 시험을 받기 위해 이곳에 왔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되며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속하게 하셨읍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죽음이 있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침례를 받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이 둘째 죽음에서 구원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는 주님과 구세주가 있읍니다.

무엇보다 귀한 여러 어린이가 있는 이 교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자기에게 오게 하신 구세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이러한 노래를 불렀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어린 아이를 사랑하신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그곳에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를 안아 주심 원하네
어린이들아 내게 다 나오너라 하신
얼굴 보고 싶어라.

다 함께 노래를, B-69

나의 어린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여러분을 봉사의 길로 부르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압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읍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굽어 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의 중요성

구세주가 지상에 살아 계시는 동안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십이사도의 도움으로 교회가 발전하고 있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명확하여졌으니 그것은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분리된 조직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어떤 그룹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개인의 사유 단체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 사업을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인에게 말하였듯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높이기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교회 안에 있으며 교회의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고 좁은 길을 예비하셨으며, "그 길을 찾는 자는 적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이 합당하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비하셨을 뿐 아니라, 교회의 회원으로 하여금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안전책을 세워 주셨읍니다. (엡 4 : 14 참조)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그 안전책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교회의 머리에 세우

신 예언자와 사도들에게 근본적으로 놓여 있읍니다.

그들은 교회의 영감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대변자요,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영감의 말씀은 주님의 뜻이요, 생각이요, 음성이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입니다. (교성 68 : 4 참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에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체하나 오히려 그 율법을 왜곡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읍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읍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요 7 : 19)

또 다시 주님은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요 5 : 46)고 말씀하셨읍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였으니 만일 사람들이 그 당시의 가증스런 거짓 교사들 대신 모세를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이며 또한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교리를 통한 구원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에 눈이 어두웠던 그들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서 주님의 교회에 속하지 못했으며, 결국 교회를 통하면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지 못했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모세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거한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장로와 서기관을 예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보면, 구세주가 계시던 당시에는 모세의 기록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읍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증거하였으나 사람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읍니까? 바울 사도께서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갈 3 : 24—25 참조)

주님에 대하여 기록한 선지자는 비단 모세뿐만 아니었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읍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 (행 10 : 43)

사도행전 28장을 읽어 보면 바울이 로마에 거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읍니다. (행 28 : 23)

이상에서 보면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경전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듯이 구세주에 관하여 여러 번 언급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경전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명백히 말해 주고 있음을 잘 알았으면서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고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유혹한 자들에게는 변명이 있을 수 없읍니다.

신약 시대의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참된 사업과는 동떨어진 그들 나름대로의 단체를 만들고, 그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 사업을 방해하였읍니다.

이러한 단체 중 우리의 귀에 익은 이름이 몇 개 있읍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모두 배교적이었읍니다.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으며, 이들의 종교적인 고집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읍니다.

또 다른 단체로는 다음이 속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봉하는 사독인파. 사해 두루마리를 기록하였다고 여겨지는 엣세네파. 이들은 성전 제사를 거부하였읍니다.

로마에 대한 종교적 배타 운동 단체인 셀롯 또는 열심당.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는 헬라파인데 이들은 희랍 철학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려 하였으며 이를 모세 율법에 맞추어 넣으려 했읍니다. 이들 역시 성전 제사를 거부했읍니다.

그러나 새로운 배도는 주님 자신의 전도 사업 중에서까지 일어났읍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신약을 읽어 보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의 참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떨어져 나가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예수께서는 십이사도를 돌아보시며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라고 대답하였읍니다.

영생의 말씀은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신앙심을 가지고 풍성되이 남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십이사도가 전도 사업을 하던 중에 커다란 배도가 일기 시작했읍니다. 이 결과로 신약에 기록된 거의 모든 서간문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씌어졌읍니다.

역사가의 집계를 보면 그리스도 이후 100년 동안에 약 30개의 기독교 분파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에게 보낸 첫번 편지에서 우리는 초기 배도의 증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읍니다.

편지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 없다고 간증하였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전 1 : 10)

초기 기독교 시대에 생긴 분파에는 다음과 같은 파가 있읍니다.

쥬다이즘 교리를 신봉하여 모세의 의식에 포함시키려는 쥬대오—크리스찬 일레나리안파.

성찬식에 포도주 대신 물을 사용하는 관례를 지키는 에비온파.

여호와와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는 노시스파.

침례교인으로 알려진 엘케스파.

하늘의 천모신이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알콘파.

현재도 이집트에 현존하는 콥파.

시리아 기독교.

또 다른 침례 교파인 만나파.

또 다른 파인 만데키파.

주후 약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 기독교의 세력을 크게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헬라파였읍니다. 헬라파는 그 지역의 문화를 지배하던 희랍의 영향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크게 이점을 보았던 것입니다. 희랍 철학 사상이 강하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복음의 교리와 실천을 변경하였읍니다.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대두되었던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는 모두 희랍 철학자였음을 기억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이 희랍어로 기록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일면은 분파가 일어서는 안된다는 중요성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속한 자라" (고전 1 : 12)고 사람들이 말하나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음을 강조하였읍니다.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이요, 그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조나 의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의 곧고 좁은 길을 통하여서만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회원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도 안되고, 교회를 배반하여서도 안되며, 파문을 받을 죄를 범하여서도 안됩니다.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멀리하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그들 자신의 단체를 형성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 중에는 교리와 성약 85편에서 위안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있읍니다.

그들은 교회가 이미 배도되었으며,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영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려면 '힘세고 강한 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겸손함은 거의 없이 스스로 그와 같은 위치에 자진하여 올라서고 있읍니다.

이들은 이 편 중에서 한 절을 읽지 못했읍니다. 이 구절은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교회를 배반한 자 또는 교회에서 버림받은 자는 마지막 날에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 가운데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은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소신권을 소유한 자나 회원은 물론 대신권을 지닌 자로서 율법의 책에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없는 자 또는 교회를 배반한 사실이 알려진 자 또는 교회에서 버림을 받은 자는 그날에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 가운데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85 : 11)

그러나 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은 교회에서 파문당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범죄하고 주님께서 주신 행법의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들도 이 성구를 주의 깊게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는 모든 일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경전에 기록되어 있듯이,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여하한 이유로써 교회에서 버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읍니까?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배도한 자의 운명을 이렇게 표현하셨읍니다.

"왜 사람들이 배도합니까? 우리는 '옛 시온선'을 타고 있읍니다. 우리는 대양 한복판에 떠 있읍니다. 폭풍이 계속 몰아치고 선원들은 갖은 애를 쓰고 있읍니다.

"여기 그냥 있을 수는 없어. 이 배는 '시온선'이 아냐라고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망망한 대해의 한가운데인걸.' '상관없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테야.' 그 사람은 겉옷을 벗어 놓고는 뛰어 내립니다. 이 사람이 익사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옛 시온선'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대로 머물러 있읍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읍니다. "만일 전능자의 불빛이 이곳에서 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빛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읍니다."

이 이스라엘의 강한 사람은 이렇게 선언하였읍니다.

"교회 회원 중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교회의 제반 사무를 관리하는 대관장단의 권리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자가 있으면 배도의 기운이 싹트게 되며, 이것이 자라면 교회에 분란을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파괴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성임된 역원에 대항하려 드는 자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할 때는 그의 부름이 어떠하였든 간에 마찬가지의 결과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말씀하셨읍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데저렛 출판사, 1943년〕, 82—83, 85페이지)

주님의 말씀은 간결하여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배반한 자나 주님께서 마련하신 합당한 법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 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대에 모세의 가르침을 더럽힌 여러 종파나, 초기 기독교 시대에 율법을 왜곡시키고 의식을 변경하여 영원한 성약을 깨뜨린 수많은 종파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듯이 오늘날의 여러 분파에서도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85편에서 좀더 말씀하셨읍니다. "또 기념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모두 그 날에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산산이 쪼개질 것이요, 저들의 분깃은 믿지 아니하는 자 가운데 지정되리니 그곳에서 울부짖으며 이를 갈리라."(교성 85 : 9)

비록 교회에서 파문당한다 하더라도 그가 받은 신권과 신전 축복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읍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봉인할 수 있는 능력은 또한 봉인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하겠읍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건실된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6 : 19, 교성 132 : 46) 파문은 교회에서 입은 축복, 특권, 권리를 앗아갑니다.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읍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입을 수 있읍니까? 오직 교회를 통하여, 또한 교회의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교성 76 : 79 참조)

그러나 회개는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그때부터 그의 계명을 지키려는 용서를 상으로 받을것이요, 새로운 인간으로 된다고 약속하셨읍니다.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훌륭한 약속이 또 어디 있겠읍니까?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읍니다. 의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병든 자라고 가르치셨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른 사람 뿐 아니라 병든 자들이 그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성결케 되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에스겔 18 : 23)

주님은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

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 : 28—30)

그러나 우리는 그의 멍에가 그 교회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그의 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대로 쓸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읍니다. 나의 간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시어 길을 예비하게 하심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성경과 몰몬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우리 시대와 관계가 있음

약 10년간 선교 지역에서 봉사한 적이 있는 나로서는 우리에게 선교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영을 가져다 주신 피네가 형제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내게 있어서 선교 사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거의 매주 새로운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으로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집니다. 나의 임무는 성스러운 경전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 가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성스러운 경전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써 보여 주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그의 아들의 대속의 희생, 지구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지구상에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또한 그곳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로 하여금 성스러운 경전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복음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밝혀진 경전에 나와 있는 지식에 따라 과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종말을 처음부터"(사 46 : 10) 고하셨다고 이사야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성스러운 경전에 나와 있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사 40 : 8) 나는 예언자 말라기를 통하여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말 3 : 1—2)

분명히 이 말에는 그의 첫번째 오심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읍니다. 주님은 그의 신전에 홀연히 임하시지 않으셨읍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임하는 날을 능히 당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이 깨끗하게 하러 오시지 않으셨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만일에 오실 때에 악한 자들이 울부짖을 것이며,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눅 23 : 30)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주님이 그의 오심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도록 사자를 보내셔야 한다면 그의 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언자뿐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모스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 : 7)고 말했읍니다. 침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아 절정의 시대에 구세주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고 있었을 때 구세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로서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음을 간증하셨읍니다. (눅 7 : 28 참조)

주님이 처음에 임하실 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일에 사자를 보내시어 구세주의 재림을 예비하게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므로 주님의 사자가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한 몇 가지 예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당하였을 때 주님의 천사가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계 4 : 1)고 말했읍니다. 이 일은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지 30년이 되었을 때 일어났읍니다. 그는 사탄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인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며 (계 13 : 7 참조), 초대 교회가 완전히 배도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주님은 초대 교회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시지 않으셨읍니다. 이 주님의 천사는 요한에게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천사를 보여 주었읍니다. 그 다른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계 14 : 6) 갖고 있었읍니다. 그것은 인간의 복음이 아니라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갖고 올 천사를 기다려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성구가 성령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성구는 어떤 사람을 언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상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 천사가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계 14 : 7) 참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치는 것도 보았읍니다. 여러분은 다음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아들에 관한 기이한 시현

을 보았을 때 그들이 영광을 지닌 두 분이었음을 보았으며, 또한 그들이 육체나 지체나 감정을 갖지 않은 삼위 일체가 아님을 알았읍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세상에는 참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갖고 왔을 때 또한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 전세계의 모든 기독교 나라에서는 육체나 지체나 감정을 갖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눈을 갖고 계시지 않으셔서 보지도 못하며, 귀를 갖고 계시지 않으셔서 듣지도 못하며, 음성을 갖고 계시지 않으셔서 말하지도 못하는 분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같은 상태가 널리 퍼지리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러 갔을 때 그들에게 그들이 그곳에 오래 남아 있지 않을 것이며,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신들을 섬기리라"(신 4 : 28)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말일에(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면 분명히 찾게 되리라고 말했읍니다. (신 4 : 29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을 구하였으며, 결국 그를 찾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 일이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니었다면 왜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일이 우리의 시대에 일어났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 좀더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그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쟁과 역병과 지진과 기근에 대하여 말씀하셨읍니다. 그러한 일에 관한 기록은 많이 있읍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천국 복음(그가 가르치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 : 14)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기를 기대한다면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진리에 대한 간증을 드리는 모든 몰몬 선교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천국 복음입니다. 나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해시켜 그들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믿는 신앙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백만 불을 주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오레곤주에서 선교사업을 행한 한 선교사의 보고를 들은 적이 있읍니다. 그는 개종자였읍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단 앞에 다가서서 그의 선교 사업의 경험을,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전하는 경험을 백만 불짜리 수표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나는 그의 뒤에 앉아 있었읍니다. 나는 혼자서 이렇게 자문해 보았읍니다. 나는 홀랜드의 작은 땅에서 얻은 자신의 최초의 선교 경험을 백만 불짜리 수표와 바꾸겠는가? 나는 나를 도구로 삼아 입교하여 시온에 와서 아들과 딸을 선교사로 내어 보낸 가족들을 헤아려 보기 시작했읍니다. 만일 내가 백만 불을 받고 그들을 교회에서 나가도록 해야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나는 누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준다 하여도 그렇게 할 수 없읍니다. 교회의 위대한 선교 사업을 통하여 맛보는 기쁨과 행복과 견줄 수 있는 재물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몇 가지 다른 예언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주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이사야 29 : 13—14)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기이한 일이 많이 일어났읍니다. 예를 들면 몰몬경을 들 수 있읍니다. 누가 몰몬경을 읽고 공부한다면 바로 그 몰몬경 자체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을 한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장 신랄하게 비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책에는 책이 출판된 당시에 알려져 있던 지식을 갖고 아무도 쓸 수 없었던 기이한 진리가 가득 기록되어 있읍니다.

몰몬경은 리하이가, 광야에 있을 때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님이 애급으로 팔려 간 요셉에게 말일에 요셉의 후손 중에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울 것이며, 저의 이름은 요셉으로 불리울 것이요 저의 부친의 이름도 요셉이 될 것이며, 저가 주님의 말을 전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읍니다. (니이 3 : 6, 9, 15 참조) 그가 바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였읍니다. 그는 우리에게 몰몬경을 가져다 주었으며,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와 기타 많은 기록을 가져다 주었읍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내가…저에게 권세를 주어…나의 말을 전하게 하며, 나의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저들에게 전달된 나의 말을 확증하게 할 것임이라."(니이 3 : 11) 다시 말해서 그는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였읍니다.

그 후 그는 "…〔주께서〕 저의 손으로 이루게 하실 일은…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니이 3 : 15)고 말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가 구원을 위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성신권을 회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내가 …저를 내 눈에 위대한 자가 되게 하리라"(니이 3 : 8)고 말씀하셨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를 어떻게 생각하든 주님은 그가 위대한 자가 되리라는 것을 아셨읍니다. 이는 주님이 요셉에게 요셉의 후손 중에서 말일에 한 예언자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를 3천 년 동안 대기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었읍니다.

주님이 "내가…저에게 권세를 주어…나의 말을 전하게 하며, 나의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저들에게 전달된 나의 말을 확증하게 할 것임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의도라고 생각되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나의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홀랜드에서 최초로 선교 사업을 행하고 있었을 때 나는 헤이그에 사는 실업인들로 구성된 성경반에 연사로 초청을 받았읍니다. 그들은 매주 모이는 성경반을 갖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유명한 가구점 주인의 집에서 모였는데, 여자라고는 집주인의 딸뿐이었읍니다.

그들은 내게 한 시간 반 동안 말할 기회를 주면서 죽은 자를 위한 사업도 포함된 보편적인 구원에 관한 우리 교회의 교리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읍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가 다른 성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그들에게 장과 절을 알려 주고 그들이 그들의 성경에서 이 구절들을 찾아 읽어 보라고 하였읍니다. 그런 다음 나는 내 성경을 덮어 탁자 위에 얹고는 팔장을 끼고 그들이 그들의 견해를 말하도록 기다렸읍니다.

맨 처음으로 집주인의 딸이 견해를 말했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버지, 오늘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저는 여태껏 이 성경반에서 아버지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내리지 않으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께서 단 한 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머리를 가로 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애야, 할 말이 하나도 없구나. 이분은 우리에게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단다. 더우기 이분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진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고 계시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친히 세우실 예언자가 그의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전달된 그의 말을 확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뜻하신 바였읍니다.

나는 조지아주 퀴트먼에서 결혼 성약과 가족의 영원성에 관한 설교를 했읍니다. 모임이 끝날 때 나는 문 곁에 서 있었읍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로 다가오더니 목사라고 자기 소개를 했읍니다. 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큰 교회들이 그 원리에 대하여 밝혀야 할 점을 인용하였고, 그러한 교회 중 하나도 결혼 성약과 가족의 영원성을 믿지 않고 있었으므로 나는 이 목사에게 "오늘 밤 제가 당신의 교회의 입장을 잘못 소개하였읍니까?"라고 물어 보았읍니다.

"아니오, 리차즈씨.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으시는 군요."라고 나는 말했읍니다.

그런 다음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거든 신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하여 진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몰몬 선교사들을 통하여 진리를 찾을 만큼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또 다시 뵙겠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내가 그날 밤 그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말이라곤 고작 그 말뿐이었읍니다.

그 후 4개월이 지난 뒤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는 교회 앞에 서 있었읍니다. 그와 악수를 나누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내가 여기서 한 마지막 설교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무척 알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리차즈씨, 나는 그 후 늘 그것에 대해 생각해 왔읍니다. 나는 당신이 하신 모든 말을 믿습니다. 다만 나는 그것에 관한 나머지 사실을 더 듣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말한 모든 말을 믿었던 그 사람은 그의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였읍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그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없었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경험담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워싱턴주, 아이다호주, 유타주 그리고 네바다주를 포함해서 서해안에 퍼져 있는 두 개의 큰 교회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었읍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가 맥케이 대관장님께 편지를 보내어 총관리 역원 한 명으로 하여금 그들의 대회에 참석케 하여 오전 모임에서 두 시간 동안 몰몬이즘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준 후에 그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고 나서 오후에 한 시간 반 동안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도록 할 수 있는지 물어 보았읍니다. 내가 그 임무를 맡았읍니다. 나는 그 임무를 맡고 매우 기뻤읍니다. 나는 선교사들에게 그들이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과 결코 논쟁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 목사들 가운데 일부는 좀더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서북쪽으로 여행하기를 원하였으므로 점심 시간을 반시간 늦추고는 내게 오전 모임에서 2시간 30분을 주었읍니다. 나는 복음의 회복을 설명하였으며, 회복이 종교개혁과 다른 점도 설명하였읍니다. 내 말의 결론을 내릴 때 나는 이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고작 한 가지 질문만 받았읍니다.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리차즈씨, 당신이 속한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심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라고 나는 말했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그러면 당신이 속한 교회가 하나님께 부인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 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겠읍니까?"

그는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았읍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부인 없이 자녀를 둘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러자 그들은 모두 웃기 시작했으나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읍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질문으로 인하여 난처한 입장에 빠지지 않았읍니다.

말을 마치며 나는 그들에게 내가 교회의 관리 감독을 역임하고 있을 때 건축 프로그램 책임을 맡았던 것에 대해 말했읍니다. 우리는 로스앤젤리스 신전을 위한 설계도를 준비했었읍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 설계도를 대관장단에게 가져가서 보여 드렸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기 설비 계획이나 배관 계획을 완료하지 않았었읍니다. 우리는 세로가 약 4피트나 되고, 너비가 2.5피트나 되는 크기의 서류 즉 84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갖고 있었읍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청사진을 보았다고 상상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청사진을 가져가서 이 세상의 모든 물긴을 거기에 알맞게 맞추려고 노력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청사진에 알맞은 건물은 오직 하나 뿐입니다.

"모세는 말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면 분명히 찾게 되리라고 말했읍니다."

그 건물이 바로 로스앤젤리스에 있는 몰몬 신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또 이렇게 말했읍니다. "물론 여러분은 시멘트와 목재와 전선과 배관 등의 재료로 건축된 건물을 찾을 수가 있읍니다만 그러한 청사진에 적합한 건물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성경을 들어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여기에 주님의 청사진이 있읍니다. 이사야는 주님이 태초에 종말을 선언하셨다고 말했읍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청사진을 취하여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청사진

에 알맞은 교회는 하나 뿐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내가 의도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캐넌 프레데릭 윌리엄 패러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생애(캇셀, 1902년)에서 신약 성서에는 그가 해명할 수 없는 두 구절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나는 말해 주었읍니다. 첫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6절인데, 이 구절에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나는 또한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러분 중에서 성경에 그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경에 그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는 교회를 아시는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전부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영원한 작은 산의 경계에 있는 새 땅에 관하여 요셉이 받은 약속을 설명했읍니다. 모세는 그 땅을 설명하면서 "보물"이라는 말을 몇 구절에서 다섯 번이나 사용하고 있읍니다. (신 33:13—19 참조)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요셉에게 약속된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곳이 미대륙이며, 예수님이 미대륙의 백성을 방문하셨으며, 예수님은 그 백성이 바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한 바 있는 다른 양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설명했읍니다. (니삼 15:21 참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다른 양들이 누구인지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도록 그에게 명하신 적이 없었으며, 단지 그에게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만을 말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니삼 15:15—17 참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구절은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이 기록된 성구였읍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고전 15:29)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여러분 중에서 성경에 그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경에 그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는 교회를 아시는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다음 교리를 설명해 주었읍니다.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리스도를 죽게 한 자들에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행 3:20—21)고 한 베드로의 말을 인용해 주었읍니다.

그것은 종교 개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서 두 시간 반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예언자들이 약속한 구세주의 오심을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종교 개혁이 아니라 회복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책임자 한 분이 "리차즈씨, 이 경험은 내 생애에서의 가장 흥미있는 경험의 하나입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사 29:14)고 말했을 때 의미한 바였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진실로 사랑하는 자로서 시간을 들여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이 교회에 가입하지 않을 사람은 이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간증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오심에 대비하여 길을 예비하도록 그의 사자를 보내셨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인간— 하나님의 자녀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영원한 기쁨의 기초가 되는 개념

내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진리는 우리들 인간은 진실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 그 진리에 따라 생활한다면 병들어 멸망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는 새로운 변혁을 가져와 구원받을 것이며 인간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으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은 이 개념을 그들의 신학의 기본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이 개념을 깊이 생각하고 그 속에 함축된 뜻을 충분히 깨달은 사람의 삶은 그것의 지배를 받읍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는 그들이 그것은 식물계, 동물계 그리고 사람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성숙의 단계에 이르면 부모와 같이 되는 자손을 번식하는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와 똑같은 법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역사하고 있다고 추리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목적은 언젠가는 그들의 하늘 부모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추리로써만 그렇게 말하지 않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를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의 부모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하나님의 삶을 말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읍니다. 그는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며 대화하였읍니다. 타락 후 "아담과 그 아내 이브는 주의 이름을 부르매 에덴 동산 동편 길에서 저들에

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모세서 5 : 4) 들었읍니다.

그 후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그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의 계획을 가르치게 하셨읍니다. 이리하여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에 복을 돌리며 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하였읍니다. 이에 "사탄이 저들에게 와서 이르되…이 말을 믿지 말라 하니 저들이 믿지 않게 되었으며 도리어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그때로부터 인간은 육체와 육욕과 악마를 좇는 자…" (모세서 5 : 12—13)가 되었읍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의 첫번 세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시대에서 노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자에게 거듭하여 그것을 계시하셨으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읍니다. 그분은 똑같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고 그 후 모세에게도 계시해 주셨읍니다.

"모세가 심히 높은 산으로 이끌리어 갔을 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았고 말씀을 주고 받았으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는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보라, 너는 내 아들이니라…

"내 아들 모세야, 나는 네게 시킬 일이 한 가지 있느니라. 너는 나의 독생자와 닮았도다. 또 나의 독생자는 지금이나 장차에도 구세주가 될 자라. 이는 저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

"이제 보라, 내 아들 모세야, 이 한 가지 일을 네게 보이노니, 너는 세상에 있어 내가 네게 이를 보이는도다." (모세서 1 : 1—4, 6—7)

이 짧막한 성구에서 주님께서는 세번이나 모세를 "내 아들"이라 부르셨읍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행한 그의 연설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행 17 : 28)고 하였읍니다.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그가 살아 계시다"고 선언하였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76 : 23—24)

우리가 지상의 아버지가 낳은 아들 딸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것은 사실이겠읍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인간의 영혼이 두 개의 원소로 구성된 존재 곧 살과 뼈로 된 육체에 거하고 있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계시에 의하면 "인간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 (교성 88 : 15) 있읍니다. 지상의 아버지가 인간의 육체의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영의 아버지입니다.

영의 속성은 경전에 알기 쉽게 계시되어 있읍니다. 영에 대한 명확한 묘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약 2천 년 전 영으로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기록이 이더서 3장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는 인간의 형상과 모습으로 야렛 형제 앞에 서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이제 네가 보았느냐?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니라.

"…보라 네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 내가 나의 영체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 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 (이더서 3 : 14—16)

이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833년 5월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읍니다.

"…나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나는 장자니라.

"너희도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이는 곧…영이라…"(교리와 성약 93 : 21, 23)

우리는 아브라함이 천국회의에 모인 많은 영들을 본 시현에 대한 그의 기록을 통하여 전세의 우리 영의 상태에 대해 약간 알고 있읍니다. 천국회의에서는 영들이 와서 살과 피로 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 살 장소로서 이 지구를 창조할 것에 대해 논의되었읍니다. 지상 생활의 시험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죽어야 하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원한 영체와 죽어야 하는 육체가 분리되나 그 후 이 둘은 부활 때 불사불멸의 영혼으로 다시 결합되리라는 계획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만약 그들이 이 지구에 거하는 동안 자기들의 충실함을 증거하면 부활한 존재로서 그들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다시 돌아가 영원한 진보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주께서는 나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라…

"하나님이 이 영들을 보시니 좋은지라. 그가… 가라사대 나는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영이 된 이들 가운데 서 계셨음이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저들 중 하나라. 너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들 중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분이 바로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임〕이 서 계시더니,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저들이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질 것이요,〔이것은 우리를 가리킴 ; 우리가 첫째 지체를 잘 지켰고 육체를 받음으로써 더하여 졌음〕…또 둘째 지체〔곧 현세〕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아브라함서 3 : 22—26)

이것은 인간의 매우 훌륭한 상태에 관하여 계시된 진리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알렉산더 포우프는 자기의 본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부인한 결과 인간이 타락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읍니다. 이제 그가 묘사한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포우프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읍니다.

"이 지협의 중간 상태에 위치한 채
침울하고 지혜로우며 거칠고 위대하며 회의론자의 지식은 많이 가졌으나 스토아 철학자의 자만심은 아주 적은 존재로
그는 행동해야 할지 쉬어야 할지
자신을 신적 존재로 아니면
동물적 존재로 생각해야 할지
정신과 육체 중
어느 것을 중시해야 할지
회의의 갈림길에서 방황한다.

죽기 위해 태어났을 뿐,
생각하나 잘못을 범하고
그의 이성은 마치 무지한
상태에서처럼 옹졸하게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생각하며
사상과 욕정의 혼돈으로
모두가 혼란스럽고
혼자서 자학하거나 자각하며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게
창조되었으며,
만물의 영장이면서
모든 것의 희생이 되고
진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이나
끝없이 오류 속을 헤매이며
세상의 영예와 조롱과 수수께끼로…"

"식물처럼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자기의 독특한 자리를 지키며
양분을 섭취하고 번식하며 썩고…"

"인생의 대양에서 제각기 우리는
항해하고 방위판을 설명한다.
그러나 욕정은 큰 바람처럼 일고…"

"그 때로부터 아론의 뱀처럼
짐승같은 욕정의 주인은 나머지를
온통 삼켜 버린다."
인간에 관한 수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학설이 나돌고 있읍니다. 하지만 학설이 인정되고 영향을 미치는 한 인간의 영적인 성장을 막고 도덕을 타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은 계속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사실은 분명히 예언되었읍니다. 이러한 학설을 신봉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신적 존재로 아니면 동물적 존재로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포우프의 회의와 같은 학설은 동물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찬성하는 쪽으로 귀착되고 있으며 "자신의 정신이나 육체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시할지에 대한 회의는 육체를 중시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읍니다.

인간이 동물적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지 않게 하고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는 우리가 내일이면 죽게 됨이라"고 말하는 운명론자의 태도를 채택하게 합니다. 진실로 그는 포우프가 말한 대로 됩니다.

"식물처럼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자기의 독특한 자리를 지키며
양분을 섭취하고 번식하며 썩고…"

"인생의 대양에서 제각기 우리는
항해하고 방위판을 설명한다.
그러나 욕정은 큰 바람처럼 일고…"

"그 때로부터 아론의 뱀처럼
짐승같은 욕정의 주인은 나머지를
온통 삼켜 버린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곧 발달의 초기에 있는 신이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면 누구나 어린이들이 부르는 다음 노래에 공감하고 있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나오미 더블류 랜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인간에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와 같은 지식은 영감을 받지 않은 자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읍니다. 어떠한 논리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세상적인 학문도 이 지식을 찾아낼 수 없으며 앞으로도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같은 학문의 연구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딤후 3 : 7)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성스런 계시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아담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시를 받아 왔읍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으며 성신의 권세로 이에 대한 간증을 얻은 자의 소망과 열망과 동기는 이를 믿지 아니하는 자의 소망과는 다릅니다. 이는 마치 자라나는 포도나무가 잘라낸 가지와 다른 것과 같읍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에 인간은 "자신을 신적 존재로 아니면 동물적 존재로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회의를 갖지 않읍니다. 그는 "욕정"과 "혼돈"으로 휩싸여 "사상의 혼란"에 빠지지도 않으며 "식물처럼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자기의 독특한 자리를 지키며 양분을 섭취하고 번식하며 썩지"도 않읍니다. 그는 경전의 가르침대로 다른 모든 만물이 자손을 번식하는 것처럼 성숙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늘의 부모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어 "저의 〔그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해지게" (모세서 3 : 26) 되는 천부의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의 목표입니다.

그는 십계명, 산상수훈, 지혜의 말씀 그리고 이외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지시와 계명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준수하는 것은 그의 온 생애를 바쳐 얻으려고 하는 그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권유와 목표를 받아들이려고 애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 : 28)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니파이삼서 2 : 48)

그는 "…너희 스스로 조심하게 하노니, 곧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라."(교성 84 : 43—44)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고 올바른 일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는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성 93 : 1)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읍니다.

그는 욥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 19 : 25—26)

그는 앨마의 소망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오 내가 천사되어, 내 마음의 원대로 앞에 나아가 주의 나팔로 땅이 흔들릴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천둥같은 목소리로 회개와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이 땅 위에 다시는 슬픔이 깃들지 않게 할 수 있으련만," (앨마서 29 : 1—2)

끝으로 그는 니파이처럼 다음과 같은 결심을 갖고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니파이일서 3 : 7)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말을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도 역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딸이며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지식을 적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개인적인 간증을 부언해 드립니다. 진실로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함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세 가지 규칙

사랑하는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격려하고 고취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권을 부여하는 의식에서 우리가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성약하였읍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 할진대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겠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며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고 성약하셨읍니다. (교성 84 : 33—38 참조)

그러나 이 성약을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교성 84 : 41)

주님께서는 이 성약을 주신 날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계명 하나를 주어 너희 스스로 조심하게 하노니, 곧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가야 할 것임이라."(교성 84 : 44)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열망입니다.

또 하나는 영생의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기도입니다.

경전은 주님께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거듭 말하고 있읍니다. 앨마는 이같이 말했읍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든지 생명에 이르든지 인간의 원대로 허락하시며, 인간이 원하는 대로 구원도 허가하시며 죽음도 허락하심을 내가 앎이라." (앨 29 : 4)

예수님은 이 원칙대로 행하셨읍니다.

요한은 양피지에 이렇게 기록하였읍니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요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서 사람들을 당신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이를 원하였으므로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때까지 머물러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들 앞에서 예언하리라." (교리와 성약 7 : 1—3)

말일의 경륜의 시기가 시작될 때 주님은 예언자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 원할진대 그 일에 부름을 받나니"(교성 4 : 3)

2개월 후에 주님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 원하는 바는 다 이루어지리라…"(교성 6 : 8)

우리가 욕망을 가져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하여 교리와 성약 18편에 잘 나타나 있읍니다.

"보라, 너희 외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게 될 자가 또 있나니,

"곧 열 두 사람이라. 열 둘은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이름을 받들리라. 이 열 둘은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이름을 받들기 원할 자니라.

"만일 저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이름을 받들기 원하면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느니라.

"보라, 너희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여,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가 말한 바를 완수하고자 원하는 자 열 둘을 찾아내라." (교리와 성약 18 : 26—28, 37)

이들이 원하는 바란 직책에 부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교 지역에서 낙심한 선교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애쓰던 때가 기억납니다. 나는 마침내 그에게 "형제님은 원하는 것이 없읍니까?"라고 물었읍니다. 그는 "물론 있지요. 저는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였읍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떤 특정한 지위에 성임되기를 원해서는 안됩니다. 그와 같은 열망은 의로운 열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리 사욕적인 야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열망은 우리가 받는 모든 신권의 부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열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는 모든 직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복음대로 생활하려는 열망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특정한 직책을 얻었다는 것이 그를 구원하지는 않읍니다. 구원은 그가 부름을 받은 직책에서 얼마나 그의 의무를 다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자세히 생각하여 보면 자격을 갖춘 제사를 거의 찾을 수가 없읍니다. 제사가 그의 의무와 부름과 직위를 이행하고 성신의 인도로 복음을 가르친다면 그는 대관장단의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큰 기쁨을 누릴 것이며, 교사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데져렛 출판사, 1961년〕, 112페이지)

실현될 수 있는 열망이란 막연한 바람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열의를 지닌 것이어야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동기를 줄 수 있는 열망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망이 신권 소유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일 중의 한 가지는 영생의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연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므로 그것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는 이같이 답변하셨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 : 39)

주님은 그의 계명의 책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참되고 신실하며 그 가운데 있는 예언과 약속은 모두 성취될 것임이니라."(교성 1 : 37)

우리는 "성경과 몰몬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교성 42 : 12)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읍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칙을 모르고서는 이 임무를 이행할 수 없읍니다.

요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 존 휘트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경전을 연구하는 일…을 수행함에 너희 시간을 바치라. …"(교성 26 : 1)

커틀랜드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리는 지시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니, 이 일을 너희 가슴 속에 간직하라. 그리하여 영원한 엄숙함이 너희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하라."(교성 43 : 34)

나는 경전을 읽으면서 몰몬경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상고하라, 명상하라, 또는 생각하라 등의 낱말에 유의하게 됩니다. 사전에서는 "깊이 생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로 풀이 되어 있읍니다. 모로나이는 그의 기록을 마치면서 이러한 말을 사용하였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하나님께서…너희로 이 기록을 읽게 하실 때에…너희가 이 기록을 받을 때까지 주가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며 이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모로나이서 10 : 3)

예수님은 니파이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연약한지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지금 전하게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지 못할 줄로 내가 아노니,

"너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며…"(니파이삼서 17 : 2—3)

생각하라, 명상하라 또는 상고하라는 말은 기도의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는 주님의 영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니파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읍니다.

"내가 나의 부친께서 보신 것을 심히 알기를 원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부친이 보신 것을 나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주님의 영에 이끌려…높은 산으로 이끌려 갔더니," (니일 11 : 1)

그 후에 주님의 영은 니파이에게 시현을 보여 주었읍니다. 이는 그가 그의 예언자 아버지의 말을 믿었으며 심히 알고자 원하였고 이것을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1908년 10월 3일 나는 내 방에 앉아서 경전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때 특별히 기억한 성구는 예수님이 땅 속에 묻히셨을 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벧전3 : 19)하셨다고 기록한 베드로의 말이었읍니다.

"기록된 이 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나의 이해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으며, 작고 큰 죽은 자들의 무리를 보았다"고 스미스 대관장님은 말을 이었읍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영 가운데 행해지는 선교 사업에 관한 시현을 우리에게 설명하셨읍니다. (복음 교리, 〔데져렛 출판사, 1939년〕, 472페이지)

마음에 열망을 가지는 것, "영생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하기는 하나 여기에 기도가 없다면 충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구세주께로 가는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접촉 반응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 : 20)

태초로부터 우리는 기도를 드리라는 명을 받았읍니다. 주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계명을 주셨으며, 후에 천사를 보내어 "…회개하며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전하셨읍니다. (모세서 5 : 5, 8)

예수님은 니파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읍니다.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사로잡아 밀같이 채로 치려 하는 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니파이삼서 18 : 18—19, 21)

이 경륜의 시기에 아직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주님은 예언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읍니다.

"항상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라. 참으로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업을 받드는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교리와 성약 10 : 5)

주님은 제사들에게 이같이 지시하셨읍니다.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을 권고하느니라." (교성 20 : 47, 51) 미주우리주 잭슨군을 세우러 간 교회의 회원들에게 주님은 이같은 계명을 주셨읍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주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내 백성을 심판하는 자 앞에서 기억되리라."(교성 68 : 33)

마침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사악한 자가 너희를 정복하여 너희 처소에서 너희를 옮겨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교성 93 : 49)

결론적으로 니파이의 권고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도 너희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는 빛 가운데로 인도되지 못하고 흑암에 이끌려가 멸망당하리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너희가 마음으로 염려함을 아노니, 이 일이 나를 슬프게 하여 이러한 것을 말하게 하였도다. 너희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는 영에게 귀 기울였던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으리라. 악령은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가르쳐 기도하면 안된다 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힘을 잃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아무것도 주 앞에 행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일이 너희들 영욱에 이로운 것이 되도록 네가 행한 일을 네게 성결케 하시리로다." (니파이 이서 32 : 1, 3—4, 8—9)

주님이 성스러운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것에 대하여 기도함으로써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얻게 하시고, 이로써 "신권에 속해 있는 성약"에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주님을 찾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목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친구되시는 여러분, 그리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대회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롬니 부대관장님의 뒤를 이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 내게는 항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에는 마음의 양식이 될 교훈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생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지식과 과학의 발전을 크게 이룩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며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더우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소산이라는 것을 잊고 있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지혜에만 의존할 수는 없읍니다. 그렇게 할진대 심한 혼란과 궁극적인 파멸만이 초래될 것입니다.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적을 모르고서는 자신이 아무리 발달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은 물론 정확한 해답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앙을 갖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겸손과 참된 기도로써 간구하여 권고와 인도를 얻어야만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 55 : 6—7)

이 권고의 말씀은 고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기독교의 참된 가르침과 윤리를 저버림으로써 촉진된 이른바 악화 일로에 있으며, 좌절을 안겨 주는 세계 문제는 인간이 죄를 버리고 참된 회개를 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위험과 많은 슬픔이 곧 임하리라고 인간에게 경고하고 있읍니다. 악마의 유혹을 피하고 이사야의 권고에 따름으로써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너그러우신 용서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의로운 생활의 확고한 기초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견줄 만하거나 이를 대신할 계획이나 도덕이나 신조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복음이야말로 현명한 지침이요,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율법이고, 원리이며, 의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은 고대와 현대 경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인간의 가르침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유감스럽게도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영생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세속적인 현세만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인간의 철학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복음의 원리를 대치하거나 능가할 수 없으며, 하물며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이 그의 예언자를 통해서 밝혀 주신 진리를 대치할 수 없읍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릅니다. 그의 길은 인간의 길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언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이사야 55 : 8—9)

구세주께서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 주는 다음 지침을 계시로 알려 주셨읍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

인 줄 알리라.

"또 나는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요,"(교리와 성약 93 : 1—2)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완전한 생명의 길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전생애 동안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높은 이상과 고상한 표준을 항상 추구해야 합니다. 말일성도의 신앙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에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 : 7—8)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하여 신앙과 진실한 기도로써 학문을 구하십시오. 순종하는 용기를 지니십시오. 주님은 인간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순종하지 아니하시는 어떠한 계명이나 율법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순종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이며,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을 수 있읍니다.

현세에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고칠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그렇게 할 도덕적인 책임도 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애가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고 이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속주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하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충실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하늘 왕국의 처소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싶다는 소망을 구해야 합니다. 다음 성구는 이와 같은 생각을 뒷받침해 줍니다.

"만일 너희가 해의 영광의 세계에 있을 곳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요구한 바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준비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78 : 7)

수많은 사람이 생의 교훈을 힘든 방법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진실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읍니다.

주님이 예언자 에스겔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겔 18 : 23)

주님은 모세에게 그의 자녀들의 복지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 : 39)

불사불멸은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확실히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합당해야 합니다.

시편 작가인 다윗은 다음과 같은 영감받은 말로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읍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시편 8 : 4—6)

현대 과학과 공학에서 인간이 이룬 업적, 우주 탐험에 대한 인간의 소망과 용기,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달성한 인간의 업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러므로 인간은 인도와 빛과 진리를 더 많이 얻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이 신앙과 이해력과 헌신에서 하나가 되어 발전하기를 바라고 계심을 밝히 나타내 주셨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하였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전 1 : 10)

우리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서, 또한 서로 사랑과 선행을 베풀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지상에 살고 있읍니다. 우리는 비활동적이나 잘못을 범하고 있는 회원들을 격려할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우리의 임무는 "교회 안에 악행이 없는지,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일이 없는지,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 욕설하는 일들이 없는지 살피"(교성 20 : 54)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바 있읍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3 : 8—9)

교회의 진정한 힘은 회원의 성품과 헌신에 있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이렇게 가르쳤읍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전 9 : 14) 이 권고의 말씀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대로 생활하고 훌륭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동시에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이 따를 올바른 길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오늘날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3백만이나 되는 교회 회원이 복음의 원리를 실천한다면 세상의 모든 죄는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로 나아올 것이며, 우리는 세상에서의 좌절을 복음의 평화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처치 뉴스, 1972년 2월 26일, 13페이지)

나는 교회 회원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우리가 지상에서 어떠한 생을 살아 나가느냐에 달려 있읍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읍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예치 못하리라"(고전 10 : 21) 다시 말해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읍니다. 이는 우리가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읍니다. (마 6 : 24 참조)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와 있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원한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절도와 강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 10 : 1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 비유를 말씀하셨읍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마태복음 13 : 45—46)

우리 각자는 그와 같이 좋은 진주 즉 천국을 구할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겐 모두 구세주의 비유대로 극히 값진 진주나 다름없는 천국을 구할 책임이 있읍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희생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없기 때문이요, 영생을 가진 자가 곧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교성 6 : 13, 17 참조)

복음대로 생활하고 있지 않은 회원들에게 나는 일년 동안 복음의 모든 원리에 따르고 교회 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석함으로써 복음을 실천하라고 목표를 주고 싶읍니다. 그런 다음 1년간 충실히 복음을 실천한 후의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과거의 생활을 비교하여 보고 어느 생활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 양심에 거리낌없이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과 가족에게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활에서 복음대로 생활하는 기회를 가져 보십시오.

성신이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신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된다면 성신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해 줄 것입니다. 성신은 여러분의 마음에 간증을 심어 주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그를 섬김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가르침이 참된 것임을 증거해 줄 것이며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 것입니다. (롬 1 : 16 참조)

성신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길은 인간이 구세주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실히 증거해 줄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싶어하나 현재의 생활과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다음 목표를 드립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며,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께 구하라는 목표를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 마음의 기쁨, 영혼의 위안, 개인적인 필요 사항의 충족 그리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이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친구되시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속주요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의 생명을 희생하셨읍니다.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읍니다. 그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하셨읍니다.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하고 전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우리의 감사를 표시할 수 있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빕니다. 또한 우리에게 악마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서 의롭게 생활하도록 영적인 힘을 축복해 주시기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먹든지 말든지 네게 맡기노라"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의 하나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인생이란 여행의 초기에 인간은 진보와 행복에 이르는 오른쪽 길과 침체와 슬픔으로 인도하는 왼쪽 길이 나 있는 갈림길에서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결정하는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을 형성한다는 영원한 법칙이 바로 이곳에 있읍니다. 성공이나 실패, 평안이나 불안, 행복이나 불행은 모두 매일 우리가 결정하는 선택에 달려 있읍니다.

경전을 보면 개인에 대한 으뜸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선택의 자유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창세 전 천국회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여 그곳에 사람이 살게 하는 계획을 발표하셨읍니다.

그분은 그의 영의 자녀들이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지구로 가서 살과 피의 육체을 입고 범사에 유혹과 시험을 받으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셨읍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모든 인류를 강제로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할 계획을 가지고 나타나 이렇게 하겠으니 자기에게 그의 영예를 달라고 말하였읍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계획을 제시하셨고 그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합소서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리스도의 계획이 받아들여졌고 살과 피의 육체를 입고 지상에 거할 모든 사람은 천국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였으며 사탄은 모반하여 천국의 3분의 1이나 되는 영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를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에 사탄이 모반하여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미 부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하려 하였고, 나의 권능을 자기에게 줄 것을 구하였으므로 저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써 던지움을 받게 하였더라.

"이에 저가 사탄이 되었나니,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비라. 인간을 미혹케 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 (모세서 4 : 3-4)

이때 사탄은 그의 추종자들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와 의로운 대업을 멸하려고 결심했읍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데 성공하여 그의 흉악한 사업을 시작했읍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나 이는 네게 주어진 것이니 먹든지 말든지 네게 맡기노라…" (모세서 3 : 16-17)

사탄이 우리를 멸할 것을 결심한데 반해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 : 39) 그는 그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온 인류가 불사불멸을 얻게 하셨읍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복음과 고대 및 현대 예언자의 가르침을 통하여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 대한 구원과 승영의 약속에 대해서는 물론 생의 목적과 선악을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탄이 인간을 멸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으며 끊임없이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경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사탄은 저들을 선동하여 저희 영육을 멸망으로 인도하려 하느니라.

"이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파멸시키려는 생각으로 간교한 계획을 꾸미나… 이같이 사탄은 인간의 영육을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니라."(교리와 성약 10 : 22-23, 27)

사탄의 실재와 그가 장악하고 있는 전세와 영향력은 에덴 동산에서의 첫번 유혹 이래 명확해졌읍니다. 그는 카인으로 하여금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큰 고통과 슬픔을 초래했읍니다. 몰몬경에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사탄의 세력에 굴복한 개인이나 집단의 멸망에 관한 예가 많이 있읍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대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홍수 때 백성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했읍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사탄을 추종하였기 때문에 이 큰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읍니다. 현세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로마 제국의 멸망에 관한 기록을 읽읍니다. 기록이 너무나 많으므로 그 외의 다른 문명이나 도시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한 개인의 멸망을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읍니다.

최근 "누가 미국의 얼을 추락시키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행한 충격적인 연설에서 젠킨 로이드 존스씨는 역사의 길에는 죽은 국가와 멸망한 제국의 뼈가 흩어져 있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로마가 멸망한 것은 그 도시의 성벽이 낮은 데 원인이 있지 않고 로마 자체의 수준이 낮은 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지적했읍니다. 호색과 주연과 한때 자기 수련을 쌓았던 백성이 점차로 연약한 기질을 갖게 된 것은 로마의 멸망을 가져왔읍니다. (미국 신문 편집인 협회에서 행한 연설)

우리가 선을 두고 오히려 악을 택할 때 자유를 잃어 버리며 우리를 멸하려 하고 우리에게서 의로움에 딸려 있는 축복을 박탈하려는 자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더 확실한 증거가 이러한 모든 실례 이외에도 또 있읍니까? 매일 자신의 선택을 결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씨앗을 심고 축복의 수확을 거둘 수 없읍니다. 실례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겠읍니다.

훌륭하게 성공한 어느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장래에 대해 매우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어느 날 그는 사업가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사교적인 음주는 자신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어 주고 성공하도록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는 곧 칵테일 파티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또한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 것도 알았읍니다. 마침내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실직하고 아내와 친구마저도 잃고 말았읍니다. 결정의 순간에 선택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한때 성취하기 위해 그토록 희망을 품고 열심히 시작한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애굽에 팔려간 요셉,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구출한 모세, 다니엘 등의 본보기가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기이한 예언을 많이 하셨읍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서 올라 왔을 때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단 6 : 23) 이외에 많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은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것을 택하는 용기를 가졌으므로 자신을 구하고 백성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출해 내었읍니다.

자기 수련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노를 젓기보다는 표류하는 것이 훨씬 쉽고 언덕을 오르는 것보다는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사탄은 항상 술, 담배 , 환각제, 외설물, 기만, 부정직, 감언이설 등의 형태로 우리의 길에 유혹을 놓아 둠으로써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애쓰며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악행을 저지르게 사로잡아 두려고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오늘날 전세계에 만연된 악에 어떻게 대항하여 싸울 수 있읍니까? 사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극렬하게 인간을 그의 지배하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사탄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여 우리의 영향력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력이 되게 함으로써만 사탄을 꺾을 수가 있읍니다. 자유와 평화, 성공과 행복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영생을 얻기 위해 애쓰는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선한 사람은 지도자로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이웃으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와 자녀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무리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데 모범과 교훈으로써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날 전세계에 만연된 것으로서 제약과 인습은 자녀의 정신에 해를 미친다고 하는 사상으로 우리 스스로 미혹당하거나 실족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묵인하는 개방적인 사회를 향상시킨다하여 이들은 자녀가 나쁜 행실을 하여도 훈육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읍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도록 권고받고 있읍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 : 25, 28)

자녀는 혼자서 선악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녀의 준비성과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선택할 일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 자녀의 능력을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훈육하여 그들이 의의 일을 행하게 할 책임을 지니고 있읍니다. 자녀가 흙투성이가 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자녀가 목욕을 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내버려두지 않읍니다. 또한 자녀가 병에 걸린 때에 약을 먹어야 할지 먹지 않아야 할지 또는 학교에 가야 할지 가지 않아야 할지, 아니면 교회에 가야 할지 가지 않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을 지체하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읍니다. 모범과 설득과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가 자신을 위해 최고로 좋은 일을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읍니다. 작고한 제이 에드가 후버 국장은 말하기를 만약 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주일학교와 교회에 데려간다면 그들은 청소년 범죄를 조장하는 무리들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초기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훌륭한 개념과 사실을 가르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현세에서 성공과 행복을 성취하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며 사탄은 온갖 수단을 다 이용하여 그들이 나쁜 일을 하게 유혹하고 그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며 자기의 포로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써는 얻을 수 없는 최고의 행복과 승영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덕성과 의의 모범을 보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의 수준을 높은 영적인 표준에서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물적인 본능과 욕망으로 가득 찬 수준에까지 타락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부패하며 멸망해 버리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읍니다. 다시 젠킨 로이드 존스씨의 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읍니다. 그는 우리가 도덕적인 표준의 타락으로 시달림을 받으며 의로운 분노를 느끼는 감각이 둔감해지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누가 영화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욱 추잡하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읍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추잡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실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그들로부터 우롱당하고 있읍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부도덕이 대담한 예술 형태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 왜 우리는 바보처럼 방종이 참으로 사교적인 것이라고 수긍하고 있읍니까?"

"…우리는 쇠퇴하는 묵인의 원리를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도달했읍니다. 이것과 자유의 원리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옛날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하던 죄와 같은 죄가 있다는 사상을 다시 회복한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기 수련을 유행의 풍조에 묻어 버린 때입니다."

"또한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인간을 멸하려는 사탄의 술책이라는 것을 절감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텔리비전이나 라디오에 외설 프로가 판을 치며, 서점이나 유흥장에 음란 서적이나 춘화가 나돌고, 음주 운전, 고속도로 사고, 가정의 파탄 등을 포함에서 미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술과 그에 따른 악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법의 가결로 위협을 받는다면, 이와 같은 침해에 대항하여 용기있게 말하고 조직하며 우리 자신과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개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의무요 책임입니다. 우리가 도덕과 자녀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의 부도덕과 악에 효율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기의 자유의지를 불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유의지의 개념을 남용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는 이기적으로 악랄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급급한 자들이 야기하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서 여론을 조성하는 미혹된 소수의 무리도 있읍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가족의 결속을 가질 수 있고 국가의 힘이 되는 우리의 훌륭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변하며 굳건한 태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무리들에 대항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날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쟁, 죽음, 고통, 빈곤, 질병 등 참상을 깊이 생각해 보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같은 소란스러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어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게 하실까 하며 의문을 가질 우리는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 무죄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지라도 오늘날 지상에 존재하는 제반 분쟁과 다툼과 가증함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생활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추종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읍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마련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보하려면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태초부터 들어왔읍니다. 다시 경전을 상고해 보겠읍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의로운 것이나 죄악이나 성스런 것이나 비참한 것이나 선이나 악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저 스스로 행동하게 하시었음에 사람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느니라. 인간은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여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 이제 악마가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니파이이서 2 : 11, 16, 27)

인간은 불행하게 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읍니다. 이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니이 2 : 25)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일에서 도움과 안내를 받고,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일로 기쁨과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일에 지상에다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여 그의 교회인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아셨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행할 수 있는 권능인 신권을 회복해 주시고 예언자도 다시 세워주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수많은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만이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평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참된 길을 제시해 준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매일 우리는 자신의 선택으로 장차 선이나 악을 추수할지, 구원이나 멸망을 거둘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영생을 거둘지 아니면 그의 면전에서 버림을 받는 절망을 거둘지를 결정하고 있읍니다. 매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말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계명을 지켜야 할지 지키지 않아야 할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주님의 대변자요 오늘날 지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도자임을 확실히 알고 그분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음성에 귀기울이며 그를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개조를 받아들여 그 신조에 따라 생활하며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순결하고, 인자하고, 유덕하며, 명예롭고, 올바르며 좋은 이웃으로서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지 않는지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유익을 위한 모든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만약 우리가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른다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에 따라 진리와 의의 길에 인도되어 이웃에게서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얻을 것이며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훌륭한 축복을 거절하고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먹든지 말든지 네게 맡기노라."

우리 모두 현명하게 선택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신권의 책임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신권 소유자의 책임은 복음의 원리를 교수하는 것이다

나는 때대로 우리가 진실로 신권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읍니다. 주님과 가까이 계시는 롬니 부대관장님은 신권의 의미를 인식하게 하고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의 사항 몇 가지를 들려주셨읍니다. 오늘 저녁에 신권을 성실히 이행함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면 나는 롬니 부대관장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의 직책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권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신권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행할 수 있는 특권과 위대한 명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우리 앞에 놓여진 무거운 책임을 생각지 않을 수 없읍니다. 때때로 나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우리가 신권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우리는 자신을 인식하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인식하며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려는 것인가?"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싶읍니다. 즐겁게 보내십시오. 야구와 축구를 하십시오. 정구를 즐기십시오. 하고싶은 운동은 무엇이나 하십시오. 하고싶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올바른 것인 이상 다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거나 여러분의 신권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모범이 될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가장은 항상 가족이 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가장은 그의 가족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현세에서는 물론 영원한 가족으로의 행복을 누리면서 가족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하며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은 잊어서는 안됩니다. 자녀들이 가장 영향력있는 교훈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며 자녀들의 생활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가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며 그가 소유한 신권을 존중한다면 걱정할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세계 모든 신권 소유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겠읍니다. "소녀와 어머니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신권 소유자에게 말하는 것이며 신권 소유자들의 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십시오. 복음을 연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를 알고,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을 알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지키기 바랍니다. 가장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들에게도 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과 가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맥케이 자매님이 데이비드 오 맥

케이 대관장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저는 저의 남편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의 남편은 가정 외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한결같이 사랑스럽고, 예의바르고, 정중하며,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남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에게서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읍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이 모든 면에서 그의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이 충고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교훈이 될 만한 예로서 한 청년이 내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는 그의 부모님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신전에 가야 하는 중요성과 신전을 정규적으로 방문하여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 주셨다고 말했읍니다. 그들이 신전에 가기 위하여 준비를 할 때면 그들이 얻게 될 경험과 신전에 정규적으로 갈 수 있는 특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신전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의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신전 결혼을 하는 젊은 부부 한 쌍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들이 그곳에 참석할 수 있었던 커다란 특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하여 신전에 갈 수 있는 때를 거의 기다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님의 신전에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항상 감사를 느낍니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읍니다. 그분이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릴 때는 마치 직접 주님께 말씀하시는 듯하였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밀히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읍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정직하시고 훌륭하셨읍니다. 내게 좀더 시간이 있다면 내가 겪었던 경험을 빌어 나의 아버지가 그의 동료들에게 정직하였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읍니다. 그는 그의 신권을 성실히 이행하셨으며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셨읍니다. 그분은 항상 어머니에게 깊은 사랑을 보이셨읍니다.

그분은 농장 일이 바쁜데도 우리를 데리고 사냥이나 낚시를 가셨읍니다. 농장 일을 멈추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는 우리와 함께 하셨읍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절대로 가시지 않았읍니다. 그런 것은 생각조차도 않으셨읍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였읍니다. 나의 친구들이 "나도 너의 아버지같은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하고 함께 다니면 참 좋을 거야"라고 말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형제들은—네 명이었읍니다—다른 어느 사람보다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것을 좋아했읍니다. 왜냐하면 그는 훌륭하신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가장이 되시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자녀와 가까이 하셔서 그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그들의 생활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신임하셨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농장에서 일을 하였읍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찌기 또는 저녁에 나를 부르셔서 그날 할 일과 계획을 말씀하시고는 나의 의견을 물어 보셨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나는 그럴 때마다 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훌륭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분은 내게 대한 확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으며 그 때문에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였읍니다.

어느 날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얘야, 우리 집에 있는 고용인 중에서 네가 나를 가장 많이 도와 주고 있다. 난 너를 완전히 믿고 있다. 너는 하루의 일을 완수하고 있단다." 이러한 확신과 감사의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대되는 것보다 더 잘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자녀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착수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실지로 존재하며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고 낙담시키고 유혹하며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나를 깊이 감동시켰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가 말씀드리려는 패더스톤 장로께서 언짢게 생각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족이 인정도 받았고 아는 사람도 많은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이사온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었을 때 그의 아들 조가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빠, 제가 이곳에 잘 적응하여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의 아버지는 윗층으로 올라가서 옷을 갈아 입었읍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오니까 그의 부인이 "오늘 저녁에는 외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라고 말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축복을 주려고 하오. 조가 특별한 축복을 받고 싶다는군. 그래서 옷을 갈아 입었소. 신권을 존중해야지. 또 조에 대한 나의 관심을 그 애에게 보이고 싶소. 그러면 그 애는 신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던 부인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을 통하여 주님을 대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춤으로써 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아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남편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는 눈물을 흘렸읍니다.

나는 스테이크 부장을 포함하여 스테이크, 와드의 역원과 감독들에게 몇 마디 전하고 싶읍니다. 우리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특히 감독은 그의 보좌와 함께 아론 신권을 책임 맡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저녁에 많이 이야기되었으나 나는 몇 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여러분은 그들 모두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십시오. 그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이름을 알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요셉아"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 2서 : 17 참조) 그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듣기 좋아합니다.

우리의 젊은 형제들이 신권 소유자로서 의식을 집행할 때 그들이 주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그 기억을 새롭게 해주어야 하겠읍니다. 그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나 즐겁게 지낼 수 있으며 하고 싶은 대로 뛰놀 수 있읍니다. 그러나 신

권을 가지고 의식을 집행할 때는 그들이 주님을 대표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그에 합당한 의복을 입고 겸손하고 경건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감독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신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히 여기도록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감독으로 있었을 때 나의 와드에는 장로로 성임받을 나이에 이른 형제가 6명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섯 명만 추천할 수 밖에 없었읍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여러 번 이야기 하였읍니다. 그는 내게 "저는 합당치 못합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 청년은 이 일로 마음이 상했으나 스테이크 부장에게 추천되리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읍니다. 그의 아저씨가 내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읍니다. "그 애의 친구 다섯이 모두 앞으로 가는데 이 애만은 뒤로 붙들어 놓으시려는 것은 아니겠죠." 그는 이 청년도 앞으로 가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하였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감독님은 이 아이를 교회에서 내어 쫓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읍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읍니다. "신권이란 우리가 이 청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쟁반에서 신권을 꺼내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과 나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아직 이 아이는 장로로 성임될 준비가 안되었읍니다." 그는 추천받지 못하였읍니다. 몇 년 전 템플 스퀘어의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연차 대회에 참석하였을 때 한 젊은 청년이 내게 다가와서는 태너 부대관장님, 저를 기억하시지 못하겠지요. 제가 부대관장님께서 장로 성임에 추천을 안해 주셨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때의 일을 정말 감사드리고 싶읍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감독으로 있읍니다. 그때 제가 합당치 못하였는데도 저를 장로로 추천하셨다면 아마 저는 신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생활해야 합당한지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감독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감독 여러분,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읍니다. 그들은 저절로 얻어진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권의 참된 의의를 인식하고 감사히 여겨야 하며 그것을 얻기에 앞서서 합당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접견을 통하여 그들이 신권 추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신권 승진 추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선교사 추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준비가 되도록 도와 주셔야 합니다.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여서 행해져서는 안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신권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도와 주고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바랍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은 와드의 아버지로서 와드의 제반 사무를 지시하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장래에 와드와 스테이크의 지도자가 되고 언젠가는 이 좌석에 앉을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 주는 커다란 특권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도와 주고, 그들이 책임있는 직책에 있음을 인식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께 오늘 저녁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읍니다.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도자의 직책에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큰 특권이요, 축복이며, 우리가 이를 존중하고 어디에 부름을 받거나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과 승영을 얻을 수 있읍니다.

감독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판사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사랑과 확신과 진심으로 도와 주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범법자를 대하여야 하며 책임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스테이크 부장과 선교부장도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다. 부정한 행위를 보았을 때 여러분은 친절을 가지고 범법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그를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곧 친절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행한 범법을 관대히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부정 행위가 판명되었을 때 여러분의 의무는 그 행위의 심각도에 따라 범법 사건을 조사하고 다루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큰 범법을 방지할 수 있읍니다.

경전과 지침서를 읽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은 이 책임을 회피하여서는 안됩니다. 자기는 어느 누구도 징계를 하거나 회원 자격 정지를 내렸거나 파문을 시킨 적이 없으며 그렇게 할 의향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릇된 태도를 가졌으며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으로 범법하거나 잘못을 범한 자는 경전에 지시된 대로 처리하라."(교성 20 : 80)

존 테일러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읍니다. "더우기 범법 행위를 덮어 주려는 감독이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 자신이 그 죄를 짊어져야 할 것이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부정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죄를 짊어져야 하며,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맛보려 하거나 찬성한다면 그 사람도 죄를 짊어져야 합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 여러분 들으셨읍니까? 하나님은 이 과업을 여러분의 손에 맡기셨읍니다. 여러분은 의의 권리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 직위에 있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비행과 타락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대회 보고, 1880년 4월, 78페이지)

교회가 다루는 범죄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전 불법 성행위, 간음, 동성 연애, 낙태 등의 도덕적인 범법, 폭주, 강도, 절도 또는 살인 등의 도덕적인 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 배도, 사회의 법칙과 규칙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와 고의적인 불복종, 배우자 또는 자녀를 학대함, 복혼제를 옹호 또는 실시, 기타 국법이나 교회의 질서에 대한 비기독교인 다운 범법 행위 등.

범법한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읍니다. 사랑과 도웁고자 하는 열망과 합당한 징계로 정당하게 처분받은 범법자는 깨끗한 양심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발전을 얻는다는 것을 경험이 실증하여 주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할진대 그는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이며 여러분이 그를 도와 주려는 것 같이 주님은 여러분과 회개한 범법자 모두를 축복할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인 소년과 청년 특히 청년들에게 몇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저녁에 여러분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들었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도덕적으로 순결하라는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전 축복, 선교사의 부름, 기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직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축복 등 신권을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십시오. 여성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신권 소유자라면 청년이나 장년이나를 막론하고 신권을 존중할 수 없읍니다. 모든 청년은 일생 동안 여성의 덕을 보호하도록 준비해야 하며 여성의 품격을 떨어뜨리거나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덕을 잃게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여인에 대한 음욕을 품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여성은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과 외출할 때는 그가 모든 면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할 것이므로 안전을 느낄 권리가 있읍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세상의 도덕은 문란해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그들이 범법자이든 아니든, 그들은 신권 소유자인 여러분이 신권을 존중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러할 때 그들은 여러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에 대한 신임도 여러분과 교회에 대한 존경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감독, 지부장, 스테이크 부장, 대관장,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나의 신권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있읍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심각한 범법에 빠진 청년은 그가 회개하고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한 신전 추천을 신청할 수 없고 선교사의 부름을 받을 수 없으며 신권 승진도 기대할 수 없읍니다. 선교사로서 합당치 못하고, 헌신적이 아니며 범법을 행하여 불명예로 해임되어 집으로 돌아오거나 회원 자격이 정지되거나 파문된 선교사가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실망과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동반자에게 막대한 실망을 줍니다. 선교 지역으로 오기 전이거나 와 있는 동안에 범법한 선교사를 다루어야 하고 때로는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은 선교부장의 가슴을 찢는 일입니다. 이는 그의 부모를 실망시키고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과 그와 함께 일하던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이는 주님에 대한 모욕이며 선교사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자신의 본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이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1973년 10월 대회 말씀

—제 143 반년차 대회—

그 손을 잡아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어제 저녁에 가졌던 신권 모임에서 리 대관장님은 최근 뮌헨에서 가졌던 훌륭한 지역 대회와 그로 인해 성도들이 받은 축복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읍니다. 이 대회에 있었던 잊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젊고 아름다운 어느 자매가 한 이야기와 그녀가 전해 준 느낌입니다.

그 자매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머리는 보통 사람보다 약간 높게 쳐들고 있었읍니다. 영혼에 감동을 불러일으킨 일요일 오후 모임이 끝난 뒤에도 그 자매의 눈에서는 의미있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읍니다. 그녀의 영어는 매우 서툴렀읍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그 자매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읍니다. 그 자매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리 대관장님은 제 영혼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상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감격적인 말을 듣고 나는 마가복음에 있는 이와 비슷한 구절이 생각났읍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막 9 : 27)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그의 길을 따르려 한다면, 약하고 외롭고 절망에 빠져 있으며 고통에 허덕이고 복음에 주린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고 도와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정직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에게 유리할 때에만 올바른 원리를 택하는 사람을 일으켜 줄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신뢰할 때 그리고 이 대회의 개회 모임에서 리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자존심을 그들이 갖도록 할 때 많은 사람은 올바른 길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태복음 25 : 35, 36)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을 첨가할 수도 있읍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너희가 일으켜 주었고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 위로해 주었고 비틀거렸을 때 손을 잡아 주었고 방황할 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었느니라."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과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짐을 받아 영적으로 온전케 된 자들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읍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의 평화란 우리가 영적으로 고침을 받을 때에만 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옵니다. 괴로운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값진 이상입니다.

구세주께서 성역을 베푸실 때 많은 사람이 신체적인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과 행복이 늘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병고침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들리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신체적, 사회적 및 경제적인 성공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누 12 : 15)

구세주께서는 자주 신체적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고침을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올바른 길을 걸음으로써 얻게 되는 새로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주게 됨을 자랑하라고 하셨읍니다. 많은 사람이 신체적으로 병고침을 받기는 했으나 영적으로는 그대로 병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경전은 증거해 줍니다.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여 개심하고,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하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니삼 9 : 13)

병고침을 자랑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병고침으로 인하여 자신과 남이 들리움을 받고 더 큰 봉사를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들리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병고침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론지어서도 안됩니다.

현대에 있어 실로 위대한 기적은 괴로와하는 영혼을 들리움을 받게 하고 고쳐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의로움 가운데 견디려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값진 소유물입니다. 괴로와하는 영혼을 고치는 것은 의로운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과 힘을 부여해 줍니다. 그것은 순결, 신앙, 소망 및 사랑을 회복시켜 주고 한때 영적으로

병들었던 사람을 온전케 해줍니다.

이러한 병고침은 진리로 돌이키고 올바른 원리를 지킬 때에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읍니다. "죽음에서 일어 서시리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받으리라."(니이 25 : 13)

영적인 사망과 영적인 병은 주님과 그의 속죄의 희생에 의해 고침을 받으려는 사람에게서는 사라집니다.

리 대관장님께서는 최근 신권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능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일 뿐만이 아니라 신권의 거룩한 의식을 집행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여러분을 청결하고 순수한 그릇이 되게 준비시키는 권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참되고 충실하기만 하다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까지도 있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초월해서 영과 영혼, 그리고 인간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는 최근 어느 일간지 독자란에 기고된 편지를 잠깐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 편지는 이러한 안목과 가치의 일면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버씨. 간호원인 딸이 절단 수술을 받은 어느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어 비탄에 젖은 한 어머니가 쓴 편지를 읽었을 때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읍니다. (그 청년은 월남전에서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모두 잃었음.) 그 어머니는 딸이 무척 아름다와 '성한 사람'에게라도 쉽게 시집갈 수 있으리라고 했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내 남편이 나 대신 '성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세 살 적에 총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몸의 왼쪽이 마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살아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다른 여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걸을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느 훌륭한 분이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성한' 사람으로 생각했읍니다. 그는 미남이고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며 그는 나를 마치 여왕처럼 대해 줍니다. 우리는 십 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읍니다. 나는 아직도 나의 행운을 믿을 수가 없읍니다. 프레디 부인."

"프레디 부인, 그건 '행운' 이상의 것입니다. 당신의 앞길에 행운이 깃들 것임에 틀림없읍니다."

나는 또한 손을 잡아 있으켜 세워 주신 애버씨에게도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훌륭한 교회에 속한 우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주님과 손을 맞잡게 해줌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다음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 : 39)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쌔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 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사도행전 3 : 1—9)

이 성구는 여러 목적으로, 여러 관점에서 인용되지만 나는 오늘 아침 이 성구에 나오는 이 사람이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킬 때까지 그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을 수 있고 스스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읍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를 일으켰을 때 그는 걷기 시작했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일으킬 수가 있었읍니다.

생각하고 들리움을 받고 손을 잡아 주는 점에서 앞에서 인용한 성구는 종종 잘못 이해되었으므로 앞서 태너 부대관장이 이 모임에서 인용하셨던 다른 성구를 인용하겠읍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세기 2 : 24)

결혼한 사람은 반드시 부인에게 충실하고, 그녀를 돌보고 위로하고 협조해야 하지만 부모와 다른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그들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격리되며 결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도 가족의 일원으로 힘과 휴식과 즐거움의 원천이며 영원한 단위인 것입니다. 이제 갓 가정을 갖는 자녀를 둔 부모는 그의 가족 관계가 그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규제하고 관리하는 데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염려와 격려로 지속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많은 복음 선교사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할머니, 아주머니, 매부로부터 가장 소중한 편지를받았읍니다."

다른 선교사는 또 이렇게 말했읍니다. "저의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읍니다. 그러나 삼촌과 할아버지가 저의 선교 비용을 대주고 계십니다." 모든 가족은 우리에게 속해 있으며 우리는 그 가족에게 속해 있읍니다. 이것은 얼마나 신성한 의무며 축복입니까!

요셉 스미스는 가족을 영원한 힘의 원천으로 보았읍니다. 그는 여러 번 병고에 시달리는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읍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며 그로부터 충고를 받는 것을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는 경험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장 훌륭한 충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교회정사 2권, 289페이지)

우리는, 그가 예언자였지만 훌륭한 가족의 지혜와 사랑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읍니까?

요셉은 그의 형 하이람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읍니다. "형 하이람이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나의 형이다.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하이람 형,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을 가졌오. 아,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 영혼을 돌보아 준 대가로 영원한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빕니다."(교회정사 5권, 107—108페이

지) "나는 나의 모든 형제가 나의 형하이람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은 유순함과 용과 같은 성실함, 곧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지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한다. 이는 내가 그를 결코 꾸짖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교회정사 2권, 338페이지)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들리움은 자주 가족의 유대 안에서 옵니다. 때로 가장 절박하고 큰 도움을 요구해야 할 사람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찬 강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가족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갖는 이러한 관계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복음인 복지 사업 프로그램의 근본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가족을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또한 그분은 가족은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의에 차 있을 때, 가족이 우리를 도와 줄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약하고, 외롭고, 절망에 빠져 있으며, 고통에 허덕이고, 복음에 주린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고 도와 주어야 할 때입니다."

합당한 말일성도의 결혼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과 굳게 결합될 때 우리는 가족이 단합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가족이 들리움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읍니다. 우리는 가족 개개인의 손을 잡고 그들에 대한 사랑이 참된 것이며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때 두 손이 다 강해지게 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준 사람은 없읍니다. 우리는 가정의 유대를 강하게 하고 온 가족이 그러한 강한 유대 속에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은 자녀가 집을 떠나 있을 때 진정 찾아 들어오고 싶은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손에 손을 잡고 그의 길을 걷는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강한 교회의 회원은 혼자서 쓸쓸하게 걸어야 할 필요가 없읍니다.

괴로운 사람은 홀로 그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 갈 필요가 없읍니다. 손을 뻗어 잡으려고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현대에서 가장 큰 기적은 괴로운 사람을 일으켜 주고 고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귀신이 들어 있는 자)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마가복음 9 : 27—29)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 주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 주고 일으켜 세울 힘과 능력을 갖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 교회는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말일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는 뮌헨의 어느 자매와 다른 수천의 다른 성도들의 간증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분이며,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의 권고를 따른다면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렸읍니다. 아멘.

준비하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이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요 영으로 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오늘 오후 겸손하고 감사에 찬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읍니다. 나는 성령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기도와 금식을 해왔읍니다.

나는 주님께서 1831년 1월 2일 대회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다음과 같은 계시를 오늘의 말씀의 주제로 택했읍니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 : 30)

현대 경전인 교리와 성약 1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읍니다.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교성 1 : 12) 같은 계시에는 또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읍니다.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교성 1 : 17)

우리가 준비하여 대비해야 할 재앙에는 어떤 것이 있읍니까? 29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큰 우박이 떨어져 땅의 곡식을 멸하리라."(교성 29 : 16)고 경고하셨읍니다. 45편에는 "휩쓸어 가는 징벌을…이는 황폐케 하는 질병이 땅을 뒤덮을 것임이니라."(교성 45 : 31) 주님은 63편에서 "…지면에 전쟁을 명하였으니,"(교성 63 : 33)라고 선언하셨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는 "기근과 지진…"(마 24 : 7)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재앙과 다른 재앙이 분명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읍니다. 이 예언들에는 어떤 조건이 따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일을 미리 아시는 지식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재앙은 인간이 자초하는 것이며 어떤 것은 자연의 힘과 하나님의 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언이란 바꾸어 말하면 역사입니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신성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교성 38 : 30)

그렇다면 이러한 재앙에 대비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님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 대답도 역시 교리와 성약 1편에서 찾아볼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

"또한 다른 자들에게도 계명을 주어…"(교성 1 : 17—18)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참되고 신실하며 그 가운데 있는 예언과 약속은 모두 성취될 것임이니라."(교성 1 : 37)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대비하도록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언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같은 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성 1 : 38)

주님께서는 또 그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시는 영감받은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경고하셨읍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교성 1 : 14)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변자에게 주신 계시에 의해 제정되었읍니다. 그 대변자는 바로 예언자요, 현재 지상에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37년 전인 1936년 10월 대회에서 대관장단에 의해 발표된 후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읍니다. 사반 세기 동안 교회 복지 위원회의 관리 책임자로 봉사해 온 분이 오늘날의 예언자이신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이요, 그와 함께 그 일을 위해 열심히 보조하신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이 그의 보좌가 되셨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1937년 4월 대회에서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혹은 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결코 피해 가게 하지 않을 다가오는 재앙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읍니까?" 그런 다음에 클라크 부대관장께서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다음과 같은 영감받은 기본 원칙을 말씀하셨읍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의롭게 삽시다…

"재앙을 피하듯 부채를 피하십시오. 현재 갖고 있는 부채를 갚도록 합시다. 오늘 할 수 없거든 내일 하도록 합시다…

"수입의 범위내에서 생활하고 조금씩 저축을 합시다.

"모든 가장은 최소한 일 년분의 식량과 의복 그리고 가능하면 연료까지 비축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은 사람은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식량과 의복을 구입해야 하며 수입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나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돈을 결코 투기하는 일에 쓰지 않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모든 가장은 자기 소유의 집을 가져야 하며 집이 저당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원이 있는 사람은 정원을 잘 가꾸고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잘 가꿉시다." (대회보고, 1937년 4월, 26페이지)

복음은 의로운 사람에게 재앙이 닥치기 전에 경고를 마련해 주고 환란에서 피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 줍니다.

주님께서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말 4 : 1)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십일조를 바치는 자는… 불에 타지 아니하리라."(교성 64 : 23)고 말씀하셨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근에 대비하라고 경고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일년분의 필수품을 비축했읍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지상에서 추수할 준비를 해 놓고 계십니다. (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251페이지) 그러나 지혜의 말씀과 다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성 89 : 21)는 확신을 갖고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이 다가올 재앙의 날에 그 위기에서 피할 수 있고 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속박에 묶여 있으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벤자민 프랭크린은 이런 말을 했읍니다. "빚을 지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은 자유를 구속하는 또 다른 하나의 세력이 된다." 엘리사는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왕하 4 : 7)고 했읍니다. 또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너희가 부채를 청산함은 나의 뜻이니라."(교성 104 : 78)

우리는 100여 년이 넘도록 곡식을 저장하라는 권고를 받아 왔읍니다. 올슨 하이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의 곡식을 저장하라' 그리고 그것을 잘 간수하십시오…나는 여러분께 육체를 위해 빵이 필요한 것만큼 영을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설교집 5권, 17페이지)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읍니다. "세상의 온갖 정책보다도 한줌의 밀에 더 큰 구원과 안전이 있읍니다."(설교집 2권, 207페이지)

비축해야 할 식량에 관해서 교회는 우선 그 문제를 회원 개개인이 결정하도록 했읍니다. 교회 복지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훌륭한 제언을 마련해 놓았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곡류는 사람의 식용으로 좋은 것이니라."(교성 89 : 16)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주님은 특별히 밀을 가리켜 말씀하셨읍니다. 저장 관리를 잘만 하면 말린 곡물은 오래도록 썩지 않으며, 싹이 트면 영양가가 더 높아집니다.

모든 가족이 최소한 일년 분의 곡식을 비축해 둔다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가축을 기르는 것은 농작물을 기르는 것보다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축이 곡물을 먹고 자라게 되고 우리는 고기를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지 농장에서 가축을 너무 많이 기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식량 생산, 비축, 관리 및 주님의 권고의 견지에서 주목되는 것은 밀입니다. 물론 물도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외 필수품에는 꿀, 설탕, 콩, 우유 제품 또는 그 대용품, 소금 또는 그 대용품이 포함될 수 있읍니다. 식량을 비축하라는 계시는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을 보전하는 길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육체적인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읍니다. "만일 우리가 일 년 분의 양식을 비축할 때 이것을 일상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만 먹을 양식이 없을 경우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먹을 것으로 생각하고 비축한다면 우리는 일년 분의 양식을 준비하기가 한결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비축해서는 안됩니다. 단지 연명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마다 조금씩 비축하지 않고 한 해 동안 전부 비축한다고 생각한다면 보통 가정에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1937년 클라크 부대관장이 하신 충고를 따릅시다."(1966년 10월 1일 복지 대회에서 행하신 말씀)

흙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정원이 있거나 한두 그루의 과수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여러분이 먹을 양식이나 과일을 손수 생산해 내는 데 축복이 있읍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들은 근본적으로 땅과 그밖의 천연 자원에서 생겨 납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이 만든 도구로써 그 힘이 배가 될 때 이러한 부는 자유와 의를 통해서 확인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필요한 식량을 비축해 놓은 가족은 말일에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교성 89 : 20)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주는 지혜의 말씀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침상에 일찍 들어가 피로를 풀고 일찍 일어나 너희 육체와 정신을 활기있게 하라."(교성 88 : 124)고 권고하셨읍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힘과 수단 이상으로 급히 서둘거나 일하지 말라."(교성 10 : 4)

건강에 좋은 음식, 적당한 휴식, 알맞은 운동과 깨끗한 양심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련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의복에 관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필요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벌의 작업복과 연료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해줄 의복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자라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죽이나 옷감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제껏 우리가 경고해 온 바와 같이 우리가 손수 신을 만들고 입을 것과 음식을 마련해야 할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지 호머 더럼, 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166페이지)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1970년 7월에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에서 개척자들이 "그들의 지도자로부터 가능한 한 그들이 소비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해 내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며…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훌륭한 권고의 말씀입니다."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73권, 〔1970년〕 3페이지)

연료, 요리, 조명을 위해서 나무, 석탄, 까스, 기름, 석유 및 초까지도 비축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조심스럽게 저장하여 잘 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일 년간 쓸 수 있는 기본 의약품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훌륭한 직장을 찾아야 하며 그들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일해야 합니다. 수공 기술이 있는 사람은 더욱 그 수요가 증가될 것입니다. 농부, 건축가, 재단사, 정원사, 기계공은 가족과 이웃에게 커다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남의 것을 빌리지 말고 수입의 한도내에서 생활하라는 권고를 받아 왔읍니다. 최근의 역사는, 불황의 시기에 가장 가치있는 것은 내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며 결코 물가의 폭등으로 가치가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었읍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적자는 물가의 폭등을 야기시키고 물가의 폭등은 효과도 없는 가격 통제의 구실이 되고 가격 통제는 물자난을 초래하게 되며 결핍을 가져오고 인위적인 물자난은 불가피하게 배급제를 실시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 원칙을 언제 실감하게 되겠읍니까? "아뭏든…우리가 실로 경제 공황에 처할 때에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식량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으며 의복과 거처도 마찬가지의 경우에 처하게 되며,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돈을 먹을 수도 없으며 입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태워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클라크 부대관장은 말씀하셨읍니다. (처치 뉴스, 1953년 11월호, 4페이지)

교회에서 시행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갖는 커다란 힘은 적절한 준비로 스스로를 지키라는 교회 지도자의 영감받은 인도를 모든 가족이 따를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이 스스로 준비하여 "교회 회원이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교성 78 : 14)하려고 하십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장로는 몇 년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주님께서 기근의 날에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거절했다면 인간이 어떻게 그의 종교를 향유할 수 있었겠읍니까?"(설교집 12권, 142페이지)

또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식량이 없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지혜를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읍니까? 생명을 지탱하는 물질이 적어 애쓰는 날에 자신을 돌보고 그러한 환란에서 구해낼 수 없다면 여러분의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 세상에서의 목숨을 위한 식량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기대할 수 있겠읍니까?"(설교집 8권, 68페이지)

이러한 모든 재앙은 언제 닥쳐오겠읍니까? 그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먼 훗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준비를 갖춘 사람은 일찍 순종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축복을 받고 또 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지어 자신과 가족을 구했읍니다. 홍수가 난 후에 배를 지으려 했던 사람은 그때가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이 번영하는 것 같이, 소위 평화스러워 보인다고 해서 준비를 단념하지 맙시다.

나는 물가의 폭등에서 오는 참상을 보았읍니다. 1920년대 초기의 독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읍니다. 1923년 12월, 독일의 퀠른에서 나는 아침 한 끼를 먹기 위해 6억 마르크를 지불한 일이 있읍니다. 그 아침은 미국 돈으로 겨우 15센트에 불과했읍니다. 오늘날에도 물가 폭등은 미국과 기타 다른 몇 나라에서 큰 두통거리가 되고 있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복지 프로그램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시행되는 것임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대관장의 지시 아래 가족을 두고 홀로 2차 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 가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던 회원에

게 식량, 의류 및 침구를 나누어 주면서 기아와 빈곤의 참상을 목격하였읍니다. 나는 아사 직전에 놓여 눈이 움푹 패인 성도를 보았읍니다. 영양실조로 걷지도 못하는 서너 살 된 아이를 업고 가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았읍니다. 굶주려 허기진 여인이 실패 하나를 얻기 위해 먹을 것을 포기하는 것도 보았읍니다. 나는 또 어른들이 시온 즉 미국에서 보내온 밀과 콩에 손을 파묻고 우는 것도 보았읍니다.

예언자를 주시고 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관리자의 직분을 지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성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야말로 시온산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아니겠읍니까!

리 대관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제 바야흐로 주님의 계획이 그 위력과 효과를 과시한 때가 무르익고 있읍니다. 그 계획은 주님께서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고 나의 백성과 이를 구하는 이방인을 위한 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데저렛 뉴스, 교회란, 1941년 12월 20일. 7페이지, 교성 45 : 9 참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 : 30)

복음대로 생활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경의 말씀을 그르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합시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거나 그의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기" 때문입니다. (교성 1 : 38) 앞으로 다가올 환란의 날은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어려움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이라는 찬송가를 일 세기를 남짓하게 불러왔읍니다. 이 찬송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것이 되었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온 찬송가나 또는 우리가 만든 찬송가 등을 부릅니다. 그러나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를 합당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뿐입니다.

이 곡은 영국 세필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작사한 것입니다. 그는 강철 제련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몰몬 교회에 입교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읍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서는 강렬한 간증의 불빛이 타올랐으며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펜을 들어 이 아름다운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이 찬송은 온 세상의 수많은 성도의 감사의 정신을 나타내는 노래가 되었읍니다. 내가 들은 것만도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감사의 기도인 이 노래는 21개 국어로 불리어졌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언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정하는 종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뜻을 알리신다는 강한 확신은 우리 신앙과 행동의 근간이 되어 왔읍니다. 우리는 예언자를 갖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갖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자를 가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12년 전 나는 홍콩을 떠나 선교부장과 함께 필리핀에 선교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간 적이 있읍니다. 1961년 4월 28일, 우리는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모임을 가졌읍니다. 그때에는 모임을 가질 만한 장소가 없었읍니다. 우리는 마닐라 근교의 포트 맥킨리에 있는 미국 군인 묘지에 세워진 아름다운 대리석 기념관 현관에서 모임을 하게 해달라고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였읍니다. 우리는 오전 6시 30분에 모임을 시작했읍니다. 전쟁의 사극을 기억케 하는 거룩하고도 엄숙한 그곳에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읍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의 필리핀 원주민 회원을 방문하였읍니다. 그는 내게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었읍니다.

어렸을 때 그는 쓰레기통에서 낡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발견하였읍니다. 이 책에는 몰몬인에 대한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었읍니다.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언급되었으며 그를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었읍니다. 예언자라는 단어는 이 소년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였읍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예언자가 있을 수 있는가? 잡지는 없어졌으나 살아 있는 예언자의 존재에 대한 상념은 길고도 어두운 전쟁 동안에도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읍니다.

드디어 전쟁은 종식되고 미국 정부는 클라크 공군 기지를 다시 설치했읍니다. 이 필리핀인인 데이비드 라그만은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었읍니다. 그런데 공군 장교인 그의 감독관이 몰몬임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는 장교에게 진실로 예언자를 믿느냐고 묻고 싶었으나 감히 하지 못하였읍니다. 오랜 내적인 갈등 끝에 그는 용기를 내어 물어 보기로 했읍니다.

"장교님은 몰몬이십니까?" 젊은이가 물었읍니다. "그렇소." 장교는 곧 대답했읍니다. "장교님은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그 교회에는 예언자가 있읍니까?" 알고 싶어하던 질문을 드디어 했읍니다.

"우리는 교회를 관리하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가지고 있지요."

데이비드는 장교에게 좀더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그렇게 하여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된 그는 급기야 침례까지 받게 되었읍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최초로 장로로 성임된 원주민이며 현재 북부 루손 지방부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지금은 지상에 참으로 살아 있는

예언자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간증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가르쳐 주는 머리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어느 누가 받을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소멸될 것이요, 분별력이 있는 자의 이해력이 없어지리라." (교성 76 : 9 참조)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세상을 널리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해야 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이해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 : 7)고 했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이야기한 때는 비단 아모스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벧후 1 : 21 참조) 고대예언자들은 앞으로 있을 일을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 주는 계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살아야 할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읍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기독교인 청년은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접했으나 예언자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도 찾아보지 못했읍니다. 단지 유대인들 중에서 예언자에 대하여 경건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그 종교를 받아들여 유대교인이 되었읍니다.

1964년 여름 그는 뉴욕에 와서 세계박람회를 방문하였읍니다. 그는 몰몬관에 들어가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의 그림을 보았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뜻을 보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과거의 위대한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선교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따뜻함을 느꼈읍니다. 몰몬관을 지나오면서 그는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불리는 요셉 스미스라는 현대의 예언자에 대하여 듣게 되었읍니다. 무엇인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읍니다. 그의 영은 선교사들의 간증을 곧 받아들였읍니다. 그는 침례를 받았읍니다. 그는 남미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많은 사람을 개종시켰읍니다. 그는 귀환하여 그의 가족과 그 외의 사람들을 교회에 입교시키는 도구가 되었읍니다. 요셉 스미스는 진실로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그를 계승한 모든 예언자는 이 높고 성스러운 부름을 받아들이는 합법적인 계승자라고 간증하는 그의 말을 들을 때 나는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읍니다.

아무런 편견을 가지지 않고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기꺼이 읽은 사람 중에 요셉 스미스가 앞으로 오는 사건을 말하는 위대한 예언자였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있겠읍니까? 총성이 들리기 거의 30년 전에 그는 미국내의 비극적인 남북 전쟁에 대하여 예언하였으며 그 후에 전쟁이 온 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예견하였읍니다. 현세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이 위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일리노이주에서 쫓겨날 것이며 많은 역경을 당한 후에 미국 서부의 록키 산맥에서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읍니다. 오늘날 솔트레이크시 템플 스퀘어에 있는 태버나클에 모인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그의 모든 계승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읍니다. 1849년 추운 겨울날, 켈리포니아에서는 금이 발견되었으나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우리의 조상들이 굶주려 나리꽃 뿌리와 엉겅퀴로 연명해야 했을 때, 브리감 영은 이 스퀘어에 있던 노천 정자에 서서 고생스러운 이곳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켈리포니아의 푸른 초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셨읍니다. 다른 많은 말씀 중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나쁜 환경에서 더 나쁜 환경으로 쫓겨 다녔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부의 황야에 왔읍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정착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신전을 세우고 도시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정착지를 늘이게 될 것이며 수많은 도시와 마을을 건설할 것이며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성도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각국으로 뻗는 대로가 될 것이며 왕과 황제와 귀족과 학식있는 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템플 스퀘어에 세워진 방문자 센터에 서서 매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목격하고 브리감 영이 예언자로서 이러한 말씀을 하였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읍니까? 우리가 교회의 대관장이요 오늘날의 예언자로 지지하는 분을 만나기 위하여 대관장단 사무실을 찾는 유명인들의 행렬이 수년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들 중에는 정부의 지도자, 사업, 상업, 교육, 전문직의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들은 우리가 황폐한 산중으로 쫓겨 나게 되었던 무렵에 브리감 영이 예언하신 "현명한 자와 귀족"(교성 50 : 10) 중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두 주일 전에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호주의 시드니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였읍니다.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한 청년이 미국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읽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읍니다. 기회가 기회인 만큼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읍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던 중 그는 자기가 예언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에도 예언자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를 사로잡았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도서실에서 우연히 그 책을 발견하였다고 했읍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으며 나는 요셉 스미스가 참으로 예언자라고 간증했읍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그가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사업을 증거하였읍니다. 그 청년이 좀더 계속하여 공부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이와 같은 간증이 생기기를 나는 바라고 있읍니다. 나는 그가 그와 같은 간증을 갖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도구로 쓰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주신 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일생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다듬으셨으며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볼 수 있읍니다. 한때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읍니다. "나는 방금 높은 산에서 굴러 나온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돌과 같습니다. …뾰죽한 모서리와 모서리를 모두 잘라 버려서(주의 : 요셉 스미스는 여기에서 그의 비유를 바꾸었다) 결국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통에 꽂힌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화살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미움과 핍박을 받았읍니다. 그는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읍니다.

그는 남에게서 욕을 듣기도 했읍니다. 여러분이 그의 전기를 읽어 보신다면 그의 언변이 향상된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생활 속에서의 힘을 점차로 키워 갔고 세련시켜 갔읍니다. 점차로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남에 대한 사랑이 커 갔읍니다. 울퉁불퉁했던 모서리가 사라지고 전능자의 손에 들린 매끈한 화살이 되었읍니다.

그의 모든 계승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헌신하여 봉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듬어지고, 체로 쳐지고, 세련되어 졌읍니다. 브리감 영, 윌포드 우드럽, 조셉 에프 스미스 등과 같은 사람의 전기를 읽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사실을 의심할 수 있겠읍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여할 크고도 성스러운 책임을 이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성품을 세련시켰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현대의 교회 대관장이신 해롤드 비 리 대관장도 마찬가지였읍니다. 그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그분을 당황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일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 있겠읍니까? 그는 오늘날의 분류로 볼 때 가난했다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읍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고된 노동의 의미를 알았읍니다. 그는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그의 방문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했읍니다. 그는 교육을 받고자 온갖 애를 썼읍니다. 사경을 헤매는 심한 병도 앓았읍니다. 그는 깊고도 어두운 슬픔의 계곡을 걸었읍니다. 그의 일생을 회고해 보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 시련, 슬픔을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과정의 일부였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것에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뛰어오르는 정신력이 있었읍니다.

유럽과 영국의 선교부에서 후임 동반자로 그와 함께 걸으면서 나는 젊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아름다운 얼굴로 그를 둘러싸고 그의 말을 열심히 듣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가 "권능을 가진" 예수처럼 이야기하고 경전을 가르칠 때 다른 선교사들이 완전히 몰입하여 그의 말을 듣는 것을 보았읍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성찬의 진리를 이해시키려고 알기 쉬운 말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듣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가 늙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할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읍니다

한 건장한 청년이 대관장님을 열싸안으며 눈물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늘과 이처럼 가깝게 느껴보지 못했읍니다."라고 말했을 때보다 더 감동된 적이 별로 없었읍니다.

영의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그가 실로 예언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온 세계의 성도들이 외치는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라는 소리에 나의 소리를 더하고 싶습니다. 나는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펴 보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활할 때 화평과 발전과 번성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의 권고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스러운 부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의 권고를 항상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 언제나 기도하네.
> 주께서 위안과 즐거움을
> 그에게 주시기 비옵니다.
> 밝은 빛 비추기 원합니다.
> (찬송가 317장)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는 선견자요 계시자인 예언자를 이 지상에 모시고 있읍니다.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43차 반연차 대회에서 하신 연설)

세상에 속할 것인가, 왕국에 속할 것인가?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잠시 이 단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갖고 있는 교리와 가르침이 참되다고 하는 나의 확신을 간증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 이후로 소위 가장 개화된 시기에 살고 있읍니다. 과학이 이룬 현대의 업적은 인간의 마음을 어리둥절하게 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법칙은 늘 존재해 있었으나 인간이 오늘날과 같은 업적을 이루는 데 활용되는 자연 법칙을 현대에 이르기까지는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읍니다.

몇 세대 전만 해도 상품들은 수공업에 의해 생산되었읍니다만 현대에 와서는 더욱 우수한 품질과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량 생산을 해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고 기계 산업이 발달한 까닭입니다.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읍니다. 현대화된 농장을 지나게 되면 농부가 소와 쟁기로 밭을 갈거나 낫으로 곡식을 한 이랑씩 벤다든가 추수 때 전가족이 밭에 나와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모습을 감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백 마력이나 되는 커다란 기계로 단번에 많은 밭을 갈 수 있읍니다. 수년 전만 해도 곡식을 베는데 낫을 썼읍니다. 곡식 다발들을 도리깨질을 한 뒤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 키질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콤바인(베기와 탈곡을 동시에 하는 자동 농기구)을 사용하여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하고 있읍니다.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안방에서 조용히 지켜 볼 수도 있읍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이전 세대에서는 기적으로 생각되었던 일들입니다. 현대 생활은 거리에 구애됨이 없이 의사를 빨리 전달하고 사업상의 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신속한 통신 수단을 요구합니다. 수세기 동안 교통의 수단이 되어 온 동물은 이제 빠르고 안전한 자동차

로 대치되었읍니다. 강 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은 늘 인간에게 있었읍니다만 오늘날 비행기는 강이 아니라 대양까지도 쉽게 횡단할 수 있으며 이제 사람은 전세계를 빠른 시간내에 여행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현대가 이룬 업적 즉 더 훌륭한 주택과 개선된 식생활, 편리해진 생활, 진보된 의료 시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점 등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에도 누려보지 못한 높은 생활 수준에 긍지를 느낍니다.

나의 조상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에 종사했었읍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이 정든 영국을 떠나 신세계로 건너와 팔마이라와 마사추우세츠에 정착하였읍니다. 나는 그들과 그 가족들이 직면했던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낸, 영혼을 뒤흔드는 기록을 읽을 때면 마음이 흐뭇해 집니다.

초기의 선교사들은 스코틀랜드, 덴마아크, 노르웨이 등 우리의 옛 선조들이 사시던 나라로 전도하기 위해 떠났읍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조국을 버리고 시온의 집합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소유물을 손수 만든 수레에 싣고 중서부의 메마른 평원과 록키 산맥을 넘어 황야같은 계곡을 향해 여행하는 사이에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읍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그들의 자손들의 눈시울을 적시곤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간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앙과 헌신과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편리한 도구들이 없었지만 그들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 그리고 모든 생활에서 그들은 기쁨과 행복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는 신앙과 기도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였읍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성경을 읽었으며 그 가르침을 굳게 믿고 있었읍니다. 생활은 현대보다 단순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도 우리가 느끼는 것만 못했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사회는 교육, 통신, 교통, 건강, 상업, 건축 등 많은 면에서 현대화를 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만 이 사회화나 현대화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위해 무엇을 기여했읍니까? 현대보다 불안정한 때는 없었읍니다. 현대의 이혼율은 인류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현대화는 교육의 책임을 가정으로부터, 현대 사상이 주가 되고 도덕적인 원칙이 배제된 공중 교육 기관으로 옮겨갔읍니다. 범죄율 또한 놀랄 만큼 증가했읍니다. 습관성 약품 사용, 법률에의 불순종, 성병의 증가 등 온갖 형태의 타락이 만연하고 있읍니다. 모든 것이 현대화된 오늘날에는 사상과 활동의 자유가, 사회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그러한 자유에 수반되어야 할 책임은 고려되지도 않은 채 요구되고 주장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조그만 조직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크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하고 도덕적인 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데 그 주요 역할을 맡아 왔읍니다. 사회적인 안정을 이루는데 주축이 되어야 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읍니까? 잘 알려져 있는 많은 교회에는 신도가 줄고 종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입이 줄어든다는 보도가 있었읍니다. 여기서 현대화는 다시 무서운 대가를 치르어야 합니다.

어떤 종교 사상에서는 현대주의가 오늘날의 질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주의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현대 학문과 과학적인 진보는 성경과 교회사에 대해 새롭고 비판적인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근거로 전통적인 교리에 대한 새로운 성명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현대주의"라는 말은 자주 "자유주의"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러한 주창자들은 종교적인 진리는 현대의 지식에 비추어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현대의 사상과 발전을 표현하려면 새롭고 더욱 진보된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성경은 현대주의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은 세상의 창조, 지상의 생명의 창조, 에덴 동산과 아담과 이브, 홍수 등 신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과 같은 성경의 기록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오늘날의 뛰어난 지식인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화로 간주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저버릴 수 있겠읍니까? 믿음이 없어진 교인들의 신용을 다시 얻기 위해 많은 교회에서는 교리를 하나하나 거부하고 변경시켜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교리까지 변경시켰읍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의 부활을 더 이상 사실로 믿지 않으며 속죄의 희생에 관한 교리는 그 참된 의미를 잃었읍니다. 그러한 상황 아래서 종교가 어떻게 사회의 안정을 유지해 줄 수 있겠읍니까?

지식이 증가되고 사상이 고도화되고 옛것이 현대화된 오늘날에는 단순한 것은 경시되고 심원한 것만이 추구됩니다. 근본적이며 단순한 복음의 진리는 무시되고 있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서 떠났읍니다. 그가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변경시켰읍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은 그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며 강력한 비판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갈라디아서 1 : 6—8)

기독교의 초기부터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 오늘날까지 가르쳐지고 있읍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의문과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상과 가르침이 많이 있어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신앙과 도덕을 멸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좌절과 도덕적인 부패의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이겠읍니까? 그것은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지식과 이해에 있읍니다. 그 진리는 아무런 변경도 없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하며 그것을 믿고 성도들이 그에 따라 생활할 때 그러한 소망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며 사회의 상황이 바뀌든 과학적인 업적이 날로 진보하든 인간의 지식이 자꾸만 커지고 증가되든 그에 상관없이 영원불변할 것입니

다.

나는 우리가 현대적인 사람이 되고 현대가 낳는 부산물과 높은 생활 수준을 향유할 수 있으며, 현대주의자가 부르짖는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현대 학문과 진보된 과학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성역을 베푸실 때 가르치신 복음의 원리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참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천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지식은 인간이 창조해 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의 일부를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속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즉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세상적인 사상의 영역에서 찾느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에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많은 세상에서 변치않는 진리를 택하고 물론 현대라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소위 현대 사상이다, 현대적 발전이다 하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교리와 진리를 변경시키는 데 관여하지 않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 감사해야 할 일인줄 모르겠읍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이 걷는 그러한 과정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현대주의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나는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성경과 몰몬경이 영감으로 씌어진 책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분이며 역시 살아 계시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정말로 문자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또한 오늘날 지상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길로 인도하는 세력을 피하려고 애쓰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과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1973년 10월 7일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하신 말씀

보상, 축복, 약속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미국 동부의 종교 잡지 출판업자인 로이 에이치 스테틀러가 쓴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리바디아의 크리미아 성곽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성 안은 밝은 불빛으로 눈이 부셨다. 세계의 유명한 인물이 모여 가장 중요한 대회를 열고 있는 성 밖에는 병사 한 명이 성을 지키기 위하여 일정한 보행 속도를 유지하면서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 이 병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후에 자기의 자녀에게나 손자들에게 '3 거두' 회담의 보초를 자기가 섰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병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때 갑자기 유령처럼 어둠 속에서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어떤 물체가 나타났다. 물체가 다가오자, 병사는 어깨에서 총을 내려 경계 자세를 취하면서 명령했다. '정지! 누구냐? 신분을 밝혀라!'

"낯선 사람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왔소'라고 말했다.

"'미친 놈!' 보초병은 말했다. '성 안에 못들어 간다. 성 안에는 3거두가 모여서 세계의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

"낯선 사람은 '3거두라고요? 왜 3거두라고 부르죠?'라고 물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다.' 보초병은 대답했다.

"낯선 사람은 보초병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눈은 빛이 났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계획을 채택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을 아주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텐데요.'

"병사는 소리내 웃었다. '네 갈 길이나 가, 이 친구야. 신임장도 없는 놈이.'

"낯선 사람이 대답했다. '신임장이라고요? 없죠—여기에서는' 그는 떠나면서 그의 손을 들어 인사했다. 보초병은 그의 손에 있는 보기 흉한 상처를 보았다. 다른 손을 보니 역시 상처가 있었다.

"'전쟁에 나갔었나?' 보초병은 약간 정중하게 물었다. '손에 상처가 있군.'

"낯선 사람은 돌아서며 말했다.

'아니오. 당신이 보시지 못할 줄 알았는데요. 이 상처는 전장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마치자 그는 갑자기, 마치 어둠이 삼켜버린 듯이 사라져 버렸다.

"보초병은 그의 뒤를 쫓았으나 만나지 못했다.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그는 후회했다. '그를 들여 보냈더라면!' 그는 실망에 차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낯선 사람은 지상의 온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온 사람이었읍니다. 이 낯선 사람은 그에게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아마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발에 있는 상처는 무엇이니이까? 하리니, 그때에야 저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내가 저들에게 이같이 말할 것임이니, 이 상처는 내가 나의 친구 집에 있을 때에 입은 상처니, 나는 들리운 자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리라."(교리와 성약 45 : 51—52)

이 생애는 보상과 벌을 받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잠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오는 보상에 관하여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마태복음 4 : 18—20)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를 따랐읍니다. (마 4 : 21 참조)

두 가족의 형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읍니다.

나는 이것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 중의 가장 큰 축복이요 명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오늘부터 30년 전인 1943년 10월 7일 거의 이 시각에 나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되었읍니다.

시현이라 불리우는 교리와 성약 76편 계시에는 약속된 축복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리하여 계명을 지킴으로써 저들이 씻음을 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성임받아 성신을 주는 권능에 인봉된 자의 안수로써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저들은 신앙으로 승리한 자요, 아버지께서 의롭고 참된 모든 자에게 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신으로 인봉된 자니라.

“저들은 장자의 교회의 회원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저들의 손에 맡기신 자니라.

“저들은 제사와 왕이요 그의 충만하심과 영광을 받은 자요,

“가장 높으신 이의 제사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자요, 에녹의 반차를 따른 자요, 독생자의 반차를 따른 자니라.

“그런고로 기록된 바와 같이 저들은 신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따라서 만물은 저들의 것이라. 살았거나 죽었거나, 현재 것이나, 미래 것이나, 다 저들 것이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또 저들은 모든 것을 이기리라.” (교리와 성약 76 : 52—60)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의로운 자의 부활에 나아올 자니라.

“이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를 통하여 완전하게 된 의로운 자니, 예수는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교리와 성약 76 : 62, 65, 69)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고치시니

“갈릴리…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마태복음 4 : 23, 25)

또한 다른 곳에서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 : 1—12)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읍니다.

“또 이같이 해의 영광을 보니, 모든 것이 뛰어났고 그곳은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으사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곳이더라.

“그 보좌 앞에 모든 자가 겸손하고 경건하게 경배하며,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더라.” (교리와 성약 76 : 92—93)

“태양의 광채가 하나인 것 같이 해의 영광도 하나요,” (교리와 성약 76 : 96) 또 다시,

“그러나 주의 일은 위대하시고 놀랍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왕국의 비밀은 영광과 힘과 지배력에 있어서 어떠한 이해력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것이더라.

“또 이 일은 사람의 말로서는 알릴 수 없는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자기 앞에서 순결하게 된 자에게 내리시는 성령의 권능으로써만이 보여 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는 것임이라.

“이러한 자에게는 스스로 보고 아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니라.” (교리와 성약 76 : 114, 116, 117)

1832년에 받은 시현으로 알려진 계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어 있읍니다.

“들으라. 여러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거기 사는 주민들아, 기뻐하라.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 외에는 구세주가 계시지 아니함이라.

“그의 지혜는 위대하시며 그의 길은 놀라우시니, 그가 하시는 일의 한계는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도다.

“그의 목적은 실패하는 때가 없고 그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나니,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그 연륜은 결코 다함이 없도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 (교리와 성약 76 : 1—6)

그가 축복을 약속해 주실 때는 이를 성취하시며, 약속을 맺으실 때는 지키십니다. 1831년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 (교리와 성약 1 : 38)

주님의 메시지는 사랑과 화평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들을 준비시키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 14 : 12)

우리는 아브라함이 마므레 평원에 있을 때 세 사람이 그를 찾아왔던 이야기를 알고 있읍니다.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자 그들은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읍니다.

그리고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읍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

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세기 18 : 9—14)

확실히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곤 없읍니다. 그의 약속은 성취되었읍니다.

1833년에 주가 주신 약속은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 시대의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멸망의 천사가…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또한 저들이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교성89 : 18 참조)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보다 더 큰 약속이 있읍니다. 그것은 곧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교성 89 : 21 참조)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 : 15)고 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되풀이하여 말씀하셨읍니다.

바다의 깊은 심연 속에는 사나운 파도가 침범치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용하여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생의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굳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의 풍파가 몰아 닥쳐도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훌륭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읍니다. 경전을 읽어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계명대로 생활하는 증거로 주어지는 보상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읍니다.

"〔의롭게 생활한 자는〕 다만 눈 깜빡 하는 사이에 변화…되리라."(교리와 성약 101 : 31)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니, 이 일을 너희 가슴 속에 간직하라. 그리하여 영원한 엄숙함이 너희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하라.

"근신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 진실로 그러하도다."(교리와 성약 43 : 34—35)

또 다른 약속을 소개하겠읍니다.

"나의 때가 이르면 나는 심판하러 세상에 오리니, 나의 백성은 구속함을 받아 나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리라."(교리와 성약 43 : 29)

시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된 축복을 읽을 수 있읍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시편 24 : 1—5)

말일의 경륜의 시기에 이와 같은 큰 보상이 주어졌읍니다.

"이는 나의 축복을 받을 자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하여 정하여진 율법과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만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32 : 5)

주님은 영원한 축복에 관하여 말씀하셨읍니다. 주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읍니다.

"…저들이… 여러 천사와 신들 옆을 지나가서 저마다 자기 머리에 결봉된 대로 각기 승영에 이르러 온갖 일에 영광을 누리리니, 그 영광은 완전한 최고의 영광이요,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되는 것이니라.

"그때에 저들은 끝이 없으므로 신이 될 것이요…그리하여 저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저들이 모든 권능을 가졌고 또 천사들도 저들에게 복종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알게 될 것이요, 너희의 승영을 받으리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32 : 19, 20, 23)

주님은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이야기하셨읍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레위기 26 : 9—12)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 : 27)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이 이상 무엇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읍니까?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진실하게 행동할 때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그의 참된 교회를 이 지상에 조직하셨읍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주셨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언자를 주셨읍니다. 오늘날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하나님의 왕국과 이 왕국에 속한 백성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아멘.

1973년 10월 5일 금요일 아침 모임에서 하신 말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자신을 존중할 수 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하겠읍니다. 나는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서 자존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욕, 예절, 마치 눈사태처럼 세계를 뒤엎는 듯한 허용의 물결로 증명되고 있읍니다.

우리 중에 참으로 많은 사람이 태초로부터 우리 조상에게 큰 의미를 주어왔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절의 표준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말은 곧 이 세상의 평화와 단합과 조화와 의와 인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 모든 남녀노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영원한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알고 배우고 사용할 때에만 그 말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이나 정절이나 정직이나 신앙이나 성품에 대해 말하는 것이 구식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위대한 인간을 형성하는 자질이며, 현세의 행복과 앞으로 올 세계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리켜 줍니다. 무서운 파괴, 기근, 유혈을 낳는 전쟁의 참사, 질병, 비극,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이러한 자질은 우리의 생애에서 닻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가르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경고의 말에 주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의 백성들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잘 묘사했읍니다. 그의 말씀을 인용하겠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찌어다 평강이 있을찌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이사야 57 : 19—21)

다른 예언자들도 이와 같은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앨 41 : 40)고 말했읍니다.

평강을 가져다 주는 길에서 멀리 떠나는 사람은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예언자 이사야가 잘 묘사한 그 길을 사람들이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곧 자존심의 결핍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치있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말한 지혜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자존심— 이것은 모든 덕의 머릿돌이다."

존 프레드릭경
윌리암 허셀(1792—1871)
영국의 물리학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자존심이란 인간이 입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의복이며,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감정이다."

사무엘 스마일스(1812—1904)
스코틀랜드의 전기 작가.

"누구나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매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는 가격은 타인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 인간은 그 자신의 의지로써 위대하게도 혹은 미약하게도 된다."

조안 본 쉴러(1759—1805)
독일의 시인, 극작가, 철학자

근교에 살고 있는 한 사랑스런 어머니가 내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읍니다. "저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 자매가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그는 생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아내나 자녀에 대한 사랑을 곧 잃을 것이며, 그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국가를 존경하지 않게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도 잃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내란, 가정 안에서의 무질서와 사랑의 결핍,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 이러한 모든 결과는 자신에 대한 존중심을 잃은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번은 어떤 모임에 말씀을 부탁받고 갔었읍니다. 나의 말을 들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 데 그 이유는 입교하는 데 필요한 표준을 지켜야 한다는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들에게 말할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였읍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던 중, 나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곧 깨달았읍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을 듣게 되는 사람 중에는 반드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을 이룩해 갈 기본적인 견고한 기초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의 난폭함이나 사춘기 청소년의 반항은 그들이 신체적 또는 지적인 성품으로써 얻지 못하는 인기나 주목을 얻으려 시도할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환락을 일삼는 소녀나 몸가짐이 단정치 못한 소년은 외부적인 겉치레 또는 비정상적인 태도(이상한 방법으로)로써 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멋의 특성을 나타내

보려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는 인간으로서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내적인 좌절을 폭로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겠읍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만일 자신을 알기만 한다면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큰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경전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질문에 답을 시작하겠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큰 의의를 던져 줄 것입니다.

시편 작가는 이렇게 기록했읍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 8 : 4—5)

다음의 것은 주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찌니라…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 하였었느니라" (욥 38 : 4—7)

성경에 있는 이상의 질문을 요약하여 말하면 "당신은 어디에서 왔읍니까? 왜 당신은 여기에 있읍니까?"라는 간단한 질문이 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맥도갈*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인간을 도덕적인 면에서 소생시키기 위하여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간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나는 "오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옛 영국의 직공이 생각납니다. 이 기도야 말로 모든 사람이 간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오만과 기만과 거만을 낳게 하는 그릇된 자기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 즉 하나님에 대한 가치, 인간에 대한 가치를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올바른 자존심을 우리는 간구하여야 합니다.

혼란이 많은 세상에서 자기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인식하여야 할 그와 같은 질문에 나는 혼란에 싸여 있고 황량한 이 세상에 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읍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히 12 : 9)

이 성구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육체의 아버지뿐 아니라 영의 아버지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외쳤읍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민 16 : 22)

그들이 주님을 "모든 육체〔인간〕의 생명*의 하나님〔아버지〕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계시로 우리는 영이란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일견하여 알 수 있읍니다.

"주께서는 나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

"하나님이 이 영들을 보시니 좋은지라, 그가 저들 가운데 서시며 가라사대 나는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영이 된 이들 가운데 서 계셨음이라. 그가 보시니 저들이 좋았더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저들 중 하나라. 너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아브라함서 3 : 22—23)

주님께서는 전세에서 충실했던 사람은 둘째 지체인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옴으로써 더욱 더하여 질 것이며, 또한 그들이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 지리라." (아브라함서 3 : 26)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읍니다.

이 성구에는 몇 가지 귀한 진리가 담겨 있읍니다. 첫째, 우리는 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얻었읍니다. 전세에서 영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읍니까? (만일 우리가 영을 우리의 죽어야 할 몸과 분리시켜 볼 수 있다면) 현대의 말일의 예언자는 영감을 받아 이에 답변했읍니다.

"…영계의 것은 이 세상의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 세상의 것은 영계의 것과 같은 모양이니, 인간의 영도 인간의 신체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만든신 짐승이나 다른 모든 생물의 영도 그와 같으니라." (교리와 성약 77 : 2)

우리가 이 성구에서 얻을 수 있는 두번째의 진리는, 과거에 영으로 존재하였고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모두 첫번째 시험을 통과하였으며 죽어야 할 몸으로 이 지상에 내려올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읍니다.

우리가 이 첫번째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전세에서 창조되었던 영들 중 삼분의 일이 그러했듯이 육신을 갖게 되는 특권을 박탈당하고 루시퍼라고도 불리우는 사탄을 따라 쫓겨 났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중에는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영체만을 지닌 자들이 있읍니다.

구약의 한 예언자는 죽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흙은 〔인간의 육체를 가리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전 12 : 7)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있어 본 적이 없는 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출생과 같은 하나의 신비한 과정으로 간주하며, 그리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세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구〔아브라함서 3 : 22—23〕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모세와 예레미야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태어나기 이미 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일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하였읍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그 일에 부름을 받고 예임되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읍니다. "나는 나도 이 일을 행하도록 예임되었다고 믿습니다."(교회정사, 제6권, 364페이지)

그러나 여기 경고의 말씀이 있읍니다. 경전에 "예임"이라고 말하는 부름이 있으나 또 다른 영감의 말씀이 있읍니다.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교성 121 : 34)

이 성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지상에서 자유의지를

---

*맥도갈(1871—1930) 영국계 미국인

*주자역 : 성경에는 생명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영을 가리킨다.

*역자주 : 여기서 "신"이라 함은 인간의 영을 말한다.

가지고 있으나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을 준비한 것보다 더 높은 직분에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예임되었던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에서는 고귀하고 위대한 영으로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지도자가 되었을 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 지상에서 그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같이 질문하였읍니다. "…택함을 받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교성 121 : 34)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이 있읍니다. 첫째,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둘째, "인간의 영예를 갈구"(교성 121 : 35)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금 읽은 것을 요약하는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창세 전에 조직된 예지로 창조되어 살았읍니다. 여러분은 전세에서 어떤 계명에 순종했으므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읍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오기 전에 살았던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의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읍니다.

신약 시대에 돌이나 나무나 놋으로 "알지 못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무지하게 섬겼던 사람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설교 중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사도행전 17 : 24, 26—27)

신명기에는 주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신명기 32 : 8)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상속의 땅으로 된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성구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 32 : 9)

이 성구에 비추어 보면, 후에 이스라엘이라 불리우게 된 야곱의 혈족으로 태어난 자들과 이스라엘의 자녀로 알려진 그의 후손은 이 지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우수한 혈족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읍니다.

이 모든 보상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약속되고 예임되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전세의 영계에서 살았던 생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의심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 죽은 후에 인간의 지상에서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의심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상의 생활에서 받은 것은, 곧 이곳에 오기 전 우리가 행한 공적에 따라 주어진 것임을 믿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까요?

경전에서 얻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읍니다. 즉 우리는 모두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항적인 기질의 소유자들은 때로 자유의지를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자유의지의 참다운 의미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느니라. 인간은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여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 이제 악마가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 (니파이이서 2 : 27)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신성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 : 16—17)

또한 그는 교회에서 침례받고 특별한 은사인 성신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 : 19—20)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유명한 심리학자 맥도갈의 "인간을 도덕적인 면에서 소생시키기 위하여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간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라는 말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해시켜 주는 것보다 자존심을 더 잘 회복시키는 방법이 또 있겠읍니까?

행동이나 외모나 언사에서 자존심이 결여된 것을 나타내 주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탄이 그를 이겼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은 "인간을 미혹케 하며,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하려고"(모세서 4 : 1—4 참조)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모세서 4 : 4)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읍니다.

몇 년 전 나는 학생들의 자살에 대하여 조사한 어떤 목사의 보고를 읽었읍니다. 면밀하게 조사 연구한 결과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살한 학생들에게 뚜렷한 생활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의지할 것을 찾지 못하고 결국 회피라는 비겁한 방법을 찾았읍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바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들려주신 비유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태복음 7 : 26—27)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영원한 목적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생이니라."(모세서 1 : 39)

영원한 계획의 첫번째 목표는 우리 각자가 지상에 나와 육체를 갖는 것이며, 그 다음은 사망과 부활 후에 영과 부활된 몸이 다시는 사망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로이 주어진 은사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 : 22)

몇 년 전 한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만난 젊은 어머니의 말은 질병으로 죽어 가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 어머니에게 주는 이 성구(고전 15 : 22)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죽거나, 아니면 70, 80, 90년을 살다가 죽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제가 활동할 수 있고, 제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갈수록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녀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였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받았읍니다.

나는 나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로 인해, 인간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읍니다. 젊은 어머니가 황갈색 머리의 여섯 살 난 귀여운 딸을 안고 조부모를 찾았읍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딸이 초등협회에서 배운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 보시라고 권했읍니다. 어머니의 반주에 맞추어 손녀는 노래를 불렀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난 하나님의 자녀
나 비록 어려도
말씀해 주신 복음을
알게 해줍소서.

"난 하나님의 자녀
당신 뜻 행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축복이 크도다.

(후렴)
"길을 찾아 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다 함께 노래를, B-76

어린 아이의 조부모는 눈물을 흘렸읍니다. 그때에는 어린 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어머니가 충분히 가르쳐 주기도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어린 아이의 기도의 응답을 찾아 줄 책임과 어려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인도하는 등의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죽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세주이며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성스러운 관계를 알 때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아름다운 자매에게는 죽음이 더할 나위 없는 평화였으나 임종 때 그와 같은 위안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읍니다. "내 안에서 죽지 아니한 자에게는 화 있을 진저, 이는 죽음이 저들에게는 쓴 연고니라." (교성 42 : 47)

조지 버나드 쇼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만일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처럼 서로에게 소리지르는 것은 그쳐질 것이다." 오늘 내가 말씀한 것이 여러분과 또한 지금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이며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를 바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신전이라고 여기는 경건한 마음과 자존심이 여러분의 영혼에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협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부르도록 가르쳤던 노래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도 거듭 마음속으로 되뇌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아 보다 행복하고 풍부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그 노래의 이상에 보다 가까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성스러운 것들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방향을 잃은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으므로 나는 그들이 영생이라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또 위로 높이 올라가려는 결심과 힘을 얻게 되기를 기도드리며, 또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만이 아니라 실지 행동의 모범을 보여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마 11 : 25)라고 하신 주님의 심오한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영혼의 영이 증거하는 대로 이렇게 간증드렸던 마르다와 같이 나도 같은 영을 가지고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 11 : 27 참조)

우리의 주님이시요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쇼우, 조지 버나드, (1856—1950) 아일랜드의 극작가, 철학자.

신권 대회에서 행하신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의 말씀

해롤드 비 리 대관장

사랑하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 이 훌륭한 성회에 다시 모였읍니다. 여러분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오지는 않았읍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아마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혹은 어떤 지침이 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많은 것에 관해 들었읍니다. 그들이 한 말씀 모두가 훌륭한 말씀이었읍니다.

나는 이 모임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독일의 뮌헨에서 지역 대회를 마치고 막 돌아왔읍니다.

그 모임에는 독일, 불란서, 스페인, 이태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폴란드, 스위스 등 8개국에서 모여든 14,000명의 성도가 참석했었읍니다. 그 외에도 그곳에는 많은 동독에서 온 대표도 있

었읍니다. 그들은 소위 "철의 장막" 저편에 있는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었읍니다. 이들 이외 그곳에는 미국에서 간 우리도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대회에서는 다섯 개의 언어로, 영어까지 여섯 개의 언어로 통역을 해야 하는 주의깊고도 광범위한 준비를 요했읍니다.

그것은 실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큰 작업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회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총관리 역원이 현재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고 있는 17개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모국어 외에 영어를 배운다면 문제는 간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한 가지를 배우는 일은 총관리 역원이 17개국의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간단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여러 나라에서 갖는 금식 간증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 무언가 부지런히 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그들이 최근에 갖게 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들 국가간에 있었던 과거의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전쟁을 벌여 왔던 이들 나라가 현재 한 지붕 아래 모여 있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했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 : 28—29)

우리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의역하여 들려주었읍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국인도 독일인도 불란서인도 스페인인도 이태리인도 오스트리아인도 벨기에인도 덴마아크인도 아니요 다같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한 회원입니다. 여러 국가간에 있었던 정치적인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전쟁이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읍니다."

우리가 이 여러 국가에서 모인 성도가 하나로 뭉친 것과 같은 단합된 형제애를 느낀다면 우리는 내가 이 대회의 처음 말씀에서 인용했듯이 버나드 쇼우의 말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가 한 조상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헐뜯는 일은 그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에만 적용될 뿐 아니라 우리 서로간의 문제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으로서 혹은 경쟁을 요하는 세상적인 활동에 참여한 자로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자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표하며 그분께서 나를 통해 사업을 이루실 수 있는 권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일을 수행할 수 없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영적 분위기를 보면서 이러한 지역 대회를 계속해서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읍니다. 최초로 가졌던 지역 대회는 영국의 만체스터에서였으며 그때 모인 성도는 14,000명 가량이나 되었읍니다. 그 후에 우리는 멕시코시티에서 지역 대회를 가졌읍니다. 그곳에는 중남미와 멕시코 전역에서 16,000명 가량의 성도가 참석했읍니다. 내가 1945년에 처음으로 그곳을 방문한 이래로 얼마나 발전했나를 알 수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는 먼지 투성이의 마루바닥에서 모임을 가졌읍니다. 많은 여인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맨발로 교회에 참석했으며 지도자의 수도 소수에 불과했읍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달라졌읍니까! 훌륭한 건물과 감독, 스테이크 부장,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선교부장 등의 훌륭한 지도자를 갖게 되었음을 볼 때 이것은 기적의 하나가 아닐 수 없읍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읍니까?"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한 시민이 될 때 우리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신권 소유자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아서는 결코 신권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무언가 다르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신권이란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웃간의 우정과 봉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6월에 우리는 상향회 구성에 관한 변경 사항 몇 가지를 알려 주었읍니다. 아론 신권 및 청녀회 상향회는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위한 모임으로, 멜기세덱 신권 상이회는 18세부터 25세까지의 젊은이를 위해 그리고 26세 이상의 성인을 위해서는 특별 이해반을 갖도록 했읍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 목적은 이제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번 우리에게 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읍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읍니다. 상호부조회와도 연관이 없고 청년반에도 참석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도 참석을 하고 주일학교에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만한 프로그램이 없읍니까?"

이번에 변경된 이 새로운 조직은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개개인에게 역점을 두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는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각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커다란 열의를 갖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읍니다만 불행하게도 어느 지역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기도 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 가운데 한두 개의 글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느 자매가 보내온 글이 있읍니다. "저는 마음에 커다란 평화를 느끼는 반면 실망을 하게 되는 때가 있읍니다. 저의 감독님께서 특별 이해반에 관한 것을 알려 주셨읍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아직 무척 생소하며 전혀 들어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읍니다. 저도 이러한 일이 있음을 한 달 전에 비로소 알았읍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만 감독님들이 알려 주시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독님들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그다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또 어떤 자매는 이런 글을 보내왔읍니다. "해의 영광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얻으려면 자신도 합당해야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동반자와 함께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선택을 잘못하여 이혼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수가 있읍니다. 아니면 미망인이 되든가 어떤 경우에는 스물다섯이 되도록 올바른 동반자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읍니다."

어떤 자매는 다음과 같이 썼읍니다. "이유야 어쨌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 이해반이 없다면 스물 다섯이 넘은 독신은 마치 바람이 빠진 바퀴나 다를 바 없읍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전하는 말의 대부분은 가족 단위에 그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어느 자매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적어 보냈읍다. 그녀는 얼마 전에 남편을 여의었읍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나는 다섯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읍니다. 나는 어두운 곳을 정처없이 헤매다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같이 외롭게 남겨진 것입니다. 이 다섯 아이를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물론 감독님은 우리가 굶지나 않을까 하고 보살펴 주리라는 것을 믿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충분한 식량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상의 것이었읍니다."

그 자매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읍니다. "나는 세상에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특별 이해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많은 심리학자들이 미망인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를 갖지 않고 훌륭하게 자녀를 키운 사람들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나는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문제를 알며 내가 받은 축복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필요 사항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기에 특별 이해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내가 알게 된 최초의 사실은 비상시가 아니고는 아무도 나를 도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장례식이 끝난 뒤 나는 깊은 수렁에 빠져 외롭게 허우적거렸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때 전가족에게 알맞게 계획된 여러분의 반은 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금년 가을에 참석하기 시작한 특별 이해반에서는 내가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 주었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나 필요한 사항은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읍니다.

아내나 남편을 여의었을 때의 기분이 어떤지 아시겠읍니까? 그것은 부모나 자식을 잃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는 남편을 잃기 전에 모든 것을 잃었읍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자가 나이 스물 여섯이 넘도록 독신으로 있는 괴로움을 짐작하십니까? 아마 아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조그마한 그룹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활동에 참석하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때로 우리는 대화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읍니다. 상호 이해반은 데이트나 결혼을 알선해 주거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스테이크 내에는 어딘가 가고는 싶으나 혼자 가기를 꺼려하는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취미가 비슷한 다른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상호 이해반이라는 작은 그룹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어느 부인은 매년 교향악단의 연주를 구경하기 위해 표를 삽니다만 누군가 함께 갈 사람을 찾고 있읍니다.

"우리는 신혼부부 (young marrieds) 활동에 초대받는 것을 분하게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나 장로들이 그들이 준비하는 파티에 특별 이해반을 초대한다는 광고를 하는 것을 들을 때면 마치 뺨을 맞기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세찬 느낌을 갖게 되는지 여러분은 아마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위에서 말한 다른 특별 이해반원들은 대부분이 내가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이 특별 이해 프로그램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원래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8년 반 전에 내가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 특별 이해반의 회장이 그의 직을 잘 이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프로그램과 특별한 이해가 필요했음에도 오랫동안 무시되고 잊혀졌던 특별한 사람들로 인정하시겠읍니까?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을, 어머니가 없는 딸을 기르는 특별한 사람도 있읍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문제의 필요 사항이 또 있읍니다. 우리의 필요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제님은 그들의 필요 사항도 해결해 주는 데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생긴 과정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사람의 직감이나 상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가장 진지한 기도와 토론의 결과로 생긴 것임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특별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해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곳의 자매들로부터 이 활동을 촉진시켜 달라는 글을 받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복지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가는 곳마다 나는, "리 형제님, 복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읍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읍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감독 개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읍니다. 어느 와드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와드에서는 잘 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무척 열심히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곧 이 활동을 시작한다면 아직 젊어서 남편을 잃은 여인이나 이혼한 사람들 혹은 아직 반려자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의 흥미를 끌고 그들이 이 활동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열의와 기대가 클 때 그들을 활동에 참여시키면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지시를 받고자 하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해 둘 것

을 부탁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지도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이 특별 이해반 활동에 관해 주어진 권고를 따를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하나의 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25세가 넘은 형제가 신권을 가진 형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주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지 결코 혼란의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 안에서 여자없이 남자가 없고 남자없이 여자가 없다'는 것을 뜻하며 어느 누구도 여자없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되어 승영할 수 없으며 홀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완전과 승영을 얻을 수 있는 여자도 없읍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결혼을 제정하셨읍니다." (대회 보고, 1913년 4월, 118페이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시온에 있는 젊은 남자들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존귀한 것이며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자라면 독신으로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에 따라 편리하도록 고안해 낸 것이 아니며, 인간의 생각대로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것을 받아들였다 다시 거부할 수 있는 따위의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인류를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결혼이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며 덕은 파괴되어 악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며 땅은 공허해지고 황폐케 될 것입니다.

"…교회내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관리 역원과 교사들은 결혼의 신성함과 그 의무를 말일에 우리에게 계시된 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내에는 이러한 면에서 어떤 혁신이 있어야 하며, 결혼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권능에 의해 결혼하도록 해야겠읍니다. 신권을 소유하고 결혼 적령기에 도달한 형제로서 합당한 사람이 독신으로 남아 있는 일이 없어야겠읍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읍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이란 죄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배도적인 전통이며, 매우 유해하며 또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승인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읍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교리 5판, 270~274페이지)

지난 어느 저녁에 아름다운 한 어머니와 일곱 명의 자녀가 나의 사무실로 찾아왔읍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매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제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남편에 관해 묻기 시작했읍니다. 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그녀는 남편이 친절하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 남편은 성실해서 가족을 잘 부양하는 사람이었읍니다. 그러나 웬지 결혼에 대한 낭만으로 말미암아 만일 그녀가 가정에 얽메여 있지 않다면 일곱 아이가 딸린 남편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꽤 긴 얘기를 나누었읍니다. 그리고 얼마 후, 즉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읍니다. 대회의 첫 모임이 끝난 후 이 여인은 나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읍니다. "저는 이제 내가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읍니다. 이 모임이 제 생각을 변화시켜 주었읍니다. 저는 이제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봐야겠읍니다. 저는 이제 다시 남편을 사랑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저의 잘못들을 고치도록 하겠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자가 어느 때가 되면 결혼 생활에 싫증을 느끼듯이 결혼 생활의 풍요로운 멋이 이미 사라져 버린 생활에 권태를 느끼는 남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인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한테는 아직 미모와 젊음이 남아 있으니까 남편과 관계를 끊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어." 심리학자들은 어떤 여자에게 있어서 그러한 생각은 그리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한 생각이 결코 뿌리를 박아서는 안됩니다.

나는 십 수년 전에 어느 부부의 결혼을 주례해 준 일이 있읍니다. 얼마 전에 나는 어머니가 된 여자에게서 편지를 받았읍니다. 나는 편지의 서두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 "자, 여기 신전 결혼이 실패한 또 하나의 예가 생기는군."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바뀌기 시작했읍니다. "이제 종말은 왔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감독과 상의해야 한다는 권고를 들은 일이 있읍니다. 저희는 처음에 망설였읍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는 우리보다도 젊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를 찾아갔읍니다. 우리는 젊은 감독에게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였읍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우리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듣더니 간단히 이런 말을 해주었읍니다. '글쎄요, 저도 저의 처와 많은 문제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냈읍니다.' 그것이 감독이 우리에게 해준 말의 전부였읍니다.

그러나 젊은 감독이 해준 그 말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곳을 걸어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감독이 자기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겐 못할 것이 무엇이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아버지인 감독에게 가서 권고를 듣도록 가르치십시오. 세상의 어느 심리학자도, 어느 결혼 상담자도 교회의 충실한 회원에게는 감독보다 더 훌륭한 권고를 해줄 수가 없읍니다. 감독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율법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남자가 부인이 없이는 주님 안에서 서로 완전할 수 없다는 말을 주저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결혼에 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어쩌면 결혼 적령기가 지난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결혼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는 개종한 회원이 삼십대가 되도록 심지어는 사십이 넘도록 결혼을 늦추고 결혼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는 아연실색했읍니다. 조셉 에프 스

미스 대관장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를 다시 인용하겠읍니다. 그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날 문명 국가에 죄악이 만연하고 있으며 그 큰 이유는 결혼을 경시하기 때문이라고 했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결혼의 신성함을 잊고 있읍니다. 오늘날의 결혼이란 기껏해야 사회적인 계약이며 그보다도 우연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며 정욕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자주 생각하고 있읍니다. 성약의 신성함이 무시되거나 그 의의를 잃게 될 때 무질서한 현대의 도덕 질서 아래서는 결혼 서약의 경시는 하찮은 일, 즉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지고 있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의 책임을 거듭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나에게는 몇몇 자매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지적해 준 편지가 있읍니다. 이 편지의 발신인이나 말해서는 안될 내용은 그만두고 잠시 편지의 내용을 읽어 보겠읍니다. 그 여자와 4년간 데이트를 해오는 남자가 있는데 그는 특히 식사때가 되면 그녀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현재 스물 일곱입니다.

어느 한 자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저는 마흔인데 독신이랍니다." 또 한 자매는 "저는 서른된 독신녀랍니다."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똑같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서른 세 살된 남자와 데이트를 해오고 있읍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만납니다. 저는 감독에게 조언을 구했읍니다. 감독은 매우 친절하고 참을성과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에게 어떤 권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읍니다. 저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끊으려고도 해보았읍니다만 잘 되지 않았읍니다. 서로간에는 실제로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도 없으며 그리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 남자는 직업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를 만나고 있읍니다만 그는 결혼을 다만 쾌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생활 태도는 결혼 서약도 없이 그저 막연히 함께 사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려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생활 방식에는 부도덕이 개입되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아롱든 건전치 못한 조건이며, "악의 모양만을 피하려는" 방법인듯 합니다. 그러한 조건을 수락하는 여자도 남자만큼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만족스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져 있는 자매들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인은 반려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부인이 되고 싶어하고 어머니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형제가 결혼을 거부한다면 이들 자매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결혼 적령기를 지나쳐 버리거나 남편과 가족과 가정을 가지려는 여성의 가장 큰 소망을 이루고자 애쓰는 이 아름다운 여인들과의 결혼을 회피할 때 신권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은 아직 어린 형제에게 너무 일찍 결혼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 가운데 오늘날의 큰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젊은이가 가족을 돌보고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결혼을 보류해 줄 것을 바라고 있읍니다. 먼저 그가 찾는 자매를 찾았다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안되며 서로를 잘 알고 서로의 결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나는 선교부장들에게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선교사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6개월 내로 결혼하지 못한다면 선교사로서 여러분은 실패한 것입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6개월내에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읍니다. 만일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결혼을 서두른다면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읍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을 결코 잘못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결혼을 해야 할 시기에 있는 신권 소유자라면 결혼의 의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위해 신전에서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의 서약을 맺은 사람만이 해의 왕국에서 승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결코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신권 소유자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권의 기치를 들고 진군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읍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세력입니까! 오늘 저녁 우리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수는 약 185,000명이나 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각자 자신에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 주시는 분이니 영생을 목표로 삼고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도움되지 않는 활동에는 참여치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가정 복음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혼의 위기에 놓여 있는 가족이나, 아직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자녀나,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진 부모를 보거든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며, 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되며 늘 이들과 함께 있어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책임의 분야에서 겪어야 하는 가장 마음 아픈 일 가운데 하나는 신전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인봉의 취소를 요구해 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것은 대개 살인 다음으로 큰 죄악인 간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 간음은 교회 내에도 침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순결의 법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범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빛을 향해 나아 갑시다. 그리고 남자로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회 즉 영혼을 출생시키는데 창조자와 손을 맞잡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아내와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할 뿐인 불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더럽히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진리와 의의 길을 따라 갈 것과 그로 인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간증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책임을 다 하고 주님의 영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도 슬픈 일의 하나는 한때 주님의 영을 지녔다가 죄로 인해 그 영을 잃고 이제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가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경고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건져 올립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보거든 여러분의 책임을 생각하고 이 교회내로 구해 내도록 합시다.

여러분에게 축복과 함께 위의 권고의 말을 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폐회사

해롤드 비 리 대관장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께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이 자리에는 세계 각처에서 모인 회원들로 가득 차 있읍니다. 오늘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의 하나는 전쟁이 일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더 크게 확대될지는 모르지만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 이스라엘에는 브리감 영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꽤 많이 있으며 예루살렘에는 교회의 지부가 조직되어 있읍니다. 이곳에 있는 부모들 가운데는 걱정과 기다림으로 애타는 날을 보낸 사람이 있었읍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사하며 모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여러분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며 그들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겠읍니다.

칠레에 큰 정치적 소요가 있었읍니다. 거기에는 수천 명의 회원과 근 2,000명의 선교사가 있었읍니다. 산티아고에서 온 어느 관리 역원으로부터 우리가 아는 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원들은 정치적인 소요에 참여하지 않고 금식도 하며 파당에 가입하지 않고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그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굳게 설 것을 빕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적은 우리 가운데 있읍니다. 그것은 곧 구세주께서, 영감으로 택하신 열 둘 가운데 하나가 입맞춤과 은 30량에 자신을 적에게 넘겨 주는 것을 목격하시면서 탄식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흉악한 죄를 깨닫고 자살함으로써 도피구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열 둘 가운데 한 사람, 즉 유다를 가리켜 마귀가 들린 사람이라고 했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에서 이와 비슷한 자들을 봅니다. 과거에는 교사로,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 멀리 떨어져 나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그들에게 들어갔느니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몇 년 전에 한 여인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한 상스러운 글을 쓴 일이 있었읍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대회에서 언급되었었읍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나는 거리에서 만난 몇 사람으로부터 최근에 있었던 대회에서 계시로 간주될 만한 어떤 계시나 말씀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은 일이 있읍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대회를 마치면서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께서 폐회사로 하신 말씀을 들으셨읍니까? 들으셨다면 당신네들은 예언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중 한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지요." 나는 우연히 주머니에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적힌 종이 조각을 갖고 있었읍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셉 스미스를 하찮게 여겼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잊혀질 것이며 그들의 악명은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가 보인 영예와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그의 이름과 함께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참된 말은 이제까지 결코 말해진 적이 없었읍니다.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두 타락하고 맙니다.

가끔 공공 출판물을 통해 예언자를 비방하는 글을 쓰는 사람 가운데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읍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영광스런 가족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과거에 그들에게 준 존귀를 더럽혔읍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원수와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잊혀질 것이며 그들의 악명은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가 보인 영예와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그의 이름과 함께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런고로 너희 원수를 설복시키라. 저들에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만나기를 요구하라. 너희가 충실하면 저들의 수치가 드러나리라.

"그런고로 저들로 하여금 주님을 거스리는 강한 논거를 제시하게 하라.

"진실로 주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무릇 너희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무기는 번성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어느 사람이 너희를 대적하여 목소리를 높이면 그는 내가 정한 때에 설복당하리라.

"그런고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 (교리와 성약 71 : 7—11)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원수는 주님께서 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다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사업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

어진 어떠한 무기도 오래 갈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이 사업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며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은 잊혀질 것이며 그들의 사업 또한 그들을 뒤따르게 되리라."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에 대해 유감의 뜻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더 있읍니다. 이 대회에는 많은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의문을 해결하고 또 주변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여기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들의 의문과 질문 사항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계시의 서언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주의 팔이 나타나리니,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 : 14, 38)

주님께서는 다른 위대한 계시에서도 오늘 우리가 성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을 설명해 주셨읍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또 성신으로 감동되는 대로 말하여야 함도 저들에게 주는 하나의 예니라.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68 : 3—4)

교회가 조직된 직후에 주님께서는 십이사도에게,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 한두 가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귀중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 교리와 성약에 수록되어 있던 계시에 대하여 말씀하셨읍니다.

먼저 몰몬경에 대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한 말을 인용해 보겠읍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이 세상의 어느 책보다 가장 정확한 책이요, 우리 종교의 종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책보다도 이 책이 가르치는 교리로써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교회정사 4권, 461페이지)

그런 후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읍니다. "우리에게 몰몬경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교회정사 2권, 52페이지 참조)

몰몬경과 계시야말로 우리 시대에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기초였으며 이 계시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18편에서 말씀하셨읍니다.

"이제 나는 너희 열 둘에게 이르노라. 보라, 나의 은혜는 너희에게 풍족하니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여 죄짓지 말라.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이 말씀은 인간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니, 그런고로 너희는 이 말씀이 나의 것이요, 인간의 것이 아님을 증거하라.

"나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노니, 이 말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짐이라. 나의 능력으로써 너희는 그 말을 서로 읽어 줄 수 있으나 나의 능력없이는 그 말을 읽을 수 없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8 : 31, 33—35)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읍니다.

"그런고로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들었고 나의 말을 알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느니라."(교성 18 : 36) 이것은 내가 이미 인용해 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성 1 : 38)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일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3일 동안의 대회에 참석하여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심해 오던 문제에 관해서 이 대회보다 더 영감에 찬 명쾌한 해답을 얻은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다음 6개월간의 그의 지침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시거든 본 대회의 말씀이 적힌 책자가 나오는 대로 한 권 구입해서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의 문제에 관한한 주님께서 하신 최근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자들도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교성 68 : 4)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주님께서 우주의 창조에 관해 말씀하신 계시에 대해 생각해 보았읍니다. 교리와 성약 88편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지구는 제 길을 운행하며 해는 낮에 빛을 발하며 달은 밤에 그 빛을 내고 별들도 제 빛을 내나니,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제각기 영광 중에 자기 궤도를 운행하는도다.

"내가 이 왕국들을 무엇으로 비유해야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보라, 이 모든 것은 다 왕국이니, 그 어느 것이든지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본 자는 위엄과 권세로 당당히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8 : 45—47)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님의 뜻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볼 때 우리는 예언자와 주님 자신이 예언하신 우리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몇 가지 가장 극적인 일들을 목격해 왔으며 나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관한 계시를 주신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주님의 위대한 계시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 가장 작은 것이라도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능력으로 임하고 계심을 본 것입니다. 그에 대해 조금의 잘못도 범하지 맙시다.

지침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이 또 어느 곳입니까? 오늘날의 세상에서 안전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전이란 탱크나 총 또는 비행기나 원자탄 따위로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안전한 곳이 있읍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서 제정하신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재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답변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설명해 주셨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읍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아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아오리까"(마 24 : 3 참조) 그들이 묻는 말에서 "세상 끝"이란 말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은 명확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읍니다. 그것은 값진 진주에 있는 영감역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요셉 스미스 1서 : 38)

주님께서는 또 재림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적을 주셨읍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 위에 재앙이 임할 것이며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기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환난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적이 없나니, 그 후에도 결단코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지 아니하시리라." (요셉 스미스 1서 : 18)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겠으나 선민을 위하여 성약에 따라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보라 내가 유대인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였거니와 거듭 이르노니,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이 환난의 날 이후에 어느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 날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성약에 따라 택하신 자 바로 그 참된 택하신 자도 미혹케 하리라.

"그러므로 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저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 것이요, 보라 저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침 햇살이 동에서 나와 서쪽까지 비쳐 온 땅을 덮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요셉 스미스 1서 : 20—22, 25—26)

그리고 다시 닥쳐올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각처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거듭 이르거니와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굴복당하지 아니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듭 이르노니, 이 왕국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에 종말 곧 악인의 멸망이 임하리라.

"그 환난의 날 이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일들이 나타날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 한 분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때에 있던 것 같이 저들에게도 그러하리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저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기록된 것이 성취되리니, 곧 마지막 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리라.

"무릇 내가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살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때에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요셉 스미스 1서 : 29—31, 33—34, 40—46)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날을 가리켜 말씀하셨읍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표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여러 형제들로부터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우리에게는 이제까지 그토록 많은 직접적인 지시 사항과 권고를 주는 대회가 없었읍니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역시 그에 대한 해결책이 주어졌읍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저 흘려 보내지 말고 주님께서 영감으로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자녀를 위해 성취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시온의 언덕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대회를 끝마치면서 나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느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침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태너 부대관장이나 롬니 부대관장과 같은 신앙이 강한 분들과 십이사도 및 총관리 역원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내 생에 어느 때에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굳게 단합하여 일하고 있읍니다.

총관리 역원은 단합되어 한 가지 음성으로 세상에 주의 말씀을 외쳐 전하고 있읍니다.

총관리 역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나는 고든 비 힝클리 형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로서 나의 간증을 드립니다. 나는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성취하기를 바라시는 일을 이루기 전에 치르어야 할 시험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이따금 나는 내가 더 심한 고난과 투쟁을 한다면 망각의 장막이 엷어져서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 이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에게 나의 축복을 전해 드립니다. 이제 각자 소속 와드로 돌아가면 총관리 역원의 사랑의 뜻을 각 회원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우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방향

감각을 잃은 자들을 찾아 내어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데려오도록 해야겠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 모두까지 구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법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함으로써 오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또한 내가, 이것이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복음의 모든 경륜의 시대에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것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한 태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1973년 10월 6일 토요일 아침 모임

이러한 일들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주님께서 직접 이 대회를 주재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겠읍니까? 이 모임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축복과 유익과 구원을 위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읍니까?

그러한 생각은 결코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시기를 없애 버리고 완전한 신앙을 소유한다면 장막은 어느 때고 걷혀질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교성 67 : 10 ;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9 페이지 참조)

주님께서 에녹의 도시에 사실 때 분명히 그는 그 무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어 복천년의 영광 속에서 지상을 통치하실 때 주님께서는 예전처럼 똑같이 백성을 다스리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거나 그의 종의 음성이거나 같은 것입니다. 리 대관장께서 어제 대회를 개최할 때, 그리고 롬니 부대관장께서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면 이들이 하신 말씀들이야말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일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읍니다.

교회의 대관장으로 계신 이분들은 주님의 대리인이요,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들이며 생명과 진리와 계시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주어지며 우리가 그들의 말씀에 따라 생활한다면 이 생과 앞으로 올 영원한 영광에서의 평화가 보장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다른 분들 위에 임재하셨던 주님의 영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잘 전해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나는 말일성도에게 세상과 국가 정세에 긍정적이고 건전한 태도를 취할 것과, 모든 악과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며 선하고 교육적인 모든 것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음의 영광과 이적 가운데 나타나는 그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온갖 것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이거나 악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고 가치나 생산성이 의문스럽고 결과가 훌륭하지 못한 것에 정열을 쏟기가 쉽습니다.

나는 훌륭한 대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신성한 명령과 인간에게 자유와 축복을 주는 모든 참된 원리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참된 원리를 알려 주는 사람을 지지하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일성도가 모든 선한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하고 생산적인 일은 영원한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며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에 봉사하도록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내가 이 지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온 힘과 정력과 능력을 다해 진리와 의를 전파하며 완전케 하고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일성도에게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하고 그의 영원한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의로운 일에 쏟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읽어 드릴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 즉 이스라엘의 사람인 주의 왕국의 회원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읍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사 33 : 14)

그것은 즉 교회 안에서 누가 해의 왕국을 상속받겠느냐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거룩한 자들이 있는 곳에 가겠읍니까? 그들은 곧 세상을 극복하고 의의 일을 행하고 신앙과 헌신으로 끝까지 견디어서 "오라 와서 내 아버지의 왕국을 상속받으라"는 축복된 말씀을 들을 자들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이사야 33 : 15—16)

나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와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은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의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둘째,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웃에게 공평과 공정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재림의 날에 일한 삯을 토색하는 자에 대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읍니다.

세째,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물질로 우리의 관심을 사려는 온갖 행위를 거부하고 대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그 가운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그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읍니다. 구원이란 자유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읍니다. 뇌물이란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입니다.

네째,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즉 우리가 악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정부에서 잘못을 찾으려 하지 말고 좋은 점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긍정적이고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인간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영원한 법칙을 제정하셨읍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악한 일로 그 종말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육욕적이고 세상의 악한 것에 쏟는다면 세상적인 것과 불의가 마치 평범하고 정상적인 생활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만일 마음속으로 성적인 부도덕에 관계되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곧 모든 사람이 부도덕하고 순결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될 것이며 우리와 세상과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모든 해롭고 불순하고, 불결하고 신성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즉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잠 6 : 18) 싫어하시며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의로운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의로와질 것입니다. 쉬지 않고 덕으로 우리의 생각을 장식한다면 주의 면전에서 우리의 신임이 두터워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야곱이 "마음이 육욕에 사로잡힘에 사망이요, 영으로 충만함에 영생"(니이 9 : 39)이라고 한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도 같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 : 7, 8)

바울의 말씀에서 다시 한 구절을 읽겠읍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 4 : 8)

우리의 마음이 의로움을 생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구원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패커 형제께서는 어제 우리가 유익한 것에 마음을 쏟기 위해서는 시온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했읍니다. 나는 우리가 개회 찬송을 부르고 나면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을 더하고 싶습니다.

나는 복잡한 거리를 걸으면서, 황무지의 좁은 길을 밟으면서, 외로운 곳에서 많은 설교를 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일과 의로운 것에 전념할 수 있었읍니다. 나는 그것이 내가 회중에게 가르친 어떠한 설교보다도 유익했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일하려 한다면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의 진리를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와 관심을 주님과 우리에게 쏟고 계시는 그의 선하심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잊고 우리의 온 힘과 마음과 능력을 다하여 그의 일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산나의 외침 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영생인 그에 관해 계시된 지식과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생각해 볼 때, 피로써 우리를 구하시고 구속의 희생으로 생명과 불멸을 가져다 주신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그의 사명을 순교로 마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와 사명을 생각해 볼 때 나의 영혼은 영원한 감사로 가득차며 높은 곳에 계시는 분에게 목소리를 높여 끝없는 찬양을 돌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의 왕국을 인도하는 예언자를 보내 주시고 사도와 예언자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계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권능을 지닐 수 있도록 성신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무수한 축복, 즉 은사와 기적과 가족이 영원히 살리라는 약속과 어느 곳에 있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이 주시는 온갖 축복을 생각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선하심과 은혜를 외치고 싶은 마음이 한이 없읍니다. 나는 이 순간에 오늘 아침에 롬니 부대관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은 찬양과 감사를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지은 시를 읽어 드리겠읍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그의 은혜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면전을 구하라
오 주를 찬양하라

주님께 축복있나니
그의 자비하심을 축복하라
그의 사랑을 축복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면전을 구하라
오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만물을 지으신 이를 찬양하라
모든 것을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면전을 구하라
오 주를 찬양하라

주를 구하라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이를 구하라
우리가 알아야 할 이를 구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면전을 구하라
오 주를 구하라

우리에게 준 계명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걸으면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구한다면 참으로 그의 면전에 이르게 되며 결국에는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1973년 10월 5일 금요일 오후 모임

"보라 네 어머니라"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어느 여름날 나는 필리핀에 있는 미국인 전몰 용사 묘지에 조용히 홀로 서 있었읍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더운 열대의 대기에 감돌았읍니다. 잘 깔린 잔디 가운데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이름이 적힌 묘석이 서 있었읍니다. 나는 이들의 이름을 읽는 동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읍니다.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은 긍지로 가득 찼읍니다. 나는 자유를 위해 바친 높은 대가와 많은 사람이 치른 값비싼 희생을 깊이 생각해 보았읍니다.

나의 생각은 용감히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이들로부터 아들의 고귀한 희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에 가득차 애태우던 어머니에게로 옮아 갔읍니다. 어머니의 슬픔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읍니까? 누가 어머니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겠읍니까? 누가 어머니의 역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읍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로 어머니들은 여러분과 내가 생명을 얻도록 죽음의 어두운 계곡을 걷고 있읍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내 영혼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생각과
내 혀가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말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거룩한 이름을 지어 내기에는 합당치가 않도다.
어린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은 것이다.
엄숙히 불러야 할 이름,
그것은 곧 축복된 이름, 어머니이다.
—조지 그리피스 페터—

이러한 자세로 어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언뜻 네 종류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첫째 잊혀진 어머니, 둘째 잊혀지지 않는 어머니, 세째 축복받은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잊혀진 어머니"를 흔히 봅니다. 양로원과 병원이 이들 잊혀진 어머니들로 만원을 이룹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어머니를 방문하는 사람은 없읍니다. 쓸쓸히 창밖을 내다보며 사랑하는 자식의 소식을 기다리지만 우체부조차도 그들 앞을 무심히 지나갈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외로운 어머니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겠읍니까? 그녀는 울리지 않는 노크 소리를 기다립니다. 울리지도 않는 전화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한 어머니가 아들의 미소로, 딸의 포옹으로, "할머니"하고 외치는 손자들의 외침과 함께 방문을 받을 때 그 느낌이 어떠하겠읍니까?

우리는 그 외에도 다른 면으로 어머니를 잊습니다. 우리가 타락할 때, 해야 할 일을 못할 때 우리는 참으로 어머니를 잊는 것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나는 솔트레이크 시티 양로원의 책임자를 만난 일이 있었읍니다. 그 책임자는 여자였는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평화스럽게 보이는 거실에 모여 있는 나이 든 몇 할머니들을 가리켰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해리슨 부인인데 일요일 오후 세 시만 되면 딸이 꼭 방문을 한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펙 부인이랍니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만 되면 뉴욕에 있는 아들에게서 오는 편지를 받지요. 읽고 또 읽고 그런 다음에는 한 조각의 값진 보물이 되지요. 그렇지만 저기 있는 캐롤 부인을 보십니까? 그 가족은 전혀 편지를 하는 일도, 전화나 방문을 하는 일이 없읍니다. 이 부인은 변명답게 들리지도 않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을 위로한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일 것이다." 그처럼 "어머니를 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찌니라" (잠 23 : 22) 잊혀진 어머니를 기억하는 어머니가 되게 할 수는 없읍니까? 인간은 어머니를 기억할 때 악에서 돌이켜지고 더 나은 덕성을 쌓으려 합니다. 남북 전쟁 당시 유명했던 히겐슨 대령은 남북 전쟁에서 가장 용감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자기가 있던 연대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용감하고 고상하며 매일의 생활이 순결하고 모든 사람이 빠져 있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읍니다.

어느 날 저녁, 샴페인이 나오는 식사를 하던 날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을 때 이 젊은이에게 누군가가 축배를 부탁했읍니다. 히겐슨 대령은 이렇게 계속 말했읍니다. 그 젊은이는 얼굴이 창백하지만 완전히 자제하는 태도로 일어서서 이렇게 외쳤다고 했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축배를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나는 물을 마시겠읍니다. 나는 축배를 할 때 '우리의 어머니들께'라고 해야겠읍니다."

순간 거나하게 취한 이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읍니다. 이들은 조용히 축배의 잔들을 기울였읍니다. 웃거나 노래를 부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읍니다. 하나씩 둘씩 방을 나갔읍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추억의 등불을 켜 주었고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주일에 가졌던 주일학교 모임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모든 어머니에게 작은 꽃다발을 하나씩 드리고 눈이 먼 회원인 멜빈 왓슨이 피아노 곁에 서서 "훌륭하신 나의 어머니"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있었읍니다. 나는 그때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고여 뺨을 타고 내려 자신의 옷깃을 적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나는 어린 생각에 왜 어른들이 저토록 조용히 앉아 있으며 손수건들을 꺼내나 하고 의아하게 여겼읍니다. 나는 이제 그 이유를 알겠읍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소년 소녀, 모든 아버지와 남편까지도 마음속으로 굳게 이런 각오를 하는 것 같았읍니다. "나는 훌륭하신 어머니를 기억해야지"하고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중년이 지난 어느 신사로부터 그의 가정에 있었던 한 경험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 신사와 그의 형제 자매를 낳아 주고 미망인으로 살아 온 어머니는 영원하고도 훌륭한 보상을 받기 위해 다른 세계로 떠나 갔읍니다.

온 가족이 함께 커다란 저녁 식탁에 둘러 모였읍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던 조그마한 쇠상자를 가져와서 뚜껑을 열고 어머니가 고이 간직해 온 것을 하나씩하나씩 꺼내어 보였읍니다.

그곳에는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을 한 증서도 있었읍니다.

"야!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계시겠구나" 하고들 외쳤읍니다.

그리고 또 그 상자 안에는 때를 표시해 놓은 노란 봉투가 있었읍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집에서 만든 카드가 있었읍니다.

그 카드에 있는 글씨는 어린 아이의 필적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었읍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지금 가고 없어도 어머니라는 신성한 이름은 또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방안은 고요했으며 가족 개개인은 속으로 어머니를 기억해야 할 뿐 만이 아니라 어머니를 존경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늦은 것은 아니었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기억되는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 보았읍니다. 이제 "축복받은 어머니"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읍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나인에 사는 어느 과부보다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어머니의 기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쌔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누가복음 7 : 11—15)

예수께서 보이신 권능과 자비와 연민은 얼마나 훌륭하신 것이었읍니까! 우리도 그의 숭고한 모범을 따르기만 한다면 이웃의 어머니를 축복해 줄 수 있읍니다.

기회는 어느 곳에나 있읍니다. 우리는 가련한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상한 마음으로 조용히 간구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읍니다.

그렇습니다. 동정과 사랑으로 가득찬 영혼은 눈과 눈으로 목소리와 목소리로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구세주의 경우처럼 마음과 마음으로까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곳에 있든 모든 어머니가 다 "축복받은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어머니"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보편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리고 오늘날에도 어린이가 즐기는 시는 "누가 가장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린이일까?"라는 시입니다.

"'어머니, 난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린 존이 말했다.
그런 후 그는 자신의 일을 잊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그는 공원의 그네로 달려가서
자신의 일을 어머니께 맡기고
신나게 논다.
"'어머니 난 어머니를 사랑해요'
로시 넬이 말했다.
그리고 넬은 반나절을 화를 내며
말을 듣지 않았다.
어머니는 넬이 놀러 나가는 것을
보자 기뻐하셨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린 팬이 말했다.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머니를 돕겠어요.
오늘 학교에서 공부를 안한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팬은
아기가 잠들 때까지 흔들어 재웠다.
그런 다음에 조용히
비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바닥을 쓸고 방을 치웠다.
팬은 하루 종일 바쁘고 기뻤다.
어린이와 같이 돕고
기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머니 난 어머니를 사랑해요'
아이들은 다시 말했다.
세 아이는 잠자리에 들었다.
세 아이 가운데
누가 가장 어머니를 사랑할까?"

—조이 앨리슨—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어머니가 꾸준히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현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목표입니다. 우리는 몰몬경에서 2,000명의 젊은이의 선두에서 의로움으로 전쟁터로 나가는 선하고 용감하며 숭고한 지도자 힐라맨이라는 인물에 대해 읽을 수가 있읍니다. 힐라맨은 젊은이들의 업적을 이렇게 묘사했읍니다. "…온 니파이 백성 가운데서 그토록 놀라운 용기는 보지 못하였노라…저들은 또 나에게 이르기를…보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지 않으시리니 우리를 나아가게 하소서…나의 아들들은 싸워본 경험이 없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저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 모친에게서 배운 자였더라. 저들이 모친에게서 들어 배운 말을 내게 되풀이하며 말하기를 모친들께서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하였더라."(앨 56 : 45—48)

계속해서 힐라맨은 전쟁이 끝난 후의 일을 이렇게 묘사했읍니다. "보라, 단 한 사람도 맞아 땅에 쓰러지지 아니하였으매 나의 기쁨이 충천하였으니, 참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힘을 입은 듯

싸웠으며 그렇게 기적적인 힘으로 싸운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못하였노라…"(앨 56 : 56)

기적적인 힘, 위대한 능력—즉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자비롭고 감동적이고 설득력있는 기록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그러나 그 중 어느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읍니다. 때는 절정의 시기로서 예루살렘에서의 일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운집해 있었읍니다. 그들의 투구는 시이저에 대한 충성을 나타냈고 방패에는 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으며 창에는 로마의 독수리가 장식되어 있었읍니다. 예루살렘에는 또 본토인들이 모여 있었읍니다. 밤은 가고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라, 십자가에 못박아라"하는 소리도 영원히 사라져 버렸읍니다.

시간은 왔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개인적인 지상의 성역은 빠르게 그 극적인 종말에 이르렀읍니다. 여기에 어떤 외로움이 있읍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 걷게 된 절름발이 거지도 이 사람으로 인해 듣게 된 귀머거리와 이 사람으로 인해 보게 된 장님과 이 사람으로 인해 살아난 사람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몇몇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읍니다. 이 잔인스러운 십자가 위의 고통스런 상태에서 그는 그의 모친과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있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요 19 : 26, 27)

몸서리치던 무서운 밤, 지진으로 산이 갈라지던 밤 이래로 역사의 과정을 거쳐 수세기가 넘도록 간단하지만 엄숙한 "보라 네 어머니라"한 말은 메아리치고 있읍니다.

그 다정스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할 때 "잊혀진 어머니"를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잊혀지지 않는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될 것이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다시 한번 그가 지으신 것을 살펴보시며 "심히 좋더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를 간직하도록 합시다. 사람이 어머니를 잊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는 없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 분, 즉 하나님과 어머니는 창조의 동역자요, 사랑과 희생과 봉사에서 하나가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어머니를 공경해야겠읍니다. 이 모든 말씀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구합니다.

아멘.

영적인 음악—합당한 생각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리 대관장께서는 지난 4월에 있었던 대회에서 32년간의 총관리 역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영감과 감명을 받는 것은 늘 아름답고 영적인 음악이 수반되었을 때라고 결론을 내렸었읍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들려준 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악에 감사를 드립니다.

애디슨은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음악은 인간이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감정을 해치지 않고 심취할 수 있는 유일한 감각적인 기쁨이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그것이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만 현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수했지만 지금은 자주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읍니다. 근 수세기 동안 그 자체로는 순수한 음악에다 가장 나쁜 종류의 가사를 붙여 음악을 만들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원래는 좋은 음악이지만 나쁜 가사를 사용함으로써 음악을 나쁘게 만들어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대관장단에서는 최근에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을 주셨읍니다.

"음악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오묘함과 힘에 있어서 언어의 한계를 초월한다. 음악은 격려하거나 영감을 불어 넣어 주며, 타락과 파멸의 메시지를 바꾸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언제나 음악을 선택함에 있어서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고 영의 인도를 간구해야 한다."(신권 공보, 1973년 8월)

우리의 시대에는 음악 그 자체가 더럽혀졌읍니다. 음악은 그 템포와 박자와 격렬한 분위기로 인간의 영적인 감수성을 둔화시킬 수 있읍니다.

오늘날 극단적인 음악에서 생기는 생리적 현상에 관한 연구는 이것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읍니다.

현대의 청소년은 조용한 음악보다는 시끄럽고 빠른 음악을 들으면서 성장해 왔읍니다. 어떤 음악은 청소년에게 순수하고 고상한 느낌도 줍니다만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렇지 않은 것에 늘 문제가 있읍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배도하고 있다는 표적의 하나는 그 성직자들이 오랫동안 가장 신성한 모임으로 그 자리를 지켜온 종교적인 모임에 흥청거리는 군중이나 대중이 즐겨 부르는 저질의 음악을 도입시키거나 장려하려는 그들의 엷은 의도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그러한 음악에는 덕성이란 거의 없고 하나님의 영에 거슬리는 것밖에 없었읍니다.

가련한 것은 그 음악이 지닌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의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음악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음악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에 휩쓸려들거나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은 소위 말하는 그들 자신의 종교를 연구하면서 무언가 그들 생활에서 빠진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교회 활동에서 허용되는 음악을 강조하고 가르쳤을 때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읍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님은 젊음을 뜻없이 보내고 싶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책임은 청소년들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길로 나아가고 싶어해도 교회는 그러한 이유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우리가 청소년에게 유익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그들이 다른 그릇된 곳으로 가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그러한 유익하지 못한 것을 즐기도록 허용해 주거나 마련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청소년을 위해 루울렛(공굴리기 도박의 일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실제로 도박장에 가지 않을까 염려하여 상향회실에다 도박을 목적으로 루울렛 테이블을 마련해 줄 수는 없읍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청소년에게 그렇게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청소년의 마음에 보다 나은 표준을 심어주도록 가정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되시는 분들에게 자녀가 집에 가져오는 책이나 잡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듯이 그들이 구입하는 레코드나 테이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색 잡지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커다란 해를 끼치는 음악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모들이 많이 있읍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은 음악이란 결코 저질의 것이 될 수 없으며 음악 그 자체는 무해하며 순수한 것이라는 말을 했읍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청소년들이 모여 파티를 열고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모임을 즐기는데 그 음악이 하나님의 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청소년들은 오늘날의 복장이나 두발의 스타일에 무조건 그대로 따르지 않고 현명하게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해 예의 바르고 정숙한 스타일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뒤지거나 특이하지 않도록 해야겠읍니다.

우리는 청소년 모임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통해 표준 복장과 차림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해왔읍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청소년이 즐기는 시끄러운 음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거나 충분한 권고를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시끄러운 종류의 음악 이외에도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음악이 많이 있읍니다.

부모나 이 분야에서 청소년을 선도하는 교회 지도자는 곧 그들이 현명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날카로운 물건을 갖고 있으면 때로 어리석은 어른은 어린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염려하여 재빨리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꼭 쥐다가 다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명한 부모라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것 못지 않게 아이의 관심을 끌면서 위험하지 않은 것과 바꾸게 하여 아이가 기꺼이 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1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레코드를 다시 살펴보고 소위 새로운 도덕이라는 것을 조장하고 마약을 복용케 하거나 몹시 시끄러운 음악 따위가 담긴 레코드는 없앨 것을 권합니다."

2

"우리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음악에 대한 훈련도 포함시킬 것을 권유합니다."

3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고르십시오.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불러서 외우도록 하십시오."

청소년과 그들이 가까이 하는 음악에 문제가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과 영감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청소년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한두해 동안 우리는 청소년의 욕구에 알맞는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했읍니다.

이것은 청소년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택하는 음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이 즐기는 음악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와의 불화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격심합니다.

젊은 지도자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의 주이시며 교회는 우리의 것인 동시에 또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레코드를 다시 살펴보고 소위 새로운 도덕이라는 것을 조장하고 마약을 복용케 하며 몹시 시끄러운 음악 따위가 담긴 레코드는 없앨 것을 권합니다. 그러한 음악은 영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것은 젊은이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모아 놓은 레코드를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나쁜 것들은 없애 버리십시오. 가장 좋은 것만 갖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것에서 현명하게 선택하여 유익한 것만 갖고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거든 훌륭한 음악으로 그 재능을 살리십시오.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하고 유익한 음악은 얼마든지 있읍니다. 우리는 늘 훌륭한 음악 가운데서 생활해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훌륭한 음악을 들려주어야 하며 영적인 찬송가를 배우려는 어린이의 욕망을 잘 길러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음악을 공부시키려면 그와 더불어 많은 부수적인 경비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음악적인 훈련도 포함시킬 것을 권유합니다.

킴볼 대관장의 부모께서 음악을 배웠듯이 킴볼 대관장도 음악을 배웠읍니다. 리 대관장의 부모께서 음악을 배웠듯이 해롤드 비 리 대관장께서도 음악을 배웠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전의 회의실에 모일 때는 늘 찬송을 부릅니다. 올갠 반주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이나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이 하셨읍니다.

인격 형성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예배 음악을 포함하여 악기 다루는 법 및 훌륭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음악을 생의 일부로 삼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교성 25 : 12)

나는 음악가로 훈련은 받지 않았지만 그러한 음악이 어떻게 해서 내 생활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 되었는가에 대해 젊은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특히 청소년이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했읍니다. (잠 23 : 7)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

는 사람은 자신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10살 쯤 되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위에는 과수원이 있었읍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과수원에 댈 물이 부족했읍니다. 봄이면 언제나 새로운 도랑을 만들지만 이내 잡초가 가득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나는 물을 주다가 문제가 있음을 알아냈읍니다.

물은 잡초가 무성한 도랑을 타고 내려가다가 풀 때문에 나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넘쳐 흘렀읍니다. 나는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흙으로 둑을 쌓았읍니다.

그러나 한 곳에 흙을 쌓아 올리면 또 다른 곳이 터져 물이 흘러나가는 것이었읍니다.

한 이웃에 사는 사람이 와서 잠시 내가 하는 것을 지켜 보더니 삽으로 고랑 바닥을 퍼내어 풀을 없앤 다음 그곳으로 물이 흐르게 하였읍니다. "물이 잘 흘러내리려면 물길을 잡아 주어야 해"라고 그는 내게 말해 주었읍니다.

나는 우리의 생각도 물과 같이 그 생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낮은 곳으로만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라면서 생각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읍니다.

나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음악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대와 같습니다. 잠잘 때를 제외하고 무대의 막은 늘 열려져 있읍니다. 무대 위에서는 늘 무엇인가가 공연되고 있읍니다. 그것은 때로 희극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있으며 재미가 있든 없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음의 무대에서는 늘 어떤 연극이 상연되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연 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조그맣고 하찮것없는 생각이 기어들어와 여러분의 주의를 끄는 것을 느껴 본 일이 있읍니까? 이러한 생각이 일게 되면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그대로 놔 둔다면 유덕한 모든 생각은 무대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렇게 타협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생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놔 둔다면 그것들은 마음의 무대에서 여러분이 허락하는 한 온갖 연극을 다할 것입니다. 그 주제는 질투와 증오와 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추하고 부도덕하고 사악한 공연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여 그것들이 무대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낼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마음의 무대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며 그리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의 무대를 지배하여 명령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것들이 대부분은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거나, 의심할 여지 없이 불결한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습관, 개인적인 악습까지 극복할 수가 있읍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일에 익숙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음악 가운데에서 고상하고 경건한 가사가 담긴 것, 여러분이 영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택하십시오.

리 대관장의 권고를 명심하십시오. 아마 "난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이 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를 외워보십시오.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을 외우고 또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찬송가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즉 이 노래가 여러분의 비상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언제든 여러분의 마음의 무대로 이러한 악한 생각이 침입해 들어오거든 이 노래를 트십시오.

음악이 시작되고 마음 가운데 가사가 떠오르면 불결한 생각들은 부끄러워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무대의 분위기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이 고상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저속한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덕이 더러운 것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 빛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지않아 콧노래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무대에 유익하지 못한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때면 자동적으로 노래가 시작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글래스톤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과 영을 지배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의 하나이다."

나는 가치있고 고상하고 영적인 음악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일단 마음의 무대에서 무익한 생각을 몰아내어 깨끗하게 한 뒤에는 가치있는 것을 배우도록 애쓰십시오. 여러분에게 훌륭하고 고상한 생각을 하게 하도록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십시오. 의로운 일을 꾸준히 추구하도록 하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시끄러운 현대 음악으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읍니다. 그것은 결코 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무대에 합당치 않은 생각이 침입해 들어와 빠른 속도로 연주를 하여 여러분의 행동이 그에 따르게 할 수도 있읍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음악의 주변에 있는 것 즉 경건치 못함, 부도덕, 초라함, 탐닉 등과 타협할 때 자신은 타락에 빠집니다.

그러한 음악은 여러분에게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고상한 음악과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많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분이 배우고 행할 수 있는 많은 훌륭한 것을 허락해 주셨읍니다.

내가 알기로 합창단에서 폐회 찬송으로 개척의 찬송가인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를 부를 것입니다.

나에게는 공군 준장이 된 형제가 한 사람 있읍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그는 폭격기의 조종사로 가장 위험한 지역의 공격 임무를 맡았었읍니다. 그가 임무를 부여 받기 위해 워싱턴 디시로 돌아왔을 때 나는 비 24 폭격기의 훈련을 마치고 태평양 지역을 지휘하고 있었읍니다.

내가 전지로 떠나기 전에 우리는 하루나 이틀 가량 함께 시간을 보냈읍니다. 우리는 용기와 두려움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누었읍니다. 나는 그에게 온갖 위험을 어떻게 견디어 냈느냐고 물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에게는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지.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가 그것이야. 우리가 살아 돌아올 희망이 거의 없을 때면 나는 그 노래를 기억하고 그것은 비행기의 엔진 소리와도 같이 내게 힘을 주었지."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이 여행이 혹 힘들지라도
하나님 계시니

—찬송가 86장—

그는 이 노래에서 신앙과 근본적인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고대와 현대의 경전에는 의로운 음악의 영향이 끼쳐 준 좋은 예가 많이 있읍니다. 주님 자신도 음악의 영향으로 큰 시험을 준비하셨음을 경전을 통해서 알 수 있읍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막 14 : 26)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과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생애 동안 우리를 위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내 생활과 내 자녀의 생활에서 훌륭한 음악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있읍니다. 영감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함께 듣는 것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겠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을 주고"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으며 그 비유들은 잘 알려져 있읍니다. 그러나 또 적절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도 사람들을 가르치셨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 : 26)

이것은 특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영생이라고 정의하신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제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읍니다.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구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위대한 사실을 설명하시기 위해 잘 알려진 비유를 들어주셨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마 13 : 45—46)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마태복음 13 : 44)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란 값진 진주이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읍니까? 이 교훈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있는 것이란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우리가 황금이나 지위의 유혹 또는 쾌락이나 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겠읍니다. 구원을 받아 그의 면전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사 중 가장 위대한 것이며, 가족을 구원의 기쁨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생애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원이란 구세주의 속죄를 통해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만 그 기쁨은 마음내키지 않는 노력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기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램을 적용시킴으로써 얻어야만 합니다. 불사불멸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도 그와 같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길을 보여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읍니다.

이 얼마나 기이하고 훌륭한 기회입니까? 경전에서 그것을 값진 진주라고 한 것에 이상한 것이라도 있읍니까?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그것을 얻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과 바꾸어지겠읍니까?

구세주께서 그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읍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올 세상에 여러 등급의 영광이 있다고 더 자세하게 말해 주었읍니다.

우리는 자신의 합당함에 따라 그 영광 가운데 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업적에 따라 심판받게 됩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은 이 별이 저 별과 다르듯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바울은 또 별의 영광 저편에는 별과 달이 다르듯이 다른 영광이 있다고 했읍니다.

그는 또 다른 영광 즉 해의 영광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읍니다. 이 영광은 햇빛처럼 밝은, 달이나 별보다 훨씬 밝은 영광이라고 했읍니다.

현대 경전에서는, 하나님께 충실하며 그분이 정해 주신 길대로 걸어가는 자만이 그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해 주고 있읍니다. 그곳에 가는 자라야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읍니다.

그보다 낮은 영광에 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게 되며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가족이 어느 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까?

복음대로 생활하여 낮은 영광이 아니라 해의 영광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그것을 얻도록 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 아니겠읍니까?

태양의 눈부신 영광을 즐길 수 있는데도 별의 반짝임을 보고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

태양의 그 찬란한 빛을 볼 수 있는데 반사되어 비치는 달빛에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불안스런 안일과 바꾸겠읍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영감받은 예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리고 육체의 타락과 육욕적인 쾌락이나 죄의 유혹을 택하겠읍니까? 누가 그의 장자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겠읍니까?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라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구세주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하신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그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라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남자가 무엇을 주고 제 영혼을 바꾸겠읍니까?

여자가 무엇을 주고 자신의 목숨을 바꾸겠읍니까?

부모가 무엇을 주고, 의의 원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의 영혼을 바꾸겠읍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팥죽 한 그릇으로 자녀의 미래를 팔아 버리려는 부모가 있읍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린 자녀들의 복리를 감히 희생시키려는 부모가 있읍니까?

자녀가 무시되고 있읍니다. 도처에서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읍니다.

어린 아이의 영혼이 지니고 있는 가치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영혼이 지닌 가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스릴과 바꾸겠읍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사업상의 어떤 이점과 바꾸겠읍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사교 생활이나 여성 해방 운동으로 집이나 가정에서 뛰쳐 나가는 것으로 바꾸겠읍니까? 아니면 돈과 바꾸겠읍니까? 바꾼다면 얼마에 바꾸겠읍니까?

이것을 깨닫든 못 깨닫든 세상적인 것을 우리의 종교보다 더 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이러한 교환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우리 생활에서 첫번째로 꼽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번째 세번째 혹은 네번째로 꼽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회한과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만으로 자신의 구원을 잃는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겠읍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사실을 알면서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뒤섞을 수 있겠읍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해의 영광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열심히 섬긴다는 것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이어야 하며 종교적으로 혹은 다른 면으로 다른 그룹이어서는 안됩니다.

자! 무엇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겠읍니까? 악이란 그것이 가져다 주는 비참함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스릴을 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이점, 돈, 쾌락 혹은 죄의 유혹이 될 수 있읍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을 바꾸겠읍니까?

부모되시는 여러분은 구세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마 11 : 28—30)

여러분의 구세주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더 들어 보십시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시온의 주민이나 조직된 시온의 어떤 스테이크에 사는 주민에게도 하나의 율법이 되리라. 저들의 자녀는 여덟 살이 될 때에 죄 사함을 위하여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하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 : 25—28)

심판의 날에 받게 될 보상은 별과 별이 다른 것과 같이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부모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에 뉘우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세주께서 현대의 계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라."(교성 59 : 5)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읍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것과 바꾸고 있읍니까?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교리와 성약 59 : 6)

여러분은 그에 순종하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다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성 59 : 6)

여러분은 이 계명에 따르고 있읍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이 말씀을 옆으로 제쳐 두고 있읍니까? 여러분은 단 한 순간이라도 영혼의 구원과 복음의 순종을 분리시킬 수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의 하나가 바로 황금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를 그들에게 해주고 있읍니까?

신문 배달하는 아이들에게 대금을 꼬박꼬박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매월 지불해야 할 여러 종류의 세를 지불하지도 않으면서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위선자에 대해 무어라고 말을 해야겠읍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시온의 주민은 안식일을 준수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느니라."(교성 68 : 29)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교성 59 : 9) 이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복리를 일요일에 하는 사업이나 일요일에 누릴 수 있는 쾌락 혹은 주말의 휴가 따위의 세상적인 것과 바꾸겠읍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읍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부를 허락해 주셨읍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마음의 평화와 참된 행복과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주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옵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며 그와 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방법이 아니라 완전한 길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한한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섬기지 않으면 그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교회 회원은 없읍니다. 계시는 다음과 같이 말해 줍니다. "…무릇 매사에 강요당하여 행하는 자는 게으른 자요, 현명하지 못한 종이라 따라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명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여 명령을 받아 마지못해 이를 준행하는 자는 정죄를 받느니라."(교성 58 : 26—27, 29)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무릇 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는 나의 제자니라. 그러나 말로는 율법을 받아들였노라 하나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 너희 가운데서 좇아 낼지니라."(교성 41 : 5) 그와 같이 우리가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바로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교회 회원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전을 읽거나 십일조를 내는 것만을 요구하시지도 않읍니다.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충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 있읍니다. 즉 세상이냐 구원이냐가 그것입니다. 어떤 것이어야겠읍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중립이란 있을 수 없읍니다. 미지근한 순종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읍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을 바꾸겠읍니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적절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 16 : 26)

범사에는 서로 마땅히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현세와 내세에서 얻게 될 신성한 축복을 이 세상의 하찮은 것과 바꾸겠읍니까? 우리가 빛보다 어두움을, 기쁨보다 슬픔을 택한다는 것은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 활동을 게을리한다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제 영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맙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나의 간증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1973년 10월 6일 토요일 오후 모임

계시된 복음의 진리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성대한 대회에 여러분과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말일에 왕국을 건설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영생의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언자의 음성 듣고 주 말씀 믿으라.
진리의 길 기뻐하고 찬송을 외쳐라.
옛 선지 걸었던 그 길 우리도 알았네.
이 지식 회복하려고 예언자 주셨네.
—찬송가 113장—

우리는 이 대회에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었읍니다. 우리는 강화된 신앙과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더 큰 의욕을 갖고 다시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우리의 시대에 사람이 사람의 교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것을 알았으며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사 29 : 14)

나는 그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란 인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사하시려는 이유였다고 했읍니다.

복음의 회복, 즉 이 기이하고 기이한 업적을 통해 올바르게 고쳐진 모든 것에 대해 토론할 시간은 없읍니다. 그러나 우선 올바르게 알려진 가장 큰 것은 오늘 아침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께서 훌륭하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 확실하게 알려진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와 지체와 감정이 없이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이것은 곧 하나님에게 눈이 없으니 볼 수 없고 귀가 없으니 들을 수 없고 목소리가 없으니 말하실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로운 두 분의 개체였으며 우리도 그와 같이 영화롭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면전에서 살 수 있게 되고 그가 누구이며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세상의 죄에서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기이하고 위대한 지식입니까!

그 다음으로 위대한 사실은 교회의 조직상의 큰 변화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신권과 오늘 이곳에서 지지한 각 지도자와 연관된 보조 조직을 생각해 보십시오. 리 대관장께서는 오늘 아침의 신권회가 850 개의 건물에서 방송될 것이라고 하셨읍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그와 같은 신권의 조직을 찾을 수가 있겠읍니까? 이는 모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지상에서 그의 왕국 건설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좀과 동록이 해치지 못하고 도적이 도적질하지 못하는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마 6 : 19 참조)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재능과 은사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왕국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몇 말씀 드리고 싶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 또 한 가지 아름다운 교리는 결혼 성약의 영원한 존속과 가족 단위의 영속인 것입니다. 우리만이 그러한 교리를 믿는 유일한 교회라고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형제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고 있나? 하는 책을 쓴 일이 있읍니다. 〔룰론 에스 하웰즈, 데저렛 출판사, 1932〕 그 책에는 여러 다른 교리를 비교하는 도표가 있었읍니다. 그는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열 개의 교회에, 그들이 믿는 교리에 관한 질문에서 다른 아홉 개의 교회에서는 모두 영원한 결혼과 가족 단위를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냈읍니다. 그들은 결혼이란 죽음과 동시에 헤어지는 것으로 그것은 사실 이혼 증서와 같다고 했읍니다. 결혼의 효력이 죽을 때까지 뿐이라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계를 결속시켜 주는 유대는 어디에 있읍니까? 특히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죽음과 더불어 우리의 가족과 헤어질 때 그것을 다시 결속시켜 주는 힘이 어디에 있읍니까?

나는 조지아의 퀴트만에서 선교부장을 하고 있을 때 방금 이 책에서 얻은 도표를 인용한 일이 있읍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 나는 집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기 위해 문간에 서 있었읍니다. 한 사람이 내게로 다가오더니 자기는 침례 교회의 목사라고 소개를 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오늘 인용한 것이 잘못 됐나요?" 하고 말했읍니다.

"아니오, 그런게 아닙니다. 인용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린 사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 믿지는 않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목사님도 그것을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렇다면 돌아가셔서 침례교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마 목사님의 말씀은 믿겠지만 아직 몰몬 선교사들의 말은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읍니다." 하고 그는 떠났읍니다.

내가 다음 번에 그곳에 갔을 때는 4개월쯤 후였읍니다. 그 조그만 교회로 들어가다가 나는 그 목사를 만났읍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지난 번에 제가 설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무척 알고 싶군요." 그러자 그는, "리차즈씨, 저는 그 이후로 줄곧 그 말씀을 생각해 왔읍니다. 그리고 리차즈씨가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를 다 믿습니다. 다만 나머지 말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 복음의 회복, 즉 기이한 업적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 아름다운 원리에 대한 토론은 그칠 줄 몰랐읍니다.

나는 조지아의 아틀란타에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페터 마샬 박사의 서재를 찾아간 일이 있었읍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장로 교회의 목사였는데 우리는 함께 한두 시간 이야기했읍니다. 그는 미국 상원의 목사로 재직 중에 돌아가셨읍니다. 여러분은 그의 저서 페터전을 읽었거나 그의 생애를 그린 영화를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한 많은 내용은 우리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우리에게서 배운 것이었읍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교회에 있는 청소년을 빼앗아 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청소년을 가르치기 위하여 선교부로 사람을 보내어 상향회 교재와 기타 교회 서적을 구입해 가곤 했읍니다. 그의 서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그에게 그의 교회에서의 영원한 결혼의 원리와 결혼 성약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물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리차즈 씨,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가르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해 당신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읍니다." 하고 그는 이렇게 계속했읍니다. "고양이 새끼를 어미에게서 떼어가면 어미는 곧 그 새끼를 잊어 버립니다. 송아지를 어미에게서 떼어가면 어미는 곧 그 송아지를 잊어 버립니다. 그러나 어린애를 어머니의 품에서 떼어가면 어머니는 백년을 살더라도 그 아이에 대한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란 것을 무덤에서 그 종말을 고하도록 창조하셨다고 믿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감정이 죽음과 더불어 없어지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사랑이란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러한 원리를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결혼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회에서 주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였읍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라 하시고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신 후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모세서 3 : 18, 24)라고 하셨읍니다. 그것은 두 개의 반쪽이 아니라 한 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지상에 번성케 하

려고 남자나 여자 어느 한쪽이 없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며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둘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겠읍니다. 만일 사람이 죽기 전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면 부활한 후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있던 상태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혼자일 경우에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은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 : 22) 타락하기 이전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면 부활한 후에도 독처하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제로 위대한 속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이며 그래서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막 10 : 6—9)

이보다 더 명백하게 기록된 성구가 어디에 있읍니까? 결혼이 무덤 저편에서의 관계를 맺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그들이 한 몸이 되어 나누이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진의는 과연 무엇이었겠읍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고전 11 : 11) 이 세상에서는 혼자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3 : 7)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생명입니까? 그들은 이미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생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영생의 축복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이사야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 것을 보았을 때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고 한 것을 기억할 수 있읍니다. (사 65 : 25) 그는 또 사람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사 65 : 21—23)

그들이 손수 지은 집에서 자녀와 함께 살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보다 더 명백하게 말할 수 있겠읍니까?

이 위대하고 영원한 원리가 복음의 회복을 통해 알려진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아내와 가족과 기타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던 사랑까지 모두 멸절되는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 가정에서의 실패는 어떠한 성공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 대관장께서도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가정 안에 있다는 말로 위의 내용을 강조하셨읍니다. 그것은 가정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하기에 좋은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다스리게 될 왕국의 특권을 얻도록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했읍니다. 그것 또한 우리 시대에 회복을 통해 알려진 영광스러운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 지상에서 유괴당한 자녀를 찾기 위해 부모가 많은 돈을 들이는 기사를 읽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와 갖는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새롭고 영원한 성약과 신권에서 베푸는 성신권의 권능에 의한 인봉을 통해 우리는 자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첫번 부활의 아침에 나아와 "죄 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교성 45 : 58)고 하셨읍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와 더불어 얻는 기쁨과 행복을 생각해 보고 영원한 세상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없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오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을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신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기이하고 기이한 사업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해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간증드리며 나의 사랑과 축복과 증거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세계 각처에 있는 회원 또는 비회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개조 제1조에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구속주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매우 성스러운 주제이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독생자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구하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연대상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경전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그 경전에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모두 참석했던 큰 전세의 회의가 나옵니다. 이 회의에서 인간의 영원한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되었읍니다. 이에 예수는 인간의 구원과 승영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속을 이룰 것을 자원하였으며 그렇게 하도록 택함을 받았읍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늘날의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주로 택하여졌으며 우리의 구속주이시라는 사실을 간증하였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지상에 온 예언자들은 예수께서 택함을 받았으며 그가 이 지상에 와서 그의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읍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희생의 제물을 번제할 때, "…주의 한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바치느뇨? 아담이 저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이 일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 (모세서 5 : 6—7)

그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성역을 베푸실 때까지, 인간의 영원한 진보를 꾀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희생을 제물로 바쳤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일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장차 구속주로서 성취하게 될 대속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였읍니다.

주님께서는 후에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만일 네가 내게로 돌아와 나의 음성을 듣고 믿어 네 모든 범법을 회개한 연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의 독생자의 이름 곧 이로써 인간의 자녀에게 구원이 임하는 하늘 아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으면 너희는 성신의 은사를 받으리니…" (모세서 6 : 52)

"그러므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라. 또 회개하며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 하니라.

"아담과 이브가…아들 딸에게 모든 일을 알게 하니라."(모세서 5 : 8, 12)

아담의 시대로부터 절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주민들에게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차 전해졌읍니다. 에녹, 노아, 멜기세덱,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그 외의 예언자들도 이것을 가르쳤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 2,000년 동안 미대륙에는 두 개의 위대한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읍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명은 알려졌읍니다. 몰몬경에는 "큰 탑"으로부터 미대륙으로 백성을 이끌어 온 지도자 중 한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 나와 있읍니다. "주가 저 앞에 보이시며 이르시기를…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인류가 영원토록 빛을 갖게… 되리라.

"보라 네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 …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이더 3 : 13—14, 16)

2,2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바로 전날에 관하여 몰몬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읍니다.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왔음이라. 오늘밤으로 표적이 보일 것이요,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로 세상에 전하게 한 말을 이루어 보이리로다." (니삼 1 : 12, 13)

물론 우리 모두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들렸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 2 : 11)는 천사의 기쁜 소식을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모두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임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읍니다.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누 3 : 22)고 말씀하셨읍니다. 또한 변형의 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마 17 : 5)고 하셨읍니다.

신약에는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말씀이 거듭 기록되어 있읍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 중 가장 감명을 크게 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성역을 베푸시고 미대륙을 방문했을 때, 미대륙에 살고 있던 니파이인에게 하신 선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를 다음과 같은 말로써 소개하였읍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니파이삼서 11 : 7)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하강하여 "…무리 가운데 서심에…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니삼 11 : 8—10)

"보라 나는 세상을 죄에서 구하고자 세상에 구속을 가져다 주러 온 것이니,

"누구든지 회개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 이를진대, 내가 저를 받아들일지니, …그러므로 땅 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나아와 구원을 받을지어다."(니파이삼서 9 : 21—22)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명과 약속에 대하여 나 개인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을 통하여 인간은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간증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장자이며, 육의 독생자임을 알고 있으며, 경전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전세에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도와 인간의 죽어야 할 몸, 죽음, 부활, 영생 등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지구를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으며,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아담과 노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수세기 동안 예언자들이 언급하던 하나님, 온 나라의 하나님, 왕의 왕, 주의 주로서 온 지상을 다스릴 하나님"(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4페이지)이 곧 예

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읍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마리아의 몸에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났읍니다. 그가 가르치는 복음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의 흠없는 생활"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자처한 그의 희생"과 죽음의 승리는 모든 인류에게 부활과 죽지 않을 몸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가 정한 조건하에서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읍니다.

나는 이상의 사실에 대하여 간증드리며, 또한 1820년 이른 봄에 뉴욕주 팔마이라 근방 숲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요셉 스미스 이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간에게 나타나셨던 어떠한 사실보다 가장 위대한 사실이었읍니다. 예언자는 그 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읍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읍니다." (요셉 스미스 2서 : 17)

예수는 그가 말했듯이 "세상의 생명이요 빛이요"(교성 10 : 70)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니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읍니다. (교성 18 : 32) 그의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며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교성 84 : 46)을 끊임없이 깨우칩니다.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하나님 곧 아버지께 나아오느니라."(교리와 성약 84 : 46—47)

나는 거듭 간증드리노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주님의 예언자,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에 의하여 관리되는 교회 중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도에 따라 세워졌으며, 그의 권능을 부여받았읍니다. 또한 이 교회는 우리 주가 되시며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축복과 기쁨과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의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복지 사업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형제 여러분, 오늘 아침 복지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은 태너 부대관장께서 지난 해 동안에 새로 임명된 감독의 수만 하더라도 무려 1,400명이나 된다고 발표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교회 복지의 기본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읍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나는 지침서와 과거에 행해진 말씀에서 몇 가지를 인용하겠읍니다.

교회 복지는 주님의 완전한 경제 프로그램인 헌납의 법에 이르는 한 방법입니다. 이 완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에녹과 그의 백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주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니…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

"…보라, 때가 지나매 시온이 하늘로 들리워가더라…"(모세서 7 : 17—18, 21)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었던 대 변동에서 살아 남아 그 후로 복지 프로그램대로 생활한 니파이인들에 대해 경전은 이렇게 말해 주고 있읍니다.

"…온 땅의 백성들이…모두 개심하여 주께로 돌아왔고, 백성들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한 저들은 저들의 온갖 소유를 공유하였던지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속박된 자나 자유로운 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자유로왔고, 저들이 모두 하늘의 은사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니파이사서 2—3, 16)

하나님의 완전하신 경제 프로그램의 근본이 되는 것은 노동입니다. 에덴에서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네가…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모세서 4 : 23, 25)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화가 나서 하신 명령은 아니었읍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아담에게 계명을 어긴 것을 앙갚음하신 것이 아니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아담을 살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위치에 놓아 두신 것 뿐이었읍니다.

땅은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것이지 아담에게 불리하도록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그 후손이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다면 인류는 결코 생존해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멸했을 것입니다.

최근에 나의 비서가 내 책상에다 국립 정신 건강 기관에서 실험한 보고서를 갖다 놨읍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새앙쥐를 위한 작은 에덴"이 세워졌읍니다. 그 작은 에덴에는 새앙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마련해 두어서 말하자면 새앙쥐가 그리던 "꿈의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읍니다. 그곳에는 네 쌍의 새앙쥐를 두어 살게 했읍니다. 그곳에는 4,000 마리의 쥐가 살 만한 여유가 있었읍니다. 55일마다 쥐의 수는 배로 불어났읍니다. 그러나 600여 마리가 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읍니다. 쥐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였읍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쥐의 사회에 일어났읍니다. 그것은 쥐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한 것이었읍니다. 많은 쥐들이 실망하고 더러는 완전히 좌절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읍니다. 그 쥐들의 행동이란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읍니다. 집을 짓는 일이 적어지고 더러는 서로 잡아먹기까지 했읍니다.

쥐의 숫자는 계획된 대로 결코 4,000 마리에 이르지 못했읍니다. 그들의 번식이 정지되었을 때 겨우 이 숫자의 절반이 약간 넘었읍니다. 쥐의 사회는 정서적인 폭도들로 가득 차게 되었읍니다.

쥐의 에덴에는 그 수가 600으로 떨어졌읍니다. 새끼쥐는 다시 태어나지

않았읍니다. 쥐의 사회는 암담해졌으나 어느 새앙쥐도 이 멸망해 가는 낙원을 구하려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읍니다."(론 우드렵, 기독교 정신의 적용, 1973년, 9월, 28—30페이지)

게으름이란 쥐에게 있어서와 같이 인간에게도 파괴적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요구하는 대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게 되면 역시 폭도가 될 것입니다."(같은 책) 이것은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읍니다. "나는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건장하여 일할 수 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돈도 음식도 옷도 그 외에 여하한 것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배웠으며 그것은 또 나에게 삶의 원리가 되었다. 일할 수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으면 어떤 사회라도 멸망하게끔 사람들은 더 게을러지게 된다."(브리감 영 설교집, 1925년판, 422페이지)

주님께서는 현 경륜의 시대에 복음을 계시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자는 밥을 먹지도 말아야 하며 일군의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2 : 42)

주님께서는 선교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교성 60 : 13)

"시온의 주민은 충성을 다하여 맡은 일을 기억하라. 게으른 자는 주 앞에서 기억될 것임이니라."(교성 68 : 30)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각 사람은 모든 일에 부지런하라. 게으른 자는 회개하여 자기의 태도를 고치지 아니할진대 교회안에서 일할 자리가 없으리라."(교성 75 : 29)

우리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브리감 영 대관장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을 잘라 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십일조를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다."(브리감 영 설교집, 1925년판, 274페이지)

십일조를 내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원리와 가르침에 따라 "복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회원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참된 말일성도라면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남에게 떠맡기거나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일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과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충당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가족이나 친척이 그를 돌볼 수 있으면서도 부양의 책임을 사회에(혹은 교회에) 전가시킬 수는 없다. 복지 사업에는 공정과 공평과 분명한 상황 판단과 인간애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교회 복지 사업 담당자들은 궁핍한 자를 돌볼 책임은 일차적으로 그들 가족에게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회원의 가족으로서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면서도 돕기를 거절한다면 그때는 이 문제를 그러한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와드의 감독에게 보고 한다."(복지 사업 지침서, 1952년, 2페이지)

방금 읽어 드린 말씀은 수년 전에 대관장에 의해 승인되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잊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전 5 : 8)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교회에 다음과 같은 율법을 주셨읍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기까지는 남편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

"모든 자녀는 장성할 때까지는 양친에게 양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83 : 2, 4)

우리 모두가 일하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라는 신성한 계명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모든 회원이 늘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도록 해주지만은 않습니다.

교회가 조직되기 1년 전에 주님께서는 궁핍한 자로서 가족도 그들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돌봐 주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읍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계명 하나를 주노니,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으며 가난한 자의 호소를 들었음이니라. 부자도 내가 만들었으며, 모든 육체는 나의 것이니,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 : 16, 27)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러 면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자주 듣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읍니다.

"또 이 지방의 교회 회원에게 계명을 주노니, 저들 가운데 몇 사람은 임명받으리니, 교회의 지지의 거수로써 임명받게 할지니라. 또 저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며 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도울지어다…"(교성 38 : 34—35)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

주님께서는 "나의 교회의 율법"으로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네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여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너희 재물을 나누어 줌은 내게 행하는 것이 되나니…"(교성 42 : 30—31)

그 후에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방문하여 저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나니…"(교성 44 : 6)

그 뒤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려하지 아니하는 너희 부자에게 화 있도다. 너희의 재물이 너희 영육을 썩게 할 것임이라. 주께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분노하시는 날에 애통하며 울부짖기를 추수는 끝나고 여름이 지났으나 나는 구원받지 못하였도다 하리라."(교리와 성약 56 : 16)

협동 교단에 대한 지시 사항이 주어질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나의 복음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자기의 몫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저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리라."(교리와 성약 104 : 18)

(교회 구제 활동, 1933년, 4페이지)

이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교회 회원은 특히 신권 소유자는, 이 세

상과 다음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바란다면 가난한 자에게 많은 것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회원이 가난한 자를 도와 주도록 요구되고 있는 반면 감독은 궁핍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하는 주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대표자입니다. 교회 복지의 이러한 면에서 나는 클라크 부대관장의 말씀을 인용하겠읍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책임은 감독에게 있읍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느 만큼의 도움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며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독이 주는 도움은 다른 조직에서 주는 도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공공 단체에서의 구제는 주로 정치 사회 혹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주어지며 도덕적이고 영적인 목적은 이차적입니다.

"교회가 아닌 개인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주어지는 도움은 때로 그 동기가 순수한 동정에서 비롯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두고 있읍니다.…

"그러나 감독이 주는 도움은 공공 단체나 개인 단체에서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또 명하고 있으며 감독에게는 그러한 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구제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읍니다. 감독은 '주의 창고를 지키며 …교회의 기금을 받으며, …지불해야 할 것이 있으면…처리해' 주기 위해 (주님에 의해) 인도를 받습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감독과 상호부조회의 역할, 1941년 7월 9일, 발표되지 않은 기사)

궁핍한 자에게 도움을 줄 때 감독은 마음 가운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이며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그러나 이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니, 보라,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한 자는 낮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나 주가 나의 성도를 부양하기로 선포한 방법이니라."(교리와 성약 104 : 15—16)

감독은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손상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능력을 다해 도움받은 바를 보상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도움을 받는 자의 권위와 자존심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태도를 취할 때 주님의 완전하신 경제 프로그램에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1) 모든 사람이 과부가 동전을 연보궤에 넣는 자세로 교회 복지 사업에 참여할 때.

(2)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열심히 일할 때.

(3) 감독의 창고로부터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일할 기회를 얻게 될 때. 결국 주님의 계획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진정한 목적은 순간적인 도움을 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제하는 데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서 감독은 신권과 친절과, 사랑과 의로움을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감독과 상호부조회의 역할, 1941년 7월 9일)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교리와 성약 121 : 41—42)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를 강화시켜 주는 시련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교회 축복사

지구가 창조되기 전, 전세에서 지상 생활의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졌읍니다. 그 당시의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부모의 영의 자녀였읍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의 부모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을 따라 이 지상 생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읍니다.

경전에는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런 소식을 듣고 기뻐 소리쳤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또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시험과 환란을 견디고 모든 일에 충실하고 참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읍니다. 시련과 환란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이 지상에 오고 싶어했었읍니다.

이 지상에 최초로 온 사람은 아담과 이브였읍니다. 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모세서 3 : 17)의 열매를 따먹기까지는 의로움과 악함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읍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모세서 4 : 23) 우리는 자주,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것은 "땅"이지 아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덧붙이셨읍니다. 이것은 아담과,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담과 이브는 성장도 번식도 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읍니다. 어떤 변화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 상태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했읍니다. 이 변화란 즉 아담과 그 후손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었읍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복음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읍니

다. 천사는 생명과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였읍니다. 천사는 또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류를 구속하러 오실 구세주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읍니다.

모세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읽을 수 있읍니다. "그 아내 이브는 모든 말을 듣고 기뻐하며 가로되,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더면 우리는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악이나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모세서 5 : 11)

현대 계시는 이렇게 말해 줍니다. "악마가 인간의 자녀를 유혹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악마의 유혹이 없으면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나니, 인간이 쓴 것을 알지 못하면 단 것도 알 수 없는 연고니라."(교리와 성약 29 : 39)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것을 알기 위해서는 쓴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론 사람들은 쓴 것은 있지만 단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강화시키는 생활의 시련이 있읍니다. 각자는 모두 자기만이 가장 혹독하고 심한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금강석은 반짝이도록 다듬어졌을 때 더 가치가 있읍니다. 쇠는 연단을 거쳐야 단단해지고 더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련은 인격을 길러 줍니다.

모든 발전은 거스리는 세력을 극복해 냄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마땅하니…"(니이 2 : 11)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게 하려 함이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이서 2 : 25)

"…하나님께서 너의 고난을 성별하사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매,"(니파이이서 2 : 2)

그러므로 시련이란 우리가 시련 그 자체를 위해서 구하지만 않는다면 유익한 것입니다.

리 대관장께서 즐겨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토요일 저녁에 일부러 소를 진창에 밀어 넣지만 않는다면 일요일에 진창에 빠진 소를 건져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철강업계의 한 권위자인 헨리 케이서는 "누가 지도자인지 알고 싶거든 그들에게 일거리를 잔뜩 떠맡기라. 그러면 지도자가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읍니다.

그것은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법인지도 모르겠읍니다. 주님께서도 지도자를 육성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 어렸을 적에 내 방 벽에 붙어 있던 놋쇠로 만든 액자를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액자에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한 가난뱅이를 묘사한 그림이 있었읍니다. 그의 바지의 한쪽 엉덩이 부분이 없어졌는데 한 마리의 개가 그 떨어진 부분을 입에 물고 그를 따르고 있었읍니다. 거기에 적힌 시는 다음과 같았읍니다. 순경 속에서는 누구나 미소지을 수 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 미소짓는 자는 참으로 위대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시지 않고 사탄으로 하여금 유혹하게 하셨다면 결코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찾고 그의 도움을 구한다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태초에 주님의 천사는 아담과 이브를 가르쳤읍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읍니다.

나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륜의 시대마다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 주시기 위해 예언자와 교사를 보내 주셨읍니다. 우리에게 경전을 주셨으니 곧 성경과 몰몬경과 현대의 계시가 그것입니다. 그는 신권의 충만함과 더불어 복음을 회복해 주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모든 진리를 밝혀 주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읍니다. 우리에게 신전과 그 안에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로써 창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나타내시지 아니하신 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는 우리 선조가 마지막 때에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린 것이니, 저희 완전한 영광을 위하여 보존된 그대로를 천사들을 시켜 저희 마음에 보여 주신 것이니라."(교성 121 : 26—27)

이것은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앞서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상을 위해 봉사하리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 도와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 : 39)

이 세상이 창조된 것과 아담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계획과 발전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속죄하시기 위해 오셨읍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위해 회복되었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는 살아야 할 생과 이룩해야 할 일이 각각 따로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일은 다른 일보다 중요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그분 보시기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윌리암 클레이튼이 쓴 찬송가의 가사는 개척자들에게 용기를 준 것 같이 오늘날의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이 여행이 혹 힘들지라도
하나님 계시니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힘껏 앞으로 나가자
너의 가슴 부푸리니
모든 것 잘 되리

모든 것이 어렵지 않도다
나가자 앞으로
우리 어찌 보수 생각하랴

나가서 싸우자
팔을 걷고 용기내자
하나님 보호하리라
이 일이 곧 옛말되리
모든 것 잘 되리—

—찬송가 86장—

여러분 각자가 인생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영생에 이르는 길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아침 모임에서 리 대관장께서 전해 주신 메시지가 훌륭하고 시대에 적절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또 그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도록 권고해 주셨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충실한 자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읍니다. "…내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이니라."(교성 14:7)

"…보라 영생을 가진 자 그가 곧 부자니라."(교성 6:7) 영생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기원과 그 운명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할 복음의 계획을 알려 주셨읍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같은 생활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가 그와 같은 생활을 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인간은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여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 이제 악마가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니이 2:27)

영생에 이르는 첫번째 단계는 침례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침례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셨읍니다.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침례하도록 권능을 부여받은 자였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침례의 모형이었읍니다.

바울 사도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엡 4:5)라고 가르쳤읍니다.

주가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킴이요 믿음도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계획이요, 침수에 의한 침례가 곧 한 침례를 의미합니다.

몰몬경의 예언자 니파이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을 알게 하시려고 이를 내게 보이셨으니,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은 회개와 물의 침례라. 그 후에 불과 성신으로 죄 사함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하여 너희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곧고 좁은 길에 임하나니, …"(니이 31:17—18)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3—14)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음과 같은 확고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을 믿는다면 그를 무시할 수 없으며 영생을 얻을 수 있읍니다. 구세주께서는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속죄의 희생으로 바치셨읍니다. 그렇게 하여 인간에게는 신앙으로 영생과 승영에 이를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생을 얻는 데 개종과 침례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영하려면 해의 영광의 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합니다. (교성 76:50—70 참조)

어떤 사람은 복음의 의식을 다 받기만 하면 범죄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해의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왜냐하면 "…주는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아니" 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앨 45:16)

이 문제에 관한 니파이의 가르침을 들어봅시다.

"참으로 많은 자들이 말하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라. 우리는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김이 우리에게 좋으리라 하며,

"또한 많은 자들이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되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은 죄를 조금 지으면 용서하시리니, 거짓말도 조금 하고 사람의 말을 트집잡아 이익을 얻으며, 하나도 해될 일이 없으니 이웃을 빠뜨릴 함정을 파는 등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라. 우리는 내일 죽으리라.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리라.

"이런 모양으로 거짓되고 헛되며 어리석은 가르침을 가르칠 자가 많을 것이요, 마음이 교만하여지며 저들의 계략을 주님에게서 깊이 감추며 저들이 행하는 일은 암흑의 일일 것이요,"(니이 28:7—9)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거짓 가르침과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일에 잘못 인도되어 승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

열심히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죄와 유혹의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은 유혹이 닥치더라도 올바른 길을 걷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고 자신을 늘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범법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없읍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상반되는 세력이 있읍니다.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멸하며 사탄의 추종자가 되게 하여 영원히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세력입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게 하며 의롭게 살도록 해주고 자유를 선택하고 용기를 갖게 하며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세력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여 악의 권유보다는 주의 편에 충실히 설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병행시킬 수 없으며 그런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거할 수는 없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꾸준히 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빛과 진리는 악한 것을 던져 버린다고 하셨읍니다. (교성 93 : 37 참조) 우리의 생활에 빛과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굴복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종을 경계해야 합니다. 인간을 속이는 사탄의 계략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들은 무관심, 자기 만족, 부도덕, 마약, 돈에 대한 탐욕, 부정직 또는 사악한 행위 등입니다. 구세주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 : 24)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될 수도 있읍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읍니다. 삶이란 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 앞에 제시하는 모든 계략과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읍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과 함께 따라 가기에는 쉬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만 좁은 길을 걸음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과 보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희생하는 모든 것은 가치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앨마는 그의 백성에게 이생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가르쳤읍니다. 그는 회개를 미루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읍니다.

"너희가 긴박한 위기에 처하고 난 뒤에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 없으리라. 참으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리니, 이 생에에서 너희 육신을 다스린 그 영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너희 몸을 다스리리라.

"보라 너희가 죽기까지 회개를 미루면 너희는 악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악마가 너희를 저희 것으로 하며, 주님의 영은 네 몸에 거할 곳이 없어 물러나리니…"(앨마서 34 : 34, 35)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과 동반해야 합니다. 성령의 동반이 없다면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으며 영원한 가치에 대한 감각을 잃고 불신과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길을 저버리지 않고 마음에 교만을 품으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교성 98 : 20 참조)

"그러나 이만큼을 전할 수 있나니,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언동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생애를 마칠 때까지 우리 주의 강림에 관하여 들은 바를 굳게 믿지 아니할진대 기필코 너희가 멸망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아 이를 기억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 (모사이야서 4 : 30)

영생의 문은 그 값을 지불하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참으로…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좋은 것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요…내 앞에서 충실하고 부지런한 자는 하늘에서 축복으로 관을 쓰게 될 것이요…"(교성 59 : 3, 4)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성약을 맺고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것만이 영생에 요구되는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가 이 곧고 좁은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전능하신 권세로 너희를 구하시는 이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할진대,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니이 31 : 19—20)

우리는 그저 우두커니 서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읍니다. 참여하는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한 것을 위해 변화되고 향상되도록 해준다는 간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영생의 은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세우신 교회 밖에서는 얻을 수가 없읍니다. 절정의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도의 순교에 잇따라 배도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거짓 복음의 가르침으로 인해 오류에 빠지게 되고 의식이 변경되었으며 성스러운 권능을 잃게 되었읍니다. 그와 똑같은 상태가 암흑 시대에도 계속되었읍니다. 이때에는 새로운 복음 경륜의 시대 즉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이 요구되었었읍니다. 나는 이 회복이 1830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간증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영원한 진리의 거룩한 원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읍니다. 이 교회는 회원의 세상적이며 영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고 있읍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표준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시대에 맞추어 적당히 늦추거나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몰몬주의는 그 엄격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읍니다. 소위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는 정직과 근면과 도덕과 충성의 덕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에서는 이러한 덕성이 너무나 빨리 사라지고 반면에 악이 흥하고 있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를 위해 주어진 약속 가운데 분명히 미래의 삶이 있음을 간증합니다. 이때야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뢰와 신앙은 우리가 충실하고 참되다면 그의 거룩한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며 안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모두가 이 훌륭한 은사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나는 이것이 그의 교회이며 신성한 영감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예언자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을 모시고 있음을 큰 축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개별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며 우리가 가르침과 권고와 인도를 받기 위해 지도자로 모셔야 할 분이며, 찬양과 존경을 돌려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맺은 성약과 의무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973년 10월 7일 일요일 아침 모임에서 하신 말씀

지고의 영예—여성의 사명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오늘 아침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세상 만민에게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계획을 주셨건만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읍니다. 그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읍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항상 핍박을 받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순교당하기도 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충만한 복음을 가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예언자를 통하여 다시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오늘날 이 지상에 있고, 예수께서 살아 계신 예언자이신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을 통하여 이 교회를 관리하고 계시다는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언자의 음성으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전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파괴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교회내에서의 여성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주님을 위한 사업과 이웃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 어머니, 독신 여성 등 훌륭한 여성이 많이 있읍니다. 이들은 여성의 기본 단체인 상호부조회에는 물론, 자녀들을 가르치는 초등협회, 복음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활동, 사회 단체인 상향회에 소속되어 봉사하고 있읍니다. 이외에도 그들은 여러 분야에서 숙련과 헌신으로 봉사하고 있읍니다.

며칠 전 몇몇 사람과 사업에 관하여 의논하고 난 자리에서 우리는 극히 시적인 것에 대해 대화하게 되었읍니다. 한 사람이 "네 아내는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이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내 아내가 가장 최고입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읍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훌륭한 어머니요, 주부요, 높은 이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가족을 올바르게 이끌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아내를 가진 것이 정말 큰 축복이 아니겠읍니까?"

남편의 감사와 사랑을 받음으로써 느끼게 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여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읍니까? 세상의 어떠한 갈채나 영광도 그녀의 가장 가깝고 사랑스런 사람의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과 하나님의 인정 앞에서는 극히 미약할 뿐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밝히셨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위치, 의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셨읍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진 자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지닌 자며, 주님 안에서는 여자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읍니다. (고전 11 : 7, 11 참조) 여러분은 하나님의 협조자가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성의 가장 커다란 특권이요, 축복이란, 곧 하나님과 협조자가 되어 그의 영을 세상에 오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과학적인 논쟁과 선동으로 여성을 유혹하여, 아내와 어머니와 주부로서의 여성 본분을 저버리게 한다는 사실에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 해방이니 여성 독립이니, 성 해방이니, 산아 제한이니, 유산이니 하는 여성의 본분을 저해하려는 간계한 선동 구호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과 가족을 파괴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효과적인 도구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호색적인 기사로 가득 차 있고 여성을 성의 상징으로 격하시켜 다루고 있는 잡지 등이 있읍니다. 단정치 못한 의복, 마약, 알코올 등은 도덕과 정절을 위협하고 생명까지도 빼앗는 무서운 도구입니다. 현대의 기계 문명으로 인하여 신속화된 교통 통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양을 전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막대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도색 잡지, 마약, 알코올 등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도덕의 가치를 파괴하며 인간의 정신과 생각을 저속하게 만들어 결국 악마의 손아귀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 달린 오크스는 최초의 브리감 영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법적인 성 관계를 다룬 간행물이나 영화가 너무나 많이 널려 있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도색 문학이나 외설 소설은 불결하며 오염된 음식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육체는 신체내에 들어온 해로운 음식물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나타내지만, 우리의 두뇌는 악한 것을 토해 내지 못합니다. 일단 두뇌에 기록이 되면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어 때때로 상기시켜 주며, 그릇된 영상을 부각시켜 주고, 인생의 건전한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멀리 끌어냅니다. 우리의 어린 딸을 이러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소녀는 내일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부터 그 역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소녀들이 가정에서 미덕에 관한 사항을 배우지 않아 도덕적으로 약해진다면 또한 그들의 자녀가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법에 따라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양육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할 수 있겠읍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

고 있는 끈을 강하게 하고, 가정을 강화하며, 우리 자신의 모범적인 생활을 보임으로써 자녀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며, 사실 그 길만이 이 세상과 다음에 올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자매로서, 애인으로서, 또는 좋은 이웃으로서 여성이 해야 할 모든 책임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책임은 실로 많은 여성이 가정 밖에서 애써 찾으려고 하는 여성의 능력, 취미, 창의력, 헌신, 정력, 기술 등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상의 역할을 맡는 과정에서 여성이 미치는 좋은 영향은 그 정도를 측량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의 가장 중요한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읍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은 우선 하나님의 영의 자녀를 세상에 데려오는 일을 돕는 하나님의 협조자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런 사실입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명예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이 명예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즉,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행하여야 할 일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 가르침대로 생활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생의 목적과 왜 이곳에 왔는지, 또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안다면, 그들은 의를 선택하여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것이며 항상 곁에 있어 파괴를 노리는 사탄의 유혹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자기의 일거 일동, 말 한마디, 태도, 심지어는 외모, 옷입는 법까지도 자녀에게 영향을 주며,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가 장차 이룩할 삶의 방향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것을 결정하는 태도와 신념은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어머니란 전능자의 손에 들린 움직이는 도구요, 모든 남성에게 열의를 더해 주는 기계이며, 지상의 모든 남성의 생애와 국가의 운명을 가름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모든 나라의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다투거나 싸우지 말도록 가르친다면 그들 자녀들은 커서도 싸우는 일에 가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9페이지)

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그분이 뜻하던 바였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브를 주신 것입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몸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으며,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창 2 : 24)훌륭한 남자 뒤에는 훌륭한 여성이 있다는 말이 있읍니다. 나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과 관찰로 미루어 알 수 있읍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고용인을 택할 때 또는 사원의 승진을 심사할 때, 그들이 어떤 부인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남자에게 새로운 신권의 직분을 주려고 할 때, 항상 부인의 합당성과, 부인이 남편을 잘 보조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를 놓고 토론합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남자에게 큰 힘과 지주가 됩니다. 때때로 그들은 여러분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남자에게는 그의 어머니나, 아내나, 애인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격려와 희망과 힘이 되는 것은 없읍니다. 남자는 그러한 사랑과 확신을 얻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휴 비 브라운 장로님은 상호부조회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을 연약하다고 말합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마 연약할지 모르나 영적, 도덕적, 종교적,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어떤 남자가 참으로 복음에 귀의한 여성과 비교될 수 있겠읍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헌신적이며, 오래 참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며 때로는 선, 도덕, 신앙적인 면에서 남성보다 우월하기까지 합니다."(상호부조회 대회, 1965년 9월 29일)

여성은 남자 형제에게나 애인에게 미치는 자기의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여러분은 그들로 하여금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인기보다는 존경이 앞섭니다. 며칠 전 나는 월남에 수용되어 있는 미국인 전쟁 포로 두 명의 대화를 읽었읍니다. 한 사람이 "이젠 전쟁, 폭탄, 폭파, 포로 수용소 같은 데에 진절머리가 났읍니다. 사람도 진절머리가 났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나도 동감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읍니다. "그러나 고향에는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소녀가 있읍니다. 그녀는 나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모든 고초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모든 어머니, 딸, 여성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영향력이 우리의 생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탄과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훌륭하고 깨끗한 삶을 영위하겠다는 결의, 욕망, 용기, 힘을 가져야 합니다. 소녀 여러분, 역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 청순한 청년을 맞기에 합당한 덕성을 쌓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집에 함께 들어가 영원한 결혼의 신성한 약속으로 인봉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그의 영의 자녀를 주실 수 있는 가정을 마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이 보여 주는 행동이 곧 행복과 영원한 진보에 이르는 길임을 알고 안전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러한 특권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자녀에게 그러한 것을 줄 수 있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지구가 창조된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내려와 육신을 입고 둘째 지체를 지키면서 구원과 승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는 데 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의 목적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부모의 지상 목적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을 돕는 일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협조하는 것 이상으로 큰 영광이 있을 수 없읍니다. 훌륭한 자녀를 기르기에 합당하고 현명한 어머니가 됨으로써 인류에게 주는 지대한 공헌, 만족감, 기쁨, 이러한 것을 여성은 다른 어느 직장에서도 얻을 수 없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서 우리의 맡은 일을 잘 수행할 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읍니다.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올바르게 출생하여 자라고 교육받은 건전한 어린이 한 세대만 있다면 정치상의 수많은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보다 건강하고 정력이 넘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인용함. 대회 보고, 1931년 4월, 79—80페이지)

말일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계셔 우리가 인간의 자녀에게 필요한 계시와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그의 본질, 특성을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읍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계획이 주어졌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와 내세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하여 끊임없는 지시를 받고 있읍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복지와 영적인 복지를 위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조직이 많이 있읍니다.

교회가 제정한 훌륭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는 가정의 밤으로서, 일 주일에 한 번 가족이 모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성도가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한 자리에 모여, 교회에서 특별히 마련하여 각 가정에 배부한 교재를 가지고 아버지를 가장으로 하여 가족의 영적 또는 세상적인 문제에 관하여 토론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나는 기쁨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 모임을 정규적으로 합당하게 가질 때, 이것이 가정 생활에 주는 영향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많은 가정에서 나온 간증으로 증명됩니다. 나는 모든 가족이 이 프로그램에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따르면 여러분은 단합과 사랑과 헌신의 축복을 크게 받을 것이며 그러한 축복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매일 드리는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가 중요하듯이 가정의 밤에서의 가족 기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이 교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신권을 성실히 이행하며, 아내가 남편을 모든 면에서 협조하고, 사랑과 조화가 꽃피며,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데리고 갈 자녀를 의롭게 키우는 가정, 이러한 가정보다 더 행복한 상태를 나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상태는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한 꿈을 누리고 있는 가족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 있읍니다. 그와 같은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는 자녀는 얼마나 행복한 자녀이며, 또한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읍니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읍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하여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탄은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읍니다. 가정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사회의 성쇠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사탄은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고 또 자녀에게도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사탄을 몰아 낼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유혹을 이길 수 있읍니다.

자매 여러분, 어머니의 사명을 잘 수행하려면 여러분은 훌륭한 교육을 받아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며, 성스러운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와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영이 도와 주실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또한 여성이 교회의 보조 조직이나 사회 단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과 자녀가 우선이며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어머니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복지와 행동 모두를 염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읍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한 어린이가 고아원이나 탁아소 등 어머니의 사랑이 없는 곳에서 성장한 어린이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은 많은 실험과 논문에서 밝혀진 바 있읍니다.

아버지도 역시 그들의 사명과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어린이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철이 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 문제 해결을 위하여 토론하고자 하거나 조언 또는 지침을 얻고자 하는 아이의 말에 귀기울여 들어주는 일 등 자녀에 관한 모든 의무를 어머니와 함께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올바른 대화를 나누며 훌륭한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남편, 아버지, 아들, 형제되시는 여러분에게 나는 우리의 아내, 어머니, 딸, 자매에게 가치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들에게 최대의 존경과 사랑을 보여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에게 존경을 보이지 않거나, 여성의 품격을 낮추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남자의 성품과 인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읍니다. 어떠한 남편이나 아버지라도 그의 아내를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행위는 비기독교적인 행위이며 부당한 행위이며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가졌던 복합 지역 대회에서 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업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남편되시는 형제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긴밀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읍니다…여러분이 가정을 단합시키는 끈을 튼튼하게 하고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가정은 자녀들이 오늘날처럼 험난한 세계에서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며, 그곳에는 항상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이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편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명, 즉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며,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레 19:18 참조)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치라는 계명을 지킨다면, 그들의 기쁨은 커질 것이고, 그들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에게서 얻는 즐거움은 비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이러한 생을 거부한 사람은 그 축복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뒷받침해 줌으로써,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며, 이들 자녀도 역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다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가족이 하나님의 면전에 다시 되돌아가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찌어다"(마 25 : 21)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가족에게 이것은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과 특권을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순 종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나는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 설 때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사탄의 길을 좌절시키는 생활을 하도록 선택되고 임명되고 성별되어 권능을 부여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늘 겸손해집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는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이 많이 참석했읍니다.

내 손자 하나가 어떤 것들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건 요원한 일인 것 같아요." 나는 우리가 신권의 의무를 논할 때 특히 나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청소년들이 죽음이란 그들에게 오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여 신권의 의무는 먼 훗날에 이행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늘은 자신들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청소년들이 오늘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권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말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도록 선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으며 여러분은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주님과 약속을 맺었읍니다. 여러분에게는 또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읍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교리와 성약 84 : 33—34, 38)

주님께서 신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을 상기하십시오.

"또 나는 너희에게 계명 하나를 주어 너희 스스로 조심하게 하노니, 곧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84 : 43—44)

니파이이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 데 지금보다 여러분의 힘이 더 필요했던 적은 없었읍니다. 니파이는 오늘날의 상태와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보라 그날에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이르기를,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 (니파이이서 28 : 20—21)

형제 여러분, 방금 인용한 말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바를 행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뒤에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겠읍니다.

부름받고 성별된 직분에서 그 일을 충실히 해내려면 우리는 신권을 존중하고 부름을 영화롭게 하며 리 대관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수양과 율법에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하늘의 율법에서 으뜸가는 율법이며 내가 특히 강조하여 말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율법이 현세에서의 우리의 행복과 복리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에도 절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사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할 것이며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 : 15) 그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 하나를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무슨 일 하나 자유니
영원하신 진리 있어
인간을 강압하잖네
"지혜와 사랑 빛으로
바르게 훈계하시고
친절과 선하심으로
주 결코 억압하잖네
"자유와 이성 있어서
만물의 영장 되나니
만일에 이성 없다면
금수와 다를 바 없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읍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의 결과를 위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우리의 복리와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할 때 우리는, 때로 그 결과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읍니다만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 수양은 성공에서 기초가 됩니다. 인간에게는 생각하고 숙고하고 이해하고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위하여 희생이 가치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교회에서는, 그를 아는 사람들로부터의 비웃음과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읍니다. 여러분에게는 부름과 신권과 복음이 주어져 있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모범입니다. 훌륭한 모범이 되십시오.

성공의 척도는 결정과 수양과 신임에 달렸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 : 21)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2 : 10)

자연 법칙은 불변의 것이며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지 때문에 혹은 일부러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댓다면 화상을 입을 것이며 전기줄을 잡았다면 감전의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가령 누구든 인력을 무시하고 높은 건물이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면 사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 달, 별을 생각해 보고 일식과 월식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과학자는 그것이 일어날 정확한 시각과 그 현상을 잘 볼 수 있는 위치를 말해 줄 수 있읍니다. 만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이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겠읍니까? 태양이 몇 시간만 늦게 뜬다고 해도 이 얼마나 불편스런 일이겠읍니까! 태양이 하루쯤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어죽을 것이며 지상에는 거의 살아남을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스카이랩(공중 실험소)이나 아폴로를 계획한 사람들은 결코 그러한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이러한 것을 연구해 낼 수 없었을 것이며 오직 그러한 자연 법칙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내려 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러한 상황 아래서 살아가야 할 방법과 자연 법칙이 명하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것을 연구해 냈을 것입니다. 동물을 훈련시키면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사냥개든 말이든 훈련을 시켜 놓으면 그 동물들은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서커스단에 있는 곡예사들도 그들이 보이고 싶은 묘기를 익히기 위해 법칙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필요한 만큼의 연습을 합니다.

이것은 생활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시킨 동물이 시키는 그대로 잘하면 쓰다듬어 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벌을 내립니다. 만일 또 시키는 대로 하지 않거나 훈련을 시킬 수 없다면 없애 버립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에게 올바른 것과 우리가 지켜야 할 표준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치기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 되겠읍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얼마나 참된 진리입니까!

신권 소유자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경전과 예언자가 계시다는 사실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며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신권 정원회와 지도자가 있읍니다.

우리가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지침이 되도록 복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한 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올바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어떤 율법이 왜 주어지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지켰읍니다.

아담은 왜 희생을 드리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모세서 5 : 6) 아담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족했읍니다. 여러분이 노아라고 가정하고 주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다고 해봅시다. 비도 오지 않았고 비가 내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방주를 지으라는 명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지으려 했읍니다. 그러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도 많았으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읍니다. 그들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명을 받았을 때 가족은 그것을 반대했읍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의심하기도 했읍니다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랐으며 그 말씀에 순종했읍니다. 주님께서는 니파이에게 바다를 건너갈 배를 지으라고 했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우리는 그에게 순종했읍니다. 안수는 왜 받습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예, 나는 이 교회의 회원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 족하지 않겠읍니까?

지혜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았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읍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계명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나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계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니코틴에 관한 기사가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지혜의 말씀이 주어진 지 140년이 지난 뒤에 쓰어 진 것입니다. 기사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읍니다.

"니코틴은 폐와 심장과 뇌의 기능을 해칩니다. 담배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수는 장티푸스와 결핵과 황열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보다 많습니다."

그 기사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16세기 초기 이후로 서부 유럽에서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의 수는 1년 동안 미국에서 담배로 죽은 사람의 수보다 적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고 계셨읍니까? 사람들은 주어지는 계명을 이해하든 못하든 귀기울여 듣고 지켜야 하지 않겠읍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신권 소유자이며 이 교회와 왕국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니코틴에 관한 것은 기사에서는 남부의 어느 도시에 사는 유명한 변호사가 담배로 인해 심장병을 일으켜 죽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읍니다. 또한 어떤 지방 대학 학장이 흡연으로 인해 생긴 기종의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자살했다는 기사도 있었읍니다.

그 기사는 계속해서 니코틴과 담배의 사용은 자주 마약과 술을 병용케 한다고 말해 줍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천 수만의 사람이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를 통해 주어지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너희는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흩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 (교리와 성약 21 : 4—6)

형제 여러분, 이 약속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교회 회원과 신권 소유자는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실 때 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리라."(교리와 성약 59 : 9—10)

우리는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주를 위해 일 주일 가운데 하루를 봉사할 수 있어야겠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를 경배하고 그의 희생에 감사를 드리라고 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읍니다. 이 계명은 신권을 소유한 사람이 자주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해야겠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이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형제님, 이 교회는 형제님께 아무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은 생활 방법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렇지만 말도 못하게 힘듭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가서 담배를 사서 피웁시다. 은행을 털러 갑시다. 오늘 저녁에 술좌석을 벌이는 친구를 따라 갑시다." 하고 내가 말했읍니다.

"태너 부대관장님, 그렇게 비꼬지 마십시오." 하고 그 사람이 다시 말했읍니다.

"형제께서 안 그러신다면 나도 그만 두죠." 잠시 후에 나는 다시 이렇게 말했읍니다.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형제님께서 아들에게 지키지 말라고 하고 싶은 계명이 있거든 하나만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말았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십분의 일을 바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에드몬튼 지부를 관리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저는 금년에 완전한 십일조를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 수리, 증축 등 일이 많군요." 나는 그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일조를 정직히 바치면 우리가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말해 주었읍니다. 그래도 그는, "아무래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입원을 하게 되어 며칠간의 엄청난 입원비를 지불해야 했읍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는 그가 완전한 십일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그는 완전한 십일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축복을 계산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십일조를 인색하게 계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와 같은 인색한 방법으로 축복을 계산하신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세상에 모범이 되고 빛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닌 신권과 그 부름에 감사합시다. 우리에게는 신권을 소유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할 특권과 책임이 있읍니다. 우리는 교훈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며 그 행동이야말로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생활함으로써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의 기쁨을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고 주님께서 대변자로 쓰시는 예언자를 따를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1974년 4월 대회말씀

—제144 연차 대회 보고—

위기의 시대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최근 몇 달 동안의 연료 및 에너지 위기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또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읍니다. 저희는 그로 말미암아 다소 곤란을 겪기도 했었읍니다만 다행히도 지금은 그 위기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누그러지지 않으며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항상 우리의 주의를 요하는 위기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선 마음의 눈을 뜨고 다음과 같이 교회 건물에 새로이 마련된 표지판을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연료가 충분히 있읍니다. 배급표도 필요없으며 도장도 필요없고 제한량도 없읍니다. 어서 오셔서 준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선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대문에 적어 둔 어느 가정을 그려 보십시오. "이웃을 환영합니다. 영적인 기름이 충분합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또 여러분께선 머리 속으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나의 컵은 넘쳐 흐르고 있읍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을 가진 어떤 사람을 그려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우리는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우리는 한밤중이 곧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행함을 통하여서만 대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영적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실행을 통하여서만 극복될 수 있읍니다, 실행을 늦추는 것은 인간의 발전에 치명적인 화근이 됩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름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 기름은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한 방울씩 모아집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훌륭한 비유를 주셨읍니다. 그것은 열 처녀의 비유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인간에게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읍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쌔

"미련한 자들이 슬기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마태복음 25 : 1—13)

여기서 열 처녀라 함은 세상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 결혼 잔치에 초대되었읍니다. 그들 모두는 그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잘 알고 있었읍니다. 그들은 이교도도 아니었고 이방인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멸망되고 버림받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들은 구원과 승영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였읍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그들 생활의 한 가운데에 두지 않았을 뿐이었읍니다. 그들은 그 길을 알고 있었지만 어리석게도 신랑이 오는 것을 예비하지 않았읍니다. 어리석은 자까지도 신랑이 왔을 때 등잔을 손질은 했었지만 그들의 기름은 이미 다 닳아 버렸읍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에겐 등잔을 다시 채워 줄 기름이 없었읍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늘 준비하라고 경고받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들 중의 수천 명이 같은 처지에 처해 있읍니다. 인내와 확신이 부족한 나머지 준비하는 데 게을리하고 있읍니다. 어떤이들은 한밤중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곤하게 자고 있읍니다. 우리 각자의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의무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기름은 결코 나눠질 수 없읍니다. 현명한 자들이 진리의 순간에 어리석은 자에게 기름을 거절했던 것은 결코 그들이 불친절하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앞길을 제시해 주고 어두움을 밝혀 주는 그러한 기름은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비유에서는 기름을 가게에서 구입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기름은 선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방울씩 모아집니다.

아픈 사람을 방문해서 얻은 축복을 어떻게 나눠 줄 수 있읍니까? 미망인이나 고아들을 보살피는 가운데 얻어진 축복을 어떻게 나눠 줄 수 있읍니까? 개인적인 간증을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읍니까? 모임에 참석해서 얻은 축복을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읍니까? 십일조의 법을 성실히 지켜서 얻은 순종의 교훈을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읍니까? 분명, 이런 종류의 기름은 혼자의 힘으로 모아야만 합니다. 미루지 맙시다. 미루는 사람에게 한밤중은 그렇게 멀리 있지도, 그렇다고 가까이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보라 너희들의 시험의 날은 지났도다. 너희가 너희의 구원의 날을 미루어 마침내 영원토록 돌이키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하였고, 너희의 멸망은 분명하게 되었도다."(힐 13 : 38)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유의하고 선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방울씩 계속 기름을 모으는 여러분에게는 크신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연료가 충분히 있읍니다. 배급표도 필요없으며 도장도 필요없고 제한량도 없읍니다. 어서 오셔서 준비 하십시오."라고 씌어진 표지판이 붙어 있는 여러분 마음속의 교회 건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의심할 여지없이 여러분 모두가 그린 교회 건물의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매주 나가시는 여러분 각자의 와드나 지부 건물을 그리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건물은 웰링턴에 있는 뉴질랜드 스테이크의 매스터튼 와드 건물이었읍니다. 지난 2월 우리는 이 선택된 하나님의 집을 헌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읍니다. 저는 그렇게 흠없이 깨끗한 건물을 전에 본 적이 없었읍니다. 그 건물은 새로와 보였고, 새맛을 풍겼으며, 또한 그 건물은 매우 아름다왔읍니다. 그 건물은 하나님께 헌납하기에 합당해 보였읍니다. 그 건물은 우리 형제 자매님의 손으로 지어졌읍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 의하여 지불되었읍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워하는 손에 의해서 마지막 손질이 이루어졌읍니다. 그 건물의 기초는 튼튼했었고 주위는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읍니다. 비회원인 그 시의 시장의 말을 빌리면 그 건물은 행복한 사람들에 의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삼 주일 전에만 해도 그 건물은 헌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읍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그 와드의 훌륭한 감독과 그 회원들—가난했지만 굳게 뭉친—을 잘 알지 못했읍니다. 밤에 아기들이 잠이 들면 아버지와 엄마는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에 왁스를 하며 일을 계속했읍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어린 소년들은 잔디를 푸르게 하고 꽃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물을 길어 날랐읍니다. 뉴질랜드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은 완성되었고 그 건물은 밝게 빛났읍니다. 이들이 바로 희생과 준비와 협동과 신앙과 봉사를 통해서 한 번에 한 방울씩 그들의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와드 회원 모두가 한밤중을 예비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서로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라게 되며, 이리하여 이들은 승리로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와드나 스테이크 건물에는 영적인 연료가 충분히 있읍니다. 오셔서 준비하십시오. 와드 회원끼리 단결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단순히 주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송두리채 주십시오. 참여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자입니다. 전세계적인 연료 에너지 위기는 연료를 저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읍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위기는 행하고 준비함으로써 극복되어질 수 있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더 많이 주면 줄수록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저는 또한 지금 여러분이나 저의 친구인 우리 이웃의 어떤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그 가정은 "이웃을 환영합니다. 영적인 기름이 충분히 있읍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라는 인사를 하는 특별한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 가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디에 있었든 그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그의 집은 기도의 집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권능이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훌륭한 신앙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킴볼 대관장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저희는 최근에 그가 기도할 때면 꼭 기도는 그의 생활에 새로운 차원을 갖게 해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기도는 배우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강렬한 호소입니다. 기도는 겸손한 간구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연료의 근원이 됩니다. 저희는 킴볼 대관장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감화를 받을 수 있읍니다.

우리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고 추측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읍니다.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등잔에 기름을 더하는 것입니다. 금식, 가족기도, 가정의 밤, 육욕의 자제, 복음전도, 경전 공부 등 희생과 순종의 행동은 모두 우리의 창고에 기름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모으는 것입니다. 친절한 행동, 헌금과 십일조의 헌납, 순결한 생각과 행동, 영원한 성약으로서의 결혼, 이 모든 것도 역시 한밤중에 우리의 등잔을 다시 채워 줄 기름이 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신앙은 기적에 앞선다, 데져렛 출판사, 1972년, 256페이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겸손한 기도에 귀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값있고 간절한 기도는 그분께서 귀기울이는 경건하고 고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기도의 샘으로 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의 등잔에 기름을 붓고 있는 자가 아니겠읍니까? 또한 기도는 뜻깊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등잔에 기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한번 더, 하나님 왕국의 훌륭한 빛을 발하는 듯한 우리의 이웃에 대해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들과 함께 함은 큰 환희입니다. 하나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행한 그들의 열성과 준비에 대해 같이 느끼는 것만도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저는 지금 2년 전에 개종했고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적이 있는 애쉬튼이라는 스물 두 살의 아름다운 아가씨에 대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녀는 그녀가 최근에 발견한 가장 값진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읍니다. 그녀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이웃, 특별히 그녀의 부모와 가족과 함께 참된 복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급한 문제였읍니다. 그녀는 스스로 준비하고 행하므로 등잔에 기름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다고 의심없이 믿습니다. 진실로 그녀의 컵은 축복된 지혜와 그녀가 갖고 있는 확신으로 넘쳐 흐르고 있었읍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상냥하고도 진실하게 잠깐 동안이라도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러 오실 수 없겠느냐고 물어 왔을 때, 우리는 곧 가장 급한 문제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 가정엔 훌륭한 우정이 있었읍니다. 그 가정의 울안에 평화와 단란함과 사랑이 있었읍니다. 그녀는 "이렇게 모험적이고 보람있는 나의 스물 두 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받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에 대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절 이렇게 축복하셔서 제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교회와 복음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게 해주었고 특별히 선한 생활을 하고 받은 많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었어요."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의 선택된 딸이 있읍니다. 그 진리는 앨마서 34장 32절에 "보라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우리는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우리는 한밤중이 곧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 보라, 그 날이 속히 임할 것임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교성 87 : 8)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한 방울씩, 생각 하나하나에,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의 기름을 잘 모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표지판은 우리가 보기만 하면 읽을 수 있읍니다. "영적인 연료가 충분히 있읍니다. 배급표도 필요없으며 도장도 필요없고 제한량도 없읍니다. 오셔서 준비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잘 준비하고 훌륭하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이웃을 환영합니다. 영적인 연료가 충분히 있읍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라고 안내할 수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생활을 매일매일 계속하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영적인 연료를 모아간다면 여러분의 등잔은 영적인 연료로 넘쳐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이곳이 바로 지상의 그의 왕국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선교 사업—중요한 책임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교회의 첫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음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일에 여러분 앞에 섰읍니다. 킴볼 대관장님, 나는 태버나클 합창단의 아름다운 자매님들과 더불어 노래가 말해 주듯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대관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새로운 십이사도로 부름받은 엘 톰 페리 장로님께 말씀드립니다. 형제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충만하여 안락하고 행복한 단체 중의 하나에 가입했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똑같은 마음으로 십이사도 보조가 되신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장로와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지도자인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약해지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읍니다. 우리는 근 55년간을 사귀어 온 사이로 나는 전세에서부터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세상을 떠나지 않아야 할 때에 세상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받았읍니다. 리 대관장님이 지상에서 맡은 봉사는 이제 끝났읍니다. 그는 장막의 양쪽에서 진행되는 주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보다 중요한 사업을 맡기 위해 부름을 받고 떠났읍니다.

그는 깊은 영적인 통찰력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지닌 분이었읍니다. 그가 지닌 가장 원대한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구하는 데 있었읍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교리와 성약 18 : 10)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승영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리 대관장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이 위대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나는 그가 시온의 청소년과 도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전세계에서 위대한 진리의 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신 영감에 대해서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과 나란히 앉아 있었읍니다. 우리는 함께 십이사도 정원회에 들어왔읍니다. 나는 이분이 위대한 분임을 압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를 존경합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분이며, 하나님의 겸손하고 영감받은 예언자입니다. 내 온갖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그를 지지합니다. 그분과 함께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체를 개의치 않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과 그의 두 보좌가 리 대관장님의 지도 아래 주역을 맡아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함을 금할 길 없읍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을 길러 주고 부모나 가족이나 각 개인이 당면하는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것보다 더 훌륭한 프로그램은 없다고 하겠읍니다. 킴볼 대관장님의 영감에 찬 지도로 우리는 계속 그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고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인 몰몬이즘의 메시지는 이미 140여 년 동안 전세계에 전파되어 왔읍니다.

1830년에 사무엘 해리슨 스미스가 회복된 교회의 첫 공식 선교사로 여행을 떠나 뉴욕주의 시골길을 걸었읍니다. 그는 그의 형인 예언자 요셉으로부터 성임되었읍니다. 이 위대한 선교사는 그가 등에 짊어지고 간 새롭고도 이상한 책을 한 권도 팔지 못한 채 백리 길이나 걸었읍니다. 밤이 되어 피로하고 배가 고파 잠자리를 구하던 그는 자신의 임무를 여관집 주인에게 간단히 설명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는 쫓겨나고 말았읍니다. "이 거짓말장이 당장 이 집에서 썩 물러나지 못할까! 그 책을 가지고는 단 일 분도 발을 붙이지 못할 줄 알아!" 그는 낙심하여 무거운 마음을 안고 여행을 계속하였으며 그 첫날밤을 사과 나무 아래에서 새웠읍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선교 사업은 회복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이처럼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되었읍니다.

그때의 첫 선교사가 혼란한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44년이 지났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사업은 줄기차게 계속되었읍니다. 그것은 특유한 백성의 역사에 극적인 한장을 장식하였읍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보다 더 위대한 용기와 희생과 의무감을 보여 준 예는 없다 하겠읍니다. 남자, 여자,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영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대책도 없이 진흙과 눈을 밟고 늪에 빠지며 복음을 전하러 다녔읍니다. 수많은 가장과 아들들이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자발적으로 온갖 고통과 박해를 무릅쓰고 세계 각처로 떠났읍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몹시 궁핍한 상태에 남게 되었으나 모두들 집을 떠난 선교사를 돕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였읍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집에 남은 가족들은 기쁨과 만족감을 맛볼 수 있었으며 그들이 받은 특별한 축복에 대해 감사하였고, 선교사들도 그 기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한때"라고 술회하였읍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봉사하고 있는 남녀 선교사 20,000명을 포함해서 1830년 이래 지금까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한 선교사의 수는 대략 140,000명에서 150,000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980,000,000일 내지 1,050,000,000일을 바친 셈이며, 이들이 그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벌 수 있는 수입과 생활비 지출을 계산하면 4,200,000,000불 내지 4,500,000,000불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이동할 때 드는 교통비나 행정비, 지역 선교 사업에 드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단체도 의를 전하기 위해서 자의로 그만한 희생을 바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고대와 현대에 두루 적용되는 십일조의 법에 따라 주님의 사업을 위해 수입의 십분지 일을 바치는 부유하지 못한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겠읍니까? 시간, 재산, 안락, 가정의 즐거움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읍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인간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옛날에 성도들이 지닐 수 있었던 모든 은사와 축복을 주시고 그의 교회를 재조직하셨고 거룩한 권능과 함께 성스러운 신권을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불붙는 듯한 확신 때문이 아니겠읍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의 거룩한 뜻과 전능하신 분의 처사에 대한 믿음, 성약의 자녀로서 갖는 책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인간을 발전시키고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의 시대부터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가 있는 오늘날까지 신권이 지상에 있을 때에는 복음의 영원한 원리인 구원의 계획을 전파하는 것이 성도의 큰 책임이 되어 왔읍니다. 선조 아담도 이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읍니다. (모세서 5:12) 노아가 오랜 기간 동안을 선교 사업으로 보냈고 고대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서 8:16—20) 모두가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인간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을 받았으며,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외쳤읍니다. 구세주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9)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의 사명을 밝혀 주셨읍니다.

부활한 모로나이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예언자의 이름이 세상에 좋게 혹은 나쁘게 알려지며, 회복된 복음을 담은 경전이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교성 1:4) 전세상에 전해지리라는 사실이 강조되었읍니다.

교회가 조직되기 일 년 전에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바야흐로 기이한 일이 인간의 자녀에게 나타나려 하는도다." "밭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교성 4:1, 4)라고 밝혀 주셨읍니다. 초기의 성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주어졌읍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교성 4:2)

초기의 선교사들에게는 큰 약속이 주어졌읍니다. 그들은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크며",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네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성 18:10, 15)라는 말씀을 받았읍니다.

1830년 4월 6일 교회가 정식으로 조직되기 이전에도 이외에 여러 가지 영

광스러운 약속이 주어졌읍니다.

교회가 조직된 후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으며, 합당한 형제들은 신권의 직분에 성임되었고, 회개를 외치고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성별되었읍니다. 그 후에 받은 많은 계시에 서 더 큰 약속이 주어졌으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회복된 교회에 주어진 성스러운 책임에 관해 언급하고 있읍니다. 그 해 가을에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팔 소리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구부러지고 삐뚤린 세대를 향하여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나니,

"보라, 밭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열 한 시라. 내가 포도원에 일꾼을 불러들여야 할 마지막 시각이니라."(교리와 성약 33 : 2—3)

주님께서는 이 겸손한 종들에게 그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고"(교성 34 : 6) 있다고 설명하셨읍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생활하는 한 성신의 권세에 감동된 말을 하게 되며, 그들의 말이 주의 뜻이 되며, 백성들에게 경전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읍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을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를 보내노니… 마음에 피곤을 느끼지 않겠고 어두워지지도 아니… 머리털 한 오라기도 아무도 몰래 땅에 떨어지지 아니"(교성 84 : 79—80)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과 새로운 복음의 경륜 시대가 막을 열었다는 개인적인 간증과 함께 적은 수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무런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힘차게,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진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읍니까? 이외에도 지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증거로 복음을 인간에게 전해야 할 마지막 때이며 세상의 종말 곧 악의 종말이 가까운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읍니다. 오늘날 우리들처럼 그들도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세상 사람에게 경고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듯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읍니다.

"이는 황폐하게 하는 벌이 땅의 주민에게 임할 것이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때때로 벌을 쏟아 부으리니, 드디어 땅은 공허하게 되며 그 주민은 내가 올 때의 밝음으로 인하여 소멸되며 완전히 멸망당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백성에게 고하였던 것 같이 이 일을 네게 이르노니, 지금까지 나의 말이 증명되어 온 것 같이 이번에도 증명되리라." (교리와 성약 5 : 19—20)

1831년 연말에 가서는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 내려 주신 계시를 책으로 출판하는 일이 논의되었읍니다. 이때까지 많은 계시를 받았으며, 교회는 박해와 추방의 시달림 속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읍니다. 장로들의 대회에서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을 통하여 그의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만민에게 미쳐 한 사람도 피할 자가 없을…" (교성 1 : 2) 위대한 계시를 나타내 주셨읍니다. 여기서 전해진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만큼 폭넓으며 강력한 힘과 명확성을 지닌 메시지는 없다고 하겠읍니다. 교리와 성약의 제 1편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아는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전세계에 선교사를 파견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교성 1 : 4)는 주님의 말씀으로도 알 수 있듯이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중요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위대한 약속을 주셨읍니다. "저들이 나아갈 것이매 막을 자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는 나 주가 저들에게 명하였음이니라."(교성 1 : 5) 계시는 또한 이 모든 것을 출판하여 세상 주민들이 보도록 하였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교성 1 : 6 참조) 주님께서는 그의 음성이 지상의 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교성 1 : 17)고 하셨읍니다. 과거의 경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언자를 통하여 도피의 방법도 알려 주셨읍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나 주는 이 일을 기꺼이 모든 인간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는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교성 1 : 34-35)라고 강조하셨읍니다.

마지막 훈계로서 그는 그의 모든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밝혀 준 "계명을 상고"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는 참되고 신실하며 그 가운데 있는 예언과 약속은 모두 성취될 것"(교성 1 : 37)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읍니다. 그는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성 1 : 38)고 하셨읍니다. 지금까지 인용한 위대한 계시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읍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국민에게 나의 교회의 장로들을 보내며 바다의 여러 섬에 보내라. 외국으로 보내라. 모든 국민에게 찾아가라…"(교성 133 : 8)

그러므로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가지고 말일성도로서 교회에 주어진 이처럼 중요한 책임을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인간의 구원과 승영의 위대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재력을 바쳐 주님께서 지상에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하는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첫째가는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신은 각 시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 사업을 특징지어 주었읍니다. 이것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성실한 말일성도가 있는 곳이면 그곳에서 지상의 대업을 위해 헌신하는 희생 정신을 볼 수 있읍니다.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교회의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읍니다. "우리나 교회가 어떠한 위치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업에 대한 명령에 지장을 주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대회 보고, 1942년 4월, 91페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고 발전시키며 의를 전파하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킴볼 대관장님께서도 지난 목요일 영감에 찬 말씀으로 이 책임의 중요성을 지역 대표에게 강조하셨읍니다. 우리는 즐거이 이 목표를 받아들였으며 주님의 계속적인 지지의 힘을 간구하고 있읍니다.

이 위대한 사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주님의 지시로 운영되는 성스러운 사업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해의 왕국의 결혼을 통해 약속된 영원한 사랑과 가족 관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주님의 사업을 위해 나와 함께 일본 전역을 두루 여행한 바 있는 나의 친구 칸 와다나베 형제가 드린 개회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브리감 영 대학 학생 신권 소유자로 구성된 이 합창단이 들려준 노래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그들의 노래에는 마음에 주는 어떤 감동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읍니다. 그들이 내 뒤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교회에 있는 모든 젊은이에게 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랑의 나래를 펼 봄철이 돌아왔읍니다. 6월의 결혼을 앞두고 깊은 생각을 할 때가 바로 4월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두 가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번째 이야기는 얼마 전 내가 새로 건축된 워싱턴 신전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많은 기자들이 모였으며, 그들은 다른 교회 건물과는 그 목적과 뜻에서 다르고,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된 점에서도 다른 이 신비로운 건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었읍니다.

나는 그 건물이 주님의 성전으로 헌납된 이후에는 합당한 위치에 있는 교회 회원만 입장이 허용되나 헌납 직전 1개월 내지 6주간은 내부의 모든 구조가 방문자에게 공개되며, 세상에 개방되고, 헌납이 끝난 후부터는 매우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서 깨끗한 생활을 하고, 교회의 표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만이 신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읍니다.

우리는 신전을 짓는 목적을 이야기하였읍니다. 나는 그러한 목적을 설명하였고, 특히 모든 선남 선녀의 관심의 초점인 영원한 결혼에 관해서 강조하였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1958년 런던 신전의 예비 헌납 때의 일을 회고하였읍니다.

그때에도 수많은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신전에 입장하기 위해서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었읍니다. 교통을 정리하도록 배치된 경찰은 영국인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그처럼 긴 열을 서서 기다린 예는 전에 없던 일이라고 말했읍니다.

건물 내부를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 사항이 있다면 내부 순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질문을 받기로 되어 있었읍니다. 저녁에 나는 질문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선교사들 틈에 가담했읍니다. 젊은 한 쌍의 부부가 신전 앞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기에 나는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도와드릴 것이 없겠느냐고 물었읍니다. 젊은 여인은 이 말을 듣자 반갑다는 듯이 "물론 있지요" 라고 대답하며 이렇게 물었읍니다. "안내자가 어느 방에서 설명한 영원을 위한 결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군요." 우리는 문 옆에 있는 나무 벤치에 앉았읍니다. 손에 결혼 반지를 낀 것으로 보아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았고, 남편의 손을 꼭잡고 있는 모습이 서로의 사랑을 말해 주고 있었읍니다.

"질문을 들어 보니 두 분께서는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신 것 같군요." 하고 나는 물었읍니다.

"네, 3개월이 지났어요." 하고 그녀가 대답하였읍니다.

"두 분께서는 목사님이 성혼을 선언하셨을 때 결별을 아울러 선포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며 그녀는 성급하게 되물었읍니다.

"삶이 영원하다고 믿으시지요?"

"물론이지요" 하며 그녀는 대답했읍니다. 나는 계속해서 물었읍니다.

"영원한 사랑이 없는 영생을 생각할 수 있읍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영원한 행복을 생각할 수 있읍니까?"

"물론 그럴 수야 없겠죠" 하는 대답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결혼을 선포하실 때 무어라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축복을 기원하였지만 죽음을 넘어서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했읍니다. 사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두 분께서 목사님에게 물어 보시더라도 그는 결혼 관계나 가족 관계가 죽음을 초월해서까지도 지속된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인간 관계인 결혼과 가족 관계의 영속성을 합당한 상황하에서 허락하셨읍니다.

"구세주와 그의 제자들이 뜻깊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선언하였고, 이에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6 : 13-19)

"그 놀라운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에게 이생과 영원까지 미치는 권세인 성신권의 열쇠를 주셨읍니다. 이 권능이 고대에 이것을 지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서 지상에 회복되었읍니다." 나는 계속해서 다음 토요일 신전 헌납이 있은 후부터는 바로 그 성신권의 열쇠가 결혼 의식을 받기 위해 행사된다고 말해 주었읍니다. 그들은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상태로 영원히 결합됩니다.

이것이 내가 영국에서 만난 젊은 부부에게 전한 간증이었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세계 도처에 있는 젊은이에게 전하는 나의 간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세와 영원토록 행복해

지길 바라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식간의 부자 관계에서 보다 더 뜻깊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인간 관계란 있을 수 없읍니다.

며칠 전에 나는 사경을 헤매는 어느 어머니를 병상 옆에서 지켜 보았읍니다. 그녀는 여섯 살난 어린 아이와 네 명의 자녀와 남편을 남겨 둔 채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읍니다. 가슴을 끓을 듯한 슬픔이 앞을 막았읍니다. 그러나 가슴을 메이는 듯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서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아름다운 신앙이 빛을 받을 수 있었으니, 이는 이들이 성신권의 권능을 통하여 주님의 전당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의식으로 모두가 인봉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영원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권능으로 인봉되는 성약입니다.

그러한 권능을 국가가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관할권을 가지는 동안만 지속되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능에 죽음을 초월한 전능하신 분의 은사로 주어진 권능이 더해진다면 그러한 관계는 당사자가 약속을 이행받기에 합당하도록 살아간다면 이생을 초월해서까지도 지속될 것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다음과 같은 가사에 맞추어서 춤을 춘 적이 있읍니다.

사랑이란 장미와 같아
활짝 피었다가는
여름이 가듯
시들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춤곡의 가사에 불과하나, 수세기 동안 사랑을 알게 되고 오늘의 유대가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남녀가 던져 온 질문이었읍니다.

그러한 질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으며, 사랑과 결혼이 주님께서 밝혀 주신 계획 아래서는 여름이 지난 후에 시드는 장미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값진 이 은사는 자기 수양, 미덕,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단계를 거쳐 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나 진리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우러날 때는 가능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읍니다. "결혼의 참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의롭게 결혼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영국까지도 기꺼이 가고자 할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그 축복을 바라는 여성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는 결혼을 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95페이지)

많은 사람이 신전 의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처럼 먼 거리를 여행합니다. 하와이 신전까지 여행하기 위해서 식사까지도 줄여 가며 여비를 준비한 일본 성도들을 보았읍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에서 11,000 킬로나 떨어진 런던 신전에 오기 위해 생활 필수품까지 절약해 여비를 마련한 사람을 만났읍니다. 그들의 두 눈은 반짝거렸으며,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들이 치른 대가 이상의 값진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고 간증하였읍니다.

나는 뉴질랜드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온 한 성인 남자가 들려준 간증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는 개종하기 전에 결혼을 한 사람으로 교회에 들어온 다음 대륙을 넘고 뉴질랜드의 타스만 해를 건너 오클랜드에 내려, 아름다운 와이카타 계곡에 있는 신전을 찾은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간증을 말했읍니다. "우리는 이곳에 올 만큼 여유는 없었읍니다. 재산이라곤 낡은 자동차와 가구와 접시가 전부였읍니다. 나는 가족에게 '갈 수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의 얼굴을 보고는 다시 '가지 않을 수 없지.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다시 차나 가구나 접시를 살 수는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다면 나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도 불쌍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말했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에 얽매여 근시안적으로 살고 있는가! 죽음과 이별이 있듯이 내일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결혼하고 생활하면 우리의 관계는 죽음과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큰 확신과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들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시간과 죽음의 권세를 초월하는 권세가 역사되지 않는 한 하나의 낭만적인 바람으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오래 전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우 이 연단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주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지 혼란의 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그의 전당의 질서 밖에서는 영원히 완전해질 수 있는 결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흉내는 낼수 있으나 그것이 거룩한 권능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읍니다."(복음 교리, 1971—72년도, 멜기세덱 신권반 교재 2권, 1페이지)

끝으로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꾸민 이야기이지만 그 원리만은 사실에서 따온 것입니다. 보름달이 떠오르고 장미가 만발한 때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된 두 남녀가 있었읍니다. 자니라는 남자가 매리라는 여자에게 말했읍니다. "매리, 난 매리를 사랑해. 내 아내가 되어 주고, 자녀를 낳아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그렇지만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건 원치 않아. 좀 살다가는 이별을 하는 거야." 달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지켜 보던 그녀는 "자니, 참으로 훌륭해요. 자니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랑해요. 정말로 저의 남편과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 주세요. 그렇지만 얼마 동안만 살다가 그 다음엔 작별이예요"라고 말했읍니다.

이 대화가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읍니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안에서 영원한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는데도 이들은 죽음으로 영원히 결별되는 관계를 택한 것입니다.

삶이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사랑과 가족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셨읍니다.

여러분께서 결혼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의 부부나 가족 관계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래서 사랑과 유대를 만끽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영원한 관계를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권능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의 권세와 그의 신권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그의 거룩한 전당에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버리지 맙시다.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참여자가 되고, 그의 거룩한 신권의 성별의 권세가 여러분의 관계를

인봉하게 합시다.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축복을 기원하고, 이상의 진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1974년 4월 5일 금요일 아침 모임

마지막 순간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베다니란 작은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어났읍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 가운데 3년간 성역을 베푼 나사렛 예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 정든 고향을 떠나 의연히 예루살렘 성으로 걸음을 옮겼읍니다. 그를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악마로, 또는 유태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고대의 도시에는 많이 있었읍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로, 메시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였읍니다.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든지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아니면서 능력과 권능으로 백성들을 가르친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읍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요 11 : 55-56)

유태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성스러운 기념일인 이 날에 모든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공회의 회원들은 공공연히 예수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읍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위험이 뒤따랐읍니다. 그러나 예수는 거만하고 허례적인 모습으로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유월절의 잔치에 참석하였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으러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왔읍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마 21 : 9)라고 소리쳤읍니다. 마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읍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마태복음 21 : 10-11)

율법을 아는 사람이면 모두 이 일이 바로 예언자들이 오래 전부터 예언했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기다려 온 왕의 개선 입성이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군중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는데 예수는 임금과 같은 당당한 모습으로 말이 없었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받은 이 성으로 다가가면서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을 흘렸읍니다.

"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누가복음 19 : 43-44)

예수는 또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도 알고 있었읍니다. 그는 열매를 맺기 위해 알곡이 죽어야 하는 비유와 아버지가 보내 자기집 포도원으로 갔으나 아버지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유를 들어 이야기했읍니다. 때때로 그가 진 짐이 너무나 무거운 것도 같았읍니다.

그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요 12 : 27)라고 말했읍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는 신념과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의로 앞으로 나아갔읍니다.

그의 육신으로서의 생애가 차차 희미하게 사라져 갈 때,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요 12 : 46) 이와 같은 말로 인하여 그의 적은 그를 대적하여 하나로 연합하였읍니다. 그러나 예수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요 12 : 49)라고 말했읍니다.

간교한 그의 적들은 예수의 말에서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정치와 랍비의 율법에 관해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을 던지곤 하였읍니다. 일단의 바리새인과 헤롯왕이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악의에 찬 질문을 했읍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마태복음 22 : 16—17)

만일 그가 바쳐야 한다고 대답한다면 로마의 압박을 받아 허덕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조상을 배신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반면에 바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 당장에 정치범으로 체포될 순간이었읍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답을 하지 않고 세금을 바칠 때 사용되는 동전을 하나 보여 줄 것을 청했읍니다.

그 동전을 손에 들고 그를 덫에 걸려는 자들에게 물었읍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이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라고 대답했읍니다. 예수님은 이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마 22 : 20—21) 했읍니다. 이는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동전에 새겨져 있으니 이것은 그의 것인즉 그것을 그에게 도로 돌려 주라"는 뜻이었읍니다.

예수님은 그의 압제자들의 음모를 보기좋게 뒤엎었읍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그의 진정한 사명이나 소망이 아니었읍니다. 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며 따라서 그들을 예수님이 구하

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악함에도 그들을 위해 걱정하고 그들을 사랑했읍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덧붙였읍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모인 사람과 그 밖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읍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읍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셨읍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님을 떠나갔읍니다"(마 22 : 21—22)

조금 후에 한 율법사가 와서 함정이 있는 질문을 던졌읍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마 22 : 36) 율법사들은 모세의 율법을 분석하고 또 분석하여 율법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서로 배치되는 듯하게 꾸며 놓았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토론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읍니다. 그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율법의 핵심을 꿰뚫어 다음과 같이 서로 나뉘인 여러 율법을 하나로 합쳤읍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 : 37-39)

예수님은 역시 악의와 질투와 간교한 거짓으로 충만한 질문에 사랑과 높은 뜻이 담긴 대답으로 응수하셨읍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그의 사명을 다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자 군중을 떠나 오직 그의 제자들을 더욱 가르쳐 강하게 하는데 주력했읍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주의를 주셨읍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가 말일에 다시 세상에 돌아오기 전에 환란과 배도가 있을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읍니다. 또 먼 훗날 먼 나라에서 그의 종들과 함께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에 따라 하나님의 대업에 쏟은 그들의 노력을 헤아려 볼 것임을 말했읍니다. 또 목자는 배고픈 자에게 고기를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눈길을 돌리는 그의 양을 염소와 구분하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신랑을 맞는 처녀와, 그들이 예상한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아 기름을 다 써버린 처녀의 비유도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쳤읍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잠못 이루는 고민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찬 생각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현재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읍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시간이 가까와 오자 열 두 사도와 함께 조용하고 은밀한 다락방으로 갔읍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찬 채 사도들의 발을 씻어 줌으로써 그의 특별한 증인들을 악한 자의 함정에 걸리지 않게 더욱 굳건히 해주었읍니다.

이같은 사랑과 단결의 표시는 그 후에 있은 유월절 만찬의 적절한 전주가 되었읍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심 깊은 자녀들의 맏아들이 애굽 바로왕이 내린 파멸령에서 피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성은 이 유월절을 상징적인 표시와 행동으로 기념해 왔읍니다.

안전히 보존해 주신다고 고대에 맺은 성약을 지키면서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안전을 위한 새 성약의 상징물로 삼았다는 것은 얼마나 적합한 일입니까? 그는 떡을 떼어 놓고 잔을 들어 이를 축복하면서 영적인 양식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놓았읍니다.

새로운 성약에 새로운 계명이 따랐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 : 34-35)고 말했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거두는 순간에 그의 영의 숭고함과 큰 힘을 나타내 보여 주었읍니다. 그는 최후까지 자신의 슬픔이나 고통을 돌보지 않았읍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현재와 장래를 염려했읍니다. 그는 그들의 안전을 알고 있었으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읍니다. 그의 모든 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그는 교리로 가르친 바를 몸소 실천해 보이셨읍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위로와 계명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읍니다.

주님은 그들이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것을 알고는 이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던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 14장, 15장 참조)

그날 밤 작은 무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앞으로 남은 말할 수 없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 하였삽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참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이같은 중대한 기도를 드린 후에 혼자서 육과 영의 고통을 받으러 나아갔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대의 사도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읍니다.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은 그 고통은 한정된 인간의 마음으로는 측량할 길이 없읍니다.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고통을 받는 동안에도 사탄이 주는 모든 공포와 맞서 그것을 이겨내셨읍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즉 아담으로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에 이르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졌다."(제임스 이 탈매지 저, 예수 그리스도, 데저렛 출판사, 1962년, 613 페이지)

그 후 그가 허위 고발로 불법 재판을 받고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까지는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읍니다. 그는 다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는 무덤에

서 사흘만에 일어나시고 무덤은 다시 불과 세상 사람들의 생명으로 채워졌읍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승천하셨읍니다. 나사렛 예수는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겼읍니다.

오늘날의 바쁘고 복잡한 세상사와 견주어 볼 때 주님의 생애는 단순한 것이었읍니다. 그는 비천한 환경에서 살았으며 세상의 오만과 위세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가난과 겸허와 단순한 환경에서 비롯되는 성품을 지니고 생활하셨읍니다. 그의 생활이나 가르침에는 복잡한 것이 없었읍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즉 당시에 그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나 오늘날 그의 말씀을 들을 백성들에게 관계가 깊은 말씀입니다.

역사는 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읍니다. 나는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신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의 유월절기에 접어들면서 살아 있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아들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뜻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업을 정결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세상의 방법에 따르지 말라는 권고

형제 자매 여러분, 또다시 4월이 돌아왔읍니다. 4월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달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4월 6일에 우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제 144차 연차 대회를 갖고 있읍니다.

우리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을 지도자로 모시고 세 번의 대회를 가졌읍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재능과 힘과 용기를 지니셨고, 늘 주님의 지시를 따르신 분이었읍니다.

12월 26일 이후로 우리는 그분을 모시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분은 정복할 수 없는 산맥에 가장 높이 솟은 봉우리와도 같은 분이셨읍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추모하여 지은 조 엠 샤 자매의 시를 낭송하면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리 자매님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을 추모함—

예언자는 가셨읍니다.
그의 무덤가에 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한없는 눈물을 흘렸읍니다.
하늘도 울었읍니다. 흐르는 눈물이
겨울 잔디를 적셨읍니다.
그분이 주님의 예언자임을
알지 못했기에
그분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다간 사람도 많았읍니다.

그분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손길을 만져 보지 못했으나
그분의 온화한 자비를 알고
위안을 얻은 사람들이 많았읍니다.
또한 예언자와 가까이 있어
그분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분의 친절한 사랑을 느꼈던
사람들도 있었읍니다.

그의 이름에 축복을 기원합니다.
내가 울고, 하늘도 울던
12월 어느 슬픈 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모든 일을 굳건히 밀고 나가는 것 뿐입니다.

기자 회견을 할 때면 으례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대관장님, 교회의 지도권을 물려 받으신 대관장님은 이제 무엇을 하실 예정입니까?"

나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일하던 30년간 현제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참여해 왔다고 대답하곤 했읍니다.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으며 다만 기존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고, 프로그램을 공고히 하며 정책을 재확립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급속한 발전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교회 회원의 수가 배가 된 것을 보면 회원의 증가는 놀랄 만한 속도임을 알 수 있읍니다. 30년전 회원의 수는 십만을 헤아리는 정도였읍니다만 현재는 3백만의 회원이 온 세계에 있읍니다. 내가 처음으로 여러 스테이크를 방문했던 1943년에는 146개의 스테이크가 있었으나, 현재는 635개의 스테이크가 있읍니다. 1943년 당시에 38개였던 선교부는 107개로 늘어났읍니다. 1943년에는 해외에 스테이크가 없었으나 현재는 70개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전례없는 성장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반면에 상당한 문제를 던져 주고 있읍니다. 숫자는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보여야 할 점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야 한다는 사실에 있읍니다.

1974년의 주요 목표는 급속히 증가되는 회원들을 위해 훈련된 지도자를 양성하고, 회원으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와 관계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읍니다.

그 한 가지로 일반 시민으로서 갖는 의무를 들 수 있읍니다. 말일의 경륜의 시기 초에 주님께서는 그의 회복된 교회는 정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 말씀하셨읍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셨읍니다. "이제 진실로 나는 너희에게 국법에 관하여 이르노라… 입헌적이며 권리와 특권을 유지시켜 주는 자

유의 원칙을 옹호하는 국가의 법률은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것이요, 내 앞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는 입헌 국가의 법률인 그 법의 편을 드는 너…을 정당한 줄로 인정하느니라."(교성 98 : 4-6)

이 말씀에 입각하여 교회는 후에 이것을 신앙개조의 하나로 적용하였읍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12조)

1835년에 개최된 교회 일반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부 및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소신 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읍니다.

"우리는 모든 정부가 정부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관리 및 장관을 요함을 믿으며 공평과 정의로써 법률을 집행하는 인물은 공화국의 경우 백성의 투표로써 기타의 경우에서는 주권자의 의지로써 공적에 등용되며 지지되어야 함을 믿는다."(교리와 성약 134 : 3)

1903년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교회〔자체〕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원은 마음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읍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03년 6월호, 626페이지)

1951년에 열린 10월 대회에서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우리 교회의 단합을 해치는 요인들이 정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논쟁에서부터 발전되어 개인적인 적개심으로까지 연결되어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평등, 정의, 자유와 청렴결백한 공무원,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 대민 관계에서 그들이 보일 성실한 의무 이행에 기초를 둔 훌륭한 정부의 제 원리를 옹호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선택과 집단 가입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 대표자로 뽑힌 사람이 이러한 원리와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면 그는 실로 권능과 자격이 없이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 대회 보고, 1951년 10월, 114-115페이지)

이 말씀은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교회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모든 말일성도는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의 국법을 지지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교회의 전례없는 성장과 함께 다음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높은 산맥, 넓은 계곡, 뜨거운 사막, 깊은 대양의 세상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답습하고 있는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한일서 2 : 15-16)

우리 삶에 파고드는 세상적인 온갖 유혹은 참으로 무서울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사야 13 : 11)

사탄은 주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했읍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 4 : 9)

"이 모든 것"은 악과 죄와 세상적인 쾌락과 육욕적인 유혹의 구덩이를 뜻합니다.

오래 전에 주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정확하게 만드시고 발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 : 39)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피로 정결케 되어야 하나니, 이로써 모든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영생 곧 불사불멸의 영광을 누리느니라." (모세서 6 : 59)

바울은 육신의 일을 이렇게 열거하였읍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무정하며…절제하지 못하며…" (딤후 3 : 1-3)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악을 도모하는 자요…"(롬 1 : 26, 27, 30) 강도요, 술주정뱅이요, 강탈자가 되었읍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야고보서 4 : 4)

이외에도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너무도 많이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 17 : 15)

이 기도문은 우리가 늘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교회의 회원을 의로움 속에서 성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한 범법을 바울은 "귀신의 가르침"이라 하였으며, 범법자를 "미혹케 하는 영"이라 하였읍니다. (딤전 4 : 1)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악해지고, 묵인되어 왔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 : 7)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확인을 하고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께 "거룩한 곳에 서라"(교성 45 : 32)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창세부터 있었던 오랜 교리입니다.

세계의 여건과 연장되어 가는 악의 그림자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 : 30)고 말씀하셨으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 : 27)고 말씀하셨읍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지침을 얻으려고 이곳에 오셨읍니다. 이러한 지침을 얻기 위해 우리는 지도자를 모시고 있읍니다. 형제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영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생의 목적을 줍니다. 이것은 행복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님은 주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읍니다.

"생명과 빛 영원한 곳
하나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시려고

길 예비하셨네"
—말일성도 찬송가 203장—

가족은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손을 사랑합니다. 모든 도덕율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 있읍니다.

복음이 밝혀 준 길은 젊은 남녀에게 청순한 구혼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지닌 종이 영원한 단위로 인봉하는 제단 앞에 서도록 이끌어 줍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 : 4)고 배웠읍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을 멸시하거나 늦추거나 금하는 사람을 꾸짖었읍니다. 결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극히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처사입니다. 결혼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갖고 글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까지도 결혼을 늦추고, 결혼의 필요성을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에 속은 자들에게 우리는 정상 상태로 돌아오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다운 행복의 기초를 이루는 결혼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심심풀이로 성을 주시지는 않으셨읍니다. 결혼이란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작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읍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편 127 : 3, 5)

어느 누구라도 영광스러운 부모의 역할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되는 즐거움은 정상적이고 풍요한 삶의 기본을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창 1 : 28) 하신 계명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읍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 : 31)

말일의 경륜의 시기에 우리는 계시를 받았읍니다. "…이는 저들〔처녀〕이 나의 계명에 따라 자녀를 낳고 땅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또 저들이 영원한 세상에서 저들의 승영에 들어가 인간의 영을 낳기 위하여 저〔남자〕에게 주어졌음이라. 이로써 나의 아버지의 사업이 계속되며 영광을 누리게 되시느니라."(교성 132 : 63)

우리는 가정이 분열되는 것을 보고 손뼉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면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역사가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읍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 2 : 24)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찌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엡 5 : 22—23, 25, 28-29)

이 말씀을 남편이나 아내되는 사람이 오해하는 때가 종종 있읍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끌어 가듯이 남자가 가정을 이끌 때, 더 바랄 것이 없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행하여지는 이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거의가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혼은 약점이나 이기심에서 나오며, 그 결과 이혼한 당사자는 물론 사랑받지 못하고 찌들린 자녀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좌절감만을 주게 됩니다.

확실히 부모의 이기심이 극도에 달할 때 순진한 자녀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싸우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양친 중 한 사람만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좋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줄 수 있읍니다. 싸우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의 원인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기심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주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이혼자 중 일방이 도덕적으로 불결했다는 이유가 90퍼센트나 됩니다.

부도덕은 완전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 죄에서 단 하나라도 비이기적인 속성을 찾을 수 있읍니까? 따라서 두 사람이 모두 이기심을 버린다면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읍니다.

또한 낙태가 점증하는 사회악으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의식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읍니다. 면목을 세우기 위하여, 괴로움과 불편을 덜기 위하여, 낙태를 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와 같은 수술에 몸을 맡길 수 있으며, 혹은 금전을 지불하거나 수술하거나 수술받도록 종용할 수 있겠읍니까? 물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낙태의 죄를 매우 큰 죄로 간주하고 있읍니다.

"성적인 부도덕을 유발하는 이완된 상태를 목격하고 있는 오늘날 낙태란 가증스럽고 죄스러운 일 중의 하나로 여겨져야 합니다."(신권 공보, 1973년 2월, 1페이지)

환각제에 관하여 "…교회는 습관성을 야기시키거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하며 도덕적인 표준을 저하시키는 환각제나 그와 비슷한 물질의 오용 및 남용을 철저하게 금지한다."고 천명한 바 있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거하는 성스러운 집입니다. 이 성스러운 장막을 더럽히거나 부당하게 괴롭힐 때 그 결과는 뉘우침과 후회뿐일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고 몸을 청결히 가지십시오.

유다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유 18)

베드로의 말을 빌어 우리는 "…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 : 11)고 권고합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을 더럽히는 불결한 노출이나 외설 잡지 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몸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애무하거나,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간의 성관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읍니다, 창조주께서

는 이를 언제 어디서나 금지하였으며 이를 우리는 재강조하는 바입니다. 결혼한 사이라도 지나치거나 잘못 이를 행사할 경우가 있읍니다. 아무리 합리화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실망을 돌이킬 수는 없읍니다. 이것에 관하여 미국의 유명한 전도사 빌리 그레함의 말씀을 인용하겠읍니다.

"…성경에는 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으로 말하고 이를 성스럽게 보고 잘 쓰도록 말하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 이성간에 신체적인 자력을 두신 점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하나는 인간을 증식시키기 위함이며, 다른 하나는 남편과 아내를 참다운 하나로 만드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에게 내리신 '한 몸을 이루'(창 2:24)라는 명령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명령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과 관련해서 악을 말할 때 성이 본래부터 부패한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선한 것을 오용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것임을 알기 쉽게 말해 줍니다. 성은 훌륭한 종이 될 수 있으나 무서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것보다도 사랑과 행복을 키울 수 있는 강한 힘이 될 수도 있으나 모든 힘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힘이 될 수도 있읍니다."(빌리 그레함, "성에 관한 성경의 입장." 리더스 다이제스트, [1970년 5월] 118페이지)

모든 면에서 정숙을 지킬 것을 다시 권고하는 바입니다. 어머니는 성스러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교회 대관장단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어머니란 첫째 지체를 살다가 이 세상에 온 자녀가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 하는지를' 둘째 지체에서 보이도록 그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보호하고 기르고 양육하는 데 헌신하면서 주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성스럽고 희생적인 역할을 맡아 하는 분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둘째 지체를 흠없이 지키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 지리라'(아브라함서 3:26)고 하셨읍니다.

"어머니의 성스러운 역할은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해낼 수는 없읍니다. 간호원도 못하며 보모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나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는 어머니만이 온전히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읍니다.

"돈이나 명예나 또는 공공 복지를 위하여 어머니의 소임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려는 어머니는 '임의로 하게 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 29:15)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녀에게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을 때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교성 68:25)고 말씀하셨읍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신성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봉사입니다. 이 성스러운 부름과 봉사를 존중하는 여인은 천사 다음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신앙과 지식과 성스러운 사랑과 신성한 의무를 주시어 여러분이 성스러운 부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와 어머니가 되실 여러분, 정결과 순결을 지키십시오.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후손의 마지막 세대까지도 여러분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십시오."("대관장단 메시지" 데저렛 뉴스, 1942년 10월, 5페이지)

하나님의 사업을 정결하고 의로운 중에 대담하게 수행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프로그램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쟁취하는 길은 오직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나는 이것이 참되고 올바른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사랑하며, 그분의 위대하고도 영원한 사업을 앞으로 미는 미약한 도구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4차 연차 대회 말씀.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따르는 자는 그를 인도하는 자를 지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모두 오늘 성회에 참석하고 있읍니다. 성회란 고대 이스라엘 시대부터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큰 모임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성회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전 헌납, 신임 대관장단의 지지,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 때 있었던 십일조 계시와 같은 성격의 계시에 대한 신권 역원의 지지 모임 등이 그 대표적인 성회라 할 수 있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실로 이곳에 머무를지어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왕국에 첫 일군된 자의 성회를 소집하라."(교리와 성약 88:70)

요셉 스미스와 브리감 영은 완전히 조직된 신권 역원과 회중으로 최초로 지지를 받았읍니다. 브리감 영은 1846년 3월 27일에 지지를 받았으며, 정원회에서 "이스라엘 모든 진영을 관장하는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읍니다." (비 에이치 로버츠, 교회 약사, 3권, 52페이지) 후에 그는 지지를 받았으며, 호산나의 외침 소리를 받았읍니다. 교회의 각 대관장은 1972년 10월 6일 지지된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을 포함해서 모두 성회에서 교회 신권 역원의 지지를 받았읍니다.

요셉 스미스는 첫 성회를 이끌었는데 그는 연설을 마치자, 대관장단에서부터 각 정원회가 차례로 일어나 그를 예언자요 선견자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뜻을 보여 주도록 요청했읍니다. 모든 평의회가 차례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요청에 따랐읍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회중에게 지지하는 뜻으로 자리에서 일어설 것을 부탁하였읍니다.

다시 그는 신권 정원회와 성도들에게 지지를 물었읍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의 정원회가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았읍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모두가 만장일치로 지지해 주셨읍니다. 나는 성도들이 이들 각자(교회의 각 정원회를 뜻함)를 지지하는 만큼 주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그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예언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말씀과 간증을 전할 때 이를 받아들이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나 집안은 황량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호산나의 외침소리가 울려 퍼졌읍니다. (교회정사, 2권, 416-18페이지 참조)

오늘날 여러분은 생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사업과 만장일치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과 회원이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셨읍니다. 이것은 헌법 제정 의회와도 같읍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이 참석하도록 초청되었읍니다. 오늘 여러분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목적을 되새기며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대로 주님의 권고에 따라 올바르게 백성들을 권고하고 훈계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에게 진보와 기쁨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예언자와 지도자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훈계를 따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기울일 때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의 달콤한 교향악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고대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한 다음과 같은 바울의 훈계를 따르고 있읍니다.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골 3 : 1-2)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로새서 3 : 16)

이와 같은 사랑의 멜로디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의 사업이 영원한 것임을 알아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미로운 영원한 멜로디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읍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니,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또 인간이 육체로 있기 전에 사람도 만들었느니라." (모세서 6 : 51)

우리의 선조인 아담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기본이 된 진리를 우리에게 주었읍니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읍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였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조의 죄를 대속하였고 이로써 양친의 죄는 자녀의 머리로 돌아올 수 없도다. 자녀는 창세 전부터 온전함이니라는 말이 백성 가운데 널리 퍼졌느니라." (모세서 6 : 54)

아담은 침례와 성신을 받았읍니다.

아담에게서 우리는 구세주의 오실 것을 배웠읍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무덤으로부터 구원된다는 것도 배워 알았읍니다. "…이 생에서 기쁨을 누리며 또 다시 육체로서 하나님을 보리라." (모세서 5 : 10)

인간은 자손을 낳게 마련이며, 따라서 지상의 가족은 그들의 손에 영원을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이 예언자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 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읍니다. (모세서 5 : 16)

"이같이 모든 일은 거룩한 의식으로써 아담에게 수여되었고 복음은 전파되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은 끝날까지 세상에 있어야 하리라 공포되었더라…" (모세서 5 : 59)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합니다.

아담은 신권을 받았으며, 기억의 책에 그의 계보를 기록하였읍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굳건한 기초를 마련해 주신 이 예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가르쳐 주신 에녹과 같은 예언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라, 내 영이 네게 있어 네가 하는 말은 모두 정당하게 해주리라. 산들이 네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할진데 나는 네 안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나와 함께 행하라." (모세서 6 : 34)

이 거룩한 예언자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태초의 창세 과정과 앞으로 올 그리스도와 모든 인간의 부활을 보았읍니다.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읍니다.

"에녹과 그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시온 한가운데 거하였더라. 때가 지남에 시온이 없어졌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품으로 받아들이셨음이라…"(모세서 7 : 69)

우리는 들을 때 과연 무엇을 듣고 있읍니까? 한 민족의 아버지인 의로운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예언자 아브라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선조였읍니다. 그는 주 여호와와 가까이 하며 대화를 나눈 분입니다. 그는 천문학자로, 하늘과 우주의 무수한 신비를 알고 있었으며, 당시 천문학의 중심지였던 이집트의 뛰어난 과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 이전 전세의 역사도 알고 있었으며, 이 지상이 인간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도 이 예언자이며 축복사인 아브라함에게는 잘 알려진 이야기였읍니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읍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초인적인 신앙으로 이삭이 살아서 많은 후손을 보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이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히 11 : 19)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아들 이삭을 바쳤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예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들을 때 과연 무엇을 들을까요?

우리는 예언자 모세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애원하는 모세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읍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명하셨읍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의 하나님이니라…"(출 3 : 5-6)
우리는 다시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불을 밝힌 위대한 예언자 모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들을 때 과연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교회의 대관장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마 16 : 13)는 질문을 받은 위대한 예언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확신에 넘친 말로 대답하였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 : 16) 우리는 그가 변형의 산에서 있었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한 불굴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베드로후서 1 : 16-18)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배도가 있었으며 수세기 동안 이 지구는 영적으로 암흑 세계가 도래했읍니다. 때가 차매 새로운 각성이 일기 시작했고 초기처럼 시현과 계시가 주어졌읍니다.
우리는 다시 듣고 있는데 무엇을 듣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하나요?"라는 너무도 중요한 질문을 숲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쭈는 소년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예언자가 새로운 경륜의 시대의 문을 열었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놀랄 만한 시현을 통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서 : 17)고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교성 11 : 28, 110 : 4)
젊은 예언자는 초기에 잃은 모든 것과 함께 영원한 복음을 회복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현과 계시가 이에 동반했으며, 이 젊은 예언자를 통해 지상에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신권 사도의 직분, 권능과 권세, 교회의 조직 등이 회복되었고, 이리하여 지상에는 다시 계시와 영원한 진리가 있어 이를 받아들이려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었읍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회복되어 인간은 복음의 충만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읍니다.
다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음성을 듣습니다.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려느냐? 전진하여 물러서지 말며, 용기를 내라. 형제들아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자.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세상 사람들아, 노래를 불러 울려 퍼지게 하라. 죽은 자여, 임마누엘 임금께 영원한 찬양의 찬송가를 부를지어다. 저는 창세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그 옥에서 속량해 줄 수 있게 정하셨느니라. 이는 갇힌 자가 석방될 것임이니라.
"산들아, 기뻐 소리지르라. 너희 모든 골짜기여 크게 외치라. 너희 모든 바다와 마른 땅이여, 너희 영원하신 임금이 행하신 기이한 업적을 말하라. 또 너희 강과 시내와 개천이여, 즐거움으로 흘러내리라. 숲이여, 들의 모든 나무여, 주를 찬양하라. 너희 굳은 바위여, 기쁨의 눈물을 흘려라. 해와 달과 새벽 별이여, 함께 노래하라.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아 기쁨으로 외치라. 영원한 피조물아,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선포하라. 내가 거듭 이르노니,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은 얼마나 영화로운고. 그 음성은 우리의 귀에 영광과 구원과 존귀와 불사불멸과 영생과 왕국과 권능을 고하도다."(교성 128 : 22-23)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들었읍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했읍니다. 지금은 주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것이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에 대해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며 쟁기를 손에 잡고, 위를 보며 눈은 오직 빛을 향하여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과 사랑을 지니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의 사업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임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러한 성스러운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위한 계획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성약을 지키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제가 요구됩니다

오늘 저녁 이 신권회에서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토요일 저녁에 있는 신권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큰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좌석에 앉기 위해 한두 시간 전에 벌써 이곳에 와 있었으며 그 밖의 수많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태버나클로,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스테이크와 와드의 건물에 모였읍니다. 이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스러운 것으로 소중히 여기며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인 가족 형태로 인식하기 시작한 즐거운 가정 생활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신권회에 참석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은 참으로 크며 진실되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성실한 봉사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신전은 비어 있을 때가 별로 없읍니다. 교회도 차고 넘치며 출석하는 회원 수와 봉사하는 회원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읍니다. 가정의 밤을 갖는 가정의 수도 늘어나고 있읍니다. 전세계의 모든 교회 회원들이 나타내 보이는 신앙과 사랑에 우리는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 있는 스테이크와 선교부에서 회원 수가 날로 늘어나며 더욱 효과적으로 모든 교회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세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점차 온 세계의 교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지난 목요일에 몇몇 지도자들과 상의한 몇 가지 문제를 여러분께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모든 와드와 독립 지부에 장로 정원회 조직을 승인했읍니다. 99명이 정원이었던 장로 정원회는 이제 그 수에 관계없이 한 와드나 독립 지부에 속한 장로들로 회장단을 포함한 장로 정원회를 조직할 수 있읍니다. 장로의 수가 66명 이상일 때에는 장로 정원회는 둘로 나누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한곳에 모여 하나의 교회 행정 조직에 속해 있는 장로들로 정원회를 조직할 때 잠재된 힘과 능력을 가장 크고 가치있게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읍니다.

또 하나의 신권에 관한 문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을 스테이크 부장이 그가 관리하는 스테이크의 칠십인으로 성임하고 칠십인 정원회 회장으로 성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표된 지금부터 실시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스테이크 지도자와 칠십인 사이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경향을 지양하고 더욱 훌륭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지침서와 공보를 읽으신다면 그렇게 많은 편지를 보내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전 접견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원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감독과 함께 상의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아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치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년이 된 여러분의 아들 중에 많은 수가 선교사 생활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생활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삶을 충만하고 풍성한 것으로 하려면 여러분은 생애를 계획해야 합니다. 현재 집사로서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읍니다.

여러분은 장차 선교사 생활을 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읍니까? 여러분은 장차 가질 직업이나 평생을 두고 해나갈 일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이 앞으로 변호사나 의사나 교사나 또는 기술자가 될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고 있으나 그래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 많이 있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결정했어야 했거나 지금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지금부터 결혼할 때까지 무엇을 하겠읍니까? 결혼은 어떻게 하겠읍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장 성실한 집사와 교사와 제사가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 변경할 수 없는 성약으로 맺을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합당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읍니다. 시간을 선용할 때 생활은 균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읍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할 수 있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부터 돈을 벌어 저축하여 그것으로 선교사 생활을 수행할 것을 지금 결심할 수 있읍니다. 또한 여러분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그 기간 동안을 위해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합당하게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고 봉사하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읍니다. "선교사 프로그램은 의무적인 것입니까?"라는 질문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읍니다. "모든 젊은 청년이 다 선교사로 봉사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교회의 대답은 "그렇습니다"란 대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도 교회의 대답과 같습니다. 이 대답을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젊은 청년은 집회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바치고 순결한 생활을 하고 세상의 추한 것으로부터 멀리하여 주님의 신전에서 천국 결혼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하도록 누가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 인간이 자유의지로
> 무슨 일 하나 자유니
> 영원하신 진리있어
> 인간을 강압하잖네
>
> 지혜와 사랑빛으로
> 바르게 훈계하시고
> 친절과 선하심으로
> 주 결코 억압하잖네

—찬송가 126장—

복음에는 강압이란 전혀 없읍니다. 1833년에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보라,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나니, 이것이 인간이 정죄를 받는 소이니라. 이는 태초부터 존재하던 것이 명백히 드러났으나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교성 93 : 31)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셨으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즉 우리는 모두 침례시에 받은 성신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려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할 수가 없읍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는 압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읍니다. 남의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욕설을 할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읍니다. 외설스러운 것으로 자신을 추하게 할 수도 있읍니다. 삶을 헛된 일로 낭비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임무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성적인 죄를 범할 수도 있으며 살인마저도 저지를 수도 있읍니다. 복음에는 강제가 없지만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참

으로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십일조도 바치지 않고 선교사 생활도 하지 않고 신권 의무와 특권을 저버릴 수도 있읍니다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그러한 축복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또 이같은 답을 주셨읍니다. "또 각 사람은 의를 손에 들고 충실로 허리를 동여매고 땅의 주민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일지어다. 또 말하거나 도망함으로써 악인에게 황폐가 임할 것을 선포할지어다." (교성 63 : 37) 여러분은 "각 사람"이란 말을 주의깊게 들었읍니까?

우리는 물론 불결한 것에 빠져 있거나 성적인 또는 다른 죄에 빠져 있는 젊은이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깊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그 죄를 완전히 씻은 후에라야 선교사로 보낼 것인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모든 합당하고 능력이 있는 말일성도 형제는 선교사로 봉사해야 합니다.

청결하고 떳떳하며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청소년은 자기의 진로를 계획해야 하며 자신과 하나님에게 그가 어떠한 생활을 할 것이며 그의 생애를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성약으로 맺어야 합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은행과 비슷한 아름다운 건물 앞에 왔다. 그런데 벽에 박아 놓은 놋쇠 간판에 '시간 판매'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보니 은행은 아닌 듯했다. 마치 환자처럼 보이는 얼굴이 창백한 한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건물의 계단을 무겁게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5년 전에 진작 찾아왔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군요. 그래서 여기서 5년을 사려고 왔어요. 그 5년만 사면 의사 선생님이 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또 한 사람이 와서 점원에게 '늦게서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능력과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내가 개발하지 못한 재능을 모두 개발할 수 있도록 10년을 사겠읍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회사에서는 내가 능력만 있다면 다음달부터 중책을 내게 맡기겠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음달에 그 회사에서 일을 맡아 볼 수 있도록 2년만 주십시오.' 그들은 모두 병을 얻고, 희망을 잃고, 힘없이 근심에 싸여 왔으나 떠날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얼굴에 띄우고 그곳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그렇게도 필요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시간을 샀기 때문이다.

"나는 꿈에서 깨어나 꿈에서 본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결코 살 수도 없는 것을 나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해야 할 시간에는 그것을 해야 한다. 그날 아침 내가 일을 하면서 휘파람을 분 것은 나의 가슴이 행복감으로 뻐근하도록 가득 찼기 때문이다. 잘만 활용한다면 아직도 내게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 미상)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세운 한 가지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읍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온 한 지도자가 대회에서 경전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직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읍니다. 대회가 있던 그날 밤에 나는 한 블록 떨어져 있는 집으로 걸어가 곧장 집 맨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조그만 탁자 위에 놓은 석탄 기름 램프에 불을 붙이고 창세기 첫장을 읽었읍니다. 일 년 후에 나는 그 크고 영화로운 책을 다 읽게 되었읍니다.

내가 읽은 성경은 66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고 장수로는 1,519페이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거의 성경 읽기를 포기할 뻔했읍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다면 나도 읽을 수 있다고 확신했읍니다.

14 세의 소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읍니다. 특별히 재미가 없는 페이지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66권, 1,189 장 1,519 페이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목표를 세워 그것을 성취했다는 큰 만족감을 얻었읍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자랑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석탄 기름으로 밝힌 등불 아래에서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전기불 아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예로 이야기하고자 한 것 뿐입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는 기쁨이 항상 깊게 자리잡고 있었읍니다.

청소년 시절에 내가 세운 또 다른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겠읍니다.

나는 평생을 통해 지혜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와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 들어왔읍니다. 나는 담배를 씹는 사람들을 보았읍니다. 갈색의 물같은 것이 입가에서 새어 나오는 것을 볼 때 역겨움을 느꼈읍니다. 담배를 둥글게 마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보았읍니다. 그들은 "불 더럼"이나 다른 상표가 붙은 연초 담배와 종이를 사서 하루에 몇 번씩 일을 멈추고 종이에 담배를 말아 끝을 구부리고는 그것을 피우는 것이었읍니다. 그와 같은 일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되었읍니다. 그 후 담배 제조 기술이 더욱 발달되었을 때에는 낱알로 된 담배를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읍니다.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또 역겹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소년 시절에 내가 살던 작은 마을의 7월 4일 독립 기념 축제를 구경하러 거리로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마에 참여하거나 말에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었으며 주머니에 술병을 넣고 있었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만취되어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으며 마구 욕설을 하고 있었읍니다.

조금 후에 경마가 시작되었읍니다. 경마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한 곳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고함 소리가 났읍니다. 어른들과 소년들이 모두 그 싸움이 벌어진 곳으로 몰려들었읍니다. 주먹과 피와 욕설이 난무하고 있었읍니다.

나는 다시 그들이 그같은 행동으로 자신을 비천하게 하는 것을 보고 역겨움을 느꼈고 그날 독립일에 붉은 레몬수를 마시며 말이 달리는 것을 구경하던 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일을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읍니다.

나는 어린 소년 시절에 누구의 압박도 받지 않고 지혜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았읍니다. 나는 주님

이 하신 말씀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파괴적인 요소를 취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것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알았읍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해로운 것을 멀리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읍니다. 그렇게 한번 굳게 결심하자 나 자신과 하나님께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읍니다.

내가 아리조나주 로터리 클럽의 지역 책임자였을 때의 일입니다. 나는 로터리 클럽 국제 총회 참석차 불란서 니스로 여행할 기회를 갖게 되었읍니다. 그 총회에서는 축하 모임의 일부 순서로 지역 책임자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가 베풀어졌읍니다. 총회를 가질 그 큰 건물이 화려한 연회를 위해 단장되었읍니다. 우리 지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한 사람 앞에 일곱 개의 잔과 갖가지 은그릇과 쟁반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유럽의 최고급품들이었읍니다.

식사가 나오기 전에 먼저 포도주와 그 밖의 각종 알코올 음료가 나와 각 사람 앞에 놓인 일곱 개의 잔을 채웠읍니다. 술의 색깔은 각기 다르고 아름다왔읍니다. 나는 멀리 다른 나라에 와 있었읍니다. 나는 지역 책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읍니다. 그들도 나를 알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필시 나의 종교와 지혜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악마가 "지금이 기회요. 당신은 지금 수만리 타국에 와 있오. 또 당신을 주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소. 그 잔에 든 술을 마신들 누가 알겠오. 바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라고 귓속말로 속삭이는 것 같았읍니다. 그러자 다른 부드러운 영이 내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읍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약속했읍니다. 당신은 결코 지혜의 말씀을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읍니까? 하나님 아버지와도 그같은 성약을 맺고 지금까지 훌륭히 그 성약을 지켜왔읍니다. 이제 이 순간에 지금까지 지켜 왔던 성약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겠읍니까?" 한 시간 후에 연회를 끝내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내 앞에 놓은 일곱 개의 잔에 든 화려한 색깔의 술은 한 번도 손에 대지 않은 채 한 시간 전과 마찬가지로 자리에 놓여 있었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가 소년 시절에 한 경관으로부터 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읍니다. 그 경찰관은 우리 집 바로 이웃에 있는 집의 현관 마루 아래서 한 꾸러미의 훔친 물건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읍니다. 훔친 물건이 나온 그 집에 사는 청년은 절도병 환자라고 했읍니다. 그 청년은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까지도 훔치는 절도광이었읍니다. 그 마을에서 말 채찍과 마차 덮개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모두 그 청년의 집 현관 아래서 나왔으며 그 청년은 자기가 물건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읍니다. 그 사실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으며 그와 같은 악습을 갖게 된 그를 얼마나 가엾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이웃이 그를 속이지 못하게 주의한다. 그러나 그가 그의 이웃을 속이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날이 올 때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것이며 그는 물건을 싣고 다니며 판매하는 그의 손수레를 태양의 개선 마차로 바꾸게 될 것이다."(랄프 왈도 에머슨의 완전한 글, 뉴욕주, 더블류 엠 에이치 와이즈사, 1929년 출판, 585페이지)

이 청년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어 들인다는 것을 몰랐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우리의 생활에 도움을 주거나 해를 끼칩니다. 추한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응보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 한 신문에서 2백만 불이 넘는 거액의 수표를 주운 한 소녀의 기사를 읽었읍니다. 그 소녀의 말을 빌면 그녀는 수표를 줍자 그 돈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등 공상을 계속했다 합니다. 그러나 뒤에 그 소녀는 수표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읍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수표를 돌려 준 보상으로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작은 액수의 돈을 사례금으로 받았다는 기사였읍니다. 왜 바른 일을 하고 보상을 기대해야 합니까? 왜 사례금의 액수에 실망을 해야 합니까? 바른 일을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그것을 잃어 버린 주인에게 돌려주고 보상을 기대합니까? 여러분은 모두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라고 되어 있는 신앙개조 13조를 배우고 있거나 이미 배워 알고 있읍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시간이 없을 것 같군요. 상회가 상품 판매의 이익금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상점 도둑 방지에 충당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수치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제 또 하나의 조그만 경험담으로 이야기를 끝낼까 합니다. 나는 페루의 토쿠에팔라의 한 교회를 헌납하기 위해 그곳에 갔읍니다. 그곳은 탄광촌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고용되어 있었읍니다. 교회를 헌납한 후 한 회원의 집에서 회원들이 저녁을 함께 들었읍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들이 그 집 안을 이리저리 다니는데 한 청년이 나에게 와서 "킴볼 형제님, 저는 장차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나는 "그럼 그렇게 하고말고. 그런데 내가 저쪽 방에서 만난 분이 아버님이 아니시냐?"라고 물었읍니다.

그는 "네 저희 아버지예요."라고 대답했읍니다.

나는 "그렇다면 아버님께 축복을 받지 않고?"라고 물었읍니다.

청년은 "아버지는 축복해 주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잠깐 그 청년더러 기다리라고 해 놓고 곧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훌륭한 아들을 두었읍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한테서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읍니까?"라고 말했읍니다.

그 아버지의 대답은 "그 아이가 내게서 축복을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 후에 그 두 부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두 부자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으며 청년은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도 아들의 축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우 기뻐한 것을 알 수 있었읍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 젊은 형제님들은 이 이야기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와 같은 청을 하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조금은 수줍어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읍

니다. 아버지가 먼저 자녀를 이끌어 주면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과 이곳에서 함께 하게 된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읍니다. 여러분에게 화평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수없이 되풀이 되어 온 이야기지만 의로움만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구원과 승영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살고 있으며 그 계획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의롭지 못한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렸읍니다. 아멘.

공의롭고 합당한 시온의 대업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영생의길

무슨 일을 하든 그 방법이 참으로 중요하나 그 일을 하는 목적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업이 공의롭고 가치있는 일임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실하게 살 때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과 발전과 성취감이 가득 찬 바쁘고도 목적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이생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생각해 보시고 다시 모든 바람직한 일들로 가득 찬 다음 세상을 이 세상의 연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발전과 기쁨과 성장과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생을 마치면 이생과 비슷하나 제약이 적고 보다 영광스럽고 기쁨으로 찬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존 헨리 조웻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누구나 제단을 만들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제단에 불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집을 지을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과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존 헨리 조웻트, 영감의 보고 중 "가정을 이루어 주는 하나님", 랄프 엘 우즈 지음, 뉴욕 : 토마스 와이 크로웰 출판사, 1951년, 260페이지)

여러분께서는 가정이 제 기능을 다하고 가족에게 영감과 계시를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주는 교회의 기본 프로그램에 관해 수차 들어오셨읍니다. 자신의 두뇌만을 의지하여 결정을 내린 사람들 중에는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학이나 공학, 심리학, 수학, 사회학, 생물학 등을 공부하여 학사 학위를 얻기 위해서는 16 년에서 20 년간을 기꺼이 연구하며 강의를 듣고 교수들의 도움을 받는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데 이따금 기도를 드리거나 약간의 시간을 들이고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어느 분이 말한 적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경전 공부와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셨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 : 39)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눅 24 : 25-26)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단호히 말했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 : 1-6, 11)

그는 이렇게 계속해 말했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좇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 : 12-14)

욥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욥 32 : 8)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7: 54)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애에 관해 두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읍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읍니다. "난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멋진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소.”

이 말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였읍니다. “그런 이야기를 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의 생애와 성품에 관한 옳은 면을 글로 써 보십시오. 그가 신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인간다운 사람으로 묘사해 보십시오.”

글을 쓰도록 제의한 사람은 인거솔 대령이었고, 이 글을 쓴 사람은 루 월리스 장군이었으며, 그 책의 제목은 “벤허”였읍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작가는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였읍니다. 그의 생애와 성품에 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그가 인간들 중에 있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는 십자가 밑에서 그를 지키던 백부장이 한 것처럼 그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전에 이해하거나 느껴보지 못한 일들을 꿈을 통해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읍니다. 나는 조지 에프 리차즈 형제가 회장으로 재임했을 때 십이사도 정원회 모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읍니다. 그는 리그랜드 리차즈 형제님의 부친이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꿈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여러 차례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꿈들은 기근에서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애급왕 바로가 받은 것이나, 자기 일행을 이끌고 깊은 대양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한 리하이의 꿈이나 그 외 우리가 경전에서 읽을 수 있는 다른 꿈과 같이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절실한 것들이었읍니다.

“우리들이 중요한 일을 암시해 주는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4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는 꿈을 꾼 적이 있읍니다. 이 꿈에서 나는 공중에 서 계신 구세주를 보았읍니다. 그분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지만 그분에 대해 내가 갖는 사랑은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었읍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구세주에 대해 지닌 것과 같은 큰 사랑을 지닐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곁에 오래 있고 싶었지만 그곳에서 나를 끌어내는 힘을 느꼈읍니다.

“그 꿈을 꾼 이후 나는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비록 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행하도록 부름받은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 : 2-3)고 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곳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구세주와 함께 할 수만 있고, 그 꿈에서 지닌 것과 같은 사랑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내 인생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교회 대관장단에 재임한 바 있는 조지 큐 캐넌 장로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도 압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도 알고 있읍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서 그가 현재 살아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 계시며, 다시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합니다.”(1896년 일반 총회에서 행한 말씀, 데저렛 위클리에 게재됨, 1896년 10월 31일, 53권, 610페이지)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은 형제님들이 이와 똑같은 간증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참된 종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훌륭하신 분들의 간증 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는 나의 간증을 더하여 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하신 바를 이행하면 그분을 볼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으며, 그의 면전에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이러한 간증을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1974년 4월 6일 토요일 오후 모임

하나님이 예임하신 예언자와 백성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주님께서는 오늘날 그의 백성을 이끌 사람을 부르고 준비시키셨읍니다

나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요, 주님의 백성을 이끄는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이며,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위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하도록 예임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그가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해서 이 직분에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 성임되었으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든 사도는 주님의 영의 증거하심을 받아 킴볼 대관장이 이제 선두에 나와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았음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읍니다. “나의 종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내가 그에게 맡긴 모든 일을 ‘충실하고 참되게’ (교성 124 : 13) 행하였느니라. 이제 그가 너희 가운데서 할 일을 모두 마쳤느니라. 나는 그를 나의 영원한 포도원에서 다른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 부르노라. 나 주는 나의 종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을 불러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는 그 큰 날에 대비하여 준비시키는 사업을 계속하게 하노라. 나는 내 종 요셉 스미스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

"이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심이니, 나는 저에게 영감을 주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능한 권세로 시온의 대업을 추진시키리니, 저의 근면을 내가 알며 저의 기도를 들었음이라."(교성 21 : 4-5, 7)

이미 세상을 떠난 예언자를 믿거나 그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준 권고를 믿거나 따르기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상에 그의 백성을 두신 이래로 어느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당면하는 보다 큰 시험은 우리가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시대를 위해 주신 살아 계신 예언자의 권고와 지시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께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며
그의 값진 소유물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몹시 꾸짖으셨읍니다.
너희는 너희가 따르겠다고 한 분의
자녀들이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그의 길을 따르라.
그리고 아비의 무서운 분노를
피하라.
"우리는 선견자 모세와 그 외 여러
고대 예언자들을 알고 있읍니다.
그들의 말씀을 금은 보화보다
귀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모세에게 모습을 돌리려거든
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렇게 할 때에 너희는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느니라.
이는 그가 내가 지상에 와
일을 하리라는 것을
알릴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이 걸었던 길
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주이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읍니다.
오늘날 살아 계신 예언자나
교사나 선견자의 손에
내가 권능의 열쇠를 주었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브르스 알 맥콩키—

따라서 나는 오늘날 교회와 지상의 하나님 왕국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은 고대의 예언자나 사도와 같은 분들이며,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지상의 왕국을 이끌고 지도하도록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태너, 메리온 지 롬니 세 분과 함께 거의 매일 모여 상의를 하는 우리는 그들의 결정으로 보여 주는 지혜와 판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초대 교회의 첫대관장단을 구성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그들도 의로운 전도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이끄는 이들 형제들의 부름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읍니다. 그분은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계획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셨으며 그의 영원한 복음이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되어 요셉 스미스에게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여러 경륜의 시대의 인간에게 나타내져야 한다고 선언하셨읍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복음 사업을 펴고 그의 메시지를 각 시대의 온 세상에 전할 예언자와 사도들을 택하십니다. 그분은 그의 종을 선택하시고 예임하시며, 지상에 보내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종들에게 계속해서 지상에서 할 일을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지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예임된 위치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예임된 자로서 준비되어 부름을 받은 사람의 좋은 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신앙이 독실한 가문에서 태어났읍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영적인 자질을 물려받은 야곱과 같이 그도 현재와 같은 대관장으로서의 부름을 위해 준비하는 데 바탕이 된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분입니다.

평범하게 태어났다가 평범하게 준비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앙이 독실했던 가문에서 태어났읍니다. 인류에게 빛과 진리와 구원을 전하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이 생애에서만 준비를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부름을 받고 선택되고 예임된 하나님의 영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천국 회의에서 우리와 함께 앉아 우리 앞에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지금 하나씩 실행하고 계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세상의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은 모두 창세 이전에 천국 회의에서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도록 성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언자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도 천국 회의에서 바로 이러한 현재의 직분을 맡도록 성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65페이지) 현재 킴볼 대관장님이 요셉 스미스의 직분을 계승하고 계시며, 그와 같은 예임의 법에 적용을 받으셨다고 하겠읍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셨던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도 시현으로 수많은 전세의 영들을 볼 수 있었읍니다. 그는 "… 이 모든 것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 (아브라함서 3 : 22)고 말했읍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 가운데 서시며 가라사대 나는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셨으니…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저들 중 하나라. 너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느니라."(아브라함서 3 : 23)고 하시는 말씀을 시현을 통해 들었읍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모든 예언자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지상의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회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렘 1 : 5)

이 생에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은 사람은 모두 앨마가 가르친 대로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부름을 받아 준비되었으니,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니,"(앨 13 : 3) 이는 그들이 전세에서 고귀하고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택의 교리라고 부른 이 예임의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

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롬 9 : 4)고 하였읍니다. 그는 교회의 충실한 회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주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여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했읍니다. (롬 8 : 17, 28-29 참조)

그는 또한 교회의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우리를 그의 품안에 택하셔서 우리를 성스럽게 하시고 그 앞에 사랑으로 흠없이 서게 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도록 예임하시어 이생에서 "죄 사함"을 얻고 내세에서 영원한 영광을 상속하게 하셨다고 말했읍니다. (엡 1 : 7)

고대나 현대의 계시는 예임의 법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읍니다.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특별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예지로 부름을 받게 되는 특정한 개개인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고,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태어나 선한 목자의 말씀을 듣고 지상에 있는 그의 우리에 들어오게 된 수많은 용감한 사람에게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예임된 예언자의 위대한 본보기가 되셨읍니다. 그는 인류의 구속주요 구세주로 예임되셨읍니다. 베드로는 그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될 자"(벧전 1 : 19-20)로 "절정의 때"(교성 20 : 26)에 오셔서 무한하고 영원한 대속의 사업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였읍니다. 근 4,000여 년 동안 모든 예언자들은 그가 오실 것과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증거하였읍니다.

육체를 입고 오실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인 모세, 세상의 끝을 시현으로 본 계시자 요한, 회복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 등은 그들에게 예비된 사업이 미리 시현을 통해 나타내졌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기 오래 전에 이미 그러한 일을 위해 예임된 사람들로 알려졌읍니다.

침례 요한이 한 일이나 고대의 사도들이 행한 일, 컬럼버스가 이룬 업적은 모두 그 이전에 알려졌고 정해진 것들이었읍니다. 주님의 모든 사업은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되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의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거나 선택된 사람들은 먼저 전세에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임명된 사람이며, 그들이 지상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생활할 때 다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대표하고 지상에 있는 그의 왕국을 관리하도록 부른 대관장은 어떻겠읍니까? 참으로 그는 단지 충실했던 선조의 후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인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전능하신 분의 영의 자손입니다. 그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며, 그의 얼굴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고 그의 율법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순종과 의로움으로 독생자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전세에서도 위대하였고 고귀한 분이었음을 알 수 있읍니다. 그가 지닌 재능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는 영적인 자질 즉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며 의로움을 간직하는 자질을 크게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으신"(아브라함서 3 : 24) 주 여호와를 알았고 그와 대화를 나누셨읍니다. 그는 아담과 에녹의 벗이었읍니다. 그는 노아와 아브라함으로부터 권고를 받았읍니다. 그는 이사야나 니파이와 함께 앉아 모임을 가졌읍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나 브리감 영과 함께 하나님 왕국에서 봉사하였읍니다.

전세란 멀리 떨어진 신비로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의 집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온 지 불과 몇 년밖엔 되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으로서 육신을 입기 전에 우리와 함께 주님을 위해 봉사하던 이웃을 떠나 얇은 장막을 거쳐 그들과 헤어지게 되었읍니다.

장막이 닫혀서 우리는 그곳에서의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권세와 힘과 지배권과 진리를 가지고 계시며, 그도 가족 단위에 속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며,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율법을 제정하여 주셔서 이를 따를 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벗과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된 교육 제도하에서 가장 완벽한 제도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며, 주님의 영원하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무한히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서 예임의 교리를 배울 수 있읍니다. 우리가 지상에 오게 될 때 전세에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얻을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모짜르트*는 음악적인 재능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덟 살에 소나타를 작곡할 수 있었읍니다. 멜기세덱은 놀라운 신앙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왔기 때문에 "어린 아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노도와 같은 불길을 잔잔하게 할 수 있었읍니다."(창 14 : 26 영감역) 반면에 가인은 루시퍼와 같이 태초부터 거짓의 아비였으므로 이 세상에 와서 "…너는 멸망이라 불리우리라. 이는 너도 이 세상 전에 있었음이라."(모세서 5 : 24)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예임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상에 특별한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요 10 : 27-28)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를 알게 된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도 큰 책임인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멍에를 우리가 지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을 기꺼이 하는 책임이 부여되었읍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봉사한다면 그가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보내신 사도나 예언자의 말씀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밝혀 줄 예언자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일을 주님께서는 이루셨읍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영감의 영을 지닌 많은 지도자에 의해 인도되고 있읍니다.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언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지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으사 말일에 행하는 이 사업의 위대성과 진실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한 사실이 진실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증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걸으신 길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이셨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여러분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읍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자가 우리를 모두 지상의 속박에서 높은 하늘로 끌어 올려 주셨읍니다. 굳게 다짐한 마음으로 우리는 지지의 손을 들었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진로를 향해 전진하고 있읍니다.

지난 해 12월 어느 추운 날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랐던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께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태버나클에 모였읍니다. 예언자로서 주시던 말씀과 강력한 지도력과 헌신적인 봉사를 보이신 리 대관장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완전함을 누리게 되도록 소망을 가지라고 권고하셨읍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권고하셨읍니다.

다음날 솔트레이크 신전의 성스러운 다락방에서 그의 후계자가 선택되었으며 지지되었고 성스러운 직분에 성별되었읍니다. 일에 지칠 줄 모르고, 항상 겸손하며, 영감에 찬 간증을 지니고 있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결정하신 길을 계속 따르도록 권고 하셨읍니다. 그분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의 길을 따르라, 그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며칠 전에 집에 배달된 여행 안내 책자를 무심코 쳐다보게 되었읍니다. 그 책은 현란한 색깔과 매혹적인 유혹의 글로 가득 차 있었읍니다. 노르웨이의 협곡과 스위스의 알프스 관광 안내였읍니다. 그러나 그 책에서 기독교의 발생지인 성지 베들레헴에 초청하는 안내문도 읽을 수 있었읍니다. 그 책자의 마지막 구절에는 간단하나 강력한 힘을 지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실려 있었읍니다. "와서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을 걸어보십시오."

나는 다시 하나님의 예언자인 리 대관장님과 킴볼 대관장님이 주신 권고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라. 그의 발자취를 걸으라." 어느 시인이 쓴 싯귀가 떠오릅니다.

나는 오늘 오랜 옛날
예수께서 거니셨던
그 길을 걸었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서서히 발길을
옮기며, 그가 아셨던
길을 배회하였읍니다.

변하지 않은 작은 길목을
걸었읍니다.
화평이 내리 깔렸읍니다.
나는 오늘 예수께서 거니셨던
그 길을 걸었읍니다.
그분의 모습도 느껴 보았읍니다.

베들레헴을 향하는 길목에 서서
감미로운 추억에 빠져 보았읍니다.
갈릴리의 작은 언덕은
나의 동심에 젖은 발길의 뜻을
알았읍니다.

감람산에서의
성스러웠던 장면들을
예수께서는 이미 전에 아셨읍니다.
옛날처럼 변함없이 흐르는
힘찬 요단강을 보았읍니다.

예수께서 무릎꿇고 외로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도 무릎을 꿇었읍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졌읍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 곁에 다가섰읍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을 떠나신
갈보리 산에 올랐읍니다.
나는 오늘 예수께서 거니셨던
그 길을 걸었읍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걸었읍니다.

—다니엘 에스 투히그—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 구태여 성지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거니셨던 유대의 언덕이나 갈릴리 해변을 걸을 필요도 없읍니다. 그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영을 마음속에 지니며, 그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실천할 때 우리는 그가 걸으셨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도 그가 걸으셨던 것과 같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아버지에 대한 불변의 믿음과 타인을 위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걷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수께서는 낙담의 길을 걸으셨읍니다. 그는 거룩한 성을 보시며 이렇게 슬퍼하셨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누 13 : 34)

예수께서는 유혹의 길을 걸으셨읍니다. 막강한 힘과 유혹이 넘치는 능변을 구사하는 악마는 주야 사십 일을 금식한 예수를 유혹하였읍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유혹하였읍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시 사탄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 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다시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

치 말라" 하셨읍니다. 사탄이 다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하자 구세주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고 꾸짖었읍니다. (마 4 : 3-4, 6-10)

예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으셨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신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눅 22 : 42, 44)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받으신 고통을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외쳤읍니다. "내가 목마르다…다 이루었다"(요 19: 28, 30)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권세를 오용했기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자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실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두 유혹의 길도 걷게 될 것입니다. "악마가 인간의 자녀를 유혹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악마의 유혹이 없으면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나니…"(교성 29 : 39)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의 길도 걸을 것입니다. 쉽게 하늘 나라에 오를 수는 없읍니다. 구세주께서도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신 후에 하늘 나라에 오르셨읍니다. 우리는 종으로 구세주 이상을 기대할 수 없읍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통한 슬픔을 안겨다 주는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낳아 주는 길도 걸을 수 있읍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읍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히 5 : 8)읍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준 다음과 같은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하겠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 : 22) 불순종의 결과는 구속과 죽음이며, 순종의 보상은 자유와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봉사의 길을 걸을 수 있읍니다.

인간에게 성역을 베푸시던 예수님의 생애는 선을 비춰 주는 탐조등과도 같았읍니다. 그는 절름발이의 다리에 힘을 주었으며, 장님에게 광명을 주었으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였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일으켜 세우기도 하였읍니다.

그의 비유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네 이웃을…사랑하라"(눅 10 : 27) 고 하셨읍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 사랑에 가득 찬 이해심을 몸소 가르쳐 보이셨읍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자신을 발전시키고 완전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을 가르쳤읍니다. 그는 그의 길을 따르도록 우리의 여정을 잘 준비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 : 37)고 하셨읍니다.

끝으로 그는 기도의 길을 걸으셨읍니다. 그는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의 큰 교훈을 주셨읍니다. 첫째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눅 11 : 2)

둘째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 : 42)

세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 : 34)

우리는 기도의 길을 걸을 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으신 이러한 길을 걷겠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자와 선견자와 계시자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걷도록 권고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가 걸으신 길이므로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23년 전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젊은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으면서 예언자이신 대관장님을 처음 알게 되었읍니다. 어느 날 아침 전화가 울려 수화기를 들자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읍니다. "나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입니다. 특별히 부탁이 있어서 걸었어요. 감독님의 와드에서 5번지 옆 큰 건물 뒤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작은 집에 살고 있는 회원이 있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분은 나바호 인디안인 마가레트 버드 자매랍니다. 감독님과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그녀를 찾아보시고 우정의 손길을 뻗쳐 주시겠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무데도 쓸모없는 잊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동에 옮겼읍니다.

기적이 일어났읍니다. 마가레트 버드 자매는 생기를 되찾았읍니다. 절망이 사라졌읍니다. 고난 속의 미망인이 교회의 방문을 받았읍니다. 이 간단한 인사 드라마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한 걸음 향상된 모습을 하게 되었읍니다.

사실 진정한 목자는 아흔 아홉의 양을 두고 잃은 하나의 값진 영혼을 찾아간 사도였읍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걸으셨읍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걸을 때 우리 모두 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구세주께서 내민 손을 꼭 잡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옛날 호숫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름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오실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때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요 21: 22)고 말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성취하여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분은 명령을 하시며, 따르는 사람에게 현명한 자건 어리석은 자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나 목수의 아들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위대한 교사 이상의 품격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상을 새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짓거나 군대를 이끌지도 않으셨읍니다. 그분은 왕관을 쓰셨거나 홀을 드셨거나 왕의 옷을 입으시지도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없는 용서와 다 못할 인내, 한없는 용기를 지니신 분이었읍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변화시켰읍니다. 그분은 인간의 습관, 의견, 야심까지도 변화시켰읍니다. 인간의 기질과 성격과 인품까지도 변화시켰읍니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켰읍니다.

여러분이나 나에게 선임 사도인 베드로로 더 잘 알려진 어부였던 시몬을 생각해 봅시다. 성격이 성급하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던 밤을 생각하며 비통에 차 눈물을 흘렸읍니다. 구세주로부터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꾸짖음을 받은 제사들, 위선자로 낙인 찍힌 장로들, 무지한 자라고 꾸짖은 서기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읍니다. 가장 잔인하고 위험스런 적이었던 사두게인들도 그곳에 있었읍니다. 그 무리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친"(막 14 : 65) 밤이었읍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으며,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근심했던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읍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좇아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막 14 : 54) 베드로가 구세주를 세 번 부인하여 그의 예언을 성취한 날이 바로 그날 밤이었읍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속에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면서 침묵을 지키시다가 베드로를 쳐다보셨읍니다.

어느 역사가는 베드로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였읍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베드로는 더 이상의 위험을 몰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새벽이 밝기를 바라며 밤을 맞았다. 간장을 찢을 듯한 회오에 젖은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며, 그 순간 그의 과거의 삶, 수치, 약점, 자아가 슬픔과 함께 죽어 갔고 그는 새롭고 고상한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었다."(후레데릭 더블류 파라, 예수의 생애, 오래곤 포틀랜드 : 파라 출판사, 1964년, 604페이지)

다소 사람 사울이 있었읍니다. 그는 현대의 경전학자들에 의하여 주옥같은 내용이 발견된 랍비 학문에 정통해 있던 학자였읍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기록이 바울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자 그는 이렇게 외쳤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 : 24).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를 만났으며 모든 것이 새로와졌읍니다. 그날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바울은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 : 22, 24)고 사람들에게 강조하였읍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구세주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말한 것처럼 그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나오라"(요 11 : 43)고 말하고 계십니다. 의심에서 비롯되는 낙담에서 일어서십시오. 죄의 슬픔에서 일어서십시오. 불신앙이라는 사망에서 일어서십시오.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예수께서 길을 걸으면서 구세주께서 주신 간증을 기억합시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니삼 11 : 10-11)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 (교성 110 : 4)

이상의 간증에 나의 것을 더하겠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날 그의 예언자인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지지되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1974년 4월 7일 일요일 아침 모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영적인 탐구와 의로운 삶으로 주님의 계시를 이해함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롬니 부대관장님께서 성신을 주제로 한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나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크게 영감을 받았읍니다.

불안전한 세상에서 교회의 회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계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새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를 지지했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권능을 가진 예언자가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드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또한 감사하는 것은 그 계시가 예언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총관리 역원이 모두 계시를 받을 수 있읍니다. 또한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지역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는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더욱 밝은 빛과 깊은 지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항상 듣고 있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가족을 인도하기 위해 롬니 형제가 말씀하신 그 계통을 통해 영감과 계시를 받을 수 있읍니다. 우리 모두가 각기 계시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인도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가질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고대 예언자들은 그들이 받은 계시를 기록해 두었읍니다. 이 기록과 그들이 계시를 받을 때의 사정에 대한 성스러운 역사를 함께 묶어 경전을 만들었읍니다. 성경은 가장 좋은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읍니다. 즉 성경을 읽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계시의 책인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할 때 "어디서 그러한 계시를 받았읍니까? 이 책들은 어디서 나왔읍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고대의 예언자들이 준비한 기록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 번역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현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온 천사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언자가 주님과 직접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의 설명을 이상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들은 성경 시대에 확실히 있었던 계시가 오늘날에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선가에서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만져 보고 시험해 보고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말합니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그러한 경전이 참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한 그들을 접할 때 몇 년 전에 휴 니블리 박사가 쓴 한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를 여기서 일부 소개해 보겠읍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들에 나가 땅을 갈다가 금강을 하나 발견했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그 돌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내어 보였으며 모두가 각기 조금씩 떼어 갔읍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구한 판단을 내렸읍니다. 한 심리학자는 몇 가지 유명한 사례 연구의 자료를 들면서 그 젊은이는 흔히 알려진 망상증에 걸려 있다고 말했읍니다. 한 사학자는 그곳에서 금강석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금강석이 아니었다고 말했읍니다. 한 지질학자는 그 지역에는 금강석이 나지 않으며 석영뿐이라고 말했읍니다. 그 젊은이는 석영이라는 지질학자의 말로 비웃음을 받았읍니다. 그 돌을 직접 조사해 보라는 청을 받았을 때 그 지질학자는 피곤한 듯이 웃음을 띄우며 조용히 머리를 가로 저었읍니다. 한 영문학자는 그 젊은이가 그 돌을 설명할 때 사용한 말이 다른 사람들이 깎지 않은 금강석을 설명할 때 사용한 말과 완전히 같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당시에 흔히 쓰이는 일반적인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4개의 대도시에 있는 원예사 177명 중에 단 3명 그 돌이 금강석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읍니다. 한 성직자는 그 돌을 발견한 것이 그 젊은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책을 썼읍니다.

"마침내 한 가난한 보석상이…그 돌이 진짜 금강석인지 아닌지는 감정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누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있는지 혹 누가 그를 믿으며, 그가 금강석과 벽돌을 구별할 줄 아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금강석이 발견된 적이 있는지, 사람들이 석영이나 유리를 금강석으로 잘못 안 일이 있었는지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강석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잘 알려진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을 했읍니다. 금강석 전문가들이 모였읍니다. 그 중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진짜 금강석이라 했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를 너무 중대하게 다룸으로써 자기의 권위나 명성을 해칠 수가 없다고 말했읍니다.

이같이 하여 만들어진 나쁜 인상을 숨기기 위해 어떤 사람은 그 돌은 인간이 매우 기술적으로 만든 금강석이라는 이론을 들고 나왔읍니다. 그 돌은 진짜와 꼭같은 가짜 금강석이라는 것이었읍니다. 이에 대해 농사군인 그 소년이 진짜 금강석을 발견한 것보다 합성 인조 금강석을 만든다는 것은 더 큰 업적이라는 반박도 나왔읍니다."
(사막의 리하이와 야렛인의 세계, 북크래프트사, 1952년, 136-37페이지)

우리가 이와 같은 경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그 경전을 어떤 곳에서 받았읍니다. 오랫동안 그 경전의 출처에 대해 많은 설명과 이론이 나왔읍니다. 이러한 이론이 대부분은 이 책을 많이 읽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요셉 스미스가 그 책들을 지었으며 출판해 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 스미스는 마땅히 비난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이론은 요셉 스미스에게 너무 큰 명예를 주고 사실보다 그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요셉 스미스를 전무후무한 천재로 만들기 때문에 나는 이 이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읍니다. 나는 그가 그같은 천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가 아무 도움도 영감도 받지 않고 경전을 만들었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생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전은 요셉 스미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읍니다. 그는 그같은 일을 제외하면 고대의 예언자나 오늘날의 예언자처럼 보통 인간입니다.

이 계시의 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 증거로 처음 그 경전이 출판되었을 때의 내용과 현재 출판된 책의 내용에서 달라진 성구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이 계시를 말하는 것처럼 그 성구의 변경된 부분을 들추어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들만이 그것을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변경되고 수정된 곳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만 살펴본 사람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읍니다. 그러한 것을 합당하고 바르게 살펴 검토하게 되면 그와 같은 교정 부분이 오히려 그 책의 진실함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농부였읍니다. 그가 쓴 편지의 원본을 읽어 보면 철자와 문법과 표현에서 오류와 세련되지 못한 면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그를 통해 주어진 계시가 세련된 문장이 아니라고 해서 기적적인 이 사건을 위축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완성시킬 때에 경전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이제 저는 경전에서의 그같은 성구 변경은 기본적으로 문법과 표현과 구두점과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약간 다듬은 것 뿐임을 강조합니다. 기본적인 것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단상에서 하느냐 하면 그것은 너무 미소하고 중요하지 않아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것은 그 책들이 참되다는 사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고대의 예언자 모로나이는 계시의 기록을 편집한 후에 이렇게 말했읍니다. "만일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이는 인간이 저지른 것이라. 비록 우리는 과오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다 아시는지라, 비난하는 자로 저희가 불에 던져지리라는 것을 알게 하라."(몰 8:17)

"또한 이 기록을 받고 나서 이의 완전하지 아니함을 비난하지 않는 자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니라…"(몰 8:12)

어떤 돌의 성질을 알려면 시험을 해보아야만 그것이 점판암인지 사암인지 알 수 있읍니다. 이러한 시험을 거친 후에야 그는 결론적으로 "그것이 금강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의 결론이 정확할지라도 금강석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읍니다. 또 잘못된 방법을 택하여 감정을 해도 그 진부는 알 수가 없읍니다. 천 가지의 방법으로 시험해 보아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읍니다.

오직 올바른 방법을 택해야만이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읍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것이 금강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은 무용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 다른 갖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계시를 알아보는 일을 거듭해 왔읍니다. 그 각 방법은 다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 : 14)

우리가 이야기해 온 바와 같이 이 경전이라는 금강석은 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된 금강석이 진품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 금강석을 잘 알려진 방법으로 시험해야 하듯이 경전도 잘 알려진 시험 방법으로 시험해 보아야 그것이 참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방법이 있읍니다. 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자세에서 영적인 탐구의 자세로 바꾸어야 합니다.

경전을 탐구할 때 별로 성의를 들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불성실한 태도로 경전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은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이며 당연한 귀결입니다. 만일 열성을 기울이지 않고 탐구하거나 사소한 호기심으로 탐구를 하거나 또는 의도는 좋았으나 일시적으로 탐구를 해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 광신적인 태도로 탐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통해 성실하고 겸손하게 탐구할 때 확실히 알 수 있읍니다. 진리의 많은 요소들은 일생토록 준비한 뒤에만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리에 대한 간증은 매우 빨리 얻을 수 있읍니다. 노소를 불문하고 겸손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간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학문이나 과학 분야에서 얻는 지식보다 차원이 높은 간증을 갖고 있읍니다. 겸손한 사람이 영적인 탐구와 의로운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간증을 할 때 그가 학식을 쌓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간증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많은 학문의 대가들이 영적으로는 부진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학자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허약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난파된 배의 선원이 되어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려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생활이 무절제하거나 불손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의 간증을 조심하십시오. 그는 진리를 파괴하려는 자입니다.

예언자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이야기는 죄 있는 자들의 마음 한복판을 찌를지니, 이 진리를 심하다 이를지니라."(니일 16 : 2)

이 고대 예언자는 또한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또 그가 "기록으로는 말할 때처럼 힘찬 무엇을 전하지 못하나니 이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성령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함이라. 그러나 보라 성령을 거역하여 마음을 강퍅하게 한 자가 많으니,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할 곳이 없도다. 그러므로 저들은 기록된 많은 것을 던져 버리며, 이를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도다."(니이 33 : 1-2)

그는 계속해서 그가 기록한 말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읍니다. "예수를 전하여 저들로 예수를 믿게 하며, 끝까지 견디어 영생을 얻도록 권고함이라.

"간결한 진리의 뜻을 좇아 죄를 엄하게 다스렸음에 악마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면 결코 내가 기록한 것으로 하여 성내지 아니하리라."(니이 33 : 4-5)

신약전서에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경고의 말씀이 있읍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공회의 판결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한 천사에 의해 풀려났으며 재차 공회에 서게 되었읍니다. 그들은 여기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읍니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행 5 : 32)

공회의 몇몇 재판관들은 사도들을 죽이려 했으나 율법학자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행 5 : 35)고 현명한 충고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는 두 설교자의 예를 들어 이야기했읍니다. "그도 망한즉 좇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행 5 : 37-39)

교회는 끊임없이 계시를 받고 있읍니다. 예언자는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으며 스테이크 부장은 스테이크에 대한 계시, 선교부장은 선교부에 대한 계시, 정원회 회장은 정원회에 대한 계시, 감독은 와드에 대한 계시,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계시, 그리고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계시가 주어졌읍니다. 아마 언젠가는 지금까지 받아 기록된 계시가 다시 책으로 출판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9조)라는 말씀에 기대를 갖고 있읍니다.

한 가지 방법과 약속을 말해 주는 교리와 성약의 성구 한 귀절을 결론으로 인용해 드릴까 합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리와 성약 93 : 1)

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깨끗하게 뜻과 마음과 몸을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성결케 되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이르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여 주시리라"(교성 88 : 68)고 말씀하셨읍니다.

계시는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계시를 시험해 보았읍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총관리 역원 중 열 다섯 사람은 사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받고 지지받았읍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권세이며, 우리는 모두 구함으로써 이 금강석이 모조품이 아닌 참 금강석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를 만들라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교회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주님과 가까이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속의 느낌을 감출 길 없는 대회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에 부름받고 이제 교회 회원 여러분의 지지를 받았읍니다. 오늘 아침 이 대회에서는 개인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려 보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의 총관리 역원에 대해 큰 사랑과 존경심을 갖도록 가정에서 교육받으면서 자랐읍니다. 내가 초등협회 졸업 필수 요건으로 십이사도의 이름을 외우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암기할 내용은 물론, 각 사도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 일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로저 크로슨으로부터 찰스 에이 칼리스에 이르기까지 위대했던 사도들의 이름을 외워 보라고 하신다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빨리 외울 수 있으며 그들의 생애에 있었던 일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을 깊이 생각하다가 문득 만일 어느 가장이 가정의 밤에 자녀들에게 십이사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이 되었읍니다. 생각이 이쯤 미치자 나는 불안하기까지 하였읍니다. 과연 그 가장은 나에 대해 무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읍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기억을 더듬어 보다가 나는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할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들려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나에 관한 소개를 한 가지 찾아 냈읍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가정에서 자랐읍니다.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한 다음과 같은 훈계의 뜻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엡 6 : 10-11, 14-16)

우리는 매일 아침 집에서 옷을 입게 되는데, 부모는 악천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나 비옷이나 장화를 신길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도 조심스럽게 입히고 계십니다.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드릴 때, 신권을 소유하신 아버지께서 악의 무서운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우리는 다시 한겹의 믿음의 방패를 더 얻게 됩니다. 우리의 방패가 강할 때 자녀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읍니다.

그러한 방패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잠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읍니다. 내가 군에 있을 때 휴가를 받던 날 해병 동료들은 나에게 멋진 제의를 해 왔읍니다. 나는 그들과 어울려서 한참 시간을 보낸 후에야 그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때서야 나는 그들이 나를 초청한 이유를 알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의 표준을 알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시도한 장난이었읍니다. 그들이 기지로 돌아올 때에는 내가 술취하지 않고 냉정한 정신으로 그들을 안전히 데리고 기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읍니다.

우리는 로스앤젤리스에서 댄스 홀로 향하는 전차를 탔었읍니다. 그들이 벌써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으므로, 나는 이들을 떠나려고 결심을 하였읍니다. 이때 나에게는 보호의 방패가 씌워졌으며,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하시던 기도가 생각났읍니다. 전차가 정거하였고, 승객이 올라탔읍니다. 새로 탄 승객이 나와 친구들 사이에 서서 우리를 갈라 놓았고, 나를 뒷자리로 밀었읍니다. 여기서 나는 점잖은 청소년 그룹을 발견하였읍니다. 그들 중에서 한 청년이 나를 보자마자 "해병 아저씨 우린 몰몬이예요. 우리 교회에 관해서 좀 아세요?" 하며 말을 걸어왔읍니다.

나는 "잘 알지"라고 대답하고는 그들과 함께 전차에서 내려와 사교 모임에 참석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믿음의 방패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무서운 악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합당한 때에 천사와 같은 아내를 만나 주님의 신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받을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를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았읍니다. 나는 그것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하루의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가정을 떠날 때, 가정을 축복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족에게 축복해 주는 가장의 기도를 듣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하루가 되겠읍니까?

킴볼 대관장님께서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부름을 나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것이 거룩한 부름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창 41 : 38)이라고 한 이집트의 바로와 그 요셉을 구별해 주는 속성을 대관장께서 지니셨음을 압니다.

나는 이 정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여 대관장님이 지신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벤슨 회장님께 사랑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위해 전심을 다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나를 마음껏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깊은 유대를 맺고 일했던 헹스 장로와 파우스트 장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분은 내가 이 큰 부름

을 받아 해야 할 일들을 알도록 나를 훈련해 주셨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는 참으로 주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와서 모두 함께 일합시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짓는 일을 도와 여러분과 악인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갖게 되길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1974년 4월 9일 토요일 오후 모임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킴볼 대관장은 오늘날 주님의 대변자이십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식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임 대관장을 맞게 되었읍니다. 정말 뜻깊은 순간이 아닐 수 없읍니다.

교회사 144 년을 통해 열 두 번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읍니다. 오늘 아침 태버나클에서 가진 성회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교회의 대관장으로, 또한 주님의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성도들의 지지를 받았읍니다.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읍니다. 성령의 확인이 그곳에 충만하였읍니다. 태버나클에 있던 사람은 누구나 거룩한 영이 임재해 있음을 느꼈읍니다.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에게도 그 느낌이 전달되었읍니다. 모세의 시대처럼 "모든 백성은 아멘" (신 27장 참조)을 드높이 외쳤읍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택함을 받았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를 수년 동안 이끌어 오고,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의 서거 이후 오늘까지 잠정적으로 대관장의 일을 맡아 오던 킴볼 대관장이 전교회 회원들로부터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요 주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대변자로 지지되었읍니다.

그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 높은 직분을 받아들였읍니다. 겸손하고 거만하지 않은 성품이지만 놀라운 힘과 창의력과 통찰력을 지닌 분이며, 매사를 실천에 옮기는 실천가입니다.

사도로 봉사한 30년 동안 그가 바친 놀라운 힘과, 끊임없는 열의와, 희생과, 하나님 왕국 건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의 뜻은 온 교회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무한히 큰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성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의 건강도 그가 이처럼 위대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읍니다. 이것은 그의 부름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받았음을 입증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읍니다.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놀라운 힘을 행사함에 있어 그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결코 잊지 않았고,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읍니다.

그와 같은 힘과 열의 이외에도 그의 친절, 사랑, 겸손, 타인과 그들의 문제에 대한 이해심, 남을 도우려는 마음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고,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 주었으며,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었으며, 그들을 주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였읍니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언제라도 사랑과 친절과 부드럽고도 동정적인 손길로 그 안에 도움을 주었읍니다. 그러나 의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조금도 자신의 의무를 멀리하지 않고 신앙과 기도와 고귀한 성품에 힘입어 문제에 접근해 갔읍니다. 그 결과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것도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읍니다.

항상 인간으로서의 제약을 자각하면서도 그는 이것이 주님의 사업이며, 주님께서는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겸손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읍니다.

킴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니파이의 말을 굳게 믿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 : 7) 이것이 그의 신앙의 바탕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주님의 프로그램은 전과 다름없이 전진할 것인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을 통하여 일을 하시며 지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또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회원이 만장일치로 새 대관장을 지지함으로써 그들은 그를 따르겠다는 막중한 책임을 다짐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증거해 보였읍니다.

그들의 지지는 하나의 성약으로, 주님과 수많은 태버나클 참석자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지켜 본 증인 앞에서 거수로서 행해졌읍니다.

우리가 대관장을 지지할 때 그의 지시를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그는 오늘날 주님의 대변자이시며, 이러한 사실은 뜻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시절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지도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성신으로 감동되는 대로 말하여야 함도 저들에게 주는 하나의 예니라.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68 : 3-4)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새로운 대관장을 지지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성스러운 약속을 다짐했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계시를 통해 이러한 말씀을 주셨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라." (교성 84 : 44)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받았겠읍니까? 그의 예언자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방법이었읍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이런 계시를 주셨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 : 7)

이것은 구약 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이 사실에는 변화가 없읍니다.

144년 전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의 지도자가 그의 대변자가 되지, 스스로 지명한 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원리를 회복하시면서 이같은 하나님의 방식을 분명히 밝혀 주셨읍니다.

1830년 4월 6일 주님께서는 새로이 지명된 교회의 대관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의 대변자가 된다고 선언하셨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를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정하셨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회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너희는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교리와 성약 21 : 4-5)

그리고 우리가 이를 따를 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읍니다.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흩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교리와 성약 21 : 6)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읍니까? 이 성구는 우리가 오늘의 지지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위대한 원리와 교훈을 지적해 주었읍니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한 시대에 한 사람의 머리밖엔 있을 수 없으며, 그 사람은 오늘 킴볼 대관장님처럼 선택되고 지지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그러한 직을 차지할 수는 없읍니다. 그는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히 3 : 4 참조)

주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행할 사람을 은밀히 성임하시는 법이 없었읍니다. 모든 일이 공개적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성임되고 또 저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의 머리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울 권능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교성 42 : 11)

다시 주님께서는 "모든 일은… 교회 회원의 만장일치로 수행되어야 하나니"(교성 26 : 2)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회원에게 알리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또 "본 교회에서 정식으로 조직된 지부가 있는 곳에서는 그 교회 회원의 거수 지지 없이는 어떠한 직책에도 성임될 자가 없느니라."(교성 20 : 65)

"나는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이 모든 직분을 모두 채우며 내가 이름을 든 자들을 나의 일반 총회에서 승인하거나 부인해야 하느니라"(교성 124 : 144)고 하셨읍니다.

이 말씀은 모든 예찬자나 거짓 교사나 거짓 지도자를 배격하고, 교회에는 그 머리에 하나의 분명한 지시자가 있을 뿐이며, 그가 계시에 의해 선택되어 교회의 일반 총회에서 회원의 지지를 받은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라는 사실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지지를 받은 분이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입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은 오늘 우리가 행한바 있는 것과 같은 대관장의 지지 절차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시온에 제정하신 하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복음의 왕국, 데저렛 출판사, 1943년, 143페이지)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전할 대변자를 한 사람만 택하셨읍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계시를 전하고자 할 때에나 새로운 교리를 밝히고 징계를 주고자 할 때는 그가 그 일을 부르고 지명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 일을 행하십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데저렛 출판사, 1925년, 212페이지) 바로 그분이 교회의 대관장님이십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며, 여러분이 맡은 바 의무를 다한다고 여기실 때 여러분이 실족하도록 버려 두시지 않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212페이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도 이렇게 말했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원하시지 않을 때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에 부름을 받을 것인가를 염려할 필요가 없읍니다."(치호머 더럼 편, 복음 표준,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9년, 68페이지)

그렇다면 킴볼 대관장님은 어떤 권능을 지니고 계실까요? 그는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천사가 전해 준 열쇠와 권능을 모두 받아 지니고 계십니다. 그는 권능을 지닌 자의 안수로써 이러한 모든 권능을 받았읍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거니와 그는 이미 그러한 권능을 소유하였고 그것을 킴볼 대관장님에게 줄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사람의 안수로 모든 권능을 물려 받았읍니다.

교회의 역대 대관장은 모두 이 모든 열쇠와 권능을 지녔었읍니다. 어떠한 대관장도 이 열쇠없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읍니다. 교회도 그러한 것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만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이러한 열쇠와 권능을 지닌 채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와 같은 사업을 이룰 수 있었겠읍니까? 이 사업은 그러한 열쇠나 권능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읍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가 계속해서 지녀야 할 필요가 있는 권능입니다.

만일 요셉이 죽은 자를 구원하는 열쇠를 가지고 죽었다면 우리는 신전 사업을 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주님의 권능없이 모든 민족과 방언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읍니까?

만일 요셉이 이스라엘 집합의 열쇠를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집합할 수 있었겠읍니까?

우리의 개척자 선조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여 산꼭대기까지 올라왔으며, 이곳에 교회의 본부를 세웠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읍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전세계적으로 주님의 백성의 집합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집합의 열쇠를 지녔던 모세가 이를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넘겨 주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읍니다.

하나님의 권능없이 세계 도처에 교회의 스테이크가 조직될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천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전해 준 권능이 교회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에 남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읍니다. 그러한 권능은 언제나 교회의 대관장이며 예언자요 선견자이며 계시자인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됩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없읍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사업을 지시하시고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모스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은 진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 : 7)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하나님의 성도에게 권고하노니 모두 맡은 바 부름을 영화롭고 성스럽게 이행하도록 의연히 나서며, 부름받은 직분과 맺은 성약을 온전히 지켜 증거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 권능과 열쇠와 신권을 지지하십시오.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이 여러분을 지켜 보고 있읍니다. 사업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매티아스 에프 카우리 편, 윌포드 우드럽,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09년, 657페이지)

나는 구속주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은 내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진실임을 내게 알려 주셨읍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살아 계십니다. 이 교회는 그의 교회입니다. 구세주인 예수께서 이 사업을 지도하십니다. 킴볼 대관장은 그의 예언자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내가 지닌 성스러운 신권의 권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주의 그릇을 가진 자여 깨끗할지어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깨끗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이제 "…주의 그릇을 가진 자여 깨끗할지어다"(교성 133 : 5)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읍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킴볼 대관장님은 예언자시며 주님의 대변자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분이시며, 태너 부대관장님은 계시에 의해 대관장님의 보좌로 부름을 받으신 분임을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이 두 분을 온 마음을 다하여 지지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께 베드로가 그의 시대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벧전 2 : 9)라고 말했을 때의 그분의 심정과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는 온 백성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아들로서 전세에서 있었던 천국 회의에서 아버지로부터 복음 계획을 들었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하여질 것이요,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아브라함서 3 : 26)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에 육체가 "더하여져"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지체를 잘 지켰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상에서 두 가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둘 중의 하나는 신권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신권이 없이는 이 영광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주님은 "…이 신권에 이르지 못한 모든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읍니다.

우리 신권을 받은 형제들은 신권의 부름을 충실히 할 때 더욱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권에 따르는 성약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에 귀기울이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주 신권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권을 받고 그 신권의 부름에 충실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지금 인용하고 있는 84편 계시의 첫 부분에서 주님은 신권 소유자들을 신권 반차에 따라 모세의 자손이라 여기고 아론 신권 소유자를 아론 신권 반차에 따라 아론의 자손이라 여겨 그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권을 받고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음 약속을 주셨읍니다.〕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

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여기서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히 더해지며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됩니다.〕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나니 〔주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우리는 이를 깨뜨릴 수 있으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를 깨뜨립니다. 다음은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들인 뒤에 이를 깨뜨리는 자는 〔즉 신권을 존중하고 그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성약을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 성구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권을 받아들이고 또 신권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그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 후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잃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계명 하나를 주어 너희 스스로 조심하게 하노니, 곧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권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라."(교성 84 : 33-44)

위의 말씀은 "1847년 1월 14일 아이오와주 카운실 브라프스 근처의…이스라엘의 진영" 에 대해 브리감 영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교성 136 : 머릿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직 순결하지 못함이라. 아직 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충실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말씀을 모두 지키면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의 때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로부터 예수와 그의 사도까지, 예수와 그의 사도로부터 요셉 스미스까지 이른 것이니" 〔우리는 이를 다시 킴볼 대관장까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성 136 : 37)

나는 우리 각자가 맺고 있는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에 따르는 조건을 생각해 볼 때 그 큰 축복의 약속에 다만 경외함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다만 머리가 숙여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영생의 말씀"은 수없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하여 더욱 그 말씀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 : 8)는 계명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하겠읍니다.

오늘날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 크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처음으로 미조리주 인디펜덴스로 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시온을 건설하고 그곳에 살기 위한 지켜야 할 몇 가지 표준을 주셨읍니다. 주님께서 크게 강조하신 표준 중의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읍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

"…이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

"또 이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여 네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도록, 바꿔 말하면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어다."(교리와 성약 59 : 9-10, 12-13)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시온의 주민은 안식일을 준수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느니라."(교성 68 : 29)고 말씀하셨읍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살 필요가 없읍니다. 시온성에는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오락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냥이나 낚시를 할 필요가 없읍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의욕으로 충만하다면 안식일에는 방금 전에 교리와 성약에 나온 주님의 지시에 좇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명심하여"야 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영생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읍니다.

"…주의 그릇을 가진 자여 깨끗할지어다."(교성 133 : 5; 38 : 42 참조)

"…오 너희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로 심판받게 됨을 기억하라.

"너희가 시험의 날들을 완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마당에서 불결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불결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음에 영원히 버림을 받을 것이라."(니파이일서 10 : 20-21)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은 더럽지 아니하며, 청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매…"(니파이일서 15 : 34)

6백 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청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끝까지 충실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니삼 27 : 19)라고 말씀했읍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은 대회에 모인 형제들에게 "악인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주의 그릇을 지닌 너희여 깨끗하라…"(교성 38 : 42)고 말씀했읍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인에게 한 바울의 다음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 : 16-17)

우리가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경계를 해야 할 청결치 못한 일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혜의 말씀으로 주셨읍니다.

"…너희 중에 포도주나 독한 음료를 마시는 자 있으면 보라, 이는 좋지 아니하고 또 너희 아버지 보시기에도 합당치 아니하나니…담배는 몸이나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니… 또 뜨거운 음료는 몸이나 위장에 좋은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89 : 5, 8, 9)

어떤 종류의 습관성 약품이라도 사용한다면 이는 지혜의 말씀에 위배되며 육과 영을 더럽힙니다.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신권 소유자는 무엇이나 허용하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불결한 요소를 역병처럼 여겨 피해야 합니다. 그러한 불결한 요소는 문학이나 연극 혹은 영화 그리고 오락장이나 그 밖의 도처에 산재해 있읍니다. 하나님은 불결한 신전을 그의 면전에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에 크게 만연하고 있는 가장 추하고 퇴폐적인 악의 하나는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 "간음하지 말찌니라"(출 20 : 14)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 두고 있어야 하겠읍니다.

간음의 벌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죽음입니다. 타락을 허용하는 이 시대에서는 간음을 범하고도 벌을 받지 않지마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율법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 그 죄는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로 규정합니다. 그 죄의 형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간음한 자로서 용서받지 못한 자는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수행하지 못합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주님께서는 "결혼한 자의 간음과 결혼하지 아니한 자의 간음에 차별"(1949년 10월 대회 보고. 194페이지)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늘 말해 왔읍니다. 나는 여기에 추가하여 간음과 성도착에 주님께서 차별을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을 제시하셨읍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 : 27—28)

이 말씀 다음에 주님은 이 죄의 중대함을 강조하시면서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즉 그 오른 눈 때문에 네가 실족하게 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마 5 : 29)라고 계속 말씀을 이으셨읍니다,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여 영생을 얻고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을 영원토록 더하여" 지게 하기 위하여 신권 소유자들은 "…주의 그릇을 가진 자여 깨끗할지어다."(교성 133 : 5)란 주님의 계명을 온 정성을 다하여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읍니다.

이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 신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신회를 구성하는 한 분이며 교사, 증거자, 계시자, 동반자인 그의 사명과 성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해 달라고 한 개회 기도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바로 이에 관한 것이므로 이야기 하는 동안에도 함께 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말이 단지 무익한 단어의 연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개조 제 1 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일 년 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이야기했고, 육 개월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읍니다. 오늘 우리는 성신에 관해 밝혀진 진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전은 성신에 관하여 말해 주고 있읍니다. 경전은 성신을 보혜사,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또는 주님의 영이라고도 말해 줍니다.

경전에 의하면 성신은 사람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이 없으시고 다만 영적 존재시니라…"(교성 130 : 22)

예수님은 성신을 남성 인격체로 보셨읍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한복음 16 : 7)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요한복음 16 : 13-14)

제임스 이 탈매지 박사는 다음과 같이 썼읍니다. "성신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영과 니파이의 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성신은 예언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였으며, 인간과 얼굴을 대면하고 소망과 믿음에 관하여 묻고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그에게 지시하였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처럼 나는 마치 사람에게 하듯 그분께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셨음을 보았음이며 그가 주의 영임을 알았음이라. 그리고 주의 영이 또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성신에 관한 설교집, 엔 비 런드월 편집, 북크래프트사, 1959년, 13페이지)

제자 요한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신이니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일 5 : 7)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것은 목적에 있어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언자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이 셋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셋은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권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로써 만물이 창조되었읍니다. …이 셋은 신회를 구성하며 하나입니다."(브르스 알 멕콩키, 몰몬 교리에서 인용, 북크래프트사, 1966년, 320페이지)

신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하나님

과 그의 아들과 하나가 됨으로써 성신은 하나님과 아들과 같이 전지 전능합니다. 그는 "사물에 대한 지식"(교성 93 : 24)을 가지고 모든 진리를 알고 있읍니다.

주님의 빛이 "하나님 면전에서 나아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교성 88 : 12)듯이 성신의 "영향력, 권세, 은사"는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읍니다.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행 11 : 15),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눅 1 : 15)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 : 38) "성령을 받으라"(요 20 : 22), "불과 성신의 침례"(교성 20 : 41) 등과 같은 성구에서 말하는 성신은 인격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능과 영향력과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신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담에게 그가 드리는 희생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모세서 5 : 7)라고 말했던 날 "아담에게 성신이 임하"(모세서 5 : 9)여 하나님과 아들을 증거하셨읍니다.

예수께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마 3 : 16)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였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거나 이미 알았던 사람은 모두 성신의 증거를 받았읍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 : 3)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에는 이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읍니다.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읍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 : 17)

성신은 하나님과 아들의 신성을 증거할 뿐 아니라 진리도 증거하며 특히 복음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읍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로 이 기록을 읽게 하실 때에…영원하신 하나님 아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마음 참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나이서 10 : 3-4)

그리고 그는 커다란 약속을 덧붙여 주셨읍니다.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 (모로 10 : 5)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성신의 권세로써 복음이 진실됨을 증거하고 있읍니다.

성신은 진리를 증거할 뿐 아니라 진리를 밝혀 주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 : 15)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곧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 : 16, 26)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잡은…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누가복음 12 : 11-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 : 12-13)

성신은 우리로 하여금 경전을 이해하도록 도와 줍니다. 성신은 경전이 담고 있는 복음 진리를 밝히 보일 뿐 아니라 예언자에게 계시의 영을 보냅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 : 20-21)고 베드로는 말했읍니다.

기록에 의하면 태초에 "아담에게 성신이 임하셨더라…

"그날에 아담은 하나님께 복을 돌리며 성신으로 충만하였겠고 세상의 모든 권속에 관하여 예언하기 시작하였" (모세서 5 : 9-10)읍니다.

그 후로 이것은 계속되었읍니다. 누가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눅 1 : 67)하였다고 지적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로써… 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교성 121 : 26)고 주님께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신 약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 줍니다.

지시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며,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은 후 안수례에 의해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 : 14-17)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러 제자를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읍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느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사도행전 19 : 2-6)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장로의 의무로써 주님은 "경전의 말씀에 따라 불과 성신의 침례를 주는 안수례를 베풀" (교성 20 : 41)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주님은 몇 명의 형제를 선교사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 백성 가운데 나가서 베드로라 하는 나의 옛 사도처럼 저들에게 고하여 이르기

* 역자주 : 성경 상에는 성신과 성령이 혼용되어 있다. 여기에서 성령이란 성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를…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회개하여 거룩한 계명에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받으라.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누구나 교회 장로의 안수로 성신의 은사를 받으리라 하라."(교리와 성약 49 : 11-14)

성신의 은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미치는 성령의 영향력과 영의 교화, 지침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엔다우먼트입니다.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 하겠읍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미 언급한 불의 침례를 뜻합니다.(눅 3 : 16 참조) 이것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음에 말씀하신 "성령"의 탄생을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 : 5)

성신의 은사는 용서의 기적을 이루어주며 죄로 병든 영혼을 고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 회원에 의해서 성신의 은사를 받는 점에서 다른 교회나 종교 단체와 구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다른 조직과 다른 점입니다.

1839년 워싱턴 디시에서 반 뷰렌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던 요셉 스미스와 일라이어스 히그비 형제는 하이람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읍니다.

"대통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떤 점에서 다르냐고 질문했읍니다. 요셉 형제는 침례 방식과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가 다르다고 대답했읍니다. 우리는 모든 다른 점이 성신의 은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교회정사, 제4권, 42페이지)

그렇습니다. 이는 성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신의 은사란 "계시의 영이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를 인도하여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영이라"(교성 8 : 3)고 말씀하셨읍니다.

교회 회원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며, 그의 복음은 구원의 계획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증을 갖게 하는 것이 성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모두 진실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성신은 내게 그것이 진리임을 알려주었읍니다. 성신의 권세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우리가 그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복음은 진실하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교회이며,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이 교회를 관리하도록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언자이며, 성신은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증인이고, 그의 권세로써 모로나이의 말처럼 우리는 "온갖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교회 장로의 안수로써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를 받고 성신의 지침을 따르기를 권고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구세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영접할 준비를 갖추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 가운데 오는 그날에 내가 열 처녀에 관하여 이야기한 비유가 성취되리라.

"지혜로와서 진리를 받아들이며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지 아니한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리워 불 속에 던지우지 아니하고 그날을 견딜 것이요,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니, 번성하여 강하여지고 그 자녀들은 죄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

"이는 주께서 저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요, 주의 영광이 저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주께서 저들의 왕과 입법자가 되실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45 : 56-59)

우리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준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1974년 4월 7일 일요일 아침 모임

무덤에서 삼 일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교회 축복사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진보의문을 열어 주었다

지난 봄에 나는 아내와 함께 성지를 방문하였읍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마지막 날 우리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동산에 올랐읍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곳엔 우리 외에 아무도 없었읍니다. 마음에 외경의 느낌이 가득 찼었읍니다. 우리는 해골의 언덕이라는 골고다 산상을 한동안 응시해 보았읍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었던 세 개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유대왕 그리스도"라고 써진 표말을 상상해 보았읍니다.(마 27 : 37 참조) "과연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의 대가를 지불했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시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리마데 요셉의 소유인 무덤에 가 보았읍니다. 여기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 그분을 안치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의 곁을 떠났읍니다. 무덤의 문을 닫기 위해 큰 돌을 굴리며 왔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남고 모두가 그곳을 떠났읍니다. (마 27 : 60-61 참조) 병사들이 무덤가에 모여들었읍니다. 무덤을 지키도록 파수꾼이 서게 되었읍니다.

경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멸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겨져 둘이 되었다"(마 27 : 51)고 합니다. 그 멸망은 이 대륙에 있었던 멸망보다도 훨씬 컸다고 합니다. 세 시간 만에 성이 온통 파괴되고 사람들이 땅에 묻혔으며 불에 타 죽었읍니다. 성이 있던 곳에 산이 솟았읍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쳤고, 암흑이 온 땅을 뒤덮었읍니다. 세 시간 동안 계속된 대파괴가 끝나고 암흑이 천지를 감싸고 있는 상태가 사흘간 계속되었으며, 이

들에게 한 음성이 들렸읍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었느니라. 내가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며 나로 인하여 아버지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백성에게로 왔으되 저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올 것에 관하여 기록된 경전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니파이삼서 9:15-16)

그는 백성들이 사악해졌으므로 멸망이 이를 것이며, 다만 의로운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셨읍니다. 그가 부활하신 후 올 때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는 그들에게 회개하면 받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가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읍니다. "너희가 다시는 피흘리는 것으로 내게 제물로 하지 말지니 너희의 희생 제물과 번제를 폐하라. 내가 너희들의 희생 제물과 번제를 폐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희생 제물과 번제를 용납치 아니하리라.

"또한 너희가 내게 제물을 바치되,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라…"(니삼 9:19-20)

그는 또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두 차례나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마 9:13, 12:7)

그의 육신이 무덤에 있을 때 그가 행한 주요한 다른 활동은 이미 죽은 자의 영을 만나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25)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를 믿는 도적에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벧전 3:18-20)

이것은 위대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며, 죽은 후에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읍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4:6)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육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는 이 대륙의 백성에게 희생의 제물을 피한다는 말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음성이 들린 것을 들 수 있읍니다. 그가 그때까지는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후 다시 돌아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셨읍니다. 두번째 일은 그가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천사가 내려와 닫혔던 무덤의 문을 열었읍니다. 그날 아침 나는 아내와 함께 그 동산을 걸으면서 그곳에 놓였던 돌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읍니다. 무덤의 입구는 언덕에서 수직으로 깎인 곳이었읍니다. 그곳엔 작은 문이 있었는데 앞에는 큰 돌이 굴러와 문을 닫게 되도록 골이 파여 있었읍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그 주 첫날 아침 몸에 뿌릴 향료를 가지고 왔을 때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본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읍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해 주었읍니다. 그 천사는 이 두 여인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라고 말했읍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 이 사실을 전했읍니다. 그들이 달려와 보았읍니다. 나이가 어린 요한이 먼저 와 무덤 주위를 살폈으나 베드로가 온 후에야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읍니다.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으나 몸을 쌌던 천이 곱게 접혀 있었읍니다. 이에 요한과 베드로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읍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요 20:9)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 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요한복음 20:11-17)

무덤에 함께 간 다른 여인도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알리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으며 그는 그들에게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읍니다. (마 28:9)

그들은 여기서도 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알리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는 도마와 자살한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을 다 만나 보았읍니다. 후에 그는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 앞에 다시 나타나셨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요한복음 20:29)

그는 모든 제자와 갈릴리의 500명 앞에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미대륙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셨읍니다. 몰몬경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읍니다. 우리는 둘이서 동산을 걸었읍니다. 우리는 무덤 안에도 들어가 보았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느꼈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

지도 말라"(요 14 : 27)

우리는 그때 그곳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 : 25)라고 마르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읍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의 영원한 진보가 가능하게 되었읍니다. 그는 우리가 영원히 걸어야 할 길의 문을 열었읍니다.

나는 서부 뉴욕에 있는 성스러운 숲을 처음 방문해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읍니다. 아침 일찌기 숲속을 걸으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어린 요셉 스미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참으로 그는 살아 계시며, 지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영광으로 오실 때를 대비하여 지상에 그의 왕국을 다시 세우셨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이해심을 주시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974년 4월 7일 일요일 아침 모임

구세주의 성역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주님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써 그의 사랑을 보답함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구세주께서는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니삼 11 : 10)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 : 12)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그의 성역과 가르침과 기적과 대속의 희생과 부활과 영원한 영광에로의 승천에 관하여는 수많은 사람이 적었고 설교하였읍니다. 그는 진실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요 6 : 38)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 : 10)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 : 3)고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이 구세주께서 세상에 성역을 베푼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어 그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읍니다. 그가 행한 많은 이적은 모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줍니다. 그의 대속의 희생과 생명을 버리신 일은 그의 인류에 대한 크신 사랑을 말해 줍니다.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 : 13)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는 그가 우리의 친구임을 증거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와 공부를 통해 구세주를 알고 주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고 있읍니까?

예수님이 다리를 저는 아이와 소경과 눈먼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인 군중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할 수 없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꼈으며, 예수님 또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느꼈읍니다. 주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었을 때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읍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로 마음이 충만했읍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둘러보시고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거든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 가운데 절름발이와 장님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와 수족을 못 쓰게 된 자와 문둥병에 걸린 자와 마르는 병에 걸린 자와 귀머거리 등 온갖 질병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저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저들을 고쳐 주리니…

"…너희에게 병고침을 받기에 합당한 신앙이 있음을 알았음이라."(니삼 17 : 7-8)라고 말했읍니다.

온 무리는 모두 병든 자와 고난을 당하는 자와 절름발이와 장님과 벙어리와 온갖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를 데려왔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을 낱낱이 고쳐 주셨읍니다. 고침을 받은 자나 성한 자들이 모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와 찬송을 돌렸읍니다. (니삼 17 : 10 참조)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무리와 함께 땅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읍니다. 경전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왔던지라, 아무도 이를 감당치 못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기를 마치시고 일어서시었으되 무리가 큰 기쁨에 취해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들에게 명하여 일어서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신앙을 가졌으매 복되도다. 보라 나의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같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시니,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또다시 우시더라."(니삼 17 : 17-22)

우리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느낀 것과 같은 느낌을 느낍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선량하고 충직한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인 크신 사랑을 느낍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 주셨읍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같이 훈계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니삼 18 : 19, 21)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있읍니까? 그는 그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어린이를 축

복하듯이 우리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축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을 보호해 주어 그러한 영적 영향으로 가족이 사랑과 조화 가운데 더욱 결속하게 해줍니다.

또 한 성구를 인용하겠읍니다. "너희가 신앙을 가졌으매 복되도다. 보라 나의 기쁨이 넘치는도다."(니삼 17:20)

우리가 회개하고 충실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리스도의 기쁨은 충만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 이를진대, 내가 저를 받아들일지니, 이같은 자라야 하나님 왕국에 거할 수 있음이라. 보라 이러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버렸고 다시 취하였노라. 그러므로 땅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나아와 구원을 받을지어다."(니삼 9:22) "누구든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의 이름으로 침례받기를 원하거든, 너희는 저들을 이같이 침례하라…"(니삼 11:23)

구세주의 대속의 희생을 뜻있게 하는 회개, 용서, 영생의 기회가 곧 복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위대하고도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나니, 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준비된 것이라. 구원과, 인간의 구속이나 멸망과 비참이 모두 이같이 역사되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와서 생명의 물을 거저 얻을 수 있으며, 오지 않겠다는 자를 강제함이 없으리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저마다 행한 대로 거두게 되리라."(앨마서 42:26-27)

위의 성구를 바꾸어 말한다면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한 것이 회복될 것이요, 악한 일을 하면 피해가 그 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의 권고에 귀를기울이지 않는 자도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 23:37)라는 말씀 속에 주님의 고민이 나타나 있읍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오…너희가 입으로는 의를 안다고 하며, 선한 목자가 너희를 불렀고 아직도 너희를 부르고 있으나 부르는 소리에 귀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타락의 길로 빗나간 자들아,"(앨마서 5:37)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부르셨읍니다. 그분은 죄진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셨고 인간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승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을 완전히 갚을 길이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살펴보고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지 허버트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주님이시여,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읍니다.

지난 주에 저는 한 부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읍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바친다 해도 주님의 복음을 주는 큰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읍니다"라는 내용의 편지였읍니다.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죄 사함을 얻었거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합당치 아니한 너희를 대합에 선하시며, 오래 참으심을 항상 기억하여 스스로 지극히 겸손하며,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장차 오실 이를 믿는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할 것을 늘 기억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행할진대 항상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며… 또한 너희를 지으신 이의 영광, 곧 공의로우시며 참되신 이의 영광을 더욱 더 알게 되리니,

"너희가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며, 남에게 흡족하도록 내어 줄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녀를 헐벗고 굶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너희는 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웁기를 가르치며,"(모사이야서 4:11-15)

우리는 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때때로 시련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과 같은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28-29)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또한 끝이라.

"보라 나는 세상을 죄에서 구하고자, 세상에 구속을 가져다 주러 온 것이니"(니파이삼서 9:18, 21)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3)

지금은 이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합당하게 준비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영적인 성장을 버리고 그 대신 부를 추구하고 있읍니다. 모든 일, 모든 임무, 모든 과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어떻게 성취하셨겠는지 생각한 후에 처리해야 합니다.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는 생활 방식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셨읍니다. 우리는 모두 공덕에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할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드리는 바입니다 인간의 영은 결코 죽지 않으며 생명은 육신의 세상을 넘어서 계속됩니다. 간증드리노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그의 아들 예수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가르치듯이 이 복음은 참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았음을 또한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 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읍니다. 나는 그를 지지하고 받들고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날 이 백성을 이끌기 위해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성실히 지켜 나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성 회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의 지지와 대관장단의 개편, 그리고 그 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을 지지하는 절차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모임은 참으로 성스러운 모임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이 모임에 임해야 합니다. 이 모임은 꽤 긴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과 영이 고조되어 있다면 결코 지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새로운 대관장을 지지하는데 교회 회원으로서 그 뜻을 표하기 위하여 갖고 있는 의례적인 성스러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솔트레이크시의 템플 스퀘어에 모여 있읍니다. 이것은 존 테일러 대관장을 지지하는 행사를 했던 연차 대회 이후로 계속된 교회의 관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태버나클이 수용할 수 있는 수의 신권 소유자들이 정원회별로 앉아 있읍니다.

대관장단, 십이사도 평의회와 그 보조, 교회 축복사,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관리 감독단들이 태버나클에 마련되어 있는 그들 자리에 앉아 있읍니다.

십이사도 지역 대표와 십이사도 선교사 대표와 칠십인 제일 정원회는 단상의 왼쪽과 오른쪽 좌석과 난간 안의 아래 좌석과 홀의 앞 좌석에 앉아 있읍니다.

축복사들은 홀의 정면에 가까운 좌석에 자리잡고 있읍니다.

스테이크 부장과 그 보좌, 고등 평의원, 각 정원회 회장단과 회원, 와드 감독단을 포함하는 대제사들은 건물 일 층 중앙과 계단 아래까지 자리잡고 있읍니다.

칠십인들은 건물 일 층의 왼쪽 계단 아래 자리잡고 있읍니다.

장로는 건물 일 층의 계단 아래 오른편 좌석에 자리잡고 있읍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제사, 교사, 집사)는 일 층 계단 아래 대제사 뒷편에 앉아 있읍니다.

일반 회원은 건물의 남은 좌석을 채우고 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트 펠러스와 이곳과 그들의 가정에서 이 지지를 지켜보고 있읍니다.

정원회와 정원회 그룹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지될 것입니다.

1. 대관장단
2. 십이사도 정원회
3. 축복사
4. 십이사도 보조, 지역 대표, 선교대표, 스테이크 부장과 그 보좌, 고등평의원, 각 정원회 회장과 회원, 관리감독단, 와드 감독단을 포함한 대제사.
5. 칠십인
6. 장로
7. 아론 신권(제사, 교사, 집사)
8. 신권 소유자를 포함한 여기 모인 모든 회원

지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어떤 정원회나 그룹이 불려지고, 그들은 추천되는 역원을 지지하는 거수를 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지할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찬성 지지가 요구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이 그 역원을 지지함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른손을 듭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내립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들이 지지하도록 요청받은 역원을 지지할 수 없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른손을 올리도록 요청받았읍니다.

찬성과 반대 의사의 표시가 끝나면 정원회 회원은 제자리에 앉읍니다.

모든 정원회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그가 원하는 대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가 보장됩니다. 이 역원에 대한 지지에서는 어떠한 강요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지를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지한 역원을 무조건 따라야 하며 충성을 다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성스러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정원회가 모두 지지를 하고 나서 신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여기 모인 모든 회원의 지지가 요청될 것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지지하는 사람은 그 역원을 지지함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른손을 듭니다. 손을 내린 다음에 반대 의사를 묻는 지지가 요청될 것이며 이것도 역시 오른손을 올려 그 뜻을 표시하게 됩니다.

정원회에 의해서 지지될 역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의 대관장
교회 대관장단 제 1 보좌
교회 대관장단 제 2 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십이사도 평의회
교회 축복사

교회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인 대관장단 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축복사의 지지.

정원회에 의한 이 역원의 지지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 본부 보조 조직 역원이 보통 연차 총회에서와 같이 지지될 것입니다. 이것은 존 테일러 대관장님에 의하여 세워진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지지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교회 회원에 한해서만 지지할 자격이 있읍니다. 정원회에 의한 지지를 하는 경우 한 정원회나 그룹은 한 번에 한 조직적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정원회나 정원회 그룹은 일어서도록 요청하면 일어서고 제자리에 앉도록 요청될 때까지 서 계십시오.

교회의 회원 모두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관리하고 인간의 구원과 승영을 위한 교회의 일을 수행하도록 부르실 역원들을 지지하는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마련된 이 성스러운 모임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고 그의 영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의 대관장과 그 보좌에 대한 지지를 묻겠읍니다.

대관장단에 대한 지지

대관장단은 일어나 주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엔 엘돈 태너 형제를 교회의 대관장단 제 1 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교회의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대관장단은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는 일어나 주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엔 엘돈 태너 형제를 교회 대관장단 제1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교회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지지의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평의회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축복사를 포함하여 여기 참석하신 축복사는 일어나 주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엔 엘돈 태너 형제를 교회 대관장단의 제1보좌에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교회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지지의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축복사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이사도 보조, 십이사도 지역 대표, 십이사도 선교사 대표와 칠십인 제일평의회, 스테이크 부장과 그 보좌, 고등 평의원 각 정원회 회장단과 정원회 회원, 관리 감독단, 와드 감독단을 포함하는 대제사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엔 엘돈 태너 형제를 교회의 대관장단 제1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의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교회의 대관장단 제2보좌에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대제사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과 여기 모인 다른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과 회원을 포함한 칠십인은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지지의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엔 엘돈 태너 형제를 교회의 대관장단 제1보좌에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교회의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지지의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의 칠십인은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각 정원회 회장단과 회원을 포함하여 여기 모인 모든 장로는 일어나 주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엔 엘돈 태너 형제를 교회의 대관장단 제1보좌에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교회의 대관장단 제2보좌에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의 장로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사, 교사, 집사 정원회 회장과 회원을 포함하여 여기 모인 모든 아론신권 소유자는 일어나 주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할 것

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엔 엘돈 태너 형제를 교회의 대관장단 제1보좌에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교회의 대관장단 제2보좌에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아론 신권 소유자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신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여기 모인 모든 교회 회원은 일어나 주십시오.

어셈블리 홀에나 솔트 펠러시에 있거나 라디오를 듣고 있거나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회원은 다같이 일어나서 지지를 물음에 참여합시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엔 엘돈 태너 형제를 교회의 대관장단 제1보좌에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교회의 대관장단 제2보좌에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대관장님단은 만장일치로 지지되었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과
십이사도에 대한 지지

지금부터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과 십이사도에 대한 지지를 묻겠읍니다.

대관장단은 일어나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에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본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대관장단은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는 일어나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에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축복사를 포함하여 여기 모인 모든 축복사는 일어나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에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의 축복사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이사도 보조, 십이사도 지역 대표, 십이사도선교 대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스테이크 부장과 그 보좌, 고등평의원, 각 정원회 회장과 회원, 관리감독단, 와드 감독을 포함하여 여기 모인 모든 대제사는 일어나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의 대제사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과 다른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과 회원을 포함하여 여기 모인 모든 칠십인은 일어나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에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의 칠십인은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장로 정원회 회장단과 회원을 포함하여 여기 모인 모든 장로는 일어나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에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의 장로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사, 집사, 교사 정원회 회장단과 회원을 포함하여 여기 모인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는 일어나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아론 신권 소유자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신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지 않고 있거나 여기 모인 모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은 일어나 주십시오.

어셈블리 홀에 있거나, 라디오를 듣고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도 모두 일어나서 이 지지의 물음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십이사도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십이사도 정원회는 만장일치의 지지로 이루어졌읍니다.

교회 축복사에 대한 지지

교회 축복사에 대한 지지를 묻겠읍니다.

대관장단은 일어나 주십시오.

엘드리드 지 스미스 형제를 교회 축복사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대관장단은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이사도 평의회는 일어나 주십시오.

엘드리드 지 스미스 형제를 교회 축복사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평의회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축복사를 포함하여 여기 모인 모든 축복사는 일어나 주십시오.

엘드리드 지 스미스 형제를 교회 축복사로 지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의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의 축복사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이사도 보조, 십이사도 지역 대표, 십이사도 선교 대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스테이크 부장과 그 보좌, 고등 평의원, 각 신권 정원회 회장단과 회원, 관리 감독단, 와드 감독을 포함하여 여기 모인 모든 교회의 대제사는 일어나 주십시오.

엘드리드 지 스미스 형제를 교회 축복사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대제사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과 다른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과 회원을 포함하여 여기 모인 교회의 모든 칠십인은 일어나 주십시오.

엘드리드 지 스미스 형제를 교회 축복사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지지의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의 축복사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장로 정원회 회장단과 회원을 포함하여 여기 모인 교회의 모든 장로는 일어나 주십시오.

엘드리드 지 스미스 형제를 교회 축

복사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의 장로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사, 교사, 집사 정원회 회장단과 회원을 포함하여 여기 모인 교회의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는 일어나 주십시오.

엘드리드 지 스미스 형제를 교회 축복사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아론 신권 소유자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신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지 않고 있거나 이 자리에 모인 교회의 모든 회원은 일어나 주십시오. 어셈블리 홀에 있거나, 라디오를 듣고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교회의 모든 회원도 모두 일어나서 지지에 참여해 주십시오.

엘드리드 지 스미스 형제를 교회 축복사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지지도 역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읍니다.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에 관한 지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에 대한 지지를 묻겠읍니다.

대관장단은 일어나 주십시오.

대관장단 보좌, 십이사도, 교회 축복사를 예언자,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대관장단은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은 일어나 주십시오.

대관장단의 보좌, 십이사도, 교회 축복사를 예언자,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축복사를 포함하여 여기 모인 교회의 모든 축복사는 일어나 주십시오.

대관장단 보좌, 십이사도, 교회 축복사를 예언자,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의 축복사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이사도 보조, 십이 사도 지역 대표, 십이사도 선교 대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스테이크 부장과 그 보좌, 고등평의원, 각 신권 정원회 회장단과 회원, 관리 감독단, 와드 감독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대제사는 일어나 주십시오.

대관장단 보좌, 십이사도, 교회 축복사를 예언자,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지지의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대제사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과 다른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과 회원을 포함하여 여기 모인 교회의 모든 칠십인은 일어나 주십시오.

대관장단 보좌, 십이사도, 교회 축복사를 예언자,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칠십인은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장로 정원회 회장단과 회원을 포함하여 여기 모인 교회의 모든 장로는 일어나 주십시오.

대관장단 보좌, 십이사도, 교회 축복사를 예언자,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지지의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의 장로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사, 교사, 집사 정원회 회장단과 회원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는 일어나 주십시오.

대관장단 보좌, 십이사도, 교회 축복사를 예언자,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의 아론 신권 소유자는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신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여기 모인 교회의 모든 회원은 일어나 주십시오. 어셈블리 홀에 있거나 라디오를 듣고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교회의 모든 회원은 모두 일어나셔서 이 지지에 참여해 주십시오.

대관장단 보좌, 십이사도, 교회 축복사를 예언자,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지지의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킴볼 대관장님, 보신 바와 같이 이 역원에 대한 지지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읍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에 의하여 세워진 관례에 따라, 아직까지 지지되지 않은 총관리 역원과 교회 본부 역원과 각 보조 조직의 장을 지지하는 투표가 일반 총회에서와 같이 행해지겠읍니다.

여러분은 지지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에 의하여 모든 회원이 동시에 지지하겠읍니다. 어셈블리 홀에 있거나 라디오를 듣고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교회의 모든 회원도 이 지지에 참여해 주십시오.

아래의 형제를 십이사도 보조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엘마 소니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스터얼링 더블류 실
헨리 디 테일러
알빈 알 다이어
플랭클린 디 리차즈
데오도어 엠 버튼
버나드 피 브록뱅크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매리온 디 행스
조셉 앤더슨
데이비드 비 헤이트
윌리암 에이치 버넷

존 에이치 반덴버그
로버트 엘 심슨
오 레슬리 스토운
제임스 이 파우스트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닐 에이 맥스웰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재단 이사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의 관리 감독에 빅터 엘 브라운, 제일 보좌에 에이치 버크 피터슨, 제이 보좌에 본 제이 페더스토운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역 대표, 십이사도 정원회의 선교 대표, 칠십인 제일 정원회를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위원회 및 일반 교회 조직에 대한 지지

아래 부서나 위원회나 일반 교회 조직에 부름받은 형제 자매를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역사과
고문, 하워드 더블류 헌터,
브르스 알 맥콩키
책임자, 알빈 알 다이어
부책임자, 조셉 앤더슨
보조 책임자, 얼 이 올슨
교회 역사 편찬 위원, 레오날드 제이 애링튼
교회 도서 및 기록 보관인, 도날드 티 스미트

복지 사업과
고문, 마빈 제이 애쉬튼
의장, 빅터 엘 브라운
사회 사업 책임자, 로버트 엘 심슨
교회 복지 책임자, 주니어 라이트 차일드
보건 담당 책임자, 제임즈 오 메이슨

가정의 밤 위원회
고문, 보이드 케이 패커
책임자,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신권 선교 위원회
집행 위원회 의장, 에즈라 태프트 벤슨
부의장,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브르스 알 맥콩키
책임자, 로렌 시 던

멜기세덱 신권 위원회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근 관계 위원회
고문, 보이드 케이 패커
책임자, 데이비드 비 헤이트

신권 계보 위원회
고문, 마크 이 피터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책임자, 디어도어 엠 버튼

음악과
고문, 마크 이 피터슨,
보이드 케이 패커
책임자, 오 레슬리 스토운

태버나클 합창단
단장, 이삭 엠 스터워트
지휘자, 리차드 피 콘디
지휘자 보조, 제이 이 웰치
태버나클 반주 책임자, 알렉산더 슈나이더
태버나클 반주자, 로버트 엘 컨딕,
로이 엠 다리

시설과
고문, 마빈 제이 애쉬튼
책임자, 존 에이치 반덴버그

교내 연락과
고문,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책임자,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공보과
고문, 마크 이 피터슨,
고든 비 힝클리
책임자, 웬델 제이 애쉬튼

교회 교육 위원
교회 교육 기구 위원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알빈 알 다이어
매리온 디 행스
에이 디어도어 터틀
폴 에이치 던
빅터 엘 브라운
벨 에스 스패포드
닐 에이 맥스웰

교회 재정 위원회
교회 회계 감사
윌포드 지 에들링
해롤드 에이치 버넷
웨스튼 이 해밀튼
리 에스 빅모어
데이비드 엠 케네디
와련 이 퓨

멜기세덱 신권회
고문,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책임자,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책임자, 매리온 디 행스
그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임원

아론 신권 상향회
관리 감독단의 관리,
빅터 엘 브라운,
에이치 버크 피터슨,
본 제이 페터스토운

아론 신권 상향회(청남)

본부 회장, 로버트 엘 백맨,
제일 보좌, 리그랜드 알 커티스,
제이 보좌, 잭 에이치 고슬린드
그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역원

아론 신권 상향회(청녀)
본부 회장, 루드 하디 풍크
제일 보좌, 호텐스 에이치 차일드
제이 보좌, 아데드 지 캠
그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역원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 벨 에스 스패포드
제일 보좌, 마리안느 클락 샤프
제이 보좌에 루이스 웰리스 마드슨
그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역원

주일학교
본부 회장, 러셀 엠 닐슨
제일 보좌, 조셉 비 위슬린
제이 보좌, 리차드 엘 와너
그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역원

초등협회
회장, 라번 왓스 팜리
제일 보좌, 나오미 와드 랜들
제이 보좌, 플로렌스 리스 레인
그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역원

동의하시는 분은 그 뜻을 오른손을 올려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그 뜻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킴볼 대관장님,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모든 지지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읍니다.

기도의 중요성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바로 일 년 반 전 이 자리에서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새로운 대관장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을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 지지하였으며 다른 총관리 역원과 본부 교회 역원을 지지했읍니다.

리 대관장님은 보기 드문 정력적인 지도자이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짧은 재임 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신 분이었읍니다. 우리는 그분의 갑작스런 서거에 매우 놀랐으며 애통함을 금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에게 큰 보상을 주시고, 또 다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데려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 곧 존경하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가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부름을 받고 성임되었읍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이 말일의 이 시기에 교회를 인도하도록 주님으로부터 선택되고 예임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간증드립니다. 그분이 이 높은 명예를 받아들이고 부여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 차례의 기적이 이루어졌읍니다. 각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 대회를 통해 오늘 아침 이분을 지지하였읍니다. 나는 그분의 보좌로 부름을 받은 것을 큰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판단력과 영감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함에 합당한 방법으로 대관장님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의 교회 회원이 단합하여, 이 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요 교회와 왕국의 대관장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모든 회원은 자신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너희는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흩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교리와 성약 21 : 4—6)

주님의 지시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되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일에 초대 대관장으로 부름을 받고, 회원들이 이미 인용했던 말씀을 지시받았던 것이 불과 144년 전의 일이었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진리와 의의 대업을 수행하며,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읍니다.

또한 다음주에 우리는 구세주가 부활이라는 기적으로 죽음의 사슬을 끊고 무덤으로부터 부활한 몸으로 일어나신 날을 축하하게 되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과 나와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씻고 부활하여 불사불멸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의 희생에 온 세계의 기독교인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드린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우며 온당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 : 39)

그는 또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 : 3)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요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11 : 25—26)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의 기적, 그리고 그가 세상에 알리신 메시

지에 대하여 오늘 대회에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 생활한다는 희망은 그분을 통해서 얻었읍니다. 그는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혹은 직접 그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주셨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현세상에서와 다음에 올 세상에서 기쁨과 성공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하는 방법에 관하여 가르치셨읍니다. 나는 오늘 이에 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갚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태복음 6 : 5—7, 9—13)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도문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되풀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가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두고 하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심이며,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고 지침을 간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는 진실된 것이어야 합니다.

우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에 문을 잠그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에만 정신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기도의 말씀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읍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며 모든 사람에게 그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게 허락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미리 약속을 하지 않고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진실한 마음과 신앙으로 모든 영혼을 쏟으면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가 하늘에 계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의 영의 자녀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 하셨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상 생활에서나 특히 예배드릴 때 거룩히 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우리 자신이 그의 이름을 성스럽게 함은 물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성스럽게 하도록 도와 줌으로써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가장 거룩히 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사랑과 경건심을 보이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를 부르며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그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 합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이 성취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며, 그 길이란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지상에 그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돕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는 그의 교회와 왕국의 기초가 이미 세워졌읍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대로 생활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왕국을 높이 세우게 됩니다.

1831년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복음이 땅 끝까지 굴러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땅 위에 퍼져 그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라. 또 인자가 밝은 영광의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올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여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원수를 굴복하게 하옵소서. 존귀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옵니다. 아멘."(교리와 성약 65 : 2, 5—6)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기 전에 우리는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부친께서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 일하는 게 좋을게다."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된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을 "우리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모든 만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추리하고 배울 수 있는 두뇌를 주셨읍니다. 그분은 개발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며, 이것을 이웃과 나누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과 복지에 관한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권고를 받았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도움을 구하며 풍부한 삶과 훌륭한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표할 수 있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야 하며,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만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을 분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전과 예언자를 주셔서 가르치게 하셨으며, 이를 받아들인 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계명

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며, 그릇된 일을 하도록 유혹받는 곳에 처하지 않으므로 악에서 구원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와 같은 귀절이 있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막 14 : 38)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하며 인자하고 유덕하고 남에게서 받고자 하는 대로 만인에게 행하기 위하여 용기, 힘, 욕망, 결단력 그리고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듯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이것들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면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악에서 구원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귀절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귀절을 비교하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눅 11 : 4)라고 말했읍니다.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였읍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마가복음 11 : 25—26)

주님께서는,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교성 64 : 10)고 말씀하셨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권고하셨읍니다. 우리는 친구와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주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불러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 하기가 쉬울 것이며,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충족할 열매를 가져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기대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용서에 관하여 경전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읍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 : 14—15)

"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교리와 성약 64 : 9)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 : 34)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용서의 참된 정신을 보여 주셨읍니다.

또한 돌에 맞아 순교당한 스데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읍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회개와 용서의 대 원칙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원한이나 적개심을 갖고 있으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때, 그의 영혼은 부패되고 그의 내부에는 점점 큰 죄가 쌓이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야 하겠읍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졌던 사람이 후에 용기와 힘을 얻어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보이면서 화해하여 아름다운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함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는 많이 있읍니다.

이제 끝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가 구하는 왕국은 그의 왕국이고, 의는 우리로 인하여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가르침을 영생과 구원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며, 불사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읍니다. 그렇게 할진대 우리는 그의 이름에 영광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은 앞서 말한 것을 진심으로 동의한다는 뜻으로 마지막 끝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아멘의 참된 의미를 나타내어야 하겠읍니다.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렸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 : 36—39)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말일에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왕국을 받은 나의 교회의 백성들아,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여러 하늘과 그 모든 천군을 만드시고 살아 움직이며 실재하는 만물을 지으신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거듭 말하거니와 죽음이 너희를 몰아치지 않게 나의 음성에 귀를 귀울이라. 생각지도 않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 여름이 가고 추수가 끝나도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리니,

"아버지와 너희 사이의 변호인으로 아버지께 호소하는 이의 말을 들으라." (교리와 성약 45 : 1—3)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달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지상에 기초를 세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생활함으써 높이 세울 수 있게 되며,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읍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이 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는 예임된 자이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임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세계 각처에서 모인 우리는 온 세계에서 가장 강한 형제애와 힘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병입니다. 우리가 신권 소유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강한 형제애를 함께 나누는 회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영적인 양식을 얻었으며, 신앙과 간증을 더욱 강하게 하였고, 또 이 아름다운 합창도 들었읍니다. 이제 조금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며, 현재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변자이신 예언자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 있는 자"(마 11 : 15)가 되어 이 위대한 지도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을 따르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게 가져야 하겠읍니다.

나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네 분의 예언자의 보좌로서 봉사할 특별한 특권과 축복을 받아 온 사람으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그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성임하시고 성별하시며 이러한 대관장의 계승 절차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성역을 베푸시며 그의 교회를 조직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눅 6 : 13)라 칭하셨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사도들에게 이르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8 : 18)고 했읍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주님은 사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열쇠 및 권능과 함께 사도의 직을 부여해 주셨으며 따라서 모두 그의 차례가 되면 선임 사도 또는 대관장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떠나신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교회의 대관장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별되었읍니다. 말일의 교회도 이와 같은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요셉 스미스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그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도로 성임했읍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요셉 스미스 이세가 교회의 첫 장로로 부름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견자와 번역자와 예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교회의 장로로 불리우리니,

"성령에 감동되어 교회의 기초를 닦으며 이를 가장 거룩한 신앙으로 세워 일으키리라."(교성 21 : 1—2)

교회가 조직되기 이전인 1829년 6월, 예언자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사도가 있을 것과 또 그 사도가 어떤 방법으로 택함을 받을 것인가를 이미 알았지만 실제로 십이사도 정원회가 조직된 것은 1835년의 일이었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은 몰몬경의 세 목격자로 하여금 사도로 성임될 열 두 명의 사람을 선택하게 하셨읍니다. (교회정사 제2권 186—87페이지, 교리와 성약 18편)

이들 열 두 명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지시에 따라 택함을 받고 사도로 성임되었읍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바울과 그 밖의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권능이 주어졌읍니다. 교리와 성약에 보면 "저들은 정원회를 구성하며 권위와 권능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세 관리 대제사와 동등하도다."(교성 107 : 24)라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말한 세 관리 대제사는 대관장단을 뜻합니다.

또 교회 정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와 있읍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계속해서 십이사도의 임무와 현 대관장단에 다음 가는 그들의 권능에 대해 설명했다. …십이사도는 대관장단 즉 나와 시드니 리그돈과 프레데릭 지 윌리암즈를 제외한 사람에게는 순복하지 않는다. 내가 없다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죽을 때를 뜻한다〕 십이사도를 이끌 대관장단은 없게 된다." (교회정사, 제2권, 373—74페이지).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여기에 있으며 인자가 오실 때까지 여기에 머무를 것이라는 사실을 말일성도들에게 전해 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를 이해해야 하겠읍니다… 생명을 호흡했던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열쇠를 갖고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수는 없읍니다."(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지 호머 더럼 편, 북크래프트사, 1946년, 73—74페이지)

예언자 요셉이 순교당한 후 브리감 영은 다음과 같은 말로 모임을 소집했읍니다. "여러 신권 정원회의 회원과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특별 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그는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십이사도 정원회에서의 나의 부름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쥐고 행사할 수 있도록 성임받고 기름 부음받은 예언자 요셉을 통해 주신 계시에 의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물었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를 이 백성의 대관장단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이 제의가 받아들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 다음 반대 의사를 묻자 누구도 손을 드는 사람은 없었읍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신권 정원회에 대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성회에서 한것과 같이 순서대로 지지를 얻으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 지지로써 다른 질문이나 정원회별로 지지를 얻을 필요가 없게 되었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교회정사, 제7권, 230, 232, 240페이지) 그는 십이사도는 그대로 그들의 직분을 가지고 행사할 것이

며, 새로운 대관장단이 조직되기까지 왕국의 열쇠가 십이사도에게 있어 그들이 교회의 일을 처리하고 모든 합당한 일을 지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요셉 스미스가 순교당한 후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 왔읍니다. 그때에는 십이사도 정원회가 3년 반 동안 교회를 이끌어 왔으며 그 후에 새 대관장단이 조직되고 브리감 영이 대관장으로 성별되었읍니다.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교회를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읍니다. "첫째, 대관장이 돌아가시면 누가 교회를 관리하는 권능을 갖게 됩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성임되고 조직된 십이사도 정원회가 그 권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관리하는 동안, 누가 교회의 대관장입니까?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대관장입니다. 그는 대관장단을 조직하기까지 십이사도 정원회를 관리하는 동안에 사실상 대관장과 다를 바가 없읍니다." 이상은 1887년 3월 28일에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에게 보낸 월포드 우드럽의 편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 100여 년 동안 이 원칙에 따라 왔읍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대관장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예임된 사람이며 그 시대에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브리감 영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장차 대관장이 되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께서 먼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되고 후에 대관장이 되는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그분이 그러한 부름을 받도록 하는 교량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오래 전에 마치 예레미야나 그 밖의 예언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미 예임되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예언자 요셉이 순교하자 대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었읍니다. 요셉은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특별히 받았으며 많은 예언자들보다 훨씬 영감받은 예언자였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예언자를 이어 브리감 영은 그 시대를 이끌어 갈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읍니다. 영 대관장님도 그 시대에 수행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과 능력을 부여받았읍니다. 그분은 위대한 지도자요 개척자요 조직자였읍니다. 그분은 예언자 요셉이 예언한 바와 같이 교회를 이끌며 교회를 록키 산맥 안에 세워야 할 바로 그 사람이었읍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이 어떻게 후대의 일을 위해 생명을 보호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가히 순교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언자 요셉이 피살될 때 함께 그곳에 있었으며 그도 총탄에 맞아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대관장으로 이 교회를 인도해 가는 동안에 그분은 참으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읍니다. 그 이후의 모든 대관장님들에게도 이와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읍니다.

리 대관장님의 재임 기간이 비록 짧기는 하지만 그 동안에 그의 지시하에 교회내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고 많은 것이 성취되었으며 교회의 기초는 앞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더욱 굳건하게 다져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의 택함을 받고 예임된 새 대관장님이 있읍니다. 그분은 30년 이상을 사도로서 어려움을 겪어 왔고 시험을 받았으며 단련되었읍니다. 그분은 또한 이 높고 거룩한 직분을 맡기 위해 세 번씩이나 기적적으로 생명의 위기에서 보호받아 온 분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천국 회의에서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예임되었다."(365페이지)라는 말씀이 있읍니다,

수없이 거듭 들어온 바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부르시며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의 다른 어떤 권세로도 예언자를 부르거나 세상에 보낼 수는 없읍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관장이 돌아가시면 십이사도 정원회가 그 직분을 맡게 되며 선임 사도 즉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관리역원이 됩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질서로 교회를 인도해 왔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리 대관장님은 자신이 얼마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시고는 롬니 부대관장을 병원으로 불렀읍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태너 부대관장은 지금 멀리 가 있으니 롬니 형제가 교회의 일을 맡아 처리해 주기 바라오." 조금 후에 킴볼 형제가 병원에 와서 롬니 부대관장을 돕겠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리 대관장님의 서거를 발표한 직후에 그 자리에서 롬니 부대관장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킴볼 사도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형제님이 이제 교회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형제님의 지시에 따르겠읍니다. 저는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언제나 대관장단이 있으며 대관장의 계승이 얼마나 순조로운가를 보여 주는 모범입니다.

킴볼 사도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 즉시 교회의 관리자가 되었읍니다. 킴볼 대관장님이 대관장으로 임명되고 성임된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14년 전인 1960년 4월 4일의 대회에서 킴볼 대관장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포동포동 살이 오른 귀여운 자기 아기를 내려다 보면서 장차 그 아기가 자라 대관장이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마음에 그려 보지 않는 어머니가 있겠읍니까! 그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정치가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예언자도 됩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꿈 중에 어떤 것은 실현됩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랬고 미켈란젤로가 그랬으며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랬고 요셉 스미스가 또한 그의 어머니의 꿈을 실현시켰읍니다.

"신학자들이 비틀거리며 쓰러질 때 입으로는 가식적인 이야기를 하나 마음은 방황하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암 8:12) 얻지 못할 때, 과오의 구름이 걷히고 영적인 암흑을 꿰뚫고 하늘이 열려야 할 때, 한 아기가 탄생합니다. 이 얼마나 예언적인 말씀입니까!" (1960년 4월 대회 보고, 84페이지)

1895년 3월 28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그와 같은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 아기의 이름은 스펜서 울리 킴볼이었읍니다. 여러분은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가 그의 아름다운 필치로 그린 이 위대한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1974년도 7월호 성

도의 벗에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대관장이 세상을 떠나면 곧 다음 대관장단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읍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돌아가신 지 나흘 후인 1973년 12월 30일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던 킴볼 대관장님은 대관장단을 다시 조직하고 그곳에서 결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도들을 신전 다락방으로 불러 모았읍니다. 대관장의 보좌였던 롬니 형제와 나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참석했읍니다. 킴볼 장로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의 서거에 대한 애도의 마음과 아직 하실 일이 많아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아직 멀다고 생각한 개인의 뜻을 전하고는 서열에 따라 사도들을 차례로 불러 대관장단의 재조직에 관한 의견을 물었읍니다.

사도들은 모두 지금이 대관장단을 조직할 때이며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이 지금 이 교회를 관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읍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영이 충만하였으며 그곳에 모인 형제들의 마음은 하나로 일치되었고 따라서 그들의 말도 완전히 일치되었읍니다. 유일한 목적과 소망은 주님의 뜻이었읍니다.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티끌만큼의 의심이 없었으며 주님의 뜻만을 이야기하였읍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는 대관장단을 조직할 것과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을 대관장,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그리고 교회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지지하고 성임하고 성별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했읍니다. 이 제의에 대한 동의가 있은 후에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읍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와서 이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가 주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과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을 기원했읍니다. 그는 항상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이 대관장으로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항상 건강과 활력을 얻도록 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아내 카밀라와 함께 리 대관장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왔으며 이 직분이 그에게 결코 오는 일이 없을 것이며 리 대관장님은 자기보다 더 오래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나는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 : 39)라고 기도하신 구세주를 생각했읍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그렇게 해서 대관장의 직분을 받아들였읍니다. 그리고 대관장님은 그의 제1보좌와 제2보좌로 엔 엘돈 태너와 매리온 지 롬니를 각각 택하여 임명하셨읍니다. 이 두 사람은 킴볼 대관장님을 대관장으로 받들고 지지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겸손히 그러나 의연히 서약했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했읍니다.

그런 후에 벤슨 사도께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받았읍니다. 다음에 킴볼 대관장님은 방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았읍니다.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모두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의 가슴에 충만했읍니다. 벤슨 정원회 회장께서 그들의 대변자로서 훌륭한 기도와 축복의 말씀으로 스펜서 울리 킴볼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대관장으로 성임하고 성별하였읍니다.

교회의 계획과 질서가 실행되었으며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왕국의 예언자요 대관장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과 온 세계에 간증드립니다. 그가 임명된 후에 스테이크 대회에서 그리고 오늘 가진 성회에서 회원들은 열렬히 그를 지지했읍니다. 우리가 킴볼 대관장님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왕국을 건설하고 의의 대업을 펼쳐 나가며 우리의 주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수 있도록 세상을 준비해 나가는 것은 커다란 특권이며 영광이며 또한 책임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옛날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듯이 아직도 대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읍니다. 더우기 자기가 대관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글로 보낸 사람이 있읍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절차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와 왕국의 회원으로서의 특권과 책임과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과 예언자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책임과 특권과 축복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합당한 회원이며 신권 소유자로서도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시므로 그들이 잘못 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다 했을 때 그 책임을 벗게 해주시는 이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기 위해 선택된 권능을 가진 자를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의 영을 우리로부터 앗아가시겠다고 경고했읍니다.

형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자 원한다면 우리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그분에게 성실해야 하며 불평이나 불만의 말을 하거나 험담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이 그의 직분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세 목격자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천사의 손으로 신권을 받은 올리버 카우드리나 대관장단의 제1보좌였던 시드니 리그돈과 같은 높은 직책에서 일하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예언자를 비판하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읍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신앙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그분을 지지하고 보필하며 따르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가족을 가르치고 격려하여 성실하고 활동적인 회원이 되게 할 때 우리와 가족에게 주님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흩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

"이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심이니, 나는 저에게 영감을 주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능한 권세로 시온의 대업을 추진시키리니…"(교리와 성약 21 : 5—7)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1974년 10월 대회 말씀

—제144차 반연차 대회 보고—

어느 팀이 지고 있읍니까?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보다 중요하다

지난 여름 어느 날 오후 나는 애쉬튼 자매와 함께 직업 야구단의 시합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읍니다. 경기 초반에 우리는 뒤늦게 입장한 사람 때문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읍니다. 그 사람은 우리 옆으로 지나가면서 내게 "어느 팀이 지고 있읍니까?"라고 물었읍니다. 나는 "지는 팀은 없읍니다." 라고 대답했읍니다. 내 대답이 끝나자마자 그는 점수판을 보고, 게임이 타이를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나를 이상하게 여기며 다른 곳으로 걸어갔읍니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자 애쉬튼 자매가 이렇게 물었읍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잘 모르는 분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오?" 하고 되물었읍니다.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그 분이 당신을 잘 아는 분이라면 당신은 어느 편이 진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아니에요. 누가 조금 앞서거나 누가 뒤에 있는 것이지 결코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나는 아내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여 미소로 대답했읍니다.

우리는 모두 태도가 점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욕이 점수보다 중요합니다. 동기가 점수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보다 중요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잠 23 : 7)이라는 진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자기의 몸에다 "버린 몸"이라는 글을 새기고 다니는 청년을 본 적이 있읍니다. 그 후에 나는 그를 주 교도소에서 다시 만났읍니다.

나는 한번은 또 두 소년에게 수영을 잘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읍니다. 한 소년은 "못합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다른 한 소년은 "수영은 못합니다. 해 보려고 한 적도 없고요."라고 대답했읍니다. 나는 그들이 대답한 말을 듣고 그들의 태도를 알 수 있었읍니다.

오늘날과 같은 위험한 세상에서 합당한 태도란 가장 값진 소유물입니다. 확신을 갖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읍니다. 우리는 뒤에 처져 있을 수 있으나 옳은 방향으로 전진해 나갈 때 결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행이 끝난 후에야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시고 점수를 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는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십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멀리하고 자신과 이웃에 대해 파괴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전진하기 위해서 기쁨, 낙관적인 태도, 용기를 갖고 매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교성 98 : 1),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교성 59 : 7),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교성 78 : 19)라는 말씀은 추천할 만한 감사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보람이 뒤따르는 영향력 있는 행동의 지침이라 하겠읍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하십시오. 매사를 하나님께 감사할 때 뒤로 처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어제의 기록을 깨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있다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고 영원을 향한 행군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읍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확신에 찬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확신과 겸손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확고한 자기 신뢰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은 그들의 내면에 뜻깊게 발전시켜야 할 신성한 잠재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합당한 태도는 우리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해줍니다.

우리는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기주의자들은 자신이 이미 높은 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리에는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이기주의를 어리석음에서 오는 고통을 둔화시키는 마취제라고 말한 사람도 있읍니다. 이기주의란 영혼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보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점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추구하여야 할 태도입니다. 개인의 긍정적인 태도란 일순간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합당한 태도란

우리에게 자기 수련과 자신을 자제하는 데 실질적이고도 강인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19세기 작가인 조사이아 길버트 홀랜드의 시구를 인용해 드리겠읍니다. 홀랜드 박사의 흉상은 홀 오브 훼임에 있는데 그 흉상 밑에는 "사람을 구함"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시가 적혀 있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 주셨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강인하고, 도량이 있으며,
참된 마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뇌물로도 매수당할 수 없으며
의지와 주관을 지니고 있고
명예를 사랑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합당한 태도란 훌륭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태도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인내력을 지닌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조 연설에서 요셉 스미스나 해롤드 비 리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에 대해서 갖는 확신을 용감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요셉 스미스가 보인 불굴의 의지와 태도를 잠시 살펴보겠읍니다. 그의 위대성과 그의 태도를 나타내는 음성이 아직도 귓전에 울리는 것만 같읍니다.

"나의 경우도 그와 꼭 같았읍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내가 이런 말을 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나에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말할 때 나는 마음속에 왜 저들이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핍박할까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으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본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읍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읍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정죄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읍니다."(요셉 스미스 2서 : 25)

합당한 태도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적응 능력은 변화나 실망의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사랑은 우리가 시련과 비극에 처했을 때 큰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두운 날을 밝은 날로 바꾸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 아닙니까? 희망이란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실패하거나 뒤로 처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나 내가 우리의 능력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든 혹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든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마 19 : 21)고 권하신 희망과 신뢰에 찬 구세주가 하신 말씀을 인식할 때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는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읍니다. 그는 완전한 삶을 영위하셨읍니다. 그는 완전한 태도를 지니셨읍니다. 그는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떠하든 그의 부름에 충실하였읍니다. 그의 노력과 그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가장 값진 재화입니다. 그의 발자취 덕분에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게 되었읍니다. 그가 겪은 경험은 우리에게 힘을 주었읍니다. 나는 수시로 우리의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젊은이가 선교사를 마쳤다는 사실은 그가 어떻게 선교 사업을 마쳤는가 하는 점만큼 중요하지는 않읍니다."

예수께서는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사업에 열심히 종사하였지만 고통을 받는 어머니나 병자나 친구나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태도나 봉사는 내면의 위대성이 외적으로 증거된 것이라 하겠읍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봉사할 수 있으며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읍니다. 합당한 태도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해줍니다.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읍니다.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작은 마을이었읍니다. 그곳은 역사적으로도 큰 업적이 남겨진 적이 없는 곳이었읍니다. 훌륭한 사람을 배출한 적도 없는 곳이었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 : 46 참조) 그러나 예수의 태도와 사업과 생애가 그 작은 마을을 빛나게 해주었읍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워지게 된 그를 통해 한때 멸시받던 마을이 숭앙받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읍니다.

자기 백성들에게서도 배척당한 그가 의지와 노력으로 왕 중 왕이요, 만군의 주로 칭송받게 되었읍니다. 그는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를 당하였으나 열심히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읍니다. 그를 멸망시키고 패배시키고 낙담시키려는 자에게 그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의 전당을 더럽히려는 자에게 두려움없이 이렇게 꾸짖었읍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마 21 : 13)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보여 준 말이나 행동은 그의 인품, 확신, 용기, 합당한 태도를 다시 한번 증거해 주었읍니다.

용감한 행위를 좋아하거나 합당한 태도를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재차 읽어 보아야 합니다. 평강의 왕인 그는 위엄있게 살았읍니다. 그의 고향 사람들도 그가 이룬 일을 비웃었읍니다. 그의 제자 중에도 그를 배반한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의 적들이 승리를 쟁취할 것 같이 보이기도 했읍니다. 그의 태도는 어떠했읍니까? 불평, 험담, 보복, 실망의 태도를 보였읍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읍니다. 그의 위엄있는 말은 결코 그와는 달랐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요 14 : 1),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 : 33)는 말을 남겼을 뿐입니다.

그가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주에 군중의 외침 소리는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달라"는 말로 바뀌고 말았읍니다.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그를 승리로 이끌었읍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지상에서 생을 마친 마지막 주에 있었던 장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읍니다. 시련을 당하던 때에도 끝까지 성실함을 잃지 않은 태도에서 우리는 그의 용기와 신성함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 아버지와 대화

를 갖기 위한 겟세마네 동산 방문("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 : 39〕), 전쟁 후 승리의 표적,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등을 그려 보십시오. 그는 그를 찾는 병사들과 마주치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내로라"(요 18 : 4, 5)하고 두려움없이 대답하였읍니다. 성내를 바라볼 수 있는 황량한 언덕 위에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읍니다. 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를 유한한 육안으로 바라보며 "그가 죽는다. 그는 이제 끝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옳게 보았다고 할 수 있읍니까? 나사렛 예수는 패배자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읍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며 승리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굳도다 그 기초"라는 찬송가 7절에서처럼 우리에게 확신과 자신에 찬 태도를 영원히 간직하기를 바라십니다.

구원 얻으려고 품에 안긴 영혼
저희 원수에게 내주지 않으리
온 지옥 떨며 떨어뜨리려 하나
결단코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찬송가 16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과 그의 힘과 그의 신성함과 그가 지상에 온 목적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자신을 극복하고 끝까지 성실히 살아가며, 승리를 쟁취하려는 사람을 위해 주신 그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절망과 좌절, 낙담과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열 두 가지 방법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스러운 자리에 섰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모든 것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 나가는 데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께서 예언하셨듯이 물질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도 자신을 잃어가는 세대에 살고 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있읍니다. 대학생들의 자살 비율이 상당히 커지고 있읍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시련과 고난이 함께 할 때, 사탄은 성도들을 절망과 좌절, 낙담과 회의로써 무너뜨리려 더욱더 애쓰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일성도로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낙천적이며 가장 적게 비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가 이를 것"을 앎과 동시에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교성 1 : 35—36)하실 것임을 또한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올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가 교회에 충실하고 그 가르침대로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굳게 견디어, 지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요셉 스미스 1서 : 11)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망과 좌절, 낙담과 회의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음모를 능히 이겨 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열 두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셨읍니다. 만일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의 영은 높이 들리움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행복으로 가득 찬 길을 갈 것입니다.

첫째, 회개. 몰몬경에 "절망은 죄로 말미암는도다."(모로 10 : 22)라는 말씀이 나와 있읍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행복했고, 나쁜 일을 행했을 때 괴로왔다."고 말했읍니다. 죄는 인간을 낙담과 절망으로 끌어내립니다. 죄를 행함으로써 순간적인 기쁨을 얻을지라도,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앨 41 : 10) 죄악은 하나님과 전혀 조화될 수 없으며 우리의 영을 억누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키면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가 따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 11 : 28—30)

둘째, 기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는 큰 은혜를 허락합니다. 겟세마네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는 위안과 안식의 가장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항상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라. 참으로 사탄을 정복하며 사탄의 사업을 받드는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교성 10 : 5)—끊임없는 기도. "나를 사로잡은 원수의 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간구"(요셉 스미스 2서 : 16)한 것은 성스러운 숲에서 요셉 스미스가 그를 파괴하러 드는 악마에 대적하기 위하여 행한 방법이었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파괴하려는 절망에 처했을 때 이겨 나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세째, 봉사.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한 봉사에 몰두한다면 여러분은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세상적인 문제들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적절하게 그 문제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약간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는 당신의 주위를 돌아보고 당신보다 더한 곤경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그에게 다가가서 어려움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그 어려움을 주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지혜로써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곧 당신의 불행은 사라져 버리고, 행복을 느끼며, 주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연차 대회 보고, 1899년 4월 6일, 2—3페이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성실하게 한 평생을 바치는 자매는 개인적인 문제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다른 어떤 자매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읍니다.

네째, 일함. 지구는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읍니다만, 일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지 결코 저주스런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인간도 해야 할 일이 있읍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는 절망에 빠져 죽음을 재촉하기도 합니다. 마귀까지도 게으름의 생지옥만 쳐다보기보다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해보려고 꾀하고 있다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마땅히 도와줘야 할 다른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사회적, 물질적 결핍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선교 사업, 계보 사업, 신전 의식, 가정의 밤, 교회의 직책에 성실히 봉사해야 하는 등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읍니다.

다섯째, 건강. 신체의 건강 상태는 정신에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교성 88 : 124 참조) 마련된 힘과 수단 이상으로 급히 서둘거나 일하지 말고 다만 끝까지 부지런하라고 하셨읍니다. (교성 10 : 4 참조) 몸에 좋은 것들도 알맞게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일반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음식이나 부가물이 적게 포함된 음식물일수록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음식물은 우리의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어떤 한 원소의 결핍은 정신적인 침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신체 검사는 우리 몸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병을 찾아내어 치료하도록 해줍니다. 휴식과 적당한 운동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보하는 것도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해줍니다. 건전한 오락은 우리 신앙 생활의 일부입니다. 또한 생활의 변화나 그 변화를 기대하는 것만도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해줍니다.

여섯째, 독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몬경을 읽고 무엇인가 깨닫고 활기를 찾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구약의 시편은 비탄에 빠져 있는 영혼에 특별한 양식을 줍니다. 오늘의 우리는 현대의 계시인 교리와 성약을 축복으로 받았읍니다. 예언자의 말씀, 특히 교회의 살아 계신 대관장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며 실의에 빠졌을 때 위안을 줍니다.

일곱째, 축복. 특별히 곤란에 처했을 때나 회복될 수 없는 병에 시달릴 때 우리는 신권 소유자의 손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읍니다.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까지도 축복을 구했고 브리감 영의 안수에 의한 축복을 받고 그의 영혼에 위안을 얻었읍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내나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읍니다. 가장의 축복을 받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하늘로부터의 특별한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읍니다. 성찬은 합당하게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축복"(교성 20 : 77, 79) 할 것이며 병석에 누워 있을지라도 자주 취해야만 합니다.

여덟째, 금식. 어떤 악마는 금식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 17 : 21 참조) 정기적인 금식은 마음을 청결히 하는 데 도움을 주며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금식 주일에 참여하도록 요청받는 보통 금식은 음식과 음료를 취하지 않고 스물네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물만 취하고 음식을 삼가며 더 오래 금식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음식만 취하더라도 금식은 깨어집니다. 금식을 더 뜻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명상도 함께 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활동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경전을 깊이 연구하고 금식의 목적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홉째, 친구. 여러분의 말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짐을 덜어 주며 훌륭한 충고를 해주는 친구와의 우정은 정말로 값진 것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있어 본 사람에게는 요셉 스미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며 행동으로 보여 주는 친구의 우정에 찬 음성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34페이지)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 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교화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친구를 가지려면 우선 우호적이어야 합니다. 우정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가정 복음 교사, 평의회 회장, 감독, 교사, 다른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성도들과 자주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영은 충만해집니다.

열번째, 음악. 훌륭한 음악은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생각을 가득 채워 주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며 영혼의 평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이 악마와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그를 위해 하프를 연주하자 사울은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났읍니다. (삼상 16 : 23 참조)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시온의 영적인 노래를 음미하라고 권고했읍니다. 마음이 유혹에 시달릴 때 크게 노래를 부르거나 영적인 말들을 마음속에 새롭게 하면 악마의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읍니다. (성도의 벗, 1924년 1월호 참조)훌륭한 노래를 듣고 음미함으로써 나약해지고 절망적인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있읍니다.

열 한번째, 인내. 조지 에이 스미스가 병으로 무척 고생할 때, 조카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찾아갔읍니다. "예언자는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나를 둘러싸더라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읍니다. 만일 내가 노바스코시아의 가장 낮은 무덤에 파묻히거나 록키 산맥 전체가 나를 덮쳐 누르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끈기있게 버티고 꿋꿋한 용기를 갖는다면 나는 기필코 절망의 무더기 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읍니다."(조지 에이 스미스 가족, 조라 스미스 야르비스, 유타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출판사, 1962년, 54페이지)

절망적인 생각이 여러분으로부터 떠날 때까지 악마를 능가할 수 있도록 올바르고 끈질기게 견디어 내야만 할 때가 가끔 있읍니다. 주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 (교성 121 : 7—8)

우리가 절망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을 때 끝까지 견뎌 낸다면, 마지막 날 우리는 햇빛 찬란한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홀로 계실 때까지도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끝까지 견뎌 내셨고 그리하여 곧 높이 들리움을 받고 큰 기쁨을 얻으셨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은 지난날의 성공을 기억해 낼 수 있고, 여러분이 이미 받은 많은 축복과 훌륭한 신앙을 갖고 앞으로 주어질 더 큰 축복을 세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모두 거두어 주시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고전 2 : 9)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열 두번째, 목표. 하나님의 자녀로 헤아림을 받는 우리 모두는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곧 그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으며,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또 다른 영원한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그를 생각하며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성역을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 : 52)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목표를 위한 네 가지 기본적인 영역 즉 정신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 또 사회적인 영역으로 이야기될 수 있읍니다.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삼 27 : 27) 그러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가 행하셨던 대로 우리를 온전히 하고,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부름을 수행하도록 열심히 일하는 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읍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립보서 3 : 13—14)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겠다는 목표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할 때 이미 좌절과 낙담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빌 2 : 5)고 말씀하셨으며 예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교성 6 : 36)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사 26 : 3)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는 "구원은 우리의 적들을 모두 물리쳐 버리고 우리의 발 아래 굴복시키는 것보다 더 큰 것도 더 작은 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97페이지) 앞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방법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 회의와 낙담의 적들을 쉽게 굴복시킬 수 있읍니다. 그것에 관하여 성경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 : 13)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험이고 실습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훌륭한 분들이 이미 느꼈듯이 "저들은 이 세상을 헤매는 나그네요, 순례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성 45 : 13)

존 번연의 '천로 역정'을 읽어 보면 기독교인의 특징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줄달음치는 것임을 알 수 있읍니다. 우리는 목표를 그것으로 정했읍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 중의 하나가 절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앙양하고 악마의 계획인 절망과 좌절, 회의와 낙담을 이겨내어 기쁘게 우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앞에서 지금까지 말한 열 두 가지 방법, 즉 회개, 기도, 봉사, 일함, 건강, 독서, 축복, 금식, 친구, 음악, 인내, 목표를 기억하고 행해야 하겠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것들을 기억하고 행한다면 우리 모두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산 위에 세워진 성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워싱턴 신전은 훌륭한 횃불입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횃불은 우리 자신의 모범된 생활이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성령이 함께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큰 경험을 했읍니다. 저는 일 주일 내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워싱턴 신전 입구에 서 있었읍니다. 거기에는 미합중국의 대통령 부인, 최고 재판소의 재판장,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여러 나라에서 온 대사, 목사, 학자, 실업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읍니다. 그 외에도 그 주일에 삼십만 명이 넘는 많은 방문객이 축복된 신전을 구경하기 위하여 모여 들었읍니다.

거의 모든 신문과 잡지에서 신전에 관한 기사를 실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도 신전에 관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최근 동부에 세워진 어느 건물도 그렇게 많은 주의를 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문했던 사람 거의 모두가 예외없이 그 건물의 훌륭함에 감탄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무척 큰 감명을 받았읍니다. 신전을 떠나면서 포드 여사는 "이것은 내게 정말로 큰 경험이었읍니다. …이 건물은 모든 사람에게 큰 감명을 줄 것입니다."라고 말했읍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매일 이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사들과 악수하면서 그 축복받은 건물 앞에 서 있을 때, 저는 머리 속으로 두 가지를 늘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하나는 과거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현재와 미래에 관한 것이었읍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과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 대통령 영부인을 보면서 제 마음은 전으로 되돌아가 있었읍니다. 그 당시, 우리의 선조들은 일리노이주 코머스에서 집도 없이 곧 다가올 매서운 겨울을 앞에 두고 있었읍니다. 그들은 일리노이주로 피난처를 찾아 미시시피 강을 따라 들어왔거나 미주우리주를 가로질러 왔읍니다. 그들은 강이 넓게 굽어진 곳에 있는 땅을 구입했읍니다. 주변은 참 아름다웠지만, 그 땅은 옷에 진흙을 묻히지 않고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정도의 늪지대였읍니다. 그러나, 그 땅은 놀라운 노력과 굉장한 희생의 대가로 아름다운 나부시로 변해 갔읍니다. 그렇지만 1839년 코머스에는 집을 모두 빼앗기고 가까스로 탈출해 나온 수천 명이 다시 모여야만 했읍니다. 몇 해에 걸쳐 이루어 놓은 아름다운 건물도 창고도 교회도 수만의 농장도 모두 내버려 두고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읍니다. 가난하고, 굶주렸고, 미주우리주에서의 보상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그들의 주장을 탄원하기 위해서 요셉 스미스와 일라이어스 힉비를 워싱턴으로 보냈읍니다.

그들은 1839년 10월 20일에 말이 끄는 가벼운 이륜 마차를 타고 코머스를 떠나 5주일 만에 워싱턴에 도착했읍니다. 첫날은 머물 숙소를 찾느라 다 허비했읍니다. 하이람 스미스에게 쓴 편지에서 그들은 "우리는 이 도시에서 가장 싼 방을 발견했다"고 말했읍니다. (교회정사 4권, 40페이지) 미국 대통령 마틴 반 뷰런을 만나 보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으나, 그는 대답하기를 "그렇소, 당신들의 주장은 정당하오. 그렇지만,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오. 만일 내가 당신들을 돕는다면 나는 미주우리에서의 표를 잃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오."(교회정사 4권, 80페이지)

그래서, 그들은 의회에 호소했읍니다. 그러나, 실망한 나머지 요셉은 코머스로 돌아오고 말았읍니다. 힉비 판사는 그들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남아 있었으나, 결국 의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읍니다.

워싱턴에서 요셉 스미스를 거절했던 1839년에 비하면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환영받고 존경받는 1974년의 우리는 연방 정부로부터 얼마나 큰 존경과 신임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이 최근 워싱턴에서의 아름다운 날들에 가졌던 제 생각의 첫번째 장이고 마지막 장이었읍니다.

그리고 이 두 장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다른 스무 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읍니다. 1844년 6월 27일의 요셉과 하이람의 죽음. 나부를 약탈당함. 아이오와 국경에 있는 강을 건너는 길고 처절한 마차의 행렬. 눈과 진흙 위에 캠프를 치던 1846년의 악몽같은 봄. 미주우리에서의 월동용 막사와 많은 생명을 앗아간 괴양, 성홍열, 페스트, 전에 그들의 탄원을 못들은 체 했던 정부에 의하여 발표된 징집. 엘콘과 플레이트 스위트워터를 거쳐 사우드패스를 지나 이 골짜기까지 늘어선 무덤의 행렬. 동부와 잉글랜드를 떠난 수만 명이 혹은 손수레를 끌며 혹은 와이오밍의 겨울에 죽어가며 그 긴 행렬 사이를 빠져나감. 이 골짜기의 풀과 잡초를 수없이 파헤치고 메마른 땅에 물을 대기 위해 수마일이나 되는 수로를 팜. 완고한 신앙을 가진 우리를 핍박하는 수많은 야유와 조소. 워싱턴에서 제정되고 연방 정부에 의해서 보내진 집행관이 실시하는 법 아래 시민권을 박탈당함. 이것들이 저 웅장한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그 참혹한 날들은 지나갔읍니다. 그러한 시련의 불을 통하여 걸어 나가면서 끝까지 견뎌 낸 우리의 선조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의 상속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일생을 통하여 존경받은 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큰 이해와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이것들이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워싱턴 신전을 방문했다가 큰 감명을 받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담고 떠난 수천 명과 악수하면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모두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관한 생각이 또 있읍니다. 하루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 길을 지나가는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는 숲속 언덕 하늘로 곧게 향한 하나님 교회의 뾰족한 탑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읍니다. 갑자기 주께서 산 위에 서서 말씀하신 경전 말씀이 생각났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 : 14—16)

워싱턴 신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산 위에 있는 숨겨질 수 없는 도시가 되었읍니다. 우리는 가끔 명목상으로만 교회의 회원인 사람에 대하여, 신문에서 그가 몰몬이라고 말하곤 할 때마다 저항감을 느낍니다. 우리들은 그가 다른 어떤 교회의 회원이었더라면, 그것은 아무런 얘기 거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는 바로 우리들에 대한 솔직하지 못한 찬사가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서 좀더 훌륭한 것을 기대하며, 우리 회원 중의 한 사람이 비틀거리면, 거기에 아주 큰 관심을 나타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훤히 보이는 산 위의 도시가 되었읍니다. 만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 : 9) 만일 세상이 지금과 같이 어둡고, 반면 우리는 예언자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따른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목받는 거룩하고도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적인 풍조에 의하여 가정의 화목함이 무너질 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계속 지키는 신앙을 갖는다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 명백해지고, 더욱더 대조적으로 거룩해질 것입니다.

성의 개방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가 더욱 만연되면 될수록, 1세기가 넘게 변함없이 가르쳐진 교회의 기본 정책이 보다 더 유일해지고 많은 사람에

게 이상하게도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알코올의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유혹적인 광고물이 증가하면 할수록 세기 이전에 주님에 의하여 선포된 지혜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다 더 특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복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수록 우리의 사회적 독립과 그 뒤에 있는 가르침은 더욱더 독특해 보일 것입니다.

안식일이 점점 더 장사하는 날로 변해 간다면 시내 산에서 주님에 의해 씌어지고 현대 계시에 의해서 다시 강조된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더 이상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면서 그 일부분이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고립해서 살 수도 없으며, 그렇게 살기를 바랄 수조차 없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호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읍니다. 또 어떠한 독선적인 마음과 태도를 피할 수 있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표준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읍니다.

1856년 이 골짜기에 우리만이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었읍니다. 그것에 관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대관장님의 할아버지인 히버 시 킴볼은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나는 나의 형제인 여러분에게 이 평화스런 골짜기에서 성도의 얼굴과 적의 얼굴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한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그러니 형제들이여, 큰 체를 조심하십시오. 큰 체로 걸르는 때가 곧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순간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있읍니다. 이 시련의 때에 누가 똑바로 설 수 있겠읍니까?" (올슨 에프 휘트니, 히버 시 킴볼의 생애, 북크래프트사, 1945년, 406페이지)

저는 그 시련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때가 지금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려고 할 때 그러한 시련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사업이나, 과학, 정치, 의학, 교육의 분야에서 또 다른 가치있고 건설적인 분야에서 우리의 위치를 지킬 의무가 있읍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축복을 주는 세상적인 일도 잘 수행하기 위해, 우리의 손과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것은 우리의 표준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지도자의 충고를 따르며 생활한다면,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웃은 존경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숭고함을 파괴하는 외설적이고 음란한 풍조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술을 배척하며 그것의 판매 상한선과 사용 제한에 관한 입법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투쟁할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짐을 전가시키기보다는 자립하려고 노력하여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며 도움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읍니다. 우리들은 일요일에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일 주일의 다른 엿새를 두고서 꼭 일요일에 가구를 살 필요가 없읍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우리는 일요일에 채소를 사지 않아도 쉽게 식탁을 마련할 수 있읍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표준을 따른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존경하게 되고 그들도 옳다고 느끼는 것을 따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사 2:3) 우리는 타협할 필요가 없으며 타협해서도 안됩니다.

주님께서 이 경륜의 시대에 비추신 빛은 모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선행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들에게서 본 모범된 행동을 그들의 생활에 적용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나라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 워싱턴 신전을 떠나면서 그 첨탑을 쳐다보고는 이 훌륭한 구조물은 훌륭한 나라와 국민을 저희에게 베풀어 준 그러한 덕의 상징이라고 말했읍니다.

워싱턴에는 신전말고도, 가정에서와 직장에서 또는 여가를 선용하는 우리의 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산 위의 도시가 될 더 많은 상징물이 있읍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우리의 구세주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주님의 사업이 진실함을 간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하나님에 대한 탐구는 가장 위대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부의 황폐한 골짜기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세운 이 훌륭하고 역사적인 태버나클에 함께 모였읍니다. 이 대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읍니다. 이처럼 대성황을 이룬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헤드 폰을

쓰고 이 모임의 말씀을 자기 나라 말로 듣고 계시는 분도 있읍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동시 통역이 되고 있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동시에 의사 전달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읍니다. 또한 멀리서 여기 참석하기 위하여 몇 시간 안에 온다는 것은 더욱 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읍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의 편리함과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음을 보고 놀랍니다. 인간은 탐구를 통해서 몇 년 전만 해도 모르던 많은 것을 알아냈고, 지구상의 모든 원소와 자연의 힘을 이용하고 있읍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연의 법칙 즉 하나님의 법칙의 응용에 불과합니다만 과학이 현대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발전하자 인간의 마음은 동요되고 있읍니다. 과학의 가속적인 발전은 우리를 놀라게 하며, 구약과 신약에 있는 기적을 능가하는 것 같게도 느껴집니다. 또한 현대의 과학이 아무리 놀랄 만하더라도 그것들은 금방 우리의 일상 생활에 적용되고, 예사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인간의 지식은 급속히 증가되었고 그에 비례해서 과학적인 탐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가속화되고 있읍니다. 산업계에서, 경제계에서, 정부와 교육 기관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과학적인 탐구를 하고 있읍니다. 세상의 많은 부와 자원이 이 탐구에 바쳐지고 있으며, 과학적 지식과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세계 도처의 수십만의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바쳐 연구하고 있읍니다. 우주 법칙에 대한 탐구는 이미 새로운 경지에 달하였으며, 진리에 대한 탐구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읍니다.

과학은 현대의 인간을 안락하게 해주는 놀라운 것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품과 사치품이 모두 준비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읍니까?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적인 증명에만 의존하려 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그러한 방법으로써 실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사실 과학적인 진리를 추구할 때 적용되는 그러한 원리들은 종교적인 진리를 찾기 위한 탐구에서도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모여 있는 무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태복음 7 : 7—8)

이 말씀은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찾으며 진지하게 진리를 알고자 노력하라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는 과학에서나 종교에서도 동일합니다. 진리의 탐구는 필요한 자료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야 할지도 모르고, 나쁘다고 판명된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만 할지도 모르며, 진리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과학적인 탐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탐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실재하심과 그의 속성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탐구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또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투쟁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반대편 길을 따르는 자도 있읍니다. 그것에 관하여 한 작가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읍니다.

"음악가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대부분은 음악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음악적인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보다는 음악에 대한 취미가 없어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몇 해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서는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연주자는 그의 명성이 세계적일지라도 오랜 연습을 계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연습하고 많은 시간에 걸쳐서 연구하지 않고서는 운동 선수가 뛰어날 수 없고, 기술자가 숙달될 수 없으며, 의사가 전문의가 될 수 없고, 법률가가 유명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 눈과 귀를 막고 내게 음악가적 기질이 없다고 해서 음악가는 있을 수 없다, 내가 발명가가 될 수 없으니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가 없다, 또 내게는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재능이나 취미도 없으므로 예술가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신의 존재에 대하여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생애 동안 신이 있다는 것을 아마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잘못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조셉 에프 메린, 진리 탐구자와 몰몬주의, 데저렛 출판사, 76—77 페이지)

과학적인 진리를 탐구하고자 할 때나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나 반드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지만,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에 의해서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 11 : 1)라고 내려졌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과학자는 분자나 원자, 전자 등을 보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전기나 전파, 자기 따위를 보지 못했지만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실체라고 알고 있읍니다. 같은 방법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면 그를 볼 수는 없지만 신앙에 의해서 그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읍니다. 그것은 소망 이상의 것이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 : 3)고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서 신앙은 믿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읍니다. 이 사실을 증명할 증인은 아무도 없읍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세상의 경이를 보고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연 과학 분야에서의 발견들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님의 문자 그대

로의 부활이나 영적인 영역에 속하는 기적을 믿는 것도 합당한 일입니다. 신앙은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열쇠인 동시에 과학자가 되는 첫번째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 7 : 17)고 말씀하셨읍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큰 계명을 주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 : 37) 하셨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에 대한 굳은 간증을 갖고서 그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증거하는 주님의 사업이 신성하다는 것에 관해 개인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야고보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야고보는 여기서 과학적 견지에서의 실질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간구하라는 권고를 따름으로써 주어지는 하늘로부터의 계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이어서 끝까지 의와 진리로 그를 섬기는 자에 대한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상이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

"또 저들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 주시니, 곧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미래에 이르기까지 숨겨온 나의 왕국에 관한 모든 비밀을 알려 주며 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대한 나의 뜻을 알게 하리라.

"참으로 영원히 놀라운 일도 저들이 알게 될 것이요, 장차 있을 일 곧 여러 세대의 일까지도 내가 저들에게 보여 주리라.

"그리하여 저들의 지혜는 커질 것이요, 이해력은 하늘에까지 미치리니, 저들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소멸될 것이요, 분별력이 있는 자의 이해력이 없어지리라.

"이는 나의 영으로써 깨닫게 하며 나의 권능으로써 나의 뜻의 비밀 곧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것들을 저들에게 알려 줄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76 : 5—10)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탐구하기 위한 방법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읍니다. 즉 신앙, 사랑,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학은 인간에게 경이적인 일을 가져다 주었읍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만 해야 하는 일 즉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 하나님의 실존을 발견할 수는 없었읍니다. 그 일은 쉽지 않으며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희 상이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교성 76—6)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의 영의 자녀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우주를 지배하는 영원한 법칙을 세우셨읍니다. 이 법칙은 인간이 탐구해 나감에 따라 조금씩 발견되고 있지만 항상 존재하며 영원불변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시며 구속주이시며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해 대속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위해 봉사하겠다든 결심을 가지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주는 우롱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오늘날의 당면 문제에 관해 교회 회원과 세상에게 주는 주의의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대회에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영적으로 여러분이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자 회견을 가질 때 흔히 "요즘 교회의 상태는 어떻읍니까"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 질문에 "교회는 크게 발전하고 있으며 매우 굳건한 기반을 갖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번 대회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전세계에 661개의 스테이크를 갖게 되었읍니다. 1943년 내가 교회 본부에 왔을 때만 해도 스테이크 수는 148개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외국에는 그나마 하나도 없었으나 수년이 지난 후 교회는 대양과 대륙을 넘어서까지 뻗어 갔읍니다. 1958년 5월 롬니 부대관장님이 뉴질랜드의 오클렌드에 스테이크를 조직한 이래 해외에 86개의 스테이크가 서게 되었읍니다. 교회에는 현재 112개의 선교부와 661개의 스테이크 선교부가 있으며, 1943년만 해도 비교적 소수였던 선교사가 현재 18,000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적인 성장을 이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째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이지요. 온갖 기회가 주어진 인생, 두려움없이 맞이할 수 있는 죽음, 영원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영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동서남북 세상 도처에 33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우리는 또다시 발전과 성장

의 한 해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집회에 참석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찾아 일합니다. 신전이 계속 세워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신전 사업은 성도의 영적인 자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종합 대학이나 단과 대학, 신학 연구원, 기타 교회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번창 일로에 있읍니다. 지식이 넓혀지고 있으며 간증이 깊이 뿌리를 박고 있읍니다.

전세계에 건축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우리는 거의 매일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으며, 이러한 건물은 성실하고 행복한 백성들로 넘치고 있읍니다.

우리는 만족하거나 자랑하지 않으며 항상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 : 31—32)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위대한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한복음 17 : 15—17)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청결 운동을 벌이고 있읍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던져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인구 증가율보다 쓰레기가 더욱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주변을 깨끗이 미화하도록 권고합니다. "인간은 땅의 소비자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무너진 담은 보수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광은 수리를 하고 지붕을 이어 칠을 하거나 아니면 제거해야 합니다. 창고나 마굿간도 수리를 해서 칠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거해야 합니다. 잡초가 우거진 도랑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집은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골이나 도시나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에서 창고나 짐승의 우리를 보수하거나 깨끗이 가꾸고, 보도 블록을 깔고, 개천을 청소하며, 우리의 물건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끊임없는 청결 운동을 벌이게 될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청소년 그룹 지도자나 보조 조직, 신권 정원회의 지도자들에게 환경 미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한 바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시편 24 : 1)

"나 주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손질하며 지키게 하니라." (모세서 3 : 15)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것을 아름다운 상태로 보존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혼미 속으로 몰아 넣을지도 모를 일부다처 에찬론에 여러분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시를 세상에 선포하게 한 예언자를 통해 이미 수십년 전에 이 프로그램의 종식을 선언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에게 슬픔과 가책을 안겨다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읍니다. 여러분을 혼미 속에 빠뜨리려 하는 사람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고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강력하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자녀에게 명예와 결백과 정직을 가르치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 도둑질하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되겠읍니까? 도둑질, 강도, 약탈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읍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국가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 왔읍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읍니다."(신앙개조 제12조) 충성심과 진실됨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든다면 모든 회원이 술, 코피, 홍차를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읍니다. 물론 아직은 이 지시를 따를 만큼 용기나 간증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철저히 이것을 지키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계시 중에는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교리와 성약 89편이 있읍니다. 근 141년 동안 우리는 술과 독한 음료를 삼가해야 하며, 코피와 홍차가 인체에 유해하며, 담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이며 다만 상처나 병든 가축을 치료하는 데에 좋다는 계시에 담겨진 위대한 진리를 실천해 왔읍니다. (교성 89편 참조)

우리는 최근에 미네소타주 어느 마을에서 모든 기관이 주동이 되어 금연 운동을 펴고 시행 날짜를 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읍니다. 시행 날짜인 1월 7일에 271명이 담배를 끊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읍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운동을 편 마을과 그곳 지도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우리는 또한 의학계나 기타 여러 연구 기관에서 흡연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데 동의했음을 알 수 있었읍니다. 나는 친한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 본 적이 있었읍니다. 의사는 담배가 원인이라고 말했읍니다. 알코올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취중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도 보았읍니다.

술은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에게 크나 큰 슬픔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안겨다 줍니다. 사교상 술을 마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절대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나 이를 누가 보장해 줍니까?

지혜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이것을 어기고는 이상한 변명을 늘어 놓읍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주어진 계시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읍니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예언자를 통하여 이를 계속 반복해 주셨으며, 분명히 계명으로 밝혀 주셨읍니다.

우리는 특별한 파티의 일환으로 술을 대접하는 사업체나 기타 단체의 행위를 개탄해 마지 않읍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신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많은 사람이 사교의 날로 잘못 알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하며, 활력과 확신을 얻기 위해서 자극제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겠읍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생활에서 멀리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이 진정제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읍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리화나나 기타 습관성 약을 복용하여 파멸을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것도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행위에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많은 고용인들이 그날에 휴식을 취하고 예배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물건을 사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유와 구실을 댑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날 물건을 사는 일이 없도록 당부합니다. 우리는 도박성이 있든 없든 도박장에서나 쓰는 카드를 말일성도가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마나 운동 경기 등에서 도박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내일 아침에 있을 복지 모임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것들이 토론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갖는 책임을 다른 단체에 의탁하려 하는 사람이 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 년 사용할 양식을 저장해 놓으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우리는 긴급한 때를 당하여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이나 물자가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축되기를 바라며, 그들이 가진 것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어려운 때를 극복해 갈 수 있게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감독님이 현명하여, 도움을 주는 데 인색하거나 지나친 관용을 베풀지 않기를 바라며, 일시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도 정직하고 공정하고 현명하게 도움의 손길에 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때가 닥쳐 오게 되면 빈 항아리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뒷마당 공터를 갈지 못하고 유실수를 심어 식량의 부족을 메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독립해서 살 수 있게 계획하셨으나 우리는 많은 농부가 낙농품 상점에서 우유를 사며, 땅을 소유한 사람이 가게에서 채소를 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일 트럭이 가게에 상품을 날라다 주지 못한다면 굶주림을 당하게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신조로 삼고 있읍니다. 십계명 중 네번째 계명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출 20 : 9)라고 되어 있읍니다. 점차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놀이나 여행 등에 마음을 쏟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 사정은 일반 대중에게 여행과 놀이와 음주의 기회를 더욱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상점이나 식당 기타 여러 곳에서의 낭비를 걱정하고 있읍니다. 연회가 끝나면 많은 음식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낭비하거나 내버리고 있읍니다.

우리는 항상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갖도록 권고해 왔읍니다. 우리는 자기 집을 갖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읍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어려운 때가 다시 온다고 예고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자기 수입과 그 외의 것까지도 모두 써버리는 사람이 그러한 때를 당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가 걱정됩니다.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게 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여러분은 수입 이상으로 지출하며 생활하지는 않습니까? 위험한 때를 당해 돈을 갖지 못하고 빚을 지게 되지는 않는지요?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면 얼마나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겠읍니까? 유흥장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어울려 보면 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속된 표현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십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출 20 : 7)고 가르치고 있읍니다. 기도나 합당한 설교 이외에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경죄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지는 죄였읍니다. 불경이란 겁장이가 자신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나 지도자가 외설 잡지나 사진에 관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로 쓰레기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는 정상적이고 만족스런 정신의 양식처럼 되고 있읍니다. 일부 작가는 외설 소설로 정신 환경을 오염시키며 기쁨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으로도 금지시키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외설 문학과 저속한 성적 충동과 성도착은 서로 연관이 있읍니다. 우리는 스트리킹(나체질주)이나 이와 비슷한 속된 성적 유희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인간이 이처럼 저속하게 타락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빠져드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추한 세상의 풍조를 일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외설 문학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죄와 직결됩니다. 살인, 강도, 강간, 윤락 행위, 상업화된 죄악의 씨 등은 모두 이와 같은 부도덕의 온상에서 자라게 됩니다. 죄와 외설 문학 사이의 관계를 성 범죄 통계 자료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의 가치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라도 그들의 자녀를 이러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당부합니다. 우리는 매사를 허용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사람들이 그들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부도덕한 면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오늘날의 추세가 이 시대의 도덕의 근간을 썩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켈리포니아주 지사인 리건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인도주의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읍니다. 우리는 죄없는 자가 처형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가장 걱정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인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그들을 범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환자입니다.

그는 병을 앓고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사회의 낙오자입니다. 사회가 그 죄에 대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왜 그가 비난을 받아야 하겠읍니까?"

우리는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어린 아이들을 징계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범죄율은 인구 증가율의 9배 이상을 선회한다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태어난 첫아기의 삼분지 일이 혼외의 관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년 동안에 약 400,000명이 혼외 관계로 태어났읍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보고가 있었읍니다. 고등학교 성적 부진아의 반수 이상이 임신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매년 미국의 백만 이상의 여성이 불법 낙태 수술을 받고 있읍니다. 한 사람의 체면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그 결과 매년 8,000명의 여성이 죽음을 당하고 있읍니다. 미국 대학생의 사망율 중에서 자살이 그 으뜸을 차지합니다.

어느 인기 작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엄한 도덕의 표준 때문에 오늘날 전반적인 사회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근엄한 도덕의 표준에 근거를 두고 오늘날 인간의 모든 행위에 화를 낼 것이다." 그리스도는 편안과 안일만을 일삼는 우리의 생활 태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도덕적으로 이완된 상태를 꾸짖으십니다. 그는 우리가 폭력에 의지하고 사랑과 거룩한 생활 태도를 거부하는 행위를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안일을 최고의 낙으로 삼는 사회에 살고 있읍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프로그램이 근엄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였읍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디도서 1 : 15—16)

가정은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모든 가장은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머니는 딸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권고를 무시하면 아무런 변명의 구실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많은 부모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양쪽이나 일방의 부정으로 인해 이혼이나 별거 생활을 하는 가정은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되새겨 보게 합니다.

"너는…간음하지 말라…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59—6)

우리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신을 깨끗이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파멸과 고통으로 이끌려 옆길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 : 27—28)

마음의 음욕과 눈의 음욕과 육신의 음욕이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지니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여성이 남편을 존중하고 가족이 함께 있는 가정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젊은이는 자신의 덕성을 망쳐 버리게 이끄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인생을 망치는 성적인 부도덕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지 않도록 극기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일찌기 온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를 계속해야 합니다.

여하한 형태의 동성애도 모두 죄입니다. 외설 문학이 바로 이러한 죄로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엔 중용이 있을 수 없읍니다.

무지하고 사악하여 남성과 여성의 진정한 개념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점점 많은 여성이 남성의 복장을 하고 행동하며 머리를 기릅니다. 남성은 점점 여성처럼 옷을 입고 머리 장식을 하며 행동합니다. 인생의 높은 목적이 점증하는 단성 이론으로 파괴되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으며 다시 이들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자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주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성을 바꾸는 사람은 참으로 그들의 창조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이 또 다른 나팔소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이 루벤 글라크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의 문명은 결혼의 성스러움과 가정의 거룩함이라는 순결 위에 기초를 두고 있읍니다. 이것이 없을 때 기독교인은 야수가 되고 맙니다." (대회 보고, 1938년 10월, 137페이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을 시험받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읍니까?

모든 것을 묵인하는 이 세상의 온갖 죄가 다 청소년들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최근에 영화 잡지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읍니다. 결혼을 계약으로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읍니다.

"결혼 제도란 폐지되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사회 여론만 없다면 그것은 유토피아(이상향)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어느 여자에게 질문을 던졌읍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나도 결혼이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제도가 이런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을 보지 못했읍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살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들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회원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합니다.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결혼한 정상적인 부부라면 모두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구를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여 주신 것임이니라.

"그런고로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룸이 마땅하니,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9 : 15—16)

결혼과 가족이 없는 삶이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혼인 이외의 성관계는 주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며, 많은 사람이 이 위대한 진리에 눈이 먼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는 그처럼 속되고 위험스러운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읍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단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남편이나 아내되는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부도덕이나 부정에 의한 이혼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쪽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의 수가 늘고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들의 자녀를 키우도록 하셨읍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되어 주는 책임을 상실한 사람은 그 책임을 따지는 날카로운 질문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를 복수의 개념으로 쓰셨으며 자녀가 합당히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다"(교성 68 : 25)고 하였읍니다. 파탄된 가정이 구실을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읍니

다. 이혼의 사유는 대개의 경우 이기심에 있읍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가족을 버린 부모는 자기들의 변명이나 구실이 대심판자를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남녀의 성적 부도덕 행위는 결코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없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악이며, 그러한 변명은 아무런 힘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을 관용으로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낙태를 통해 금년에 들어 수많은 영의 자녀가 목숨을 잃었다는 보고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이처럼 추악한 죄에 빠지는 여성과 이들을 돕는 사람들은 응보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 우리가 원하는 자녀를 이 세상에 데려오고, 그들을 의롭게 키웁니다.

우리는 젊은 부부가 산아 제한을 위해 수술을 받거나, 정관 절제 수술을 권장하는 부모가 많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리석은 변명에 만족하지 않으실 거룩한 심판자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시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왜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운명을 빼앗아갑니까? 첫 개척자가 정착할 오두막집을 세운 때부터 가정과 가족은 참된 문명의 중심이 되어 왔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프로그램을 왜곡하면 처참한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해 왔읍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냇물 위에 휩쓸려 다니는 나무 껍질처럼 거짓 생각과 위험한 방법과 악마의 교리로 우리의 운명을 망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꼬임에 빠져 있읍니까?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좁고 협착한 길"(마 7:14)에서 안일하고 넓은 길로 들어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귀를 기울이시겠읍니까? 지도자의 말씀과 권고를 따르시겠읍니까? 암흑의 길로 이끌더라도 여러분이 택한 길로 나가겠읍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며 공정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공의는 동정, 용서, 자비에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일의 전모를 알고 계셨읍니다. 그분은 현재 이루시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가책과 고통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롱을 당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성 63:58 참조)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아멘.

1974년 10월 5일 토요일 신권 모임

다윗과 골리앗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시험과 방해물을 극복하기 위해 영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형제 여러분, 오늘밤 195,000에 달하는 우리 신권 소유자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모임에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리조나주 세인트 조셉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단으로 있던 몇 년 전 어느 일요일에 에덴 와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읍니다. 건물은 매우 작았고, 모든 사람들은 평지보다 반 피트 정도 높게 올린 연단 앞까지 빽빽하게 들어 찼었읍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연단 앞 좌석에 앉은 일곱 명의 어린 소년들에 시선이 끌렸읍니다. 나는 이 와드 대회에서 본 이 일곱 소년들이 마음에 들었읍니다. 나는 이들을 내 머리 속에 기억하고는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려 하였읍니다. 그러나 곧 나는 다시 이 어린 일곱 소년들에게 마음을 쏟고 있었읍니다.

이들 일곱 명의 어린 소년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포개 놓더니 곧 모두가 동시에 이번에는 그 반대의 동작을 취하므로 참 이상하게 생각되었읍니다. 좀 보기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지나쳐 버렸읍니다.

잠시 후 이들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 머리를 매만졌으며, 다시 이 일곱 명은 팔을 등어리에다 가볍게 갖다 대었으며, 한쪽 손으로는 턱을 바치고 있었고, 조금 후에는 일제히 다시 다리를 포개었읍니다.

모든 행동이 이상하기만 하여 나는 그 대회에서 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그곳으로만 쏠렸읍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음과 같은 느낌이 내 가슴을 파고 들었읍니다. 비로소 나는 이 소년들이 나를 흉내내고 있었음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나는 인생의 큰 교훈을 배웠읍니다. 역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주시하고 있고 그들에게서 모범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참으로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읍니다.

모범이란 소년의 삶에 반영되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따르는 사람은 많으나 이끄는 사람은 적읍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지도력을 배양하고 훌륭한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생이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그대로 따르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십대의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잊지 않기 바랍

니다. 여러분이 집회에 참석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여러분의 어린 동생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행하는 선교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충실하게 신학 연구원에 나가며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고,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어린 동생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테렌스[1]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그에게 거울을 들여다보듯 다른 사람의 생애를 보고 그로부터 훌륭한 모범을 본받으라고 말했읍니다."

이솝의 우화에서 이솝은 "네가 모범을 보이면 내가 따르겠다"고 말했읍니다.

모범은 가장 좋은 훈계입니다. 사무엘 존슨[2]은 "모범이 훈계보다 낫다"고 하였읍니다.

나는 연령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지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값있고 아름다운 인생일 수도 있읍니다. 건설적인 행동으로 가득 찬 인생일 수도 있고 파괴로 점철된 인생일 수도 있읍니다.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비참한 모습으로 가득 찰 수도 있읍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과 여러분의 태도에 달렸읍니다. 여러분의 자세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따라 여러분이 오를 수 있는 고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위스에 있는 산이나 캐나다의 반흐 산이나 유타주의 팀파노고스 산을 등반할 때 여러분이 큰 목표를 지닌 사람들과 함께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모두 여러분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이 항상 쉽게 그곳을 정복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이브라함 링컨[3]은 젊은 시절에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참패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는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무성의한 동업자가 안겨다 준 부채를 갚느라고 17년을 허송하였읍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약혼까지 하였으나 그녀가 곧 죽고 말았읍니다. 정계에 투신하여 의회에 진출하려 했으나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였읍니다. 미정부 국유지 관리국에서 직장을 얻으려 하였으나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읍니다. 그는 미 상원의원에 출마하였으나 여기서도 참패를 면치 못하였읍니다. 다시 그는 1856년에 부통령 후보자가 되었으나 다그라스에게 지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실패와 고난이 뒤따랐으나 그는 결국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이르렀고 생애를 마칠 때까지 불멸의 명성을 떨쳤읍니다. 이 사람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수많은 책이 씌어졌읍니다. 험난한 산을 정복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바로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전개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무명 작가는 이렇게 썼읍니다. "인생에 큰 장애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한 장애가 대개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험난하다는 것에 기뻐하십시오. 그러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행복으로 아십시오. 무리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장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벗입니다. 큰 장애가 없다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앞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소년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시작했는지를 말해 주는 옛날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울왕이 그 높은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주님은 예언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의 후계자를 찾게 하였읍니다. 예언자는 여덟 아들들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갔읍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하나씩 접견을 하겠다고 말했읍니다. 자만심에 찬 아버지는 장남인 엘리압을 데리고 오면서 틀림없이 그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속으로 확신하였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 : 7) 이 아버지는 다시 둘째를 데려 왔으나 그도 역시 거절되었읍니다. 일곱 명의 귀여운 아들들이 차례로 예언자 사무엘 앞에 불려 왔으나, 예언자는 아버지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물었읍니다. 이에 이새는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라고 대답하였읍니다. 사무엘은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고 말했읍니다. (삼상 16 : 11 참조)

집에 들어오는 막내는 혈색이 좋았고 잘 생긴데다가, 얼굴이 탔으며, 명랑한 성품의 소유자였읍니다. 이는 그가 밖에서 양과 함께 매일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읍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영감을 주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삼상 16 : 12)고 하셨읍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고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읍니다.

이즈음 이스라엘의 적이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 침략하여 한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다른 편 산에서 골짜기를 두고 마주 보게 되었읍니다.

전쟁터에서 군사가 서로를 마주 보고 섰는데 적 중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사가 걸어 나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삼상 17 : 8—9) 그는 이렇게 더 외쳤읍니다.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삼상 17 : 10)

이 사람은 거인이었으며 두려울 게 없었읍니다. 3미터 키에 철갑을 입었고 투구를 썼읍니다. 다리에는 놋경갑을 찼고 어깨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므로 매우 무거웠읍니다. 그의 창자루는 베틀채 같았고 칼날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왔읍니다. 그의 방패는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닐 정도였읍니다. (삼상 17 : 5—7 참조)

그는 실로 무서운 상대였읍니다. 이스라엘측 병사가 그를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에게 감히 도전할 용기를 가질 사람은 하나도 없었읍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뒷걸음질 치며 떨고 있었다는 것은 능히 이

1 테렌스(190—159 BC) 로마 극작가
2 사무엘 존슨(1709—1784) 영국 작가
3 에이브라함 링컨(1809—1865) 미국 16대 대통령

해가 갑니다.

사울의 군대에 세 아들을 보낸 아버지 이새가 그들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었읍니다. 이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방위하는 군대로 나갔으므로 양을 치는 일은 다윗에게 맡겨지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아버지는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 형을 위하여 볶은 곡식과 떡을 전하고, 치이즈 열 덩이를 천부장에게 전하게 하였읍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로 갔읍니다. 그는 양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읍니다.

전쟁터에 와보니 막 전투가 벌어지려는 순간이었읍니다.

다윗은 짐군에게 짐을 맡기고는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형들에게 인사를 올렸읍니다.

이때 다시 블레셋 사람은 전과 같이 소리를 쳤읍니다. 다윗이 앞줄로 다가섰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읍니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리라"(삼상 17 : 25 참조)

다윗은 형들로부터 그곳에 왔다고 다음과 같이 꾸지람을 들었읍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뉘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삼상 17 : 28 참조)

다윗은 형들의 꾸지람에 당황하여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삼상 17 : 29 참조)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훌륭한 목적을 영감으로 받아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다윗의 영감과 계시가 사울왕에게까지 전달되었으며, 왕은 그를 불렀고 다윗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삼상 17 : 32 참조) 그러나 사울은 그 말에 놀라 이렇게 말했읍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사무엘상 17 : 33—36)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계속해 말했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삼상 17 : 37 참조)

사울은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으나 그는 무거워 감당할 수 없어 벗어 버렸읍니다.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삼상 17 : 39)라고 다윗은 말했읍니다.

그는 강을 건너가 허리를 굽히고는 땅에서 작은 돌 다섯 개를 주워 양치는 데 쓰던 가방에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읍니다.

이 거인은 어린 소년이 다가오자 화가 치밀어 올랐읍니다. 젊고 얼굴이 붉으며 용모가 수려한 이 소년을 본 블레셋 사람은 화가 나 이렇게 외쳤읍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삼상 17 : 43—44 참조)

이에 다윗이 크게 맞서 블레셋인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사무엘상 17 : 45—47)

블레셋인과 목동은 서로 다가섰으며 둘 다 자신에 넘쳐 있었읍니다.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삼상 17 : 49)

나는 젊은이 여러분께서 이 물매를 가지고 쏴 본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것을 만들었으며, 돌을 주워 목표물을 정하여 능숙하게 맞히곤 하였읍니다. 우리는 5 센티 길이의 가죽을 타원형으로 오려서 양끝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다시 긴 가죽 끈을 매고 한쪽에 매듭을 지어 이곳에 우리 손가락을 집어 넣고, 타원형 가죽에 돌을 넣어 힘이 부칠 때까지 머리 위로 돌리다가 한쪽 끝을 놓아 돌이 목표물에 맞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매, 호루라기, 장난감 공 등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놀았읍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사무엘상 17 : 50)

그가 사용한 것은 작은 돌과 물매와 영감과 계시뿐이었읍니다. 그는 용기가 있었고, 힘이 있었으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나 그가 기도를 올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대단했었읍니다.

40 일간 블레셋인이 가졌던 당당한 기세와 독선과 오만한 태도가 골리앗의 죽음으로 끝장을 보게 되었읍니다.

적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어넣기 위해 다윗은 땅에 쓰러진 적에 다가가서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읍니다.

이 행동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병사가 모두 도망갔고 이로써 영감받은 어린 소년이 모든 적군을 무찌르게 되었읍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도주하는 블레셋인을 쫓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읍니다. 왕은 그처럼 기적과 같은 공적을 이룬 소년이 누구인가를 물었으며, 요나단이 칼과 활과 띠를 그에게 주었읍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삼상 18 : 14)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이길 수 있으며, 또한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주먹이나 칼이나 총으로 싸우는 무사가 아닐 수도 있읍니다. 그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읍니다. 그는 8척의 거인이 아닐 수도 있으며 갑옷을 입지 않을 수도 있으나, 모든 소년은 다 싸워 이겨야 할 골리앗과 같은 적이 있읍니다. 모든 소년은 그의 물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매끄러운 돌을 줍기 위해 강가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위협할 골리앗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이 마을의 깡패이거나, 도둑질이나 파괴로 이끄는 유혹이거나, 절도를 하거나 닥치는 대로 파괴를 일삼게 하는 유혹이거나 육욕이나 죄로 이끄는 유혹이거나 교회 활동을 기피하게 하는 생각이거나, 혹 어떠한 것일지라도, 이 골리앗은 무너뜨릴 수 있읍니다. 그러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걸은 길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삼상 18 : 14)

다윗은 성실한 사람으로 그의 부친의 양을 돌보았읍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다른 일을 지시받았을 때는 반드시 양을 돌볼 사람을 마련해 놓고야 양떼를 떠났읍니다.

다윗은 책임감이 강했읍니다. 그의 양떼는 그의 손에 달려 있었읍니다. 그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자나 곰과 싸웠읍니다. 그는 곰의 입에 물린 양새끼를 다시 뺏아 어미에게 데려다 주었읍니다. 다윗은 돌 다섯 개로 골리앗을 죽였읍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한 가지 뿐이었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님을 믿는 한 어떠한 사람도 두렵지 않았읍니다. 그는 블레셋 거인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 17 : 45)

얼마 전에 나는 시사 잡지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읍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적의 냉혹한 찬 바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줄이 끊어진 연이 땅으로 떨어지듯 그 바람 앞에서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를 멸망하려는 바람이 오히려 그를 하늘 높이 오르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시련에 의해 평가되지 않고 그것을 얼마나 극복하였느냐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송유관 선전 광고가 있었읍니다. "강이나 산이나 바다도 우리의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뚫고 갈 수 없을 때, 위로 밑으로 둘러서라도 가고야 맙니다."

우리 교회의 회원들이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오늘 저녁 터틀 형제가 말씀하신 선교 사업을 들 수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 본부 건물에 걸려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온 세상에 나가서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읍니다. (마 20 : 19—20 참조) 다시 한번 젊은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부름에 응할 책임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을 통해 주님으로부터의 부름을 받게 될 때 이 부름에 기꺼이 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선교사로 나갈 목표를 세우셨다면 세계 여러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비용을 지금부터 저금해 두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여러분의 수중에 들어오게 될 때마다 그 중의 일부를 선교사 비용으로 저축하십시오. 부모에게 선교 사업의 비용을 부탁하느니보다는 모든 소년이 각자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침례를 받고 성신을 부여받은 세상의 모든 소년은 복음의 메시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받은 기회이며, 여러분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에드가 에이 게스트[4]는 "장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썼읍니다.

생각해 보라, 나의 아들아
위대한 사람이 지녔던
두 다리, 양팔, 두 손, 두 눈과
두뇌를 네가 가졌으니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정상을 향해 출발하고
"할 수 있읍니다"라고 말하라.

현명하고 위대했던 사람을 보라
평범한 그릇에 밥을 먹었고
비슷한 수저를 사용했으며
같은 구두끈을 매었으나,
세상은 그들을 위대하고 용감하다
하지 않는가!
그들도 너와 똑같이 출발했단다.

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으며,
마음에 따라 위인도 될 수 있단다.
어떠한 전쟁에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힘찬 팔, 다리, 머리가 있단다.
위대하게 된 인물도 다 처음에는
너와 같이 출발한 사람임을
기억하여라.

네가 마주칠 장애가 바로 너요
네가 설 땅을 택할 사람도 너요
네가 갈 곳을 말해 주는 사람도
남이 아닌 바로 너란다.
얼마나 진리를 탐구하려느냐
하나님은 네게 생명을 주셨으나
네 진로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너란다.

마음속에 용기를 지녀야 하며
승리의 뜻을 품어야 하리니
자, 나의 아들아 생각해 보라
위인이 지닌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난 너니 그들처럼 시작하라.
두려움을 버리고
"할 수 있읍니다"라고 말하라.

에드가 에이 게스트 시집 : 시카고 ;
레일리 엔드 리, 1934년, 666페이지.

여러분의 진로를 방해하고 가로막을 또 다른 거인 골리앗에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이번에 그의 이름은 외설과 저속함입니다. 자 들어 보십시오.

네가 저속한 이야기를 할 때
잠시 멈춰 생각하라
많은 무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소년들이 즐긴다고 여기며
웃는다고 하여서
자랑스럽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속된 이야기가 네 입에서 나올 때
네가 심중에 품은 생각을 모두

4 에드가 에이 게스트(1881—1959) 미국 시인

드러냄을 모르는가?
너의 저속함과
너의 무지함을 드러내나니
선량한 소년에게
구토를 일으키느니라.

너의 더러운 마음을 남에게 보이고
진정한 상식을 나타내 보였다고
생각하려느냐?
부모와 친구를
모독하고 있음을 모르는가?
잘 생각하면 알게 된단다.

선택해서 말을 하며
좀더 다듬어진 말을 하라.
주위의 존경을 얻으면
죄와 저속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큰 이로움을 맛보게 되리라.

어린 시절에 읽은 이 시에 나는 크게 감명을 받았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시를 듣고 새로운 느낌을 받으셨기를 빕니다.

나는 아리조나주에 살던 어린 시절에 그곳 농부들이 참외를 재배해 시장에다 팔곤 한 것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불량 소년들이 패거리를 지어 야밤을 틈타 참외밭에 침입해 칼로 참외를 찍어 버리곤 했읍니다. 그들은 참외를 훔쳐 먹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파괴하고 싶은 못된 의도로써 이 짓을 하곤 하였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이런 것은 방화, 창문 파괴, 본능적으로 파괴적인 저속한 장난 등과 같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지만 이는 그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읍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였읍니다. 그는 맨손으로 곰을 죽였지만 아버지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처럼 파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셨다면 그를 타일러 아무런 가치도 없고 자신의 인품에 상처만을 남길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도록 당부합니다.

몰몬서의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시련의 날에 지혜로우며 너희에게서 부정한 것 모두를 털어 버리라. 욕망으로 인하여 구하지 말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간구하여 유혹에 빠지지 말며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몰몬서 9 : 28)

헨리 반 다이크의 다음 구절은 여러분에게 실감이 갈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하였고 의심으로 하늘의 빛을
어둡게 했으며, 당신을 가두기 위해
신전벽을 높이 쌓아 올렸으며
당신을 내쫓기 위해
철의 신조를 만들었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글—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깨끗하여야 하며, 온갖 악한 행동이나 생각을 멀리 해야 합니다.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화풀이 등을 삼가해야 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의로운 일을 행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나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은 후 성신을 받았읍니다. 여러분은 행위나 생각이 옳거나 그르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영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신의 그림을 그리며, 동상을 새기고 있읍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젊은 형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참된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은 다 옳은 일이며,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며, 여러분을 사내답고 강하게 해줍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삼상 18 : 14)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해류와 가정의 영향력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는 강력한 영향력이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처음으로 빙산을 보았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1937년 나는 킴볼 자매와 함께 처음으로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기선을 타고 세인트 로렌스 강을 지나 북대서양을 횡단하는 여행을 하였읍니다.

내가 대양 한가운데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 일이 생겼읍니다. 모두가 빙산을 본 것입니다. 승객이 모두 빙산을 보기 위해 갑판으로 몰려들었읍니다. 우리는 멀리서 검푸른 바다와 푸른 창공에 위용을 드러낸 빙산을 볼 수 있었읍니다.

그 빙산은 험준한 산에 우뚝 솟은 봉우리와도 같이 조용히 물에 떠 있어 보기에는 아름다왔읍니다. 나는 그때까지 빙산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었지만 처음으로 험준한 얼음산을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빙산을 보자 나는 대서양 처녀항해 중 침몰된 타이탄 호가 생각났읍니다. 1912년 4월 14일 저녁 늦게 거대한 빙산이 새로 건조된 대형 기선을 침몰시킨 것입니다. 대부분 영국과 미국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첫승객 중 1,503명이 배가 침몰할 때 물에 빠져 사망하였으며, 703명만이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읍니다.

4년 전에 우리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상에서 그린란드를 지나면서 다시 큰 빙산을 보았읍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구름 위에서 보냈으나

우리가 그린란드를 지날 때에는 날씨가 개어서 하늘에는 구름이 한 점도 없었었읍니다. 태양이 눈부시게 내리 비쳤읍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장관은 좀처럼 보기 힘든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눈 아래 수천 미터 두께의 거대한 둥근 빙산이 떠 있었었읍니다. 우리는 두꺼운 얼음 덩어리가 계곡을 흘러내려와 부서져서 얼음 조각이 되어서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도 보았읍니다. 해안은 바다도 떠내려가는 얼음 덩어리로 가득 찼읍니다.

그린란드 빙산의 얼음 조각들은 대체로 정해진 코스로 흘러내려갑니다. 래브라도 해류가 끊임없이 배핀만과 데이비스 해협을 지나 남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있어도 이 얼음산을 안고 갑니다. 해류는 지상의 바람보다도 그 방향을 바꾸는 데 훨씬 힘이 듭니다.

우리는 의로운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서 가정에서 정리되고 발전된 우리 생활의 조류가 파오가 들끓는 세상의 모든 풍파나 악영향을 이기고 자녀가 가야 할 방향을 이끌어 줄 때 우리 생활에 오는 결과를 세상적인 힘의 투쟁과 비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대양의 파도 아래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놀라운 힘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그와 비슷한 강력한 힘이 있읍니다.

그 큰 미시시피 강도 대양의 해류에 비하면 한낱 작은 시내에 불과합니다. 해류 중에서도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래브라도 해류입니다. 두번째로 큰 것이 멕시코 만류로, 이 해류는 미국 동부 해안과 평행하게 있는 멕시코만의 동부에서 더운 해류를 끌고 대서양을 건너 유럽 해안까지 날라 줍니다. 멕시코 만류는 미시시피 강의 1,000배나 되는 물을 운반합니다. 래브라도 해류는 매년 그린란드로부터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곳까지 수천 개의 빙산을 날라 줍니다. 타이탄 호가 침몰한 곳도 바로 래브라도 해류와 멕시코 만류가 마주치는 곳이었읍니다.

빙산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부분적으로만 눈에 띄는 힘에 의해 진로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빙산이라기보다는 배에 좀더 가깝다고 하겠읍니다. 우리는 자신의 동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고, 우리가 해류를 알아보면 그 이점을 이용할 수도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의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흐르는 해류를 만든다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은 고난, 실망, 유혹 등의 역풍에도 이겨 내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과 성인들이 심한 풍파에 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하고도 생각해 봅니다. 유행의 바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불어닥칩니다. 성적인 유혹의 바람은 이에 빠진 사람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 밝은 앞날을 흐리게 하며 그를 타락하게 합니다. 습관성 약, 신성 모독, 외설의 수렁에 빠진 나쁜 친구들은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강력하고 꾸준히 인도되지 않을 때 우리를 실족시켜 버립니다. 우리 삶의 해류는 부모나 가정 생활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깨끗하고 성스럽고 진실되고 힘차며 세상의 힘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배웠읍니다. (아브라함서 3 : 22 참조)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인간의 독특한 존엄성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가끔 훌륭한 집안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반항하며 의의 길을 이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우는 예를 보아 왔읍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모범을 가르치고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부모에게 슬픔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나는 이처럼 수년간을 방황하고 헤매다가는 마침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되는 사람의 예도 많이 보았읍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그들이 온갖 역풍을 받고 고생을 하게 되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은 그들이 자라온 가정이라는 생활의 해류에 의해서 그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후에 그들이 어린 시절에 즐겼던 분위기를 그들의 가정에 다시 재현하고 싶다고 느낄 때 그들은 부모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신앙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의로운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항상 옳은 길에 잡아 둘 수 있는 보장책은 없으나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그들을 잃게 마련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자유의지를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곧고 좁은 길"로 이끌지 못한다면 유혹의 파도나 바람과 악이 그들을 바른 길에서 이탈시켜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 : 6) 자녀에게 건전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로운 부모는 마지막 날에 흠없이 심판대에 서게 되며, 전부는 아니라도 자녀를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사이야는 우리 영혼의 싸움을 이렇게 설명하였읍니다.

"무릇 육으로 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적이요,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 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지 아니할진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적이 되리라."(모사이야서 3 : 19)

"육으로 난 인간"이란 자신의 영적인 속성을 가볍게 보고 동물적인 욕정에 쉽사리 굴복해 버리는 인간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종교에 반대되는 끊임없는 선전을 받고 있었었읍니다. 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 어떻게 자녀들을 교회에 붙잡아 두고 신앙을 잃지 않게 하는지를 물었읍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우리들은 매우 신중하게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육시켜 그들이 선악을 가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학교에 가도 항상 듣는 무신론적 철학으로 미혹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믿으며 신앙을 갖고 충실히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적이고 성실한 부모를 축복해 주십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는 개인적인 결의를 다짐할 수 있는 안정된 결혼이 시작입니다. 그처럼 건전한 기초를 가진 우리의 자녀들은 평화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현대의 분석가들은 급변하는 세계에서 인간은 지속성을 잃게 되는 것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읍

니다. 사회의 이와 같은 유동성은 우리의 자녀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거나 조부모, 삼촌, 아주머니, 가까운 이웃 등의 관계를 잃어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해 줍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들은 영원히 함께 속하고 있으며, 가정 밖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가운데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기본적인 유대가 있다는 느낌을 가족들에게 심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친척들과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신을 교환하며, 방문하고, 친족 활동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안고 그들이 영원히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 기쁘다고 말한 지가 얼마나 되었읍니까? 남편이나 아내되시는 분은 단지 상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값이 비싸지는 않으나 놀라운 선물감을 사다 준 지가 얼마나 되셨읍니까? 여러분이 집에 장미를 사가셨거나, 집에서 특별한 음식을 요리했거나, 생활을 보다 훈훈하고 사랑이 깃들게 하기 위하여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읍니까?

건축 기금 모금이나 적십자 기금 모금 운동에 협조하시거나 토요일 저녁 한때를 미망인 가정 돕기 운동에 참여하실 계획이라면 이 사실을 자녀에게도 알리시고, 가능하다면 그들도 결정하는 데 참여시키고 내려진 결정에 실시되는 일에도 참여시키십시오. 가족이 모두 가족 중 한 명의 침례, 확인, 안수 등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읍니다. 모든 가족이 축구팀에 든 아들을 응원하러 게임에 참석할 수 있읍니다. 모든 가족이 가정의 밤, 식사 시간, 가족 기도에 정규적으로 참석할 수 있읍니다. 모든 가족이 십일조 헌금에 참여하여 교훈과 모범으로 아름다운 원리를 배울 수 있읍니다.

가정은 특별한 경우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모두가 주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정규적으로 갖는 진지한 기도입니다. 그저 기도만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밝혀 주신다는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를 보려고 어린 자녀가 눈을 뜨고 살폈다는 이야기처럼 기도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학업 때문에 멀리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아내가 긴장감으로 고생하거나, 가족 중에 누가 결혼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인도를 간구할 때 가장은 축복사로서의 책임을 갖고 이들을 축복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또한 아버지가 부재중일 때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자녀에게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부여된 신권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의로움 가운데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빙산과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읍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배처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자신을 옮길 수 있읍니다. 우리는 그 해류의 흐름을 안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읍니다. 남미에서 대서양 연안 항구로 가는 크고 많은 기름 탱크나 유조선은 항공기가 공중의 제트 기류를 타듯이 멕시코 만류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류와 싸우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해류는 어쩔 수 없이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다.

피어리 제독이 북극을 여행할 때 그는 섬과 같은 빙산 위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가 개를 데리고 북쪽을 향해 달리고 있을 때에도 그 빙산은 해류에 의해서 더 빠른 속도로 그를 남쪽으로 싣고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특별한 안식처이며, 가정과 가족은 우리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회를 통해 가정 생활, 가족 생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부모와 자녀에 관해 많이 들어 왔읍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계획하신 방법입니다.

연 사흘간 깊은 생각을 갖게 한 본 대회를 마치면서 우리는 본 대회를 통해 훌륭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많은 지식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여러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도 대회의 문을 닫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가정으로 갖고 갑시다. 이 말씀을 가족에게 전하고, 성찬식 때 보고합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족에게 전하고, 여러분이 받은 유익한 영감이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준 결심을 그들에게 전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다 훌륭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합시다.

대회를 마치면서 우리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축복도 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종사하는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임을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먼 거리를 여행해 와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배불리 먹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살아 계시며, 아담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 요단 강둑에 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 : 17)고 하시며 세상이 모두 의지해야 할 아들을 세상에 소개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우리가 경배하고, 변형의 산에 나타나셔,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약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힘써 온 종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다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17 : 5)고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압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뉴욕주에 나타나셔서 니파이인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오랫동안 암흑 속에서 떠내려가던 세상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서 : 17)고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나는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리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가르칩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주님이 주신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하고 실천한다면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싸움에 용감하라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예수를 증거하는 데 용감하다는 것은 모든 복음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뜻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목표를 주었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디모데전서 6 : 11—12)

오늘날의 사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으면서 그를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성약하고, 그리스도의 짐을 스스로 짊어진 사람들에게 그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진리와 의의 대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용감하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진실하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세상적인 일들을 극복하십시오.

바울은 자기 자신과 그가 싸워 이긴 세상과의 큰 싸움에 관해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디모데후서 4 : 7—8)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대 전쟁에 참여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루시퍼와 모든 세상적이고 육욕적이며 사악한 것들과 싸우고 있읍니다. 우리는 친구 옆에 서서 적과 싸우기로 결심하였으므로, 적과 벗을 구별하는 데 혼동을 빚어서는 안되겠읍니다. 고대의 또 다른 사도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약 4 : 4)

사면에서 공격해 오며 불행하게도 많은 사상자를 내는 대 전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악의 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파괴하려고 하고, 루시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진보와 발전의 길에서 우리를 몰아내려던 전쟁은 있었읍니다.

그러한 전쟁은 지금 이 지상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악마는 지금도 교회에 대항하며, 분노를 품고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계 12 : 17) 나서고 있읍니다.

과거에 그래 왔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계 12 : 11) 사탄과 그의 무리를 이겨낼 수 있읍니다.

이 전쟁에서 중립이란 있을 수 없읍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양편 중 한 쪽을 택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은 바울의 편에 서서 승리를 거두어 의의 왕관을 쓰든가, 아니면 바울의 말대로 주님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살후 1 : 9)을 주시려 올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후 1 : 8,)

이 전쟁에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서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적을 위해 협조한 자가 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 필경 나를 거역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니이 10 : 16)

우리는 교회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 교회에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역할을 맡아 나가거나, 아니면 피동적인 태도로 나가 그 결과를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쪽 다리는 교회에, 다른 한쪽은 세상에 설 수는 없읍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중립이란 있을 수 없읍니다.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싸우는 용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에 속했던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읍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 3 : 15—16)

양호한 상황 아래서만 용감할 수 있는 사람은 전쟁이 치열해지면 모두 퇴각하고 맙니다. 그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쓰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정복당하고 맙니다.

간증을 가지고 있고 순결하고 의롭게 사는 교회 회원이라도 용감하지 못하면 해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별의 영광에 머물게 됩니다. 이들에 관해 계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교성 76 : 79)

예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눅 9 : 62)고 하셨읍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용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우리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 말고…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 1 : 8)고 하였읍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읍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계 19 : 10)

주님에 대한 간증! 예수에 대한 간증! 이 얼마나 영화롭고 기이한 개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독생자와 함께 영원히 영화롭게 살 수 있는 문을 열어 줍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이란 곧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아담의 범법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영육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온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께서는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읍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읍니다. (딤후 1 : 10 참조) 그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요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전 2 : 5)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읍니다. 이러한 값진 은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만 올 수 있읍니다. 그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영원히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영생도 없으며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면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으며, 성도들이 해의 왕국에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입이 여러 개라도 다 말할 수 없으며, 다 생각할 수조차도 없읍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 : 12)

우리는 충만하고 영원한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과 인류를 위해 보이신 구원의 자비심에 대한 온전한 간증을 가질 수 없읍니다. 복음에 대한 간증은 성신을 통해 계시로 오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에게 말을 할 때 우리는 밝혀진 메시지의 진실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간증이란 계시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가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나타내 주는 분이라는 사실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이란 예언의 영입니다. 간증이란 영의 은사입니다. 간증은 성실한 교회 회원에게만 주어집니다. 끊임없이 성신을 동반자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간증을 얻을 수 있읍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민 11 : 29)는 모세의 기도가 성취되어 인간을 예언자로 성별하는 영적인 은사가 바로 간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에 대한 간증을 전함에 용감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겠읍니까?

세상적인 일과 싸우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하며 우리의 온갖 힘과 정력과 능력을 다 발휘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명하시고, 이러한 힘과 용기는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읍니다. (수 1 : 6—9 참조) 의의 대업에서 용기의 초석이 되는 것은 모든 복음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데 용감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모로 10 : 32 참조)

예수를 증거하는 데 용감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는 것이며, 지상에서 행해지는 주님의 사업의 참됨과 신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믿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말로만 봉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간증이란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과 준행과 개인적인 의로움이 뒤따라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 : 21)

예수를 증거하는 데 용감하다는 것은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니이 31 : 20 참조) 그것은 종교를 생활화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바를 실천에 옮기며,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 "정결한 경건"을 나타내 보이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약 1 : 27 참조)

예수를 증거하는 데에 용감하다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기호를 억제하고 세상적이며 속된 것에서 분연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가장 용감하였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며, 십일조와 헌금을 바쳐야 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며,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데 용감하다는 것은 매사에 주님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정하실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생각하실 바를 생각해야 하며, 그가 믿는 바를 믿어야 하며, 그가 말하실 바를 말해야 하며, 행하실 바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그가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처럼 그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리는 분명합니다. 때로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읍니다. 때때로 혼자서 자신을 반성해 보는 일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물어 볼 수 있읍니다.

내 인생의 주요 관심사가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상에 재물을 쌓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담대히 증거한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필요한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잉여분으로 선교 사업이나 신전 건립이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보조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를 담대히 증거한다고 할 수 있을까?

교회나 교리에 임하는 나의 태도가 매우 지적이나, 개인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얻는 일보다 교리의 이것저것에 이야기를 하는 데에 관심이 더 있다면 과연 예수를 증거하는 데 용감하다고 할 수 있을까?

누가 신권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신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시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용감한 사람일까?

보우트를 즐기며, 시골에 별장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인 책임에서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주말의 오락 활동에만 정신을 몰두한다면 과연 나는 용감한 사람일까?

도박, 카드 놀이, 외설 영화 감상,

주일날 상행위, 저속한 복장 착용, 기타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생활 방식을 따른다면 용감하다고 할 수 있을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일을 첫째로 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암흑을 헤쳐 나왔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안에 있읍니다. 우리는 빛을 받으며 걸어야 합니다.

나는 미래를 점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나 이 세상의 상태가 좋게 개선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을 강하게 받읍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가서 인자가 오시고 모든 악한 것이 멸망될 때까지 사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점점 악화일로를 걸으나 적어도 교회의 성실한 사람들은 더욱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굳건히 서며, 교회의 가르침과 원리를 고수하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한 사도나 예언자의 권고를 택하지 않으면 안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될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의 손길이 이 사업을 인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읍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세이며, 우리가 영원히 복음을 생활화한다면 이 세상에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으며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진리의 원리를 가르쳐 왔읍니다. 성령의 권세로 가르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참되며,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지키고 살아간다면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주실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빠짐없이 간증드립니다.

나는 이미 선포된 교리가 참되며, 예수가 주님이시며, 구원은 그를 통하여 오게 되며, 우리는 오직 그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이 "주님의 편"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의 군대에 속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결단력을 주셨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974년 10월 6일 일요일 아침 모임

나의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많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 줍니다

킴볼 대관장님, 이제 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 대회에 참석한 사람이나 대회의 진행 과정을 시청하거나 청취한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말씀으로 마음 속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변형의 산에서 놀라운 일을 본 후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마 17 : 4)라고 말했읍니다. 킴볼 대관장님, 우리도 모두 이 대회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읍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따뜻한 영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어느 맑은 겨울날 나는 뉴욕의 맨하탄과 교외 웨스트체스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위를 차를 타고 친구와 함께 달리고 있었읍니다. 그 친구는 인간이 놀라운 기술로 이룩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곳의 명소를 일일이 지적해 주었읍니다.

갑자기 양키 스타디움이 눈앞에 들어왔읍니다. 내가 소년 시절에 그토록 좋아하던 야구 선수들의 본 고향에 온 것입니다. 참으로 수천 관중을 매혹시키고 놀라운 기술을 발휘하는 대선수를 우상으로 받들지 않는 소년이 없을 것입니다.

겨울이라서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었읍니다. 관중과 땅콩 장사와 매표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직까지도 베이브 루스, 루 게리그, 조 디마지오 같은 대선수의 추억이 간직되어 있었읍니다. 그들의 기술과 묘기의 기록은 그들이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에 이름이 오를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야구와 같읍니다. 우리는 모두 의식 구조 내부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 참된 지도자를 위해 마련된 자기 나름의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을 갖고 있읍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도해 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나름의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별로 없읍니다. 그것은 외적인 장식품이나 세상적인 재화와는 관계가 없읍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개인적인 성역으로 받아들여 존중할 만한 지도자는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뜨겁게 해주고 의무에 대한 복종을 남성의 근본으로 삼고, 일상 생활의 일을 변형시켜 우리가 되고자 열망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폭넓은 인생관을 갖게 해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분간은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 대상자가 거쳐야 할 자격있는 심판관이 될 수 있읍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자리에 누구를 지명하시겠읍니까? 나는 누구를 지명할까요? 대상자는 많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나는 그 영예 전당에 지상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추천하는 바입니다. 모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아담은 주의 계명에 순종하였더라."(모세서 5 : 5) 아담은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인내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모범을 보인 욥의 이름도 지명되어야 합니다. 남달리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는 이

*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유명한 미국인의 초상화나 흉상을 장식한 뉴욕 대학의 주랑. 1900년 창설, 5년마다 수명의 새로운 인물을 첨가함.

렇게 말했읍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욥 16 : 19—20),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욥 19 : 25) 욥도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사도 바울로 더 잘 알려진 사울을 지명할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영혼을 먹이는 만나였고 그의 봉사의 생애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모범이었읍니다. 이 용감한 선교사는 만천하에 이렇게 외쳤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 : 16) 바울도 자격이 있읍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간증은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려 줍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 : 13—16) 베드로도 자격이 있읍니다.

우리는 미대륙에 살았던 니파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 일서 3 : 7) 분명히 니파이는 영예 전당에 이름이 오를 사람입니다.

내가 지명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으니 바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그분입니다. 그의 신앙과 믿음과 간증은 그가 카테지 감옥으로 순교를 당하러 가면서 한 말에서도 잘 나타나 있읍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도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교성 135 : 4) 그는 그의 피로써 그의 간증을 인봉하였읍니다. 요셉 스미스도 자격이 있읍니다.

여성 중에서 영웅을 지명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그와 같은 충성심의 고상한 모범을 보인 사람은 룻입니다. 건강한 두 아들을 잃고 비통에 잠긴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아는 룻은 충성심을 가진 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읍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 1 : 16) 룻의 행위는 그의 말의 순수성을 잘 나타내 주었읍니다. 영예 전당에 오를 만한 이름입니다.

이처럼 존경받는 룻의 후손 중에서 또 다른 한 이름을 찾아볼 수 있읍니다. 요셉과 약혼한 나사렛의 마리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녀는 진리를 향해 걸은 유일한 죄없는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읍니다. 이처럼 성스럽고 역사적인 사명을 그녀가 받아들인 것이 모든 인류에게는 이정표가 되었읍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 : 38) 확실히 마리아도 자격이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 볼 수 있읍니다. 나는 그것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거룩한 구세주의 사명에 대한 간증이라고 대답드립니다. 이러한 지식은 그들의 인생의 천에 황금실로 수를 놓은 것과 같읍니다.

그러한 영웅들이 목숨까지 바쳐 가며 성실하게 받들어 온 영광의 왕인 구속주는 누구일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언자들은 그의 오심을 예언하였읍니다.

천사들이 그가 지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 알렸읍니다.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렸읍니다.

"무서워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 : 10—11)

바로 이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눅 2 : 40) 그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복음 전도 사업을 시작하였읍니다. 예수는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그를 멀리 했읍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주신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얼굴을 맞대고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생명까지도 바쳤읍니다. 이 얼마나 죄없고, 사심없는 고귀한 삶이었읍니까! 예수께서는 열심히 일하셨읍니다. 그는 사랑하셨고 봉사하셨읍니다. 그는 울기도 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증거하셨읍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을 떠나셨읍니다.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영생에 이르셨읍니다,

지상에서 인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이름인 나사렛 예수야말로 영예 전당의 상좌를 차지하실 분입니다.

"영예 전당에 오른 영웅들을 열거해서 무얼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물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아담이 그랬듯이 순종하고, 욥처럼 인내하며, 바울처럼 가르치고, 베드로처럼 증거하고, 니파이처럼 봉사하며 예언자 요셉처럼 자신을 바치고, 룻처럼 효도하고, 마리아처럼 영예롭고 그리스도처럼 생활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낡아빠진 자아를 영원히 던져 버리고 이와 함께 실망, 의심, 의혹, 실패 등을 물리칩시다. 희망, 신앙, 용기, 기쁨으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읍니다. 너무 무거워지고 가지 못할 책임도 없읍니다. 부담스러운 의무도 없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범을 살펴보면서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 드리겠읍니다.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는 한 와드를 관리하는 크레이그 수드베리 감독이 계십니다. 몇 년 전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멜보른으로 부름을 받아 떠나기 직전에 어머니와 함께 나의 사무실로 찾아온 적이 있었읍니다. 크레이그의 부친인 프레드가 이상하게 그 자리에 없었읍니다. 크레이그의 어머니가 20 년 전에 프레드와 결혼하였으나, 프레드는 아내가 지닌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고 교회에 속하지도 않았읍니다.

크레이그는 그의 부모에 대한 깊은

사랑을 네게 말해 주었읍니다. 그는 언젠가는 그의 아버지가 성령에 감화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진지하게 도움을 청하였읍니다. 나는 그러한 생각이 어떻게 보상받게 될 수 있는가를 간구하였읍니다. 영감이 떠올랐으며 나는 크레이그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스러운 부름에 순종하십시오. 매주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가끔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 형제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전하십시오."

그는 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을 떠났읍니다. 나는 그 후 크레이그의 어머니를 18개월 동안 뵙지 못했읍니다. 그 어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크레이그가 선교사로 떠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읍니다. 그는 성실히 노력하여 선교지에서 중책을 받아 일했으며, 매주 우리에게 편지를 쓰는 일을 잊지 않았읍니다. 최근에 제 남편이 처음으로 성찬식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간증하였읍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내가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아들 크레이그가 선교사로 떠난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읍니다. 그의 편지가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읍니다. 제가 그 편지를 하나 소개해도 괜찮은지요?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 우리는 훌륭한 구도자의 가족에게 구원의 계획과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의 축복을 가르쳤읍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는 그 왕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저에게는 해의 왕국이 될 수 없읍니다. 전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로 일하는 아들 크레이그 올림"'

"그런 다음 프레드는 이렇게 선언하였읍니다. '제 아내도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내와 아들 크레이그를 사랑합니다. 결혼 생활 26년 만에 나는 교회의 회원이 되기로 결심하였읍니다. 나는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나는 이러한 진리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었지만 아들이 선교사로 간 후에 비로소 이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었읍니다. 나는 아들 크레이그가 선교 사업을 마칠 때 주님의 복음 선교사인 그의 마지막 침례자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읍니다'."

변함없는 신앙을 지닌 한 젊은 선교사가 하나님과 함께 현대의 기적을 이루었읍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갖겠다는 그 목표가 아버지와 그 사이를 가로막는 거리의 장벽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사랑의 정신이 푸른 태평양을 넘었으며, 거룩한 대화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었읍니다.

수만리 떨어진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닷가 깊은 물 속에서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고 다음과 같은 성스러운 침례 기도를 드리는 크레이그처럼 위대한 영웅은 없읍니다. "프레드 수드베리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를 침례하노라. 아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신앙, 아들의 봉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었읍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모두 영에 전당에 들 자격을 갖추었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합시다.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교리와 성약 76 : 5-6)

영원한 영에 전당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이렇게 할 때 얻어질 수 있읍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며, 하나님의 중보자이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을 돌이킨 자들의 생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

오늘 저는 아직 교회 회원이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울러, 이미 교회 회원이 되신 분들에게는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삼 주 전, 뉴욕에서 유럽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읍니다. 항공사의 여사무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로 왔읍니다. "제 조카 둘이 선생님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읍니다. "그 애들의 생활의 변화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는 그녀의 언니가 아들들의 교회에 다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읍니다.

"좋아하다 뿐이겠어요?"라고 그녀는 말하면서 청소년에 대하여 가족이 몹시 염려하였다고 설명하였읍니다. 그 두 소년은 태너 부대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랑자와 같은 젊은이였읍니다. "그 애들이 변한 걸 보시면 믿지 못하실 거예요. 그 길던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모든 성품까지도 다 변화되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읍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자리를 떠날 때 그녀는 내게 다시 감사하면서, "어떻게 그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읍니다.

그 여사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행동의 최고 표준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 한 가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복음의 원리는 확고 부동합니다. 때때로 프로그램과 방법에 변경이 있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인 표

준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읍니다. 여기에는 안전성이 있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구미에 맞게 복음의 원리를 변경할 수는 없읍니다. 표준을 세운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직 교회의 회원이 안 되신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한다고 생각되더라도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은 복음을 간직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 사업은 기회가 있을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18,000명의 선교사 중에서 21세 이상이 5퍼센트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은 선교 사업이 젊은이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강한 요구와 사업의 강한 힘을 설명하여 줍니다. 선교 사업은 청년에게 중요한 청년기의 2년을 희생하고 청년기의 활동을 희생하여 자비로 복음을 가르치겠다는 강한 신념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전혀 놀랄 만한 것이 못 되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성 1 : 30)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만 이 교회는 입교하기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활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가 물론 그 사람의 생활에 향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마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가입하려면 지금까지의 모든 부도덕한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충실할 것을 맹세해야 하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성스런 생식 능력을 결혼 때까지 자제해야 합니다.

책임감있는 가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의 최대의 이상입니다.

절제가 요구됩니다. 교회 회원은 각종의 알코올 음료를 어느 때나를 막론하고 금하여야 합니다. 담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 습관성 음료인 홍차나 커피도 삼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물론 아편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향상시켜야 할 사항들이 또한 많이 있읍니다 겸손, 정직, 경건, 안식일 준수 등 우리 각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요소입니다.

선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데도,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단 교회에 가입한 다음에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쉬운 교회를 찾고 있다면,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면 그것은 참된 생각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선교부를 관리한 적이 있었읍니다. 선교사 두 명이 훌륭한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쳤읍니다. 그 가족은 침례받고 싶다고 말했읍니다만 갑자기 그들의 열의가 식어졌읍니다. 아버지 되는 사람이 십일조에 대해 배우고는 그 이후의 모임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었읍니다.

이 두 선교사는 이 사실을 지부장님에게 보고했었읍니다. 이 지부장은 역시 최근에 개종한 회원이었읍니다.

며칠 후 지부장은 두 선교사에게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하자고 권유했읍니다.

"교회에 입교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정하셨다구요." 지부장은 가장에게 말했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교사의 말로는 십일조 문제로 그러셨다더군요."

"네." 가장이 대답했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웠을 때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군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입교하지 않기로 작정했읍니다."

"선교사님들이 금식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던가요?" 지부장이 물었읍니다.

"아뇨, 그게 뭡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매달 두끼를 금식하고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아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해 주었는데요."라고 그가 말했읍니다.

"그러면 건축 기금에 대해서는 말하던가요?"

"아뇨, 그건 또 뭡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회원이 예배당을 짓는 데 기여합니다. 형제님께서 교회에 가입하신다면 노동으로나 돈으로 이 일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연히도 저희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읍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군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던가요?"

"아뇨, 그건 뭔데요?"

"저희 회원은 서로 돕고자 합니다. 회원 중에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실직했거나, 곤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은 함께 그를 돕습니다. 형제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직접적인 성직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던가요? 회원 모두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수단 등 모든 것을 바치면서 일을 합니다. 일에 대한 보수를 전혀 받지 않고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제게 그런 말씀을 전혀 안해 주셨읍니다." 가장이 말했읍니다.

"십일조와 같은 작은 일로 교회 입교를 그만 두셨다면 분명히 형제님은 교회에 들어올 준비가 아직 안 됐읍니다. 교회에 입교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잘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떠날 때, 지부장은 잠시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형제님, 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기꺼이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읍니까? 저는 십일조 청구서를 받아 온 적이 한 번도 없읍니다. 아무도 십일조 집수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없읍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십일조를 냅니다. 모두 다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형제님이 그 이유를 발견하신다면, 형제님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값진 진주(마 13 : 45 참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얻으려한 진주 말입니다.

"그러나 형제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직 형제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만을 빌 뿐입니다." 며칠 후 그 가장이 지부장 댁에 나타났읍니다. 선교사와의 모임을 약속하려는 것이 아니었읍니다. 그것은

필요가 없읍니다. 그는 가족의 침례일을 약속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가족은 열심히 기도했었읍니다.

이러한 일은 높은 표준에 감화를 받는 개인과 가족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지니고 있읍니다. 누가 무어라 해도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모두 다 지키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높은 표준이 우리에게 끼치는 단 하나의 불편은 급속도로 계속되는 교회의 발전에 있읍니다. 교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소규모의 효율적인 교회 단위를 조직해야 합니다.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못하는 회원들도(이러한 회원이 있읍니다.) 그러한 표준을 일반적으로 옹호합니다. 새로운 회원뿐만 아니라 옛 회원들도 우정을 나누고 훈련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감과 동시에 세상의 표준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마태복음 13 : 45—46)

여러분 중에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실제 이상으로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을 우려하여 아스토 여사의 말씀을 인용해야겠읍니다.

그녀는 늙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읍니다. 드디어 노령에 이르렀을 때 여사는 철학적으로 이같이 말했읍니다. "저는 늙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읍니다. 왜냐하면 늙어서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더군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하고 싶지도 않게 되기 때문이지요!"

비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억지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는 여러분에게나 우리에게나 모두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읍니다. 복음은 이를 거절하는 자에게나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나 모두 참된 것입니다. 전자나 후자나 모두 복음에 따라 심판받게 됩니다.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회원의 의무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교회 역사의 한 토막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1850년대 말, 유렵의 많은 개종자들이 대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고생을 감수하면서 몰려오고 있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여 구개 마차나 포장마차를 사지 못하고 보잘것 없는 소지물을 손수레에 싣고 밀면서 걸어야 했읍니다. 교회사의 가장 비극적이며 감동적인 순간은 이 손수레 개척자들이 겪었던 경험에서도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읍니다.

맥아더 형제가 이끄는 데에서 일어난 일이었읍니다. 이 대에 함께 있었던 영국인 개종자, 아처 워터스 형제는 1856년 7월 2일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읍니다.

"파커 형제의 6세 된 아들이 없어졌다. 파커 형제는 아들을 찾느라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다."(르로이 알 헤이픈과 앤 더블류 헤이픈 공저, 시온으로 향한 손수레, 파이오니어판, 클렌데일, 캘리포니아, 아서 에이치 클라크사, 1960년, 2페이지)

잃어 버린 아들, 아서는 로버트 파커와 그의 아내 앤 파커의 네 아이 중 끝에서 두번째 아이였읍니다. 갑작스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람에 예정보다 사흘 앞두고 급히 야영을 했었읍니다. 아이가 없어진 때가 바로 이때였읍니다. 부모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길가에서 놀고 있으려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읍니다.

누군가가 그날 아침 행렬을 멈췄을 때 어린 소년이 수풀 그늘에서 쉬고 있던 것을 기억하였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모두 어린 아이를 갖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6세 된 어린 소년이 여름의 햇빛 아래서 쉬잠이 들고, 또 깊이 잠이 들어 진영이 이동하는 소리에도 깨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어 있었을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틀 동안 대가 남아서, 모든 남자를 동원하여 소년을 찾았읍니다. 7월 2일, 하는 수 없이 대대는 서부로 행군하였읍니다.

일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로버트 파커는 혼자 아들을 다시 한번 찾으려고 온 길을 되돌아 갔읍니다. 길을 떠나는 로버트에게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서 붉은 숄을 그의 어깨에 걸쳐 주었읍니다.

"아이가 죽어 있거들랑 이 숄에 싸서 묻어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살아 "있으면 이 숄을 신호기로 사용하세요.

아내는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손수레를 끌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읍니다. 여행을 하면서 앤은 매일 밤마다 지켜 보았읍니다. 7월 5일 해가 질 무렵 그들이 지켜 보고 있을 때 그들은 동쪽에서 다가오는 듯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읍니다. 지는 해의 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붉은 색깔의 숄이 반짝이는 것을 앤은 볼 수 있었읍니다.

어떤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앤 파커는 모래더미 위에 그대로 주저 앉았다. 6일 만에 처음으로 앤은 잠을 잤다."

7월 5일자, 월터스 형제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읍니다.

"파커 형제가 잃었던 아들을 데리고 캠프로 돌아왔다. 캠프에 있던 사람들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 어머니의 기쁨은 나의 필력으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다."(르로이 알 헤이픈과 앤 더블류 헤이픈, 시온으로 향한 손수레, 61페이지)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잘 알 수 없었읍니다. 어떤 이름 모를 나뭇꾼이—나는 지금도 어떻게 그곳에 나뭇꾼이 있었을까 하고 의심스럽기까지 할 때가 있읍니다—이 어린 소년을 발견하여, 병과 공포로 지친 소년을 아버지가 찾았을 때까지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았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앤 파커라면 여러분의 어린 아들을 살려 준 이 이름 모를 나뭇군에게 대하여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드릴 감사에 끝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감사의 느낌은 우리가 그의 자녀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아버지께서 느끼시는 감사의 정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곧 보상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성 18 : 15) 그러할진대, 그것이 우리 자신의 영혼이라면 그 기쁨이 어떠하겠읍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나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얻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표준을 버리고 교회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가족과 함께 나오시고, 할 수 없는 경우에 혼자서 나오십시오.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읍니다. 그러나 대가없이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누 12 : 48)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도 있읍니다. 계명을 지키며 생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의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 중에는 슬픔과 걱정과 죄의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독과 실망과 낙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정의 파탄, 결혼 생활의 불화, 실연 등으로 괴로와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괴로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극복될 수 있읍니다. 신분이나 인종이나 직업을 막론하고 우리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정의 손길을 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이 들리우게 할 수 있읍니다.

나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간증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십니다. 세상에는 그가 단지 세상에 영향을 마치는 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압니다. 나는 그가 살과 뼈의 몸을 지니신 분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974년 10월 4일 금요일 아침 모임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베드로에게 준 구세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 그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최근에 닷새 동안 학교에 돌아가 자료 처리법을 배운 바 있읍니다. 다시 학교의 분위기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었으며, 그곳에서 인간이 개발해 낸 문명의 이기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였읍니다. 나는 몇 가지 기호의 건반을 눌러 5,000킬로미터 밖의 자료를 정리해 내는 강사의 솜씨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읍니다. 불과 5초만에 대답이 나왔읍니다.

우리는 또한 최신형 속도 인쇄기도 보았읍니다. 이것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인쇄기와 다를 바가 없으나 내가 지금까지 보아 온 어느 것보다도 성능이 좋은 것이었읍니다. 작동하기 시작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쇄가 되며 이렇게 인쇄된 종이의 운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이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뒷면이 인쇄되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오게 되었읍니다.

나는 그 속도와 정확도와 고도의 진보된 기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나는 인간이 발명한 이러한 과학 기술품을 살펴보면서 내가 대여섯 살 때 처음 본 기계를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그 기계는 나의 아버지께서 감독으로 계시면서 사무일을 돕던 수동식 구형 기계였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사업계에서만도 놀라운 진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발전 과정을 생각해 보는 동안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전이 더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나는 주님의 창조적인 건축 과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탄을 금하지 못했읍니다. 주님께서는 창세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필요를 돌봐 주실 자료를 공급해 주셨읍니다.

나는 오늘 아침 우리의 예언자께서 인용하신 성구를 다시 인용하여 드리겠읍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시편 24 : 1)

경전에서 주님께서 의에 관해 말씀하실 때 항상 충만하다는 말을 쓰신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부족이나 결핍이라는 말은 그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 1 : 28)는 그의 원래의 가르침을 인간이 따르지 못한 데서 나왔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상에 살기 시작하는 때부터 따라야 할 지시를 주셨읍니다. 그는 먼저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를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이 주님을 알고 그에 대한 간증을 지닐 수 있게 하라고 하셨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율법사로부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네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 : 36—40)

구세주의 이 대답으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근본되는 중요한 계명을 알 수 있읍니다. 나는 우리가 그 뜻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도록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재확인해 드립니다.

첫번째 말씀은 몰몬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경험으로 잘 설명될 수 있읍니다. 앨마는 백성을 인도하는 대제사였으며 구세주가 오시기 150년 전에 미대륙에 살았읍니다. 그는 아들에게도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지어 준 것으로 보아도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음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아들 앨마는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게 되었읍니다.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읍니다.

"…앨마라 하는 아들이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여 심히 간악하고 사심에 젖은 자가 되었고 또한 말이 많고 백성들에게 감언 이설을 퍼뜨려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저가 행하는 죄악을 좇아 행하게 하였고"(모사이야서 27 : 8)

그의 아버지는 앨마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 후 주님께로 나아가 그가 스스로 자기 행위의 그릇됨을 알 수 있어서 옳은 길을 따르게 되도록 표적을 보여 달라고 간구하였읍니다. 아들 앨마의 생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 회개를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시현이 있는 후 앨마는 땅에 쓰러졌으며, 그의 놀라움이 매우 컸읍니다. 그는 벙어리가 되어 말할 수 없었으며, 힘이 빠져 혼자 설 수도 없게 되었읍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 그의 아버지 앞에다 눕혔읍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주님의 권세에 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 기뻐하였읍니다. 그는 제사들을 함께 불러 모으고 앨마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틀 낮과 밤을 금식과 기도로 보내자고 요청했읍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읍니다. 앨마는 기운을 되찾고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속죄를 얻었도다. 보라 내가 영으로 거듭났으며,

"주님께서 내게 이르사,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만백성이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이 모두 거듭나야 하나니, 하나님께로 거듭나서 타락한 육욕의 모양이 의로운 것이 되며, 하나님께 속죄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같이 하여 인간은 새 것이 되나니, 거듭 나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하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모사이야서 27 : 24—26)

앨마의 말은 우리가 주님의 길에 들어서는 보람있는 경험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잘 증거해 주었읍니다.

개심이란 끝이 아니요 새로운 생활 방법의 시작입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전에 나오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를 다시 예로 들겠읍니다. 신약 성서는 구세주가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그와 함께 있던 한 사람에 관해 말해 줍니다.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마태복음 4 : 18—20)

베드로에게는 고기잡이가 세상의 부를 얻을 수 있는 그의 직업이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베드로가 처음부터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부름 중 하나를 택하여야 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세주와의 친분 때문에 세상에서 보기 드문 방법으로 개종할 수 있었읍니다. 경전은 그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에게 주어진 위대한 시현을 기록하고 있읍니다. "[구세주께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마 17 : 2)

그와 같은 사실을 목격한 후에도 구세주는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약속과 책임을 상기시켜 주었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 : 31—32)

베드로는 구세주가 인간에게 준 시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현을 보았으니, 이는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보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도 베드로는 그의 개심의 참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 것 같았읍니다. 부활하신 구세주를 본 후 구세주가 다시 그들을 떠나고 제자들만이 남았을 때 베드로는 먼저 세상의 일을 생각하였읍니다.

그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요 21 : 3—6)

여기서 구세주는 베드로에게 큰 교훈을 주셨읍니다.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일보다 상위에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고기와 세상의 것을 제공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나 그러한 일은 그의 사업에는 제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구세주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의 사명에 관한 큰 교훈을 배우게 되었읍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 21 : 15)

그런 다음 두세 차례 더 물으셨읍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읍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요 21 : 17)

마침내 베드로는 "너희가 돌이킨 후에"라는 말이 개종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며, 그것이 곧 구세주의 양을 먹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우리의 개심을 통해 오는 우리가 맺은 약속의 참된 가치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주님을 아는 일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교회 지도자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개심의 과정이 다른 형제들의 생활을 굳건히 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존 테일러 대관장에게서 볼 수 있읍니다.

1836년 4월 팔리 피 프랫 장로가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테일러 형제와 그의 가족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읍니다. 당시 존 테일러 형제는 다른 교회의 목사였으므로, 프랫 형제의 가르침을 주의깊게 검토하였읍니다. 그는 프랫 장로가 행한 여러 가지 설교 내용을 모두 적어 경전의 내용과 틀리는 것이 없나를 일일이 대조해 보았읍니다. 그는 근 3주 동안이나 우리 교회를 알아보았으며, 여기서 만족을 얻어 침례를 받았읍니다.

일 년 후에 존 테일러 형제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를 방문하였읍니다. 배도의 기운이 그 마을을 감돌고 있었으며, 슬프게도 팔리 피 프랫 장로는

캐나다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 그러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읍니다. 프랫 장로는 테일러 형제에게 왜 자기가 예언자 요셉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읍니다. 이에 존 테일러 형제는 이렇게 대답하였읍니다.

"팔리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놀랍군요. 형제님은 캐나다를 떠나시기 전에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그가 시작한 이 사업이 진실됨을 강하게 증거하셨읍니다. 형제님은 이러한 일을 계시와 성령의 은사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형제님은 형제님과 하늘의 천사가 다른 말을 선언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읍니다. 자, 팔리 형제님, 나는 인간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릅니다. 형제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원리가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었읍니다. 이제 나는 형제님이 지니셨던 것과 같은 간증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 사업이 6개월 전에 참되었다면 오늘도 참되며, 요셉이 당시 예언자였다면 그는 지금도 예언자입니다." (비 에이치 로버츠, 존 테일러의 생애, 북크래프트사, 1963년, 39—40페이지)

팔리 피 프랫 형제는 자기가 잘못이었음을 알아 예언자 요셉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고 다시 그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였읍니다. 참으로 개종한 존 테일러의 말씀이 팔리 피 프랫 형제의 삶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읍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 이 세상의 풍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 안에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마음을 돌리고, 그의 양을 먹이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형제를 굳게 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개심의 참 뜻을 알고, 지상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고, 앨마나 베드로나 존 테일러 대관장, 기타 이 경륜의 시대의 훌륭했던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위대한 사업을 시현으로 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세주요, 오늘 이 대회를 진행하시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오늘날 지상에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아는 바를 사실대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1974년 10월 5일 토요일 아침 모임

영원히 함께 함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은 이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킴볼 대관장님의 위대하신 지도력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킴볼 대관장님의 놀라운 지도력에 감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권능을 소유한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과 교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분의 지도를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받들고 지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킴볼 대관장님, 우리는 대관장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하고 있읍니다. 저에게는 케네스라는 친구가 있읍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네 자녀를 둔 선량한 시민이며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그의 가정은 하나로 단합된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다니며 함께 즐거움을 나눕니다. 그의 가정에서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그들을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며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한 나머지 언젠가는 그 모든 행복이 끝나게 되고, 다시는 이러한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없으며, 지금의 행복이 한갖 즐거웠던 추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았읍니다.

케네스와 그의 아내 루실은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읍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신앙이 없이도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정직과 덕행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족이 함께 주말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케네스가 직장 일을 마치고 쉴 수 있는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은 그들의 주말 계획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저는 케네스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케네스 형제님, 우리 함께 잠깐 생각해 봅시다.

형제님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읍니다. 삶이란 불안정한 것이어서 지금 형제님이 누리는 행복이 영원한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 틀림없이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님은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랄프 스튜어트 형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를 불구로 만들고 결국 생명까지 앗아간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단란하던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주말 오락은 다 어떻게 되었읍니까?

물론 불행한 일을 마음에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형제님의 마음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현실주의자로서 당면한 문제를 성숙한 눈으로 볼 줄 압니다.

그런데 왜 형제님의 가족을 이와 같은 태도로 바로 보지 못합니까?

얼마 전에 나는 한 아름다운 석조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읍니다. 그 정문 앞

에 있는 잘 정리된 게시판에는 다음 주일에 있을 설교 제목인 "당신은 어디서 영원히 사시겠읍니까?"라는 설교 광고가 조그맣게 붙어 있었읍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멈춰 생각해 보았읍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큰 공항에서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님과 함께 있었던 일이 생각났읍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러 급히 달려 가는 사람, 택시를 찾는 사람, 친구를 찾는 사람 등 갖가지의 일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았읍니다.

이반스 형제는 그들을 보고 있던 시선을 제게로 돌리며 "저 사람들이 진정 가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라고 말했읍니다.

케네스 형제님, 형제님은 진정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형제님의 가족은 어디로 가고 있읍니까? 형제님은 언제나 지금처럼 즐거움을 누리고 살려 하십니까? 지금처럼 언제나 가족과 더불어 살려 하십니까? 형제님은 영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읍니까?

우리는 주일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찬송가를 부르곤 했읍니다.

본향 향해 나아가세.
저 밝은 땅을 향하여
영생 위해 일하리니
우리 인도하는 별

2절
매일 우리 가려 하는
하늘 향해 나가세.
모든 선행 면류관 얻을
본향으로 이끄네.

면류관 위해 영광 향해 (찬송가 64장)

이 노래는 오래된 노래로 형제님이 잊고 있는 바로 그것을 생각케 해주는 찬송가입니다.

케네스 형제님, 영원은 존재합니다. 형제님은 이미 그것을 믿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에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형제님은 이 사실도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거할 합당한 곳을 마련키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시며,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세주께서 산상수훈에서 명하였듯이 우리가 모두 그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마 5 : 48 참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같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라는 마음만으로 그와 같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선하다고 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없읍니다.

주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계획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 계획만이 우리에게 바라는 결과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현세와 내세에서 성공을 얻는데 필요한 기본 공식입니다. 우리가 그 공식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이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읍니까? 형제님은 학교에서 화학 공부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공식에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읍니까? 교과 과정을 이수해야만 학교를 졸업할 수 있지 않았읍니까? 영원도 이와 같읍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식인 주님의 복음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따르면, 형제님이 지금 가족과 함께 누리는 행복을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가 있으며, 죽음이나 부활도 그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형제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주님은 불완전한 방법으로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공식을 우리가 학교에서 받았던 것과 같은 경고와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따르지 않고 그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율법을 범할 수 없음을 염두에 넣으면서 다음 몇가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순종은 위대함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순종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읽어 보겠읍니다. 구세주께서는 니파이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니파이삼서 12 : 20)

이 말씀이 형제님과 형제님의 가족에 대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이고 거듭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교회 초기에 구세주께서는 계시를 통해 "나의 계명을 끊임없이 지키라.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느니라."(교성 25 : 15)고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읍니다.

케네스 형제님, 형제님은 신권을 받으셨읍니다. 이와 같이 성임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주셨읍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은 조건을 세우셨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라."(교성 84 : 44)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면 그가 원하는 바를 행함으로써 특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아내와 자녀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교회에 나가 그의 프로그램에 따라야 만이 그와 같이 됩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진정한 구원의 계획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 주는 방법임을 형제님은 알지 못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데도 그와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곳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겠읍니까?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세주와 같은 성품을 갖추는 일은 노력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읍니다. 그것은 성장의 과정이며 오직 그의 복음을 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미온적일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활동적인 회원이 되는 것이 그의 복음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강조해 말씀하셨읍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 속한 자는 다 교회의 계명과 서약을 모두 지켜 준행해야 하느니라."(교성 42 : 78)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수확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땅에 밀을 심으면 밀이 자라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품을 기름에 있어 의의 씨를 뿌리면 그와 같

은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이라. 그러므로 선을 심으면 선을 보상으로 거두리라." (교성 6 : 33)

이는 결국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마 6 : 14) 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 : 2)

환언하면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장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면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같은 목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케네스 형제님께 묻겠읍니다. 형제님은 아내와 함께 어디서 영원을 누리고 싶습니까? 자녀와는 어디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까? 가족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형제님은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헤어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형제님이 이 세상에서 주저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영원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고아로 지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제님의 행동이 아내와 자녀의 영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형제님은 알고 계십니까? 형제님은 대개 자녀들이 부모의 본을 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형제님이 보인 행동이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봉사할 것인가 그리고 청결한 또는 불결한 습관을 갖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자녀 곧 형제님의 손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님은 지금 형제님이 하는 행동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님은 자녀에게 어떤 것을 바라십니까? 가장 훌륭한 것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좀 못한 것을 바라십니까? 지금이 바로 형제님께서 아내와 자녀와 손자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가족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곳에는 행복이 없읍니다. 왜 세상의 방법을 따르십니까? 세상의 방법은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며 그 희생은 너무 큽니다.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신전 결혼을 해야 합니다. 신전 결혼을 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더 발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히 결별하여 혼자 남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영생과 크고 끝이 없는 행복과 하나님을 만나 그의 면전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저버리시겠읍니까? 탐구하는 마음과 연구와 명상의 자세를 갖지 않고, 편견과 오해와 지식의 부족으로 이처럼 큰 축복과 특권을 외면하시겠읍니까?

"여러분께서는 영원토록 남을 위해서 봉사만 하는 독신자로서 생활하시겠읍니까? 여러분은 자식이 죽은 후에 고아가 되어 방황하게 버려 두시겠읍니까? 여러분이 지상에서 맛본 큰 기쁨을 영원토록 더하며 영원히 지속시키고 증대시킬 수 있는데도 혼자 외로운 영생의 길을 걸어 가시겠읍니까? …이 위대한 진리를 무시하고 거부하시겠읍니까?" 그리고 대관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읍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간절한 권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니,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십시오."

귀를 열고 들어 주십시오. 케네스 형제님, 저는 형제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형제님께 어떤 의미를 갖읍니까?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그렇지 못했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앞일을 준비했으나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는 준비를 게을리 하여 슬기로운 처녀들이 주님의 영접을 받을 때 주님께 나가지 못했읍니다.

저는 킴볼 대관장과 함께 케네스 형제님과 온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케네스 형제님들께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섬겨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것을 간곡히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따를 때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읍니다.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교리와 성약 84 : 37—38)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특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974년 10월 5일 토요일 오후 모임

죽은 후에는 무엇을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하나님께서 그의 충실한 자녀를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영적인 대회에 참석하여 여러분과 함께 훌륭한 음악과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사랑을 겸손한 마음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훌륭한 생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의 일을 끝마친 후 맞이하게 될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나의 사랑도 표시하고 싶습니다.

나는 전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와 선

교부를 방문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전하고 싶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성도들을 만났으며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의 영의 인도로 오늘날 전세계에서 교회가 크게 발전하도록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훌륭한 지도자이신 킴볼 대관장님과 두 분의 부대관장님을 택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성도들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참다운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결혼의 성약을 맺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지상에서 자녀를 갖는 경험도 갖지 못하고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한 자식들을 가진 부모들에게 전해 드릴 말에 대해 생각했읍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그러한 경험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어 버린 각국의 수많은 청년과 선교 지역에서 사망한 많은 청년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네델란드 선교부장으로 재임하던 중에 나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훌륭한 선교사들 중의 한 명을 직접 내 팔로 안아 본 적이 있읍니다.

나는 충실하고 훌륭한 자매로서 해의 왕국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데 합당하지 않은 남자에게 그들의 생애를 맡기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지상 생활에서 결혼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자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들은 선교사 부름을 수행하였고, 현재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으며, 시온의 젊은이를 인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훌륭한 자매들입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한 가지 예로서 나의 가족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아내와 함께 홀란드 선교부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아내가 딸을 낳았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향에 돌아온 후 2, 3년이 지난 뒤 그 딸은 죽었읍니다. 그 딸이 태어났을 때 아내는 내게 천사가 그 애를 자기에게 데려다 주는 것을 보았다고 느낀다면서 여러 번 되풀이하며 말해 주었읍니다. 그렇지만 그 애는 세상을 떠나고 없읍니다. 나는 그 애의 네 자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대회에서 네 자매 중의 하나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로 지지해 주셨읍니다. 죽은 딸의 다른 세 자매도 역시 그들이 가진 재능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가 훌륭합니다.

우리가 잃어 버린 딸은 세 돌 반이 지나서 죽었읍니다. 나는 이 딸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다스리고 계시며, 이미 죽은 딸이 결국에는 영광을 얻게 되고 지상에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녀의 네 자매들과 대등한 입장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 : 19)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지상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 곧 진실하고 충실한 그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일들을 달성하려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값진 진주, 모세서에 기록된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 : 39)는 말씀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는 인간에게 불사불멸을 가져다 주는 일이란 말은 오늘 아침 롬니 부대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뜻함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몬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때에 태어나지 않으며 (문제될 바 아님) 또한 한꺼번에 죽지도 않읍니다. (앨 40 : 8 참조) 아브라함서에 기록된 경전의 말씀에 대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지상에 내려올 영들을 보았읍니다. 주님은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아브라함서 3 : 25)라고 말씀하신 후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질 것이요,"(아브라함서 3 : 26)라고 덧붙이셨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상에 오기 이전의 전세의 생활에 관한 것이었읍니다.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아브라함서 3 : 26) 우리의 죽은 딸은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둘째 지체를 지켰던 것입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없나니"(교성 3 : 1)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명하신 일들을 성취하시는 것을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의 목적은 실패하는 때가 없고 그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나니, (그는)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교성 76 : 3—4)

이외에도 주님은 예언자 니파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는 나의 행하는 일이 다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람의 종말의 때까지도 나의 행하는 일이 끝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때로부터 영원토록 끝나지 아니할 것임이라."(니이 29 : 9) 이제 우리는 이 경전의 말씀을 통하여, 값진 진주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자녀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더하여질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한 그의 사업을 중단하시게 될 때가 결코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읍니다.

다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딸 넷을 두고 나서 아들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다가 그만 캘리포니아의 해변에서 일어 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읍니다. 그 당시 나는 그곳에서 스테이크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읍니다. 16세가 된 그는 나만큼 키가 컸읍니다. 지금 이 대회에 참석한 그의 형제들은 모두 가정을 갖고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현재 십이사도 지역 대표로 봉사하고 있읍니다. 나는 죽은 그 아들이 다음에 올 영원한 세상에서 현재 지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의 형제들이 이르게 되는 영광의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영광에 머무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교회 회원이 아니었음)이 우리 집에 방문하여 아내에게 내 아들이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학생이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도 역시 그가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똑같은 나이에 죽은 나의 손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대회에 이 아이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참석해 있읍니다. 불과 2, 3일간 앓다가 아름다운 때인 16세의 소녀로

세상을 떠났읍니다. 우리의 다른 자녀들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받은 모든 것을 종국에는 그 손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완전하신 계획에 대해 감사하는 나의 열의가 식어질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비유에 대해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찐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누가복음 14 : 28—29)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신 후 그 계획을 완전히 달성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면,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준공하지 못하는 건축자와 같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 가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처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선교사 부름을 완수하였으며 보조 조직 역원으로도 봉사하였읍니다. 훌륭한 성품을 가진 자매였읍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획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그녀가 현재 그녀의 언니인 내 아내가 우리의 훌륭한 가족과 함께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주님은 "그의 목적은 실패하는 때가 없고 그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나니,"(교성 76 : 3)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천 년 동안 다스릴 복천년의 통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천년 동안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읍니까! 시간이 없어 복천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만 나는 이사야의 말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복천년 동안 일어날 일을 일부 보았읍니다. 나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갖게 되고, 이리와 사자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게 될 날을 보았읍니다. 그의 백성은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곳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기꺼이 그들의 손으로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 65 : 17—25 ; 12 : 6—9 참조)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사 65 : 23) 이 경전의 말씀은 가족이 계속해서 존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전 11 : 11)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진실하다면 주님은 결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자녀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세워 두셨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복천년의 통치에 관해서 언급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또 죽음이 없으므로 슬퍼하는 일도 없으리라.

"그 날에 유아는 늙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니, 그 명은 나무의 수명과 같게 되리라.

"저가 죽을 때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같이 잠자지 아니하고 다만 눈 깜박하는 사이에 변화되어 하늘로 올리워 가리니, 저의 안식은 영화롭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01 : 29—31)

이와 같이 저는 나무의 수명과 같게 살 것이며 그 후에는 다만 눈 깜박하는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니, 번성하여 강하여지고(그들이 부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번성할 수 없음) 그 자녀들은 죄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

"이는 주께서 저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요, 주의 영광이 저들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주께서 저들의 왕과 입법자가 되실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45 : 58—59)

또한 해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들에 관한 계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그 영광은 완전한 최고의 영광이요,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되는 것이니라."(교성 132 : 19)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들이 영의 세계에서 선택한 신부를 보게 될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만일 그가 내가 말씀드린 그의 조카(나의 손녀)처럼 훌륭한 신부를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재회하는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복천년 동안 일어날 일에 관해서 언급하신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과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 개의 신전만이 아니라 수천 개의 신전이 건축될 것이며, 수많은 남녀가 신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계시하시던 때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백성들을 위하여 의식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설교집 3 : 372) 만일 수천 개의 신전이 건축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자신의 신전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이러한 영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마련해 두셨을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구세주께서 오시면 천년 동안 이 구속의 사업이 행하여질 것이며, 신전은 요셉의 땅인 남북 아메리카뿐 아니라 유럽과 전세계의 곳곳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설교집, 19 : 230)

나는 주님은 그가 행하시는 바를 알고 계시며,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두셨다는 확신과 함께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나의 말을 끝맺고자 합니다.

따라서 끝으로 나는 하나님의 세째 하늘 곧 낙원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보았으나 그것에 대해 기록하도록 허가받지 못하던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전 2 : 9)라고 말했읍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표현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복음의 법과 의식을 따름으로써 인간은 구세주의 희생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본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 우리의 이해를 돕도록 많은 성구를 들면서 말씀을 진행하겠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신앙개조 3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히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본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갖는 입장을 잘 알 수 있읍니다.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스러워지고 거룩하여지며 불멸의 존재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되돌아가 영원한 진보의 길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성품과 모습과 상호 관계를 알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인간이란 살과 뼈의 만질 수 있는 육신을 입은 영체로 이원적인 요소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구원받으신 분으로 영생을 누리십니다. 그는 불멸의 존재일 뿐 아니라 최고의 영광인 승영에 이르신 분입니다. 그는 인간이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복된 상태에 이른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혼자 계시지 않읍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영이 그와 함께 살고 있읍니다. 그곳에는 가족 관계도 있읍니다. 그곳에는 영의 자녀들도 태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현대의 계시는 지상에 있는 모든 주민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과 딸" (교성 76 : 24)이라고 밝혀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의 설교에서 선언한 대로 하나님의 "소생"(행 17 : 28)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멸의 존재이십니다. 인간은 아직 불멸의 존재가 되지 못했읍니다. 인간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죽음과 동시에 땅으로 되돌아가는데, 인간의 영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많은 사람이 이 심오한 질문을 골똘히 생각해 왔읍니다. 세익스피어는 그의 유명한 햄릿의 독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언급하였읍니다.

> 생과 사, 바로 이것이 문제다…
> 죽는다 잠잔다—
> …잠들면 일체 끝이 아닌가
> 심뇌며 육체가 받는 온갖 고통이며, 그렇다면 죽음, 잠, 이것이야말로 열렬히 원한 생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잔다, 그래도 꿈을 꾸겠지. 아이게 문제다. 대체 생의 굴레를 벗어나 영원한 잠을 잘 때, 어떤 꿈을 꾸게 될 것인지, 이를 생각하니 망설여질 수밖에—글쎄 이 주저가 있기에 인생은 일평생 불행하게 마련이지. 불연하며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누가 참을소냐? 폭군의 횡포와 세도가의 모욕을, 불실한 사랑의 고통과 무성의한 재판을, 관리들의 오만을, 유덕한 사람이 받아야 할 소인배의 불손을, 대관절 누가 참을소냐? 한 자루의 단도면 깨끗이 청산할 수 있을 것을, 그 누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루한 인생에 신음하며 진땀을 뺄소냐? 사후의 불안과 나그네 한 번 가면 영영 못 돌아오는 미지의 세계가 결심을 망설이게 하고, 이래서 미지의 저 세상으로 날아가느니, 차라리 이대로 현재의 환난을 참게 마련이지.
>
> 햄릿 3막 1장

세익스피어는 이 글에서 죽음 후 인간의 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문제를 극적으로 제기하였으나 대답을 주지는 못했읍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읍니다.

기원전 75년 경에 미대륙에는 앨마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었읍니다. 그는 인간이 죽은 후 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큰 신앙으로 주님께 간구하였읍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이렇게 밝혀 주셨읍니다.

"…모든 사람의 영이 그의 그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나면 그 모든 영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의로운 영들은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곳으로 영접되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을 잊고 편히 쉴 것이나,

"죄 많고 불의한 영들은… 어둠의 곳으로 쫓겨날 것이라…

"바로 이것이 불의한 영의 상태라. 곧 암흑의 상태요, 저들을 치실 불길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기다리는 무서운 상태라. 부활의 때까지 의로운 영들은 낙원에 거하겠으나, 이와 같이 불의한 영들은 이러한 곳에 남아 있어야 하리라."(앨마서 40 : 11—14)

교회는 이 경전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죽음이 만민에게 임하는 것이매 위대하신 창조주의 자비로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부활의 권세가 필요하였고, 인간들의 타락으로 하여 부활은 인간들에게 필요하였으며 타락은 범법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이 타락한지라 주의 면전에서 절단되어 쫓겨 났느니라.

"그러므로 무한하신 속죄가 반드시 있어야 했나니, 한량 없으신 속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썩을 것들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지 못하매 인간들에게 내려진 첫번 심판이 끝없이 계속되었을 것이리라.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육신은 누워 썩어서 육신의 어미인 땅으로 돌아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지라.

"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과 자비하심이여, 보라 만일 육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타락하여 악마가 된 천사에게 속박되어 함께 악마가 되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임이라.

"또한 우리의 영은 저와 같은 악마가 되며 악마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어 쫓기며, 거짓의 아비와 함께 하며, 그와 더불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진실로 저와 같이 되리니…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지라. 이 죽음 곧 내가 이야기 한바 세상의 죽음이 죽음의 사슬을 풀었으니 세상의 죽음이라 함은 무덤을 말함이라.

"또한 내가 이야기한바 영의 죽음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리니, 영의 죽음이란 지옥을 뜻하는 것인 바, 사망과 지옥이 각각 죽은 자를 내어 놓으며 지옥이 속박했던 영을 내어 놓고 무덤이 속박했던 육체를 내어 놓을 것이매, 오직 부활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권세로 인하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저마다의 것으로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위대하지 아니하냐.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낙원은 의로운 영들을 내어주며, 무덤이 의로운 자들의 육체를 내어 놓으매 영과 육체가 다시 제 것으로 회복되어 만민은 썩지 않을 것이 되며 불사불멸의 것이 되어, 육신은 우리와 같이 완전한 지식을 갖춘 산 영육이 되리니, 다만 우리의 지식은 장차 완전해질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결함과 벌거벗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요, 의인은 순결의 옷 곧 의의 옷으로 입혀져 저들의 기쁨과 의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리라.

"모든 사람이 이 첫번 죽음을 벗어나 생명에 이르며 이미 불사불멸의 몸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심판대에 나서야 하느니라. 그 때에 심판이 내려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저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니파이이서 9 : 6—9, 11—15)

이상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선언한 다음 말씀처럼 문자 그대로 전반적인 부활을 말해 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 : 22)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겨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무덤의 문을 열어 주었다는 복음 교리를 믿습니다. 부활은 구원에 이르는 필수 단계라는 것도 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모든 사람이 부활한 후 불멸의 영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며, 지상에서의 행위에 따라 최후의 심판을 받으며,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였는지 불복하였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전상의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율법과 의식은 그가 지상을 사는 동안 쌓게 되며, 그렇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에서 깨끗해지게 되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율법과 의식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다 적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앨마는 이러한 최후의 심판을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이후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서 빛을 발하리라.

"그러나 보라 악한 자에게는 무서운 죽음이 임하나니… 저들이… 쓴 잔의 찌꺼기를 마시리라."(앨마서 40 : 25—26)

기원전 550년경에 고대 미대륙의 예언자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신앙개조 3조)를 설명해 주었읍니다. 이제 그 기록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읍니다.

"이는 너희 중에 많은 무리가 장차 이를 일을 애써 알고자 하였음을 내가 알았음이며, 우리의 육신이 노쇠하여 죽으나 육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리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주님께서 몸으로 친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에게 보이시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을 내가 아는도다. 이러한 일이 저들 가운데 일어남이 마땅하니,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만민을 주 앞에 복종하게 하시려 육으로 자신을 인간들에게 붙이사 만민을 위하여 죽으심이 지당하심이라.

"분명히 주가 살아 계시며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에 의로운 자는 의에 머무를 것이요,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러울 것이매, 더러운 자는 악마요, 악마의 천사라… 저들의 고통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유황못 같으리라…

"그러나 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성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믿으며 세상의 십자가를 견디되 그 수욕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의로운 자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마련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리니, 저들의 기쁨이 영원토록 가득 차리라.

"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자비하심이 크시도다. 이는 주께서 주의 성도들을 무서운 괴물인 악마와 죽음과 지옥과 끝도 없는 불과 유황못의 고통에서 건져 주심이라.

"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시도다….

"주는 주의 음성을 따르는 모든 인간을 구하시려 세상에 오시나니, 보라 그가 만민의 고통 곧 아담에게 속한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고통을 겪으실 것이요,

"주께서 이같이 고난을 겪으심은 만민에게 부활이 이르게 하사 저들로 큰 심판의 날에 주 앞에 서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주는 만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하셨으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시었고,"(니파이이서 9 : 4-5, 16, 18-23) 반면에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믿으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며 끝까지 참으면"(니이 9 : 24 참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읍니다. 나는 이러한 가르침이 참되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권능을 부여받고, 그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을 만인에게 가르치라는 사명을 받고 조직되었다는 간증을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겸손, 친절, 사랑, 성실함을 마음속에 지니고 우리는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를 탐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나와 같은 간증을 얻게 될 것이며, 구원의 길에 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고 결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신권 소유자는 강한 도덕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권을 지닌 형제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결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결이란 말은 "건전한 도덕 원리를 지닌 상태나 정직, 공정, 진실 등"을 뜻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결이란 말에는 정직, 공정, 진실이란 말과는 다소 구분되어 "변질될 수 없는 도덕적 성품의 순수성"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고결한 사람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매일 발간되는 신문이나 라디오, 기타 시청각 자료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실망하더라도 굳건히 견딜 수 있는 고결한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성실하고 진실한 친구, 정직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조언자, 공정하고 의협적인 상대를 보내 주십시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만세 반석의 일익을 맡을 사람입니다."라고 에이 피스탠리는 말했읍니다.

우리가 이룬 문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고결한 사람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읍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신권 소유자를 부르셨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나와 우리의 모든 아론 및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성스러운 임무를 맡겨 주셨읍니다. 우리는 고결한 청소년과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승영은 우리가 온갖 위험과 난관 속에서도 성실하게 맡겨진 임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읍니다. (교회정사, 3 : 380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절대로 고결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약속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의 죄를 회개하여, 죄 사함을 위한 침례와 성신을 받은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야 하며, 의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곧 그에게 '아들아 너는 승영을 누리게 되리라' 하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주님께서 완전히 그를 시험해 보시고, 그가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그를 받든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받게 됩니다. (교회정사, 3 : 380)

우리는 집사에서 사도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고결함을 입증해 보인 모범적인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킴볼 대관장님이 좋은 예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고결하게 살아 오셨읍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성스러운 책임을 그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태너 부대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그는 사업계나 관계에서 보인 모범으로 동료들로부터 "고결한 분"이라는 별명까지 받았읍니다.

이 고결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읍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님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네 명의 말일성도 소년이 유타주의 어느 시에서 대륙 횡단 여행을 하기 위해 출발하였읍니다. 그들은 이 여행을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비를 저축하였읍니다. 이제 졸업도 하게 되어 이들은 차에다 짐을 싣고 걱정하는 부모와 부러워하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읍니다. 유타주의 경계를 넘어 다른 주로 들어섰을 때 모두들 마음이 들떠 있었읍니다. 그들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새로운 세계의 분위기를 마음껏 느껴 보았읍니다. 이들 모두는 전에 맛보지 못한 쾌감을 느꼈으며, 모험심이 이들의 마음을 자극시켜 주었읍니다.

"그들은 이틀에 한 번씩 그들의 거처를 부모에게 알리기 위해서 엽서를 보내기로 하였으며, 사고를 당하는 경우 전보를 치기로 하였읍니다. 그 중에서 한 소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매우 편하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읍니다. 또 다른 한 소년은 처음 고향을 떠난 시골 사람의 촌티를 내지 말고 경험이 많은 여행자처럼 행세를 하자고 말했읍니다. 이 소년은 생각한 끝에 여행하는 동안만은 몰몬이라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자고 제의하였읍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다른 세 친구의 말에 그는 그렇게 해야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고 몰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흥미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나쁠게 있나? 우리들이나 자동차를 보고 교회 이야기를 꺼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라고 억지를 부렸읍니다.

"새로운 경험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으며 이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기로 의견을 모았읍니다. 그들은 원래는 동부 사람이나 잠시 유타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자처하기로 했읍니다. 그들의 차에 붙은 유타주 면허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행 첫날밤 이들은 유명한 휴양지 근처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읍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 이들은 호텔의 야간 쇼를 보기 위해 함께 호텔에 들어갔읍니다. 이들이 들어서자마자 호텔 보이는 이들이 엄격한 부모와 선생

으로부터 금해졌던 여러 가지를 구경시키며 안내해 주었읍니다. 첫눈에 뜨인 것은 라운지 끝에 있는 큰 네온싸인 간판이었읍니다. '빠—칵테일, 맥주'라고 씌어 있는 간판이었읍니다. 약간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들은 바로 들어가 맥주를 한 잔씩 청하기로 했읍니다. 바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이들은 현란한 분위기와 카운터 위에 있는 수많은 술병을 보게 되었읍니다. 주문을 하기로 된 소년은 처음에는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읍니다. 침을 다시 한 번 삼키고는 '맥주 네 잔만 주세요'라고 겨우 작은 목소리로 청했읍니다.

"맥주로 느낄 수 없는 기분을 그곳 분위기와 들뜬 마음이 채워 주었읍니다. 그들은 약간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다음에 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읍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옷을 잘 입은 한 신사가 그들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읍니다. 그의 얼굴 모습과 걸음 걸이가 이들 소년에게는 심상치 않게 보였읍니다.

"그 신사는 소년들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와서는 그 중 한 소년에게 손을 내밀면서 '실례지만 유타주에 사시는 조지 레드포드 씨의 아드님이 아닙니까?'라고 물었읍니다. 그 소년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읍니다. 맥주병을 만지고 있던 그의 손은 굳어지고 말았으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맞는데요'라고 대답하였읍니다. 그 신사는 이렇게 말을 이었읍니다. '호텔 로비에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알아보았읍니다. 난 헨러 폴슨이란 사람으로 레드포드 씨가 다니는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지난 겨울 유타 호텔에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지요. 물론 소년은 어떻게 다르냐고 물은 회사의 한 중역 질문에 몰몬이 가진 신권에 대해 설명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었읍니다. 난 학생이 바로 향해 걸어가는 걸 보고 약간 놀랐어요. 그렇지만 난 몰몬이건 몰몬이 아니건 소녀들이란 다 고향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읍니다.'

"이 소년들은 연단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설교를 듣게 되었읍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읍니다. 반쯤 마신 맥주 잔을 두고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읍니다. 야영지로 돌아올 때 캄캄한 밤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겨졌읍니다. 그들의 신분을 감추기로 제의했던 한 소년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 그런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 정도는 이겨 내야지.'라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그 신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소년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경험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는 값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같구나.'라고 대답하였읍니다.

작고한 찰스 더블류 니블러 형제가 들려 주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경험담을 젊은 장로 여러분께서는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니블러 형제는 고인이 되신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부친이셨던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 관해 이렇게 말해 주었읍니다. "그의 용기와 고결함이 입증된 또 다른 사건이 1857년 가을 그가 선교사로 있던 샌드위치 섬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일어났읍니다. 그는 당시 남부 루트라고 불리던 행로를 따라 로스앤젤리스를 경유하여 고향에 돌아왔읍니다. 그 해는 존스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유타에 진격해 온 해로, 몰몬에 대한 일반인의 감정도 몹시 악화되어 있었읍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마차를 타고 얼마쯤 달린 후 캠프를 치려 하는데 몰몬을 박해하던 폭도들이 말을 타고 캠프에 다가오면서 욕설을 퍼부어 대며 몰몬을 만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떠들어 대었읍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가 약간 떨어져 있었으나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개울이 흐르고 있는 숲 속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읍니다. 그는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자 내게 이렇게 물었읍니다. '니블러 형제님, 나도 이들을 피해 숨어야 합니까? 왜 이들을 두려워하지요?' 이 말을 한 그는 팔에다 장작더미를 한아름 안고 권총을 꺼내 휘두르는 폭도 앞으로 다가갔읍니다. 그 폭도들 중 한 명이 조셉 에프 스미스를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읍니다.

"'네 놈도 몰몬이냐?'

"곧 다음과 같은 대답이 그의 입에서 흘러 나왔읍니다. '물론이지요. 나는 철저한 몰몬입니다.'

"이 말에 그 폭도는 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읍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이오. 악수합시다. 나는 자신의 확신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당신 같은 젊은이를 만나 기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의 교리, 데저렛 출판사, 1939년, 518페이지)

에이브라함 링컨도 그의 유명한 연설에서 고결을 입증해 보였읍니다. 존 웨슬리 힐은 그의 저서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 에이브라함 링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링컨은 미국 상원직 지명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그의 독립심과 강인한 의지를 잘 나타내 보였읍니다…. 이 연설에서 그는 미합중국은 '반은 노예와 반은 자유'인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선언을 구체화하였읍니다. 링컨은 그의 친구인 제시 케이 두보이스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그 연설문을 당신에게 읽어 드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읍니다. 당신께서 들으신다면 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연설을 끝으로 모든 것을 끝장 내기로 각오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내 뜻을 밝히지 않고 승리를 거두느니 차라리 연설에 이 말을 남기고 고배를 마시는 편을 택하겠읍니다.'"(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에이브라함 링컨, 뉴욕과 런던 : 지 피 프트냄스 손스, 1927년, 151페이지)

링컨이 그의 연설에서 "반은 노예요 반은 자유"라는 구절을 남기는 데는 큰 용단이 필요했었읍니다. 그는 야망에 넘치는 사람으로, 그 상원직을 통해서만 대통령에 이를 수 있었으나 당시의 정치 풍토로는 그 문제에 관한 한 그의 입장이 지지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읍니다. 그의 연설은 상원직 경쟁에서 그에게 패배의 고배를 마시게 할 가능성이 짙게 하였으며, 실제로 그는 그러한 결과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는 링컨이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확신에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상원에의 길은 막혔지만, 이것이 그에게 대통령이 될 길을 열어 주게 되었읍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 역시 고결한 인품의 소유자였읍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유타주 시다시에 있는 주립 사범 대학의 남부 지부를 관리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는 이 학교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읍니다.

2년 후에… 이 학교 재단이 요청한 기금을 입법부 의원들이 제공하도록 격려하겠금 주 정부가 그에게 협조를 의뢰하기에 이르렀읍니다.

편지에 답하면서 그는 솔직하게 요청된 100,000불을 부담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주정부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청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저는 그 문제를 심사숙고하였으며, 주 정부가 요청한 금액을 주의 대의원에게 부담시킬 떳떳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읍니다….'

"'주 정부가 100,000불을 삭감하여 54,000불로 결재해 주신다면 제가 성의를 다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거액을 그대로 요청하신다면 제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은 손을 떼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편지에 나타난 솔직함이 그가 여생 동안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면서 나타난 눈에 띄는 특성이 되었읍니다. 그의 추천장에는 다른 사람이 받기를 바랐던 바가 담기지 않은 때가 많았으나 그의 솔직함이 그들의 신뢰를 얻기에 족하였으니, 이는 생각한 바를 솔직히 말하는 그를 그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에이치 얀 이세, 젊은 루벤, 브리감 영 대학 출판사, 유타주 프로보, 113-14페이지)

우리가 모두 킴볼 대관장님과 태너 부대관장님과 조셉 에프 스미스, 에이브라함 링컨,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와 같은 사람이 지녔던 고결함을 지녔다면 얼마나 훌륭하겠읍니까! 주님께서는 신권 소유자인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고결한 성품에 대해 생각하고, 고결하게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4년 10월 4일 대회 금요일 오후 모임

뒤로 미루지 말라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교회 축복사

우리는 계보 사업과 신전 사업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아직 18세가 채 안된 한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말하는 하늘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읍니다. 이 천사는 몰몬경의 마지막 예언자인 모로나이였으며, 이 청년은 요셉 스미스였읍니다.

모로나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선포하는 경전의 여러 구절을 인용하였읍니다. 천사는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도 인용했읍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말 3:1)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주의 전" 즉 신전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시 말하면 그가 오실 신전이 지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로나이는 4장 5, 6절도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성경과 약간 차이가 있읍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요셉 스미스 2서 : 38—39)

복음의 회복 과정에서 예언자에게 주신 첫번째 지시에서 신전과 신전에서 행하여야 할 의식에 관한 지시가 주어졌다는 것을 나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정수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이 메시지에 나오는 말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신권의 권능으로 오실 것이며 교회에는 그들에게 언약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조상의 기록을 모으고 의식과 인봉을 완수한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로 지상에 첫가족을 이룩하셨읍니다. 가정이란 인간이 스스로 성장하여 자연적인 성장 과정에 의하여 분가한 인간의 사회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 가장 가깝고 사랑스러운 것은 모두 가정과 연결된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가정에 있으며, 사랑이 있는 곳에는 행복도 있읍니다.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은 그의 지혜로 인간이 지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방편을 예비하셨읍니다.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가정에 있읍니다. 지상 생활에서는 언제나 그랬읍니다. 그러니 다음 세계에서 이와 같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겠읍니까?

가족 단위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주님께서는 복천년이 끝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아담의 모든 후손은 신권의 능력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인봉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셨읍니다. 이 신권의 능력은 지상에서 인봉하면 하늘에서도 인봉되며,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권능인 것입니다.

이 지상에 태어난 사람은 복천년이 끝나기 전에 이를 받아들이며 인봉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인봉의 축복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얻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영원히 인봉되고, 성약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자녀가 부모에게 인봉될 때, 그들은 새롭고 영원한 성약으로 태어난 자들과 같이 모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대리자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특권을 갖고 있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죽은 조상의 기록을 모으고, 그들을 위하여 이 위대하고도 중요한 사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일에 회복될 때,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교성 2:2)는 약속이 우리의 조상에게 주어졌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상을 위하여 신전 의식을 행하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진대, 우리의 구원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침례 의식은 물론, 영원한 단위로서의 가족의 인봉 의식도 이 지상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부터 먼저 의식을 받아야 하고, 다음에 영의 세계에 먼저 가신 조상을 위하여 대리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의식은 대부분 이러한 목적으로 세워져 주님께 헌납된 신전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현대의 계시를 통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읍니다. "내 이름으로 그 안에 거하실 가장 높으신 이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 이는 저가 와서 너희가 잃었던 것 곧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버리신 것 곧 완전한 신권을 또다시 회복할 곳을 이 세상에서 찾아 볼 수 없음이라."(교성 124 : 27—28)

신전은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지은 것으로, 이곳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은 가장 성스러운 의식을 받고, 가족이 영원한 인봉을 받게 됩니다. 가족은 유일하고 영원한 조직입니다. 신전은 아름다운 건물이며, 또한 아름다와야 합니다. 단지 보이기 위한 기념탑은 아닙니다. 신전은 모든 의로운 자가 승영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편을 제공합니다. 우선 살아 있는 사람이 옵니다. 그들은 이 성스러운 인봉 의식을 마치면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려 조상도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가족의 탐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선택된 영들이 지상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조상을 위한 신전 의식을 받기 위하여 하늘에 묶여 있읍니다. 개종자 가운데는 가족 중에 남편이나 아내 혼자서 또는 남편과 아내 단 두 사람만이 교회 회원인 예를 수없이 보아왔읍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 또는 그 가족의 어느 누군가가 그들 가족의 계보 기록을 소지하고 있읍니다. 그들 중에는 이러한 가족의 기록을 신전에 보내어 신전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상의 기록을 신전에 보내고 있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되겠읍니다! 시간은 정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신전이 세워질수록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각 신전에서는 매일 약 3천 명에 대한 신전 사업을 행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관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정규 양식에 기재하여 신전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 기록을 잘 보관하라고 수세기 동안을 지시해 오셨지만, 악마가 우리에게 지체하도록 유혹하고 신전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악마는 주님의 사업을 좌절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어떻게 의의 힘에 대항하여 의를 전복시킬 수 있겠는가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그때 한 악마는 "내가 가서 그 일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겠읍니다."라고 말하였읍니다. 사탄은, "아니, 소용없을 걸"이라고 말했읍니다. 이에 또 다른 자가 말했읍니다. "저는 그들에게 절반만 옳은 것이라고 말하겠읍니다." 사탄은 "아니,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아."라고 말하였읍니다. 그때 또 다른 자가 말했읍니다. "저는 가서 모든 것이 다 옳으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하겠읍니다." "맞았어, 그렇게 하면 늘 우리가 이기게 될 거야."라고 사탄이 말했읍니다. 루시퍼는 이길 수 없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조상 또는 이 지상은 주께서 오실 때에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 2서 : 39) 이 지상의 운명은 우리가 신전 사업을 완수하느냐 못하느냐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하는 자녀들에게 구원과 승영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말일에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이 회복은 결코 지상에서 거두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상과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가족의 단위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복음은 신권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일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1974년 10월 5일 토요일 신권 모임

범법자에 대한 우리의 책임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는 범법자를 포함한 모든 영혼을 구원하도록 부름을 받았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내가 말씀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영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작은 지부의 새로 부름받은 집사에서부터 교회에서 높은 직책에 부름을 받아 수고하는 대제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예로운 특권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주님과 성약을 맺었으며, 우리가 그러한 성약을 지키고 주님 앞에 의롭게 나갈 때 그로부터 약속된 많은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며칠 전에 나는 교회 회원이 된 지 5년째가 되는 어느 성실한 귀환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그와 나눈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읍니다.

그는 높은 이상을 지니고 계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으나 교회가 가르치는 많은 것을 생각하기는커녕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고 말했읍니다. 오늘날 지상에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으며, 죽은 후에 영과 육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과 그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아름답고 중요한 뜻을 몰랐읍니다. 회복된 복음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으며, 그는 문자 그대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배운 바가 없었읍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과 어울려 여름 휴

가를 즐기고 있던 이 젊은이는 다른 젊은이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으며, 술, 담배를 하지 않고 환각제도 먹지 않는 것같이 보이는 세 젊은이에게 마음이 끌렸읍니다. 이 세 사람은 어느 면으로 보나 매우 높은 표준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보였고 도덕적으로도 순결하게 보였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그들에게 마음이 쏠려 그들이 어째서 남과 다르게 보이나를 알아보려고 말을 걸었읍니다. 그들은 자신이 몰몬이라고 말했고, 지혜의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그것을 지킨다고 하였고, 주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출 20 : 14 참조)고 하셨고 교회는 성적인 범법을 가장 가증스러운 죄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해 주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계속하였읍니다. "나는 이들과 가깝게 되었으며, 그들이 가르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읍니다. 그들은 꾸밈없이 교회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읍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다른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회원으로 군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해 주었읍니다."

유혹에 굴하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대로 살지 못하며, 옳은 일을 위해 단호히 나설 용기가 없는 회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만일 그들이 개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실한 자에게 오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말을 계속하였읍니다. "내가 만난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귀환 선교사였는데, 내가 관심을 보이자 그는 선교사 시절에 복음을 가르치던 식으로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읍니다. 나는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했읍니다.

부모님은 크게 실망하시고 언짢아 하셨읍니다. 그러나 나는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말씀드렸으며, 그들은 나의 생활 태도와 습관이 선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침례를 허락하셨읍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19세에 교회에 오게 되었읍니다. 그는 아론 신권을 받고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을 전달하고 축복하게 된 것을 얼마나 큰 축복으로 생각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이 의식의 거룩함을 느낄 때 매우 겸손해진다고 말하고, 항상 주님이 옆에 와 계신 것처럼 느끼며 합당하고 단정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제사로서 새로운 구도자를 침례할 때 그의 신권이 구세주를 침례한 침례 요한에게 수여된 것과 똑같은 권능이라는 사실을 알아 큰 축복으로 생각하였읍니다. 그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모든 젊은이가 그 권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알게 되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에 합당하며 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했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젊은이는 일 년 후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접견을 받을 때 그의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에게 자기가 엄격히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며,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참으로 여성을 존중하며, 여자 친구를 친 동생에게 대하듯이 친절하게 대하였고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선교 사업에 대해 좋게 생각하였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주님의 대사로서 임지에 나갈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도 그의 대표로 자신을 받아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첫 개종자를 침례하고 확인할 때 느낀 훌륭한 경험도 이야기하였읍니다.

이상은 그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멜기세덱 신권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고 그를 장로로 성임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더욱 겸손해짐을 느꼈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남자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받기에 합당해야 하며, 그가 성임한 사람은 교회의 대관장으로 성임했을 때와도 같은 장로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읍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는 곧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마쳤는데, 그는 그와 그의 애인이 영원히 인봉받을 수 있는 신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며, 순결하다는 사실에 감사함과 행복함을 감추지 못하였읍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읍니다. "어떠한 젊은이에게도 하나님의 신권을 받는 일보다 더 큰 특권과 책임이 주어질 수 없읍니다. 이제 형제님은 하나님의 신전에서 거룩한 신권으로 인봉되어 모든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라난 많은 젊은이에게는 그러한 신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들이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보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 보는 경향이 있읍니다. 지혜의 말씀을 어기거나 도덕의 표준을 낮추는 것을 현명한 처사로도 보는 사람이 많읍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젊은이는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며, 합당하지 못할 때는 합당해질 때까지 신권 승진을 보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또한 선교사로 가도록 부름을 받기 이전에 합당히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할 사람을 뽑을 때 자신의 합당성과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회사의 간부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 직에 부름받은 예를 보지 못하였읍니다.

주님을 대표해서 그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합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악과 불의를 꾸짖고 진리의 간증을 전함으로써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할 수 있게 단호히 일어설 준비를 갖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점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가 그의 길을 이탈하여 떨어져 나갔을 때 슬퍼하신 것처럼 그와 약속을 맺은 사람이 이를 지키지 못할 때 실망하시며 슬퍼하십니다.

나는 우리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으로부터도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며, 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 젊은이들에게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약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위해 단호히 일어서며,

남과 다르게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 회원이 어떠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와 같은 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종파의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도, 물론 회원이 관련된 일일 때는 크게 몰몬 교회의 이름이 지적되곤 합니다.

신권 소유자가 예비 신권 소유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일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특권임을 우리의 지도자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이나 합당한 모범이나 간증을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그들의 책임과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소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시오. 어떠한 젊은이라도 자기가 받아들인 복음대로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고 자기가 소유한 신권을 성스럽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권 승진이나 신전 추천서나 선교사 부름 등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합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권을 승진시키거나 신전 추천서를 발급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부름을 받기 전에 합당함을 증거해 보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합당한 대표자를 원하십니다.

매사에 정직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젊은이 여러분께 재차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선교사의 부름을 받거나 신전 추천을 발급받기 위해서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롱당하시지 않읍니다.

지도자 여러분, 예비 선교사로부터 주님이 그의 대표자로 그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접견을 하여 그가 합당한지 아니면 범법을 행하고 있는지, 선교사 부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알아보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주님께서는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해 보고 이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합당하지도 않은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못 됩니다. 그는 그 부름의 참된 정신을 지닐 수 없읍니다. 그는 선교사로 봉사하면서도 선교부장의 짐이 되며, 선교 사업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나는 선교사가 범법으로 파문되어 귀환될 때 그 선교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고 있읍니다.

젊은이가 범법을 했을 경우,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도울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노리고 있으며, 그의 많은 추종자들은 이들 청년 남녀를 옳지 못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이들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해 주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주의로 인해 한 사람의 낙오자가 생겨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범법자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선교부장과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은 범법 행위를 어떻게 조사하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 지시와 교육을 받습니다.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은 발전할 수 없으며, 그 죄가 그에게 남아 있는 한 행복할 수도 없읍니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까지는 구속되어 있는 몸과 다름이 없읍니다. 사랑과 합당한 징계로 죄가 다루어진 범법자는 나중에 여러분이 보인 관심이나 지도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 그는 회개하게 되고 다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비활동적인 사람들을 알아보고 무엇인가가 잘못 되었다고 느끼거나 누군가가 범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사랑을 지니고 찾아가 그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읍니다. 그는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를 표시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빨리 조처를 취함으로써 다른 범법을 사전에 막아 줄 수도 있읍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구하고 그를 우리 안으로 이끌어 들이십시오.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 중에는 한 사람도 파문을 시키거나 징계한 일이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읍니다. 이러한 태도는 전적으로 잘못입니다. 이스라엘의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로운 심판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을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을 되살려 줄 중요한 말씀을 교리와 성약 20편에서 읽어 드리겠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범법하거나 잘못을 범한 자는 경전에 지시된 대로 처리하라."(교성 20 : 80)

형제 여러분, 경전과 지침서를 공부하시고 지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교회 회원을 징계하십시오. 지역 신권 지도자가 범법자의 죄상을 덮어 두거나 감싸 주려 하는 것은 결코 그에게 친절한 행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에 관해서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또한 나는 사람들의 죄를 감추려고 애쓰는 감독이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 죄 몫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여러분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감싸 주거나 그를 두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 되시는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들으셨읍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의 손에 맡기셨읍니다. 여러분은 의의 원리를 변경하거나 인간의 결점이나 부패를 감싸 주는 위치에 부름을 받지 않았읍니다." (대회 보고, 1880년 4월, 78페이지)

형제 여러분, 이는 매우 단호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자인 교회의 대관장으로부터 나왔읍니다. 조지 큐 캐넌 부대관장님도 다음과 같은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하나님의 영도 틀림없이 이를 슬퍼하셔서, 죄행을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묵인한 사람들로부터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곳에 속하여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표준을 받아들일 수 없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로 받아 알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표준을 잘 말해 주고 있읍니다. 우리는 회복된 신권을 부여받았읍니다. 우리는 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범법자를 다루는 방법과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가 갖는 책임이 잘 나와 있읍니다. 다음 말씀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

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

"무릇 게으른 자는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고 신임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자도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07 : 99—100)

경전을 보면 교회가 다루어야 할 범법에는 간음, 사통, 동성애, 낙태, 기타 도덕률을 어긴 경우나 도둑질이나 부정, 살인, 배도 등 도덕적 비행을 포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교회의 율법이나 규정을 공공연히 반대하거나 고의로 불복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한 경우, 복수 결혼을 주장하거나 이를 실시한 경우, 율법이나 교회의 질서를 어긴 비기독교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읍니다.

지도자 여러분께서 주님의 권고에 따를 때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며, 강하게 해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를 위해 봉사하면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사람이 파문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당할 때 여러분께서 큰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그가 생활을 깨끗이 정리하여 정상적인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정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읍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 : 42—43)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지도자로서 우리는 회원을 의로운 길로 이끌고, 강한 신앙을 갖게 해야 하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부모와 자녀가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하나님 왕국의 합당한 회원이 되도록 노력하며 준비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일해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성과 불필요하게 지나친 친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인 교회 대관장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부활하고 불사불멸과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목숨을 버리신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자인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읍니다. 그분과 가까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를 따를진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롬니 부대관장님이 "우리의 고결을 증거하자"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고결함을 입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1974년 10월 6일 일요일 아침 모임

왜 내 아들이 오늘밤 방황하고 있을까?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우리는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에 이를 수 있으나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과 실패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안식일에 주님의 축복과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빌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나는 "내 방황하는 아들이 오늘 밤엔 어디에 있을까?"라는 노래를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요 대관장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께서는 이 노래를 훌륭한 느낌을 가지고 부르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가사를 읽어 보겠읍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돌봐야 할 아들이
오늘밤에는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을까?
나의 기쁨, 나의 빛, 나의 사랑, 나의 기도인 내 아들아.

엄마 무릎에 앉아 놀던 아침 이슬같은 청순한 너. 밝은 얼굴, 깨끗한 마음, 귀여운 아이였었지.
오 내 아들아, 오늘 밤 어디서 방황하고 있느냐? 너를 사랑하기에 내 마음이 허전해지는구나
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밤 어디서 방황하고 있느냐?

작자 미상

오늘 아침에 나는 "왜 내 아들이 오늘 밤 방황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되풀이해 보며,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방황이란 말을 사전에 보면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정의를 염두에 두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오늘 밤 방황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인간은 지상의 여러 곳을 방황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아직도 광야에서 길을 잃고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광야란 길이 나 있지 않은 텅 빈 지역이라고 정의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목적없이 혼란 속에 빠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이 중요한 생존의 단계에서 자신을 입증하도록 주어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은 인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여 결국은 죽음을 자초하게 하고 주님의 사업도 위험에 빠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아담과 이브가 주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첫방황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경전에 실려 있읍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할 때까지 방황하게 되었읍니다.

가인은 사탄을 따랐으며, 그 결과 그는 동생 아벨을 죽였읍니다. 그도 역시 우리가 경전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의 범법으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읍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백성들이 사악해졌기 때문에 멸망되었으며 그 도시를 구할 수 있는 의인의 수가 부족했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이 모두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배우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들은 속임을 당하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좇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훼방을 받을 것이요"(베드로후서 2 : 1—2)

친구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쁜 일인지를 알면서 이를 행해 금단의 길로 방황해 들어가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들은 비난이나 조소를 참지 못하며, 과오를 범하는 일에 단호히 반대를 하지도 못합니다. 항상 동년배나 방황하는 성인들의 압력에 얽메이게 되고, 항상 사탄의 교활한 방법을 조장하는 악인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됩니다.

구세주께서 세상에 살아 계실 때에도 그러한 방황자는 있었읍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요한복음 12 : 42—43)

그들은 연약한 성품 때문에 방황하였읍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였읍니다. (마 26 : 41 참조) 이러한 방황자는 좌절과 불만의 광야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으나 순간적인 기쁨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혹에 굴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위선의 광야도 있읍니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위선자들은 곧고 좁은 길에서 이탈하여 방황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부정과 불신을 본 많은 순진한 젊은이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인류에 대한 신의를 잃게 하고 방황하게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서기와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꾸짖으신 마태복음 23장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읍니다.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가정이나 지역 사회의 지도자가 보인 나쁜 모범을 따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좋지 못한 모범을 보여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너무도 허다합니다. 외설, 간음, 사통, 동성애 등이 오늘날 묵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세상은 너무나 부패했읍니다.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순결, 신뢰, 의로움 등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계시로 받은 지혜의 말씀을 어길 때 많은 사람이 슬프고도 금지된 길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죄를 한 번 짓게 되면 곧 다른 죄를 짓기 쉽고, 점점 재미가 붙어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코올이나 담배나 습관성 약의 악영향을 알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이 이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보이는 좋지 못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로부터 젊은이들을 멀리 방황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가정에서 알코올과 담배를 취할 때 자녀들도 이를 따라 하게 마련이며, 다른 습관성 마약에도 빠지게 되는데, 그 결과로 그들은 가정을 떠나고, 진리와 의의 길에서 떠나고 싶다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런 목적 없이 등에 가방을 짊어지고 정처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나 사실은 자유를 느끼지 못하며 악습의 노예가 되고 마는데,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나와 그들에게 필요한 빛과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세상을 휩쓸고 있는 부도덕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셨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실족케 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간음하지 말찌니라"(출 20 : 14)고 하셨읍니다.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그 희생자나 다른 많은 사람이 슬픔의 큰 짐을 지게 됩니다.

최근 신문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한 어머니의 슬픔과 고뇌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경찰 당국은 한 여인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된 16세 소년의 어머니가 무기를 든 아들을 총으로 쏜 경찰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 소년은 38구경 권총을 경찰의 얼굴에 들이댄 순간 사살되었다고 경찰 당국은 말했다.

"아들이 사살된 직후 그 어머니는 '잘 되었어요. 더 이상 내 속을 썩이지 않게 되었으니'라고 경찰관에게 말했다."(데저렛 뉴스, 1974년 7월 26일)

그렇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악한 일이 있읍니다.

자만심과 오만함에 빠져 방황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 : 5—6)

자제력과 결단력이 부족하여 길을 잃고 헤매는 방황자도 있읍니다. 그가 방황하는 곳은 캄캄하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으로, 그는 자신을 자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수없이 장애물에 걸리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빈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읍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극복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공의 높낮이는 극기심으로 측정되며, 실패의 여부는 자포자기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법칙은 영원한 정의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잠 16 : 3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렇게 일러 주셨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 : 13—14)

좁고 곧은 길을 걸으며 굽은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며 자기 향상과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도를 이탈하거나 굽은 길을 따르는 사람은 실패와 파멸로 이끄는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최근에 나는 방황자에 관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읍니다. 그 하나는 부유하고 지위있는 가문 출신의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머리도 좋고 학교 성적도 좋았고 훌륭한 기술도 있었으며,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읍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자유 사상가들처럼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 수차 경고를 들었지만 그는 금지된 길을 걸었고 술이나 마약 등을 먹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갔읍니다. 결국 그는 가정과 가족을 떠나 세상 이곳저곳을 방랑하게 되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랑자 사회에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었읍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아무 곳이나 방랑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바라던 태평스런 삶을 꾸려가고 있읍니다.

좁고 곧은 길에서 이탈해 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서글픈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 젊은이도 그와 같은 비극으로 삶을 마쳤읍니다. 마약과 술에 취한 그는 어느날 밤 오토바이에 친구를 태우고 달리다가 강물로 뛰어들고 말았읍니다. 그가 친구들과 정한 어처구니 없는 약속에 따라 친구들은 부모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장례를 치르고 시체를 화장하여 유골을 그가 죽은 강물에 날렸읍니다.

죽은 아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시체 인도를 요구할 수도 없었던 이 부모와 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읍니까? 이처럼 방랑의 길을 택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의 많은 가족들이 슬픈 나날을 보낸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파멸의 길로 이끄는 친구들과 더 이상 어울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딸에게 애걸하는 아버지가 나오는 영화를 며칠전 텔레비전에서 보았읍니다. 그 딸은 "난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라고 말했읍니다. 아버지는 "넌 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모두 괴롭히고 있는 거란다."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하시기 위해 한 번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으나, 그분은 우리에 대한 지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세와 영원 동안 우리의 복리를 위해 준 그의 가르침과 계획을 거부할 때 다시 한 번 고통을 겪으십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길 대신에 그의 길을 택할 때 우리에게 무한한 부를 약속하신 것을 왜 우리는 알지 못합니까?

내가 말씀드리려 하는 또 다른 이야기는 기존 체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니 가정과 가족을 떠나라는 친구의 꾀임에 빠져 그들과 어울리게 된 앞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도 역시 알코올, 담배, 마약, 부도덕 등의 전과정을 거쳤읍니다.

그러나 이번 이야기의 결말은 전번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무엇인가가 그로 하여금 가족을 생각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배운 가르침이 새삼 머리에 떠올랐으며, 그가 가족과 만나게 되었을 때 가족이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자 고집을 꺾고 가족과 재회를 결심했고, 긴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채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좋지는 않았지만 가족은 반가이 환영과 사랑의 뜻을 표했읍니다. 그 소년은 가족의 깊은 사랑을 느꼈으며, 이것이 그가 어울린 친구들의 피상적인 우정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는 후에 가족을 따라 교회에 나왔고 여기서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아름다운 소녀를 사귀게 되었읍니다. 곧 그는 이발을 하고 면도도 하게 되었으며, 마땅히 지켜야 할 표준대로 생활하게 되었읍니다.

금단의 길로 방황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은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의 높은 표준에 따르며, 부모를 공경할 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말하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리된 조직이나 단체에 속하고자 한다면 그곳의 규율이나 표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와 의의 길에서 이탈하여 방황하는 자에게는 징벌과 가책이 올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간단합니다. (갈 6 : 7 참조)

금단의 길이 결코 아름답거나 매혹적이 못되며, 의의 길이 견디기 힘든 길이 아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그 길에 들어 서기 전에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교훈과 합당한 모범을 통해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계명을 알고 이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생활하면 광야를 외로이 방황하게 되지 않으며, 곧고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광스런 약속을 받았읍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 : 18—21)

황량한 광야에서 곧은 길과 영생의 길인 꽃과 태양이 있는 정원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에게 나는 모든 빛과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고, 그들에 대해서 배우며, 그들이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부탁합니다. 이는 내가 그들이 살아 계시고, 그들의 말씀이 진리이며, 이들을 통하지 않고는 행복과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없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지상에 충만한 복음과 예언자가 있는 그의 교회를 재조직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빛으로 나가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교회에 오시기를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1975년 4월 대회 말씀

—제 145 연차 대회 보고—

지금 이 시간에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밝은 미래를 기다리고만 있다가 오히려 보람있는 오늘을 잃는 수가 있읍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라는 인사에, 어느 오랜 친구가 "이달만 잘 넘긴다면 괜찮겠는데"라고 대답했읍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그 친구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러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읍니다. 나는 그가 현재나 오늘에 어떤 즐거움이나 만족을 표시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이 짧은 인사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통념 즉, 좀더 나은 삶은 저 앞에, 저 산 너머에, 몇 년 뒤에, 은퇴한 뒤에, 내일 혹은 다음 달에, 내가 열 여섯 살이 되면, 혹은 다음 여름에 누리게 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행복이나 성공 같은 언제나 미래의 어느 곳에 있는 것이라고 믿게 하려는 상념에 사로잡혀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면서 오늘을 참아내고 지나쳐 버리는 태도와 같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보다 훌륭한 미래가 결코 오지 않읍니다. 보람찬 미래는 오늘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 나가면서 풍요한 삶을 찾을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의 "현재"가 불행과 어리석은 남용으로 가득 차 있을진대 어떻게 내일이 행복해질 수 있겠읍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매일같이 축복을 헤아려 보는 사람은 좀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므로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밝은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히려 보람있는 오늘을 잃는 수가 있읍니다. 세상에는 오랜 세월을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위해 다 보내고, 다 늦게서야 더 살 시간이 없음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읍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일은 무시해 버리고 오직 미래의 기쁨만을 열망하는 수가 많읍니다. 스쳐가는 순간순간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영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란 현재의 과정에 있음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읍니다.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사로써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교성 58 : 27) 하는 훌륭한 충고의 말씀에서 시간의 개념은 조금도 지체없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일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회개하기를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매일 매일을 보내면서 그 일은 이루어 내기가 좀더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오해한 것이 있더라도 그러한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처리해 낸다면 대부분이 깨끗이 해소될 수 있읍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을 좀더 충실히 생활하고 매일매일 좀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의 중요성을 결정짓는데도 오늘을 허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현명하게 생활해 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에게 소중하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고, 단합하고, 도덕심을 기르는 데도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소녀는 내일의 숙녀가 됩니다. 오늘의 소년은 내일의 청년이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배출하는 신사, 숙녀는 그들이 오늘을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달려 있읍니다. 어린이가 사랑과 존경과 명예와 성실과 책임감이 매일같이 잘 이행되고 있는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부모되시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라도 훌륭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위협이나, 나태함이나 금전같은 것보다는 매일의 모범으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준다면 결코 자녀가 바로 성장하게 도울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을 만끽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일상 생활과 자율과 온전한 책임감으로 일을 이루어 내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수해 감을 보게 되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모릅니다. 발전과 성공은 현재의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디디는 한

걸음은 우리의 내일의 위치를 결정해 줍니다. 매일의 결심과 실행의 결과에 대한 예를 여러분에게 들려 드리겠읍니다.

1960년 올림픽 경기는 호주의 멜버른에서 열렸읍니다. 어느 날 아름답고, 키가 큰 금발의 미국인 소녀가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시상대에 서게 되었읍니다. 그녀는 전세계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일등을 했다는 상징인 금메달을 받고 있었읍니다. 그녀가 시상대에 올라가자, 휘파람을 부는 소년이 있는가 하면, "저 애는 만능 소녀야"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읍니다.

상을 받는 그녀의 뺨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읍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승리에 감격한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녀의 결심과 극기심과 일상 행위의 내력을 아는 청중은 거의 없었읍니다. 다섯 살 때 그녀는 소아마비에 걸렸읍니다. 병은 나았지만 그녀는 팔과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녀의 부모는 수영을 통해 그녀의 신체가 자유롭게 되도록 해보려고 매일 그녀를 수영장으로 데리고 다녔읍니다. 혼자서 물 밖으로 손을 들어올릴 수 있게 되자 그녀는 기쁨에 넘쳐 울었읍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수영장 폭을 헤엄쳐 나가는 목표를 세웠고, 그 다음에는 길이를, 그리고는 여러 번 왔다갔다하는 목표를 세웠읍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노력하여 결국 호주의 멜버른에서, 그것도 모든 수영법 중에서도 가장 힘든 수영법인 접영에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만일 셀리만이 다섯 살 때에 목표를 이루어 보라는 권고를 받지 않고 또 계속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현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도와 주신 부모는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구세주의 잘 알려진 가르침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이라는 말을 적당히 덧붙일 수 있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바로 지금)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 14 : 15 참조) "너희는 바로 지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 : 15 참조) "(바로 지금) 와서 나를 좇으라."(눅 18 : 22)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지금 그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당사자는 부인할지는 모르나 현재 교회에서 우정과 활동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며, 우리는 그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길을 찾도록 도와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축복입니다. 우리와 그들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서로 이끌어 주고 먹여 줄 수 있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들을 돌보며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며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자를 반겨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지금 행하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바로 지금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 하나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친하게 되는 시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루하루를 생활해 가는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
누가 말하는가?
속된 일로 시간을 보내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한 것에 마음의 문을 닫을진대,
우리의 하나님은
삶의 주님이요 삶 그 자체가 되리.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 함은
먹고 자고 사랑하고 죽음을 말함이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
그렇지 않을진대 네 영이 위축되리니
죽음의 천사가 문가에 이르러,
불운을 몰고와 너와 함께
영원으로 인도하리라.

노만 엘 트로트, 애송 종교시(뉴욕: 플레밍 에이치 레블사, 1933년, 65페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좀더 그와 같이 될 수 있읍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1850~1894, 스코틀랜드 작가)은 "성도는 계속 노력하는 죄인이다."라는 말로 명성을 떨쳤읍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요 8 : 31)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크고 분명하게 들려 오고 있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섬기어, 현재의 매일, 매 시간을 향상시켜 나간다면, 보다 중요한 내일에는 그의 길로 들어서 더욱 앞으로, 더욱 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을 취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즐겨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길에 들어서기를 두려워하여 주님의 분노를 사는 사람도 있읍니다. 우리 중에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과 같은 예언자의 말씀을 듣기는 즐겨 하면서도, 바로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적용시킬 용기와 소망을 갖지 못하여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사람도 있읍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시작하는 것이 좀더 쉬울 것이라고 스스로 믿게 하려 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는, 오늘 우리가 타인을 위해 해준 일이, 훗날에 우연히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간에 이런 생활 태도를 보여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새로운 태도와 성취감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과의 우정이 더욱 깊어져 나날이 발전되어 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만은

주여, 내일과 내일 필요한 것을 위해 나는 기도하지 않읍니다.
나의 주여, 오늘만은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오늘만은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기도하게
해주소서.
언행을 친절히 하게 해주소서.
오늘만은
내 뜻대로 하기보다
오히려 순종하게 해주소서.
주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옵소서.
오늘만은
생각없이 그릇되고 허튼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 입술을 봉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과 내일 필요한 것을
위해
나는 기도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주여, 나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소서.
시빌 에프 페트리지, "오늘만은"
(작사) (뉴욕, 샘 폭스사)

시빌 에프 패트리지가 택하여 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안겨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보다는 "오늘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만은" 권력이나 재물이나 편의나 세속적인 지위에 대한 열망을 영원에 대한 추구나 그 보화와 대치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그들의 생활에 임하게 되겠읍니까?

우리가 돈과 관계되는 계획이나 일을 하고 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여하한 것을 바라고 있다면, 바로 지금 잠시 멈추고, 그러한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잃고 있지나 않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을 돈이나 세속적인 재물을 축적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것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찾고자 하는 바를 일상 생활에서 지나쳐 버릴 수도 있읍니다. 살아가면서 합당한 삶을 놓쳐 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읍니다.

내일은 오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오늘 행하는 일은 내일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앨마서 34장 32절과 33절을 읽어 보겠읍니다.

"보라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라. …너희의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루지 않기를 바라노라." 생의 가장 좋은 때는 내가 선교사를 나가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산 뒤에, 은퇴를 한 뒤에, 또는 자녀들이 다 자란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의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정 생을 시작해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일의 일을 시작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미래는 현재 생활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생활에 열심히 몰두해 있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날이란 없는 법입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는 국제적인 분쟁이 가라앉을 때를 기다리며 적절한 조치와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각자 맡은 일"은 반드시 앞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한계가 없읍니다. 그곳에는 시간적인 장애도 없읍니다. 조치를 취할 시간과 분위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낫질하여 이 땅이 그 목적을 다 이룰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하겠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간단없이 부르시는 구세주의 부름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막 1:16—18)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루는 버릇을 곧 버리도록 도와 주십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을 섬겨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이러한 진리를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알게 됨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이제 이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몰몬경

모든 말일성도는 일생 동안 몰몬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나는 오늘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읍니다. (신앙개조 8조) 하나님께서 이같이 선포하셨으며, 몰몬경의 기록자도 이같이 선포하였고, 몰몬경의 목격자들도 이같이 선포하였고, 몰몬경을 읽고 하나님으로부터 몰몬경의 진실함에 관하여 개인적인 계시를 받은 모든 사람이 이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교리와 성약 20편에는 "하나님은… 몰몬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저에게 능력을 주셨나니, 몰몬경에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려 있느니라. 이는 영감으로써 주신 것이요…"(교성 20:7—10)라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몰몬경의 예언자, 니파이는 이 책에는 "그리스도의 말씀"(니이 33:10)이 담겨 있다고 간증하였으며 몰몬경의 마지막 저자 모로나이는 "이러한 것이 참된 것"(모로 7:35)이라고 간증하였읍니다.

천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로나이는 이 고대 기록을 오늘날의 세 목격자에게 보이셨읍니다. 기록에 대한 세 목격자의 간증은 몰몬경 첫부분에 기록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또한 우리가 금판의 기록이 하나님의 은사로 인하여 번역되었음을 아는 것은 이를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때문이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 모든 역사하심이 진실한 것인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번역하는 도구로 쓰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간증하였읍니다. "몰몬경은 이 세상의 어느 책 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요,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교회정사, 4:461)

몰몬경은 오늘날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읍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책은 멸망당한 민족의 기록으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영감받은 자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고대 민족은 이 책을 얻지 못하였읍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주어

진 것입니다. 예언자 몰몬은 수세기의 기록을 요약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책의 이름을 붙였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요약할 때 오늘날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지시하여 주셨읍니다. 몰몬경은 마지막 저자인 아들 모로나이에게 넘겨 주었으며, 1500여 년 전에 기록한 모로나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보라 너희가 아직 내 앞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마치 너희가 내 앞에 있는 듯이 말하는도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는도다."(몰 8 : 35)

몰몬경의 목적은 몰몬경의 표제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확신하게 하느니라."

몰몬경의 최초의 기록자인 예언자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하였읍니다. "내가 뜻하는 바는 오직 사람들을 권고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며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것을 기쁘게 하는 일을 기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기록하려 하노라.

"또한 나는 후손들에게 명하여 만백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이 판위에 기록하지 않게 하리라."(니일 6 : 4—6)

몰몬경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본되는 방법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고 있읍니다. 첫째, 몰몬경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있읍니다. 몰몬경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주의 필요성과 인간이 그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증거해 주고 있읍니다. 몰몬경은 인간의 타락과 구속, 복음의 제일 원칙,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몰 2 : 14 ; 교성 59 : 8 참조)을 지녀야 하는 필요성,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필요성에 관해 말해 주고 있읍니다.

몰몬경은 우리가 끝까지 의롭게 견뎌야 하며, 성도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읍니다.

둘째, 몰몬경은 그리스도의 적을 적나나하게 들춰 내어 줍니다. 몰몬경은 거짓 가르침을 뒤집어 엎으며 논쟁을 잠잠케 합니다. (니이 3 : 12 참조) 몰몬경은 오늘날의 악의 가르침, 기만, 악마의 술책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겸손한 추종자들을 강하게 해줍니다. 몰몬경에 나타난 배도의 형태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몰몬경을 만들게 하시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짓된 교육, 정치, 종교, 철학의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는 방법을 알게 해주셨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몰몬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책을 주의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며, 읽으면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교육받지 못한 청년이 쓴 글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은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시험하여 보라고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권고하였읍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마음 참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 10 : 4) 나는 모로나이의 권고대로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련된 책이며, 진실로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릴 수 있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기본적인 도구로 몰몬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42편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 교회의 장로와 제사와 교사들은… 몰몬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 그 책에는 충만한 복음이 실려 있느니라."(교성 42 : 12)

우리는 몰몬경을 읽고 가르치면서 "경전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니일 19 : 23) 것이 되게 하기 위해 몰몬경의 진리를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반대론에 대처하기 위해서 몰몬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스미스에게 놀라운 시현으로 나타나셨읍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은 후 요셉 스미스는 이 일에 관하여 목사에게 말하였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현이나 계시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것은 이미 사라졌다고 말하는 목사의 반응에 요셉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요셉 스미스 2서 : 21 참조)

이 말은 비회원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회원이 교회에 대하여 제기하는 모든 반론을 상징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그의 뜻을 전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반대론, 다시 말해서 낙태, 복수결혼, 제칠일 예배 등등에 관한 그들의 반대론은 결국 요셉 스미스가 진실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예언자였으며 그의 후계자들도 그러하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론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몰몬경을 사용할 수 있읍니다.

첫째, 반대론을 이해하십시오.

둘째, 계시에 밝혀진 해답을 주십시오.

세째, 우리가 현대의 예언자를 통하여 현대의 계시를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해답의 정확성이 실제로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네째, 현대의 계시와 예언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몰몬경이 진실하냐 아니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설명하십시오.

그러므로 반대자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몰몬경이 진실한지를 믿는 것입니다. 몰몬경이 진실하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의 예언자였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참되며, 현대의 계시를 받는 예언자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주요 과업은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자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야 할 의무는 없읍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신앙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읍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입장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너희가 판단하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권세와 크신 영광으로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보이실 것이요, 너희와 내가 주의 심판대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서리니, 비록 내가 연약하나 주의 명령으로 내가 이것들을 기록하였음을 너희가 알리로다."(니이 33 : 11)라고 니파이는 말씀하셨읍니

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책임을 맡기셨음을 알고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몰몬경은 "이스라엘 백성인 나의 백성의 기호가"되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울려 퍼져"(니이 29 : 2)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특히 교회 회원은 선교사로서 몰몬경을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지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몰몬경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표준 경전입니다.

몰몬경은 요셉 스미스가 진실로 예언자였음을 설명해 주고 있읍니다. 몰몬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몰몬경의 가장 큰 사명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며, 그밖의 것은 모두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몰몬경이 묻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더 알기를 원하십니까?"입니다. 몰몬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 주고 있는 가장 훌륭한 책의 하나입니다. 몰몬경에 실린 내용은 "세상의 것을 기쁘게 하는"(니일 6 : 5)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은 이것에 흥미를 느낄 수가 없읍니다.

몰몬경의 교리와 가르침을 부지런히 구하여 알고 끊임없이 이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는 모두 이 몰몬경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레이맨인에게 우리의 메시지의 참됨을 확인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주신 도구임을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몰몬경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였읍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도록 하는데 몰몬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강화될 수 없읍니다. 사회주의, 진화론, 합리론, 인문주의 등등에서의 잘못된 점을 들춰 내고 이에 대처하는 데 몰몬경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우리의 가정은 파괴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몰몬경을 "울려 퍼지게"(니이 29 : 2 참조)하지 않는다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을것입니다. 사회, 윤리, 문화, 또는 교육에 뜻을 둔 자가 몰몬경에 담긴 충만한 복음을 바탕으로 삼지 아니하면 끝까지 견디기 어렵습니다. 교회 반에서 몰몬경을 표준 경전으로 하여 가르치지 않는다면 영에 가득 찬 반이 될 수 없읍니다. 지상을 지으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또한 몰몬경에서 미대륙을 멸망하게 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비밀 결사를 세우는 일을 중지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국가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 중 몇 명은 몰몬경을 경솔히 취급하였기 때문에 교리와 성약 84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에게서 견책당했읍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읍니다. 주님께서는 몰몬경을 이같이 다룰진대 온 교회와 시온의 모든 자녀까지 정죄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들은 회개하며 새 계명 곧 몰몬경…을 기억…하기 전에는 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으리라."(교성 84 : 54—57참조)고 말씀하셨읍니다. 아직도 우리는 저주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몰몬경 읽기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교 사업을 하도록 권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몰몬경을 알고 읽는 가정, 지부, 와드에서 배출되는 잘 준비된 선교사입니다. 몰몬경을 잘 알고 몰몬경을 가르치는 선교사를 준비시켜야 할 날이 바로 가까이 왔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몰몬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르는 결과는 막중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의를 행하는 자는 영생의 관을 쓰게 되리라."

"그러나 불신앙으로 자기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거절하는 자는 정죄를 자초하게 되리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교성 20 : 14—16)

몰몬경은 참된 책입니까? 그렇습니다. 몰몬경은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몰몬경이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읍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적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몰몬경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간증을 얻고 이것을 가르치고, 표준 경전으로 받들고, 이 복음을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였읍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만큼 하지 못했읍니다.

몰몬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릅니까? 그렇습니다. 축복이나 정죄가 따르게 됩니다.

모든 말일성도는 일생을 통해 몰몬경을 공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위태롭게 되며 영적, 지적인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몰몬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쇠막대를 굳게 잡고 있는 개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큽니다.

약 25년 전 나는 이 태버나클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읍니다. "몇 년 전 나는 법을 집행하기 시작하자 나의 가족은 약간 불안해 하였읍니다. 그들은 내가 신앙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하였읍니다. 나는 법을 집행하고 싶었읍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나는 간증을 지니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졌읍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읍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30분 동안 몰몬경을 읽는 것이었읍니다. …하루에 몇 분 동안 몰몬경 읽기를, 9년간 계속하였읍니다. 그것이 내가 조화있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었읍니다." (대회 보고, 1949년 4월, 36페이지) 몰몬경은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도록 하여 줍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어느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읍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말씀을 하신 분은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이십니다. 지금도 내 귀에는 그분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몰몬경에 관하여 무어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는 몰몬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이 사실을 추호의 의심도 갖지 않고 확실히 압니다. 우리의 생각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과 일치합니다.

"몰몬경은 이 세상의 어느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교회정사, 4 : 461)

우리 모두 이 종석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상징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살아 계신 그리스도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라 신앙으로 가득 찬 우리 생활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아리조나 신전을 공개했읍니다. 건물이 완전히 개축된 다음에, 약 2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내부를 관람했읍니다. 공개한 첫날에는 다른 종파의 성직자들이 귀빈으로 초대되었는데, 수백 명이 이에 응했읍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이 다 둘러보고 난 뒤에 나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읍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질문에도 기꺼이 응답해 드리겠다고 말했읍니다. 그 중에서 어느 신교의 성직자가 이렇게 물었읍니다.

"본인은 이 건물을 다 둘러보았는데, 이 건물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씌어 있더군요. 그런데,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상은 찾아볼 수가 없었읍니다. 전에도 이 교회의 건물을 본 일이 있지만, 역시 십자가는 찾아볼 수가 없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알고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우리는 여러 기독교 종파의 형제들이 교회의 첨탑이나 예배당의 단상에 십자가를 달아 놓거나 그들의 복장에 십자가를 부착하고, 책에도 십자가를 새겨 놓는 것을 조금이라도 비난하려는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는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있읍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물었읍니다.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우리 신앙의 뜻깊은 표현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상징이 된다고 대답했읍니다.

나는 그분이 내 대답에서 기분이 상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군목이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군복에 십자가를 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똑바로 관찰했읍니다. 우리의 입장을 피상적으로만 관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 인물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읍니다. 이 교회의 공식 명칭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요 구세주로 경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전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한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읍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인 그리스도의 출생과 성역과 사망과 부활을 다룬 마태, 마가, 누가 및 요한의 기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옛날의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롬 1:16)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임을 주장합니다. (행 4:12 참조)

이 서반구에서 고대에 살았던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기록하여 신세계의 성서로 알려진 몰몬경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분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읍니다.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에, 그것은 주님의 신성을 다른 한 면에서 힘차게 증언해 주고 있읍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에 미대륙에 살던 한 예언자는 몰몬경의 첫머리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 그 책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대의 계시책인 교리와 성약에서도 그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읍니다. "나는 주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끝이요, 세상의 구속주니라."(교성 19:1)

이같은 말씀이나 간증에 비추어서, 아리조나에서 온 그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왜 당신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망의 상징인 골고다의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읍니까?"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께 나는 먼저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 중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과 심한 모욕을 받으며, 악독한 가시관으로 살을 찢기우고, 빌라도 앞에서 군중들의 노도와 같은 함성을 들으며 혼자서 골고다 언덕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가 커다란 못으로 손과 발을 박히는 고통을 당하고, 비극의 날에 십자가에 달려 육신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외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구속주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치루신 그 엄청난 대가를 조금이라도 잊고 있는 사람은 없읍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고안된 무서운 도구이고, 그에게 큰 고통을 주었으며, 병자를 고쳐 주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신 그의 놀라운 업적을 악으로 보상한 기구였읍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달려 쓸쓸한 골고다 언덕 위에서 돌아가셨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수 없읍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몸소 대리 희생을 치루어 주셨읍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안식일 전날 어두운 저녁 빛 속에서 그의 생명 없는 육신을 끌어내려 누군가가 내어 준 무덤에 뉘어 놓았을 때 그를 가장 잘 알고 열렬히 따르던 제자들의 희망이 송두리채 사라져 버렸읍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희망을 잃고 낙담했읍니다. 그들이 믿고 따른 메시아가 죽은 것입

니다. 그들이 온갖 소망과 희망을 걸고 있던 그들의 구세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을 말씀하시던 그분이,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 내신 그분이, 그 앞에 죽어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그의 슬픔에 찬 짧은 생애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의 생은 이사야가 오래 전에 예언하신 것과 같았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사 53 : 3, 5) 이제 그는 아주 가셨읍니다.

우리는 우리 달력으로 토요일인 유대인의 안식일에,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그를 사랑한 사람들의 느낌을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읍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주님의 안식일인 그 주일의 첫째 날이 밝아 왔읍니다. 슬픔에 가득하여 무덤에 온 사람들에게 곁에 있던 천사가 이렇게 말했읍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눅 24 : 5)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 28 : 6)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은 여기 있었읍니다. 그보다 앞서 그는 무리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 11 : 25)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읍니다. 그는 비참하게 고통을 받으며 쓸쓸하게 돌아가셨읍니다. 이제, 세째 날에 그는 힘차고 아름답게 살아나 잠자는 모든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 : 22)는 말씀을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읍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분은 죽은 예수로 있었읍니다. 무덤에서 그분은 산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다의 배반에서 나온 쓴 열매였고, 베드로의 부인의 결과였읍니다. 빈 무덤은 이제 그의 신성을 간증하며 영생을 확인하고,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 14 : 14)라는 응답받지 못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읍니다.

죽은 것으로 그쳤다면 그는 그대로 잊혀졌거나 아니면, 그의 생애가 역사책에 몇 줄로 소개되는 많은 성인 중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그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읍니다. 이제, 이사야와 함께 그의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 : 6)

욥의 기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욥 19 : 25—27)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보았을 때 "랍오니여"(요 20 : 16)하고 불렀읍니다. 이는 그가 생명뿐 아니라 죽음 그 자체도 극복하여 이제는 명실 공히 선생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고통은 물러가고, 무덤의 승리가 사라졌읍니다. 두려움 많던 베드로도 일변했읍니다. 의심에 가득 찼던 도마까지도 엄숙하고 경건하게 또 실제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요 20 : 28)라고 외쳤읍니다.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20 : 27)고 하신 말씀은 그 놀라운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되었읍니다.

뒤이어 바울이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고전 15 : 6)라고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읍니다. 그가 전에 말씀하신 다른 양이 이 서반구에 있었읍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같은 일을 겪었읍니다.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는지라.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하시는지라.

"…보라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사 무리 가운데 서시매…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 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니삼 11 : 3, 6~10, 14)

이 훌륭한 말씀 뒤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대 미대륙에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음이 나타나 있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의 증인들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언된 바와 같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하여 다시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진리를 새로이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활하여 살아 계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로운 시현으로 한 소년 예언자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후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히 12 : 1) 뒤를 이었읍니다. 현대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는 엄숙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76 : 22—24)

이상의 간증에 지금까지 성령의 힘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을 엄숙하게 간증해 왔고 또 현재 간증하고 있는 수백만 증인들의 간증을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간증은 그에게 위안과 힘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세주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주님의 죽음의 상징을 사용하지 않읍니다. 어떠한 증서나 어떠한 예술품이나 어떠한 형상으로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경이와 영광을 표시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읍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상징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 : 15)는 말씀을 주셨읍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가 비열하고 거짓되고 무례한 짓으로 그의 상을 더럽힐 수는 없읍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하고 품위있고 고결한 행위로 우리가 받들고 있는 그의 이름의 상징을 더욱 빛나게 닦아야 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살아 있는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것을 뜻깊게

표현하는 상징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것으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첫째 단계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만물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신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은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사신 것을 역사에 기록된 사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으로 경축해 왔읍니다. 이 사건은 1900여 년 이상 매년 봄에 경축되어 왔읍니다. 춥고 음침한 겨울이 끝나고 모든 자연에 생기가 돋게 되면 우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눈이 녹아 없어지면, 나무와 화초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이 맺기 시작하여, 온 지상은 따사함과 갖가지 색채로 교향시를 이루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알려 주게 됩니다. 자연이 매년 생기를 되찾는 것과 같이, 음침한 겨울에서 아름다운 봄이 되는 자연의 변화는 겟세마네의 어두움과 절망이 영화로운 부활로 바뀐 것을 일깨워 줍니다. 돌이 굴려 옮겨졌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눅 24:6)는 말씀이 들렸읍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의 실재는 용기있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오한 의미를 주었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재하십니까? 그가 실제로 이 지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인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읍니까?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러한 일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읍니까? 이와 같은 사실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겠읍니까?

나는 이러한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러한 것이 참됨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과 그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이 지상에 살고 있고 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부활하여 다시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누구든 경전에 실려 있는 간단한 권고의 말씀에 따름으로써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태복음 7:7—8)

야고보가 이스라엘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같은 의미를 지닌 권유의 말을 전했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야고보서 1:5—6)

믿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경전에 있는 이러한 단순한 가르침에 따른다면, 의문을 풀고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과 그 거룩한 계획에 속한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예언자는 이같이 의미깊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하나님의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과 경험과 주의깊고 사려깊은 생각이 있어야만 그러한 것을 발견해 낼 수 있읍니다. 오! 인간의 마음이여! 그대의 영이 구원받으려면 저 높은 하늘과 칠흑과 같이 어두운 심연과 드넓은 영생의 세계를 두루 숙고해 보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요셉 스미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정사, 3:295)

구세주께서 이 지상에 가져 오신 복음은 기쁜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계획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희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를 기억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사람들을 내게 인도하여 내가 사람들 손에 달렸던 것같이 저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달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선악간에 저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니파이삼서 27:12—14)

우리가 경전을 주의깊게 연구해 보면,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근본 요소나 복음의 원리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라는 믿음을 스스로 키워야 합니다.
2. 우리는 그릇된 행위를 회개하고 그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라야 합니다.
3. 우리는 과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그의 가르침에 따라 침례받아야 합니다.
4. 우리는 안수로 성신을 받아야 합니다.
5. 우리는 육신의 생활을 마칠 때까지 의로운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첫째 단계는 신앙인데 이는 일반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지상에 내려와 그의 목숨을 바치고 모든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부활을 이루었음이 사실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 가운데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참된 소망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자못 커질 때 우

리는 증거를 찾아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구세주의 신성에 대해 합법적인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 수는 없으나, 진리에 대한 모든 의문이 실재의 뚜렷한 증거로 입증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를 논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못됩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실증이 따르는 과학 세계에 대하여 가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연구로 우리는 간접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와 지구와 자연과 인간의 신체 조직과 물리 법칙의 정확성 및 수만 가지의 경이로운 사물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가 있음을 알려 줍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사태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첫째 단계로 신앙의 본질이나 복음의 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읍니까? 구세주의 가르침에 깃들어 있는 원리의 하나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곳에서 다리를 놓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이는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 신앙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 : 1)라고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란 그것이 비록 명백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확실한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진리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만물을 확실한 증거로 증명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신앙은 필요하지 않아서 없어질 것이며, 따라서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첫째 단계요 복음의 원리인 신앙이 제거된다면, 복음 계획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만물을 확실한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데에는 신의 섭리가 있는 것임을 나는 긍정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나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예언자 앨마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 준다면 우리가 확실히 알아 믿으리라고 말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가 묻노니, 이것을 신앙이라 하겠느냐?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으면 믿을 필요가 없으리니, 이는 이미 앎이라." (앨 32 : 17—18)

그런 뒤 앨마는 그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씨를 뿌린 다음에 계속 돌보고 가꾸어 줄 필요가 있는 일과 비유하여 말했읍니다. 결실을 보고자 하는 소망이 씨앗을 심게 한 것이며, 경작자는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앨마는 이러한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했읍니다.

"보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매, 너희가 힘써 이 나무를 가꾸어 뿌리를 뻗게 하고, 크게 자라 우리를 위해 열매를 맺게 하자 하리니, 보라 너희가 열심히 이 나무를 가꾸면 뿌리를 뻗고 크게 자라 열매를 맺으려니와,

"나무를 소홀히 생각하여 잘 가꾸지 아니하면, 보라 나무는 뿌리를 뻗지 못하여 햇빛이 비쳐 마름에 뿌리가 없는 이 나무는 시들어 버릴 것이요, 너희는 이를 뽑아 던질 것이라.

"이는 씨앗이 나쁘거나 열매가 탐스럽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의 토지가 메마르고 너희가 나무를 가꾸지 아니한 때문이라. 그 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신앙의 눈으로 결실의 날을 바라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결코 생명 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나,"(앨마서 32 : 37—40)

이와 같이 신앙은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나 첫째 단계가 되며 복음을 이해하는 데도 첫째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그의 대속의 희생의 실재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첫째 원리를 가르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읍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두 절에는갈릴리의 산에 모인 열 한 명의 제자에게 구세주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일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이와 같이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라고 큰 사명을 부여해 주었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 : 19—20)

여기서 강조하신 말씀은 가르치라는 것과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성구의 권고에 따라 교회에서 각 연령층의 선교사들이 세상에 나아가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원리와 그밖의 복음의 원리를 전하고 있읍니다. 마가는 구세주께서 몸소 보여 주신 모범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읍니다.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막 6 : 7) 그들은 이미 1900여 년 전에 세상에 나아가 그의 신성을 간증했으며, 오늘날에도 헌신적인 사절들이 "둘씩 둘씩" 세상에 나아가 똑같이 간증을 전하고 있읍니다.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 모든 백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참되며 살아 계신 하나님과 예수는 그리스도요, 대속의 희생으로 온 인류의 구속주가 되셨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실한 노력으로 더욱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한 성약과 약속을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는 부활 주일이었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부활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전의 기록을 잠시 살펴보겠읍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마태복음 28 : 1—7)

역사의 구심점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문에 있읍니다."(랄프 소크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것이 대표하는 의미는 세계 역사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결코 그 뿌리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4월 6일에 태어나셨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로서 뿐만 아니라 유일한 독생자로서의 그의 탄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3년간의 그리스도의 성역에 견줄 만한 일은 아무 것도 없읍니다.

십자가에 못박히어 죽어야 하는 때가 왔읍니다. 그분은 돌아가셔야 했읍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신의 무덤을 깨신 것과 같이 모든 인류의 무덤을 깨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컴컴한 암흑의 시간은 무덤에서 나오는 봄이 있을 수 없었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 : 22)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 : 55).

예수님의 제자 열 한 명은 그리스도를 따라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 갔읍니다. 기록에 의하면 두 천사가 그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 : 11)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린도전서 15 : 12)

이 대회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간증을 강하게 하며, 주님께서 합당하게 임명하시고 권능을 부여하신 종으로부터 주님의 방법을 배우는 데 있읍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의 성약과 약속을 새로 상기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회원은 합당한 성신권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침수로써 침례받고 안수로 성신의 은사를 받았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침례받기 원하며,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몰 2 : 14 참조) 나아와 교회 회원 앞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며, 참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길 결심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죄 사함을 받은 것을 행위로써 나타내 보여, 우리는 침수로써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총관리 역원 형제들과 함께 브라질의 상파울루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지역 대회를 마치고 돌아왔읍니다. 남쪽 시온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시온은 남북 미대륙 전역임을 상기시켜 주었읍니다. 이는 마치 독수리가 그의 큰 날개를 미대륙의 남쪽과 북쪽으로 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미의 교회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읍니다. 그곳 성도들은 밝고 영감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젊은 청소년들은 지도력을 쌓으면서 무용도 즐기고 명랑하게 생활하며 성장하고 있읍니다.

전세계의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스라엘의 집합"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멕시코인을 위한 이스라엘의 집합은 멕시코에서 행하여지며, 북부인을 위한 이스라엘의 집합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독일인의 집합은 독일에서, 폴리네시아인의 집합은 그들의 군도에서, 브라질인의 집합은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인의 집합은 아르헨티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회원의 수가 많아지고 점점 독립심을 갖게 되고, 보다 신앙이 강하여지는 3백 5십만 성도들의 활동을 우리가 관리할 때 주님께 그의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거의 19,000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읍니다. "밭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교성 4 : 4)

선교사들과 회원들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지식을 전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이 지구의 각 나라에 보내며 이 세상의 끝까지 보내고 있읍니다. 우리는 지구의 동서남북 모든 곳과 바다의 모든 섬에 승영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될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로 이 교회는 700개의 스테이크와 7,500개의 와드와 지부, 그리고 150개의 선교부를 전세계에 두고 있는 범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마치 큰 대양의 물로 덮이듯이 복음으로 덮이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 교회의 기반은 튼튼합니다.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성실하며 밝고 행복합니다. 최근에 동부에서 온 저명 인사가 이곳을 다녀가면서 그는 내게, "왜 몰몬들은 밝고 행복합니까?"라고 질문했읍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우리가 모든 걸 갖고 있으니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빛, 능력, 약속, 성약, 신전, 가족, 그리고 진리 말입니다."

우리는 워싱턴 디시에 세워진 훌륭한 신전을 헌납하였으며, 남미 상파울루에 새로운 신전이 세워질 것을 발표하였읍니다.

지난 대회에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렸읍니다. 이 계명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공해가 없도록 하고, 땅을 잘 가꾸며, 청결하게 하고, 생산적이며 아름다운 토지를 만드시도록 권고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에서 거둘 수 있는 초목과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서, 그것으로 음식, 의복, 집, 곡간, 과수원, 채소밭, 포도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하셨으니,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눈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며, 육체를 강건케 하고,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음식이나 의복이나 맛이나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이것들이 만들어진 것은 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교성 59 : 16—20 참조)

앞뒤 마당이나 마당 주변이 가꾸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하수구가 어질러져 있고 하수구가 막혀 있는 것을 볼 때, 울타리가 무너져 있고 곡간이 기울어져 있고, 마구간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문에 나사못이 빠져서 건들거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은 아픕니다. 다시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우리의 소유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옥과 토지를 청결케 하고 잘 관리하라고 권했읍니다. 그러나 또 다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설교하러 가기를 거절하였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가옥과 토지를 잘 관리하라고 권면했을 때 여러분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사못이 빠져 있던 문은 여전히 흔들거리고 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던 곡간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반쯤 기울어져 있던 울타리도 여전히 기울어져 있읍니다."

많은 사람이 읽고 있는 잡지에서 짧은 기사 하나를 인용해 드리겠읍니다.

"거의 모든 뒷마당에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숨겨져 있다. 즉 인플레이션을 막고 급박한 세계 식량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를 토지라고 부른다. 많은 토지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토지란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집 뒤쪽 양지 바른 곳이 될 수도 있고, 뒷마당을 가로지르는 3미터 넓이의 좁은 길이 될 수도 있고 공 놀이터로 잔디를 기르는 마당이 될 수도 있다.

"식품 가격을 내리게 하는 데 필요한 일이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5.7미터 넓이의 마당을 잘 관리하여 채소를 재배하면 6개월간 15만 원 상당의 신선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 한다. 이 수익은 놀랄 만한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채소밭을 가꾸고 유실수를 심고, 통조림용 통과 뚜껑을 사는 것들을 볼 때 참으로 기쁩니다. 이곳 시 관리들과 기타 많은 사람이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승리의 채소밭"과 거의 같게 작은 토지를 경작하고 있읍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행하는 모든 가족에게 경의를 표시합니다.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 회원에게 1년치의 생활 필수품을 비축하도록 가르치며, 검약하게 생활하도록 가르치고 있읍니다.

우리는 회원에게 건강의 율법대로 생활할 것을 가르칩니다. 건강의 율법대로 생활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게 장수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대학교의 연구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몰몬의 폐암과 석도암 환자율은 특기할 만큼 낮다" 저명한 의사 한 분은 몰몬이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현명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는 석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알코올이라고 지적하셨읍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읍니다. "유타 주민의 사망은 일반 미국인의 사망율보다 25퍼센트가 낮은데 그것은 흡연과도 관계가 됩니다."

우리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부정직한 행위가 범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올 때 우리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들치기꾼에게 가게를 모두 잃게 되기도 하고 사기꾼의 일당들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잃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출 20 : 15)고 아담의 후손에게 말씀하셨으며, 또 이를 돌에 새기셨읍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인격을 파괴시키는 이같은 치명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정직은 사회나 문화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장이와 사기꾼은 모두 부정직하며 우리의 문화를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종류의 부정은 견책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3백 5십만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여러분은 모두 정직하고 고결한 성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얻는 것에 대하여 합당하게 지불하고, 합당하게 지급된 것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도 영예와 고결한 성품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아예 어떠한 종류라도 도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들어왔읍니다. 퇴보와 피해는 이긴 사람이든 진 사람이든 노력없이 물건을 얻거나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갖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최근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미국내에서 존재하는 죄악의 주요 형태를 매해 그 비용에 따라 목록을 만들어 보고했읍니다.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모든 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읍니다. 도박으로 인한 피해는 마약으로 인한 피해의 5배였으며, 납치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의 무려 20배, 횡령, 사기, 위조 등의 피해액의 4배, 강도, 도난, 들치기 등의 10배, 예술과 문화에 관한 파괴 행위와 방화 피해액의 25배, 그리고 연방, 주립, 지역 치안 유지비와 범죄를 다루는 법정 및 모든 사법 기관의 관리비의 2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박으로 날리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년에 15조 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내의 여러 주에서는 주의 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복권 추첨 행위를 도입하고 있읍니다. 많은 클럽에서, 심지어는 종교 단체에서도 도박성의 행위를 조장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날리는 돈을 보다 가치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5조 원으로 전세계에서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읍니까?

여성들과 십대의 청소년들 사이에 흡연자들이 점차로 증가되어 여성에게도 폐암 환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보도를 들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폐암의 경우 그 원인은 80퍼센트가 흡연이며, 이것은 문제의 시초에 불과합니다. 흡연은 폐기종, 기관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과도 관계가 있읍니다. 이 질환들은 대부분 심한 고통을 주는 병으로 생명을 쉽게 앗아갑니다.

1833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날 과학적인 연구 자료로써 더욱 잘 알 수 있게 된 것들을 성스러운 계시로 이미 알려 주셨읍니다. "뜨거운 음료는 몸에 좋은 것이 아니니라." 뜨거운 음료란 홍차와 커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담배는 몸을 위한 것이 아니니, 사람에게 좋지 아니한 것이요, 포도주나 독한 음료는 좋지 아니하니 너희 아버지 보시기에는 합당치 아니하니라."(교성 89 : 5—9 참조)

주님께서는 습관적인 흡연은 암을 유발하며 습관적인 음주는 사고와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아셨읍니다.

이것은 우리 회원 모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몇몇 회원들이 이 금지된 것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행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과 일치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 : 46) 교회의 모든 회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타 대학에서 연구 중인 학자 두 명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었읍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교회 회원은 전통적으로 낮은 사망율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1971년 현재 인구 72퍼센트가 몰몬인 유타주의 사망율은 미대륙의 모든 주보다 가장 낮았읍니다. 유타주 사망율의 거의 두 배가 되는 주도 있었읍니다.

통계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사망원인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흡연과 음주로 인한 심장 질환, 암, 간장 질환의 사망율은 미국 어느 주보다 가장 낮음이 밝혀졌읍니다.

그러므로 교회 회원의 사망율은 지혜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는 자들에게 "왜?"라고 묻겠읍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 : 21—23)

주님의 계명대로 생활하다가 때로는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 주님은 에녹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네 형제들을 보라. 저들은 내 손의 솜씨니 내가 저들을 만드는 날에 저들에게 지식을 주었고 에덴 동산에서 내가 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도다."(모세서 7 : 32)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 세계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 금지된 것들을 취하는 데 자유의지를 빼앗으려는 의도를 갖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있읍니다.

금송아지와 나무나 돌이나 금속상을 보고 절하던 것보다 이 세계의 역사상 육욕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이보다 더 많은 때는 결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는 것과 연결된 우상 숭배는 과거나 현재나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을 보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혼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이혼 중에서 그 이유의 정당성을 찾아본다면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은 부부 중 한쪽, 또는 양쪽의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손실, 슬픔, 외로움, 좌절, 특히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많은 자녀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이혼이란 추하고 파괴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는 쉽습니다. 연구 조사에 의하면 이혼의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부도덕과 육욕이라는 우상에 대한 숭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조그만 마을에서 341건의 결혼 신고서가 발급되는 동시에 272쌍의 이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겠읍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그 부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적인 부부가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니라."(모세서 3 : 24)

남편이 아내와 맺은 성약에 충실하고 비이기적이라면 이혼율은 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훈계하셨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찌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엡 5 : 25, 28—29)

또한 아내가 자신의 이기심이나 편견을 버리고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듯이 의로운 남편에게 헌신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종됨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이혼율은 낮아지며, 가족이 발전하고, 자녀는 행복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각기 특별한 재능과 힘과 그들의 특별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읍니다.

남편은 가족이 있는 가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내는 자녀에게 헌신할 때 아내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내의 최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 여자만이 이 권능과 영향력을 지닐 직분을 소유할 수 있읍니다. 여자는 국가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으니, 이는 여자에게 국가의 시민을 만드는 책임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스테이크에서 어느 어머니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읍니다. "나는 여자가 된 것을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내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말일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말이야말로 깊은 감명을 주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신문, 방송에서나 연단에서 낙태에 관하여 많이 언급된 바 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낙태를 거부하며 모든 회원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낙태시키는 일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읍니다.

낙태가 성적인 부도덕을 허용하는 무서운 방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태를 가장 나쁜 죄악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인간의 생명을 건드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신체적으로 큰 문제를 주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출산의 과정을 미리 막는 행위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 : 28)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낙태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평의회에 회부되어 훈계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십계명을 다음과 같이 다시 반복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교성 59 : 6)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온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호색 문학을 배척합니다. 법적으로도 이를 제지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으나,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남녀가 가족과 함께 이에 대항하는 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역의 좋은 시민인 여러분은 이 추한 악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부패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모세는 연기에 싸여 흔들리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유랑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져다 주었읍니다. 십계명은 곧 우리의 생의 기본되는 규율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읍니다. 그들은 태초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아담과 그의 후손들로부터 이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며, 주님께서 단지 모세를 통하여 반복해 주신 것뿐이었읍니다. 이 계명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천국 회의에서 이미 도덕의 규준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번째 계명은 주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네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 특히 예배를 강조하였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 20 : 3, 8)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각자를 위하여 세우신 시험, 즉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아브라함서 3 : 25)라는 시험에 지고 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든 회원에게 평일에 장보러 갈 것을 권고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 : 46)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계명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주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사회적 행동 규범, 특히 결혼, 성생활, 가정 생활에 관한 규범을 고의로 바꾸어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사 29 : 14)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개인 생활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합당하게 신권을 지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신권은 너무나 큰 책임이며 특권이어서 이를 소유한 자는 결코 죄악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저녁 나는 이 자리에 앉아 네 분 형제님들의 훌륭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년들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는 참으로 그들에게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나 표준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받아 각자의 생활과 교회 일에 영감을 받을 수 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나는 우리 집행 역원들 특히 이스라엘에서 "보통 판사"가 되시는 여러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예언자와 역대 교회 대관장의 말씀을 인용해 읽어 드리겠읍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회원들의 부정을 감추어 주고자 한 감독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노니, 그들은 스스로 그 짐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그 짐을 져야 하며, 인간의 죄를 거들어 주거나 인정하는 사람도 그 짐을 지어야 합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형제님께서 손수 이런 문제를 처리하실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원칙에 대항하거나 회원들의 부정 부패를 눈감아 줄 만한 위치에 처해 있지 않읍니다." (대회 보고, 1880년 4월, 78페이지)

역시 대관장단에 있었던 조지 큐 캐넌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의 영은 크게 슬퍼하시어 악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저버리실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조금

도 탓하거나 견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떠나 버리실 것입니다. 위로는 교회의 대관장으로부터 모든 신권 소유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부정 행위를 드러내어 저지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은 이들을 떠나게 될 것이며, 그의 은사와 축복과 권능이 이들로부터 사라질 것입니다."(설교집, 26 : 139)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뜻으로 말한 여러 형제들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접견을 맡은 지도자들이 범법자에 대한 개인적인 동정심에서, 혹은 범법자의 가족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범법자를 교화하기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흔히 범법자가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이나 파문을 받게 되면 모든 형벌이 기각되고 사함을 받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범법자가 파문을 받으면 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읍니다.

테일러 대관장께서 여러분은 스스로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읍니까?

여러분은 예언자 앨마가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그는 "형벌이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앨 42 : 16)라고 했읍니다.

이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셨읍니까? 참으로 온전한 회개가 없고서는 용서가 있을 수 없으며, 형벌이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 없읍니다. 이것은 영혼과 같이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지부장이나 감독이 결정을 내리면, 보좌나 고등평의원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흔히 다른 일에서처럼 그것을 표결에 부치지는 않읍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깬 사람이 오면 이를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도, 우리는 동정심으로 균형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는 비단 감독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같은 징벌은 어른과 기혼자, 특히 신전을 다녀온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다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는 요셉 스미스에 관하여 윌포드 우드럽 장로가 언급한 것을 읽은 적이 있었읍니다. 우리는 종종 그릇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회원들을 볼 때가 있읍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곧 교회를 떠나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감독이나 기타 교회 회원과 사소한 언쟁을 벌인 끝에 와드를 떠나서 다시는 와드 건물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하여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높이 들리어질 수 없읍니다."라고 예언자는 말했읍니다. 교회의 대관장이나 그의 보좌나 사도나 그 외의 여하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업이 이행될 수 없으며, 주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의 두번째 사도였던 올리버 카우드리가 요셉 스미스에게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는 무너질 것이요.'라고 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올리버, 그렇게 해 보십시오!' 올리버는 과연 그대로 했읍니다. 오히려 그는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았읍니다. 이외에도 주님께서는 자기가 아니면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여러 사도들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주님은 그들이 아니고서도 주님의 사업을 해 오셨읍니다. 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크거나 작거나, 부자나 빈자나 모든 사람에게 전능하신 주님은 스스로 능력을 갖고 계시어, 어떤 인간을 의존해서 자기 사업을 수행해 가시지는 않으시나, 주님께서 인간에게 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부르실 때에는, 인간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주간지, 1890년 4월 6일, 40 : 559—60)

따라서,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 형제님께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신권 모임에 자리를 함께 하고, 각처에서 함께 모여 드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읍니다. 머지 않아 아버지가 되고 지도자가 되며,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과 선교사들이 될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켜 보는 것은 크게 기쁜 일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소년 중에는 집사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읍니다. 내가 집사였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집사가 되는 것을 나는 아주 영예롭게 생각했읍니다. 나의 부친은 항상 내 책임을 염두에 두시고는 언제나 내게 금식 헌물을 모으는 마차를 끌게 하셨읍니다. 내가 살고 있던 마을의 일부도 내가 책임맡게 되었읍니다. 그 거리는 걸어다니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였고 밀가루나 과일이나 야채나 빵 같은 것이 모아지면 무게가 상당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차가 아주 긴요하게 사용되었읍니다. 최근에 와서는 현금으로 바뀌었으나, 그 당시에는 현물로 직접 받았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크게 영예로운 일이었읍니다. 시대가 바뀌어, 일용품 대신에 돈을 바치게 되었으나, 그래도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영화로운 일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집사임을 항상 자부하고 있읍니다. 사도들이 성회에서 성찬을 축복하기 위해 단위로 올라오고, 그 밖의 총관리 역원들이 성찬대에 나아와 떡과 물을 취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돌리고 빈 성찬기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 나는 내가 집사이며 교사요, 제사임을 크게 자부하게 됩니다.

신전에서 특별 모임을 가질 때도 총관리 역원들이 성찬대에 나아와 성찬을 축복하고 돌리면 나의 가슴은 다시금 크게 두근거리고 내가 거룩한 아론 신권을 지니고 있어 성찬을 주관할 특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몸소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돌리셨음을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나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합당하게 성찬을 돌리고, 경건성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태너 부대관장과 그 외의 여러 형제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을 나도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이 되시는 분들께 나는 월터 맥픽이 쓴 기사에 나온 글을 인용해 드리겠읍니다. "소년들에게는 링컨이나 워싱턴과 같은 영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가까이에 그러한 영웅을 두고 함께 생활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들은 뛰어난 힘과 본질적으로 완전한 인간성을 지닌 사람들도 잘 알아 둘 필요가 있읍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과 함께 거리를 거닌다든가, 야영

도 해 보고, 매일같이 혹은 경우에 따라서 집안에서 그와 가까이 지내 보기도 하며, 그와 함께 일대 일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친하게 지내야 할 필요도 있읍니다."

나는 아버지 되시는 모든 분들이 아들을 이와 같이 가까이 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가족들에게 가정의 밤을 마련해 주고, 모든 자녀에게 발표할 기회를 내주며, 가정 생활을 계획하고, 가족 기도를 인도하며, 가정의 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인생에는 참된 목적이 있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세계와 여러분을 위한 삶을 마련해 주셨읍니다. 그것은 아주 훌륭한 것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한 것이 될 수도 있읍니다. 이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 두 살만 넘으면 여러분에게서는 많은 것들이 기대됩니다. 운명이 여러분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을 하여 자신의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소년이 열 두 살이 되면 거의 성인 대우를 받게 된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족들이 겨우 찾아 내었으며, 그는 거기서 그 지방의 지도자와 박사와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자녀에게 헌신하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아들은 스스로 삶을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지상의 부모님과 그가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해 나가면서 용기를 필요로 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오늘 밤 롬니 부대관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

"여러분은 젊읍니다.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의 생이 있읍니다." 침몰해 가는 배에서 군목이 말했읍니다. "자, 이걸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군목은 자신의 구명대를 어느 사병의 손에 건네주고는, 몇 분 뒤에 배와 함께 가라앉았읍니다.

"1943년 2월 3일의 일입니다. 그 비극은 미 군함 돌체스터호가 수뢰를 맞아 침몰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군목은 그와 같이 자신의 구명대를 남에게 주고 생명을 희생한 네 사람 중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은 천주교인이었고, 두 사람은 신교,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읍니다."

자신의 삶을 시작해 나가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읍니다. 그것은 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이신 예수는 겨우 열 두 살 때 성전에 나갔으며, 서른 세 살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15세도 안된 나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도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그는 겨우 18세에 모로나이의 방문을 받고 금판에 대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는 22세 때에 금판을 받고 이와 더불어 큰 책임도 함께 맡게 되었읍니다. 그가 몰몬경을 발행한 것은 겨우 24세 때였으며, 24세가 조금 넘어서 계시에 따라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했읍니다.

그의 첫번째 사도들도 29세에서 36세에 이르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역시 흥미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젊었으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세련되고 힘차고 품위가 있었읍니다.

소년의 티를 벗고 성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오고 가는 수천 수만의 선교사들에게서 보았을 것입니다. 선교 사업이 바로 이를 이루어 줍니다. 선교지역으로 떠나는 19세의 소년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데, 2년 뒤에는 크고 힘차고 기품있고 목적 의식이 뚜렷한 성인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어느 큰 기업체의 지도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읍니다. "소년을 성인이 되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약간 바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읍니다. "사람을 참된 사람이 되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만 한 소년에게 들려진 내심의 음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인간의 사고를 주도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사고는 행동에 나타날 수도 있읍니다. 반복된 행위가 습관을 낳게 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미래의 인간상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읍니다.

"어느 소년이 내일 성인이라 불리움을 받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읍니다. 결코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는 약한 자입니다. 속이는 것은 약한 것과 훔치는 것을 겸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진리를 존중하려는 용기를 갖게 되면, 이미 여러분은 자제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의 창고와 같은 것으로 선반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좋은 것으로 선반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일하는 습관과 공부한 것이 내일의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놀 때는 즐겁게 노십시오. 온 힘과 스포츠맨쉽을 발휘하여 열심히 하십시오.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게 하십시오.

"창조주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십니다. 국가 건립의 기본 개념은 자유의 근원이 되시는 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무, 명예, 국가, 하나님'이라는 규범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여러분이 받게 되는 가장 값진 재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함께 자라나 언젠가는 참된 성인이 될 것입니다."(제이 에드가 후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인간이 성장하기를 원할 때는, 하늘을 향해 모든 것을 뻗어야 합니다. 고귀해지기를 원한다면, 고귀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날기를 원할 때는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의로와지기를 원한다면, 의로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날에 조지 홀 경이라는 분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설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사실 여부는 불문에 두고서라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겠읍니다. "조지 경은 악한 생활을 해 왔읍니다. 그는 술주정군에, 노름군이며 사기군이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생활상이 역력히 그려져 있었읍니다. 그야말로 보기 흉한 얼굴이었읍니다.

"어느 날 그는 보잘것 없는 시골 소녀를 사랑하게 되어 청혼을 하게 되었읍니다. 지니 미어는 그에게 그처럼 악하고 보기 흉한 얼굴의 소유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읍니다. 또한 그녀는 결혼 상대자로 참된 사랑을 비쳐 보여 주는 성자와 같은 얼굴을 지

닌 사람을 원한다고 했읍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조지 경은 런던의 본드가에 있는 에이니스 씨를 찾아 갔읍니다. 에이니스 씨는 밀로 만든 가면을 만들었는데, 그의 솜씨는 하도 기묘해서 사람들의 특색을 완전히 감출 수 있을 정도였읍니다. 그 증거로 많은 빚을 진 빚장이들이 그의 가면을 쓰고 나서면 채권자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이니스는 창고로 들어가 가면을 하나 집어들어 그것을 불에 달구어 조지 경의 얼굴에 붙여 주었읍니다. 조지 경이 거울을 들여다보니 무척 인자한 성자의 얼굴이 되어 있었읍니다. 외양이 바뀌자 지니 미어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을 승낙했읍니다.

"그는 시골에 조그만 오두막 집을 샀는데, 그 집은 장미 나무로 뒤덮여 있고 조그만 정원도 달려 있었읍니다. 그때부터 그의 전생애는 변화했읍니다. 그는 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시냇물이 들려주는 말에서 무언가를 느끼며, 모든 것에서 선한 것을 발견했읍니다. 전에는 환락에 빠져 있었으며 생이라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읍니다. 이제, 그는 따스한 눈길로 자기 주위의 세계에 몰두하게 되었읍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과거의 일을 속죄하려 했읍니다. 그는 아주 믿을 만한 의뢰인을 통해서, 자신이 부당하게 획득한 것을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읍니다. 그의 성품은 나날이 새롭게 닦여지고, 그의 영혼은 더욱 훌륭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읍니다.

"우연히, 그의 옛 동료가 그의 정체를 알아냈읍니다. 그들은 그의 집으로 그를 찾아와, 옛날의 악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권했읍니다. 그가 거절하자, 그들이 그에게 덤벼들어, 가면을 벗겨 버렸읍니다.

"그는 목을 매달았읍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 났읍니다. 그가 새로 찾은 삶과 아름다운 꿈도 끝이 났읍니다. 가면을 발밑에 떨어뜨린 채로 목을 매달고 있는 곳에, 그의 아내가 달려와 그의 앞에 쓰러졌읍니다. 그녀가 머리를 들어 남편을 올려다보았을 때, 어떠한 것을 보았을까요? 보십시오! 그의 얼굴의 윤곽이나 선은 그야말로 가면과 똑 같았읍니다. 아름답고 균형 잡힌 모양이었읍니다."

인간의 생활 형태와 그 생각이 자신의 얼굴에 명백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조금 내어 여러분의 흥미를 끌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시 한 편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소문

마을마다 거리마다
어느 집에나
흰 이를 드러내며 조롱하는
조그만 요정이 날아다니네.
요정은 흔들 의자 위나
아무데나 기어 오르고 날아 붙네.
요정은 누군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귓전에 속삭여 주네.
그래 우리는 그를 "작은 소문"
이라 부르네.
요정은 전혀 잘 알지도 못하고,
남에게서 다만 들어 알 뿐이네.
그래도 그의 속삭임을 들은 사람은
밖으로 달려나가 다시 속삭이리.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자꾸만 퍼져 나가네.
존이 헨리에게 말하면
헨리는 조에게
조는 메리에게, 메리는 플로에게
플로는 밀드레드에게, 밀드레드는
루드에게 말을 전하네.
소문은 진실처럼 번져 나가네
이 조그만 요정은
확실한 것이라 진실한 것이라
말하지 않고
다만, 말을 전할 뿐이네.
우리도 나가 말하리라는 것과
다른 사람도 그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네.
해가 지기 전까지
악마의 속임수는 이행된다네.
삽시간에 이웃간의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마네.
"소문"이 집안으로 살며시
들어오는가를 살펴보아
소문이 가만히 들려오면
꼬치꼬치 증거를 캐어 보고
이름과 날자와 장소를 물어 보세.
다만 전해 들은 말이라고 하면
한 마디도 믿지 말기로 하세.
그런 말은 다시 안 하리라 하면
거리의 어리석은 풍문은
악마의 일은 하지 않으리라고
멋적은 웃음지으며 사라진다네.

—시집 "셸 해피 타임" 중에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밤 212명의 남성 합창단이 부른 이처럼 아름다운 합창을 들어보신 일이 있읍니까?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화로운 일입니다. 제왕이나 황제가 소유했던 것보다 더 크고 고귀한 신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형제나 부친과 함께 이 특권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읍니까? 오늘 밤 이 모임에서 들은 모든 말씀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생활에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임을 나는 알고 있으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운명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오늘날의 저속함과 방탕 속에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바빌론의 역사가 되풀이 됨을 볼 수 있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2차 연차 대회를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내가 원한 만큼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아름다운 간증과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읍니다. 이 대회의 말씀을 들으신 수백만의 청취자들이 모두 청결한 마음과 받아들이

고자 하는 태도로 이 말씀을 들으셨기를 바라며 수백만에 달하는 교회 회원의 일원으로 헤아림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이를 간증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민들이 그들의 편견과 오해를 버리고, 순수하고 가식이 없고 복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총관리 역원들이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하여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본되는 원리입니다.

며칠 전 기자 회견석상에서 나는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읍니다. "오늘날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로, 대관장님께서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발전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했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지도자를 찾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만 우리는 기꺼이 잘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때, 나는 세계의 지도권이 앗시리아와 바빌론에 있던 당시를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나는 어제 저녁 롬니 부대관장님께서 신권 역원회에서 하셨던 구약 시대의 벨사살왕—바빌론이 고레스왕에게 정복당하기 전, 바빌론을 통치하던 마지막 왕인 느부갓네살왕의 아들이요 계승자—의 이야기를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나는 느부갓네살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소에서 값지고 소중한 물건을 취했던 느부갓네살의 신성을 모독한 행위를 생각했읍니다. 벨사살왕은 1,000명의 신하들을 위해 큰 연회를 베풀었읍니다. 그는 수천 명과 함께 술을 마셨읍니다. 연회상에서 천 명을 먹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읍니다. 벨사살왕은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헌납된 성전에서 그의 아버지가 취해 온 금제와 은제 그릇에 만족하지 못해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고는 그의 궁으로 갖고 가서 천 명의 신하뿐 아니라 왕자와 아내들과 첩들에게까지 권했읍니다. 그의 손님들은 먹고 마셨으며,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을 찬양하였읍니다. (단 5 : 1—4 참조)

나는 오늘날 이 세대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그 음란했던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읍니다. 요즈음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면서 나는 두 세대간의 놀랍고도 무서운 유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큰 연회가 벌어지고 많은 지역 사회의 지도자와 저명 인사들이 초대되는 기사를 읽읍니다. 그들의 음주, 사치, 부도덕, 수치 등에 대한 기사를 읽읍니다. 그럴 때 나는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구나"라고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날의 도덕적인 상태에 관하여 토론하는 데 지쳤읍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이 세대 사람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 계명을 지키라. 또한 내 계명에 좇아 나의 일이 성취되도록 조력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교성 6 : 9)

그런 후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고로 너희는 이 백성에서 회개를 외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교성 18 : 13—14) 초기 성도들이 미주우리주로 이동할 때 주님은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도 전도하며 가는 곳마다 진리를 간증하라. 부한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방문하여 회개하게 하라.

"세상의 주민들이 회개할 마음이 있거든 저들로 교회를 세우게 하라."(교리와 성약 58 : 47—48)

그러므로 내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이 회개의 날, 곧 백성들이 현재의 상태를 자각하고 그들의 생활을 바꾸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래 전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은 오늘날의 지도자에게도 주어졌읍니다. "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 백성 가운데 나가서 베드로라 하는 나의 옛 사도처럼 저들에게 고하여"(교성 49 : 11) 사도 베드로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순결한 생활을 하고 범법 행위를 회개하라고 외쳤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 2 : 11—12)

나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생활을 하면서 결혼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많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결혼하지 않은 채 성생활을 하면서 동거하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변경시키셨을까요? 아니면 보잘 것 없고 무책임하고 외람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려 하는 것일까요? 죄란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악마란 오랜 옛날에만 인간의 마음을 점령했겠읍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기타 다른 성들은 사악한 사람들과 "내가 알아야 할 주가 누구뇨"(모세서 5 : 16)라고 말하는 가인과 같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악한 도시라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아브라함은 이 도시가 곧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러나 그는 이웃을 사랑하였으므로, 주님께 다음과 같이 간청했읍니다. "그 성 중에 의인 오십이 있을찌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창세기 18 : 24) 아브라함이 간청하도록 주께서 승낙하시자 아브라함은 다시 의인 40명, 또는 30명, 20명, 마침내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성을 멸하시지 않겠느냐고 간청했읍니다. 그러나 사악한 그 성에는 의인 열 명도 찾을 수 없었읍니다. (창 18 : 24—32 참조)

죄악은 계속되었읍니다. 성이 죄로 완전히 물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웃고 비웃었읍니다. 범법으로 유명한 소돔은 계속해서 죄악으로 가득 찼읍니다. 오히려 소돔 백성들은 성에 온 천사들을 해하려 하기까지 하였읍니다. 사악한 무리들은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운집하여 문을 부수기까지 하였읍니다. (창 19 : 4—11 참조)

아브라함은 이 성을 구하려고 온갖 애를 썼으나 너무도 음란하고 패역하였기 때문에 구원하기란 불가능했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창세기 19 : 24—25)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읍니다. 호색 문학, 음란 행위, 동성애, 방탕 등

이 이 세상에 만연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사탄의 날이 다시 돌아왔으며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이 타락하여 비천하고, 역겹고,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사탄이 그의 손을 이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뻗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악이 우리의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의인이 우리 세대에 없는것은 아닙니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악과 타협하며 죄를 묵인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나는 6대 가량 거슬러 올라가서 초기의 교회 대관장단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여러분에게도 읽어 주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그의 예언자에게 주셨던 계명이나 구세주 당시의 예언자에게 주셨던 계명이나, 오늘날의 예언자에게 주신 계명이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하는 상황에 따라 적당히 생활하고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는 옛 세대와는 다른 세대이며 이 세대의 사람들은 보다 많이 교화되었기 때문에 옛 세대를 위한 가르침은 옛 시대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를 존중하며, 가족을 존중하고, 의롭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변경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자 회견을 하면서 나는 이러한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읍니까?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읍니까? 이 세상에서 의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변화를 감행할 수 있읍니까? 만일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면 바빌론에 닥쳤던 것과 같이, 혹은 소돔과 고모라에 닥쳤던 것과 약간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재앙이 이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겠고, 우리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가르쳐야 하며, 우리의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하고, 결혼 생활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상태로 유지되도록 결혼한 부부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를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얻은 간증과 마음의 뜨거움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와드와 스테이크와 지부에 전하겠다는 새로운 영적인 자세를 갖추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마치면서 나의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우리가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길에서 탈선할 때, 그분은 심히 슬퍼하시며,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순종, 헌납, 희생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가 이러한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 나간다면, 영생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이에서 더 무엇을 원하겠읍니까?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복음 교리에 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그의 성도로서,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라는 말과 그 조건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그의 대속의 희생에 따르는 축복을 완전히 거두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왕국에 관한 일을 우선으로 다하겠는 것을 침례를 받을 때 성약했읍니다. 이에 대하여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에서의 영생을 약속해 주셨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더 높은 율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위치에 있어, 우리가 진심으로 추구하고 있는 영생을 위해 준비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나는 이제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옛날의 충실한 성도들과 자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할 희생과 헌납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읍니다. "해의 왕국의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교성 88 : 22) 희생의 율법은 해의 왕국의 율법이며, 헌납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해의 왕국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 두 가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희생과 헌납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게 얽혀 있읍니다. 헌납의 법은 교회의 대업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돈과 재물을 바쳐 주님의 사업을 이 지상에 널리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법은 진리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즉 우리의 특성이나 명예, 명성 혹은 뭇 사람에게서 받는 총애, 집이나 땅이나 가족 혹은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모든 것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결코 영생과 구원을 가져 오는 데 필요한 신앙을 낳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종교입니다."(신앙 강화, 58페이지)

우리는 언제나 모두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다 바쳐 지상에서의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라는 명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키라는 명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계시를 받아 종교를 일으켜 세울 때 경우에 따라 순교하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구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는 해의 왕국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명을 받은 율법에 따라 온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함을 명령받은 것은 그대로 생활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정직한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헌납의 법을 완전하게 생활화할 수 있겠읍니까? 또한 우리가 지금 행하라는 명을 받고 있는 바와 같이, 시간과 노력과 돈과 재물을 조금이라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필요한 경우에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읍니까?

어려서 내가 감독의 지시를 받아가며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느 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건축 기금으로 일천 불을 바치도록 권하라는 명을 받았읍니다. 그는 거절했읍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와 주고는 싶으니, 와드에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 팔면, 한 그릇에 5불씩 해서 두 장을 사겠다고 말했읍니다. 약 십 일 후에 이 사람은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었읍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나는 가끔 생각해 보았읍니다.

이같은 말씀이 있지 않읍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읍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는 이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읍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 12 : 15—21)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단을 쌓고 어떤 사람이 소유한 재물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자, 그 사람은 아무 대가 없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땅과 소와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삼하 24 : 24)

우리가 치르는 희생이 적은 것일 때 하늘에 쌓아 두는 보물 역시 적은 것이 됩니다. 가난한 과부가 바치는 한 닢의 희생의 대가는 부자의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것보다 영원한 면에서 볼 때 더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은 예수께 어느 부유한 젊은 사람이 와서 물었읍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주님은 각 시대의 예언자들과 똑같이 대답하셨읍니다. 그것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이었읍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물어 왔읍니다.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이 젊은 사람은 선하고, 신앙이 깊으며,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다시 이같이 물어 왔읍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우리는 이렇게 묻기 쉬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읍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읍니까? 순종의 법보다 더 큰 것이 있겠읍니까?"

이 부유한 젊은 친구의 경우에는 보다 큰 문제가 있었읍니다.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는 헌납의 법을 지키며, 지상의 재물을 희생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찐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떠나갔읍니다.(마 19 : 16—22) 이 청년이 해의 왕국의 율법에 따라 생활했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얼마나 친히 지냈을 것이며, 사도들과 얼마나 큰 우의를 나누었을 것이며, 어떠한 계시와 시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는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가 그와 같이 했던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성도들간에 영화롭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응답받게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며 하늘의 계시를 받고 있읍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것을 우리 생활에서 가장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며,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납의 법에 완전히 일치하는 생활을 하라는 명을 받고 있읍니다.

우리는 여러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며, 그와 같이 할 것을 엄숙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게 성약했읍니다.

우리는 순종의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읍니다.

우리는 희생의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읍니다.

우리는 헌납의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읍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만일 너희가 해의 영광의 세계에 있을 곳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요구한 바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준비해야 하느니라."(교성 78 : 7)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수단을 헌납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추진시켜 나가기 위해 어느 정도 희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순종은 구원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봉사도 그러하며 헌납과 희생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경고해 주며 선교사로 나아가며, 각처에 있는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감독으로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 가정 복음 교사로서, 그 외에 여러 교회 조직에서 책임을 맡아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읍니다.

우리는 복지 사업을 위해 일을 하고,

계보를 탐구해 보거나, 신전에서 여러 가지 의식을 수행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정직한 십일조를 내고, 금식 헌금, 복지 예산, 건축 및 선교사 기금을 낼 수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조금 떼어 줄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물려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를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계시된 진리를 조직적으로 연구해 보고, 복음의 학자가 되고, 간직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낼 수 있읍니다.

교회의 신앙깊은 회원들이 이러한 모든 일을 한다는 사실은 이 사업의 신성함을 크게 증거해 주는 것이 됩니다. 이외에 어느 교회의 회원들이 전반적으로 완전한 십일조를 내고 있읍니까? 1이나 2, 또는 3퍼센트의 회원이 자발적으로 경비를 부담해 가며 모든 시간을 선교 사업에 보내는 교회가 또 어디 있읍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신전을 짓고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교회가 있읍니까?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가르치며 교회 일을 하는 교회 회원들이 또 어디에 있읍니까?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돈을 받고 복음을 가르치거나 일하지 않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바울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고 있읍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것을 무상으로 내어 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나 와서 생명수를 마시며, 돈 한푼 없이 아무것도 내지 않고 먹을 것을 살 수 있읍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음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 주님의 영원한 율법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일꾼들이 시온의 복리를 위하여 일하리니, 저들이 금전을 위해 일을 하면 멸망당하겠음이라."(니이 : 26 : 31)

우리는 일꾼이 그 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과 왕국의 건설에 모든 시간을 다 바치는 사람에게는 의, 식, 주와 생활 필수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라든가, 신전을 설계하는 건축사, 예배당을 짓는 청부업자,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경영자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역시 교회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업을 더욱 밀고 나가기 위해 자의로 자원해서 하는 그 밖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건축가도 제도실을 벗어나 선교 사업을 해야 합니다. 청부업자는 가정 복음 교사나 감독으로 일하기 위해 연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법률가는 율법 전서나 법전을 잠시 제쳐놓고 신전 광장에 나아가 일을 지도해야 합니다. 교사는 교실을 나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고아나 과부를 방문해야 합니다. 음악을 생업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음악가는 연주실에서 나와 기꺼이 교회 합창을 지도하고 교회 모임을 인도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아무 대가없이 봉사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야 합니다.

왕국의 사업은 앞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하므로, 교회 회원들은 그 짐을 나누어 지라는 부름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며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신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들 사이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며, 당연히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어야 한다고 명하셨읍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증언하는 외침이 그의 왕좌에까지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수단을 바치라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리로 확인하며 간증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주님은 봉사하며 희생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업입니다. 그는 그의 왕국의 일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데 중추가 되십니다.

그의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이러한 약속을 받고 있읍니다. 누구든 참되고 성실하게 생활하며, 복음이 지시하고 있는 대로 순종하고, 봉사하며, 헌납하고 희생한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수천 배로 보상받을 것이며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서 무엇 더 바랄 수 있겠읍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고향으로 가는 길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읍니다. 방황하지 말고 진리로, 고향으로 오십시오!

유명한 갈릴리 해의 맑고 푸른 바닷물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곳은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산상수훈을 전한 산입니다. 실제의 체험으로 간증을 갖게 된 살아 있는 파수병과 같은 이 말없는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산 가장 위대한 인간이 가장 위대한 설교인 산상수훈을 전해 주셨읍니다."

방문자는 즉시 마태복음서를 펴고 읽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마 5 : 1—2) 그가 가르치신 진리 가운데에는 이와 같이 엄숙한 말씀도 들어 있었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 : 13—14)

이 말씀은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며, 온 세계 역사를 통하여 현자들은 이 간단한 말씀을 실천해 왔읍니다.

성지의 바위로 뒤덮인 길을 홀로 걸으시며, 나사렛 예수, 선한 목자이신 그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좁은 길로 들어서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 주셨읍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하시며 그는 청하셨읍니다.

오순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신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었으며, 그의 사업이 행하여졌고, 그의 사도들이 교회의 일을 맡아 이끌어 나갔읍니다.

역사는 대부분의 인간이 진심으로 그에게 오지 않았으며 그가 가르친 대로 따라 하지도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사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진리는 배척당했읍니다. 계몽의 밝은 햇빛은 사라지고, 어두운 밤의 긴 그림자가 온 지상을 뒤덮었읍니다.

음울한 상태를 묘사하는 한 마디 말, 배도라는 단 한 마디가 온 세상을 가득 채웠읍니다. 여러 세대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읍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사 60 : 2) 아모스는 이 땅에 기근이 든다고 예언을 했읍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 8 : 11) 베드로는 거짓 교사가 저주스런 이단을 전함을 경고하고, 바울은 옳은 교리가 견디어 내지 못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읍니까?

역사의 암흑 시대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보였읍니다. 이 불경스런 밤은 끝나지 않을 것인가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정녕 인간을 잊으신 것일까요? 예전과 같이 하늘의 사자를 다시 보내시지 않을 것인가요?

역경 속에 처해서도 간절한 소망을 잃지 않은 정직한 사람들은 그들이 참된 길을 찾아 낼 수 있도록 표준을 세워 놓으려 애썼읍니다. 종교 개혁의 시대가 막을 열기 시작했으나, 그 앞에 놓인 길은 험했읍니다. 심한 박해가 따랐고, 개인적인 희생이 컸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했읍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잃어 버린 표준을 찾기만 한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로 인류를 다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전력을 다해 그것을 찾는, 마치 광활한 광야에 홀로 선 개척자들과도 같았읍니다.

존 위클리프와 그 외 몇 사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처음으로 완전히 영역해 놓자,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읍니다. 영역판 성경은 숨어서 손으로 베껴졌읍니다. 성경은 폐쇄된 책으로 취급되어 일반 사람이 읽는 것이 금지되어 왔읍니다. 위클리프의 많은 추종자들은 혹독한 형벌을 받았으며 더러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읍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의 우위성을 단호히 주장했읍니다. 그는 경전을 연구하여 경전의 가르침과 당시 교회의 교리나 습관을 비교하게 되었읍니다. 루터는 개인의 책임과 개인적인 양심의 권리를 옹호했으며, 생명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그랬읍니다. 심한 협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는 "나는 여기서 이와 다른 행동은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 주신다."라고 대답하게 외쳤읍니다.

교회내의 부패에 대항하여 분연히 일어선 존 허스는 화형장으로 끌려갔읍니다. 말뚝에 목이 묶인 그의 주위에는, 밀짚과 나무가 쌓여 턱에까지 닿았읍니다. 송진이 뿌려지고 마지막으로 취소하라는 명을 받았읍니다. 불길이 일어나자, 그는 노래를 불렀으나, 그의 얼굴은 불길에 싸이고, 곧 목소리도 잠잠해졌읍니다.

스위스의 쯔윙글리는 그의 저서와 가르침을 통해서 경전의 용어에 맞게 모든 기독교 교리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애썼읍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말은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려 주고 있읍니다. "저들이 육신은 죽일 수 있다 해도 정신은 죽일 수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오늘날에는 존 녹스의 말도 누구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언제나 다수와 함께 한다."

질병과 끊임없는 노동으로 조숙한 존 칼빈은 자신의 인생관을 이러한 말로 집약시켰읍니다. "우리의 지혜는 거의 전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으나, 윌리암 틴데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틴데일은 이 세상 사람들도 경전에서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번역 사업을 반대한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외쳤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신다면, … 나는 쟁기질을 하는 소년이 당신네들보다 더 경전을 많이 알게 해줄 것이오."

위대한 종교 개혁가들의 가르침과 생애는 바로 이러했읍니다. 그들은 영웅적으로 행동하고, 많은 공헌을 했으며, 위대한 희생을 치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시키지는 못했읍니다.

종교 개혁가에 대하여 어느 누가 "그들의 희생은 헛되고, 그들의 투쟁은 아무 소용이 없었는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단호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겠읍니다. 성경은 이제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되었읍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더 나은 길을 발견할 수가 있었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읽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고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읽고, 더러는 들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게 되었읍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회복의 날이 참으로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상 이 중요한 사건을 다시 돌이켜 보기 위해서는, 쟁기질하는 소년으로서, 그에 대한 목격자이며 예언자가 된 바로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요셉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 "우리가… 이곳에서 종교 문제에 관하여 굉장한 동요가 일어났는데…많은 사람들이 서로 당을 지어…혹자는 '여기를 보라'고 외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저기를 보라'고 외치며…

"내가…하루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게 되었읍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때의 이 글처럼 나의 마음속에 힘있게 임한 일은 없었읍니다. 참으로 강한 힘이 나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았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내 지혜보다 더 깊은 지혜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여러 교파의 교사들이 같

은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로 각각 다르게 해석하여 그 결과 성경에 의해서 의문을 해결하려는 신념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나는 암흑과 혼돈 속에 머무르던가 야고보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던가의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결정에 따라 이를 실행해 보려고 나는 숲 속으로 들어갔읍니다. 그것은 1820년 어느 이른 봄 아름답고 밝게 개인 날 아침이었읍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속의 소망을 기도하기 시작하였읍니다…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췄읍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읍니다."(요셉 스미스 2서 : 5—17)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던 것이었읍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아침이 이르러, 오랜 세월 계속되던 영적인 밤의 암흑이 걷히게 되었읍니다. 창세기에서와 같이 어두움 대신에 빛이 있었고, 밤이 지나고 낮이 되었읍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리는 존재해 왔으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읍니다. 옛날의 이스라엘 자녀들과 같이 끊임없는 방황의 날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약속된 땅으로 들어옴으로써 끝이 날 수 있읍니다.

복음의 회복은 현대의 유명한 교육자인 로버트 골든 스프라울이 묘사한 암흑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외쳤읍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면에서 상당히 불완전한 점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기독교 신조를 믿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계몽시켜 줄 것을 교회에 바라고 있으나,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음성이 영감에 차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음성은 우리 자신의 음성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 일의 결과는 언제나 환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혼돈 속에서 빠져 나오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음성도 아니며,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상의 성직자들의 과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들을 수 없거나, 우리에게 말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 평신도들은 그야말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처음으로 창조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 세상을 구원하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윈스턴 처칠은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점을 가장 잘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오래 살아 큰 경험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일보다 더 큰 인내와 평정과 용기와 참을성을 필요로 하는 일은 감히 생각할 수 없읍니다. 참으로 예언자는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 즉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의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지금도 이 교회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읍니다. 여행에 지친 분들이여, 방황하지 말고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십시오. 고향인 천국의 안식처로 오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신화의 실재를 알게 될 것이며, 구원의 계획으로 위안을 받고, 결혼 성약으로 거룩하게 되며, 개인적인 기도로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향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유괴를 당해 부모와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을로 끌려간 어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는 그 속에서 자기의 친부모나 고향도 모르고 자라 청년이 되었읍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향으로 불리우는 마을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이 간절했읍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 고향을 찾아야 할까요? 어디로 가면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겠읍니까? 이름만이라도 기억해 낼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는 필사적으로 어린 시절의 일을 조금이나마 되새겨 보고자 했읍니다.

번쩍이는 섬광과 같이, 그는 마을에 있는 교회의 높은 탑에서 일요일 아침마다 울려오는 종소리를 기억해 냈읍니다. 청년은 그 낯익은 종소리를 들어보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아다녔읍니다. 어떤 종소리는 아주 비슷한 것도 있었으나, 그의 기억 속에 있는 종소리와는 아주 다른 것도 있었읍니다.

마침내 피곤에 지친 그 청년은 어느 일요일 날 아침에 어느 마을의 교회 앞에 서게 되었읍니다. 그 종소리는 낯익은 것이었읍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그가 들었던 다른 종소리와는 달리,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남은 그 종소리였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종소리였읍니다. 그 울림은 사실이었읍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읍니다. 그의 가슴에는 기쁨이 가득 찼읍니다. 그의 영은 감사로 넘쳐 흘렀읍니다. 청년은 무릎을 꿇고, 종탑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을 찾았읍니다."

진리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종소리와도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울려 주는 것을 찾으며 오랫 동안 방황해 왔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열심히 호소하고 있읍니다. 선교사들에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 놓으십시오. 진리를 증거하는 작고 조용한 음성에 여러분의 참 영혼과 마음을 열어 놓으십시오. 예언자 이사야는 이같이 약속했읍니다.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사 30 : 21) 그리하면, 방금 말씀드린 소년과 같이, 여러분 역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저는 고향을 찾았읍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수련 장로에게 드리는 말씀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여러분이 되돌아온다면, 곧 여러분은 전에 떠난 일이 없었던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모임이 킴볼 대관장님께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갖기 전에 나는 대관장님께 길이가 다른 세 가지 말씀을 준비하였다고 말씀드렸읍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나는 대관장님으로부터 준비한 세 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긴 말씀을 해달라고 쓴 종이 쪽지를 받았읍니다.

우리가 어느 스테이크를 재조직하려고 콜로라도에 갔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모임이 거의 다 끝나가 시간이 십 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말씀을 한 사람이 없었읍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나를 소개했읍니다. 킴볼 대관장님께서는 몸을 수그리며, "남은 시간을 다 맡아 해주시오."라고 하셨읍니다.

나는 일 분 동안 간증을 드리고는, 내 자리로 되돌아왔읍니다. 스테이크 부장이 킴볼 대관장님을 다시 소개할 때, 나는 그가 쪽지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는 일어나서, 내게 그것을 전해 주었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읍니다. "순종이 제사(희생)보다 낫다." 그래서 나는 그에 순종하는 뜻에서 다시 앞으로 나섰읍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훌륭한 대회의 끝을 맺게 됨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설교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내적인 덕으로 가득 차게 되었읍니다. 나는 참다운 영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생활하는 데 극히 중요한 영적인 진보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련 장로들로 지명된 사람도 있읍니다.

장로의 부름이란 위엄과 명예와 영적인 권유와 권능이 깃든 부름입니다.

"수련"이라는 말에는 희망과 기대와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읍니다. 오늘 나는 이 시간을 빌어 그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 이외에도 이 메시지가 적용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에 속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몰라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다가는 "내가 왜 길을 이탈했지?" 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좀더 일찍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게는 너무 늦었어."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무 많이 변했어."

무엇인가 결말을 내려야 할 계기에 이르면, 이와 같은 감정과 생각으로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라 엄두도 못 내겠는걸."

나는 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좀더 일찍 알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게 되었읍니다. 나는 그것을 지난 주일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 체험했는데, 오늘 이에 관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읍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는 공군에서 비행기 조종사로 있었읍니다. 태평양 제도에서 복무를 마친 후, 나는 점령군으로 일본에서 일 년을 보냈읍니다. 이때 나는 일본말을 몇 마디 배우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최소한 방향을 묻거나 먹을 것을 청할 수도 있어야 했읍니다.

나는 보통 인사말과 숫자와 감사 표시를 할 수 있었으며, 다른 여러 교회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일이 없을 때는 일본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데 시간을 보냈읍니다. 그들에게서 몇 마디의 말을 배우면서 나는 일본말이 아주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했읍니다.

1946년 7월에 오오사카에서 처음으로 침례 의식이 베풀어졌읍니다. 타츄이 사토 형제 부부가 침례를 받았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부를 하였지만 나는 사토 자매를 침례해 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읍니다.

우리는 대체로 일본에서 즐겁게 지냈지만, 그래도 늘 마음속에 남는 것은 고향에 관한 것이었읍니다. 나는 근 4년 동안 집을 떠나 있었읍니다. 전쟁도 끝났으므로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읍니다.

드디어 그날이 와서, 나는 다시는 일본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 이후로 나는 교육을 받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로 바쁘게 지냈읍니다. 내 주위에는 일본 사람들이 없었으며, 따라서 내가 배운 말을 사용할 기회도 없었읍니다. 그것은 26년이라는 먼 과거에 묻혀, 영원히 잊혀지고 가버린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읍니다.

내가 동경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에 나는 아보 선교부장과 함께 선교부장 집에 있었는데, 어느 일본인 선교사가 그에게 일본말로 말을 했읍니다. 아보 선교부장은 나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읍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들고 그 선교사와 함께 일본말로 무엇인가 이야기했읍니다. 그리고는 어떤 서류에서 한 문장을 가리키며, "고레와…"라고 말했읍니다.

그가 그 문장을 다 끝맺기 전에, 나는 내 마음속으로 그것을 완성했읍니다. '고레와 난 데스까?' 그가 그 장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알았읍니다. '고레와 난 데스까'란 말은 "이것은 무엇입니까?"라는 뜻입니다. 26년 후에 일본에 돌아와 겨우 하루 밤을 지낸 뒤에, '고레와 난 데스까'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라는 한 문장이 내 머리 속에 떠오른 것입니다.

나는 26년 동안 이 말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읍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잊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열흘 동안 일본에 머무르며, 후쿠오까 여행도 끝마쳤읍니다. 내가 떠나는 날 아침에, 우리는 와다나베 형제 자매와 함께 비행장으로 차를 몰고 갔읍니다. 나는 그 자녀들과 함께

뒷좌석에 앉아,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말을 연습하고 있었읍니다. 그들은 즐겁게 내게 새로운 말도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러다가 나는 26년 전에 배웠던 짧은 노래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읍니다.

모모다로상 모모다로상
오꼬시니 쯔께다 기비 당고
히도쯔 와다시니 구다사이나

내 노래가 곁에 계신 오틀리 형제(태버나클 합창단의 지휘자)에게 좀 폐가 되지 않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와다나베 자매가 "저도 그 노래를 압니다."하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그녀가 그 의미를 내게 말해 주자, 역시 그 뜻도 생각났읍니다.

그것은 자녀를 못 둔 어느 일본인 부부의 이야기로, 그들이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어느 날 커다란 복숭아 모양으로 된 돌 속에서, 어린 사내 아이를 발견하여, 그를 모모다로라고 불렀다는 내용이었읍니다. 이 노래는 그가 무서운 적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해 낸 영웅담을 노래한 것입니다.

나는 26년 동안 그 노래를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 준 일이 없었읍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읍니다. 다른 곳에 관심이 쏠려 26년간 그것은 은폐되어 온 것이었읍니다.

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체험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결국 선한 것은 조금도 잃게 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읍니다. 일단 내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내가 전에 찾고 있던 모든 것이 급속히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리고 좀더 쉽게 몇 가지 말을 더 익힐 수 있음을 알았읍니다.

물론, 나는 이를 체험하게 된 것이 훌륭한 정신력이나 뛰어난 기억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생의 원리를 시사한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것은 장차 장로가 되실 여러분과 그와 같은 경우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가 전파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잃어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홍수처럼 밀려옴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아 가려졌던 것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전에 변화한다는 말이 많이 씌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오려 한다면, 곧 영감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시일 내에, 여러분이 전혀 떠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와 떠난 적이 없었던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뉴 잉글랜드 선교부를 관장하고 있을 때, 지역 대회를 개최한 일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젊은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에 들어섰을 때, 키가 크고 나이 많은 한 사람이 뒷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저는 며칠 전에 침례를 받았읍니다."하고 그는 내게 말했읍니다. "나는 74세입니다. 이제 와서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발견했읍니다."

그는 애원조로 그 모임에 참석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읍니다. "전 다만 배우고 싶어 여기 있고자 할 뿐입니다. 뒷좌석에 앉아, 전혀 방해하지 않겠읍니다." 하고 그는 말했읍니다.

눈물에 젖어 그는 회한을 털어놓았읍니다. "제가 왜 이제까지 복음을 알지 못했을까요? 제 인생은 끝이 났읍니다. 자녀들도 다 성장하여 제 곁을 떠나 버렸으니 제가 복음을 배운 것이 너무 늦지 않읍니까?"

끝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큰 기적의 하나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기쁜 일이었읍니다. (이는 교회에서 다시 활동화된 사람들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고 인도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에 변화가 오게 되면, 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교회 회원들과 함께 해 온 사람과 같이 됩니다.

이것이 이 사업의 위대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주님은 의사 소통의 곤란을 겪지 않으시며, 일본어나 영어에만 국한해 말씀하시지도 않읍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예지를 마음속에 품을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도 즉시로 알게 될 수도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특히 우리가 겸손히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영감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읍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 있는 교회를 둘러보고 스테이크 부장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보면, 그들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교회의 원리와 절차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흔히, 그들이 오랫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세월 동안을 교회에서 떨어져 있었거나, 혹은 아주 최근에 교회에 개종했다는 것을 알고 더욱 놀라는 수가 있읍니다.

우리가 낭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과거의 그러한 세월은 여러 가지 교훈을 깨닫게 할 때가 많으며, 그 중에는 얻기 힘든 교훈도 있어, 영감의 빛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의 비유를 읽어 보셨겠지만, 여기서 다시 인용해 드리겠읍니다.

"천국은 마치 품군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군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 육시와 제 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십 일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군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군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제 십 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마태복음 20 : 1 ~9)

일찍 시작한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다 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는 것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의 왕국에는 들어설 자리가 충분히 있읍니다.

누구나 들어설 수 있읍니다.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경쟁을 하게 됨을 봅니다. 팀끼리 서로 대항하며, 승자로 뽑히기 위해서 적대 관계를 맺게도 됩니다. 우리는 승자가 있는 곳에는 패자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읍니다. 우리가 승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옳은 이야기이나, 주님의 사업에서 경쟁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이전의 자기 자신과의 경쟁일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읍니다. 나는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읍니다. 나는 실제로 변화하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읍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며, 그것도 빨리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 비유를 다 읽지 않았읍니다. 거기에 덧붙여야 할 것이 남아 있읍니다. 그 뒷부분은 교회에서 활동적인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구절을 되풀이 해서 계속 읽어 보겠읍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군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제 십 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태복음 20 : 8~16)

나는 수련 장로이신 여러 형제님들께서 우리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2년 후, 또는 26년 후, 또는 인생을 살아간 후라도 여러분이 교회 곧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영감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이 전혀 떠난 일이 없었듯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무엇인가가 있었음을 기억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살았음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지상 생활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경험하였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와 함께 살았읍니다. 우리는 육신을 받고 시험받기 위해서 그의 앞을 떠나왔읍니다.

우리들 중에는 그의 영향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그를 아주 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또한, 때로는 그가 우리를 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마디의 일본말을 26년 후에 다시 생각해 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배운 의로움의 원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배운 것은 때로 영감의 속삭임으로 되돌아올 것이며, 그때 여러분은 자신이 아주 익숙한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데서 오는 새로운 것에 대한 어색함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에서 온전하고 충만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며, 여러분의 산 경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수련 장로와 또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여러 형제님께 간증드리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신권 가정 복음 교사와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과 정원회 지도자 등,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한가지로 주님의 영감을 받아 소리를 높이어, 다윗이 그의 방탕한 아들 압살롬에게 "내 아들아, 돌아오라"고 한 것과 같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영감에 가득한 분위기가 결여되어 있는 가정과 가족의 가장이 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되돌아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여러분께 영감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내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다는 간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찬 사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어느 용기있고 사랑스런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헌신한 본보기

매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나는 오늘 봉사 생활을 하는 데서 기쁨을 찾은 어느 고귀한 영혼에 찬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30년 전의 일이었읍니다. 나는 스테이크 상향회 서기로 새로 임명받았읍니다. 그녀는 어느 와드의 한 역원이었읍니다. 나는 스테이크 역원 모임에서 출석을 부르는 일을 맡았읍니다. 바로 그 즈음에 출석을 불렀을 때의 일인데, 내가 여러 와드에서 온 역원을 확인하던 그 특별한 저녁 일만은 잊을 수가 없었읍니다. 나는 청남 역원의 출석을 아무런 무리없이 정확하게 부르고 나서, 청녀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읍니다. 갑자기

내 눈길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젊은 여인에게 끌렸읍니다. 나는 도무지 출석을 부를 수가 없었읍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 역사가에게 교회 기록 보관소에 있는 기록 중에서 그 특별한 날의 기록만은 정확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 후 여덟 달 뒤에 나는 주님의 집의 제단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무릎 꿇으며, "현세와 영원토록"이라는 이 지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말씀을 들었읍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를 받고 있었음을 알았읍니다. 나는 주님을 대신하여 일할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나와 내 아름다운 동반자가 합당한 생활을 해 나간다면, 현세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결혼 인봉을 받은 것이었읍니다. 나는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웃에 대한 정이 가득한 여인과 결혼했음을 알았읍니다. 그녀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풍기는 이 고귀한 품격은 비단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읍니다.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보면 그에게 위안이 될 만한 것을 베풀어 주어야 마음을 놓는 사람이었읍니다.

나는 바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다음날 아침까지 끝마쳐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도, 그날 밤 자선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종종 있었읍니다. 나는 봉사해 주어야 할 곳으로 함께 가면서도, "내가 왜 오늘 밤 이 일을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아침이 되기 전까지 내 일을 마칠 수 있을까?"하고 속으로 중얼거리곤 했읍니다. 그러다가도 나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그녀를 볼 때면 빛이 나고 있음을 보곤 하였읍니다. 나는 어린 아이들이 아내와 즐겁게 춤을 추는 것이라든가 부모들이 아내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었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나는 다른 면에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곤 했읍니다. 그와 같이 특별한 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가족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도하신 바를 이행해 내기를 열망했으며,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해낼 것임을 굳게 믿어 주었읍니다. 내 책임은 가정의 부양자요 수호자요 설계자가 되는 것이었읍니다. 아내의 책임은 집안을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있읍니다. 내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 아내는 이미 자신의 전공 분야에 숙련되어 있었읍니다. 나는 아직도 더 훈련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었읍니다. 결혼 초에는 아내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생활비를 들여오곤 했읍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집에 돌아와 내가 대학 졸업 자격을 획득했노라고 알리자, 아내는 상의를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곧장 시장에 가서 사표를 제출했읍니다. 가사를 돌보는 것이 아내에게 있어 어떠한 직업보다도 가장 큰 것이었읍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가장 고귀한 부름이었읍니다. 자녀에게 향한 아내의 사랑과 염려는 우리 가정에서 각별했읍니다.

한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자선 행위를 할 때는 예기치 못한 경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여러 해 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우리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구가 달려 있는 집에 세를 들었읍니다. 우리는 집 살 때를 바라고 우리가 쓰던 가구는 창고에 모아 두었읍니다. 어느 날 성찬식 모임에서 아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무서운 홍수로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을 돕자고 하는 감독의 호소를 들었읍니다. 며칠 뒤 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짐차가 문 앞에 서 있었읍니다. 그런데 짐꾼들이 우리 가구를 짐차에 싣고 있었읍니다. 나는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집안으로 달려들어갔읍니다. 그때 나는 아내로부터 이같은 말을 들었읍니다. "아,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지난 주일 성찬식이 끝난 뒤에, 감독님에게 우리 가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내가 교회에서 낯선 사람을 본 일요일날 저녁에는 내가 교회 일을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와 영락없이 그들을 비어 있는 침실에서 만날 수 있었읍니다. 하숙을 구하는 학생, 새로운 도시로 전직한 가장, 가족이 살 집을 구하는 이, 해외에서의 일을 마치고 귀국한 가족 등이 확고하게 거처할 곳을 찾을 때까지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읍니다.

이러한 친절한 행위가 수없이 많았지만, 아내의 가장 훌륭한 순간은 아직도 더 남아 있읍니다. 오 년 전에, 아내가 더 살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읍니다. 아내의 생명은 6 개월에서 길어야 일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읍니다. 아내는 내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앙과 용기로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였읍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자, 아내는 나를 보며 아내가 짜낼 수 있는 온갖 힘을 다하여 신앙과 평화에 가득한 표정으로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 때문에 우리 생활 태도가 달라지거나, 누구든 우리에게 달리 대해 주는 것을 원치 않아요."라고 말했읍니다. 그녀는 견딜 수 없으리만치 심한 신체적인 고통을 받았읍니다. 아내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신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더욱 민감하게 알아 낼 수 있었읍니다. 이웃에 대한 아내의 정은 더욱 깊어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욱 잘 알게 되었읍니다.

아주 짧은 시일내에 세번씩이나 큰 수술을 받았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비밀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했읍니다. 병원에서의 아내의 세심한 계획으로,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가고, 월요일 아침에는 수술을 받도록 했읍니다. 화요일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읍니다. 수요일에는 주변을 조금씩 움직여 보며, 힘을 다시 얻으려고 노력했읍니다. 목요일이 되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원을 도와 주곤 하였읍니다. 금요일에는 집으로 갈 준비가 되었다고 의사를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쯤 되면, 의사는 지쳐 기권을 하고는 아내를 내어 주었읍니다. 일요일에는 밝은 얼굴 표정으로 교회에 돌아와 일하곤 하였읍니다. 아내가 그처럼 큰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눈치채는 사람은 없었읍니다. 모임이 끝나는 즉시 나는 아내에게 달려가, 집에 데리고 가 쉬게 해주고자 했읍니다. 내가 아내에게 가까이 가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읍니다. "자, 그 일은 걱정 마세요. 내가 저녁 식사를 마련해 놓을 테니 우리 집에 오시고, 목요일 저녁에 댁을 찾아 뵙겠어요."

아내는 자신의 병을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맡겼으며, 주님은 그녀를 축복하시어 그녀에게 견디어 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원하는 대로 생활해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읍니다. 힘든 하

룻밤을 지내고 나면, 나는 아내에게 침대에서 그대로 쉬라고 간청하곤 했읍니다. 그러나 아내의 답은 언제나 같았읍니다. "아니예요. 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아내에게 의학적으로도 약속할 수 없었던 4년을 더 축복해 주셨읍니다. 이 4년의 세월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것이었읍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우리는 현재의 위치에 올라서는 영예를 받을 수 있었으며 아내가 내 곁에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었읍니다.

주님은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때를 택해서 아내를 불러가셨읍니다. 주님은 내가 연례 여행 계획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셨읍니다. 그리고 여러 달 만에 내가 집에 돌아온 첫번째 토요일에, 주님은 아내를 이 세상에서 불러가셨읍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은 참으로 아내다운 것이었읍니다.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읍니다. 나는 아내가 접시를 떨어뜨리고 약간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나는 아내가 어딜 다친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서재에서 달려나갔읍니다. 나는 아내가 뇌일혈로 오른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았읍니다. 나는 급히 아내를 들어올려, 최근에 아내가 때때로 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부엌 가까이 놓아 둔 작은 안락 의자에 앉혔읍니다.

한쪽으로 마비 증세가 퍼져 나가기 시작하자, 아내의 눈에는 공포의 빛이 떠돌았읍니다. 나는 아내에게 의사를 부르러 가야겠다고 말했읍니다. 아내는, "먼저 축복해 주세요."하고 말했읍니다. 내가 그날 아침 아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을 때, 주님의 크신 자비로 나는 아내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축복을 마치고 내가 의사를 부르려고 방을 나설 때, 아내는 오른팔과 다리를 움직여 보려고 애썼읍니다. 아내가 한 말로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나는 반신불수로는 살지 않겠어요."라는 것이었읍니다.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의 마지막 두 시간이야말로 아내의 인생에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짐이 된 유일한 두 시간이었음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아내는 장막을 지나가 불안과 고통에서 구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내는 다시 건강하게 되어, 아내가 천국에 있으므로 천국이 더욱 즐거운 곳이 되어 있음을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받은 수많은 위로의 말씀에, 우리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다 정리해 놓을 시간이 있다면, 아내가 이 지상에서 생활한 특성을 두 개의 묶음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첫번째 묶음은—우리가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 들은 것으로, 이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자매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몰몬경과 영감을 가져다 주셨읍니다. 자매님을 알게 되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침례받던 날 우리 가족에게 자매님이 베풀어 주신 환대를 언제든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그날 댁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신 것은 정말 흐뭇한 일이었읍니다."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됨을 깊이 감사했읍니다. 교회는 아내의 생활의 초석이 되었읍니다. 교회는 아내를 뒷받침해 주는 힘이 되었으며, 영생에 대한 희망이 되었읍니다. 아내는 우리 주 구세주의 사명에 관한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읍니다. 아내의 비축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는 밀가루나 통조림과 같은 것도 당연히 포함되나, 열 두 권의 몰몬경도 들어가 있었읍니다. 아내는 다른 품목을 헤아려 넣듯이 그 책도 면밀하게 헤아려 넣었으며 그 책도 순서에 따라 새 것으로 대치해 넣고는 했읍니다. 아내는 비축 물품에 관해서 이같이 말하곤 했읍니다. "음식물은 먹으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몰몬경을 선사하면, 그 선물이 주는 유익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로 묶어 놓을 수 있는 표지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읽을 수 있겠읍니다: "형제님의 부인은 내가 속한 스테이크의 영적인 생활 교사였읍니다. 일년 동안 나는 매달 사십 오 분씩 자매님과 만날 수 있었는데, 자매님은 내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쳐 주셨읍니다. 자매님은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자매님은 내게 영적인 생활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읍니다. 자매님은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부지런히 그것을 보충해 주시려 애쓰셨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함께 모여 사랑으로 생활하라. 그리하여 저들이 죽어 저들을 잃게 되었을 때 눈물 흘리며 특히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를 위하여 슬퍼하라.

"내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음이 저들에게는 단 연고라."(교성 42 : 45—46)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이 성구를 이제 나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아내가 없어 외로운 마음이 크긴 하지만, 아내가 살아온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아내의 죽음은 단 것이 되었읍니다.

이 시간에 아내에게 찬사를 드리면서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녀와 같은 생활 태도를 권해 드립니다. 나는 봉사가 고통을 없애 주는 것을 보았읍니다. 나는 신앙이 절망을 멸하는 것을 목격했읍니다. 나는 용기로 해서 아내가 천부의 능력 이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아 왔읍니다. 나는 사랑으로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녀에 대한 기억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더 큰 만족과 충만함이 깃들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일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주님께서는 그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때에,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가르

치신 첫번째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뜻깊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이것을 요셉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기 위해서, 한번은 하나님께서 번역하는 권능을 그에게서 거두어 가셨읍니다. 또한 몰몬경의 원고 116페이지를 잃은 것에 대하여 꾸짖으셨읍니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가족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지 않을 때 그를 꾸짖으셨읍니다.

주님은 그런 다음에 어린 종에게 엄히 명하셨읍니다.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교성 6 : 12)

고대의 기록을 번역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 주님은 다시 이렇게 명하셨읍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며"(교성 8 : 10)

주님께서 선교 사업에 관한 것을 지시하셨을 때도, 다시금 형제들에게 그의 말씀을 뜻깊게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며 소홀히 다루지 말라."(교성 32 : 5)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주께서 스스로 우롱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성 63 : 58 참조)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의 말씀을 여전히 소홀히 여기고, 무심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며, 태연스레 그의 말씀을 제쳐놓기도 하고 마음대로 생활해 가고 있읍니다. 우리의 모순된 행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안식일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날은 성스런 날이니, 우리는 이를 소홀히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경전에서든 안식일에 대한 율법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읍니다. 창세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안식일에 대한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되풀이해서 말씀하신 주제는 없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가장 아끼시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합당하게 지키기보다는 이를 무시한 예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리는 현대인의 속된 마음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현대의 청소년들이 몇 세기 전의 청소년보다 훨씬 더 큰 유혹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는 과연 사실인 것입니다. 또 몇 세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모들이 세상적인 욕심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위험한 사태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도와 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면에 생각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가 많은데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이 말씀에 주의 하십시오—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교성 59 : 9)

이에 관하여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읍니까? 우리는 그가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확신하고 있읍니까? 우리가 그러하다면, 그와 그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읍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룩한 계시를 더욱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주님께서는 그가 무엇에 관해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면, 그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실천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갖가지 형태로 우리의 마음을 끄는 세욕이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해 버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러한 현상을 좀더 명백하게 살펴보려면, 여러분의 이웃에 사는 성인이나 청소년들이 얼마나 음주를 많이 하고 있는가 살펴보시면 되겠읍니다. 담배는 얼마나 많이 소비되고 있읍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범죄는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읍니까? 만행은? 퇴폐 풍조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그러한 것이 미치고 있지는 않읍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도 그러한 것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없읍니까?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은 놀라고 실망하지나 않읍니까?

그렇다면 이같은 사태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제책을 왜 받아들이지 않읍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뜻깊게 받아들여 그에 따라야 하겠읍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우리 생활에서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해 버리며 악한 행위를 계속해 가야 하겠읍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지 않읍니까? 다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교성 59 : 9)

여기에 우리의 괴로운 문제에 대한 영감의 대답이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교성 59 : 10)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날에 일상적인 과업을 하지 않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특별한 것을 목적하며,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고 더욱 합당하게, 가장 높으신 이에게 헌신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한 마디로 분명하게 말하자면, 안식일에는 일상적인 일을 잠시 쉬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더 계속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날마다 어느 때든지 네 서약을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교성 59 : 11)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일요일만의 종교를 가르치시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매일 변함없이 순종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일요일만 지키면 된다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나, 그의 거룩한 날에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가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그를 경배해야 하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 경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 : 23—24)

현대 계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 (교성 59 : 12) 감독은 우리 죄에 관해 의견을 들어 주는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지 않겠읍니까? 주님은 그의 거룩한 날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또 이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여"(교성 59 : 13)

우리가 일요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 날을 바치기로 해야 하는데도 우리가 안식일을 기꺼이 사업 운영에 바치고, 그와 같이 일요일에 하는 직종을 후원하며, 일요일에 오락 장소에 간다면, 우리의 사태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일반 사회에는 병원과 같이 24시간 움직이는 특정한 직종이 있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읍니다. 우리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직업인들이 아니므로,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읍니다. 그들은 일요일에 교회에 가기보다 스키나 수영을 하려 혹은 영화를 보러 가거나 사업을 하려 하지 않읍니까? 대답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와 일요일에 즐기고 돈을 벌자는 다른 복음을 채용한 것이 아닌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것을 소홀히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안식일은 주님의 거룩한 날임을 알고 있읍니다.

모세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는 태도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된다고 힘주어 역설하셨읍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성실도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라고 말씀하시며(출 31 : 17) 이같이 덧붙이셨읍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찌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출 31 : 14)

그 당시 주님은 이를 위반하는 것을 중죄로 다스리셨으며, 위반자는 사형에 처했읍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하게 여기시지 않았읍니까? 주님이 현대에는 이 법을 경감시키셨읍니까? 그가 그의 마음을 바꾸셨읍니까?

그는 또한 그가 살아 있다는 표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으니, 이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출 31 : 13) 하는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지킨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신앙이 증가되므로, 안식일은 간증을 키우는 것이 되며,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의 거룩한 날을 위반한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대대로 우리에게 성약 곧 영원한 성약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큰 성약의 위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 31 : 16 참조)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면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읍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안식일은 그 주일의 첫째 날에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일요일에 행하는 것이라고 했읍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므로,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킴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수난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읍니다. (복음의 이상, 데저렛 뉴스 출판사, 1953년, 397—98 페이지 참조)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도록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는 불멸에 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읍니까? 생명의 부활은 우리에게 흥미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개심한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곧 알 수 있읍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는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에 대하여 품는 태도와 겟세마네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실로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우리가 개심한 정도가 너무 얄팍하여 그의 대속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표적이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거룩한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도, 안식일보다는 국경일이 더 크게 지켜지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읍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번째나 세번째 위치로 놓지 않읍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며, 그가 속해야 할 위치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날을 합당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필수적인 단계가 됩니다.

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불순종을 자행하면서도 우리가 구원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구원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읍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안식일을 소홀히 보낼 수 있겠읍니까?

우리가 어찌 감히 전능하신 이를 소홀히 대할 수 있겠읍니까?

주님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그의 면전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고, 안식일의 준수는 모든 복음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가 용기와 양식을 갖고 이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어 간구합니다. 아멘.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요셉 스미스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치고, 그것이 진실한가를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읍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대회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갖게 되어 진실로 기쁩니다. 말씀을 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 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말씀을 듣고 계실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의 새로운 대관장이신 킴볼 대관장께서 선교 사업에 보여 주신 열의에 큰 감동을 받았읍니다. 그는 우리가 노력을 더 하여 현재의 선교사 수를 배가시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교사 생활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소년 시절에 읽어 큰 감명을 받은 책의 하나로 조지 큐 캐넌이 쓴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를 들 수 있읍니다. 그 책은 내 마음에 큰 감명을 주었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깊이 사랑하게 하였으며, 그의 이야기의 진실성에 관하여 내가 느낀 간증을 온 세상에 전해야겠다고 마음먹게 하였읍니다.

십이사도 지역 대표와 함께 가진 지난 목요일의 모임에서 킴볼 대관장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수만 명의 개종자를 이끌어 올 날을 기대한다고 하시어, 나는 큰 감동을 받았읍니다. 그때 나는 "왜 못하겠읍니까?"하고 속으로 말했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읍니다. 우리가 현재 세상을 위해 갖고 있는 메시지는, 주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는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행 2 : 37) 하고 외쳤던 것과도 다를 바 없읍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말을 여러분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 2 : 38—39)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부르짖었을 때 3,000명이 침례를 받아 응한 것처럼 오늘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 수 있겠읍니까?

교회는 구세주께서 십이사도를 부르시어 세워졌으나, 거룩한 예언자들은 교회가 지상에 계속 남아 있지 못하고, 말일에 주님께서 그의 과업을 완수하실 때에 오리라는 것을 예견했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의 비밀을 자신에게 나타내셨다고 말했읍니다. "때가 찬 경륜을(우리는 이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 : 6—10) 이제 우리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으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합당하게 주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요즈음 신약 읽기를 마쳤는데, 그 당시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구세주와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큰 감명을 받았읍니다. 사도 바울은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엡 4 : 5)라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이 오늘날 이곳에 살아 있어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것을 알 것인가 하고 생각했읍니다.

나의 비서가 얼마 전에 조사해 준 바에 의하면, 지난 해 5월에 행한 인구 조사에서, 미국에서만도 697개의 다른 교회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읍니다. 바울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라고 했으니, 그가 이곳에 있다면, 어느 교회로 가겠읍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의 교회가 존재한다면, 참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간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복음의 회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갈 1 : 8) 이것은 과연 맞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구세주와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를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앞에 모시고, 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계신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가르치신 것과 똑같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나는 바울이 말한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께 확실히 간증드리노니,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의 구원 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거룩한 권능을 인정해 주신 지상에서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에 속해 있읍니다.

구세주께서 살아 계실 당시에 교회가 조직된 것은 위대한 일이었읍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손길이 가해진 것은 더욱 영화로운 일이었읍니다. 물론 그가 이룩하신 위대한 구속의 사업이 아니었다면, 이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엡 1 : 9,10)을 보았읍니다. 우리는 끝손질을 마치고 또 현재 계속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에 살고 있읍니다.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명의 형제들 앞에서 영화롭게 승천하셨을 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렇게 말했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 : 11)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께서 오심을 두 팔을 벌려 기대하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외쳐야 하지 않겠읍니까?

아모스도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 : 7) 다시 말해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기 위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인 이 말일에 주님이 그의 과업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언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미리 앞세우지 않고 이 지상에서 일하신 때는 한 번도 없었읍니다. 우리에게는 살아 있는 예언자가 있으므로,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이란 찬송가를 잘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예언자만을 의존하지는 않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시해 주시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읍니다.

예수도 역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 : 21)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태복음 7 : 22—23)

이것은 예수께서 권능을 부여해 주지 않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그의 이름으로 신성한 권능을 행치 말라는 말씀이었읍니다.

그런 다음 이와 같이 말씀을 더하셨읍니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마 15 : 14) 소경이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준비하여 바울이 말한 바 유일하고 참된 교회를 찾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 : 39) 그러니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눅 24 : 25) 그리고는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에 관해 증거한 것을 보여 주셨읍니다. 또 누가는 그들이 경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의 문을 열어 주었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방문하시고 살아 있는 예언자를 보내 주시어 오늘날에 이룩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에 전해진 어느 다른 메시지가 이와 비교될 수 있겠읍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과연 참된 것인가 아닌가를 알고자 하지 않겠읍니까?

다른 교회에서 성직을 맡았던 여러 훌륭한 사람들도 이 교회로 들어왔읍니다. 지난 주일에 나는 20여 년 동안 침례교 목사로 일해 왔다고 하는 로스앤젤리스에 사는 어느 목사의 방문을 받았읍니다. 그는 몰몬 장로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회복된 복음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읍니다. 그는 현재 그곳에 있는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쓴 선교용 책자를 보고 주님께서 이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그의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신 일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그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했읍니다.

수년 전에는 노드웨스트 기상에서 어느 목사를 개종시킨 일이 있읍니다. 그는 내 사무실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읍니다. "리차즈 형제님, 내가 회복된 이 충만한 복음에 비하여 감리교 목사로서 신도들에게 들려 주었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당장이라도 그들에게 돌아가 내가 발견한 모든 것을 들려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군요. 나에게 이단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목사직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의회 건물에서 승강기 운전을 해 가며 교회에 가입했읍니다. 그는 나와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내와 함께 신전에 가고 싶어 못 견디겠읍니다." 그 후 나는 그를 신전에서 만났읍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나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다는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었고, 다만 그가 예언자라는 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어 나갔읍니다. "그러나 바로 우 형제(나도 그 형제를 알고 있읍니다)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에게 신권을 부여할 때, 내가 이제까지 전혀 느껴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이 내 전신을 스쳐 지나갔으며,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것은 주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것이었읍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이 순수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주님께서 진리를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해 실제로 행하신 일을 기꺼이 듣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내가 저술한 책에 실려 있는 한 구절을 여기서 조금 읽어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몰몬의 힘'이라는 소책자(올슨 에프 휘트니, 인디펜덴스, 시온 인쇄 출판사, 1917년)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이었던 고 올손 에프 휫트니 장로는 "천주교의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읍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일원인 학자 한 분이 수년 전에 유타주 솔트레이크 태버나클에서 연설한 적이 있었다. 곧 친한 사이가 된 우리는 자유로우면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다. 십 수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던 위대한 학자인 그는 신학, 법률, 문학, 과학, 철학 등 모든 분야를 통달한 것 같이 보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몰몬은 무식한 사람들이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천주교를 빼놓고는 전기독교 세계를 통틀어 보아야 몰몬에 필적할 만한 교회는 찾을 수 없읍니다. 문제는 천주교와 몰몬 사이에 있읍니다. 우리 쪽이 옳다면 여러분이 틀린 것이고, 여러분이 옳다면 우리가 틀린 것입니다. 다른 의견은 성립되지 않읍니다. 신교는 논의의 대상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교회의 지엽적인 존재

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리다면 말할 것도 없이 틀리는 것이고, 비록 우리 측이 옳다고 하여도 오래 전에 떨어져 나간 배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옳다고 할 수는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베드로로부터 사도가 계승되어 왔다면 요셉 스미스라는 인물이 필요 없으며 그렇게 되면 몰몬교의 존재 이유는 타당치 못한 것입니다.

천주교에 사도가 계승되어 내려오지 않았다면 요셉 스미스라는 분이 필요했을 것이며 따라서 몰몬의 주장에는 하등의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이 고대로부터 계승되어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말일에 회복된 것이냐가 문제의 촛점이 됩니다.'"(기이한 업적, 리그랜드 리차즈, 한국 번역 출판부, 1975년, 제 1 장, 2—3페이지)

앞서 말한 697개에 달하는 여러 교회의 회원들이 이 말의 논리적 타당성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목사가 어떠한 권능으로 교회 의식을 수행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할 것입니다. 이 천주교 학자의 말이 참되다면, 그들은 천주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몰몬교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나는 성경에는 원래의 교회에 배도가 일어나고 말일에 회복이 있으리라고 확실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주교와 성경이 다같이 옳은 것이 될 수 없음을 덧붙이는 바입니다.

요한이 밧모 섬에 귀양갔을 때, 주님의 천사가 한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 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계 4 : 1) 이것은 구세주께서 돌아가신 후 30년 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천사는 사탄에게 내려질 권세를 요한에게 보여 주었으니, 곧 "성도들과(성도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읍니다)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계 13 : 7)가 그것이었읍니다. 한 사람도 거기서 빠져 나올 수 없었읍니다. 그것은 원래의 교회가 완전히 배도됨을 명확히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읍니다. 그는 다시 공중을 날아가는 다른 천사를 요한에게 보여 주었읍니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계 14 : 6) 이 땅에 영원한 복음이 남아 있었다면, 어떠한 천사라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나를 필요가 없었을 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행 3 : 21) 하늘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받아 두리라고 말했읍니다. 우리는 회복된 것을 갖고 있으니,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꺼이 진리를 찾아 본다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 : 16—17)

우리는 만유가 회복된 것을 알고 있읍니다. 아무도 그와 같은 회복이 있을 때까지는 베드로가 예언자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구세주의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어 이 사업이 지상 끝까지 널리 퍼져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용기있는 사람이 필요함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가장 위대한 용기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께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오늘 밤 나는 용기에 대하여 평소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기에는 신체적 용기와 도덕적 용기라는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도덕적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 즉,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은 또한 신체적 용기도 갖고 있읍니다. 위대한 세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 등장하는 인물인 폴로니우스는 아들에게 여러 면의 행위 규범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긴 사설을 이러한 말로 끝맺고 있읍니다.

뭣보다도 너 자신에 충실해라.
그러면 자면 밤이 낮을 따르듯이
넌 남에게도 반드시 충실한 사람이 된다.

햄릿, 제1막, 제3장, 52—73

우리는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양심은 도덕적 용기의 근원이 됩니다. 참으로 용기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양심에 순종할 것입니다. 의로운 것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자의 소치입니다.

우리 교회 책에서 우리는 큰 용기를 지닌 사람의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읍니다. 그 예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가 어느 신교 목사와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 그의 첫번째 시현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목사는 크게 노하고 비웃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시현을 보았다는 것은" 하고 기록했읍니다.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었읍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내가 이런 말을 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나에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말할 때 나는 마음속에 왜 저들은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핍박할까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으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본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일까? 나

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읍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읍니다…. (요셉 스미스 2서 : 24, 25)

예언자는 어렸을 때 뿐만 아니라 온 생애에 걸쳐서 자기 자신에게 진실했읍니다. 첫번째 시현을 본 지 십 팔 년 뒤에, 예언자와 그 외 몇 사람은 "채 완성되지도 않아, 창문도 달리지 않은 감옥에 여러 주일 동안 감금"되어 있었읍니다.

"그 지루한 어느 날 밤에 〔하고 팔리 피 프랫은 기록하였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간수들이 지껄이는 음담패설과 입에도 담지 못할 갖가지 욕설과 더러운 이야기를 몇 시간씩 들어온 터이라, 우리는 귀와 가슴 속으로 큰 고통을 느끼며, 한밤중이 다 지나도록 잠자는 듯이 누워 있었다.

"나는 듣다 못해서 증오와 혐오와 분개한 마음이 가득 차서 간수들을 꾸짖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요셉이나 그 외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요셉의 옆에 누워 있었으므로 그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우뢰와 같은 혹은 사자가 으르렁 대는 듯한 목소리로 내 생각과 거의 같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잠잠하라. 너희지옥의 악마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에게 잠잠하기를 명하노라. 나는 그런 말을 듣고는 이제 잠시도 살지 않겠다. 그런 말을 그치지 않으면, 너희가 아니면 내가 곧 죽으리라!' 그는 말을 마쳤다. 그는 아주 당당하게 곧곧이 서 있었다. 사슬에 묶이고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은 그는 천사와 같이 평온하며 침착하고 위엄있게 겁에 질린 간수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무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으며, 무릎을 한데 모으고, 구석에 몰려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의 발밑에 엎드려 용서를 빌면서 교대만을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영국의 재판정에서 〔하고 팔리는 덧붙였다〕 위풍당당한 복장을 한 대법원 판사들이, 일순간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범죄자를 앞에 놓고 질책하는 것도 보았다. 또한 국회 의원들이 엄숙한 회의를 열고 법을 제정하는 광경도 보았다. 그리고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 있는 제왕과 왕국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황제들도 생각해 보았으나, 미주우리주의 한 벽촌에 있는 토굴과 같은 곳에서, 한밤중에 사슬에 묶여 서 있던 그에게서 단 한 번 참된 위엄과 품위를 목격했던 것이다." (팔리 피 프랫의 자서전, 209—211페이지)

확실히, 예언자는 이곳에서 위대한 도덕적 신체적 용기를 보여 주셨읍니다. 그의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참되며, 창조주는 결국 그에게서 생명을 희생케 하셨읍니다. 그것은 또한 그에게 영생과 승영을 확신시켜 주었읍니다.

몰몬경에서 우리는 니파이의 위대한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레뮤엘 골짜기에서 야영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아들들을 예루살렘에 보내 레이밴에게서 기록을 가져 오라고 지시하셨던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레이맨과 레뮤엘은 이 "일이 어렵다"(니일 3 : 5)하여 불만을 털어놓았으나, 그들의 어린 동생,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 : 7)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읍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았읍니다. 레이맨이 들어갔읍니다. 레이밴은 그를 도둑이라 하며 죽이겠다고 위협했읍니다.

그리하여 그는 판을 갖지 못하고 그대로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나왔읍니다. 그는 그가 그것을 갖고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것을 증명한 셈이 되었읍니다. 그는 그냥 아버지에게 되돌아가자고 했읍니다. 그러나 어린 니파이는 말했읍니다. "주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이루기까지는 광야에 계신 부친께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니"(니일 3 : 15)

그들은 니파이의 권고대로, 그들의 상속의 땅으로 가서, 금은 보화를 가져와, 레이맨의 기록을 사려고 했읍니다.

재물에 탐이 난 레이밴은 종들에게 그들을 잡아 죽이라고 했읍니다. 그들은 광야로 도망쳐 나와 바위 동굴에 숨었읍니다. 거기서 그들은(니파이와 샘을) "막대기로"(니일 3 : 28) 내려쳤읍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그들을 꾸짖었읍니다. 천사가 떠나자, 레이맨과 레뮤엘은 그들이 판을 얻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불평하며, 레이밴은 "힘이 센 사내요, 오십을 다스리는 자라. 오십을 죽일 수도 있겠거늘 어찌하여 우리인들 죽이지 못하랴?"(니일 3 : 31)고 니파이에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

"보라, 주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강하시니, 레이밴과 그의 오십이나 설혹 수만의 부하가 있다 할지라도 어찌 그보다 강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니일 4 : 1)

그들은 니파이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읍니다. 니파이는 그 집에 들어가서 판을 들고 나왔읍니다.

니파이의 신앙과 용기는 그만큼 큰 것이었읍니다.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쯤 해서, 다니엘이라는 다른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일생 동안 큰 용기를 보여주었읍니다. 리하이가 떠난 지 꼭 십년째 되는 해인 주전 597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에 의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 갔읍니다. 그가 그곳에 있게 되자 그는 곧 용기를 보여 주기 시작하여 그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기를 거절했읍니다. (단 1 : 8) 그는 비록 왕이 그들에게 명한 것일지라도, 당시 그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지혜의 말씀"만은 깨뜨릴 수 없노라고 했읍니다.

그는 거기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큰 용기를 보여 주었는데, 그는 늙은 왕에게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단 4 : 24)이었다고 하며 이어 느부갓네살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칠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때에 가서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단 4 : 25)라고 했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왕에게 "죄를… 죄악을 속하고서" 하고 충고해 주었읍니다. (단 4 : 27 ; 단 4 : 20, 22, 24, 25, 27 참조)

포로로 잡힌 노예가, 기록에 권세가 "땅 끝까지"(단 4 : 22) 미친다고 밝힌 왕에게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은 감히 생각할 수 있겠읍니까? 그는 바로 그렇게 했읍니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는 그 늙은 왕

보다 더 오래 살았읍니다.

바로 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왕의 후계자인 벨사살이 소환하여, 왕이 본 벽에 새겨진 손가락으로 쓴 이상한 글자를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도, 그는 비슷한 용기를 보여 주었읍니다. 그는 벨사살에게 그 글자는 이런 뜻이라고 말했읍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었다 함이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단 5 : 26—28)

다니엘은 이런 메시지를 들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벨사살에게 그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의 범법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말해 주는 용기도 갖고 있었읍니다. 그는 더 나가서 왕에게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신전에서 가져 온 기명들의 신성을 모독한 죄와,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단 5 : 23, 다니엘 5장 참조)한 죄를 지었다고 말했읍니다.

기록에는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단 5 : 30)라 씌어 있읍니다.

그 왕국을 얻은 메대 사람 다리오는 전국을 방백 120명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단 6 : 2)가 되게 했읍니다.

이 직책에 있을 때, 다니엘은 큰 위험에 처해서도 자신의 용기를 보여 준 일이 있었읍니다.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읍니다. 그들은 그를 질시하여, 그에게서 무슨 허물이든지 찾아 내려고 했읍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곧 그의 집으로 가서, 그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창문을 열어 놓고는 방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 : 4—7, 10 참조)

다니엘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이와 같이 진실했으며, 큰 신앙과 용기를 보여 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누구도 의문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 뒤에 일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실 터이니, 나머지 것은 읽어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왕은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변경할 수 없었으므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주님께서 다니엘을 구하시기 위해 사자의 입을 막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용기있는 모든 행위가 다 이와 같이 훌륭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 해도, 그러나 어느 것이든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비겁한 행위가 종래는 후회와 뉘우침을 가져 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겪은 경험에서 그것을 알고 있읍니다. 내가 15세 소년이었을 때, 우리는 멕시코 반란에서 추방당했읍니다. 우리 일가는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로스앤젤리스로 갔읍니다. 나는 거기서 몰몬을 증오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내가 몰몬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읍니다. 그런지 얼마 뒤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로스앤젤리스로 와서 나의 부모님과 아주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아주 보기 드문 일이었읍니다. 그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는 "얘야, 네가 몰몬이라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하고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그 이후로 내가 한 말을 지킬 만한 용기를 갖지 못하지나 않았는가를 이때까지 염려해 왔읍니다.

또 한 번은 선교 업무로 호주에 있었을 때의 일이었읍니다. 나는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동굴인 예늘란 동굴에 갔읍니다˙ 우리가 동굴에 걸어 들어가자 안내자가 말했읍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느 분이든 이리 나와 저 바위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불러 보신다면 이 굴의 흡수력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영이 내게 "올라가서 '오 높은 영광 보좌'를 불러 보라"고 말해 주었으나, 내가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밀려들어와, 나는 기회를 잃고 말았읍니다. 나는 그것이 못내 마음에 언짢았읍니다. 그 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경우는 맥케이 대관장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였읍니다. "내가 선교사로 일할 때, 한번은 어떤 일을 하라는 영감을 받았으나, 그 일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는 말했읍니다. "그 후로 나는 그 일이 늘 마음에 걸렸읍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성령의 속삭임에 응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에 응할 수 있도록 생활하시며,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용기를 갖도록 하십시오."

우리들, 신권을 소유한 모든 형제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 우리 창조주와 우리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용기를 기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부활절의 의의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의 구세주 안에서 성취되었읍니다

전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잠시 동안 말씀드릴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온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기에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이야기해 왔읍니다. 부활의 완전한 의미를 모두 파악하기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실제

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 사상을 고린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적어서 보냈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 : 19—22)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라는 구절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라는 구절 가운데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을 거듭하여 생각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 이같이 외쳤읍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욥기 7 : 17—18)

"사람이 무엇이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관대 의롭겠느냐"(욥기 15 : 14)

시편 작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 8 : 4—5)

이 질문에 대한 경전상의 대답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사람은 살과 뼈의 죽을 몸을 입고 나온 하나님의 영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 창조의 기록에 나타나 있읍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영적인 창조와 세상에 있게 될 온갖 것, 하나님이 영을 지으신 인간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창 1 : 27)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세기 2 : 5—7)

이 성구는 "인간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 있나니"(교성 88 : 15)라는 현대의 경전 성구의 참됨을 입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라는 구절 가운데서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사망이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생령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속성을 받았읍니다. 그들은 죄없고 청결하여 거룩한 상태로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합당한 자들이었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방문하시고 그들을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셨읍니다. 그들이 영적인 존재에서 육신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 없어졌으므로 이와 같은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서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읍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 : 16—17)

시간이 지나도 그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담과 이브가 계명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취한 열매로 인하여 그들의 신체는 변함을 입어, 육체와 영체가 분리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영혼의 사망이었읍니다.

이 계명을 범한 것에 대한 형벌은 모든 아담의 후손이 물려받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고전 15 : 21)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면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육체와 분리된 영은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예언자 야곱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읍니다.

"만일 육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타락하여 악마가 된 천사에게 속박되어 함께 악마가 되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임이라.

"또한 우리의 영은 저와 같은 악마가 되며 악마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어 쫓기며, 거짓의 아비와 함께 하며 그와 더불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진실로 저와 같이 되리니…"(니파이이서 9 : 8—9)

그러므로 사망으로부터의 구속인 부활이 인간의 미래의 행복을 얻는 데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영과 원소는 떨어질 수 없게 결합되어 있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느니라.

"서로 분리될 때에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93 : 33—34)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같은 상태를 미리 아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죽음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는 사망을 인간이 영원토록 겪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셨읍니다.

이 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현대 계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위하여 마련된 속죄를 통하여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 이루어지느니라.

"인간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 있나니,

"죽은 자의 부활은 인간의 영육의 속죄니라.

"영육의 속죄는 만물을 살게 하시는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나니…"(교성 88 : 14—17)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부활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무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는 부활을 가능케 할 수 있었을까요? 경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읍니다. 경전은 영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의 영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모든 인간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서 육체를 받아 아담의 후손으로 죽어야 할 몸이지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육체를 받은 불사불멸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으셨읍니다. 그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권능을

지니셨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요한복음 10 : 11, 14—15, 17—18)

사망의 노예인 인간은 무덤에서 일어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어 아담의 타락을 대속하시려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으며, 이로 인하여 부활의 권세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읍니다.

무덤으로부터의 승리의 첫 증거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읍니다. (요 20 : 11—17 참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었다고 말하려고 가고 있던 여인들을 만났읍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을 건네었읍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마 28 : 9—10 참조)하였읍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명과 함께 걸으셨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읍니다. (눅 24 : 13—16, 28—32 참조) 예수님은 적어도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한 번은 도마가 없었을 때요,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였읍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발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읍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눅 24 : 36—43 : 요 20 : 26—29 참조)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에서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읍니다. (요 21 : 1—22) 한번은 500여 명의 무리 앞에 나타나셨읍니다. (고전 15 : 6) 그는 "게바에게 보이시고"(고전 15 : 5)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고전 15 : 7) 바울에게도 보이셨읍니다. (고전 15 : 8)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열 한 제자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도록 명하였읍니다. (마 28 : 16—20 참조)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눅 24 : 50—51)라가셨읍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부활 후의 성역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미대륙의 니파이인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은 기이하고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능케 한 부활의 권세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에 관한 약속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읍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 27 : 52—53)

예수님은 지상에 사실 때 이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의로운 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불의한 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한복음 5 : 28—29 영감역)

부활 후 미대륙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부활의 진리를 강조하셨으며,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부활에 관한 사뮤엘의 예언과 그 성취를 그들의 기록에 넣으라 하셨으나 그들은 이를 기록하지 않았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략된 부분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한 표적에 관한 것이었읍니다. 그 표적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무덤이 열려 그 죽은 자들을 내어 놓아, 많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힐 14 : 25)났다는 것입니다.

니파이인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주님이시여, 그러하였나이다. 사뮤엘은 주의 말씀대로 예언하였고, 그가 예언한 것은 모두 이루어졌나이다."(니삼 23 : 10)

계시자 요한은 복천년이 시작될 때 있을 부활에 관한 시현을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읍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요한계시록 20 : 4—5)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요한계시록 20 : 12—13)

앰율레크는 지에즈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육체적 죽음의 사슬을 푸신지라 모두가 이 육체적 죽음에서 일어서리라.

"영과 육체는 원래의 완전한 모양으로 다시 결합될 것이요, 수족과 뼈의 마디가 모두 지금 우리의 모양 그대로 회복될 것이라….

"이 부활은 모든 사람 곧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 속박에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 남자나 여자, 악하거나 의로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요…"(앨마서 11 : 42—44)

이와 같이 바울의 외침이 성취될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고린도전서 15 : 21—23)

그리하여 인간은 불사불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서 1 : 39)인 그의 사업과 영광의 칫부분을 완성하셨읍니다.

우리는 구속주에게 부활의 큰 빚을 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부활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불사불멸을 얻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불사불멸은 삶의 길이를 의미하며, 영생은 삶의 질, 즉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등급의 각기 다른 왕국이 있읍니다. 별의 왕국은 가장 낮은 등급의 곳이고 달의 왕국은 중간 등급의 곳이며 해의 왕국은 율법으로 다스려집니다.

인간은 영의 세계에서 심판받게 되며 그들의 행위대로 보상받게 됩니다. 부활할 때, 그들의 몸이 왕국의 이 세상에서 순종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을 것입니다. (교성 88 : 17

—32 참조)

아담으로부터 절정의 때까지의 모든 예언자들이 가르치고 훈계하였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면서 가르치셨으며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진리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계 만방에 가르치고 훈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상 생활을 하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해의 왕국의 율법입니다.

해의 왕국에서 거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는 자의 영광은 클 것이요, 그렇게 부활하지 못하는 자는 슬픔을 맛볼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부활시에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정사, 6 : 51)

우리는 이 율법에 관하여 본 대회에서 많이 제시하고 토론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전한 말씀이 모두 진실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것들이 참되며,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신의 증거로 압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극복하셨으며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인간에게 부활의 권세의 효력이 미치게 하였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으므로, 그의 율법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불사불멸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사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자유의지를 행사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영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신 자유의지의 원리 즉 선택하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지상에 내려오기 전인 천국 대회에서 주어졌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직 영의 존재로 있을 때에도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자유로이 태어나 이 지상 생활에서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유를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물려받게 하는 것이었읍니다. 인간이 선과 악의 영향을 받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었읍니다.

고대 미대륙의 니파이인 예언자, 리하이는 이렇게 가르쳤읍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의로운 것이나 죄악이나 성스런 것이나 비참한 것이나 선이나 악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니이 2 : 11)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우리는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은사를 행사하도록 특권을 받았읍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나 다 행하고 의로운 것을 택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받고, 시련받고, 자신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우리는 의로운 선택으로 자유의지를 키우고 선과 겸손과 고결한 목적을 얻기에 충분한 양심을 지녔읍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자유의지에 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의지가 행사되려면 네 가지 큰 원리가 힘을 발휘해야 한다. 즉 1. 율법이 있어야 한다. 이 율법은 전능하신 이가 정하신 것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 2. 상대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즉 선과 악, 미덕과 악덕, 옳고 그른 것, 즉 서로가 반대되며, 상대가 되어야 한다. 3.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그들은 상대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4.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선택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자유의지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의 중요한 요소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몰몬 교리, 북크래프트사, 1966년, 26페이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모든 나쁜 것은 사탄에게서 옵니다. 브리감 영은 이를 이렇게 설명했읍니다.

"이 지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 곧 악마를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나 이방인 사회에 얼마나 많은 명칭이 있든지, 혹은 얼마나 많은 종파가 존재하든지, 그것은 다만 두 개의 부류 곧, 하늘 나라 및 하나님을 위한 것과 하나님의 해의 왕국이 아닌 다른 왕국으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윗소 편, 1966년, 데져렛 출판사, 70페이지)

자유의지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 온 영원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자 생활하는 가운데 현명하게 적용하기를 희망하시며 그가 주신 은사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모든 행위에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지니고 있어야 할 도덕적 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와 온 인류는 우리가 추구하는 길과 우리의 실생활과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북크래프트사, 1969년, 8-9페이지)

우리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는 없읍니다. 인간은 생활하는 중에 선이나 악을 자유로이 택하며, 자신이 택하는 바에 따라 주님의 명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읍니다. 그는 강압이나 제한받지 않고 어떤 행위든 할 수 있읍니다.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라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와 특권을 침해하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읍니다.

"나 자신을 해칠 뿐인 걸" 하는 식으로 자위하고 있는 사람도 흔히 있읍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행한다면, 그는 죄에 대한 형벌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가 범법함으로써, 그는 자기 아내와 가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서 지도와 훌륭한 본보기와 가족의 단합에 따르는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유의지를 행사하노라."고 한 행위를 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에 대하여 옳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그것을 긍정적이라기 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담배 피우고 술마시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야. 나는 내 자유의지가 있는 걸." 그러나 영원한 가치의 면에서 생각해 보고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지. 나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옳은 것을 택하고 그른 것을 택하지 않음으로써, 내 생활을 개선시키는 면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겠다." 이와 같은 것은 인간 생활에 어떤 악덕도 적용할 수 있읍니다. 올바른 태도를 지니게 되면, 악덕은 미덕이 되며, 미덕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범법자가 취하는 수동적이며, 오만하고 불손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가르쳤읍니다. "인간은 범사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사회에는 어디나 균형잡힌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사회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나 인간에 대하여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65페이지)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느 정도까지 그 힘이 미치고 있읍니까? 브리감 영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했읍니다. "자유의지와 모든 일과 모든 존재에는 한계가 있으니,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의 법칙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삶 또는 죽음을 택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크게 속박을 받는 것이므로, 인간이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고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없이도 그 법칙을 거스려서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는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의인과 죄인, 영생과 사망, 행복과 불행 사이의 차이는 이와 같은 것이니, 즉 승영한 사람에게는 특권이나 축복이 아무런 제한이나 경계가 없이 계속되며, 영생을 통해 발전되지만, 반면에, 그러한 제의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주신 자비를 무시하여 스스로 그의 면전에서 떠나, 악마의 무리와 합세하려는 자들은 곧 그들의 자유의지가 줄어들며, 그 하는 일에 제한과 구속을 받게 됩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63—64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을 따를 때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어길 때 형벌을 내린다는 계명을 주셨읍니다. 작고하신 제임스 이 탈매지 박사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자유인의 습성이다. 범법자는 율법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그의 자유를 굳게 보호해 주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갖게 되는 적개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상실감과 속박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악마로 하여금 인간이 죄를 짓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강제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대배도, 데저렛 출판사, 1958년, 34—35페이지)

인간의 자유는 인간이나 사탄이나 우리 주님에 의해서도 결코 강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서로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지 않읍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시련과 유혹과 모든 형태의 악을 이겨 내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읍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를 그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어떤 원리를 주셨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완전히 자유로운 가운데 세워집니다. 모든 남자나 여자 및 어린이는 자기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를 갖고 있읍니다. 각 인간은 개인적으로 지은 행위에 대하여 창조주에게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과 생과 구원의 원리를 주시어, 우리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선택 또는 거부권을 우리에게 맡기셨읍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시지 않으시며, 또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강제하지 않읍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57페이지)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자녀들 사이에서 일을 행하실 때, 사탄이 최대의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통해 볼 때 시초부터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잘못으로가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늘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렸읍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이 바로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첫부모인 아담과 이브에게 속임수의 미끼를 던진 이래, 줄곧 속이고 기만하는 습관을 계속해 왔읍니다. 현 세대에게도 이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으로 자행되고 있읍니다.

어느 누구도 사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읍니다. 구세주까지도 사탄으로부터 세 번씩이나 유혹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기만에 가득 찬 그의 유혹을 거절했읍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아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악마가 인간의 자녀를 유혹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악마의 유혹이 없으면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나니, 인간이 쓴 것을 알지 못하면 단 것도 알 수 없는 연고니라."(교리와 성약 29 : 39)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키려는 계획을 결코 중지하는 법이 없으므로, 사탄의 교묘한 행위를 항상 감시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상 사탄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파괴시키는 힘이 있어 악한 일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읍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믿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통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 잡지를 통해서, 그리고 인간 사회와 국가의 행위에서 사탄이 하는 일을 더욱 많이 볼 수 있읍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감적인 것에 미친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크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의 손아귀에 들게 되어 쉽사리 그 속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고 가려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절대로 의로운 것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더럽힘은 죄를, 죄는 회한을, 회한은 너무나 큰 상처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읍니다. 진정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읍니다. 선과 악은 절대로 하나로 융합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서로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게 됨을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태복음 6 : 24)

중간 길은 없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는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치에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의롭게 행사하고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승영을 물려받을 수 없읍니다.

자유의지가 합당하고 선명하게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하늘의 축복과, 기쁨과 행복에 가득 찬 영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학교는 훌륭한 학교로 우리는 매일매일 아주 중요한 교육을 받고 있읍니다. 우리는 정신력을 교화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과 율법에 따라서 바로 그와 똑같이 되기를 배우고 행동하여,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배우는 것입니다."(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10—11페이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사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방법을 모범으로 보여 주셨읍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는 만족해하며 행복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읍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켜 나갈 때 그는 약속과 유익을, 그렇게 하지 못할 때와 비교해 가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의 자유의지를 의롭고 진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미대륙의 그리스도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니파이인에게 주신 구세주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남미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서 그곳에 있는 충실하고 헌신적인 성도들의 정신과 신앙을 살펴보고, 내가 몰몬경의 땅에 있다는 벅찬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은 미대륙에 살던 초기 주민의 역사가 기록된 몰몬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그곳의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지역 대회를 가지면서 나는 그들의 소박한 신앙과 주님께 봉사하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읍니다.

우리의 예언자이신 킴볼 대관장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권고하실 때, 보여준 사랑과 흘리는 기쁨의 눈물을 보고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읍니다. 나는 그 옛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친히 서반구의 니파이 백성들에게 방문하시어 그들도 한 우리 안에 들게 하여 그의 복음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게 조직을 갖게 하셨을 때도 그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가졌으리라고 상상해 보았읍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니파이삼서에 기록된 바로 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몰몬경이 출현되리라는 예언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몰몬경이 참된 책임을 입증하겠읍니다.

구약 성서 에스겔서를 읽어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찾아볼 수 있읍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겔 37 : 16—17)

성경과 몰몬경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 두 책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읍니다. 몰몬경이 전해진 방법—천사가 실제로 내려와서 요셉 스미스에게 전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계시자 요한의 다음과 같은 기록의 진정한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 : 6—7)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늘 그의 자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성구는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일

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계시를 믿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 : 7)

요한은 구세주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읍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 10 : 16)

구세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서반구에 이미 예언된 표적대로 나타나셔서 서반구의 백성에게도 그의 복음을 배우는 복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일에 관하여 니파이삼서보다 아름답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경전은 아무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 니파이삼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생의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과 이 세상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될 예수님의 경고와 가르침만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니파이삼서에는 신약 성서의 복음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주님의 교리, 가르침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읍니다. 따라서 니파이삼서를 가리켜 "제 5 복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읍니다.

니파이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로부터 오늘날까지 예언자의 말을 비웃고 예언자의 말이 성취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마침내 표적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에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날을 정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몰몬경에 보면 니파이가 "힘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니삼 1 : 12)자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의 성스러운 예언자가 이야기한 모든 예언의 말이 성취될 날이 곧 오리라고 대답해 주셨음을 알 수 있읍니다. 모든 표적이 나타나고 새로운 별이 하늘에 나타나자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 쓰러져 사경에 이른 자같이 되었"(니삼 1 : 16)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번 교훈을 배울 수 있읍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항상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이러한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잊고 사악해졌읍니다. (앨 13 : 17 참조) 우리는 전쟁과 개다이앤톤 도적단과 땅이 황폐하게 된 것에 관한 기록을 읽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의로움 가운데서 주님께 간구할 것을 기억한 니파이인은 적으로부터 살아 남을 수 있었으며,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읍니다.

몰몬경에는 "저들의 온갖 죄악과 가증함과 음행을 버리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겼느니라." (니삼 5 : 3)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들은 번성하게 되었읍니다.

"많은 성읍이 새로이 건립되고, 수많은 낡은 성읍을 증축하였고,

"성읍과 성읍, 땅과 땅, 그리고 처소를 연결하는 많은 대로와 작은 길이 닦아지고 열렸느니라."(니파이삼서 6 : 7—8)

이 지역에 고대 문화가 번성했다는 증거를 여기에서 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몰몬경은 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를 받아 번역한 것이었으며, 여기에 담겨 있는 생생한 기록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의 과학으로 그 진실성이 증명되고 있읍니다. 진실로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말일에 내놓으신 참된 기록입니다.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번성하면 교만해져서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불과 6 년이 지나기도 전에 많은 백성은 사악해졌읍니다. 그리하여 니파이는 과감하게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를 외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니파이에게 화를 냈으나 니파이는 큰 능력과 권능으로 성역을 베풀었읍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읽을 수 있읍니다.

"니파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돈독하였던지라, 천사가 날로 저를 가르치며 은총을 베풀었으므로… 니파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며,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한 그의 형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었으니"(니파이삼서 7 : 18—19)

또 다시 예언자가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표적이 태풍과 지진, 암흑, 천둥, 그리고 불로써 증명되었읍니다. 성읍은 깊은 바다에 잠겼고, 산들이 들어서게 되어 지면이 모두 변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사흘간 계속되었으며,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하며 울부짖었읍니다. "오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였던들 우리 동포들이 목숨을 건졌을 것이요, 저 큰 성 제이라헤믈라와 더불어 불타 버리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고, 또 다른 처소에서 울부짖는 소리 있어 이르되,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며 우리들 가운데서 쫓아 내지 아니하였던들, 우리들의 모친과 귀여운 딸자식들과 어린이들이 목숨을 건져 저 큰 성 모로나이하와 더불어 묻히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으니, 이같이 백성들의 애통함이 크고 참담하더라."(니삼 8 : 24—25)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경전을 통해 볼 때, 예언자를 배척하고 자신의 사악함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재앙을 맞게 되어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여 울고 통곡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그의 사도들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읍니다. 인간이 서로를 향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이 지상에 통곡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청소년들의 방탕, 알코올, 담배, 환각제, 기타 금지된 일을 하면서 불의로 인하여 생기는 타락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겠읍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무법과 무질서 때문에 비통해야 할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고대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쓰라린 경험과 같은 경험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과거의 역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땅의 만백성들

위에"(니삼 9 : 1) 나타나시어 음성으로 니파이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사악함으로 인하여 멸망된 성읍과 그들의 사악함과 가증함에 대하여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이제 저들보다 조금 의로와 살아 남게 된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여 개심하고,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로 오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에게로 뻗쳐져 있어,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영접하여, 내게로 오는 자를 축복하리로다."(니삼 9 : 13—14)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 권고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의 가르침이나, 고대 미대륙에 교회를 조직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복음입니다.

음성을 들은 후, 많은 니파이 백성들이 신전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들은 말씀에 관해 이야기했읍니다. 또 다시 한 음성이 들렸읍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니삼 11 : 7)

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하늘로부터 흰옷을 입은 분이 내려오니 사람들은 그를 천사로 생각했읍니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니삼 11 : 10—11)

무리는 땅에 엎드렸으며, 그들이 그와 함께 있는 동안 구세주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가르치셨읍니다. 구세주께서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일은 니파이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권능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네게 권능을 주노니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후에 너는 이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라"(니삼 11 : 21)

그는 또한 열 두 제자를 불러 이 권능을 주셨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반드시 이 권능이 필요하도록 하셨읍니다. 주님께서는 침례 의식은 침수로써 행해야 하며, 또한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지시하셨읍니다. 이것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 방법과 같은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교리를 설명하시면서 그 교리에 대하여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주님께서는 열 두 제자에게 나아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과 거의 같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읍니다.

주님은 황금률을 주셨고, 결혼, 육욕, 음란에 대하여 가르치셨읍니다. 주님은 금식과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며, 주님의 기도로써 모범을 보여 주셨읍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으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읍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비유를 들면서 구원과 승영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읍니다. 주님은 그가 택하신 열 두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특별한 지시를 주셨읍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라. 요셉의 지파의 잔류민인 이 백성들의 빛이니라.

"또한 보라 이곳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너희의 상속의 땅이라."(니삼 15 : 12—13)

주님은 니파이인에게 그의 가르침을 기록하도록 명하셨으며, 만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성신에 의해 니파이인과 다른 지파에게서 배우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수단이 될 이 기록으로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읍니다.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을 아신 주님은 집에 돌아가 곰곰이 생각하리라고 권고하셨읍니다. 그러나 이들이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잠시라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더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는 기색을 보고, 그들을 가엾게 여겨, 병자와 절름발이와 장님과 온갖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나오게 하여 병을 고쳐 주셨읍니다. 주님은 어린이들도 데려오게 명하셨으며, 어린이들 가운데 서시어 무리에게 땅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명하시었읍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땅에 무릎을 꿇으시고, 보라 아버지께 간구하시었으니 이제 그 간구하신 대로 낱낱이 기록하지는 못하나, 그의 간구를 들은 자들이 그 들은 바를 증거하였고,

"저들의 증거함이 이러하였더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심을 우리가 보매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눈이나 귀로는 보고 들은 일이 없으며,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웠던지라, 아무도 이를 감당치 못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니파이삼서 17 : 15—17)

그리고는 어린이들을 차례로 안으시어 축복하시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싸매, 어린 아이들도 불로 둘러 싸였으며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니삼 17 : 23—24)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며 이를 무리하게 행하게 하심으로써 성찬 의식을 제정하셨읍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성신을 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를 부여하셨읍니다.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하셨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적에 대한 이사야와 모든 예언자들의 기록을 상고하라고 일깨워 주셨읍니다.

주님은 앞으로 올 심판을 경고하셨으며, 십일조와 죽은 자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가르치셨읍니다. 그는 그의 교회는 반드시 그의 이름으로 불리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회개를 외치셨읍니다.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의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니파이삼서 27 : 20)

이상의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셔서 니파이인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똑같은 가르침을 주님의 교회에서 배우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성공은 극기로 측정됨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극기는 의로운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 목적을 이루어 내기 위한 의지력의 소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큰 태버나클에서 여러 신권 소유자를 마주 대하고, 또한 세계 각처에서 전파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계실 수많은 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읍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며, 그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할 수 있음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전세계에 퍼져 있는 수백만 신권 소유자를 생각해 보면, 크게 감격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미의 지역 대회에 참석했을 때,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등지에서 온 멜기세덱 신권 지도자 1,300여 명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모인 것을 보고 주님께 감사드렸읍니다. 총회에는 브라질에서 5,500명, 아르헨티나에서 10,000여 명이 참석했읍니다.

주님의 사업이 전진해 나아가 그의 왕국이 전세계에 걸쳐 세워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대관장님께서 상파울루에 신전을 지을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회원들이 기뻐하며 열렬히 환호하고 감사를 드린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읍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회원들은 다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했읍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고, 그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며 그들의 간증을 듣는다는 것은 큰 힘이 되며 복음의 진실성을 실제로 간증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내가 베네주엘라의 카라카스에서 겪은 경험을 잠시 이야기하겠읍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구도자들이 함께 모인 어느 저녁 모임에 참석했을 때, 대관장님은 약 500명쯤 참석했노라고 하셨읍니다. 나는 말씀 도중 1974년과 1975년에 침례받은 사람은 일어나 보라고 하고, 다시 '73, '72, '71, '70년에 침례받은 사람도 세어 보았읍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들어온 지 5년 이상되는 사람은 일어나 보라고 했읍니다. 단 세 사람만 일어났을 뿐인데 그들은 이곳을 방문한 회원이었읍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이 지역에서 주님의 사업이 얼마나 급속도로 전진해 나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밤 내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바는, 신권을 소유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큰 특권이라는 것과 우리는 신권을 존중하고 부름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자신이 불멸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여, 그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려 결심하는 것보다 더 큰 목표가 있을 수 없으며, 더 큰 발전도 있을 수 없고 더 큰 기쁨과 만족도 맛볼 수 없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 영생과 승영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며, 주님께서 그의 행동을 기뻐하고 계심을 알고자 하리라는 것도 나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생각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거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정한 목표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같이 바라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자기 수양, 자제심, 극기심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는 몇몇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첫째 가며 가장 훌륭한 승리는 자신을 이겨 내는 것이다. 자아를 이겨 내지 못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비열한 것이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읍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지배는 있을 수 없다." 그는 또 이같이 말을 계속했읍니다. "인간의 가장 눈부신 성공은 극기에서 나오는 것이며, 인생의 돌이킬 수 없는 실패는 자포 자기로 이루어진다. …이 법칙은 영원한 정의의 표현이다.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은 훌륭한 아버지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왕도 이같이 뜻깊은 말을 한 적이 있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 : 32)

극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읍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방향 또는 항로를 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도덕적 표준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지력 즉 배를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품이란 우리가 훌륭한 목표를 향해 우리 자신을 이겨 나가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품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대해 보면 알 수는 있읍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의 찬사를 불러일으키며, 그것이 모자라면 우리는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의지력에 달려 있읍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위대한 결단력을 보여 주었던 개리슨(미국 노예 폐지론자, 1805-1879)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분명하게, 전혀 변명하지 않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분명히 말하겠읍니다!" (윌리암 로이드 개리슨, 리버레이터 연설에서, 1831년 1월 1일)

이 말은 의와 진리의 대열에 들어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

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 : 13—14)

우리가 이에 관하여 생각해 볼 때, 곧바른 길은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짧은 길이며, 돌아가는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고, 목표에 이르는 곧고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성공하고 자아 실현과 성취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제심과 자기 수양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마음속으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수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들어서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과 규정과 극기와 매력이 없는 일을 할 것이 요구되는 곧고 좁은 길에 들어서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승리를 보장해 주며, 우리 목표를 달성케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는 목표를 정하고 빗나가지 않은 길을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좁다는 것은 아주 뜻깊은 말입니다. 우리가 자제심과 자기 부정이 요구되는 곧고 좁은 길을 걸을 때,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흔히 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제약시키고, 구속하고, 한정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를 사슬로 얽어매어 구속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해방시켜 주고, 독립시켜 주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위인들이 올라가서 누리게 되는 영화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네.
옆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한밤중에 일어나 수고한 보람일세.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
"성 어거스틴의 승리"

자연은 결코 부당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나 인간이 힘써 얻은 것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경제적인 면에서 성공하기를 또는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도덕적으로 순결하기를, 종교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 즉 곧고 좁은 길 다시 말해서 명예와 근면과 절제와 순수성과 미덕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공하거나 뛰어나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른이 되어 위대한 성인이 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려서 위대한 소년이 되기를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용기와 힘을 갖고, 자신을 수양시키며 자제심과 극기심을 길러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는 뛰어난 배드민턴 선수인 손자 아이가 있읍니다. 열 여섯 살인 그는 챔피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몇 킬로씩 뛰어 신체를 단련시켜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학교 수업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지혜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건강 규칙도 정확하게 따랐읍니다. 그 점에서 나는 그를 존중합니다.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님께서는 오늘밤에 어디 계시든지, 여러분이 신권을 소유한 위대한 특권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신권을 받아들일 때 신권을 존중하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겠다고 주님과 성약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가며 천하거나 더럽거나 불결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나 성찬식에 참석할 때, 또는 구세주의 크신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을 돌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과연 합당한가, 여러분의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순결한가, 한 주일 동안 합당치 않은 일을 하지나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 내가 어느 성찬식 모임에 참석했을 때, 흰 샤쓰에 타이를 매고 말쑥하고 단정하게 차림을 한 형제들이 성찬을 집행하고 나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척 흐뭇했읍니다. 그들은 시종 경건했읍니다. 나는 그 형제들과 감독을 칭찬해 주고, 성찬이 그같이 경건하게 집행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성찬식은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공경을 표하지 않는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들이 한 주일 동안 옳지 않은 것을 말하고 행동한다면 주님께서도 역시 기뻐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 년 동안 집사직을 지닌 큰 손자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집사로 임명된 이후 일년 동안 일백 퍼센트 짜리가 되었어요." 나는 물었읍니다. "일백 퍼센트 짜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지?" 물론 나는 그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나는 집사로 임명된 이후로 성찬식, 주일학교나 신권회에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어요." 나는 손자를 축하해 주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존, 네가 선교사로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일백 퍼센트 짜리가 된다면, 네 선교사 기금을 대주겠다." 그는 웃음지으며 말했읍니다. "그렇게 해보겠어요."

나는 그가 완전히 약속을 이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는 백 퍼센트 짜리가 되기 위해 무척 노력했읍니다. 나는 그가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두 번인가 자신을 크게 이겨낸 예를 기억하고 있읍니다. 한 번은 그의 숙부가 자기 아이들과 함께 여행가는데 같이 가자고 초청한 일이 있는데 거기서 일요일을 지내야 했읍니다. 존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곳에는 일요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읍니까?" 그곳에 교회가 없다는 말을 듣자,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저는 갈 수가 없는데요. 전 일백 퍼센트 짜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돌아보는 매력적인 여행을 포기했읍니다.

또 한 번은 주말쯤 되어서 다리가 부러진 일이 있었읍니다. 그가 의사에게 제일 먼저 물은 것은 "제가 일요일에 교회를 참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백 퍼센트 짜리가 되어야 해요."라는 말이었읍니다. 물론, 그는 버팀목을 짚고 나왔읍니다.

그는 19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다짐한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일백 퍼센트 짜리가 되었어요." 나는 크게 기쁜 마음으로 그의 선교사 기금을 대어주었읍니다. 이같은 일은 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읍니다. 그가 자신을 단련시키고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하고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 올 일을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읍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가 엄밀하게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담배나 홍차, 커피, 음주, 마약 등은 절대로 삼가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자기가 하는 일에 언제나 정직하며 명예롭고 의

롭게 대하며, 모든 면에서 자신을 단련시켜 주님께 합당한가를 확인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역사하여, 그의 간교한 꾀로 우리의 욕망과 감정과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옳지 못한 일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항시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를 결코 허술하게 생각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나가기 전에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어느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읍니다. 그는 그의 감독이나 선교부장에게 이를 말하지 않았읍니다. 사실, 그는 그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는, 범법과 거짓말을 했다는 죄악감에 사로잡힌 채로 선교사로 나갔읍니다. 그는 주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었읍니다. 결국 그는 그의 선교부장을 찾아가서 잘못을 털어놓았읍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했읍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파문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달게 받겠어요. 다만 주님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 신전 결혼을 위해 또는 우리의 생활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선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 항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어야 하겠읍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담배 한 개피나 커피나 홍차 한 잔이 몸에 해로울 리가 없고, 술 한 잔이 큰 해가 될 수는 없다."

나는 여러분이 첫번째 잔을 들지 않으면, 절대로 두번째도 입에 대지 않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알코올 중독자나 그런 것에 중독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모든 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이나 부름 혹은 직위나 직책에 누구나 다 예임받고 있읍니다.

킴볼 대관장도 어린 소년 시절에는 사도가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읍니다. 사실, 그는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합당하게 되기를 울며 기도하고 거듭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을 당황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지만, 다만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직책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단련과 자제심을 통해서 스스로를 준비한 킴볼 대관장님보다 더 좋은 예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는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경전을 연구하고, 자신을 순결하고 합당하게 지키며, 선교 사업을 위해 돈을 저축하여 스스로를 준비하라고 하셨읍니다.

나는 모든 젊은 분들이 교회의 대관장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이룰 수 있으며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 참석했을 때, 질렛트 면도날 회사의 남미 책임자로 있는 어느 젊은 청년을 만났읍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활하고 신권에서 그가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 왔읍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브리감 영 대학으로 유학을 하여 학생회 회장이 되었읍니다. 졸업 후 그는 미국에 있는 질렛트 회사로 입사하였고 최근에 남미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지역 대회에서 킴볼 대관장님의 말씀을 모두 통역했읍니다.

그는 예언자의 말씀을 통역할 수 있어 정말로 영광스럽다고 나에게 말했읍니다. 그는 복음이 그의 생활에 미친 영향과 또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켜 주었는가를 말했읍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완전히 믿을 수 있고, 선교 사업에서 자신을 대신할 수 있으며, 모든 면에서 신임받을 수 있고,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모세서 1:39) 주님은 신권 소유자인 우리가 그를 도와 복음을 전파하고, 불사불멸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생활하도록 도와 주고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나는 이 부활 주일에 여러분과 온 세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그는 진실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여러분과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어 목숨을 바치셨으며, 우리가 그의 회복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인 생명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자제심과 자기 수양의 원리를 지켜,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에 합당하게 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의롭게 생활해 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975년 10월 대회 말씀

—제 145 반년차 대회 보고—

10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말씀

사랑은 시간을 요한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과 같이, 결코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에 싫증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최근 나의 친구가 유익한 경험 한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읍니다. 이 경험은 그의 어린 아들에게서 얻은 것이었읍니다. 어느 날, 그는 직장에서 돌아와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읍니다. "얘야, 넌 이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이 말에 아들은 "아빠, 절 사랑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저랑 함께 놀아 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그의 아버지가 알아야 할 것을 잘 말해 주었읍니다.

세상에는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개인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편의, 매력, 자극, 충동 또는 정욕 등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것을 표현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지속되지 못하는 단어의 나열에 지나지 않거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적인 감정 이상의 깊은 것이 아니라면, 이 얼마나 헛되며 공허한 것이겠읍니까. 최근에 한 대학생 그룹은 늙은 세대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그들에게 가장 역겹게 들리는 말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제게 알려 주십시오."라는 말이라고 내게 지적해 주었읍니다. 그들은 말보다는 행동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적당한 기간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애기하고 재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동으로 증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진실된 사랑은 시간이 걸립니다. 위대하신 목자께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 :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치라"(요 21 : 16 참조)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랑은 선언이 아닙니다. 사랑은 발표가 아닙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기분도 아닙니다. 사랑은 방편이나 편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의 사랑을 "먹이는 것"과 "지키는 것"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읍니다.

이곳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한 주립 교도소에 감금될 만한 연령을 약간 넘은 한 소년이 있었읍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사랑의 과정에 관해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읍니다. 며칠 전에 받은 그의 감동적인 편지를 보면 그를 현재의 상태에 처하게 만들었던 원인과 그가 받고 있는 고민에 대해 분석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읍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읍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입버릇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온갖 사랑의 표시를 보이려고 하셨지요. 그러나 저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너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혀 성가신 일을 하도록 강요받은 일이 없었고, 도덕적인 교육과 영적인 훈련을 전혀 받아 본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는 나의 부모가 지지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읍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한 이 친구로부터 받은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너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읍니다." 여기서 내가 그를 친구라고 일컫는 것은 그가 나에게 이와 같은 도움이 되는 말을 주었기 때문이며 나는 이 말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대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먹이는 것과 지키는 것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가 가족들을 위해 식료품을 적당히 공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수년 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로부터 보호해 주는 지붕을 머리 위에 가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나는 이 청년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은 음식을 공급해 주는 이상의 것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빵만으로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읍니다. 먹인다는 것은 사랑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육체적, 도덕적, 영적, 정신적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기강과 모범과 관심이 서로 잘 어울린 사랑과 사려깊음과 친절의 과정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사방에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음의 명귀를 항상 상기할 필요가 있읍니다. "하나의 집을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삶과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요 21 : 14—17)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먹여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하루의 일을 계획하면서 혹은 재미와 오락과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생각을 나누면서 발전과 의견과 계획의 영향을 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이러한 요소는 오직 사랑하고 염려해 주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시련의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 동정과 위안을 베풀러 갔다가 오히려 유가족의 신앙과 신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온 적이 있읍니까? 우리들이 지키고 먹이는 일에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확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사랑과 위안의 말은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읍니다. 만약 우리들이 끊임없는 도움과 희생으로써 돌본다면 우리의 이웃과 가족은 우리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생명 그 자체와 같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끊임없이 먹이고 지키고 돌보는 데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의 자녀들을 알고 있으니 선을 행함에 지칠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지 말로써만 사랑을 표시하는 일에 지쳐 있을 것이 틀림없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하셨읍니다. 그의 방법은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만 봉사하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며 양을 먹이는 정도에 따라 그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나타납니다.

시간시간, 매일매일, 매달매달 서로를 사랑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의 드물지 않은 예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예를 드물지 않은 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행동화된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어느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미망인에게는 13, 14세 되는 아들부터 선교사 연령의 아들까지 세 아들이 있었읍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을 모범과 고된 노동으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계를 꾸려 나갔으며, 가족들을 격려하고 단합하게 했읍니다. 먹이는 과정과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녀는 세 자녀를 위대한 선교사로, 학생으로, 남편으로 성장하게 했읍니다. 최근에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시간을 들여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 주셨읍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들이 고등 교육을 추구하고 그들 자신의 가족을 갖기 위하여 계속 발전하는 동안 오늘날까지도 진정한 사랑의 과정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지방 건설업자의 기술과 태도에 놀랐던 적이 있었읍니다. 완전을 향한 그의 소망과 일에 대한 그의 긍지가 나로 하여금 그에게 말을 걸게 하였고, 그리하여 그와 친해지게 되었읍니다. 그는 젊은 청년이었을 때 여러 명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혼자의 힘으로 부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그의 정규 교육 기간은 8년뿐이었읍니다. 그의 동생들이 그들 자신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자 그는 결혼했읍니다. 결혼 후 일 년이 지나자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심한 만성 질병으로 고생하기 시작하여 25년 동안을 앓는 사이에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갔읍니다. 그는 그녀와 그의 두 아들을 사랑했읍니다. 여러 번의 수술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으나 그는 열심히 일했으며, 무조건 돌보고 사랑했읍니다. 나는 그를 방문한 후 내가 정말 훌륭한 분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정말, 사랑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비극이나 위기에 닥친 사람들이 그것에 동요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의 기본 원리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얼마나 기쁩니까? 일상 생활에서의 예의와 깊은 사고와 친절은 진정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아버지는 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 자연의 비밀을 발견하기도 하며, 아버지가 할 모든 일을 아들 자신에게 해볼 기회를 주고 있읍니다. 또한 딸들에게 빵을 굽고 요리하는 법을 재미있게 가르치는 어머니들도 많이 있읍니다. 또한 아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그들과 함께 읽음으로써, 독서를 좋아하도록 가르치는 어머니가 있읍니다. 어떤 형은 동생에게 우표 수집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어떤 누나는 남동생에게 말씀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부가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들은 아마 "너무 하찮은 것이며, 너무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먹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이며 기쁨과 행복을 결과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 선수들에게서 승리 이상의 것을 원하는 야구 코치,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 또는 딸에게 그들이 찾아와서 의논할 마음이 생길 때 기꺼이 응해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부모, 학교 임원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계획을 세우는 동생을 돕고 있는 언니, 여행을 떠나기 위해 서로 돕고 있는 가족이 그러한 예가 되겠읍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사람과 결혼하기 위하여 자신을 "특별한" 여인으로 지키면서 한 선교사에게 정규적으로 격려의

편지를 보낸 어느 여대생에게서 또 다른 사랑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또한 매일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교훈을 가르치신 아버지의 모범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읍니다. 자주 계속되는 일들, 즉 접시 닦는 일, 번갈아가며 아기를 침대에 재우는 일 등을 돕는 것은 불충분하지만 행동이 따르므로 헛소리가 되어 버린 달콤한 표현보다는 더욱 진정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진실로 사랑을 이해하는 자들은, 사랑이란 근본적으로 단순하고, 계속적이고 성실한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가정이나, 이웃이나, 선교사의 임지나, 사회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일 기회는 참으로 많이 있읍니다. 우리들 중 몇몇 사람들은 가족 중 누군가가 실망하거나, 배반하거나 실패하게 될 때 사랑의 과정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거의 없을 때야말로 가장 사랑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사랑은 협박이나 정죄나, 실망의 표시나 보복에서 적절하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인내와 협조와 끊임없는 일의 수행을 요구합니다. 저는 35년 이상을 완전히 비활동적이었다가 이제는 나의 가정 복음 교육 교사로서 나를 "먹이고 있는" 한 수련 장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존, 어떻게 교회로 되돌아왔지 ?"라고 내가 물었읍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오늘 저녁 나와 함께 앉아 있는 복음 교육 동반자가 나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끈덕지게 '졸라대는' 통에 이렇게 됐네." 존은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에 열중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 두 분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어린 아들이거나, 죄수이거나, 아버지이거나, 딸이거나, 낯선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란 선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며 또한 그 이상의 것을 받을 만합니다. 우리들은 사랑을 적당한 행동으로 실행할 것을 결심해야 하겠읍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말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먹이고, 지키고, 계속함으로써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읍니다.

의미있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모든 자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계속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친구, 낯선 사람, 예언자와 하나님께, 사랑의 선언을 일상생활에서 실지로 보여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사랑이란 하나님과 인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계속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이는 것, 지키는 것, 돌보는 것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었으며, 인도되고 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금요일 오후 모임 말씀

전세계에 고하는 경고의 말씀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진멸당하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모든 백성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단 위에 섰읍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일에 그의 복음을 회복하시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읍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아, 높은 데 거하여 모든 사람을 굽어 보시는 이의 음성이 말하노라.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교리와 성약 1 : 1—2, 4)

오늘 나는 온 세상의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을 받은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경고와 간증의 말로 교리를 잠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십이사도 평의회를 구성하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온 세상 사람 앞에서 간증하고 온 세상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똑같은 책임이 있읍니다.

이 지상에서의 성역을 끝낼 무렵에 주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이제 너는 나의 복음…을 즉시 엄숙하게 선포하라… 세상의 네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과… 널리 흩어진 세상의 모든 국민에게 향하여 선포할지어다."(교성 124 : 2—3) 그는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야 했고, 그들과 함께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했읍니다.

1845년 4월 6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것과 똑같은 심적 상태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그의 형 하이람과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피를 흘린 후, 곧 십이사도 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읍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했읍니다.

"세상의 모든 왕에게,
미합중국의 대통령 각하에게,
여러 주의 지사에게,
그리고 모든 국가의 통치자와 국민에게 고함 : "

그들은 그 선언문에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대는 아는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왔음을, 고대 예언자가 예언하고 예나 이제나 기도하였던 바와 같이 하나님 왕국이 온 지상을 채우고 영원히 서리라는 것을.

"위대한 엘로힘은… 다시 한 번 기뻐하며 하늘에서 말씀하셨으며, 시현을 보여 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가르침으로써 기쁘게 지상의 인간과 교통하셨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위대하고 영원한 대신권과 사도의 직분이 회복되었읍니다.

"이 대신권과 사도의 직분이란 하나님 왕국의 열쇠와,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지상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가졌읍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관리, 의식, 조직, 행정 등에 관한 모든 것을 수행할 권세가 있읍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여러 예언자들이 말했던 모든 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또 인자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말일에 일으켜 세워졌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재림이 가까왔음을 간증합니다. 이제부터 머지 않은 미래에 모든 백성과 통치자는 영광과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구세주를 볼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절대자 앞에서의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회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한 심령과 죄를 깊이 뉘우친 마음으로 예수께 와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 침례를 받으십시오. (침례란 땅에 묻힘같이 물 안에 묻히어, 부활처럼 새로운 생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비의 위대한 마지막 경륜인 성신의 은사를 사도와 장로의 안수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에게 우리 간증이 진실함을 간증해 주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주어, 예언과 계시의 영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이해와 기억에서 사라진 것들을 돌이켜 오게 하여 앞으로 있을 일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의식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성령의 빛과 신성한 사도의 직분과 신권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은 이해의 눈이 밝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피해, 인자 앞에 설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술한 교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요 복음임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하고 영원하며 불변의 복음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상에 계시된 유일한 계획임을 간증합니다."(대관장단 메시지 1 : 25, 2—54)

우리는 이 선언문에 선포된 위대한 진리를 재확인하고 다시금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의 국민과 통치자에게 우리는 엄숙하게 다시 선언하거니와 하나님 아버지가 지상에 말일의 왕국을 세우시고 예언을 성취하셨읍니다. 천사가 다시 지상의 인간과 교통하였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친히 나타나시어 그의 자녀들이 승영에 이를 수 있도록 필요한 신성한 의식을 행할 권능, 즉 신권을 지상에 회복시키셨읍니다. 그의 교회는 고대인이 가졌던 영적 은사를 가진 채 다시 백성들 가운데서 세워졌읍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무서운 날이 가까왔읍니다. 이 큰 날을 예비하고 또 내리닥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영감의 말씀은 예로부터 지금도 땅 위의 온 백성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온 국가에 간증과 경고를 주고 있읍니다.

땅 위의 나라들은 죄많고 불의한 길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인간의 무한한 지식은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사람의 자녀를 축복하는 데에 사용되는 대신 파멸하는 데 사용되고 있읍니다. 평화를 계속하려는 노력도 헛되이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인간의 사악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지상에서 없어졌다는 엄숙한 증거가 되었읍니다. 죄 안에서 국가는 존립할 수가 없고 붕괴되고 말 것이나 오직 하나님 왕국만은 영원히 존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서 우리는 여러 국가의 지도자에게 말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그의 영감과 인도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통치자와 국민이 다 함께 그릇의 악한 길을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의 용서를 구하고, 그의 왕국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읍니다. 이렇게 하면 죄는 씻기고, 마음의 화평을 얻게 되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영감받은 하나님의 사자의 간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거절한다면 악인에게 언약된 무서운 심판과 재난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로우심으로 그것을 피하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읍니다. 그의 종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집니다. 만약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멸망의 천사가 그 힘을 뻗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벌의 손이 이들 백성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 황폐, 무수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통치자와 국민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악한 길에서 되돌아서지 않을진대 마지막 대전쟁보다 더 무섭고 더 강력한 파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적 부도덕, 비밀 살인 결사단, 낙태, 계명과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에 대하여 엄한 벌을 내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죄 안에서 견딜 수는 없읍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명백합니다.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 나라에서 확고하게 남아 있읍니다. 사람과 국가가 그 율법대로 살기를 거부하면 징벌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들은 씻기워 버려질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경고의 말씀에는 항상 간증이 함께 따르게 됩니다. 1845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선포한 위대한 선언문에도 간증이 밝혀졌으며, 오늘날의 사도인 우리들도 그것을 우리의 간증으로 새롭게 합니다.

"살거나 죽거나, 속박의 몸이 되거나 자유의 몸이 되거나, 우리는 말하노니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은 대신권과 사도직과 하늘 나라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어, 고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읍니다.—우리는 이를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은 아메리카 민족의 기원과 기록,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운명을 계시하셨읍니다.—우리는 이를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과 그에 따른

은사와 축복과 의식을 계시하셨읍니다.—우리는 이를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로 이방인에게,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잔류민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명하셨읍니다.—우리는 이를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진리를 알지 않으며… 모든 살인, 거짓, 오만함,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 매춘, 음란 등을 버리지 않는다면 지상에서 소멸되어 지옥으로 던지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우리는 이를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복음이 간증으로 모든 국민에게 전파될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예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 년 동안 이 지상을 통치하시리라고 말씀하셨읍니다.—우리는 이를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는 영광 속에 오셔서 악인들을 멸하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셨읍니다.—우리는 이를 알고 있읍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우리는 만백성에게 말하거니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받고 진리를 알고 이스라엘 지파로 헤아려질 것입니다."(대관장단 메시지 1 : 263—64)

마지막으로 나의 간증을 드리겠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시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의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두 축복해 주시고 싶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맏형이시며, 바로 세상의 창조자요, 구세주이심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상에 그의 나라를 세우시며 그 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지상을 통치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의 왕으로 임하게 되실 것을 알고 있읍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으로 하늘로부터 나타나시어 요셉 스미스에게 왕국—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을 세우도록 부름을 주셨읍니다. 그가 이 사업을 성취하였고, 기초를 놓았으며, 말일의 위대한 사업을 계속할 열쇠와 능력을 교회에 주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비록 진리의 순교자로서 살해되었으나 아직도 모든 복음의 경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 말일의 경륜의 머리되시는 분으로 영원히 살아 있음을 알고 있읍니다. 그는 앞서의 모든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오늘날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나는 그 권능을 느끼고 있읍니다.

나는 대관장단과 다른 총관리 역원들이 그들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과 자녀들의 승영에 두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모두에게 닥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읍니다.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내가 궁극에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든 사람과 함께 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일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간증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모든 사람이 이에 유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말씀

악에 맞섬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악에 대항하고 고상한 성품을 증진시키기 위한 네 가지 계획

이 연단에 서서 말씀드리는 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성신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최근에 청년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읍니다. 그는 용모가 수려하고 훌륭한 학생이었으며 태도도 품위있었는데, 내적으로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읍니다. 그는 오랫동안 비도덕적인 생활에 몰두해 왔으나 지금은 그 점에 대해서 무척 의문을 갖게 되었읍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겼읍니까?"라고 나는 물었읍니다.

그는 새끼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여주었읍니다. 그가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 준 그 반지는 다이아몬드 반지였는데 금으로 가장자리를 아름답게 장식한 것이었읍니다. "이 반지는 할아버지 반지입니다."라고 그가 말했읍니다. "할아버지가 늙으시자, 장남이었던 아버지에게 물려 주셨고 다시 그것을 아버지께서 장남인 저에게 주셨읍니다. 어느 날 이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제 친구가 이렇게 물었읍니다. '너는 그 반지를 누구에게 물려 주려고 하니? 아마 물려 줄 사람이 없으니 네가 마지막 임자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동요를 느꼈읍니다."라고 그가 계속해서 말했읍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읍니다. '나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라고 자문했읍니다. 빛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읍니다. 저는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읍니다."

우리는 그를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환경과 그가 자라난 가정과 그가 사귀는 친구들과 그가 읽는 책이나 잡지와, 그가 보는 영화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읍니다. 그는 자기와 비슷하거나 더 나쁜 환경에 처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말했읍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집으로 걸어오면서 저는 현재의 생활 태도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 조부의 반지를 물려 줄 자신의 아들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 그 청년의 불쌍한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읍니다. 그는 미

래에 대한 암담함을 느꼈기 때문에 도움을 호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나는 아직 읽지 않은 조간 신문을 집어들었읍니다. 죽 읽어 내려가다가 영화 광고가 눈에 띄었는데 그 대부분은 퇴폐적이고 폭력과 성을 유발시키는 공공연한 장면을 싣고 있었읍니다.

내게 도달된 우편물 중에서 다음 주 텔레비전 프로를 실은 조그마한 잡지를 보았는데 대부분이 영화 광고와 똑같은 목적으로 마련된 쇼의 제목이 눈에 띄었읍니다. 그밖에도 새로 발간된 잡지가 나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읍니다. 그 특집물은 1963년부터 1973년 사이에 인구 증가율이 11퍼센트인데 반하여 폭력 범죄가 놀랍게도 174퍼센트가 증가한 것을 그래프로 표시함으로써 급증하는 범죄율을 특별히 다루고 있었읍니다. 그 기사에는 경찰력을 증가시키고 감옥을 보다 확대하는 데 수십억 불을 투입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었읍니다. 지금 음화가 범람하고 성과 폭력이 과도히 강조되고 있는 현상은 비단 이 나라에만 특유한 것은 아닙니다. 유럽과 그 외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생에 관하여 덴마아크에서 제작한 음탕하고 에로틱하며 불경스러운 영화가 뉴스거리가 되고 있읍니다. 이 모든 암담한 현상은 사회 조직 자체의 부패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러한 물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읍니다. 도덕적 문란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국회의 입법과 입법부가 제정한 사법부의 견해의 변천에 의해 점차 폐지되고 있읍니다. 이런 일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소위 말하는 사생활에 있어서의 선택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행하여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위 이와 같은 자유는 파멸로 이끄는 타락된 행동과 습관에 사로잡히게 하는 슬픈 결과만을 초래해 왔읍니다. 오래 전에 어느 예언자는 그 과정을 이와 같이 적절하게 표시했읍니다.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니이 28 : 21)

반면에 세계 방방 곡곡에 훌륭한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대체로 남편은 아내에게 충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충실합니다. 자녀들은 온건, 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서 키워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세상에 희망이 없지는 않다고 믿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폭력과 추악함이 우리를 압도하게 하거나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지금 힘차게 일하고 있는 의로운 소수의 힘에다가 내가 언급한 사실들이 충분히 힘을 합친다면 악의 파도가 아무리 높고 거세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읍니다. 시민으로서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은 이러한 악과 맞서는 싸움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작이 있다면 지금 그 시작을 합시다.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네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합시다. 세계의 개혁은 자신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개조에도 이러한 기본 개념이 담겨 있읍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13조)

우리가 덕있는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유덕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읍니다. 실제의 생활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일삼기 쉬운 설교에 치중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읍니다. 우리 자신이 더 높은 단계에 서 있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끌어올릴 수 없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은 덕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위대하고 신적인 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추하고 음란한 요소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닦아 나갈 수 있읍니다. 앨마는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라." (앨 37 : 47)고 말했읍니다. 주님께서 산상에서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은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 : 8)

어느 현자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스스로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인이 한 사람 줄어드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의 인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설득력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 자신에게 참되시오. 그러면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될 수 없을 것입니다."(햄릿 1막 3장 78—80)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음란한 생각을 정화시키고 덕있는 행동을 모범으로 보이며, 순화되고 향상되는 말만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훌륭한 미래는 훌륭한 세대를 키움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이행할 책임이 부모에게 놓여 있읍니다. 가정은 덕이 싹트는 요람이며, 성품이 형성되고 습관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가정의 밤은 주님의 길을 가르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독서를 할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잡지, 신문 등을 읽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책을 읽는 취미를 갖게 하십시오. 자녀가 어렸을 때에 위대한 이야기를 읽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영원토록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좋은 책을 보이십시오. 아무리 작더라도 집안 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하여 자녀들에게 위대한 마음을 키워 주는 양서를 몇 권 놓아 두십시오.

교회에서 발간한 잡지를 집안에 놓아 두면 자녀가 기품있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전면에 온통 인격을 저하시키는 광고나 기사가 없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알리는 질 좋은 가족 신문을 자녀에게 읽히십시오. 극장에서 좋은 연극이나 영화를 상연하면 가족이 함께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오락물을 제작하려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결과도 가져 옵니다. 생활을 재미있고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유력한 대중 전달 매체인 텔레비전도 이용하십시오. 텔레비전은 좋은 프로가 매우 많지만 역시 선택해서 시청해야 합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어제 텔레비전 프로 구성에 관하여, 중요한 저녁 시간에는 적합한 가족 오락물을 방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좋은 프로에 대한 여러분의 갈채와, 나쁜 프로에 대한 불만을 깨닫게 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요청하는 일조차 소홀히 하며 더구나 좋은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점입니다.

집안에서 음악이 들리게 하십시오. 십대 자녀가 음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여러분은 그들의 음악은 아예 음악도 아닌 어떤 것으로 간주해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종종 더 좋은 음악을 들려주십시오. 그들이 훌륭한 음악을 감상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로써가 아니라 느낌으로 알게 될 것이며 그 영향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세째는, "사회의 여론은 소수의 진지한 사람의 주장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국회 의원의 면전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도전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신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진지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리의 확신을 표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슬픈 사실은 보다 많은 자유를 부르짖고 음화에 탐닉하며 음탕한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을 활발히 표현한 결과 결국은 입법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다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믿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표현합시다. 커다란 목소리가 아니라 진지한 노력과 강한 느낌을 알리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감동깊게 쓴 편지나 우표 한 장으로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는 수도 있읍니다. 때로는 중책을 맡은 사람과 조용히 대화를 나눔으로써 훌륭한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읍니다. "그런고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적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 (교성 64 : 33—34)

무슨 일에든지 요점이 되는 것은,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세로, 학교의 행정 책임을 맡은 분이나, 시, 도, 중앙 정부의 관리나, 법률과 법령과 규칙을 제정하는 분들에게 건의하십시오. 물론 문을 쾅 닫아 버리거나 비웃어 버리는이도 있을 것입니다. 실망하기가 일쑤입니다. 늘 그런 일은 있었읍니다. 1783년에 에드먼드 버크는 하원에서 연설 중에 인기 없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읍니다.

"그는 자기 길목 여기저기에 어떤 덫이 놓여 있는지 알고 있읍니다. 그는 자기가 제안한 의제 때문에 중상 모략을 당했읍니다. 참된 영광을 구성하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는 욕설과 비방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할것입니다. 그는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비방과 비난만이 최후 승리를 얻는데 필요하다는 것을."('존 에프 케네디'서 문에서 인용, "용기있는 인물들", 뉴욕 : 하퍼 및 로우 저, 1664년, 18페이지)

사도 바울은 아그립바왕 앞에서 항거할 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과 기적적으로 나눈 대화 중에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일어나 네 발로 서라"고 명령하신 것을 말한 적이 있읍니다. (행 26 : 16)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네 발로 서서 참됨, 선함, 품위, 덕성을 옹호하라" 고 말씀하는 듯합니다.

마지막 네번째 요소는 "싸울 힘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데서 비롯된다." 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참된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읍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 6 : 10—13)

형제 자매 여러분, 악의 조류가 범람하고 있읍니다. 그 조류는 점점 홍수가 되어 가고 있읍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세파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잘 모르고 있읍니다. 수십억 달라가 춘화나, 음란한 것을 취급하는 사람, 성과 폭력에 도착된 사람, 비정상적 성욕을 다루는 사람에게 투여되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류에 대항하여 서서 외칠 시민이 될 용기와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과거에 이러한 용기를 실천한 백성과 국가는 튼튼하여졌으며, 소홀한 쪽은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며 우리의 조력자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함에 따라] 선한 남녀의 무리가 우리의 편이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 그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 말씀

태버나클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일 세기가 넘는 이 건물은 우리 다음의 세대에 우리의 의무를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많은 회중이 자리를 하고 있는 이 템플 스퀘어의 몰몬 태버나클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라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 건물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헌당된 때로부터 100년이 되어 두번째의 세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건물은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서부 횡단로"에서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과 올갠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을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고 보았읍니다. 이번 대회는 1875년 10월에 최초로 가졌던 대회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대회이며, 그 대회에서 바로 100년 전 어제 태버나클이 헌납된 것입니다. 이 건물을 건축할 때 참여했던 초기 개척자들의 수고와 노동과 세상적인 물질의 희생은

이곳에 오거나 음악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었읍니다. 이 건물을 짓던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미시시피 강둑에서 정든 집을 남겨 두고 떠나는 초기 개척자들은 서부에 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읍니다. 미국의 대광야를 가로질러 길고도 험난한 여행 끝에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가게 된 때는 1847년 7월 24일 토요일이었읍니다.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계곡과 주변 마을을 탐색하는 데 시간을 보냈읍니다. 다음날 오후 늦게 가 되어서야 도시의 위치가 정해졌으며 브리감 영은 신전이 세워질 곳에 그의 지팡이를 땅에 꽂으셨읍니다.

목요일, 뉴멕시코에서 해체되었던 몰몬 대대의 일부 그룹 약 400명이 계곡에 들어와 성도들과 합쳤읍니다. 이들은 곧 신전 부지의 남동쪽 모퉁이에 모임 장소로 "정자"를 짓기 시작했읍니다. 이것이 바로 태버나클의 전신인 것이었읍니다. 산에서부터 기둥을 깎아 내어 옮겨다가 세우고, 잎이 많은 나뭇 가지를 올려 지붕을 만들었읍니다. 계곡에 지은 최초의 이 건물은 그들이 도착한 날로부터 1주일이 되던 토요일에 완성되었읍니다.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정자의 그늘 아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읍니다.

이 정자는 물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초기 개척자들이 이 정자를 2년 동안이나 사용하다가, 같은 장소에 좀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하여 정자를 허물게 되었읍니다. 두번째로 지은 정자의 지붕은 나뭇 가지를 진흙으로 이겨서 만든 것으로, 일백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었으며, 첫번째 지은 정자와 마찬가지로 벽은 없었읍니다. 좋은 날씨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자는 3년 동안 집회소로 사용되었읍니다.

이즈음에, 성도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세우기 시작하고 있었읍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고, 집을 지었읍니다. 그들은 모임을 갖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하였읍니다. 보다 영구적이며, 모든 종류의 일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들은 태버나클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읍니다. 건물의 측면은 어도우비 벽돌로 트러스 구형 지붕을 받쳐 주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자에서 그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기둥이 필요없게 되었읍니다.

후에 올드 태버나클이라고 알려진 이 어도우비 태버나클을 건축하는 데에는 1년이 걸렸으나, 1852년 대회는 이곳에서 가질 수 있었읍니다. 성도들이 점차로 계곡으로 모이게 되자 대회가 되면 이 건물은 충분히 크다고 볼 수가 없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입장할 수도 없게 되었읍니다. 2년 후 4월 대회에서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넘치도록 많이 모인 성도들 7천 명을 야외로 인도하여 대회를 가졌읍니다. 그해 10월 대회가 있기 전에 세번째 정자가 세워져서 대회 참석인을 모두 수용할 수 있었읍니다.

적합한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새로운 태버나클 건축 설계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셨으며, 이것이 곧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태버나클인 것입니다. 초기 개척자들이 이 황량한 계곡에 도착한 지 겨우 15년밖에 안되었을 때입니다. 1863년 4월 대회에서 많은 연사는 건축 예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성도는 모두 이 건물을 짓기 위하여 금전으로나 노동으로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건축 자재는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운반할 수 있는 철로도 없는 개척 시대의 사람들로서 이와 같은 방대한 건축은 모험이나 다름이 없었읍니다. 수입해 들여오는 자재는 무엇이고 전부 미주우리 강에서부터 황소로 운반해 와야 했읍니다. 십일조는 이미 10년 전부터 공사가 진행중이었던 신전 건축에 모두 충당되었기 때문에 이 태버나클 건축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성도들이 내는 헌금에 의존해야 했읍니다. 성도들은 자유 의사대로 자기의 소유품—보석, 건축 자재, 빵, 노동, 현금—을 바쳤읍니다.

이 건물은 길이 약 76미터, 너비 약 45미터에, 양끝은 반원형을 이루며, 46개의 외부 기둥(피어)이 지붕을 지탱해 주도록 설계되었읍니다. 높이 약 7미터의 외부 기둥 끝으로부터 타원형 지붕 꼭대기까지의 높이는 약 13미터가 되므로, 건물 전체의 높이는 20미터가 되었읍니다. 바닥은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가 약 5미터 가량 차이가 나도록 경사를 이루게 하여 시야의 지장을 덜도록 설계되었읍니다. 이 건물을 설계하고 공사하는 그 당시에는 내부 기둥이 없는 건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읍니다.

1863년 봄부터 건축 공사가 착공되었읍니다. 더글라스 요새의 후방에 위치한 산의 레드버트 캐년에서 크고 붉은 사암을 채석하였으며, 대부분의 재목은 와사치 산맥의 소나무 숲에서 벌목하여 빅커튼우드 캐년의 목공소에서 켠 것이었읍니다. 태버나클의 중앙부가 제일 먼저 지어졌으며, 다음에는 서쪽 만곡부가 첨가되어, 내부 기관의 공사와 설치 공사가 시작되었읍니다.

볼트, 못, 철근 등이 그 당시에는 없었읍니다. 재목을 올려 놓으려면 보에 구멍을 파고 맞춤못을 구멍 속으로 끼워 맞추어 놓아야 했읍니다. 끝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부분은 쐐기로 단단하게 조여야 했읍니다. 재목이 잘라지면 푸른 생가죽으로 단단히 묶어 재목이 마르면서 바이스처럼 단단히 결합되게 하였읍니다.

방대한 파이프 올갠을 만든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최초로 이 올갠을 연주했을 때, 장정 5명이 한 조를 이루어 올갠 바람통에 펌프질을 했읍니다. 그러던 것이 조금 후에는 지하실에 물레바퀴를 장치하여 인력을 대신하게 되었읍니다. 결국 전기가 들어옴에 따라 전력이 이러한 바람통을 대신 움직이게 되었읍니다. 건물이 완공되자 좌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측면과 후측으로 이중층을 만들어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마련하게 되었읍니다.

그 후 여러 가지 모임과 대회를 이 건물에서 갖간 하였으나, 이 건물이 헌납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875년 10월 대회에서였읍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철도가 개통되어 있었으며, 유타 지방을 방문한 최초의 미합중국 대통령, 율리시즈 에스 그랜트 대통령은 성조기와 만국기로 장식한 특별호를 타고 일요일에 도착하셨읍니다.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은 정거장에서부터 워커 하우스까지 줄을 지어 서 있었으며, 그 뒤로는 수많은 시민들이 대통령과 그를 경호하는 긴 대열을 보기 위해서 인산 인해를 이루었읍니다. 신문은 솔트레이크시티의 주민을 약 2만 5천 명으로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주민에 비례하여 볼 때, 공공 종교 의식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건물의 수는 미국내 다른 어느 도시나 마을에서 볼 수 없었던 많은 수였다. 교회와 집회소의 총좌석 수는 아마도 이 지역의 남녀 노소 모든 주민

을 앉히고도 남을 충분한 수로 추측이 된다."(솔트레이크 헤랄드지, 1875년 10월 3일, 6 : 102)

다음날 아침 그랜트 대통령은 주지사 에머리와 함께 템플 블록으로 가서 새로이 완공된 태버나클을 돌아보셨읍니다.

토요일 일반 총회 오전 모임을 시작하면서,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존 테일러 장로가 헌납 기도를 드린다고 발표하셨읍니다. 헌납 기도문 전문을 읽어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일부만 읽어 드리겠읍니다 : "당신의 고대 성약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정하신 그 때에 저들이 감사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고, 당신께서 저들을 흩어 놓으신 열방의 국가에서부터 저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이 저들의 조상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구세주를 알게 하여 주시오며, 예루살렘이 주님의 왕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덧붙이셨읍니다 :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길에서 떨어져 방황하는 레이맨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저들의 조상에게 그들의 자손과 성약을 새로이 하겠노라고 약속하시지 아니하셨읍니까? 당신께서 저들에게 꿈과 시현을 보여 주시어 당신을 알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데저렛 뉴스, 24 : 594)

오후 모임에서 조지 큐 캐넌 장로는 가정과 가족을 떠나 선교사로서 세상에 나아갈 사람들의 명단을 불렀읍니다. 105명이었읍니다. 그 당시에는 대회에서 태버나클 연단에서 이름을 부름으로써 선교사의 부름을 받게 되었읍니다. 후에 선교사의 수가 늘어나게 되자 방법이 바뀌어져서 대관장님과의 최종 연락이 있은 후에 부름을 주게 되었읍니다. 만일 종전대로 연차 대회에서 이름을 부름으로써 선교사의 부름을 주게 된다면, 바로 이 대회에서는 7,623명의 이름을 불러야 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3일간의 총대회 시간 중 절반은 이름을 부르는 시간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6개월 전에 가졌던 연차 대회 이래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바로 7,623명입니다. 아마 이곳에 모인 회중의 수와 거의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지 큐 캐넌 장로는 이 건물이 완성된 후, 그러나 아직 헌납되지 않았을 때, 바로 이 연단에서 선교 사업에 관하여 말씀하셨읍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대관장님의 말씀에서 되살아나고 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주민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과 앞으로 역사하실 일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백 명의 장로들이 동부 여러 주로 선교 사업을 떠났읍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장로들은 유럽, 서부, 태평양 군도, 아시아, 아프리카로 가며, 온 세상의 전역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의 수백만 인구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선포한 이 복음의 소리가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날이 가까왔으니, 이는 모든 만국으로 증인처럼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생활 환경은 달라질지 모르나, 회복된 복음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으며, 진리는 영원히 불변합니다. 먼저 가신 분들의 노고와 희생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었으며, 우리도 우리의 후세에게 축복을 전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워 주었읍니다. 이 건물은 우리의 의무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입니다. 이 건물은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태버나클의 정문으로 들어왔던 사람과 이곳에서 나가는 음악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를 통해 듣게 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왔읍니다. 오랫동안 우리 선교사들은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읍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참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훌륭한 직업을 준비하라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개인적으로 올바른 직업을 얻기 위한 네 가지 단계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시대의 도전에 맞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와드와 교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훌륭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준비에 관한 여러 말씀 중 브라운 감독과 그의 두 보좌가 가족 준비라는 토론에서 설명한 직업과 경력 개발에 관해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며 지도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타락 후 아담에게 주어진 최초로 기록된 지시는 일에 관한 영원한 원칙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있는 일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창 3 : 19)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완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하라는 계명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안일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서보다 열심히 일하는 자운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발전하며,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봉사하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획에서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읍니다. 첫째, 우리는 성약의 백성으로서 가능하면 자급 자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업 수당이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존해서도 안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은 누구나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잃은 많은 어머니는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벌이를 해야 하며 동시에 아버지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들은 주님의 사업에 봉사할 시간과 정력을 갖기 위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일해야 합니다. 자기의 직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는 교회 봉사에도 가장 기꺼이 시간을 바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히 직업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직업은 훌륭하고 의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우리는 취미와 적성과 훈련에 알맞은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직장이란 충분한 수입을 벌어 들이는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하며 매일매일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훌륭한 직업"의 정의를 내려 보겠읍니다. 훌륭한 직업이란 정직한 직업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며 사기나, 기만이나, 속임수가 없으며, 그 생산품과 봉사는 질적으로 우수하며 고용주와 고객과 고용인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훌륭한 직업이란 도덕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공의 이익이나 도덕을 해치는 요소가 없읍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술이나 마약을 거래하지 않으며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직업이란 유용한 직업입니다.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상품이나 봉사를 제공해 줍니다. 훌륭한 직업이란 또한 보수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자립하고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가정에서 훌륭한 아버지가 되며 교회에서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충분한 수입"이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 몇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세계입니다. 그러나 말일성도들은 사치품과 생활 필수품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우리들을 구세주의 복음에 완전히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방종된 사치를 원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돕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고려해야 할 올바른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4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중대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며, 둘째, 미리 세심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세째, 모든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며, 네째, 적절한 직업 또는 교육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인 기도는 전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자료를 모으고 결정하고 적절한 훈련과 경험을 쌓고 직업을 구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기도하는 자세로써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직업을 위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두번째 단계입니다. 젊은이들이 계획을 빨리 세우기 시작하면 할수록 그 직업에 대한 기술을 더 빨리 습득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장차 그들의 직업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할 책임이 있읍니다. 물론 부모는 지혜를 활용하여 자녀들이 그들의 직업을 선택할 때 그들을 강압하기 보다는 세심한 조언을 주어야만 합니다.

세째 단계로 자료를 수집할 때 많은 사람들에 관한 것과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청소년과 부모는 와드 복지 사업 고용 전문가나 학교의 직업 상담 교사와 기타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주와의 접견, 공장 견학, 여러 종류 직장에서 실습을 해보는 이러한 것은 직업 선택의 전망을 크게 넓혀 줄 것입니다.

효과적인 자료 수집에는 현재 요구되고 있는 직종은 무엇이며 앞으로 가장 유망한 직종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조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학에 들어가 직장을 구하기 힘든 그러한 직업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자들 외에 우리는 목수, 농부, 자동차 기술자 등 여러 가지로 기능을 가진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젊은이들은 그 선택이 올바르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열성을 다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교육이 기술 교육이든 대학 교육이든 상업 학교이든 간에 공인된 직업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훌륭한 직장과 높은 소득은 충분히 준비한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생활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줄 만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면 어떤 직장이든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 초기에 있었던 경제 공황 때 많이 있었읍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직장에서만 그들은 일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 전적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계획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여 직업을 바꾸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저는 신권 정원회의 책임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을 때 신속하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자들은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그러한 정보를 얻고 즉시 응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와드 복지 봉사 위원회와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정원회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읍니다. 모집과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계속 입수하는 것은 신권 조직을 통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정원회는 직장을 원하는 자나 더 훌륭한 직장을 원하는 자들을 파악해 두고 회원들이 직업을 얻을 기회를 갖도록 그들이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각 와드 복지 봉사 위원회의 고용 전문가는 교회나 사회의 모집 계획에 대한 정보에 정통해 있어야 하며 성인이나 젊은이들이 가장 훌륭한 직장을 얻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우를 든다면, 아내와 저는 저의 평생 동안의 직업을 결정하고 그 일에 정진했읍니다. 저는 의학계에 종사할 계획으로 약학을 전공하였읍니다. 많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저도 생각을 고쳐 다른 직업 즉 금융계에 종사했읍니다. 우리는 평생의 직업으로 알고 감사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 저는 법률직에 매력을 느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결혼했고 부양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읍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나아갈 가장 훌륭한 방법을 모색했읍니다. 나는 대학을 마치고 법과 대학에 들어갔읍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

대학에 들어갔읍니다. 수년간 우리들은 고생했읍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기꺼이 열심으로 노력할 때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결국 성취되었읍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아내의 도움을 받았읍니다. 그녀는 가정 주부로서 자녀들을 돌보아야 했읍니다. 아내가 보여준 사랑과 격려와 절약과 협조는 그녀가 직장을 가져 가족들을 도운 물질적인 봉사를 훨씬 초월한 것이었읍니다.

우리들은 아내가 가정에서 밤낮으로 해내는 힘겨운 수고에 대해 무한히 감사해야 합니다. 헌신적인 어머니와 아내만큼 더 큰 수고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바로 남편들에게 주셨읍니다. 우리의 자매들도 역시 직업에 대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읍니다. 우리는 자매들이 가능하면 결혼 전에 모든 교육과 직업 훈련을 마치기를 권고합니다. 만일 그들이 남편을 잃거나 이혼하게 되어 직장을 갖기를 원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품위있고 건전한 직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자매가 미혼일 경우에는 그 자매의 재능과 소질을 발전시키기 위해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직업을 충분히 준비하기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무이며 우리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외에, 우리는 남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권 책임의 참뜻입니다.

저는 회원에 대해 이와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의 회원이 됨을 감사하게 여기며, 회원 각자의 복지에 관해 관심을 가진 형제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예언자의 인도를 받아 행하는 주님의 사업입니다. 우리들은 준비에 관해서 주어진 권고의 말씀을 따르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금요일 오전 모임 말씀

지금은 일하는 시기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주변을 청결케 하고, 채소와 나무를 심고, 안식일을 지키며, 선교 사업을 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라는 권고의 말씀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전파를 통해서 이 연차 대회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의 축복과 사랑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 특히 선교 분야에서 봉사하실 총관리 역원 네 분을 새로이 여러분 앞에 발표해 드립니다.

전 칠십인 제일 평의회 집행 서기로 계시던 바운티풀시 출신의 진 알 쿡 장로를 칠십인 제일 평의회의 회원으로 임명합니다.

칠십인 제일 평의회는 점차적으로 칠십인의 정원이 채워질 것이며, 회장단은 칠인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세 사람의 형제가 칠십인 제일 평의회 회원으로 임명되겠읍니다. 벨기에 태생으로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찰즈 에이 디데이 형제를 평의회 회원으로, 텍사스주 산 안토니오 출신이며, 현재 칠레의 샌디아고 선교부장인 윌리엄 러슬 브래드포드 형제를 정원회 회원으로, 콜로라도주 토와옥과 뉴 멕시코주 쉽록 출신으로 현재 아리조나 홀브룩 선교부장인 조지 패트릭 리 장로를 칠십인 평의회 회원으로 임명합니다. 이 네 분의 형제는 총관리 역원의 책임을 맡아 수행할 것입니다. 이 네 분의 총관리 역원들은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함께 잠시 후 이 총회에서 여러분의 지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금년 2월과 3월, 우리는 브라질의 상파울루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지역 대회를 가졌읍니다. 8월에는 대만, 홍콩, 필리핀 군도, 한국 및 일본에서 대회를 가졌읍니다. 이 지역에서 가졌던 지역 대회에 참석한 약 114,000명의 회원을 솔트레이크의 연차 대회에 참석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따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대회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남미의 성도들에게 남미 주민을 위한 신전을 상파울루에 건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읍니다. 또 우리는 동양인을 위해 일본에 신전을 세운다는 발표도 하였읍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전의 표적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두 신전이 건립되어 헌납되면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이 성스러운 의식을 행하기 위해 신전에 가는 데 크게 거리가 단축되며 시간과 경비가 절약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 곳에서부터 자동차, 버스, 기차, 비행기, 또는 배를 타고 대회에 참석했읍니다. 그들이 대회에 참석하고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랐읍니다. 어느 자매의 편지를 인용해 보겠읍니다.

"마지막 집회는 특별한 모임이었읍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사람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셨을 때 회중은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을 합창했읍니다. 저와 저의 동반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껴안았읍니다.

"저는 회원이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자매의 편지를 인용하겠읍니다. "이제 지역 대회도 모두 끝났어요! 저는 그분들이 좀더 오래 여기 계시기를 무척 원했지요. 안 믿어지실지 모르지만, 며칠 동안 비가 억수로 왔는데 예언자께서 타신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에 하늘은 맑게 갰어요. 태풍 예보가 있었지만 그 형제님들이 이 나라를 떠나실 때까지 태풍은 오지 않았답니다. 저는 킴볼 자매님을 부축하며 함께 걸었어요. 저는 자매님에게 자신이 자매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다고 말했읍니다. 자매님의 대답이 어떠했는지 아시겠어요? 자매님은 저와 아무 다를 바가 없다고 하셨어요. 빨래도 하고 설겆이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야채도 심으며 제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읍니다. "지역 대회는 너무나 훌륭했어요. 필리핀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감격적인 경험이었읍니다. 대관장님이 먼저 집회소로 들어오시고 회중들

이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불렀을 때 나는 그만 울어 버렸어요. 우리는 마닐라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요. 하루 집회가 끝날 때마다 밤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지난 월요일은 집회가 오후 10시쯤 끝났어요. 12시 통금 시간 전에 집에 가려고 날아가듯 차를 몰았으나 도중에 뒷차바퀴에 빵꾸가 났읍니다, 오도 가도 못한데다 교통 경찰은 오늘 밤은 더 이상 여행할 수 없다 하여 통금이 해제되는 새벽 4시까지 부득이 주유소에서 밤을 새웠어요. 우리는 다시 다음날의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닐라로 되돌아갔어요."

민속 고유 의상을 입은 1,200명의 젊은 청소년들이 "캐리온"을 불렀을 때는, 그들이 작곡자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잘 불렀읍니다. 우리는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는 영광을 얻어, 그들에게 우리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달러를 가져 왔을 뿐 아니라, 그들이 봉사하는 나라에 사절단으로 온 것이라고 설명했읍니다. 그들은 애국심과 충성심을 가르치고 또 새 회원에게는 국가에 충성하고 정직하며 고결하라고 가르칩니다. 동양에는 약 62,000명의 회원이 있읍니다.

이 대회에서 이번 모임이나 다른 여러 모임을 통하여 총관리 역원들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에 우리는 정원에 나무와 채소를 심을 것을 강조한 바 있읍니다. 이 해 들어 정원수가 많이 불어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로 가든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채소밭을 볼 수가 있읍니다. 줄지어 서 있는 옥수수, 붉은 토마토, 당근, 양파, 호박 등등 여러 가지의 채소가 눈에 뜨이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와드 채소밭, 지역 사회의 이웃의 공동 채소밭을 보았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가꾸신 채소를 사용함으로써 비싼 생활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본에 있는 한 형제는 이렇게 써 보냈읍니다. "저는 이곳 일본에서 채소밭을 가꾸고 있읍니다. 제가 심은 고구마가 잘 자라고 있읍니다."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곧 인간이 이용할 것을 마련해 주려고… 사람이 보매 이는 식물로 좋은 것이더라."(모세서 3 : 9)

"나 주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손질하며 지키게 하니라." (모세서 3 : 15)

현대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땅에 충만한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요,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참으로 음식이나 의복이나 집이나 곡간이나 과수원이나 채소밭이나 포도원 그 어느 것이나 땅에서 나오는 풀이나 좋은 것은

"참으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참으로… 음식이나 의복이나 맛이나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졌느니라."(교리와 성약 59 : 16—19)

어느 어린 소녀는 이렇게 편지했읍니다. "저는 아빠가 채소 가꾸시는 것을 돕고 있읍니다. 동생은 마당을 청소한답니다."

"데저렛 뉴스"사와 유타주 미술 협회는 유타주 지사, 캄빈 엘 램프톤 씨의 후원을 받아 독립 이백 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백만인의 백만 주 나무 심기를 벌이기로 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아름다움을 더하고 축복을 더해 줍니다. 또 유실수는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교외에 사는 분의 편지는 다음과 같았읍니다. "우리는 대관장님의 권고를 따라, 우리가 가진 땅을 돌아보았읍니다. 몹시 부끄럽더군요. 보통으로 헛간과 닭장과 가축 우리가 있는 개척 시대의 농가였읍니다. 울타리는 다 부서져 있었읍니다.

"우리는 낡은 헛간을 헐었읍니다. 울타리도 다시 세우고 칠하며 다른 건물들도 깨끗하게 칠했읍니다. 헛간이 있던 곳을 일구어 채소를 심었읍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행정관이 폭풍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나갔읍니다. 그는 서양 삼나무가 뿌리채 뽑혀 넘어져 있는 곳으로 왔읍니다. 그는 그 지역을 관찰하고 있는 관리에게 말했읍니다. "여기에 다른 삼나무를 심어야겠군요." 그 지역 관리는 대답했읍니다. "삼나무가 전에 있던 것만큼 크려면 2,000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50년 이상이 되어야 겨우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심어야 하지 않소." 라고 행정관이 말했읍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께 드리는 권고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집 문 앞을 쓸게 하여라. 그러면 온 세상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고 괴테는 말하였읍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성스러운 안식일에 공공연히 상행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일요일에 물건을 사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가게문을 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정의 밤에서 취급하여 자녀들과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이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는 일은 참으로 훌륭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누 6 : 46)

에스겔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읍니다.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겔 33 : 31)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왜 주님의 법을 깨뜨립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상거래를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금년에 수천의 선교사가 증가하여 거의 21,000명이 되었으며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사의 집단입니다.

가장 즐거운 일은 남미, 유럽, 동양, 남대평양 지역에서 수천의 선교사가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이루는 성과를 보고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있읍니다. 그 지역 태생의 선교사들은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며, 여권 수속의 필요도 없읍니다. 또한 자기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전세계를 통해서 여러 단체에서 지방 지도자들을 활용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충성스럽고 능률

적이며 헌신적인 지도자임을 발견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에 대해 항상 염려하고 있읍니다. 이혼이란 서글픈 생활, 깨어진 맹세, 소홀히 저버려진 자녀, 깨어진 가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혼을 반대합니다. 정당한 이혼의 경우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결속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결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혼은 대부분 이기심과 다른 죄로 인하여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알고 있었읍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읍니다.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려면 부부가 경제면의 예산을 신중하게 세우고 그 예산대로 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계획성없이 물건을 사들임으로써 결혼 생활에까지 비참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결혼은 쌍방의 협조이며,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가정은 가족이 함께 계획하고 함께 서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일반 사회의 결혼은 너무도 쉬이 깨어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전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훨씬 올바른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다시 슬픈 마음으로 이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태복음 7 : 21—23)

가정의 안전도란 그 사회의 이혼율로 능히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많은 중요한 이유로써,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결혼과 성스러운 의식을 행하기 위해 신전에 가는 일을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커다란 범법을 저지르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명한 적이 있읍니다.

"교회는 낙태를 전적으로 반대하며, 회원에게 낙태 행위를 금하도록 강력히 권합니다….

"낙태는 성적 부도덕으로 인도하는 경악할 만한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날 낙태는 가장 혐오적이고 죄스러운 행위의 하나로 여겨야 합니다.

"낙태의 죄를 범한 교회 회원은 그 정상에 따라 교회 평의회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교성 5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엔사인, 1973년 3월호, 64페이지)

최근에 어떤 잡지 기자는 이렇게 썼읍니다. "대중 생활의 도덕관이 이처럼 땅에 떨어졌던 때는 역사상 없었던 것 같다."

폭력과 성의 물결이 높아감을 볼 때 우리의 안방까지 이러한 행위가 생생하게 침입해 들어오려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위협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저녁 동안만은 자녀들에게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시간을 할애해 놓은 텔레비전 방송국의 행정에 약간의 용기를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대되기를 열렬히 희망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귀한 가족들을 악에서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의로운 노력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월남인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왔을 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첫번째 피난민단을 개인적으로 만났읍니다. 낯선 땅의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가진 것 없이 이 새로운 땅을 찾아왔던 포장 마차나 손수레 부대가 기억났읍니다. 수백 명의 월남 형제 자매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새 생활을 이룩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중에는 회원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읍니다. 정부의 원조없이 우리는 그들을 정착시켰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 40)

이 선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과 의복과 거주할 곳을 마련해 준 신권 소유자와 상호부조회 자매님들과 기타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직한 성품의 일면은 정당한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읍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려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나 성인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주저하나 관세를 기피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정직하게 장부에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정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규칙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읍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면에서 고결하며, 문제나 기타 다른 거래에도 역시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도덕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거듭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랜 옛날 그분이 세우셨던 도덕률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변경하거나 현대식 견해로 바꾸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는 여전히 죄이며,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생활을 지지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무덤에 이르기까지, 결혼 전의 어떤 성적 관계를 사악하다고 선언하며 결혼 중인 남자나 여자 어느 누구든지 성약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번번히 교회의 견해를 밝힌 것처럼, 바꾸어 말하면, 모든 회원은 결혼 전에는 완전히 순결한 생활을 해야 하며, 결혼한 후에는 성실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개혁자들이 질서를 혼란시키고 현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에게는 불쾌한 일입니다. 도덕 영화물이나 이른바 성해방을 우리는 혐오합니다. 이러한 자유 분방한 것들을 지지하고 가르치고, 고무시켰던 사람들이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표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구세주의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누 6 : 46)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읍니다. "이 세대 사람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교성 6 : 9)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

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스바냐 : 1 : 17—18)

우리는 파수대의 파수꾼으로 우리 손에 들려진 나팔을 크게 불어, 경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백성들을 경고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사 60 : 12)

이 총회의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실 총관리 역원 여러분들과 들으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합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저녁 신권회 말씀

신권 소유자의 특권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신권 소유자에게 신앙개조를 암기하고 그 가르침을 적용하도록 권고함

형제 여러분, 우리가 225,000명이 되는 성인 남자와 청소년의 일부라는 것을 생각할 때 큰 희열을 느낍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보다 약간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도 있고, 눈동자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있읍니다만 그들은 모두 남자들로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오늘 저녁 이 대회에 참석한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여기서 매우 진지한 교리를 들으셨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쉬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되시는 여러분은 모두 신권 소유자가 되기 전에 신앙개조에 관해 배우셨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앙개조를 기억하고 있을까, 글자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외우실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앙개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 초등협회 회원인 어린 소년이 기차를 타고 캘리포니아주로 여행하고 있었읍니다. 그의 일행은 아무도 없었읍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전선주를 바라보고 있었읍니다. 그 소년이 앉아 있었던 좌석의 통로 맞은편에 있던 한 신사도 캘리포니아주로 가는 중이었읍니다. 그 신사는 어린 소년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읍니다. 아주 어린 소년이 아무 동행도 없이 혼자 여행을 하고 있는데 복장도 단정하고 태도도 매우 훌륭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신사는 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신사는 통로를 건너와서 어린 소년의 옆좌석에 앉아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읍니다.

"얘야, 어디로 가는 중이니?"

"로스앤젤리스로 가고 있어요."라고 소년은 대답했읍니다.

"그곳에 친척이 계시니?"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몇 분의 친척이 계셔요. 전 할아버님과 할머님을 만나 뵈러 혼자서 가는 중이예요. 그분들이 역에 마중하러 나오실 거예요. 지금은 방학이라 며칠 동안 할아버님 댁에 가서 지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신사는 "어디서 오니? 네가 사는 곳이 어디지?"라고 물어 보았읍니다.

소년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요."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러고 보니, 넌 몰몬인가 보구나." 신사는 말했읍니다.

"예, 저는 몰몬입니다." 소년은 자랑스럽게 말했읍니다.

신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읍니다. "아, 정말 재미있는 일인데. 난 몰몬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궁금히 생각해 왔단다. 나는 몰몬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한 번 지나가면서 구경한 적이 있지. 아름다운 건물과 가로수가 잘 심어져 있는 거리와 아늑한 집들과 아름다운 장미와 꽃들이 피어 있는 정원을 보았어.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처럼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지. 몰몬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소년은 신사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께 몰몬이 무엇을 믿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1조)

그 신사는 약간 놀랐으나 주의깊게 들었읍니다. 소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함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2조)

함께 여행을 하던 그 신사는 "조그만 소년이 이같이 중요한 진리를 알다니 참 처음보는 일인데"라고 생각했읍니다.

소년의 말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었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3조) 이 작은 소년이 가진 지식과 이해력에 놀라고 말았읍니다. 소년은 아직 소년단원이 될 나이도 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은 계속해서 신앙개조 제4조를 말했읍니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나는 네가 너의 교회의 교리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구나. 정말 넌 칭찬받을 만한 소년이다." 신사는 말했읍니다.

시작이 좋았으며 격려까지 받은 조니는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5조)라고

계속해서 말했읍니다.

"그건 매우 확고한 교리로구나. 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지 알고 싶어. 난 그들이 부름을 받고 안수받으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단다. 그런데 누가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 신사는 말했읍니다.

그들은 부름과 지지와 안수에 대해 토론했읍니다. 그리고 나서 소년은 "더 알고 싶으신가요?"라고 여주었읍니다.

신사는 이같이 어린 나이의 소년이 교회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실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는 "그럼, 어서 말해 보려므나."라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조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6조) 그러자 또 다른 토론이 전개되었읍니다. "네 말을 들어 보니까 너의 교회에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가 있고,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니엘과 같은 예언자가 있구나. 축복사도 있니?"

소년은 이 질문에 대해 재빨리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예, 축복사가 계셔요. 스테이크가 조직되어 있는 모든 지역에는 그들이 임명되어 있읍니다. 그들은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요청을 받을 때 영감을 받아 모든 교회 회원에게 그 축복을 주십니다. 난 이미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어요. 난 그 축복문을 자주 읽어 보곤 합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는 초기의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부름과 권능을 가진 열 두 명의 사도가 있답니다."

그 신사는 다시 다음 질문을 던졌읍니다. "너희는 방언을 하며, 계시와 예언을 믿느냐?"

이 질문을 받자 소년은 얼굴에 밝은 빛을 띠고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계시와 시현을 받는 은사, 병고치는 은사 및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등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7조)

신사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너희는 성경을 믿는 게로구나."라고 말했읍니다.

그러자 소년은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참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고 있읍니다.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8조)

신사는 우리가 경전은 물론 계시도 믿는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소년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9조)라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 지파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륙(아메리카)에 시온이 건설되며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지상을 다스리시고 땅은 새로와져서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신앙개조 제10조)

신사는 주의를 집중하여 듣고 있었읍니다. 그는 통로를 건너가서 다시 자기 좌석에 앉을 생각은 전혀 없었읍니다. 그러자 조니는 다시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합니다."(신앙개조 제11조)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읍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12조)

끝으로 그는 신앙개조 제13조를 암송했읍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 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신앙개조를 모두 말하고 났을 때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읍니다. 신사는 교회의 제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는 이 어린 소년의 능력뿐 아니라 교회의 교리의 완전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사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난 로스앤젤리스에서 2일간 머물고 난 후에 내 사무실이 있는 뉴욕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회사에다 전보를 쳐서 내가 하루나 이틀 늦어질 것이라고 알리려고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들러 그곳의 공보과를 찾아가서 네가 내게 말한 사실에 대해 더 자세히 모든 것을 들어 보고 싶어서란다."

나는 여러분 중에 신앙개조를 아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 중에서 몇 명이나 신앙개조를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신앙개조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개조를 암송해 보신 적이 있읍니까? 여러분이 신앙개조를 알고 계시면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읍니다. 신앙개조는 기본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만일 모든 청소년이 신앙개조를 배울 때 그것을 정확하게 암기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한 단어라도 빼먹는다든지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내가 신앙개조를 암기한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소젖을 짜는 일을 해보았읍니다. 나는 타자기로 신앙개조 13개 조항을 모두 작은 카드에 적어 젖소 우리로 가지고 가서 다리가 한 개로 된 의자에 앉아 소젖을 짤 때마다 내 바로 옆에 놓고 그것을 되풀이해서 읽었읍니다. 아마 2천만번이나 될 것입니다. 정확한 횟수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뭏든 나는 수십 년간 이와 같이 되풀이하여 읽은 후에 신앙개조를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정확하게 암송할 수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것이 참으로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렵니까?

성인되시는 형제님들께 나는 몇 개의 성구를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성구가 나와 있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히브리서 1 : 1—4)

이 성구는 우리에게 교리와 성약 132편을 상기시켜 줍니다. 교리와 성약 132편에 보면 주님은 이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을 받아들여, 롬니 부대관장님이 말씀드린 성약에 따라 생활하는 자들은 천사보다 뛰어난 자들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시중들며 문을 지키는 신들이나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히브리서 1 : 5)

하늘은 천사들로 가득 차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통해서 주님의 왕국에서 승영에 이를 이 큰 부름을 받을 자격을 갖춘 여러분은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부언할 수 있읍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찌어다 말씀하시며"(히브리서 1 : 6)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온 영혼과 생각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진실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찌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히 2 : 1) 우리는 모든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이 신권의 훌륭한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발견할 때 우리는 결코 이같이 귀중한 것들을 흘러 떠내려 가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히브리서 2 : 3) 우리는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그 외의 다른 형제들로부터 들었읍니다. 그들은 이미 그 계획을 마련해 주신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히브리서 2 : 10)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225,000명이나 경청하고 있읍니다. 나는 225,000명이 신이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처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심을 입증해 주셨읍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진실로 225,000명이나 되는 우리 각자를 위해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세계를 창조하는 일을 돕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과 잠재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출생하는 모든 어린 소년은 이 영광스러운 프로그램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가 성인이 되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신전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생활하고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간직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그들의 위대한 프로그램에 따라 진보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시중드는 천사들과 신들보다 뛰어난 자가 됩니다. 결국 그들은 승영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 132편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받았으며 이미 그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승영에 이른 자가 되었읍니다. 물론 그가 죽은 후 오랜 시간이 흘렀읍니다.

바울은 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히 2 : 14)라고 말했읍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없이 하실 수 있었읍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히브리서 2 : 16)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주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히브리서 3 : 1, 3, 10—11)

때때로 우리는 긴 안락 의자가 있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 실내화를 신을 수 있는 장소에 있거나 밖으로 나가 푸른 잔디 위에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안식이 아닙니다. 가장 활기있고 가장 힘든 일을 하며,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을 하는 자야 말로 안식을 취하는 자입니다. 안식은 일을 하다가 쉬는 것이지 일에서 떠나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다른 경전에 나와 있는 몇 개의 성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구는 값진 진주에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권회에 참석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모두 신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신권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읍니다. 나는 여러분께 여러분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말씀 몇 가지를 읽어 드려 신권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었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또 더욱 큰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고 나는 선조의 축복과 이 축복을 나누어 줄 직분에 안수 성임될 권리를 구하였더라. 나는 의를 좇는 자니, 위대한 지식을 가진 자가 되고 의를 좇기에 더욱 큰 자가 되며 더욱 위대한 지식을 가지며 많은 민족의 조상과 평화의 왕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원하였으므로, 나는 조상에게 속한 권능을 지닌 정당한 후사 곧 대제사가 되었느니라."(아브라함서 1 : 2)

나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였으며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도 10대였다고 믿습니다. 그는 선조의 축복을

상속받았읍니다. 그러면 선조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초기의 나라들의 축복사였으며 의로운 자들이었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이 권능은 조상으로부터 내게 부여된 것이니,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왔고 때가 시작될 때 〔이 때가 언제이겠읍니까? 나는 우리가 아담이 지상에 있게 된 때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태초부터, 다시 말하면 창세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해 내려온 것이니, 장자의 권능이라 첫 사람인 우리의 시조 아담에게 부여되었다가 선조를 통하여 내게 이르렀느니라.

"나는 후손에 대하여 선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명에 따라 나를 신권자로 임명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노라."(아브라함서 1 : 3—4)

이 신권이 바로 우리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속받을 후사로 태어났읍니다.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모든 일은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없이 우리는 결코 신전에 들어갈 수 없읍니다. 신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우리는 결코 인봉받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일을 행할 수도 없읍니다.

"나의 선조는 의와,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예배하여 나의 음성에 귀기울이기를 거절하였더라." (아브라함서 1 : 5)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야만 했읍니다. 그는 갈대아 땅을 떠나 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으며 드디어 하란 땅에 이르렀읍니다. 이곳은 지금의 터어키입니다. 그 후 그는 그곳을 떠나 팔레스타인으로 갔읍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성구를 읽는 것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나는 두세 개의 성구를 더 읽어 드리고 말씀을 끝마치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이 내게 임하시사, 〔주님이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 아브라함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를 멸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아, 보라,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네 음성을 듣고 내려와 너를 구하여 내고 네 부친의 집과 모든 네 친척에게서 떼어 내 네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노아에게 있었던 것 같이 네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네 성역을 통하여 나의 이름이 영원토록 세상에 알려지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시니라."(아브라함서 1 : 16, 19) 주님은 "나는… 너를 취하여 나의 이름을 … 네게 입히리라." (아브라함서 1 : 18)고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서 나의 이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신권이라"(교성 107 : 3)고 불리워집니다. 그 후 이 신권을 멜기세덱 신권이라 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무 자주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너무 가깝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권을 멜기세덱 신권이라 부르게 하신 것은 참으로 훌륭한 본보기가 아닐 수 없읍니다.

말씀을 끝마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성구를 또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후로 나 자신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창세에 이르기까지의 연대기 서술에 힘쓰려 하노라. 이는 그 기록이 내 손에 들어와 지금 현재까지 내가 가지고 있음이니라."〔이것은 우리가 이 대회 동안 생각해 본 몇가지 다른 일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권의 권능에 관한 선조 곧 족장의 기록은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보존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창조의 시작과 여러 유성과 여러 별들에 관한 지식도 선조에게 알려진 그대로 오늘까지 내가 간직하고 있나니, 이후에 세상에 올 자손의 유익을 위하여 이 기록에 그 일의 얼마큼을 기록하리라."(아브라함서 1 : 28, 31)

형제 여러분, 진실로 신권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에서 교사로 승진하고 교사에서 제사로 승진하며 그 후에 우리가 합당할진대 영원히 지속되고, 우리의 방패가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이르는 길인 대신권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흔히 "그는 장로에 지나지 않아요", "그는 칠십인에 불과해요", "그는 단지 대제사에 지나지 않아요"라고 말하듯이 장로로 성임되는 것을 일상적인 평범한 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제사가 되는 것은 진실로 어떤 남자의 경우에든지 그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매우 특별하고 고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주어진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전의 교리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읍니다. 주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의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서 그분에 대해 간구하며, 우리가 갖는 모든 모임에서도 그분에 대해 말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찬양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마음에 두고 생활할 것을 거듭 다짐하며 헌신할 것을 결심하는 바입니다. 나의 진실한 뜻과 사랑으로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말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대회에서 주어지는 영적이고 감동적인 경고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권고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8차례의 모임을 가진 이번 3일 동안의 대회는 참으로

영광스런 대회였읍니다. 총관리 역원은 그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진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읍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 열심히 귀기울여 주신 교회의 지도자 및 회원들이 많은 영감을 받고 영적으로 고양되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총관리 역원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말씀을 노우트에 적어 두었으리라 믿습니다.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일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제언이 주어졌읍니다. 우리 자신의 생활을 완전케 하고, 영원한 삶의 기본이 되는 원리의 말씀도 많았읍니다.

여기에 앉아서 내 생활에서 내가 완전히 할 수 있는 여러 측면들을 맘속으로 나열해 보면서 대화가 끝나는 즉시 오늘 밤 이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일에 착수하리라 결심했읍니다.

여러분은 총관리 역원들이 복음의 원리에 대하여 힘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벤슨 형제님은 그의 감동적인 말씀에서 하나님의 변경될 수 없는 율법은 하늘 위에서도 확고히 남아 있으며 인간과 국가가 그 율법 따르기를 거부할 때는 마땅히 형벌이 뒤따른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들은 결국엔 쇠잔하여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죄는 벌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벤슨 사도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서,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그분의 지시와 영감을 구할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치에 맞는 대담한 말씀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께서는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이 주님의 영감의 인도를 받아 원래의 계획을 변경시켜 그가 죽어가는 어린이에게 축복을 줄 수 있도록 그곳에 가게 하였던 이야기를 해주셨읍니다. 그는 대회의 모임을 다 마치지 못한 채 60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차를 몰아 겨우 운명 직전에 어린 소녀에게 축복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읍니다.

실 장로는 인간이 자제력을 잃고 육욕적인 생활의 유혹에 빠져 들어갈 때, 아무리 강하고 권세가 강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힘을 잃게 된다는 예를 들어 주었읍니다. 그는 또한 천로 역정에서 쓰레기를 긁어모으며 살던 사람이 천국의 왕관을 거절했던 자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쟁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읍니다.

여러분은 컬리모어 장로의 가정의 밤 프로그램에 관한 말씀도 들었읍니다. 그것은 실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집으로 가셔서 가정을 이루는 이 훌륭한 프로그램이 실패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부조회 대회에서 악마는 유혹할 장소를 알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악마는 가정을 유혹하며 가족을 파괴하려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총관리 역원들이 말씀하신 사탄의 이러한 모든 일이 결국에는 가정과 가족과 부모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파괴하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가족을 넘겨보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강화시켜야 하겠읍니다.

여러분은 터틀 장로와 그 밖의 총관리 역원들로부터 위대한 선교 사업에 관해 얘기들었읍니다. 롬니 부대관장님은 이 대륙의 민족들의 경전상에 나타난 역사를 더듬었읍니다. 그는 니파이인과 야렛인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약속 즉 이 약속된 땅을 어느 민족이 차지하게 되든지, 이 땅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진대 속박에서 자유로와질 것이요, 종된 것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유롭게 되리라는 약속을 들려 주었읍니다. (이더 2:12 참조) 몇 마디 말에 불과한 이 말에는 참으로 중요하고 폭넓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은 맥콩키 형제님의 수천년에 한두 번의 축복이 온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형제님께선 그 문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파고들었읍니다. 형제님은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프로그램에 관해 말씀해 주셨으며 동시에 많은 다른 프로그램 즉 복음 회복의 위대한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읍니다.

행스 장로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능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읍니다.

힝클리 장로는 우리를 거의 탐닉시켜 버리는 외설적인 음란의 홍수와 성과 폭력에 관하여 말씀하셨읍니다. 힝클리 장로는 우리에게 지도자들 즉 입법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는 적당한 법을 만들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그 법을 제정하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일깨워주라고 권했읍니다. 나는 힝클리 형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헤이트 장로는 위임없이는 교회가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으며, 위임하기 위하여는 신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신권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진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다른 분들의 총관리 역원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도 싶습니다. 한결같이 훌륭한 말씀이었읍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귀기울이며 기도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음을 난 확신합니다.

나는 헌터 형제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건물의 역사에 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난 여기서 태어나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살았읍니다. 그러나 일찌기 그러한 역사에 관해 듣지 못했읍니다. 훌륭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최소한 이 거대한 태버나클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신 노고와 희생에 관한 아름다운 그 이야기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건물은 지은 지 백년이나 된다고 했읍니다. 이 건물이 백년이 되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는 이 건물에서 있었던 예언자와 사도와 그 밖의 지도자들의 수많은 위대한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또한 총관리 역원의 깊고도 진실한 수많은 기도를 상상해 봅니다. 수년 동안을 계속해 온 합창단과 지도자들을 상상해 봅니다. 실로 이 건물은 얼마나 큰 봉사를 해 왔읍니까. 나는 이 건물이 앞으로도 최소한 수백년 더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헌터 형제님은 선교 사업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만일 이 단상에서 선교사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다면 단지 그 이름들만을 부르는 데 온종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선교사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의 수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수만큼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모두 선교사의 부름을 주었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있다면 다른 몇몇 분들의 훌륭한 말씀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내가 들은 것, 기억해 두고 싶은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고자 했던 것들을 결정하고 요약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페리 형제님의 결혼에 관한 강력한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파괴시킬 일을 정확히 말하는 사탄에 관해 생각해 볼 때, 결혼은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결혼 생활을 그만두고 가정 생활을 중단한다면 이는 사탄을 위한 행동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귀기울이는 모든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린 귀기울이는 자들을 속이지 않았읍니다. 우리가 이번 대회 기간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모두 진실합니다. 분명히 진실합니다. 또한 그것은 귀기울여 듣는 모든 영혼의 구원과 승영에 대한 분명한 교리를 갖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를 따르며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를 찬양하며 영화롭게 합니다. 이제 우린 매사에 있어서 그를 따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회복되었으며, 그것은 완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읍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복음이 충만하고 완전하게 회복되었읍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며, 귀기울이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두 얻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내버려 두거나 무시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귀기울이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이 훌륭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간구하며,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며 우리의 구세주시고 구속주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그가 계획하신 생활 방법은 매사에 있어서 옳으며 진실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 대한 큰 사랑과 감사로써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금요일 오전 모임 말씀

천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외에는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1820년에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천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외에는—흙으로 된 인간이 살아 있는 영혼을 갖게 된 후 아마 열 두번쯤—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그 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읍니다.

세대를 스무 번 거쳐 가는 동안 한 번이나 두 번 하늘로부터의 손이 지상의 손과 완전히 영합되어 악수합니다. 성스러운 드라마는 열리고 죽음의 과정이 바뀝니다.

때때로 고요한 동산에서, 혹은 시내산의 불이나 천둥 가운데서, 아니면 인봉할 수 없었던 무덤 안에서, 아니면 다락방에서— 거의 모두가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난, 몇몇 사람에게만 알려졌던— 주님은 인간사에 관여하셔서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명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육천년 전에 에덴의 동쪽에 이룩된 동산에서 일어났읍니다. 남자 아담과 여자 이브가 인간을 낳게 하려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니이 2 : 25 참조) 역사상 획기적인 또 다른 사건은 고대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 지상의 모든 것 중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일곱 사람만을 태워 물의 무덤에서 구제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중 가장 훌륭한 일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일어났읍니다. 그때 지구라는 유성의 최고 시민이던 분은 회개해야 할 모든 인간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땀구멍마다 큰 핏방울이 맺히는 고통을 당하신 것이었읍니다. 모든 살아 있는 자의 인생과 영혼의 존재에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일이 아리마대의 새 무덤에서 일어났읍니다. 한 완전했던 인간의 죄없는 영혼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갔다가 다시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한때는 창에 찔리고 살해되었던 몸이 영광스런 불멸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셨읍니다.

우리가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건 즉 위대한 진리의 대열에 선 사건 하나는 뉴욕주 팔마이라 근교 숲 속에서, 1820년 어느 화창하고 맑게 갠 봄날에 일어났읍니다. 그것은 4월 6일에 일어났던가요? 하여튼 이때 일어났던 일은 그날로부터 독생자가 흠없이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때까지 지상에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읍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비교해 봅시다. 모리앤쿠머에 살던 사람이 지린산을 하여 "옮겨지라" 명한 즉 산이 옮겨졌다는 것, 또는 모세가 홍해더러 "갈라져라"고 명한 즉 바다가 좌우로 갈라졌다는 것, 또는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고 명한 즉 그리 되었다는 것 등을 봄날 아침에 뉴욕주 서부의 숲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일은 사소한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밝은 아침에 하늘에서 보내 주신 기적을 경배와 감사의 마음으로 경건하게 고찰해 보면서 먼저 하늘이 기적을 열어 주신 상황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은혜로운 1820년은 1400년 전과 같이 암흑이 지상을 뒤덮고 심한 어둠이 사람의 마음을 흐리고 있던 시대였읍니다. 그때는 먹구름이 산을 뒤덮듯이 영적인 암흑이 가득한 때였읍니다. 천사는 더 이상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잠잠했으며, 인간은 창조주의 얼굴을 다시

는 보지 못했으며, 고대 민족이 받았던 은사나 표적이나 기적이나 특별한 은총은 더 이상 신앙인들의 상속이 되지 못하던 때였읍니다. 시현도 계시도 하늘의 열림도 없었고, 옛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비처럼 내리셨던 공의도 멈추었던 때였읍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았고 눈먼 자의 눈이 뜨이지 않았으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지도 않았읍니다. 하늘과 땅과 맺은 일을 수행하는 합법적인 수행자도 없었읍니다. 바울이 설교했고, 베드로가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복음은 기독교의 설교단에서 다시는 선포되지 않았읍니다.

간단히 말하면 배도가 득세하여 범세계적으로 완전히 만연하였던 것입니다. 겸손한 나사렛 사람의 종교는 아무데서도 발견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모든 분파와 붕당과 종파가 빗나갔읍니다. 사탄은 기뻐하며 그의 천사가 웃었읍니다. 이러한 것이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상황이었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상과 지옥을 다스리시는 주의 지혜로 약속된 회복의 시간은 왔읍니다. 1820년은 위대하신 여호와가 세상이 시작된 이래 성스런 예언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되는 해였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들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려던 때였읍니다.

심고, 거둬 들일 계절이 오면 과수원 주인은 필요한 농부를 보내십니다.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때가 이르자, 요셉 스미스 이세가 선택되어 지명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 거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교성 135:3) 이 예임된 예언자는 여호와의 위대한 말일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안내자가 되기 위해 지상에 온 것입니다.

주가 거룩한 도시 곧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에녹 같은 사람이 필요하셨을 때 에녹이 계셨읍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할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하셨을 때 모세가 계셨읍니다. 인류에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약속된 메시야가 필요하셨을 때 위대한 구조자가 계셨읍니다. 감사하게도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안내자가 필요하셨을 때 말일의 강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계셨읍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읍니다. "땅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너를 조롱하며 지옥도 네게 향하여 분노하리라.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게서 끊임없이 권고와 권위와 축복을 구하리라."(교성 122:1—2)

그 사람과 그 시간이 일치된 것이 1820년이었읍니다. 계시가 곧 있을 것이었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복음의 진리가 주의 포도원을 방해하던 분파주의의 찔레와 가라지를 불태우려고 하였읍니다.

불의 날에 대비키 위해, 종교적 관심과 혼란이 평화롭고 아늑한 곳에서 살고 있던 주님의 미래의 예언자의 거처를 엄습했읍니다. 퇴폐적인 기독교 목사들은 광신적인 용기로써 저들의 교리를 외쳤읍니다. "여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있다" 또는 "저기를 보라"고 그들은 외쳤읍니다. (요셉 스미스 2서 :5 참조)

종교 교사마다 자기의 특별한 구원 제도로 개종시키기 위해 지혜와 궤변을 다하였읍니다. 많은 사람의 가슴에는 쓰라림이 샘물처럼 솟아올랐읍니다. "이러한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에서" 증오와 분열은 극심해졌읍니다. (요셉 스미스 2서:10) 이 분쟁의 한 가운데서 미래의 하나님의 예언자는 종종 이렇게 지문했읍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종파들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 모두가 그른 것인가, 만약 그들 중에서 옳은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셉 스미스 2서:10)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빛이 고뇌에 찬 진리 탐구자의 마음을 밝게 비추게 한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때에 이루어졌읍니다.

경전을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보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영원한 영광을 얻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자의 모든 기록을 읽고 숙고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성스런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젊은 요셉이 시작과 끝을 아시고 그의 자녀 모두를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시는 섭리의 손으로 인도되어 갔던, 발전과 계발로 향하는 길입니다.

당시 15세의 소년 요셉—24년 후에는 그가 본 것과 그가 간증하는 것으로 인하여 순교자의 죽음을 당해야 했던 요셉은 예언자의 붓에서 나온 가장 영향력 있는 성구의 하나인 야고보서의 한 귀절을 읽게 되었읍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선언을 하였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중의 가장 으뜸되는 귀절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4—5) 우리 주 예수는 사랑과 봉사의 말씀을 더하여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 하셨읍니다.

신약 전서에서 가장 위대한 성구는 다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이 성구와 이와 비슷한 성구가 인간의 생애에 끼친 영향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시현의 길을 열어 주었고, 또 말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인간이 이해하는 방법이 기록된 단순한 야고보의 말씀은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 가장 영향력 있는 표현입니다. 이 성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역사 즉 언젠가는 이 세상이 개종자로 덮여지리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간결하고 평이하고 순수한 말씀—그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길을 열어주었읍니다. 그 말씀은 신약의 최후의 예언자의 한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일의 첫번째 예언자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가장 위대한 복음의 경륜을 안내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어느 교회가 참되며,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하는지 알겠읍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기 위해 지금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 필요가 있읍

니까?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벽을 깨고 영원의 시현을 보시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모습을 찾고 여러분의 창조주께 의지하십시오. 진리의 원천이며 모든 의의 샘인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는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했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 1 : 6—7)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암흑을 내리덮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들이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젊은 요셉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빛과 진리의 시대로 이끄는 이 말씀들을 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았던 것이었읍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때의 이 글처럼 나의 마음속에 힘있게 임한 일은 없었읍니다. 참으로 강한 힘이 나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읍니다… 이것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 (요셉 스미스 2서 : 12)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의미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이외에는 결코 알 수 없는 힘으로 야고보의 말씀은 말일의 위대한 예언자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었읍니다.

전시대를 통해 극심한 혼란을 빚었던 종교적 논쟁에 대해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이것은 당시의 여러 교파의 교사들이 같은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로 각각 다르게 해석하여 그 결과 성경에 의해서 의문을 해결하려는 신념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요셉 스미스 2서 : 12)

그는 다른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했읍니다. 그는 그의 시골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 속 은밀한 곳으로 걸어갔읍니다. 거기서 홀로 그는 무릎을 꿇고 온 영혼을 다하여 마음속의 소망을 기도하기 시작했읍니다.

이는 운명의 시간이요, 소망의 시간이었읍니다. 배도의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읍니다. 창조의 명령, 위대한 선언인—"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새롭게 제시되었읍니다. 복음의 빛, 영원한 말씀의 빛은 멀지 않아 온 세상을 비추려 하였읍니다.

위대한 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흔들었던 사건들은 저항의 산에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범사에 서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참교회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세상적 방법과 상대가 되는 것이었읍니다. 요셉 스미스도 예외는 아니었읍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악마의 힘은 크게 그를 누르려 했읍니다. "나는 어떤 힘에 의하여 완전히 사로잡혔으며 놀라운 힘에 압도되어 저항력을 잃고 혀가 굳어 버려서 말조차 할 수 없었읍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나를 둘러쌌으며, 한동안은 내가 이대로 곧 죽어 버릴 것만 같았읍니다."(요셉 스미스 2서 : 15)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대한 빛을 세상에 보내려고 하실 때, 악마는 이와 같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힘은 그들의 어두운 왕국의 가장 깊은 어둠과 사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적인 루시퍼는 지금 이미 성취된 회복에 대항하여 투쟁을 계속하고 있듯이, 그때에는 약속된 행복과 대항하려 온갖 힘을 다하는 것이었읍니다. "나는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의 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간구하면서도 거의 실망하여 상상의 세계에서의 파멸이 아니라 나를 결박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어떤 실체에 의하여 나의 몸을 파멸 속에 내던지려는 순간, 바로 이 매우 놀라운 순간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읍니다."(요셉 스미스 2서 : 16)

그 다음에 하늘이 갈라지고 장막이 걷혔읍니다. 오래 닫혔던 하늘에서는 축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읍니다. 빛과, 진리와, 계시와, 기사 이적과,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이었읍니다.

장소, 시간, 필연성,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숙명, 이 모두가 일치하여 하나님의 말일의 역사의 안내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이 흔들리거나 땅이 흔들리지 않았읍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천둥과 먹구름이 일어나지도 않았읍니다. 이 사건은 무덤이 열리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께 "랍오니여"하고 경건하게 부르짖기 전의 고요하고 평화로왔던 그것이었읍니다.

그것은 인간이 기록으로 남긴 어떠한 시현보다도 가장 위대한 시현이 어두운 암흑을 깨뜨린 사건이었읍니다. 고대의 여러 하나님들이 스스로를 다시 나타내 보이신 것이었읍니다.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읍니다."라고 예언자는 말씀하셨읍니다. (요셉 스미스 2서 : 16)

"이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결박했던 힘으로부터 풀려났음을 깨달았으며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읍니다."(요셉 스미스 2서 : 17)

하늘 위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장막이 걷혔읍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내려오셨읍니다.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셨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다시 들립니다.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옛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주님께 묻고자 한 것은 내가 어디에 가입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려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나는 정신이 들자 곧 빛 가운데 계신 그분들께 어느 교파가 옳으며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할 것인가를 물었읍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는 대답을 받았으며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모든 교파가 다 그르며 그들의 신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며 그들의 교사는 부패하였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읍니다."(요셉 스미스 2서 : 18—19)

지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앞으로 올 왕국에서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인간이 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문은 천번에 한두 번 열립니다.

스무 번의 세대가 거치는 사이 한 두 번 새 시대는 동틉니다. 동쪽으로부터 오는 빛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지상의 어둠을 몰아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에서 멀리 떨어진 평화스런 숲에서 때때로 하늘과 땅이 마주치는 긴밀한 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아름답고 청명한 1820년 어느 봄날 아침 뉴욕주 팔마이라 마을 가까이 있는 숲 속에서 일어났읍니다.

인간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았읍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금요일 오후 모임 말씀

어린이의 신앙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총회가 개최되는 기간은 일 년 중 참으로 영광스런 기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로 모여듭니다. 오늘 태버나클은 많은 사람으로 입추의 여지가 없도록 가득 차 있읍니다. 다정한 대화는 합창대의 합창 소리와 기도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로 바뀌었읍니다. 이제 경건한 분위기가 이곳을 메우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기쁘기 한량이 없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진리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결과로 다소는 불편해진 역사적인 의자에 끝까지 인내로써 앉아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왼쪽 발코니에 아마 10세 가량 되어 보이는 예쁜 소녀가 보입니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입니다. 저는 저 소녀의 이름도 모르고, 고향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소녀의 순진스러운 미소와 부드러운 눈동자의 정기에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원고를 잠시 미루고 어린이에게 몇 가지 이야기해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읍니다.

제가 저 소녀의 나이쯤의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제게도 역시 주일학교 교사님이 계셨읍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이 세상의 구속주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해 종종 읽어 주셨읍니다. 어느 날 교사님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그에게로 데려오게 하시고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읍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자들을 나무랬읍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막 10 : 14)

그 공과는 결코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읍니다. 실제로 이삼 개월 전 저는 이 성구의 의미를 재삼 깨닫고 그 힘을 받을 수 있었읍니다. 저의 교사는 주님이었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멀리 떨어지고 루이지아나주 슈레브포트에서 80마일 떨어진 곳에 잭 메드빈 씨 가족이 살고 있읍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들은 모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 댁에는 사랑스런 딸이 있어 그 가정에 축복을 더해 주었읍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탈이었읍니다. 겨우 10세의 나이로 크리스탈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읍니다.

크리스탈은 가족들이 살고 있던 넓은 목장에서 뛰어 놀며 지냈읍니다. 크리스탈은 말을 썩 잘 탔고, 4-H 운동에도 뛰어나서 그 지방과 주의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읍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보내는 크리스탈의 미래는 밝았읍니다. 그런데 그의 다리에 이상한 몽우리가 선 것을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뉴우올리안즈에 있는 전문 의사들은 증상을 검토하고 칼시노마라는 암의 일종이라고 진단을 내렸읍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했읍니다.

그는 수술에서 잘 회복되었고 종전처럼 활기있게 생활하였읍니다. 그때 의사들은 암세포가 크리스탈의 조그만 폐에 번진 것을 발견했읍니다. 메드빈가는 실망하지 않고 솔트레이크시티에 갈 준비를 서둘렀읍니다. 크리스탈이 총관리 역원의 한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읍니다. 메드빈가 사람들은 역원 중 아무와도 안면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앞에 총관리 역원의 사진을 펼쳐 선택하게 했읍니다. 이상하게 저의 이름이 선택되었읍니다.

크리스탈은 솔트레이크시티로 비행할 수 없었읍니다. 그의 병세가 중태였기 때문이었읍니다. 종말은 가까와 오고 있었으나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읍니다. 그는 부모에게 말했읍니다. "스테이크 대회가 가까와 오지 않아요? 총관리 역원 한 분이 지명되지 않아요? 왜 몬슨 형제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에게 갈 수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저에게 보내실 텐데요."

한편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슈레브포트의 긴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이상한 상황이 진전되고 있었읍니다. 슈레브포트 루이지아나 스테이크 대회가 있는 주말에 저는 텍사스주 엘파소에 가기로 지명이 되어 있었읍니다. 애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러 다른 총관리 역원의 한 분이 엘파소에서 있을 스테이크 분리에 관해서 준비 작업을 했다고 설명하셨읍니다. 그는 엘파소에 다른 사람을 지명하고 제게는 다른 곳으로 지명하여도 좋겠느냐고 물었읍니다. 물론 아무 문제가 없었읍니다. 저는 아무데라도 좋았읍니다. "몬슨 형제, 나는 형제님이 슈레브포트 루이지아나 스테이크를 방문하게 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읍니다." 그 지명을 받아들여 저는 슈레브포트에 도착했읍니다.

그날 토요일 저녁은 집회의 연속이었읍니다. 스테이크 부장단과의 모임, 신권 지도자들과의 모임, 축복사와, 또 스테이크의 일반 지도자들과의 모임이 있었읍니다. 차즈 에프 케이글

스테이크 부장은 암으로 고통받는 열 살된 소녀에게 축복을 줄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고 미안한 듯이 물었읍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탈 메드빈이었읍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며 그 소녀가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슈레브포트의 병원에 있는지 물어 보았읍니다. 모임 일정이 꽉 짜여 있음을 알고 있는 케이글 부장은 거의 속삭이는 듯한 음성으로 크리스탈이 전혀 거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게다가 집이 슈레브포트에서 129 킬로미터나 더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말했읍니다.

저는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의 집회와 제가 돌아가야 할 비행기 시간까지 훑어 보았읍니다. 아무리 훑어 보아야 시간을 낼 수 있는 틈이 없었읍니다. 대안이 떠올랐읍니다. 대회의 기도에서 이 어린이를 위해 기도할 수 없을까? 분명히 주님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집회를 진행시켰읍니다. 이 말이 메드빈가에 전달되었을 때, 메드빈 가족은 이해는 하였으나 실망도 그만큼 컸읍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주님은 몬슨 형제가 슈레브포트에 오도록 섭리하시지 않으셨는가? 다시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사랑스런 크리스탈의 소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기도드렸읍니다.

메드빈가 식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스테이크 센터에 있는 시계는 일곱시 사십 오분을 가리켰읍니다. 역원회 모임은 영적인 모임이었읍니다. 저는 저의 말씀 순서가 가까와 오자 노트를 뒤적이고 있었읍니다. 그때 저는 저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짧고도 귀에 익은 말이었읍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막 10 : 14) 저의 노트가 흐려 보였읍니다. 나의 생각은 축복을 필요로 하는 작은 소녀에게 돌아갔읍니다. 결정은 내려졌읍니다. 일정이 수정되었읍니다. 참으로 사람이 집회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제임스 세라 감독에게 모임 중이지만 메드빈가에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읍니다.

메드빈 가족들이 기도를 끝내고 일어섰을 때, 전화가 울렸고, 주일 아침 금식과 기도하는 마음에 소식이 전해졌읍니다. 저는 그날 메드빈 가정을 일컫는 천국을 향해 가던 여행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신성한 곳, 성스런 집에도 여러 번 다녔읍니다. 그러나 메드빈가에서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느껴 보기는 처음이었읍니다. 크리스탈은 큰 침대에 평화롭게 누워 아주 작게 보였읍니다. 그 방은 밝고 즐거운 방이었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웠듯이 동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침실을 가득 채웠읍니다.

가족은 크리스탈의 침대 곁에 둘러섰읍니다. 병약하여 일어날 수도 없고 말할 기력조차 없는 어린 아이를 내려다보았읍니다. 소녀의 병은 시력마저 빼앗았읍니다. 강한 영을 느낀 저는 무릎을 꿇고 그의 허약한 손을 쥐고는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읍니다. "크리스탈, 내가 여기 왔어." 소녀는 입술을 열고 속삭였읍니다. "몬슨 형제님,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방을 둘러보았읍니다. 서 있는 사람은 없었읍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있었읍니다. 축복이 주어졌읍니다. 가냘픈 미소가 크리스탈의 얼굴에 떠올랐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의 속삭이는 말은 적절한 폐회 순서와 같았읍니다. 조용히 모두가 방을 떠났읍니다.

나흘 후, 목요일, 슈레브포트의 교회 회원들이 메드빈가와 믿음을 나누고 크리스탈의 이름을 특별한 기도로써 친절하고 사랑에 넘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억하게 하는 가운데 크리스탈 메드빈은 병든 육체를 떠나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갔읍니다.

그 주일에 햇빛이 가득한 침실에서 무릎을 꿇던 우리들에게, 특히 크리스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매일 그 방에 들어가 크리스탈의 떠남을 기억할 때, 유린 필드(미국 시인, 언론가, 1850—1895)의 불멸의 시는 귀중한 추억을 되살려 줄 것입니다.

먼지에 덮인 조그만 장난감 강아지
충실하고 건장하게 서 있다.
충실하게 서 있다.
발갛게 녹이 슬은 병정,
소총을 든 채 서 있다.
조그만 장난감 강아지가
새것이었을 때,
그 병정이 행진을 했을 때,
그때 어린 소년 리틀 보이 블루, 장난감에 키스를 하고 그곳에 두었었다.
"자, 내가 올 때까지 가면 안 돼."
"그리고, 시끄럽게 하지 마."
그는 바퀴 달린 침대로 아장아장 걸어가
예쁜 장난감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천사의 노래 소리가
어린 소년 리틀 보이 블루를 깨웠다.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었지만
조그만 장난감 친구들은 진실하다!

어린 소년 리틀 보이 블루에게 충실한 이 장난감 친구들,
바로 옛 그 자리에서
조그만 손길을 기다리며 조그만 얼굴의 미소를 기다리며 서 있다.
그 조그만 의자의 먼지 속에서
이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장난감 친구들은 소년이 키스만 하고 이곳에 놓아 둔 뒤
소년은 어찌 된 것일까 생각하고 있다.
("리틀 보이 블루", 유명시 101, 시카고 : 레이리앤드리 출판사, 1958년, 15페이지)

우리들은 의심하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 : 25—26) 두 분, 재크와 낸시 메드빈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 : 27) 그리고 두 분의 사랑스런 크리스탈은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 : 2—3)

윗층 발코니에 있는 나의 어린 친구에게,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읍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막 10 : 14)

저는 이 말씀이 루이지아나주 슈레브포트에서 일하던 한 사도에게 주신 말씀으로 압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일어서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연차 대회 때마다 조금 일찍 이 위대한 태버나클에 도착하여 통로를 거닐면서 대회에 모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큰 낙입니다. 이 모임은 참으로 세계적인 모임입니다.

우리가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악수를 나누면서 눈을 마주 대할 때,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공통되는 결속 즉 형제애, 자매애를 느끼게 되는 것을 볼 때, 서로 언어가 다르더라도 또 다른 대화의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서 대회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였읍니다. 그럴 때면 저는 통역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단지 예의바르게 경청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읽을 수 있었읍니다. 참으로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면 공통되는 주제가 거듭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국가를 사랑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국가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조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독립 이백 주년 기념 행사를 계획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지명을 받았읍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 역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읍니다 .

몇 개월 전 저는 미국의 많은 종교 지도자를 초청한 특별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읍니다. 그 모임은 미국 독립 이백 주년 기념 행사에 종교인들을 많이 참여시키게 하기 위하여 연 모임이었읍니다. 약 4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워싱턴 디 시에 모여 이틀에 걸쳐서 우리 종교인들이 이 기념 행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하였읍니다.

그곳에서 저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으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지만, 반면에 저는 그야말로 자유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읍니다.

이틀에 걸친 이 프로그램 중 약 20명씩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교회가 이 기념 행사를 위하여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읍니다.

우리는 첫날 토의를 마치면서, 제가 이 모임에 함께 참석하도록 초대했던 두뇌가 명석한 젊은 동료에게, 미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필요로 하며, 미국 정부를 형성해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내용으로 교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선언문 초안을 준비하게 하였읍니다. 그 청년이 그날 밤 몇 시까지 앉아서 잠았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다음날 아침 조반을 들 때, 청년은 훌륭한 초안을 완성해 놓고 있었읍니다.

그날 아침 다시 모였을 때 우리 토론 그룹에 초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저으기 마음이 들떠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의 희망은 곧 사라지고 말았읍니다. 이 소규모의 종교 지도자 그룹은 주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된 선언문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선언문은 무신론자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그 이유를 말했읍니다. 무신론자들도 그들의 신조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그들은 말했읍니다. 저는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강한 신념이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말살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저는 강력하게 반기를 제시하였읍니다. 논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사이의 의견의 합치는 더욱 어려워 졌읍니다. 전체 그룹에 내어 놓은 선언문을 하나도 채택하지 못하고 말았읍니다.

우리의 수고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자 심한 충격을 받고, 저는 우리의 선언문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종교 지도자를 찾아갔읍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더욱 심한 충격을 받아야 했읍니다. 소위 기독교인 회중의 지도자로서 상당한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제 물음에 대한 답변이 이러했읍니다.

질문 : "선생님께서는 이 나라의 기초를 형성했던 초기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대답 :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였지만, 모든 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직접 지시하신 증거는 찾아보지 못했읍니다."

질문 : "그와 같은 철학을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매주 회중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교하십니까?"

대답 : "그거야 어려울 게 뭐 있읍니까? 회중의 대표 그룹을 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그것이 설교 제목이 되는 것이니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워싱톤 디 시에서 회의에 참석하면서 저는 물론 희생적이며 훌륭하신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만나뵐 수 있었지만, 이 여행에서 집에 돌아와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교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읍니다.

이 모임을 끝내면서 저는 이 나라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선언문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독립 이백 주년이 되는 올해 안에 적어도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나의 신념을 밝히겠다는 강한 결심을 갖고 떠나게 되었읍니다.

첫째,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옹호할 수 있는 용기를 발전시키겠읍니다. 나는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나의 개인적인 간증을 널리 공포하겠읍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에게 계속 지시와 인도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들을 수 있읍니다. 모든 의로운 정부의 기초는 인간의 수고를 지시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법이라는 나의 강한 확신을 나는 가르치겠읍니다. 모든 의로운 정부는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태너 부대관장님께서 인용하신 경전은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읍니다. "실로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세운 현명한 자의 손을 빌어 이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게 하였으며 피 흘림으로써 나라를 구속하였느니라."(교성 101 : 80)

나는 우리 국가의 기초를 세우신 조상들의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신념과 똑같은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하였읍니다.

조지 워싱턴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읍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 올바르게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그의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성경은 공화국이 설 수 있는 반석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차 나의 신앙을 확실히 말씀드리노니, 주 여호와는 지금도 그의 자녀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법은 주님의 법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법을 지지하고, 옹호하며,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둘째, 저는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반론을 제시하겠읍니다. 인간의 공통적인 의견의 합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적은 결코 없었으며, 또한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지식이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인하여 성스러운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예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에 내가 받은 여러 가지 간행물 중 한 곳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읍니다.

"이러한 사실과 이와 비슷한 다른 사실을 기초로 하여, 몇몇 관측자들은 사회가 변천함과 동시에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필연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밟아야 했던 결혼 체제는 점차로 폐기되어야 할 미래를 맞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윌리암 에이치 매스터스와 버지니아 이 존슨, 더 플레저 본드, 토론토와 보스턴, 리틀 브라운 앤드 컴패니, 179페이지) 그들은 결혼의 새로운 기독교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독단주의가 부지 불식간에 천천히 인도주의에 굴복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결혼 체제를 벗어난 관계가 하나님께 충성스런 수단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장함으로써 크게 주목을 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주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지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임을 저는 압니다. 주님의 계획에서 자연적인 질서를 관찰해 볼 때, 나는 고쳐야 할 점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구는 같은 방향으로 자전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지축의 기울기 각도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증기는 바다에서 구름으로 올라가 지상으로 내려진 것이 강으로 흘러 다시 바다로 가는 일정한 순환 작용을 계속하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유익한 효과를 주고 있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만드신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의 일관성을 찾아볼 수 있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창세기 2 : 18, 21—24)

남편과 아내의 결합은 주님 보시기에 성스러운 것이며, 경솔히 다루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성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의 사랑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율법은 남편과 아내의 성스러운 결합을 보호해 주는 법이라고 늘 말씀하셨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 주신 여러 계명 중에는 "간음하지 말찌니라"(출 20 : 14)는 말씀이 있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지상에 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영원한 율법을 재삼 강조하셨읍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 : 27—28)

몰몬경에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미대륙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은 역시 같은 가르침을 주셨읍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며…"(모 13 : 22)

주님께서는 또한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같은 지시를 주셨읍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고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어 쫓기리라." (교성 42 : 24)

하나님의 율법에는 모순이 있을 수 없읍니다. 모든 세기의 모든 경전마다 변경하지 않고 인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려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옛날 사도 바울이 하셨던 경고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딤후 4 : 3—4)

하나님의 율법에는 변경되지 않는 일관성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즐거움과 만족과 화평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작가가 묘사한 다음 성구에서 나타나는 정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시 24 : 1)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라고 아는 것을 옹호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말일성도란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이며 그가 살아 계심을 아는 상징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대회 동안 좋은 음악을 들려주신 훌륭한 합창단 여러분과 반주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제까지의 대회에서 느껴 보지 못했던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특별한 대회를 빛내 주신 여러 합창단원과 반주자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일성도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갖고 있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대에 하늘에서 나타나시어 다시 말씀해 주셨음을 모든 인류에게 전해야 하는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들으라. 여러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거기 사는 주민들아, 기뻐하라.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 외에는 구세주가 계시지 아니함이라. "그의 지혜는 위대하시며 그의 길은 놀라우시니…"(교성 76 : 1—2)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교성 1 : 2, 4)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는 주 그리스도이며, 만민의 구속주이고, 기독교인의 구세주이며,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외에는 구세주가 계시지 않음을 굳게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가 "그의 아들임을 거듭 확인하셨으며, 그의 말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명하셨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위대하고 새로운 계시를 주셨을 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계명을 다시 주셨읍니다.

따라서 말일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새로운 현대의 계시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 강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일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참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같이 혼란한 세상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교성 1 : 1)

우리가 이같이 주님의 현대의 계시를 전할 때,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실제로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깃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메시지의 진실성이 말일성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어 있음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절제있고 훌륭한 성품을 갖춘 사람들로, 정직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본 원리로 덕과 사랑을 가르치고 있읍니다. 우리는 가정의 안정과 보호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여깁니다. 가족이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원만한 인간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에게 정절을 가장 숭고한 덕성으로 가르치고 있읍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게 생활하기를 바라십니다. (마 5 : 48 참조)

우리는, 온 가족이 사망한 뒤에 부활하여 가족이란 영원한 단위로서,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각기 이같이 숭고한 표준인 정절을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도덕 표준을 갖고 있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그릇을 지닌 너희여 깨끗하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교성 38 : 42)

말일성도들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읍니다. 선한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회원수는 350만 명에 이릅니다. 10년 전에는 250만 명도 안되었읍니다.

우리는 선교사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읍니다. 현재 62개국에 133개의 선교부가 있읍니다. 10년 전에는 74개의 선교부만이 있었읍니다. 현재 선교사 수는 21,168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대개가 20세 전후의 청년들입니다. 10년 전에는 12,585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2년간 기꺼운 마음으로 일하며, 모든 경비를 자비로 부담합니다. 여러분은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우리의 확신에 대한 진실성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은 대개 지부나 와드나 스테이크에 속하게 되는데, 지부와 와드는 작은 교구에 해당되며, 스테이크는 큰 교구와 같은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6,000여 개의 와드와 지부가 있었는데 현재는 8,000여 개에 달합니다. 10년 전에는 스테이크가 412개였으나, 현재는 700개가 넘습니다. 이는 남미에서 스칸디나비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알라스카에서 남아프리카, 호주 및 남태평양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읍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건강을 누리고 있읍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보건 대학 교수인 제임즈 이 언스트롬 박사는 몰몬의 암 발생률은 전미국의 평균 비율보다 50퍼센트가 낮다고 지난 4월 9일자 패사드나 스타 뉴스지에 발표했읍니다. 유타주의 암 사망률은 전미국에서 최하위입니다.

폐암에 대해서는, 말일성도 여성은 전미국의 평균 비율의 31퍼센트 뿐이며 남성의 경우는 전 미국의 평균 비율의 38퍼센트 뿐입니다. 알코올로 많이 발생하는 식도암은 여성의 경우 전미국의 평균 비율의 11퍼센트 뿐이며, 남성의 경우는 34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유타주 암 등록 협회장인 조셉 에프 라이언 박사가 산출해 낸 것입니다.

1971년도 미국 통계 연감(인구 조사

국)은 유타주와 나머지 주에서 산출해 낸 흥미있는 통계를 비교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50개 주를 다음과 같은 질병의 발생 빈도에 따라 열거해 놓았는데 그중 하위에 속하는 주일수록 질병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타주는 심장 질환은 46번째를 차지하며, 독감과 폐염은 49번째, 뇌혈관 질환은 46번째, 동맥 경화증은 49번째, 간경변은 45번째, 기관지염, 기종, 천식은 30번째, 결핵은 50번째, 성병은 50번째, 심장 혈관 계통의 질환은 50번째, 신경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혈관 장애는 50번째, 심장 마비 질환은 43번째, 기타 마비 질환은 50번째, 전염병은 50번째, 임신 병발증은 46번째, 유아 사망은 50번째 등입니다.

유타주에 관한 이러한 통계를 이야기할 때는, 주 인구의 30퍼센트가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나, 그들도 유타주 통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모든 국가와 종파와 국민을 초월하여 청소년을 훈련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조직인 소년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읍니다.

미국 전체로 볼 때, 소년단 연령에 해당되는 청소년 중에 23퍼센트만이 소년단에 등록되어 있으나, 말일성도는 85퍼센트에 이르고 있읍니다.

미국 전체에서는 등록된 소년단원 중 1.5퍼센트만이 독수리 소년단원의 상(소년단 프로그램의 최고상)을, 말일성도는 4퍼센트의 단원이 이를 획득했읍니다.

1974년도에 우리 교회는 소년단 후원 단체로 미국에서 2위를 차지하게 되었읍니다. 단지 사친회만이 우리를 앞지를 뿐이었읍니다. 그들은 20,800개의 대를 후원했으며, 우리가 14,344개의 대를 후원했읍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감리 교회에서 13,789개의 대를, 그리고 천주교에서 11,734개의 대를 후원했읍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늘어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256,000명의 소년들 중에 70퍼센트가 교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같은 십대의 238,000명의 소녀들 중에 73퍼센트가 활동 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다른 곳에서 이에 견줄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있겠읍니까? 생각해 봅시다. 약 50만 명에 달하는 십대의 소년 소녀들이 술과 담배와 혼전 성교를 금하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다른 곳에서 이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겠읍니까?

여러분은 주일학교 참석 상황에서도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어린이 중의 50퍼센트가 매주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있으며, 전체 말일성도 십대의 60퍼센트가 매주 그들의 반에 참석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교성 93:36 참조)라고 가르치고 있읍니다. 우리는 또한 인간의 영광도 마찬가지로 예지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카네기 고등 교육 정책 연구 평의회의 의장인 클라크 카 박사는 지난해 유타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하는 중에 이와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읍니다.

유타주의 3세에서 34세에 이르는 사람들 중 학교에 등록된 수의 백분율은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미네소타주가 수위를 차지한 16세 내지 17세의 연령층을 제외한 유타주의 모든 연령층의 학교에 등록된 수의 백분율은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유타주의 25세 이상의 성인들이 교육받은 교육 기간에 대한 평균 백분율이 수위를 차지합니다…

"유타주는 주 수입의 100,000불을 의과 대학의 운영 프로그램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점에서도 수위를 차지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카네기 고등 교육 위원회는 50개 주의 고등 교육 현황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 다른 여러 주와는 달리 유타주에서는 큰 결함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읍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어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읍니다. "유타주에서 이렇게 잘 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타주가 가장 부해서도 아니며, 오래 되어서도 아니며, 교육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비결은 필경 다른 어떤 것에서 연유되었을 것입니다. 그 비결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 비결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초기의 지도자는 교육을 대단히 중요시했읍니다." 그런 뒤 그는 교육에 힘을 기울인 브리감 영 대관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와 같은 교육의 결과는 미국과 캐나다와 전세계에서 명망있는 지위를 차지한 우리 회원의 수가 증가되는 사실에도 반영되고 있읍니다.

마크 더블류 캐넌은 "중역의 직을 맡고 있는 몰몬"이라는 제하의 강연에서 최근의 조사 결과 471개의 미국의 우수 기업체 중에서 사장들은 인구 비례로 볼 때, 미국의 다른 어느 주보다도 유타주 출신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읍니다. 유타주는 전국적으로 205,000명 대 일의 인구 비례에 비교해서 62,000명의 주민 중에서 한 명 꼴로 사장이 배출된 셈입니다. 현재 55명의 말일성도가 1,000만 불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계 회사의 사장, 이사장, 부이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읍니다. 77명은 7,500만 불 이상의 재산을 가진 각 기업체에서 주요한 직책을 갖고 있읍니다.

말일성도로서 미국 행정부의 각료와 캐나다 정부의 요직을 역임한 분들이 있읍니다. 군 장성급의 회원도 많이 있읍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는 미국 의회와 캐나다의 정부에서 오랫 동안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도 있읍니다. 예를 들어, 1952년에는 미국 상원과 하원으로 15명이나 당선했읍니다. 현재는 28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또한 말일성도는 미국 연방 준비 은행, 미국 관세청, 미국 관세 위원회 및 연방 주택국 등에서 중요한 직책을 역임해 왔읍니다.

몰몬 대제사인 하비 플레처 박사는 입체 음향을 개발했으며, 역시 몰몬인 필로 판스워드가 텔레비전을 만들어 냈읍니다.

국제 로우터리 클럽과 국제 라이온즈 클럽의 회장도 몰몬이 역임한 바 있읍니다. 그들은 미국 의과 협회와 미국 은행가 협회 및 기타 여러 학회를 이끌어 왔읍니다. 또한 그들은 이 시간에 다 피력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여러 분야의 학계, 기업계, 재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왔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여성 "해방"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몰몬 여성은 투표권을 처음으로 행사한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1세기 전의 브리감 영 대관장 시

대에 이 중요한 권리를 부여받았읍니다.

우리는 몰몬 여성은 세계의 어느 여성들보다도 제한받지 않고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만인을 위한 자유와 공의의 참된 의미를 잘 알고 있읍니다. 이는 이것이 그들의 종교의 기본 원리이며 일상 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성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조직이 있읍니다. 그것은 상호부조회라는 것입니다. 그 조직에는 약 1백만 명의 회원이 있읍니다. 이 조직의 지도자들은 세계 여성 협회에서 탁월한 공로를 쌓은 바 있으며, 그중 한 분인 벨 에스 스패포드 자매는 최근에 미국에서 전국 여성 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읍니다.

이 상호부조회 조직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업을 하는 것 외에도, 여성의 교양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그들이 바람직한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가정 생활을 이상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도와 주고 있읍니다.

우리 메시지의 일부로, 우리는 몰몬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전을 전세계에 전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매년 이 경전을 1백만 부 이상 발행하고 있읍니다. 이 책은 고대 미대륙의 성스러운 역사 기록입니다. 몰몬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성경도 사용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 기독교인들과 같이 성경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표준 경전의 하나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와 말일의 주님의 사업에 대한 두번째 증거라는 것도 역시 믿고 있읍니다.

우리는 현대 계시를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예언자를 통해서 인류를 인도해 나갈 현대의 계시를 들려주시고 있음을 온 인류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참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바와 같이, 참되며, 법을 준수하며, 예지에 차 있고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생활 태도에는 우리의 사명과 메시지가 성스럽고 진실하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 있읍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는 세상에 이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어둠과 죄악과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재확인시키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새로이 보여 주며, 언덕 위에서 밝히 빛나는 횃불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읍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그가 이 세상의 구속주임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하신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바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 말씀

예언자와 예언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교회는 이미 성취되었거나, 앞으로 성취될 많은 예언의 터 위에 세워져 있읍니다

여러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연차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며,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주님이 영감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간증을 굳게 하고 교회의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감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나는 오늘 예언과 예언자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가 두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걸어가실 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눅 24 : 16)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읍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음을 알게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눅 24 : 25)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모세와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이 그에 대하여 증거한 것을 낱낱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성역,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옷이 제비 뽑힌 사건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시 22 : 18 참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벧후1 : 19—21)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면 예언을 능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은 절정의 시대에 구세주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의 재림에 앞서 일어나게 될 여러가지 중요한 사건도 예언했읍니다. 이 중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 : 7)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한다면, 이 지상에서 예언자가 인도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예언자를 두시어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전혀 하신 적이 없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로부터 현재 살아 계신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에 이르기까지 예

언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과 37년간 개인적으로 사귀어 왔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분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킴볼 대관장님과 같은 분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없다면 그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이 지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벧후 1 : 19)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거듭 말하거니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예언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만큼 주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고 명철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 : 7)

이러한 말씀과 예수께서 예언에 첨부하신 중요성을 믿는 진리의 추구자라면 현재 미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만 해도 700여 종파가 넘는 이러한 시대에서, 주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 주실 예언자를 모시고 있는 교회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취되어야만 할 일이 많았읍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다음날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행 3 : 19—21)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예언자였으며,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리스도를 받아 둘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므로, 구세주가 오시기에 앞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예언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개혁되거나 계속된 것이 아니라 필히 회복된 것을 찾아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잃어 버린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지 않았다면 회복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는 이사야의 말대로 인간의 계명을 가르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읍니다. 이 대회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고, 기록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세우셨고, 이 지상에 살았던 어느 예언자보다도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진리를 계시받았읍니다. 그는 구세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회복시켜 주기로 된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읍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것을 회복시켜 주었읍니다.

일례로, 느부갓네살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몽을 들어보겠읍니다.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왕이 자신이 꾼 꿈을 잊어 버려 많은 박사와 술사를 불러 알아보려 했으나, 아무도 그의 꿈과 해몽을 말한 자가 없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다 자손 다니엘을 만나게 되어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읍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단 2 : 28)

그리고 나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단 2 : 44) 때가 될, 말일이(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있게 될 여러 왕국의 흥망에 관해서 그에게 말했읍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언자를 통해서 세우게 되는 것인즉, 예언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히 지속될 왕국을 세울 수 있겠읍니까?

계속해서 그는 그 왕국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과 같을 것이라 하였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왕국은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될 것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이 왕국은 여섯 명으로 시작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결국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단 2 : 35 참조) 어느 종파의 신도든 현재의 이 교회 회원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읍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에 따라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우던 스테이크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한 선교사가 몇 명의 구도자가 참석한 어느 집회에서 느부갓네살왕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날 내가 문가에서 배웅하고 있을 때였읍니다.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자기는 목사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읍니다. "물론 교회가 그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내가 대답했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라도 있읍니까?"

"그럴 수는 없읍니다." 그가 말했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없이 어떻게 왕국이 있을 수 있읍니까? 여러분에게는 왕이 없으니, 왕국이라 할 수 없읍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목사님은 조금 더 읽어 보시지 않으신 게로군요. 다니엘 7장을 읽어 보면, 다니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같은 이를 보았는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단 7 : 14)라고 되어 있읍니다.

"자,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준비된 왕국이 없다면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어떻게 왕국을 그에게 드릴 수 있겠읍니까. 우리 말일성도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청년기의 일부를 바쳐 교회의 위대한 선교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고 있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유이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같은 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울은 그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 : 20)

이와 같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주 그리스도가 아직도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서 그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며,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나는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이외에도 많은 예언을 갖고 있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다고 말했읍니다. (엡 1 : 9 참조) 이제 주님의 뜻의 비밀이라는 적절한 말이 나왔읍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 : 9, 10)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합시키려는 계획을 찾아볼 수 없읍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 구원자들로서 시온산에 오르게 되는가를 예언자의 예언에서 읽을 수 있읍니다. (옵 21절 참조) 우리는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 5 : 25)고 하신 말씀도 읽어볼 수 있읍니다. 이는 저 세상으로 간 수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자백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고전 15 : 29)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일어난 또 하나의 커다란 일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는 그의 사자를 보내시어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홀연히 그의 전에 나타나신다는 것이었읍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말 3 : 1—2) 분명히 그의 첫번째 강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읍니다. 그는 그의 전에 홀연히 오시지 않았읍니다. 선한 자거나 악인이거나 모두 그가 오시는 날에 있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일에 오실 때는, 사악한 자들은 바위를 향해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계 6 : 16)고 울부짖으며 외칠 것이라고 씌어 있읍니다.

우리에게는 신전을 사용해야 하며, 말라기의 다음과 같은 말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말 4 : 5—6)

그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이 약속에 따라 엘리야가 메시지를 갖고 돌아온 것을 찾아볼 수 있겠읍니까? 그는 분명히 왔읍니다. 그는 1836년 4월 3일에 커틀랜드 신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신전을 세워 하늘과 땅을 맺게 하는 이 위대한 사업의 열쇠를 갖고 왔읍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이사야가 보고 말한 것도 성취시켜 주었읍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사 2 : 2—3) 신전 광장에 있는 이 신전은 개척기의 선조들이 1천 마일이나 먼 곳에서 이동하여 와서 시작한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이 건물을 짓는 데 40년이나 걸렸읍니다. 초기 시절에 선교 사업을 담당했던 우리들은 내가 화란에서 직접 경험한 대로 실제로 교회에 개종해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 5센트짜리 백통화와 10센트짜리 은화로 바꾸어, 신전의 힘에 이끌려 미국에 와, 주님의 도를 배우며 그의 길을 걷는 데 함께 참여했음을 알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예언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다시 이사야가 보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사 11 : 11—12)

모로나이 천사는 예언자 요셉이 겨우 18세밖에 안 되었을 때, 하룻밤에 세 번이나 나타나고 아침이 되자 다시 나타나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 구절을 되풀이해서 들려주었읍니다. 그때 예언자 요셉이 받은 임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워 놓았읍니다. 우리 교회처럼 회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바를 달성하고 있는 또 다른 교회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읍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대한 기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성취시키는 것을 배우고 있읍니다.

이사야는 집합에 관해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보았읍니다. 그는 주님은 이스라엘이 신들메를 풀거나, 졸거나 잘 시간도 없이 그들을 재빨리 모으신다는 것도 알았읍니다. (사 5 : 27 참조) 이 말을 수천년 전의 이사야 시대로 소급해서 그 당시의 교통 수단과 견주어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 일의 성취와 연관이 된 이야기가 있읍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이 사랑하시던 스코틀란드에 처음으로 스테이크를 조직하시기 위해 그곳에 가셨을 때의 일이었읍니다. 그 후 그분은 십이사도 형제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자기는 오후 두 시에 런던을 출발해서, 시카고에 들려 잠시 그곳 형제들과 함께 한 다음 그날 밤은 자기 집에 와서 주무셨다고 하셨읍니다. 그분에게는 그야말로 구두끈을 풀거나 졸거나 잘 시간도 없었읍니다. 그런 다음 그는 초기에 개척자들이 시온으로 올 때 43일 동안 항해한 뒤에 수주일 동안 평원을 횡단해야만 했던 사실과 비교했읍니다. 이 집합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되리라는 것과 우리 개척자들이 실제로 그러했듯이 강둑을 따라서 여행하리라는 것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리라고 한 예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겠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러한 날이 이르게 되리라고 말했읍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렘 16 : 14—15)

바로 이 경전의 말씀을 입증해 주는 사실로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조직된 이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 수 있읍니다. 이제 우리는 스테이크와 신전을 만방에 세워, 주님의 백성들이 시온의 스테이크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이 많은 어부를 불러 그들을 낚게 하고, 많은 포수가 언덕과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고 덧붙이고 있읍니다. (렘 16 : 16 참조) 전세계의 여러 선교 지역에서 오신 여러분은 누구나 21,000명이 넘는 우리 선교사들이 마을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암혈과 산에서라고 예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렘 3 : 14—15)

오늘 이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주님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씩 택함을 받고 모였읍니다. 오늘 이 단상에 앉아 계시는 총관리 역원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을 가르치는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어, 여러분이 주님께서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 교회는 살아 계신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것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말씀과 간증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말씀

미국의 앞날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미국은 "약속의 땅입니다. 어느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들을 쓸어 없앨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무한한 노고를 무릅쓰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미국의 독립 200년 기념이 가까와 오자 이러한 질문이 자주 제기되곤 합니다. "앞으로 200년 동안도 기본적인 자유, 평화, 번영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긍정입니다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법 중에서 기초적인 사항을 이미 십계명, 산상수훈, 두 가지 큰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 : 37, 39)

수천년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읍니다 :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지 아니할진대 아무도 이 땅에 〔그는 미대륙을 말한 것입니다〕 이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땅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오실 자를 위해 성별된 땅이라. 주께서 내리신 계명대로 주를 섬길진대 자유의 땅이 될 것임에 아무도 속박되지 아니하리라…."(니이 1 : 6—7)

고대 예언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이 땅은 복된 땅이라 이 땅을 어느 백성이 차지하게 되든지 이 땅의 하나님 곧 그 나타나심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진대 속박에서 자유로와질 것이요, 종된 것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유롭게 되리라."(이더 2 : 12)

저는 고대 미대륙에 거주했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미리 선포된 하늘의 뜻이 그대로 실행되어 온 사실을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뉴욕주 팔마이라 부근 서쪽에 "구모라 언덕"(몰 6 : 6)이라고 불리우는 산이 하나 뚜렷이 보입니다. 지난 7월 25일에 그 산봉우리에 서서 사방에 뻗친 기막힌 전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25세기 전쯤에 이 근방에서 대 야렛 국가에 종말을 가져온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상기했읍니다.

몰몬경을 아시는 여러분께서는 시즈가 이끄는 군대와 코리앤튬오어가 이끄는 군대 사이에 마지막으로 형제간의 혈육 전쟁을 하여 코리앤튬오어의 백성이 "이백만 명"이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참으로 이백만 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죽었으며 저들의 처자가 또한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더 15 : 2)

싸움이 격화되자 살아 남은 백성들—군사들은 "아내와 자녀들"(이더 15 : 15)까지 합하여 구모라 언덕에 모였읍니다. (이더 15 : 11 참조)

"…코리앤튬오어의 편을 드는 백성들은 코리앤튬오어에게로, 시즈의 편을 드는 백성들은 시즈에게로 각각 모여드는 것을 보았느니라.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온갖 전쟁 무기로 무장을 갖추게 한 후에 서로 적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 온종일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하였으며,

"밤이 되어 피로하매 저들이 각기 진영으로 돌아갔고 진영에 돌아가서는 잃은 백성들을 생각하며 울부짖으며 애통했"던 것입니다. (이더서 15 : 13, 15—16)

똑같은 일이 날마다 반복되었으며 마침내,

"코리앤튬오어와 시즈만을 남기고는 모두 칼에 맞아 쓰러졌"읍니다. 시즈는 "피를 많이 흘려 기진"하였읍니다.

"이에 코리앤튬오어는 칼을 짚고 잠시 쉰 후에 시즈의 머리를 잘랐느니라.

"코리앤튬오어가 시즈의 머리를 자르고 나자 시즈가 팔을 짚고 일어나더니 다시 쓰러졌고 잠시 숨을 쉬려 애쓰다가 죽었고,

"코리앤튬오어도 땅에 쓰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느니라."(이더 15 : 29—32)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 "내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세우는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이 땅 위에 없을지라…"(이더 1 : 43)고 하셨으며 한때 부강했던 야렛 백성의 잔류자가 구모라 언덕의 기슭에서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구모라의 봉우리에서 이 비극적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아름다운 땅으로 복구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러자 곧 해답을 얻게 되었는데 그

들이 멸망하기 1500년 내지 20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은 바벨탑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의로운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땅으로, 다른 어느 땅보다도 복된 땅이었더라.

"또한 주는 진노로써 야렛의 동생〔그 백성의 지도적 예언자〕에게 맹세하사, 그때부터 영원토록 반드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가득한 주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여 저들을 쓸어 없애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이 땅이 약속의 땅임이라. 어느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임할 때 저들을 쓸어 없앨 것이요, 저들의 죄악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임하리라.

"보라 이 땅이 모든 땅 가운데서 으뜸되는 땅임이라. 그러므로 이땅을 차지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쓸려 없어지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이라.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질 때에 쓸려 없어지리라."(이더 2:7—10)

미국 땅에 관한 이러한 명령에 따라 야렛 백성은 지상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불응하여 "죄악이 무르익"었으므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고대에 의롭게 발전하여 위대한 국가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셨으나 사악함으로 타락하여 마침내 죄에 무르익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쓸려 없어진 백성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적한 대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점을 말씀하셨고 경전에도 이렇게 씌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실진대 아무도 이 땅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땅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오실 자를 위해 성별된 땅이라. 주께서 내리신 계명대로 주를 섬길진대 자유의 땅이 될 것임에 아무도 속박되지 아니하리라. 만일 속박된다고 하면 이는 저들의 완악함이니, 완악한 것이 일 때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나, 의인은 영원토록 축복을 받으리라." (니이 1:6—7)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에 거한 두번째 백성은 B.C. 600년경부터 A.D. 400년까지 미대륙에서 번성한 니파이 백성입니다. 이 백성도 야렛인과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멸망했읍니다. 그들이 죽음의 고투를 겪은 기사에서 다음 귀절을 인용해 드리겠읍니다.

니파이 백성의 역사가였던 몰몬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인 니파이인들의 멸망에 관한 기사를 끝마치노라. 우리가 레이맨인들에게로 진군하여 나아가… 구모라 땅으로 진군하여… 남은 백성들이 모두 구모라 땅에 모였고… 나의 백성들은 처자들과 더불어 레이맨인의 군사들이 저들을 향하여 진군하여 옴을 보고, 모든 간악한 자들의 가슴을 채우는 끔찍한 죽음의 공포를 안고 적과 마주칠 때를 기다렸으며,

"드디어 저들이 칼과 활, 화살, 도끼 등 온갖 무기를 들고 나의 백성들에게 덤벼들어,

"내가 거느린 만 명을 베어 넘겼고 나도 부상을 입고 그 가운데 쓰러졌으나, 저들이 미처 내 목숨을 끊을 새도 없이 지나쳐 갔으며,

"이와 같이 저들은 스물 넷을 제외한(이들 가운데 나의 아들 모로나이가 있었느니라) 나의 모든 백성들을 베어 넘기고 지나간 후, 죽은 자 중에 살아남은 우리들은… 구모라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니 만 〔230,000〕명의 나의 백성들이 베어져 넘어진 것이 보였고,

"…나와 함께 하던 스물 넷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남방 땅으로 피한 자가 몇몇 있으며 레이맨인에게로 모반하여 간 자가 몇 있었더라….

"…나의 심령은 찢기는 듯 비통하였던지라 나는 부르짖어 이르기를,

"오 너희 아름다운 백성들아, 어찌 너희가 주의 길을 떠났더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 가운데 서시어 팔을 벌려 너희를 맞으시려 하던 예수를 거절하였더냐!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던들 패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오 너희 사랑스런 아들과 딸, 아비와 어미, 남편과 아내들아, …너희가 어찌 패망하였느냐!

"오, 너희가 이 커다란 패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였더라면 얼마나 다행하였으랴"(몰 6:1, 4, 5, 7, 9—11, 15—19, 22)

모로나이는 얼마 후에 이렇게 기록했읍니다.

"보라 나 모로나이는 나의 부친 몰몬의 기록을 끝맺노니…

"구모라의 대격전 이후에, 보라 남방 땅으로 피해 달아난 니파이인들은 레이맨인들에게 탐색되어 결국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나의 부친 역시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내가 다만 홀로 남아 백성들의 슬픈 멸망의 기사를 기록하노라." (몰몬서 8:1—3)

야렛인과 니파이 백성들의 비참한 최후로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증명해 주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임이라. 어느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임할 때 저들을 쓸어 없앨 것이요, 저들의 죄악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임하리라."(이더 2:9)

모로나이는 이러한 지식을 적고,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했읍니다. "오 너희 이방인들아, (몰몬경의 예언자는 이방인이라는 말로 오늘날 미대륙에 사는 사람과 그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살던 땅의 백성들을 일컬었읍니다) 이 기록이 너희에게 전하여 짐은 너희로 하나님의 명하심을 알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짓기를 그쳐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게 하며 이 땅에 거하는 너희 주민들이 행한 바로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이 땅은 복된 땅이라 이 땅을 어느 백성이 차지하게 되든지 이 땅의 하나님 곧 그 나타나심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진대, 속박에서 자유로와질 것이요, 종된 것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유롭게 되리라."(이더 2:11—12)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실진대 아무도 이 땅에 이르지 못하리라." (니이 1:6)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컬럼버스는 1492년에 주님의 인도로 미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B.C. 590년에서 600년 사이에 니파이는 시간의 흐름을 시현으로 보았읍

니다. “내가 보니 한 사람이 이방인들〔여기서는 유럽 국가를 말합니다〕 가운데 섰는데 큰 물로 인하여…〔이 약속된 땅에서〕 떨어져 나와 섰더라,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심에 저 큰 물을 가로질러 약속의 땅에… 나아가니라.

“내가 또 보니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임하심에 저들도… 바다를 건너가더라.

“이방인의 무리가 약속의 땅에 있음을 보았고”(니일 13 : 12—14)

컬럼버스 자신도 자기가 주님의 인도를 받았었다는 사실을 확증했읍니다.

“이사벨라 여왕의 어전에서 어빙(그의 전기 작가)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는 자기도 놀랄 만한 능변으로 열성을 기울여 자기의 계획을 밝혔으며 후에 그는 자기가 ‘높은 곳에서 보내어진 불로 타올라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늘이 택한 자’라고 생각했었다고 선포했읍니다.

“아버지의 자서전에서 그의 아들 페르난도는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썼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념을 주셨고 나중에는 용기를 주셔서 기꺼이 탐험을 맡아 하게 되었읍니다.’

“컬럼버스의 의지는 이러했읍니다.

“‘거룩한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내가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면 스페인에서 인도까지 항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영감받았고 후에는 그 생각이 완전히 확정되었읍니다.’”(니파이 로엘모리스 저, 요셉 스미스의 예언과 그 성취, 데저렛 출판사, 1945년판, 289, 294—95페이지)

컬럼버스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 대륙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선택된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립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읍니다. 우리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의로운 노력이면 무엇이든지 성공시켜 주셨읍니다. 미합중국의 헌법은 “실로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세운 〔주님〕 현명한 자의 손을 빌어”(교성 101 : 80) 제정된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땅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지상의 구석구석까지 교회의 대리자를 보내왔으며, 지금도 보내고 있읍니다.

그분은 새로이 계시하셨으며 고대에 주신 명령을 몇 번이고 반복하셨읍니다. “이 땅이 모든 땅 가운데서 으뜸되는 땅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을 차지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쓸려 없어지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이라.”(이더 2 : 10)

이 지식이 계시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심을 알게 하려 함이요, 〔우리가〕 회개하여 죄 짓기를 그쳐 죄악으로 가득하지 않게 하며 이 땅에 거하는 〔우리가〕 행한 바로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이더 2 : 11)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절정을 맞게 되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그 사건이 가까와 오는 일과, 지금부터 그때까지 지상에 거하는 자를 위해 계획된 바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144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없이 악인에게 쏟아지는 그날,

“주의 음성은 땅 끝까지 미치리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1 : 9, 11)

그분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또한 주께서 진노하시고 주의 검이 하늘에 씻기었은즉 땅의 주민 위에 떨어지고,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때가 임박하였도다.

“그러나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교리와 성약 12—13, 35—36)

그러므로 전세계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회원이거나 비회원이거나를 막론하고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다가올 일이거나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명백하며 잘 밝혀져 있읍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일만이 남아 있읍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여 지상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죄악에 무르익을 때까지 율법을 거스릴 것인가 하는 것만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이 땅에서 의로운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저녁 신권회 말씀

성약에 따라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가 성약의 본질을 가르친다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급속도로 증가하는 교회 회원 수에 관련된 문제를 생각하면서 내가 느낀 점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긴급한 임무의 하나가 바로 수련 장로와 비활동 장로를 활동화시키는 일입니다. 현재 교회내에는 이러한 형제들이 수만 명이나 있읍니다. 더우기 매년 이 그룹에 속하게 되는 수가 활동화되는 수보다 더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같은 문제를 분석해 보면 결국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는 활동 이외에 또 다른 활동을 전개하여 이들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도록 해주어야만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때때로 갖는 오락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개심입니다.

사전에 따르면 개종하다라는 단어는 "전에 믿던 종교나 신념을 다른 종교나 신념으로 바꾸다."라고 되어 있으며 개심이란 단어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바꿈으로써 생기는 영적 도덕적 변화"를 뜻합니다. 그런데 경전에 사용된 개심이란 단어는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것, 따라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 보다 충실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심과 생각과 행동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심의 과정은 단계별로 성취될 수 있읍니다만 개인이 마음속으로 새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참으로 완전히 개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영적인 말입니다.

완전히 개심한 자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배치되는 일을 추구하려는 욕망은 실제로 없어지고 그 대신 계명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내포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깃들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그러한 자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로마서 6 : 3—4)

베드로는 가르치기를 인간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으로써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간의 우애, 사랑을 품음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례하는 자가"(벧후 1 : 4—7 참조) 된다고 하였읍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는 개심한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베드로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벧후 1 : 9)고 말했읍니다. 이와 같은 자는 비록 침례를 받았다 할지언정 개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읍니다.

몰몬경을 보면 개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좋은 예가 베냐민 왕의 고별 말씀이 수록된 기록에 나와 있읍니다. 이 말씀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으므로 베냐민왕이 말씀을 마쳤을 때 무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읍니다. 이는 "저들은 스스로가 육욕의 상태에 있으며… 존재임을 느껴 모두 한 소리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오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우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히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인간에게 오실 하나님의 아들…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오니이다."(모 4 : 2)

겸손해진 백성들을 보고 베냐민 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그가…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으라. 그가 천지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믿으며… "너희 죄를 회개하여 죄를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믿으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진실로 너희가 이 모두를 믿을진대 이를 행하라."(모 4 : 9—10)

그가 말씀을 마치고 나서 백성들이 자기가 한 말을 믿는지를 알아보았읍니다.

"백성들이 모두 한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기를… 우리는 참으로 왕이 이르신 모든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이 모두 참되고 진실함을 믿나이다…" (모사이야서 5 : 2)

그러면 어찌하여 백성들은 그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읍니다. "주의 영은 우리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갖게 하시어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하시나이다."

그들은 또 "이제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그의 계명에 복종할 것을 하나님께 언약하여…"라고 말했읍니다. (모 5 : 2, 5)

이같이 모든 비활동 회원이 개심할 수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주님의 사업 중에서 이들에 대한 중책을 맡은 장로 정원회 회장되시는 형제님들은 이들을 개심시키기 위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시어 온 마음을 다해 그대로 실천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관리하는 회장의 의무는 구십 육 명의 장로를 통할하며 저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며 성약에 따라 저들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이 회장(단)은 칠십인의 회장과는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온 세계에 나가 순회하지 아니하는 자를 회장으로 지명하여야 하느니라." (교성 107 : 89—90)

그들에게 성약을 가르치십시오. 성약이란 둘 이상의 주체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속력이 있는 성스러운 약속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성약을 맺는 백성입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에게 "성약에 따라 저들을(정원회 회원들을)가르치라"고 주님이 명하신 오늘날의 계명이 완전하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읍니다. 복음의 성약을 이해하고 믿으며 그대로 실천하는 회원이라면 한 명도 교회내에서 비활동 회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주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자신이 직접 영의 세계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늘 전쟁 때 그것을 얻기 위해 싸웠으며, 그가 만일 지상에서 충실함을 증거하면 영생을 상속받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 이 지상에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는 자기가 지상에서 맺은 성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바로 수많은 비활동 회원이 생기게 된 근본 이유의 하나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되시는 형제님들이 성약에 "따라" 비활동 회원들을 가르쳐 개심시킨다면 이 지상에서 맺는 성약을 가르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갖지 않은 자에게는 인생의 목표도 목적도 전혀 없읍니다. 따라서 그 외의 성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비행기 안에서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 한 가지 경험을 했읍니다. 나는 내 옆에 앉은 낯선 사람에게 직업이 무어냐고 물어 보았읍니다. 그는 대답을 하고 나서 나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그에게 그가 출생하기 전에 살았으며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지를 묻게 되었읍니다. 그는 그 사실에 대

해 알지 못했읍니다. 그는 자기가 출생하기 전에 살았을지 모르며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만 있었지 죽은 후에 올 삶의 형태와 성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읍니다.

그때 나는 그에게 가능한 한 간결하게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현재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복음의 계획을 소개해 주었읍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생활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 주는 것이군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맺는 성약은 바로 인생의 목적인 영생을 얻기 위함이요, 영생은 복음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설명되어 있고, 또한 그 성약에 따라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맺는 첫번째 성약은 침례 성약입니다. 나는 침례 성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앨마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보다 더 적절한 설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라 이곳에 몰몬의 샘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헤아림을 받고 영생을 얻기 원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너희가 마음으로 이같이 원할진대, 주가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주를 받들어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음에 꺼릴 바가 있겠느냐?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외치기를,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던 바라 하더라.

"이에 앨마가… 먼저 힐램이라 하는 자를 취하여 물 속에 들어가 서서 외쳐 이르기를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종 위에 당신의 영을 부으사 저로 이 일을 거룩한 마음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저가 이 말을 할 때에 주의 영이 저에게 임하신지라 저가 이르기를, 힐램이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너의 죽을 몸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언약으로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마련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영생이 그대에게 임하기를 비노라."(모사이야서 18 : 8-13)

주님은 이 침례 성약을 이처럼 중요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주 이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명하셨읍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교리와 성약 59 : 9)

우리가 성찬을 들 때 성찬 기도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매주 우리는 자신의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이 침례 성약 이외에 신권 소유자는 모두 매우 특별하고도 성스러우며 가장 중요한 성약 곧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교성 84 : 39)을 맺고 있읍니다. 이 성약은 교리와 성약 84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와 이 성약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들인 뒤에 이를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 (교리와 성약 84 : 33-41)

나는 만일 내가 맺은 성약을 깨뜨려 내게 그러한 형벌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내가 성약을 맺지 않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하곤 했읍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받은 이 신권에 이르지 못한 모든 자에게 화있을지어다."(교성 84 : 42)라고 기록된 그 다음 구절을 읽었읍니다.

나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바로 신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임을 알았읍니다. 이 성구를 통해서 나는 성신권을 받고 나의 신권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내가 영생을 얻기에 부족하게 되며 만일 내가 성신권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내가 영생을 얻기에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완전하게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신권을 받고 나의 신권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끝맺으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계명 하나를 주어 너희 스스로 조심하게 하노니, 곧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84 : 43-44)

이제 네번째 성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성약 곧 복음의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성약)", "침례 성약", "신권에 속해 있는 성약"에 대해 생각해 보았읍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가르쳐야만 할 성약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번째 성약이란 바로 해의 왕국의 결혼의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성약)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이러한 성스러운 성약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약들은 "엄숙한" 것들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너희 가슴 속에 간직하라. 그리하여 …엄숙함이 너희(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하라."(교성 43 : 34)

성약에 수반되는 책임은 보상을 받을 모든 자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맺은 성약을 지킬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약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하여 우리의 관리하에 있는 자들이

성약을 깨뜨린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셨읍니다. 내가 다시 읽겠읍니다. "…장로의 직분을 관리하는 회장의 임무는 구십육 명의 장로를 통할하며 저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며 성약에 따라 저들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주님은 신권 역원의 의무에 관한 중요한 계시를 끝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

"무릇 게으른 자는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고 신임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자도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107 : 89, 99-100)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약에 따라 생활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며 가르치라고 명하신 우리의 관리하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도록 도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복지 사업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과 가난한 자를 돌볼 지혜를 주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제가 들었던 말씀들은 지금 말씀드리고자하는 바를 충분히 잘 설명해 주고 있읍니다. 저는 그 말씀들을 듣고 몇 년 전에 겪었던 경험이 떠올랐읍니다. 우리 총관리 역원들은 스테이크 대회에서 어떤 제목에 관해서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습니다. 제가 유타주 리치필드에 갔을 때, 클리포드 영 형제는 유타주 몬로로 갔읍니다. 그들은 학생 합창단에게 아침에는 내가 방문한 스테이크에서 합창을 하고, 오후에는 영 형제가 방문한 스테이크로 건너가 거기서 합창을 하도록 부탁했읍니다. 나는 부탁받은 제목으로 오전에 말했고, 클리포드 형제는 오후에 말씀했읍니다. 우리들이 십이사도 평의회에 보고할 때 영 형제는 그 대회는 아주 훌륭했는데 잘못된 점이라면 그 학생들이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이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이셨던 조지 에프 리차즈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하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형제들이 말씀하신 그 훌륭한 말씀의 제목과 동일함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감독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복지 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생산 프로그램으로 특정지어지는 초기의 복지 프로그램, 개인 봉사, 건강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중 최초로 조직된 것은 지금 생산 분배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진 최초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창 3 : 19)라는 계명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 12 : 31)는 둘째되는 큰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계명은 고대 미국에서도 실시되었읍니다. 에녹의 시대에 이 계명이 실시되었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읍니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니 저들이 의롭게 살아가더라.

"주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주의 영광이 심히 크므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든 백성에게 있었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모세서 7 : 16—18)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실 당시 미대륙에 있었던 재난을 겪은 니파이인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삼십 사년과 삼십 오년이 지나매, 보라 예수의 제자들은 온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고…

"또한 저들은 저들의 온갖 소유를 공유하였던지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속박된 자나 자유로운 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자유로왔고, 저들이 모두 하늘의 은사를 받았으며,"(니사 1, 3)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교회가 조직되고 9개월 후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지시하셨읍니다. 동시에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셨읍니다. (교성 38편 참조)

다섯 주일 후인 1831년 2월 9일 주께서는 협동교단을 계시하셨읍니다. (교성 42편 참조)

그로부터 1개월이 못 되어 주께서는 다시 이것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에게 협동교단의 설립을 미루지 말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방문하여 저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교성 44 : 6)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 후 3년 4개월 동안 성도들은 미주우리주 인디펜덴스로 이주해서 협동교단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잭슨군에 있는 그들의 재산을 박탈당했읍니다. 시온 진영은 그곳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집을 찾아 주기 위하여 커틀랜드에서 미주우리로 왔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읍니다. 1834년 6월 22일 미주우리주 피싱 리버에서 주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집을 도로 찾아 주려는 그들의 시도가 실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읍니다.

"진실로 나는 고난을 겪는 나의 백성의 구속에 관한 내 뜻을 알고자 함께 모인 너희에게 이르노라.

"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말함이 아니요, 교회 전체에 대하여 말함이니, 나의 백성이 법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면 이미 구속함을 받았으리라.

"그러나, 보라, 저들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일 순종하기를 아직도 배우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온갖 악이 가득하며 성도로서 합당하게 저희 중에 가난한 자와 괴로움을 겪는 자에게 재물

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는도다.

"또 해의 왕국의 율법이 요구하는 융화 단결에 따라 일치 협력하지 아니하는도다.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건설될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시온을 내게로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나의 백성은 순종을 배우기까지 필요하면 저들이 겪는 고난으로 징계받아야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05 : 1—6)

그 당시 협동교단에 따라 생활해야만 할 자격이 박탈당했으므로 십일조의 법이라는 작은 율법이 계시되었읍니다. 이 법은 금식의 법과 더불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읍니다.

상호부조회는 나부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조직된 이후,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읍니다. 그 후로 성도들간에 많은 복지 계획이 자발적으로 시행되었읍니다.

그러나 협동교단의 원리와 부합되는 전교회적인 프로그램은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1936년 10월 대회에서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대관장단의 메시지"를 발표하였는데 오늘 아침 저는 그 메시지에서 몇 마디 인용하겠읍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서 안전이라는 말대신 복지라는 말로 바꾸어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 프로그램을 발표하신 후 곧 이와 같이 바꾸어 말씀하셨읍니다.

"지난 4월 대회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교회〔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했읍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교회에서 발표한 목표는, 1936년 10월 1일까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가난하고 합당한 교회내의 가족들을 위해, 전적으로 자발적인 헌금이나 헌물에 의해서, 다가오는 겨울 동안 그들이 필요한 충분한 음식과 연료와 의복과 침구를 마련하는 것이었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회원은 누구나 긴박하고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9년 전, 이 메시지가 발표되었을 때 저는 감독으로서 그 대회에 참석했읍니다. 나는 이 권고의 말씀에 따라 즉시 우리 와드의 집회소 지하실에 몇개의 저장실을 만들고 의복과 기본적인 식품을 모았음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렌트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그의 메시지를 계속했읍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게으름으로 인해 오는 불행을 없애고,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며, 독립심과 근면과 검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 가운데 다시 심어 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읍니다. 교회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브리감 영께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가난한 자에게 일을 시키십시오. —과수원을 일구게 하거나 침목을 만들게 하거나 도랑을 치게 하거나 울타리를 세우게 하거나 그외 유용한 일을 하게 하여 그들이 음식과 밀가루와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게 하십시오.'

"브리감 영이 하신 이 충고는 오늘날에도 시기에 알맞는 적절한 충고입니다."

그랜트 대관장께서는 그 당시에 그때까지 진척되고 진행된 일에 관해서 이렇게 보고했읍니다.

"모든 와드나 스테이크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와드나 스테이크를 도울 필요가 있읍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일을 행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몇 개의 와드나 스테이크가 그들 자신을 돌봄으로써 합당하게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읍니다.

"이 위대한 일은 겨울 동안에도 이 시기에 가능한 모든 활동과 더불어 줄곧 계속되어야 합니다. 봄이 오면 식료품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은 배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년보다는 쉽게 이 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파종 시기가 시작되면 바로 우리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가운데 궁핍과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는 끊임없이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와드 내에서 아무도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거나 헐벗는 자가 없도록 돌보는 책임은 감독에게 있읍니다. 감독은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모든 교회 조직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읍니다. 그의 와드 밖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감독은 스테이크 부장단에게 필요한 지원을 청할 수 있고, 스테이크 부장단은 지역 조직에게 요청하고, 이 지역 조직은 전반적으로 교회내의 가난한 자를 돌볼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교회의 관리 감독단에게 필요한 지원을 부탁할 수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이미 많은 축복을 마련하셨읍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돕는 그들의 의무를 행하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계속 많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몇 세대 전에 주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십일조를 주님의 창고에 들이기를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 세대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너희 재물을 나누어 줌은 내게 행하는 것이 되나니,'

"주님은 또한 다음과 같은 훈계를 주셨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나의 복음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자기의 몫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저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리라.'

"야곱은 니파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너희는 세상의 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라야 너희가 구하는 바 부를 얻을 것이요, 선행을 위하여 이를 좇으리니, 헐벗은 자를 입히며 굶주린 자를 먹이며 구속된 자를 놓아 주며, 병들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우리들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께서 끊임없이 그의 백성을 격려하셔서 우리들이 또다시 이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합당한 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랜트 대관장은 대관장단의 메시지를 발표하시고 나서 교회 회원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더블류 피 에이에서 계속 일하도록 요청할 때 전력을 다해 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예전에 공공 사업체의 책임자였던 나의 부친으로부터 '나는 돈만 벌기 위하여 일하는 자와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제 우리들은 더블류 피 에이에서 일하는 성도들에게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브리감 영 대관장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사실이며 또한 나에게 하나의 원칙이 된 것인데, 즉 누구든지 그들이 성한 육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벌 수 있고 이 땅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한, 돈이나 음식이나 의복이나 그 외 아무것이든지 거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원칙이며 행동원리입니다. 이 지상에 어떠한 사회도 이 원리에 어긋난 방법을 추구하면 망하게 될 것이며 그 구성원들은 게으름뱅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민족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36년 10월, 2-6페이지)

대관장단은 그들의 메시지에서 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에는 두 가지 면이 있음을 명백히 하셨읍니다. 즉 첫째로, 교회의 합당한 회원은 아무도 생활 필수품이 모자라 고생하는 자가 없어야 하며, 둘째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할 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이 메시지가 알려진 그 대회에서 제이 루벤 클라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일이란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상의 율법입니다. 아담이 쫓겨났을 때 그에게 다음과 같은 영광스러운 선언이 내렸읍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이 율법의 선언이 없었다면 그는 남자로서 존재하지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작가 밀턴은 그의 불후의 작품 '실락원'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를 묘사한 다음, 다음과 같이 일을 찬양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과 휴식을 낮과 밤 모양 사람에게 계속 있게 하셨으나… 다른 생물들은 온종일 하는 일없이 헤매니 그렇게 쉴 필요가 없소이다.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에 일정한 일과가 있어 여기서 자신의 위엄을 보이고 또 인간의 모든 면에 대해 하늘에서는 관심을 보이는도다.

그러나 다른 짐승들은 일하지 않고 헤매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는 바를 개의치 않도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일의 존엄성과 영예를 생각한다면,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이 태만한 가운데 의롭게 살 수 있는 어떠한 계획도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대회 보고, 1936년 10월, 112페이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복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실업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주기보다는 직장을 마련해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1974년과 1975년의 기록을 보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자의 겨우 4분의 1만 노동을 하고 보수를 받은 데 비해 나머지는 그냥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돌이켜 볼 때 당시의 신권 지도자들이나 우리에게도 결코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지금은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히고 걸음을 더욱 재촉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약 300 스테이크가 복지 사업 고용 센터 프로그램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974년에는 17,346명이 교회 고용 기구를 통해 취업했읍니다. 우리는 고용에 대한 신권 참여를 기쁘게 생각하는 한편, 현재의 불경기는 이러한 고용을 위한 노력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기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크게 유익하고 가치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이 복지 사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게으름으로 인해 오는 불행"을 없애고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고 "근면과 검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 가운데 다시 심어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 회원들이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대회 보고, 1936년 10월, 3페이지 참조)

이 프로그램 복지 생산 면에서, 우리의 기록은 양호한 편입니다. 대관장단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모든 와드와 스테이크는 소속 회원들을 부양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와드와 스테이크를 도와야 합니다."(대회 보고, 1936년 10월, 4페이지)

이러한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와드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와드와 제휴하여 생산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첫 5개년간인 1936년부터 1941년까지 멜빈 제이 밸라드 장로와 리 대관장(그 당시 스테이크 부장이었음)께서는 교회의 모든 스테이크를 돌아다니면서 복지 기구를 조직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가르쳤읍니다. 그 후 15년간 해마다 나는 미국과 카나다에 있는 모든 스테이크의 와드 및 스테이크 지도자들을 만나도록 지명받았읍니다. 나는 동반자와 함께 이 일을 수행했읍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다음해의 생산 예산을 배당하고 각 감독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감독과 협력해서 생산 계획을 수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읍니다.

그 당시는 스테이크 대회가 있을 때마다 복지 위원회 대표를 관리 감독단과 함께 동반하도록 하여 복지 모임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가르치게 했읍니다.

지금은 교회의 복지 사업을 가르치는 방법이 변경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과 다름없읍니다. 이 프로그램의 원리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 계획의 완전한 복음상의 원리는 협동교단입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및 카나다에 있는 와드의 73퍼센트가 복지 생산 사업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아직 27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1,000개의 와드는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와드가 단 한 와드도 없도록 노력해 보시지 않겠읍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시대의 표적을 알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그 시대가 가까왔음을 깨닫도록 애써야 합니다.

"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예비시키는 준비요, 기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한 예이니 이로써 너희가 명령을

성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에게 환난이 닥칠지라도 나의 섭리를 통하여 교회 회원이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요."(교리와 성약 78 : 13—14)

우리는 복지 예산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빨리, 사업을 해서 생긴 생산품으로 지불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는 복지 사업의 한 면에 관해서 말씀드렸읍니다. 그 외 다른 면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제와, 격려와, 위안과, 복구와 가정이 주어졌으며, 교제가 이루어지며 희망과 평안이 주어졌고, 그 외 주어진 자선 봉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돈으로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마련한 우리의 프로그램인 건강 프로그램은 놀라운 봉사 계획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이 프로그램의 몇가지 활동을 소개했읍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막대한 비용은 이 복지 프로그램 덕택으로 절약할 수 있읍니다. 예를 들면 1974년 7월 1일부터 1975년 6월 30일 동안 우리는 복지 사업을 통하여 자본비, 간접비와 같은 간접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2천만 불이 넘는 노임을 절약했읍니다.

미국의 교회 회원은 전체 인구의 약 1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지원을 구한다면 적어도 20억의 지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복지 사업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실시하지도 않는 지역에서 많은 회원을 개종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스테이크 부장 및 감독 여러분께 신중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복지 사업 선교사로 부름 받을 수 있는 신권 지도자와 그들의 부인을 파악하여 추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부들은 복지 사업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고 건강을 관리하거나 농업 선교사로 봉사함으로써 교회의 어떤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신권 지도자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 사업 선교사 부부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1. 형제는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 또는 복지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데 경험이 있는 기타 직책에 봉사한 자라야 합니다.

2. 그들은 현재 부양할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3. 그들은 18개월 내지 24개월 동안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 태평양 제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재정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4. 그들은 모든 표준에 합당한 자라야 합니다.

특히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자나 외국어를 속히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효과적인 "영향력" 또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지도력을 줄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각 스테이크나 와드의 회원 중에서 이러한 표준에 해당되는 부부를 찾아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찾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은 확신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위대한 일에 대한 증거와 간증을 갖고 있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이 훌륭한 일과 앞으로 하게 될 더 훌륭한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말씀

계보 탐구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교회 축복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이 죽은 자를 구속하기 위한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보다 쉬운 방편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선 아담을 지상에 두시고 그에게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지배권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높은 지위와도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이 땅의 만물을 다스릴 지배권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선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창 2 : 18)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이 되게 여성인 이브를 주었읍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선 그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큰 첫 계명을 주셨읍니다.

우리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덴 동산 밖으로 던져져 죽음을 맞볼 운명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곳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읍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최초의 가족 단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설립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인간의 발전 과정에 있어 변천되거나 폐기해 버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친근하고 소중한 모든 것은 우리의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의 중심은 사랑이며 사랑이 있는 곳에 또한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혼자있는 건 좋지 않읍니다. 지혜로우신 주님께선 인간이 이 지상에서 행복하며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방안을 부여해 주셨읍니다.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가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이와 같을진대 내세에서라고 달라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읍니까? 이 가족 단위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선 이 지상의 모든 가족이 함께 인봉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읍니다. 복천년이 끝나기 전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신권의 권능에 의해 한 가족으로 인봉되어야 합니다. 신권의 권능으로 땅에서 인봉하면 하늘에서도 인봉될 것이요,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지상에 온 모든 사람은 각자 복천년이 끝나기 전에 이들 인봉에 대한 축복을 받아들일 기회를 누구나 가지게 됩니다. 만일 그렇

지 않다면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이 인봉의 축복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오는 침례 의식을 통하여 얻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아내는 현세와 영원을 통해 남편에게 인봉되는 것이고 혼외 출생한 자녀들도 현재의 부모에 마땅히 인봉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새롭고 영원한 언약하에 태어난 것처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율법을 모르고 죽은 자들은 대리 축복을 받을 특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산 자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그런 다음 우리 가족들 중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들의 기록을 모아 그들을 위해 이 위대하고 중요한 사업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128편에서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인용해 보도록 합시다.

"나는 단언하거니와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원리 원칙이니 우리의 구원에 관계가 있어 결코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것이니라. 이는 죽은 자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임이라. 바울이 선조에 관하여 말한 것 같이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하게 될 수 없고 우리의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연고니라."(교성 128 : 15, 히 11 : 40 참조)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부활의 원리를 가르치며 다음 말로써 결론을 맺었읍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고린도전서 15 : 29)

이는 바울의 시대에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가 실시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모로나이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준 첫 지시 중 하나는 말라기 4장 5—6절의 인용이었읍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요셉 스미스 2서 38—39)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책임은 우리의 죽은 조상을 찾는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56페이지)

이것은 침례 및 인봉 사업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 즉 교회 회원으로서 지상에 살고 있는 자들만이 아닌 이미 지상에 살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우리의 조상에게까지도 행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선 첫째 부활의 열쇠와 신권의 권능을 회복하심으로써 이 위대한 사업을 해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1836년 4월 커틀랜드 신전에서 엘리야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인봉 열쇠를 회복했을 때 행해졌읍니다. 그 후 주님께선 이 선택된 시기에 내보내려고 보류해 두셨던, 복음을 받아들일 용기있고 강한 특별한 영들을 지상에 보내셨읍니다. 이들은 이제 지상의 모든 곳에 보내지고 있읍니다. 이들 선택된 영들은 복음이 주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엔 이들로부터 비롯되어 그들 가족과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신전에 나와 그들 자신의 인봉을 마친 다음 그들 조상을 위한 대리 인봉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선 더 한층 이 사업을 돕고 계십니다. 특별히 선택된 영들을 지상에 보내셔서 그들의 지혜를 축복하여 과학적인 수단과 시설을 개발해 낼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이름들을 수집, 분류, 보관, 점검하는 일을 중복없이 조직화하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셨읍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선 우리가 더욱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울 만한 일은 모두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도움을 잘 받아들이고 있읍니까?

우리는 이러한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있읍니까? 많은 개종자들이 그들 부모를 인봉할 기회를 얻기 위해 기꺼이 많은 돈과 노력을 바치며 그 일을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린 가능한 한 우리 조상들의 모든 기록을 함께 수집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저 적당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지런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시간이 날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간이란 결코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도 가족을 인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읍니다. 우리의 아주머니나 그 밖의 다른 친척이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변명은 있을 수 없읍니다.

계보 탐구를 하는 젊은 여성은 다음의 질문을 받고 대답했읍니다. "당신 족보에서 해적이나 전과자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인물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나의 책임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읍니다. 단지 그가 한때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만이 나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그가 있었던 덕분이며 그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위해 침례와 인봉 사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이 사업이 없이는 아무도 완전히 될 순 없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의 다른 일에 바빠 이 계보 사업에 시간을 낼 수 없었다는 변명을 받아들일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이 일을 모두 행하지 못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은 꼭 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읍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드립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선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록을 모으거나 특별한 선교 사업을 행할 위치에 있읍니다. 여러분이 수락만 한다면 주님께선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며 그런 일을 행함에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훌륭한 회원들이 많은 기록들을 그저 보관만 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그 기록들을 모으긴 했으나 신전 사업을 위해 아직 보내고는 있지 않읍니다. 그기록들을 신전으로 보냅시다. 그곳에는 그 사업이 행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읍니다. 킴볼 대관장님의 권고에 따릅시다. "실천하라." 이 말씀은 이 대회를

위한 훌륭한 표어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천하라.”

주님의 재림을 위한 우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사업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있길 빌며 이 사업은 곧 주님의 사업임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말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가 주님의 예언자의 지시를 따른다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할 수 있읍니다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세주께서 탄생하시기에 앞서 그의 탄생을 알리는 수많은 예언이 있었읍니다. 고대 예언자들은 그의 탄생 이전에 나타날 사건과 그가 태어난 후에 하실 일을 묘사해 줌으로써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이요, 주이시며,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읍니다. 이스라엘의 집에는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에 관해 수많은 예언이 기록으로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자로서 침례 요한을 보내셨읍니다. (눅 1 : 17)

그리스도의 탄생과, 일생, 사명 등에 관한 고대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그러한 예언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은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를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읍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대 우리는 그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의심없이 믿을 수가 있읍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사명을 다하였을 즈음에 제자들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에게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마 24 : 3-4)

이 질문에 대하여 구세주는 그의 재림 이전에 있을 표적과 사건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세심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바는,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며,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 위대한 표적과 기적을 보여 택함받은 자까지 속이며,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기근, 온갖 질병, 지진이 있겠고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대로 황폐함을 저주하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마 24장)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사건에 관해서 경전상에 나타난 이러한 예언은 지상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경고가 되며 안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표적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침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자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의심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읍니다.

말일의 계시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환란, 황폐, 재앙, 온갖 파괴적 힘이 만연되리라는 사실을 재천명하셨읍니다.

“그날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온 세계는 동요할 것이며…

“또 사람의 사랑은 차차 식어질 것이요, 악행이 가득 차리라.

“그 세대에 사람들이 있어… 휩쓸어가는 징벌을 보기까지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황폐케 하는 질병이 땅을 뒤덮을 것임이니라…

“각 처에 지진과 많은 황폐가 있으리라.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게 대적하며 검을 들어 서로 치며 죽이리라 하였더라.”(교성 45 : 26-27, 31, 33)

실제로 수년 동안 이 세상에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며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이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읍니다.

불안정한 정세하에 있는 나라도 있으며 망해 버린 국가도 있읍니다. 정당의 지도자나, 정부 관리, 기업가에게서 성실, 정직, 의로움 따위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읍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이 무르익어 가고 있읍니다. 사람들을 어두움과 죄악의 길로 속여 인도해 간 데 대하여 죄책감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읍니다.

그리스도나 예언자로 거짓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속임수로 많은 추종자를 얻고 있읍니다.

기근과 질병이 만연하고 있읍니다. 지진은 숫적으로나 그 심도에 있어서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 밖의 천재 지변도 같은 추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실제로 공공연히 그의 제자임을 주장하고 그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을 잊거나 등진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 판단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려 하고 있읍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하나님이 구식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하고 불변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피조물이 창조자보다 현명할 수가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재판정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신 인간이 만든 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읍니다. 영원히 같은 상태로 남아 계십니다. 즉 단호하고 강하시며 불변하시고,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비로 가

득 차 계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에 대항하고 있읍니다. 사탄은 바야흐로 인간과 국가에 관하여 지대한 세력을 떨치고 있읍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 방침에만 따를 경우에는 문제가 증가되고 오해가 발생되어 결국 더 심각한 투쟁과 싸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읍니다.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교성 1 : 12)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이렇게 경고하셨읍니다. "주의 크신 날을 위하여 예비하라."(교성 133 : 10)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과 충실성으로 주님의 벌을 피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완전히 이해하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과 가정을 질서있게 영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영혼을 추구하고, 잘못한 일을 인정하며, 필요한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좋은 아내요,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의의 길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그 시간 안에 나의 일을 서둘리라."(교성 88 : 73)고 말씀하셨읍니다.

주님의 사업은 서둘러야 합니다. 남은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일에 주님의 왕국을 서둘러 진작시켜야 한다는 감정은 공포나 당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의 빛과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왕국을 세우고 강화시키고자 기필코 신속하게 움직여야 겠다는 욕망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고 예언자에게 사자를 보내어 자녀들이 주님의 재림때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경고함으로써 작업을 서두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강조하셨읍니다. "열 한시라. 내가 포도원에 일꾼을 불러들여야 할 마지막 시각이니라."(교성 33 : 3)

말일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구세주는 그의 왕국이 지상에 마지막으로 건설된다는 점을 긍정하셨읍니다. (교성 27 : 13 참조)

예언자 다니엘은 말일에 하나님의 사업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않으며 영원히 서게 될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예시를 받았읍니다. (단 2 : 44 참조)

지금은 복음의 경륜의 시대이므로 마지막 경륜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일에 세워질 그의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읍니다. 하나님은 결국 대적인 사탄을 비롯해서 모든 적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말일에 사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경고할 책임은 막대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눅 10 : 2)

이와 같이 영혼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야 하는 목표에 대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는 모든 국민과 혈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증원하고 있읍니다. (교성 77 : 8 참조)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재차 경고하셨읍니다. "진실로 내가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밤에 오는 도적같이 세상에 임하리라." (교성 106 : 4)

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가운데서 외치게 하셨음이니,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저의 오시는 시각이 가까와 옴이니라."(교성 133 : 17)

교회의 성도들과 온 세상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시키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는 목표를 우리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고와 충고의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합시다.

"주의 팔이 나타나리니,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이리라.

"이는 저들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 바빌론 곧 멸망할 대바빌론처럼 파멸하리라."(교성 1 : 14-16)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성 1 : 38)

주님은 백성들에게 영적이거나 세상적인 일을 설명해 주고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교회 안에 예언자, 사도, 교사를 두셨읍니다. 이 지도자의 권리, 권위, 신권은 모두 구세주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임명된 지도자의 충고에 따르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살아 있는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매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예언자라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저의 교사이시며, 지도자요, 본이 되십니다. 저는 신앙으로 그분을 지지하며 기도로 그분을 받듭니다. 그분이 예언자로 부름받으신 사실과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읍니다. 그분은 성품이 곧으시고, 예리한 정신의 소유자이시며, 현명한 충고를 주시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며 명확한 시현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이시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이시며, 주님의 예언자가 주시는 가르침, 충고, 그분의 모범에 따르면 결코 길을 잘못 들지 않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일에 관해 많은 지식을 주셨읍니다.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

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눅 21 : 25-28, 34, 36)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이 성취될 날이 언제가 될지 구별할 줄 알며, 가정을 질서있게 가꾸며, 이 중대한 날을 위해 다 같이 준비하도록 합시다.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예비" 시키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이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저녁 신권회 말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가 남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우리의 표준을 버리지 않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단상에 앉아 이 유서깊은 태버나클에 참석한 많은 신권 소유자들을 나려다보면서, 어셈블리 홀, 솔트 펠리스, 프로보의 메리오트 센터, 그 외에 캐나다와 미국을 위시한 전세계 각처에 있는 건물에 모인 수많은 성인 남자와 청소년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 보았읍니다.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실로 보다 훌륭한 사업과 보다 나은 생활을 이룩하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 위대한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음을 깨닫고는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어떤 위압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오늘 저녁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나는 교회 회원으로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모든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도록 택함을 받은 훌륭한 젊은이들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며,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교회와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젊은 남녀들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신권을 존중하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읍니다.

그들 중에는 문제를 가진 젊은이들도 있읍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회개하고 올바르게 생활하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충실한 자에게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자신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말일에 살 수 있도록 허가받은 선택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부름이라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신권과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합당한 주님의 선택받은 종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도록 예임받았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지도력에 의지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개개인의 생활에 선한 영향력이나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향력은 후세대에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의 인구와 비교해 볼 때 약 999,000 대 1의 비율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있으며, 기독교인들 중에서 333 대 1의 비율로 우리 교회 회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막중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인류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신권 소유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위대한 권세와 영향력과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감당해야 할 많은 목표와 문제를 지니고 있읍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전세계에 만연된 악으로 생긴 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이를 해결하도록 돕는 데 지도력을 제공해 주기 위해 그러한 권세와 힘과 영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은 말일에 그의 교회를 세우시어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게 하셨읍니다. 교회의 미래는 물론 세상의 미래도 우리가 신권의 직분을 얼마큼 성실히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읍니다. 집사, 교사, 제사,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모두 구세주가 쓰시는 도구가 되며,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인 주님의 사업과 영광"(모세서 1 : 39 참조)을 구세주께서 성취하시도록 그분을 도와야 할 책임과 특권을 갖고 있읍니다.

우리가 모두 자신이 소유한 신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며, 매일 온갖 방법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데에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갖게 될 방대한 영향력은 상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측정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가 가진 신권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깨닫지 못하거나, 필요한 때에 의로운 일을 수호하고 남보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확신과 용기와 굳은 의지를 갖지 않고 있읍니다.

소년은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으며, 청년은 축구 선수단의 일원으로서 또는 대학 캠퍼스에

서 또는 동료 그룹 가운데서 복음대로 실천하고 신권을 존중하며 의로운 일을 수호하고 남몰래 선행을 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읍니다. 여러분처럼 믿는 자들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여러분을 존경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비난과 조소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세주는 그의 확신을 굽히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통과 조소와 모욕을 받으셨으며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어 돌아가셨읍니다. 여러분은 잠시 멈추어 서서 만일 구세주가 연약해지셔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사명을 저버리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읍니까? 우리는 임무를 저버리는 나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반대와 악을 무릅쓰고 대항하는 용기있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진실하고 충실한 추종자로서 헤아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가져야 하겠읍니다.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읍니다. "행할 바를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가진 것 같은 성도들이 복음대로 생활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반대를 무릅쓰고 대항할 용기와 힘을 갖지 않고 있는데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읍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르침과 믿음에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고 행하게 하는 이유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에게 두세 개의 성구를 인용해 주었읍니다.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을 받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함이며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였음이니,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 (교리와 성약 121 : 34-36)

그런 후에 다음 성구를 인용했읍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딤후 3 : 1-5)

끝으로 다음 성구를 인용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요. 12 : 42-43)

이 마지막 성구가 바로 오늘 저녁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태도를 지니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만일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오늘 저녁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개선하고, 회개하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망각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읍니까? 우리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마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신권 소유자가 자신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할 때 세상에 미치게 할 크나큰 선한 영향력을 측량할 수 없으며 또한 개개인이 항상 의로운 일을 선택할 때, 그에게 오는 행복과 성공의 삶을 상상하거나 측정할 수 없읍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의로운 일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자를 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나는 국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기있고 좋은 동료가 되기를 원했던 훌륭한 교회 회원 한 명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잊지 않고 있읍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인기를 얻고자 했던 그는 그의 표준을 낮추어 버리고는 사교 모임에서 술을 한 잔씩 마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술을 마시는 일이 되풀이되었읍니다. 그는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할 때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 시작했읍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그의 선거구의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를 사랑하던 친구와 가족의 존경마저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로 일찍 죽고 말았읍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는 그가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읍니다.

이같은 예는 많이 있읍니다.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중에는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거나 유혹에 대항할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직은 물론, 자존심도 상실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존경도 받지 못하게 된 자들이 있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읍니다. 이 약속에 언급된 모든 것이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기를 바라며,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표준을 지키지 못하게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표준에 따라 행할 때 우리에 대해 더 큰 존경심을 갖는다는 것을 다 함께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부 관리로 일할 때나 회사일에서나 사생활에서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한 것으로 인해서 난처하게 된 적은 전혀 없었다는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발전에 지장을 준 적도 결코 없었읍니다. 오히려 나는 존경을 받았으며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힘과 인도를 받기 위해 주님께 간구하기를 꺼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나는 종종 힘과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확실히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며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표준을 저버리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관리 역원 한 분은 그가 제사였을 때의 경험담을 들려 주셨읍니다. 나는 그분을 조지 형제라고 부르겠읍니다. 조지 형제의 친구는 파티를 마치고 나서 그의 여자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 중이었읍니다. 그녀의 여동생도 그들과 함께 가고 있었읍니다. 그는 조지 형제에게 그들과 동행할 것을 제의했읍니다. 조지 형제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

읍니다. 그는 그들이 집에 도착하여 다 함께 거실에 앉은 후 조금 있으려니까, 그가 집에까지 데려다 준 소녀가 일어나 걸어 나가더니 전등을 끄고 다시 돌아와서는 그의 무릎에 앉아 치근거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자기가 인기없는 무례한 자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과를 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고 말했읍니다.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들려 주시면서 자기는 오늘날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기를 겁장이라고 여기리라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그분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셨읍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 〔보디발의 아내〕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창세기 39 : 11-12)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하여 이같은 유혹을 당하게 되었으며, 주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하셨는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만일 내가 그녀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나는 결코 주님의 종으로서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여러 번 내렸읍니다."

어떤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 청년은 "그러한 행동이야말로참으로 용기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라고 대답했읍니다. 그 후로 나는 이와 같은 경우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연약함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지만 의로운 일을 택하여 행하는 것은 진실로 용기있고 기골이 있으며 강한 의지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읍니다. 가장 강한 자일지라도 항상 깨어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 생애의 진로는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좌우됩니다. 청년은 물론 성인들도 이러한 시련이나 시험을 겪곤 합니다. 우리의 충실함과 훌륭한 성품이 실제로 시험받는 경우에 모든 유혹은 똑같지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심을 잊지 않을 때면 우리는 유혹을 멀리하거나, 피하거나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불장난을 하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훌륭한 시민으로서 사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름과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할 정도로 세상의 일에 지나치게 얽매여서는 안 되겠읍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곧고 좁은 길에서 점차로 이탈해 나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며,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완전히 이탈하게 되고, 우리 자신과 가족과 주님께 실망을 안겨 줄 것이며 자신이 기대하거나 생각하거나 원했던 인물이 전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한 자가 그의 동료 그룹에게 환심을 사기를 원하며 그들의 칭찬을 받기를 더 좋아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본보기를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흔히 성공에 집착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더 좋아하는 운동 선수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와 하나님의 인정의 중요성을 망각하며, 그 결과 길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이 원리는 정치인, 친목회 회원, 교수, 실업인 등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이 행동을 지배할 때가 많읍니다. 사람들은 이같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단지 인사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인격을 낮추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읍니다. 그때 그는 내게 항상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사탄의 어두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사탄은 전세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했으나 그 영예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 되게 하는 조건을 내세웠읍니다. 그는 결과보다는 명예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영광과 칭찬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었읍니다. 내 친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매우 중대한 문제에 당면하여 만일 개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는 사탄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은 틀림없이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해로운 것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은 영원하고 유익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리를 꾀하는 임시적인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 더할 나위없는 만족감을 갖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 칭찬이 정당한 것이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심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사람의 칭찬은 덧없고 가장 큰 실망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에게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도덕을 권장하고 조장하는 말로 떠들어 대는 자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이같은 악에 대항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십계명의 하나인 "간음하지 말찌니라" (출 20 : 14)는 계명에 명백히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려는 것을 보는 것은 진실로 충격적이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고전 6 : 9)

우리는 또한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이와 같은 일을 합법화하는 법률이 이미 제정되었으며 현재 제정되고 있음을 압니다. 이러한 법률은 악을 묵인하는 가장 나쁜 악법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은 그의 신권 소유자인 우리가 의로운 일을 수호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이같은 조치를 반대하고 저지시키며, 성도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도록 권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는 닐 맥스웰 장로의 말씀을 인용해 드립니다. "간직하기 힘들지만 참되며 마땅히 전해져야만 할 일을 기꺼이 말하는 지도자는 진실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친절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그의 추종자들의 칭찬과 찬양을 받기 위해 그들을 안전한 곳에서 꾀어내어 아무도 결코 다시 나올 수 없는 숲 속으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잔혹한 일은 없읍니다. 생명에 이르는 곧고 협착한 길은 문자 그대로 곧고 좁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여로입니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크고 넓으며 그 경사는

완만합니다. 그 길을 걸어 가는 자들은 아래로 떨어지리라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읍니다. 때로는 그들은 사람의 칭찬으로 주위가 산만해져서 경고의 표시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할 때도 있읍니다. 항상 금송아지와 십계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1975년 8월 12일자 편지, "명상", 태너 부대관장에게 보낸 널 에이 맥스웰 장로 편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실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디모데후서 4 : 1—4)

네 권의 표준 경전인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 기록된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어 있으며, 말일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시를 주시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계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읍니다.

사도행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 : 12)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 : 15)고 한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행할 수 있게 우리가 모두 용기, 힘, 이해력, 소망 그리고 결의를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10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 말씀

하나님의 율법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법의 지배를 받고 있읍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템플 스퀘어의 이 역사적인 태버나클에 모이신 여러분과 이곳 이외의 지역에서 저의 말씀을 듣고 계실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미국의 독립 이백 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보라 이 땅은 복된 땅이라. 이 땅을 어느 백성이 차지하게 되든지 이 땅의 하나님 곧 그 나타나심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진대, 속박에서 자유로와질 것이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유롭게 되리라." (이더서 2 : 12)

주님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실로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세운 현명한 자의 손을 빌어 이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게 하였으며…"(교리와 성약 101 : 80)

저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과 함께 우리의 조국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입법자들이 제정한 헌법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에 충성스럽고 헌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젊은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왜 우리에게는 법이니, 규율이니, 규제가 이리도 많습니까? 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기쁨을 얻기 위함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중 가장 큰 은사가 자유의지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에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과 창조주께서 형성해 놓으신 우주 자체까지도 자연법이라는 법에 의하여 운행되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이나 인간에게도 각기의 법이 있어야만 질서를 세울 수 있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읍니다. 저는 청년에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었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얼마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읍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오늘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율법의 존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세 가지 부제로 나누겠읍니다. 첫째, 자연법, 둘째, 인간의 법 또는 국법, 세째, 인간의 구원과 승영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법.

먼저 자연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태양이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읍니까? 만일 지구가 하루 동안, 혹은 단 몇 분간이라도 지축을 중심으로 하는 자전을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만일 만유인력의 법칙이 일시 정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순식간에 이 지구와 온 인류는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공간의 지배를 받으며, 법칙에 따라 운행합니다.

만일 쇠가 열을 받았을 때 어떤 때는 팽창하고 어떤 때는 수축한다면 아무도 기계 상점을 운영하거나 어떠한 도구도 만들어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은 불변하는 것이므로, 인간은 언제 어느 때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이 법칙을 의존할 수 있읍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연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목

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자연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달에 인간이 착륙하여 거니는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나라에서 발사된 우주선이 공간 속에서 랑데뷰를 하는 것을 보고 인간과 우주에 대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읍니다. 우리는 화성에 생물체가 존재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바이킹을 보내는 것을 보았읍니다. 만일 자연법이 하나라도 무시되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주 공간 활동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며, 생명까지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혜성의 나타남이나 일식 또는 월식을 정확하게 예측할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법, 즉 창조주께서 그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법은 진리의 적용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의 기록에서 발췌한 몇 가지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프랭크 크레인 : "진리란 우주의 윤리요, 운명의 이성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고안품이나 발견품으로는 어떠한 것도 이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레오 제이 뮤어의 영원한 신호등에서 발췌함,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뉴스사, 1928년, 100페이지)

더블류 레드클리프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기본되는 진리에는 진보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그 진리의 의미를 아는 지식과 그것을 적용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발전할 수는 있으나, 진리 자체의 대원리는 영원히 불변한다."(같은 책, 101페이지)

요셉 스미스에게 보이신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저는 이미 만물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으로 때와 계절에 따라 만물은 운행되느니라."

"이 운행의 궤도는 일정하여 변함이 없나니, 실로 땅과 모든 유성을 품은 여러 하늘과 땅의 궤도가 그러하니라.

"땅과 별들은 그때와 계절에 따라 분과 시와 일과 주와 월과 년으로 제각기 서로 빛을 발하나니…"

"지구는 제 길을 운행하며 해는 낮에 빛을 발하며 달은 밤에 그 빛을 내고 별들도 제 빛을 내나니,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제각기 영광 중에 자기 궤도를 운행하는도다."

"보라, 이 모든 것은 다 왕국이니, 그 어느 것이든지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본 자는 위엄과 권세로 당당히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8 : 42-45, 47)

자연법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거나 못하거나를 막론하고 항상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읍니다. 법칙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일지라도 불에 손을 넣으면 뎁니다.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다치기 쉽습니다. 자연법을 알고 이해하며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그로 인한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자연법을 무시하여 역행하는 사람에게 당면하게 될 재난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이제, 국법 또는 인간의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법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읍니다. 교리와 성약의 말씀을 인용하겠읍니다.

"우리는 곧 정부는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으로 믿노니,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복리와 안전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며 이를 집행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취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지으신 줄로 믿는다.

"우리는 정부가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 재산의 소유권, 그 관리 및 생명의 보호를 보장하는 등의 법률을 제정하며 이를 침범당하는 일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일지라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음을 믿는다.

"우리는 모든 정부가 정부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관리 및 장관을 요함을 믿으며 공평과 정의로써 법률을 집행하는 인물은 공화국의 경우 백성의 투표로써 기타의 경우에서는 주권자의 의지로써 공직에 등용되며 지지되어야 함을 믿는다."(교리와 성약 134 : 1-3)

신앙개조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

모든 시민은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은 국법을 알고 이해해야 하며, 시민은 정부의 제반 사무를 처리해야 할 정직하고 현명한 자를 선거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어떤 법률을 통과시켰고 그 법률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합헌적인 법률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헌성을 의심하여 무시하고 어기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 "악법이 존재한다면 되도록 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한 악법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법 준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에 동의합니다.

"법을 거스리고 경멸하는 자는 자기가 앉으려는 판자를 톱으로 잘라 버리는 사람과도 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법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사회를 붕괴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법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사회 미덕의 기초가 되며, 그 반대는 폭동과 무정부의 기초가 됩니다."(케이스 앤드 코맨트, 3/4월호, 1965년, 20페이지)

법을 무시하고 파괴하거나 법을 자의적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읍니다. 예수를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하냐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법을 지키는 위대한 시민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셨읍니다. 예수께서는 세금내는 돈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 있느냐고 질문하신 후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답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마태복음 22 : 21) 모든 나라의 시민은 자기가 살기로 택한 국가에서 그 나라의 국법을 지키며 생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인용하겠읍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자기의 고유하며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정부의 법률로 보호받는 동안, 각자가 속하는 정부를 지지하며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보호를 받는 국민으로서 치안 방해 및 모반을 획책함은 온당치 아니하며 따라서 그같은 자는 응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또 모든 정부는 공공의 복리를 보증하기 위하여 정부의 판정으로 가장 잘 계획된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양심의 자유를 신성하게 유지시켜야

함을 믿는다."(교리와 성약 134 : 5)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연법과 같이 분명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변경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 행복과 불행은 모두 이 법을 우리의 생활에 잘 적용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르게 됩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 : 20—21)

복음에는 인간 관계,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관계되는 생명의 법, 즉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에서 자연법이 확실하게 적용되었듯이 복음이 관계되는 범주 안에서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지식을 얻어야 하는 중요성과 법을 지켜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성도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하리라.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고 순종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130 : 18—19)

주님의 말씀이 너무도 우리에게 분명하며, 그의 율법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분명하게 마련되었는데도 왜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우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여 스스로 비참하고 불행한 길로 들어가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종종 있읍니다.

예언자 야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주의 훈계를 따를지니, 보라 너희가 이미 스스로 알고 있으려니와 주는 지혜와 공의와 크신 자비로써 주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니라."(야 4 : 10)

솔로몬은 그의 크신 지혜로써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 : 5—6)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보여 주고 있는 길 표시판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있읍니다. 다음은 그 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찌니라"(출 20장 참조)

산상수훈을 여러분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위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읍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마태복음 22 : 37—39)

이 두 가지 계명이 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킬 때 평화와 의로움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예언자를 통하여 직접 계시하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다른 경전을 지침으로 갖고 있읍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오늘날 주님께서 도구로 삼아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할 때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 : 16)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 : 39) 주님에게 있어서 이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까지 희생하였으며, 그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되었고 불사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성취하는데에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기회와 축복과 특권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읍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졌읍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 : 10)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도 있읍니다.

"무릇 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는 나의 제자니라. 그러나 말로는 율법을 받아들였노라 하나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 너희 가운데서 쫓아 낼지니라."(교리와 성약 41 : 5)

대회 보고

Conference Report 1973~1975

STOCK NO. PZSI0094KO

인쇄일 1977년 11월 1일
발행일 1977년 11월 15일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전화 74-6832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 회사

출판등록 1970년 2월 25일 가 제1—2호

PRINTED IN KOREA 11/77